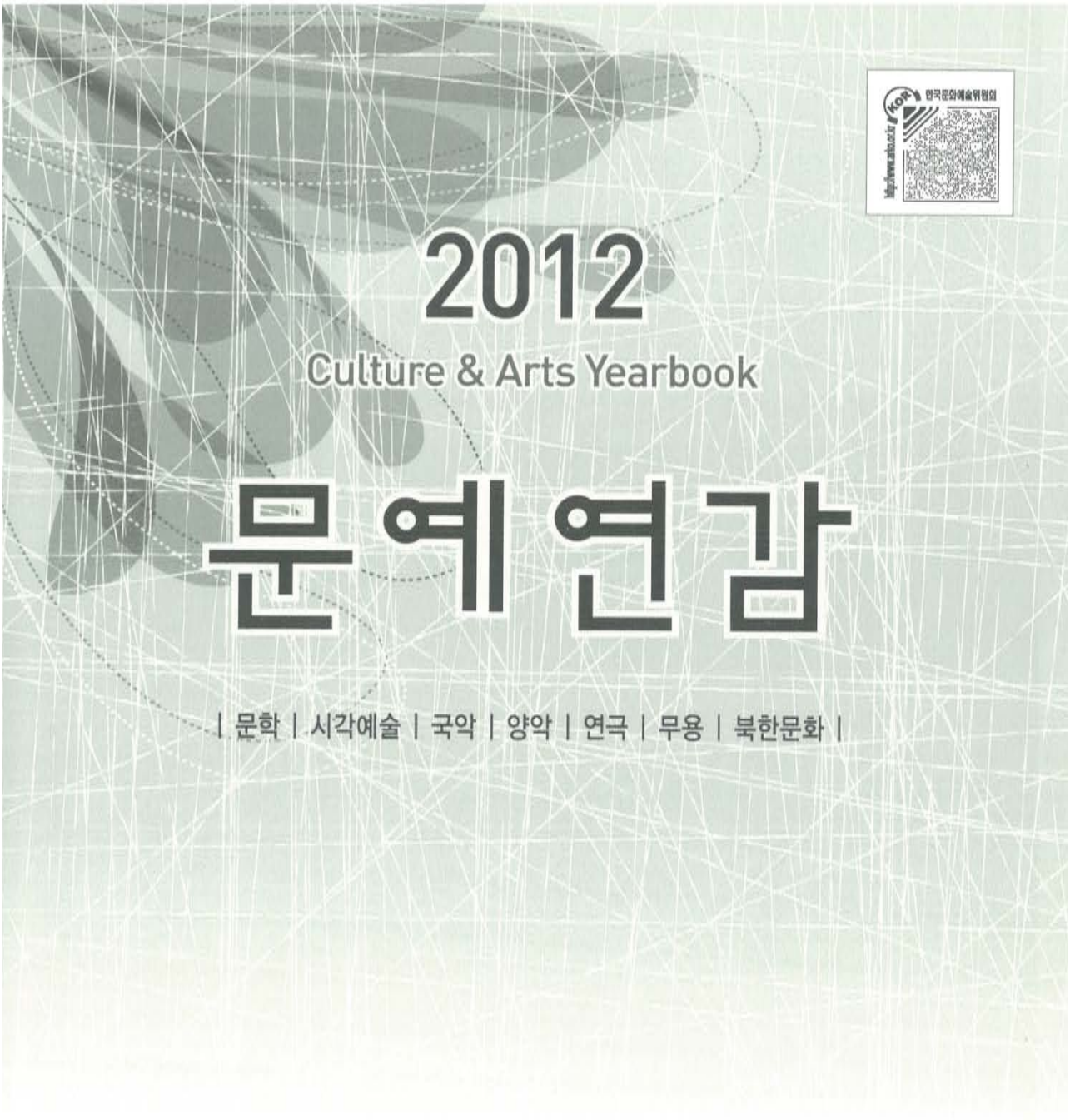


2012

Culture & Arts Yearbook

문예연감

| 문학 | 시각예술 | 국악 | 양악 | 연극 | 무용 | 북한문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2년도판 문예연감 발간사

1976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나라 예술현장의 활동을 정리해 온 『문예연감』은 우리 예술계의 현황과 성장과정을 나타내 보여준 귀중한 사료집입니다. 올해도 지난 2011년 한 해의 모든 예술활동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분석한 『2012 문예연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2 문예연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각 장르별 편람에 따른 현황 분석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2011년 주요 이슈를 정리한 총론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북한 문학예술계의 동향과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2012 문예연감』은 2011년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계 활동을 진단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 문예연감』 본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필자들이 다양한 매체와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화예술 행사로 인해 혹여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문예연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료 수집과 기록, 분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 문예연감』이 귀중한 사료집으로 제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2012년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권 영 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목 차

문 학 ▣ 총 론 ····· 19
▣ 현황분석 ····· 27

시각예술 ▣ 총 론
· 1부 회화, 조각, 공예 ····· 81
· 2부 사진/판화,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서예, 미술이론/미술비평 ··· 103
▣ 현황분석 ····· 132

국 악 ▣ 총 론 ····· 155
▣ 현황분석 ····· 167

양 악 ▣ 총 론 ····· 215
▣ 현황분석 ····· 228

연 극 ▣ 총 론 ····· 273
▣ 현황분석 ····· 290

무 용 ▣ 총 론 ····· 337
▣ 현황분석 ····· 348

북한문화 ▣ 2011년도 북한 문학예술계의 동향과 성과 ····· 391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러두기

■ 문학

❑ 조사 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료조사 현황

- 단행본 발간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검색

구 분	시	소설	수필/산문	희곡	평론	번역
종 수	1,416	1,814	1,618	27	708	1,756

- 주요 문학잡지

종 수	조사대상
69	계간 문예, 계간 수필, 나래 시조, 내일을여는작가, 대산문화, 리얼리스트, 리토피아, 문예연구, 문예중앙, 문장웹진, 문학 선, 문학과사회, 문학과창작, 문학나무, 문학동네, 문학들, 문학마당, 문학미디어, 문학사상, 문학의문학, 미네르바, 미루, 불교문예, 서정시학, 세계의문학, 시로여는세상, 시문학, 시와시, 시안, 시에, 시와동화, 시와반시, 시와사람, 시와사상, 시와세계, 시와시학, 시와정신, 시인세계, 시인시각, 시작, 시평, 신생, 실천문학, 심상, 아시아, 어린이와문학, 에세이플러스, 열린시학, 오늘의문예비평, 월간문학, 월간에세이, 자음과모음, 작가들, 작가세계, 작가와사회, 창비어린이, 창작과비평, 펜문학, 학산문학, 한국문학, 한국소설, 한국수필, 한국희곡, 현대문학, 현대시, 현대시문학, 현대시학, 황해문학, 21세기문학

- 주요 문학상

구 분	종합	시	소설	아동	시조	수필	평론	번역	청소년	희곡
조사대상(종)	162	74	42	38	24	12	11	5	5	1

- 주요 문학행사

구 분	조사대상(종)
기념 및 추모 행사	7
낭독·낭송 및 공연	21
작가와의 대화 및 만남	16
문인대회	6
문학강연	14
문학의 밤	11
문학기행	1
문학제, 문학축전	62
문학캠프, 문학학교	8
백일장	15
전시	13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39
기타	14

❑ 작성항목

항 목 명	작성 내용
대분류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중분류	분야에 따른 장르 구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작가	단행본 및 작품발표 작가명
도서명	단행본 표제
출판사	단행본 출판사명
역자	단행본 번역자명
장르	단행본의 장르별 종류
작품명	잡지 게재 작품명
수록잡지	작품수록 잡지명
호	잡지 발행 호수
시상 명칭 및 호수	문학상명과 호수
수상자	문학상 수상자명
수상작	문학상 수상작명
주최	문학상 운영자명
연월일	문학행사 및 문학소사 관련 날짜
행사명	문학행사명
행사주체	문학행사운영자명
행사내용	문학행사내용

❑ 분류방법

- 문학 분야를 단행본, 잡지, 문학상, 문학행사, 문학소사 등 5개로 크게 분류했다.
- 단행본은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 희곡(시나리오), 번역 분야로 분류했다. 시 분야에는 시조, 개인 시집 외 편저, 합동시집을 포함했고, 소설 분야에는 개인 창작집 외 편저, 장르소설을 포함했다.
- 잡지는 소설, 수필(산문), 시, 시조, 평론, 기타 분야로 크게 분류했다. 평론 분야는 소설평, 시평, 공연평론, 희곡평론, 음악평론, 작가론, 시인론, 서평과 함께 특집 시평(時評), 특집 칼럼, 지상강좌, 계간평, 월평, 기고 등을 포함했다. 기타 분야는 희곡, 동시, 동화, 콩트, 외국문학, 좌담, 청소년, 만화로 구성했다.
- 문학상은 특별한 분류 없이 매체와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된 문학상을 최대한 포괄하였다.
- 문학행사는 시간 순서로 개최된 문학 관련 행사를 개최 날짜, 행사명, 주관단체, 장소, 행사내용 순으로 기재하였다.
- 문학소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문학 관련 사건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시각예술

❑ 조사 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료조사 현황

- 조사대상

조사대상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1월호부터 12월호에 수록된 전시 목록을 바탕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수집한 팸플릿, 도록, 엽서, 보도자료, 신문 미술기사, 잡지 미술기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

- 신문 미술기사

지 역	신 문
서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15종의 신문
지방	『강원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충청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일보』, 『광주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13개 해당 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정보 및 연합뉴스의 미술 소식 등

- 잡지 검색

분 야	검 색 어
미술종합지	『월간미술』, 『아트인컬처』, 『아트프라이스』, 『퍼블릭아트』, 『미술세계』, 『미술시대』, 『미술신문』, 『월간미술인』, 『서울아트코리아』, 『옥션앤컬렉터』, 『매거진아트』, 『아트웨이브』
장르별 전문지	조각 전문지 『계간조각』, 공예 관련 『월간도예』, 『공예사랑』, 사진 관련 『월간사진』, 『사진예술』, 『포토넷』, 『포토박스』, 『포토저널』, 서예 잡지 『묵가』, 『서예문인화』, 『서예문화』, 『월간서예』, 디자인 잡지 『월간디자인』, 『디자인네트』, 『지콜론』
지방 문예지	『문화나루』, 『기전문화』, 『대구문화』, 『갑천문화』, 『대전예술』, 『이츠 대전』, 『예술에의 초대』, 『보일라』, 『광주아트가이드』
문화재 관련지	『박물관 뉴스(구 박물관신문)』, 『문화재사랑』, 『월간문화재』 등
무가지	『아트뉴스(주영출판사)』, 『비아트』, 『전시가이드(월간전시 발간)』
기관지	『너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메세나(한국메세나협의회)』, 『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 『문화공간(세종문화회관)』, 『아트뷰(성남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뉴스레터』
미술관 소식지	『SEMA(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박물관미술관소식』 등
기타	『CNB저널』, 『주간한국』
온라인 매체	네오룩 닷컴(www.neolook.com), 전시메일, 아트섬, 대전미술협회 웹진, 대구 전시정보 카페, 부산 전시정보 카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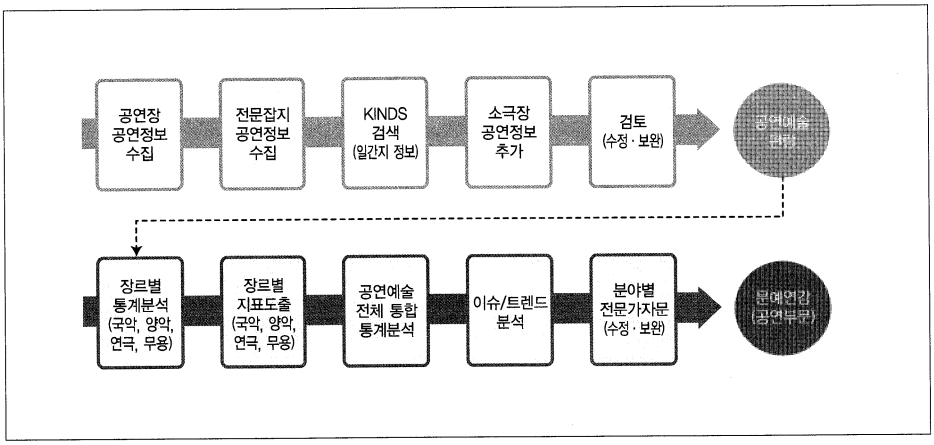
❑ 작성항목

항 목 명	작성 내용
대분류	국내전, 국외전
중분류	국내전-개인전/ 단체전/ 해외작가국내전, 국외전-국내작가해외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전시명	개인전-작가명, 단체전-전시명 또는 단체명, 해외작가 국내전-작가명 또는 전시명, 국내작가 해외전-작가명 또는 전시명, 행사명
지역	국내전-16개 시도 단위, 국외전-나라/도시 단위
전시장	전시장소명
시작일	전시 시작일
종료일	전시 종료일
참여작가	단체전의 주요 참여 작가 및 해외 참여 작가 국적별 기록
전시내용	전시 주제, 간략한 내용 기록
지원금 여부	문화예술지원금 지원 전시 표시

■ 공연예술

❑ 조사 대상기간 :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작성 프로세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 공연장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 공연장 165개(2012.3.1 기준, 전년도에 비해 17개 증가)
  경기(22)+서울(20)+경북(17)+경남(15)+전남(16)+충남(15)+대구(11)+강원(11)+
  전북(8)+부산(9)+충북(5)+인천(5)+대전(3)+울산(4)+광주(2)+제주(2)

- 분야별 전문잡지

분야	잡지명
공통	객석, 공연과 리뷰, Scene Playbill
국악	국악누리(국립국악원), 국악신문
양악	음악춘추, 음악저널, Choir & Organ, International Piano, Music Friend, String & bow, The Music, The Piano, The Strad
연극	한국연극, 더 뮤지컬(The Musical)
무용	댄스포럼, 몸, 춤, 춤과 사람들

- 한국언론재단 제공(전국종합일간지+지역종합일간지+경제일간지) 기사 통합 검색
  · 2010.11.1.(사전 홍보기간 2개월 포함)부터 2012.2.29.(리뷰 기간 2개월 포함)까지 검색
  · 국악 44,876건, 양악 48,321건, 연극 21,815건, 무용 18,337건, 기타 837건 등 전체 134,186건 기사 검색

분야	검색어
국악	연희(8,717건), 풍물(5,205건), 판소리(4,985건), 산조(4,419건), 민요(4,750건), 사물놀이(3,947건), 2011 국악(3,229건), 마당놀이(3,503건), 풍류(1,671건), 정악(1,342건), 병창(1,125건), 창극(880건), 마당극(920건), 국극(183건)
양악	오케스트라(10,265건), 합창단(8,702건), 교향악(4,589건), 2011 음악회(3,051건), 관현악(2,939건), 필하모니(닉)(3,007건), 2011 오페라(2,667건), 심포니(1,946건), 2011 연주회(1,635건), 2011 클래식 공연(1,807건), 실내악(1,759건), 콰이어(1,319건), 체임버(931건), 리사이틀(1,228건), 챔버(1,232건), 쳄버(107건), 2011 음악제(479건), 2011 독주회(387건), 2011 합창제(110건), 2011 독창회(87건), 2011 관악제(74건)
연극	2011 극장(7,408건), 2011 연극(4,451건), 2011 뮤지컬(4,690건), 2011 극단(3,291건), 2011 현대극(1,324건), 2011 인형극(541건), 2011 아동극(110건)
무용	2011 무용(4,562건), 2011 댄스(3,936건), 2011 춤(3,470건), 2011 퍼포먼스(3,523건), 2011 발레(1,540건), 2011 안무(1,306건)
기타	복합장르(519건), 다원예술(318건)

- 한국소극장협회 소속 172개 공연장(2012년 5월 말 기준) 대상 개별 협조 요청 결과 최종적으로 10개 극장만이 자료 제공 협조

■ 작성항목

항목 명	작성 내용
대분류	국악, 양악, 연극, 무용 중 해당되는 분야
중분류	대분류의 각 분야별 하위 장르 구분
소분류	장르별 특수사항
공연명 1~2	공연명1은 공식 공연명, 부제 또는 페스티벌명은 공연명2에 기록
단체명	공연단체명(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
단체국적	공연 단체의 국적. 국내/국외/협업.
시작일	공연 시작일
종료일	공연 종료일
공연 횟수	공연 기간 중 총 공연 횟수
주최	포스터나 공식자료상의 주최로 명시된 기관·단체
지역1~2	지역1은 16개 시도 단위, 지역2는 시군구 단위
공연장1~2	여러 공연장을 갖춘 복합공연장명을 공연장1, 개별 공연장 이름을 공연장2에 기록
페스티벌/경연대회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일 경우 표기
인적 정보	양악-작곡가, 연극-극작가·예술감독·연출가, 무용-안무가 기록

■ 분류방법

- 기존 분류방식과 같이 문예연감은 공연예술 분야를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4개 분야로 나눈다.
- 2011년 한 해 동안의 공연을 계량화하는 단위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두 가지. 공연 건수는 한 공연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하나로 센다. 공연 횟수는 그 기간 동안 공연을 무대에 올린 횟수를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한 공연장에서 A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면 공연 건수는 1건이다. 그리고, 이 공연이 하루에 1회씩 무대에 올랐다면, A 공연의 공연 횟수는 3회가 된다. A 공연이 공연장을 옮겨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연을 했다면, 이 공연은 앞선 1월의 공연과 별도의 공연 건수로 반영한다.
- 국악 분야 공연은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했다. 악기 연주 중심 공연을 '기악', 판소리·민요 등 소리 중심 공연을 '성악', 창극·국극·음악극·마당놀이·사물놀이 등을 '연희'로 구분했다. 이는 현재 국악 분야를 나누어 보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일 뿐, 향후 국악 공연의 성장과 함께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은 이론가와 평론가 공동체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하리라 본다. '혼합'은 한 공연에서 앞서 언급한 기악, 성악, 연희 세 장르

중 둘 이상이 한데 공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립국악원의 '토요상설공연'처럼 정악·민속악 연주, 판소리·민요, 굿춤 등을 한 무대에 번갈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복합'은 국악 내의 하위 장르가 아니라, 양악·연극·무용·영상처럼 국악이 아닌 타 장르와의 협업에 기초한 공연을 말한다. 그럼에도 큰 의미에서 국악으로 분류한 까닭은 해당 공연의 큰 줄기가 국악에 기초하고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 예를 들어 "국악 뮤지컬 아기돼지 꼼꼼이"와 같은 공연은 뮤지컬 형태이지만, 창작 국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뮤지컬로 분류하는 것보다 국악 중 복합장르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 다섯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기타'로 분류해, 향후 새로운 범주의 생성에 활용하거나 현 분류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공연계의 모습을 담도록 했다.

- 이러한 장르 구분과 별도로 각 국악 공연들이 창작 작품인지, 기존에 공연을 했던 작품인지를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소분류에서 창작 작품은 '창작', 기존에 공연을 했던 작품은 '레퍼토리'로 표현했고,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작품은 '미분류'로 두었다.

- 양악 분야 공연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전년도에 이어 기존 '성악'에서 합창을 따로 독립시켜 반영했다. 성악 중 합창의 비중이 다른 성악 공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그 흐름을 보다 또렷하게 파악하기 위해 범주를 세분화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음악 중심의 가극을 '오페라', 기악·성악·오페라의 구분 없이 국내 작곡가들이 새로운 창작곡을 처음 발표하는 공연을 '작곡발표'로 구분했다. '혼합'은 양악 분야의 하위 장르인 기악·성악·오페라 중 두 장르 이상이 협연하는 공연이다. '복합'은 양악과 국악·연극·무용·영상 등이 협업을 이루는 공연을 말한다. 국악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업의 중심이 양악에 있을 경우에만 양악 분야의 '복합' 장르로 구분했다. 이런 범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역시 '기타'로 구분했다. 재즈나 뉴에이지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연극 분야 공연은 기존과 크게 다름없이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로 구분했다. '연극'과 '뮤지컬'을 구분하고, 언어적인 요소가 배제되거나 극히 적고 여러 신체예술이나 행위예술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퍼포먼스'로 구분했다. '난타', '점프', '드럼캣' 등이 이에 속한다. '혼합'은 연극 분야의 하위 장르인 연극·뮤지컬·퍼포먼스 중 두 개 이상의 장르 간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말한다. '복합'은 연극 분야와 국악·양악·무용·영상 등의 협업에 기반한 공연을 말한다. 그중 연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를 연극에 포함시키고 '복합'으로 구분했다. 그 외 어느 한 범주로 명확한 구분하기 어려운 공연들은 '기타'로 구분했다. 인형극, 체험극, 드로잉쇼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연극 분야의 경우 중분류 외에 두 가지 소분류가 포함되었다. 하나는 극본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국내에서 극본이 주로 쓰인 경우를 '국내창작극', 외국에서 주로 쓰인 극본을 국내에서 번역한 경우를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원작이 외국 소설이더라도 이를 각색한 작가가 국내 작가일 경우 창작극으로 분류했다. 이외에 희곡 작가나 작곡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극작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작이 명확하게 외국 작품인 경우에도 번역극으로 구분했다. 또 하나 연극 분야에 한해서 대상관객을 기준으로 한 분류를 작년에 이어 도입했다. 주 대상관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연극'으로 별도 표시한 것이다. 이는 갈수록 아동청소년연극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흐름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범주로 독립시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 기록방법

- 모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할 때는 가능한 공연 기획 주체의 설명과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 단체명과 단체의 국적은 위와 같이 수집된 정보에 기초해 기록했으며, 기록이 끝난 뒤 같은 단체는 다양한 매체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켰다. 수집된 정보가 모든 단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언급하고 있는 단체만을 반영했다.
- 공연 횟수는 다양한 공연 횟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공연한 그대로를 직접 세어 반영하고자 했으나, 반년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에는 평일·휴일 등의 일괄적인 공연 방침에 기초해 추정했다. 따라서 일부 공연 횟수는 추정에 따른 오차가 다소 반영되었을 수 있다.

■ 분석방법

- 편람 작성 뒤에는 공연명, 단체명, 공연장명 등을 통일하는 작업을 포함해 3차례에 거친 검토와 최종 확인 과정을 통해 가능한 데이터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했다.
- 편람 자료의 분석은 Excel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 각 정보들의 기초통계적인 현황을 파악해 현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 각 정보들을 다각도로 교차분석해 분석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교차분석 종류와 결과는 각 공연 분야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미를 파악할 때 분야별 특성을 고려했다.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요 공연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달리했다. 국악·무용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지 않아 연간 30회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선정했다. 양악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공연 수가 많아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선정했다. 연극은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가 많아 공연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30건 이상의 공연장을 주요 공연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는 몇몇 공연을 장기간 동안 여러 회 공연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연간 300회 이상 공연장을 추가로 선정했다.
- 기타 분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현황분석에서 자세히 서술해 두었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문예연감 집필자 소개]

❑ **문학**

■ **총론 / 현황분석 / 편람: 이민호(1963년생)**
문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문과 교수

❑ **시각예술**

■ **총론 / 하계훈(1958년생)**
미술평론가,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 **총론 / 이선영(1965년생)**
미술평론가,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 **현황분석 / 편람: 김달진(1955년생)**
김달진미술연구소장,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 **공연예술**

■ **국악 총론 / 전지영(1971년생)**
문학박사,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 **양악 총론 / 황성호(1955년생)**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 **연극 총론 / 김미혜(1948년생)**
연극평론가,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연극영화학 전공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무용 총론 / 장인주(1967년생)**
무용평론가

■ **현황분석 / 편람: 황윤숙(1968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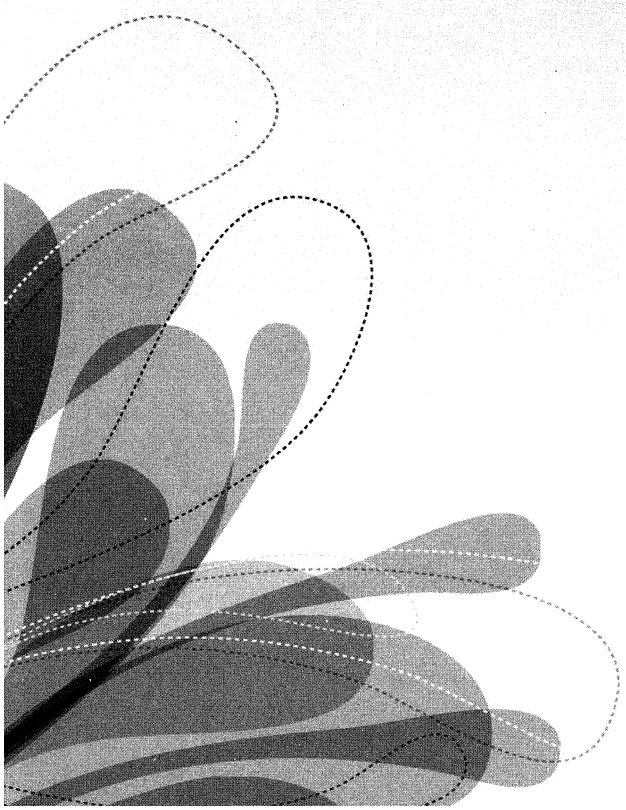
❑ **북한문화**

■ **총론: 오양열(1953년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문 학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문 학 총 론

위기의 시대 불안한 청춘의 문학

이 민 호(시인, 문학평론가)

Ⅰ. 머리말

자연과 문명은 공존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인간이 문명을 일으키는 과정은 언제나 자연 정복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바벨탑 신화와 같은 미망에 빠져들수록 인간은 무한능력의 자기 최면에 빠져들곤 한다. 자본주의에 기초한 물질문명이 극성기를 구가하는 지금 인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가 바로 절체절명의 인간위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인류의 문명흥망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열도가 9.0의 강진에 흔들렸다. 사망자를 포함 실종자가 3만 명에 이르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하듯 전달되는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고 이웃한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분간할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자연의 역습 앞에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비극적 상황을 문명의 이기를 통해 실재처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위기는 인간 실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연이어 인간 현실의 문제에 눈을 돌리게 한다. 2011년 4월 촉발된 유럽발 경제위기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은 일본을 강타한 지진에 비견될 만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해 반발하며 촉발된 '반(反) 월가 시위'는 인간문명 내부의 반성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

(美)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금융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자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축소 반대, 실업 문제 해결, 환경파괴 중단 등 시위의 양상은 현재 인류가 처한 불안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명이 자연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피폐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성찰의 아이러니와 역설의 지점에 문학이 성찰의 전달자로서 위로의 주제를 전파하는 것은 귀결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한국 문학도 본질적이면서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장애인 성범죄 피해 증가로 들끓었던 사회적 관심과 무상급식 전면실시 논란, 대학반값등록금 추진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듯 무엇보다도 위기의 중심에 한국의 차세대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문학은 위기와 불안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과 더불어 소통하였다.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청소년 소설 『완득이』가,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동명으로 영화화되어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그 외 소설가 박완서의 별세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돌풍을 불러일으킨 것이 2011년 한국 문학의 특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II. 2011년 주요 현황

1. 시

해마다 10월이면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은 2011년에도 수상을 하지 못했다. 스웨덴 시인 트란스트뢰메르의 수상에 대해 국내외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노벨문학상의 유럽 편중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아시아와 아랍 등 지역 문학의 소외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측면에서 부족언어의 족장으로 불리는 고은의 노벨상 수상은 지역 문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내년에도 기대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잔존하였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에 앞서 9월 28일 한국 시단의 원로인 김규동 시인이 폐렴과 노환으로 향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양한 시적 경향 속에서 한국 시의 전위에 섰던 시인은 초기 '후반기'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야만적인 물질문명을 비판하는 모더니즘 작품을 발표하였고, 1970년대에는 민주화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동에 참여 현실비판적인 시를 쓰는 동시에 분단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비와 광장』, 『죽음 속의 영웅』, 『오늘밤 기러기떼는』, 『길은 멀어도』, 『느릅나무에게』 등 시집 9권과 『새로운 시론』 등 평론집, 『지폐와 피아노』 등 산문집을 남겼다.

2011년 노천명 시인(1911. 9. 1~1957. 6. 16)과 윤곤강 시인((1911. 9. 22~1949. 4. 18)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 주최로 <2011년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가 개최되었다. 4월 7일 "이산과 귀향, 한국 문학의 새 영토"를 대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희 이화여대 교수가 <낭만주의적 시의식과 현대적 시학 탐구>라는 논제로 노천명을 집중 조명하였다. 4월 8일에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려 박선욱 시인이 윤곤강 시인의 「별과 새에게」를 낭송하였다.

이와 같은 큰 줄기 외에도 2011년 시단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 현대시의 지역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잡지를 통해 선도되었고 그에 따른 행사도 이어졌다. 대체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중심과 주변부의 위계질서 해체라는 탈근대 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자료발굴과 문인기념 사업, 전집 발간을 토대로 한 기초연구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지역의 관점과 지역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지역 토박이 작가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 연구와 창작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 문학 매체들이 선도하였다. 김해의 ≪서정과 현실≫, 마산의 계간 ≪작은문학≫, 진주의 ≪시와 지역≫, 부산의 ≪시와 사상≫, ≪신생≫, 대구의 ≪시와 반시≫, ≪사람의 문학≫, 대전의 ≪문학마당≫, ≪애지≫, ≪시와 정신≫, ≪시와 인식≫, 광주의 ≪시와 사람≫, 전주의 ≪문예연구≫, 제주의 ≪다층≫, 강릉의 ≪시와 세계≫, 수원의 ≪시와 표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도모하였다. 과거 시인들의 시학을 다시 읽는 기획으로서 문학동네에서 2011년 초부터 연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명강의'와 민음사에서 연중 계획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독서강좌와 민음고전학교'가 대표적이다.

셋째, 문학의 효용론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사회병리적 현상의 치유 방법으로서 '시치료'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정신분석학에 기반을 두고 시를 문학치료의 방법으로 이용 현대인의 마음과 영혼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시에서 정치적 기능

이 강조되었다. '희망버스' 참여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인들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이에 준하여 왜곡된 리얼리즘에 대한 반성하는 기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결부되어 심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축소된 느낌이다.

넷째, 2010년에 비해 연작시 등 형식적 실험이 많았다. 한편에서는 극서정시를 강조하여 짧고 간결한 시를 지향하는 조정권, 이하석, 최동호가 시집을 묶었다. 그러나 시의 산문화와 해체 현상은 지속적인 듯하다.

2. 소설

2011년 소설계는 새해 벽두부터 박완서 작가의 별세 소식을 접한다. 서민과 아픔을 함께 했던 애도의 문학은 그를 추억하는 독자들에게 영원한 위로의 불꽃이 되었다. 작가가 남긴 작품은 다시금 판매대에 올려졌고, 주요 문학지에 관련 특집이 마련되었다.

소설가 김남천(1911. 3. 16~1993. 8), 안수길(1911. 3. 2~1977. 4. 18), 정비석(1911. 5. 21~1991. 10. 19) 등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4월 7일 '이산과 귀향, 한국 문학의 새 영토'라는 주제 하에 기념문학제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이현식은 문학사적 관점에서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의 문학에 대해, 강상희는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대상으로 계몽과 해방의 미시사에 대해, 채호석은 정비석의 「북향보」를 중심으로 해방 전 그의 문학에 대해 발표하였다.

과거를 떠올리듯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공지영이 쓴 『도가니』는 2005년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주었던 광주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9월 개봉 첫날, 관객 12만 명이 운집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사회적 파장과 함께 청소년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개봉과 함께 원작 소설도 다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 온라인 서점을 포함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은 김려경의 청소년 소설 『완득이』도 동명으로 영화화되어 530만 관객을 모으는 큰 인기를 얻었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난, 장애, 다문화가정 등 오늘날 한국의 도시빈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영화 개봉과 함께 다시금 출판에서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도 애니메이션으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kor.or.kr

로 영화화되어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흥행가도에 합류하였다. 더불어 이정명의 장편소설 『뿌리 깊은 나무』(2006)와 정은궐의 장편소설 『해를 품은 달』(2011)이 드라마화되어 텔레비전에서 방영됨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장편 『두근두근 내 인생』을 쓴 김애란과 『7년의 밤』을 쓴 정유정의 등장은 2011년 한국 소설계의 '청춘' 코드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만 부 이상이 팔린 『두근두근 내 인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청춘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17세에 80세의 몸을 지닌 조로증 환자가 겪는 사랑과 이별의 드라마다. 기성세대가 읽기에 버거웠던 내용과 형식으로 예외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7년의 밤』은 간호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작가가 사회적 통념을 깨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문학수업을 받지 않고도 사회적 연줄이 없어도 문학 본연의 자세로 오직 독자들만 상대했던 작가의 힘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들 청춘의 등장을 바라보며 중진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이 줄을 이었다. 황석영의 『낯익은 세상』은 80년대 난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에서 통과의례 과정을 겪었던 소년의 성장소설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결과로 쌓이는 쓰레기 더미에서 문명의 어두운 면을 포착하는 현실비판 소설이기도 하다. 작가의 말처럼 '폐허에 남아 있는 연민'에 대한 천착이다. 또 다른 '낯익음'의 시선을 풀어낸 작품이 최인호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다. 5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로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였다.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겪는 어긋남의 원인을 찾아 또 다른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통과 의례적이다. 동시에 현대인의 부조리한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적인 부분도 함께 하고 있다. 김훈의 『흑산』과 이문열의 『리투아니아의 여인』은 역사를 소설의 허구로 재조직하는 일관된 소설쓰기를 확인하였다. 『흑산』은 1801년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한 신유박해를 전후해 조선 사회에서 일어난 사회상을 담고 있다. 하급무관 박차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김훈의 문체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평가되었다. 『리투아니아의 여인』은 '피와 땅에 바탕하는 정체성의 무의미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문열의 전형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념의 과중한 부여를 금기시하는 작가의 예술적 보편성에 의지해 역사성이 삭제된 한 여인의 여정을 그렸다.

이처럼 2011년 소설은 복고풍이라 할 만큼 위로와 감동을 주조로 하였다. 그만큼 현실의 아픔과 상처가 극도로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 중심에서 젊은 작가들의 따뜻한 시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였다.

3. 평론·번역·기타

2011년 평론계는 박완서의 작고로 추모특집으로 시작하였다. 정여울은 ≪문학사상≫ 3월호에서 「나보다 아픈 타인의 얼굴을 찾아서-박완서 소설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PEN문학≫ 3, 4월호에서 김선학은 「전쟁의 상처에서 노년 문학의 완성까지」를, ≪작가세계≫ 봄호에서 권명아는 「박완서, 그녀가 남긴 것」을, ≪창작과비평≫ 봄호에서 윤영수는 「새봄 살구꽃이 필 때마다, 박완서 선생님」을, ≪문학과사회≫ 봄호에서 김치수는 「역사의 상처와 문학적 극복-박완서 씨의 삶과 문학」을 발표하였다.

2011년 특집 평론의 내용은 시대적 불안과 위기를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통과 치유를 강조하고 있다. ≪황해문학≫ 가을호에서 '후쿠시마 신드롬, 원전의 불모에게 안전한 내일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원전과 관련된 불안의 실체와 극복을 다루었다. 이 특집에서 안천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앞에 마주선 일본」을, 이헌석은 「핵발전소의 새로운 메카 동북아시아의 불안과 그 극복」을, 염광희는 「독일의 핵폐기 결정, 그 배경과 영향」을, 김혜정은 「기원전의 자발적 볼모, 한국」을 발표하였다. ≪문학선≫은 '21세기 서사와 재난의 상상력'을 주제로 고봉준의 「'재난'이란 무엇인가」, 강유정의 「진짜 '재난'의 공포」, 서희원의 「페스트 시대의 소설」을 실었다. ≪시와시≫ 여름호는 '시의 불안과 공포'라는 기획 하에 시와 시대의 관계 속에 '불안'의 실체를 다루었다. 고영직의 「불안한 시대, 시의 윤리」, 정의진의 「시대의 불안과 불안의 시학」, 김종훈의 「갈라진 자아와 부서진 시간」을 실었다. ≪리얼리스트≫ 4호와 5호는 한국 사회의 실체적 불안을 다루었는데, '죽음의 노동을 넘어'라는 기획 하에 김동수의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에 대한 기억」, 복기성의 「해고=죽음의 행렬을 막아라」, 강경식의 「재능교육은 학습지 시장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노대원의 「불안의 시대, 비정한 규칙의 세계를 살아가는 일」을 실었다. 그리고 '구럼비에서 생각하는 국가권력'이라는 기획 하에 고명철의 「국가권력의 폭력적 '국민되기'에 분노하라」, 최성희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 박정경수의 「병역거부, 군사주의를 이야기하다」, 김은정의 「분단문학의 실종」을 실었다.

이와 같은 불안의식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광의의 범주에서 ≪불교문예≫ 가을호는 만해축전 특집에서 '한국 문학에 나타난 화해와 소통의 양상(종교, 문화, 이념의 소통과 화해)'라는 기획 하에 고운기의 「시와 종교적 심성-박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박청호의 「다문화 시대의 이웃 그리고 소설」, 장석원의 「잡종 되기」, 박철화의 「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러디의 미학적 가능성」을 실었다. 협의의 장르적 범주에서 ≪현대시학≫은 8월호에서 '우리시의 소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하에 조창환의 「우리시의 소통, 무엇이 문제인가」, 고봉준의 「시와 시의 소통-전통과 실험」, 변의수의 「인접 장르 간의 소통(영향과 수용)-시의 확장적 정의와 기호의 확장」, 홍은택의 「한국 시와 외국 시의 영향과 수용-비교문학과 번역의 문제」를 실었다. 불안을 치유하는 가장 비근한 문학적 방법으로 ≪서정시학≫ 가을호에서 치료의 차원에서 시를 다루었다. 강은교의 「무용(無用)의 유용(有用)」, 이봉희의 「포이트리테라피-나를 찾아가는 여행」, 변학수의 「시와 치료」, 권성훈의 「고통과 좌절의 삶, 치유적 언어의 시론-유영철VS이승하」를 실었다.

2011년의 화두는 청춘이었다. 그처럼 평론계도 젊은 평론가들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목소리로 한국 문학의 오늘을 파악하고 미래를 진단하였다. 시를 다룬 평론으로 강동호는 「사랑의 영도, 만짐의 현상」에서 '압도적인 감각의 제국 속에서 더욱더 언어의 디테일에 집착'하는 최근의 시편들을, 고봉준은 「낭만주의, 낭만성, 낭만화」에서 '낭만성이 삭제된 자리에 낭만화라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음각하고 있는 오늘의 시적 경향을, 이찬은 「'미래파'와 '정치시' 이후, 한국 문학의 아포리아」에서 '미래파'와 '정치시' 이후의 우리 시대 시의 방향성과 2000년대를 횡단하며 가장 주목받았던 '미래파 논쟁' 너머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로들의 시 세계를, 장성규는 「2000년대 노동시의 새로운 가능성 '들'」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적 리얼리티의 긴장을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시의 미학'을 모색하는 경향을 다루었다. 소설 비평의 경우, 백지연은 「공동체와 소통의 상상력」에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양상과 경제체제의 심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공동체와 소통의 상상력'을, 이경재는 「환갑 지난 문학청년의 영구혁명」에서 작품의 진정한 갈등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랑이라는 도덕의 차원을, 조연정은 「구조적 폭력 시대의 타나톨로지」에서 황정은과 김애란의 소설이 간직한 휴머니즘, 즉 우리 시대의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평단은 텍스트에 가려졌던 비평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비평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그만큼 평론가 이광호가 「사랑의 미래」에서 예견했던 '재밌고 독특한 비평들'의 등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1년 수필문학의 흐름은 ≪수필과 비평≫ 12월호에서 마련한 특집 '2011년을 묻다'에 잘 드러난다. 김정화의 「노래의 벽」, 박영수의 「사람 탓 하늘 탓」, 이연희의 「나, 어떻게 살아요」, 이현수의 「자살과 타살 사이」, 임동옥의 「일본 쓰나미」, 장미영의 「노년을 열어젖힌 담대한 소설가」, 정여송의 「희망버스」, 조병렬의 「대학등록금 낮출 수 있다」, 황인용의 「자포자기에 대하여」 등과 같은 수필에서 수필문학 또한 올 한 해의 문학적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1년 수필문학은 내면세계와 단절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현실과 지속적으로 상호조응하고 있었다.

2011년 한국 문학의 번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Please Look after Mom』으로 번역돼 미국 아마존이 선정한 문학 소설 부문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오를 정도였다. 이 책이 한국 문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미국 출판시장에서 거둔 성공을 들어 언론은 문학계의 새로운 한류의 형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이는 더 많은 한국 문학이 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뜻이 있다. 이처럼 4월에 영문판이 출간돼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외에서 다시금 '엄마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번역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이와 관련 9월 21일 1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22, 23일 양일간 '한국 문학 해외진출 10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이후'를 주제로 제5회 세계번역가대회가 열렸다. 대산문화재단은 2011년도 한국 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대상작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김사인 시집 『가만히 좋아하는』과 이승우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 등 23건을 선정했다.

출판계는 동화, 청소년소설, 사회고발 성격의 소설이 영화화되어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다른 매체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출판 콘텐츠 생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서적들이 2011년 한 해 큰 흐름을 형성했다. 2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과 같은 실용서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달리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운영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근본적 성찰을 주문하였다. 시시콜콜한 실용보다는 삶의 성숙을 목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보도록 독자를 끌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1년 문학 현황분석

이 민 호(시인, 문학평론가)

Ⅰ. 장르별 문인 작품 발표 현황

1. 문학 단행본 발간 현황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출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총 4만 4,036종(만화 포함)이며, 발행 부수는 1억 955만 227부다. 2010년에 비해 발행 종수는 9.3% 증가하였고, 발행 부수는 3% 증가하였다. 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2,488부로 전년(2,639부) 대비 5.7% 감소하였고, 권당 평균 정가는 1만 3,010원으로 전년(1만 2,820원)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평균 면수는 260쪽으로 전년(272쪽)보다 12페이지가 줄었다(<표 1> 참조).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지난해와 비교해 발행 종수 및 발행 부수에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발행 종수에 비해 발행 부수가 상당비율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새로운 책의 출판 욕구는 강했지만, 권당 평균 정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종당 발행 부수를 줄였고, 평균 면수 또한 줄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1년도 출판 현황 ▐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2010년	2011년	증감률	점유율
총류	703	715	1.7	1.62%	1,404,515	1,336,156	-4.9	1.22%
철학	1,055	1,152	9.2	2.62%	1,980,295	2,153,299	8.7	1.97%
종교	1,899	1,925	1.4	4.37%	3,789,983	3,997,136	5.5	3.65%
사회과학	6,017	5,919	-1.6	13.44%	10,765,405	9,363,704	-13.0	8.55%
순수과학	541	647	19.6	1.47%	726,909	1,113,374	53.2	1.02%
기술과학	3,206	3,628	13.2	8.24%	4,396,833	4,976,884	13.2	4.54%
예술	1,382	1,354	-2.0	3.07%	2,115,632	2,150,832	1.7	1.96%
어학	1,625	1,385	-14.8	3.15%	4,337,766	2,720,431	-37.3	2.48%
문학	8,192	8,184	-0.1	18.58%	17,279,904	15,836,935	-8.4	14.46%
역사	1,031	989	-4.1	2.25%	1,828,818	1,816,338	-0.7	1.66%
학습참고	2,512	2,159	-14.1	4.90%	22,007,016	17,216,632	-21.8	15.72%
아동	7,352	9,546	29.8	21.68%	26,199,626	37,705,148	43.9	34.42%
계	35,515	37,603	5.9		96,832,702	100,386,869	3.7	
만화	4,776	6,433	34.7	14.61%	9,476,924	9,163,358	-3.3	8.36%
총계	40,291	44,036	9.3	100.00%	106,309,626	109,550,227	3.0	100.00%

* 출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분야별 발행 종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연 만화(34.7%) 및 아동물(29.8%)이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크게 대형 기획물(전집) 및 단행본으로 나뉘는 아동물 중 전집류를 선호하는 학부모의 성향에 따라 대형 기획물(전집)의 발행이 늘어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순수과학(19.6%), 기술과학(13.2%), 철학(9.2%), 총류(1.7%), 종교(1.4%)가 증가하였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하였다.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어학 분야(14.8%) 및 학습참고서(14.1%)로서 이는 인터넷 방송의 확대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역사(4.1%), 예술(2.0%), 사회과학(1.6%), 문학(0.1%) 순으로 감소하였다.

발행 부수는 총 1억 955만 227부로 2010년에 1억 630만 9,626부를 발행한 것과 비교할 때 3.0% 증가했다. 전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학습참고서였는데, 올해는 순수과학(53.2%)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뒤를 이어 아동(43.9%), 기술과학

(13.2%), 철학(8.7%) 종교(5.5%), 예술(1.7%) 순으로 늘어났으며,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어학(37.3%), 학습참고서(21.8%), 사회과학(13%)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문학(8.4%), 총류(4.9%), 만화(3.3%), 역사(0.7%)가 그 뒤를 이었다.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아동으로 3,770만 5,148부가 발행되어 전체 발행 부수의 34.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습참고서(15.7%), 문학(14.5%), 사회과학(8.6%) 순이었다.

문학도서의 2011년 신간 발행 종수는 2010년 8,192종에서 8,184종으로 전년에 비해 0.1% 감소하였다. 이처럼 소폭의 감소 추세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행 부수의 감속 폭은 종수의 감소폭을 상회하고 있다. 문학 관련 종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발행 부수 또한 대폭 감소하는 추세가 반등의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문학출판 시장의 공고화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학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2011년 문학 단행본 발간 현황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자료를 토대로 장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립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장르별 발간 현황

구분	시	소설	수필/산문	희곡	평론	번역	계
2011년 종수	1,416	1,814	1,618	27	708	1,756	7,339
증감률(%)	1	-19	2	59	57	-16	-5
2010년 종수	1,402	2,231	1,606	17	451	2,030	7,737

2011년 단행본 시집은 1,416종, 소설집은 1,814종, 수필 및 산문집은 1,618종, 희곡집은 27종, 평론집은 708종, 번역집은 1,756종으로 총 7,339종이 납본되었다. 이는 2010년 납본 현황과 비교할 때 5% 정도 감소된 수치다. 시집류는 증가폭이 1%로 현 상태를 유지했는데, 소설류의 둔화가 눈에 띈다. 전년에 비해 19%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설가들의 창작욕구가 감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희곡과 평론의 증가세는 큰 폭이다. 희곡의 경우 2009년도에 55%나 감소한 것에 대해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론이 57%나 증가한 것을 볼 때 문학의 제도적 측면에서 창작보다는 비평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11년 단행본 시집 전체 1,416종 가운데 개인 창작시집은 1,194종이고 나머지 222종은 동인시집 및 합동시집, 작고 시인 선집, 수상작 모음집이었다. 개인 창작시집 비율이 84%로 2009년 85%와 거의 비슷하며, 2010년 86%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처럼 개인 창작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은 문명의 첨단 기기들이 새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도 했지만 불안과 공포의 근원지가 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튀니지의 재스민혁명과 이집트, 리비아의 시민혁명은 SNS와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의 핵발전소가 오히려 큰 피해를 안겨 준 것을 목격하며 인간과 자연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위기감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하는 것이 시가 담당해야 할 미학적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시는 2011년 한국에서 여전히 문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출판계가 그러한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선 문학과지성사의 시인선이 2011년 10월에 400권호를 돌파하였다. 이는 서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서 시의 저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출판사 문학동네는 새로운 시집판형을 선보이며 시인선을 출범시켰고, 이어 문예중앙도 시인선을 복간했다.

먼저 도서관협회 문학나눔사업에서 선정된 시 분야 우수문학도서를 대상으로 2011년 시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1부터 3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시집 중 강병길 『도배일기』, 여정 『벌레 11호』, 천양희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김태형 『코끼리 주파수』, 김윤이 『흑발 소녀의 누드 속에는』, 배영옥 『뭇별이 총총』, 최종천 『고양이의 마술』, 전성호 『저녁 풍경이 말을 건네신다』, 손병걸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송재학 『내간체를 얻다』,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김영남 『가을 파로호』, 김광규 『하루 또 하루』, 이하석 『상응』이 선정되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판된 시집 중 김승강 『기타 치는 노인처럼』, 이경림 『내 몸속에 푸른 호랑이가 있다』, 박승민 『지붕의 등뼈』, 박소유 『어두워서 좋은 지금』, 이선식 『시간의 목축』, 송진권 『자라는 돌』, 조정인 『장미의 내용』, 유홍준 『저녁의 슬하』, 오인태 『별을 의심하다』, 김이듬 『말할 수 없는 애인』, 박정대 『삶이라는 직업』, 박시교 『아나키스트에게』, 이창수 『귓속에서 운다』, 이향란 『[illegible] 결레의 즐거운 상상』, 유안진 『둥근 세모꼴』, 고진하 『거룩한 낭비』가 선정됐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판된 시집 중에는 임희구 『소주 한 병이 공짜』, 박형준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심보선 『눈앞에 없는 사람』, 이홍섭 『터미널』, 성미정 『읽자마자 잊혀져버려도』, 하종오 『남북상징어사전』, 김수우 『젯밥과 화분』, 이민호 『피의 고현학』, 이지엽 『사각형에 대하여』, 도종환 『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이장욱 『생년 월일』, 이혜미 『보라의 바깥』, 이준규 『삼척』, 임윤 『레닌 공원이 어둠을 껴입으면』, 이재훈 『명왕성이 되다』, 오정국 『파묻힌 얼굴』이 선정됐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판된 시집 중에는 양애경 『맛을 보다』, 이승원 『강속구 심장』, 강정 『활』, 황규관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김안 『오빠 생각』, 김형술 『무기와 악기』, 김혜순 『슬픔치약 거울크림』, 장이지 『연꽃의 입술』, 최정례 『캥거루는 캥커루고 나는 나인데』, 최정진 『동경』, 박성우 『자두나무 정류장』, 고광현 『시간은 무겁다』, 김산 『키키』, 이기철 『잎, 잎, 잎』이 선정됐다.

중견 시인으로 김광규, 유안진, 이하석, 천양희의 시집을 살펴보면 김광규의 『하루 또 하루』는 그의 열 번째 시집으로 자연으로부터 얻은 인상, 이제껏 사람들과 맺어 온 관계에 대한 반성,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고, 여행지에서의 깨달음, 별세한 지인들에게 보내는 추모의 내용 등을 담았다. 유안진의 『둥근 세모꼴』은 경구와 같은 짧은 시를 통해 함축적인 성찰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이하석의 『상응』은 극서정시를 지향한 일상의 발견이 담겨 있다. 천양희의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는 일곱 번째 시집으로 유연한 언어로 삶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첫 시집을 낸 시인은 김안, 김윤이, 여정, 이혜미다. 김안의 『오빠 생각』은 육감적인 이미지를 언어도구로 사용하여 현실의 격정과 환상 속 실존을 결합하여 영원성에 접근하고 있다. 김윤이의 『흑발 소녀의 누드 속에는』은 서정시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관념과 사유를 자유자재로 유영한다. 활달한 상상력과 자유분방한 언어, 깊이 있는 서정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리하다. 여정의 『벌레 11호』는 인간의 왜소함을 동물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신과 운명과 세계가 가져다준 철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혜미의 『보라의 바깥』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자연 여성성을 힘껏 발휘한다. 감각적 몸짓 언어를 통해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시집은 최종천의 『고양이의 마술』이다. 이 시집은 2011년도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고양이만도 못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존재론적 회의의 기록이다. 그는 고양이가 고양이를 생각하듯 그 무엇 대신에 인간이 인간을 생

각하는 것이 마술이라 정의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술적인 시는 초현실적이고 인위적인 환상문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끝까지 해체하지 않으며, 타인을 비현실적 수렁에 밀어 넣지 않는 온전한 리얼리즘을 구사하고 있다. 최종천의 시집은 '서정'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 인식으로 가득 찬 그 속에 노동의 현실이나 에로티시즘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적 리얼리스트나 페미니스트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의 현실이 그의 손을 타고 변주되고 있으며 에로티시즘이 시적 마술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불구의 일상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 쓰기의 노동이 신성함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이 신성한 축제는 카니발이다. 인간과 짐승의 구분이 없는 알몸의 사육제다. 두 발로 걷던 인간이 네 발로 걸음으로써 짐승의 처지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 착취의 현실에서 짐승처럼 불구의 삶을 영위하는 비극을 혁명적으로 돌려세우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수사로 비유로 얽어맸던 노동 현실의 속박을 풀어 주고자 이번 시집에서 그는 스스로 창녀로 거지로 개로 개미로 전봇대로 볼트로 망치로 변신하였다.

그 외에 강병길의 『도배일기』와 손병걸의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는 문단 외곽에서 외로이 자기 세계를 구축한 시집으로 주목할 만하다. 강병길은 도배일을 하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연작의 형식에 실었다. 노동의 현장에서 체득한 삶의 진실을 핍진하게 보여줌으로써 삶의 단조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 시집은 최초의 도배공 서사시집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손병걸은 15년 전에 시력을 잃었다. 상실한 시각을 대신해서 촉수처럼 민감해진 다른 감각들이 시집 전체에 가득하다.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었던 세계를 그가 건져 올려 보여주고 있다. 보이는 자가 볼 수 없는 세계는 '시각패권주의' 밖의 세계지만 어쩌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이면일지도 모른다. 그의 시집에서 충분히 경이로운 시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도 2011년도에 주요 작품집의 면모를 우수도서 선정작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1부터 3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소설집 중 김원우 『돌풍전후』, 홍명진 『터틀넥 스웨터』, 최제훈 『일곱개의 고양이 눈』, 구병모 『아가미』, 박상 『15번째 안 와』, 유연희 『무저갱』, 한승원 『항항포포』, 이원화 『길을 묻다』, 천운영 『생강』, 강동수 『금발의 제니』, 윤영수 『귀가도』, 김숨 『간과 쓸개』, 편혜영 『저녁의 구애』, 염승숙 『노웨어맨』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판된 소설집 중에는 김이설 『환영』, 구경미 『키위 새 날다』, 장은진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박범신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김유진 『숨은 밤』, 황석영 『낯익은 세상』,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황시운 『컴백홈』, 이청해 『장미회 제명 사건』, 전상국 『남이섬』, 최수철 『침대』,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현길언 『유리 벽』, 전은강 『아내 죽이기』, 김인숙 『미칠 수 있겠니』, 이은조 『나를 생각해』가 선정되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판된 소설집 중에는 심아진 『숨을 쉬다』, 문지혁 『사자와의 이틀 밤』, 서하진 『나나』, 이성아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백가흠 『힌트는 도련님』,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김성중 『개그맨』, 변소영 『뮌헨의 가로등』, 강희진 『유령』, 구광본 『흰 눈썹 휘날리며』, 황현진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한창훈 『꽃의 나라』, 김경욱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최인석 『연애, 하는 날』, 조현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 표명희 『하우스메이트』가 선정되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판된 소설집 중에는 함정임 『내 남자의 책』, 박주현 『롤리팝과 책들의 정원』, 최진영 『끝나지 않은 노래』, 배수아 『서울의 낮은 언덕들』, 최윤 『오릭맨스티』, 홍양순 『나비, 살랑거리다』, 박형서 『핸드메이드 픽션』, 정용준 『가나』, 윤성희 『웃는 동안』, 구효서 『동주』, 강영숙 『아령 하는 밤』, 김미월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 한강 『희랍어 시간』, 최문희 『난설헌』이 선정되었다.

소설 단행본 발행 종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의 작품집 발간이 끊이지 않았다. 구효서, 김원우, 박범신, 전상국, 최윤, 한승원, 황석영, 현길언 등이 그들이다. 구효서의 『동주』는 미스터리 요소를 가미한 소설로 시인 윤동주의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민족저항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순백의 시인 윤동주에 초점을 맞췄다. 윤동주의 고향인 '간도'의 언어 의미를 새롭게 살펴 여러 세계 사이에 낀 윤동주의 숙명적 삶을 되살려냈다. 김원우는 『돌풍전후』에서 액자 형식의 회고담을 들려준다. 『모서리에서의 인생독법』 이후 3년 만에 낸 장편으로 1980년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식인이 자기 모멸을 견디며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과 이를 밖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점을 설정했다. 이 둘 모두 작가의 분식으로서 전자가 페르소나라면 후자는 아니마에 해당할 것이다. 여난(女難)과 국난(國難)과 교난(校難)의 구조적인 상동성(相同性)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특유한 현상에 대해 우화적으로 접근하였다.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의 손은 말굽으

로 변하고』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4월 22일까지 여섯 달 동안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joongang.co.kr)에 총 120회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박범신이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을 본격적으로 차용한 첫 번째 소설로 소개되었다. 인간 마성(魔性)의 근원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한편 소멸하지 않는 신성한 순수와 불멸의 사랑을 추구하였다. 전상국의 『남이섬』은 그의 열 번째 소설집으로 삶의 심연을 서사적으로 풀어냈다. 전쟁과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새로운 감각과 현재진행형 언어로 그려 불통의 상처를 소통의 치유로 변주시켜 보여주었다. 최윤의 『오릭맨스티』는 '회색 눈사람'으로 제23회 동인문학상을, 『하나코는 없다』로 제1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최윤이 8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이다. 2011년 봄부터 2011년 가을까지 계간 ≪자음과모음≫에 연재되어 특유의 절제된 문장과 인간묘사의 긴 호흡에 주목을 받았다. 한승원의 『항항포포』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해 온 작가의 철학적 명제를 담고 있다. 이 땅의 모든 항구와 모든 포구라는 말의 조합 '항항포포港港浦浦'를 배경으로 한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동행하는 이 소설로 새 길 찾기의 과정을 그렸다. 현길언의 『유리벽』은 인간 삶의 한계인 죽음을 '유리벽'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고독과 공포를 견디며 사는 인간군상을 그렸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근원적 숙명에 대해 답하였다.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젊은 작가는 김성중, 조해진, 조현, 최제훈 등이다. 김성중의 『개그맨』은 그의 첫 소설집으로 총 9편의 단편을 실었다. 개성적인 상상력과 스타일로 다양한 삶의 편린을 추적하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였다. 그 시선의 밑바닥에 소통하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표제작 '개그맨'은 절망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공유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그의 두 번째 장편소설로 타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 작품은 탈북자 로기완의 행적을 추적하며 분단체제의 비극성과 남북관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 문제들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작가는 타자의 삶을 연민하였다. 조현의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는 소설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한 작품집이다. 현실도 아닌 우주적 상상력을 지녔다고 표방하며 엮어내는 일곱 편의 단편을 실었다. 문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백과사전적 지식을 쏟아내며 독자들을 유희 공간으로 몰아갔다. 최제훈의 『일곱 개의 고양이 눈』은 그의 첫 장편소설집이다. 문예 계간지 ≪자음과모음≫의 '픽스업'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장르로 1년여에 걸쳐 연재된 소설로 네 개의 중편으로 구성되었다. 현상의 왜곡, 진실의 허구성, 허를 찌르는 위트를 그의 문체로 뽑는 평단의 시선처럼 아라비안나이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의 재미를 보여주었다.

2011년 소설계는 환상과 가상의 세계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 주변부에서 리얼리즘의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작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홍명진의 소설은 낯설다. 불안과 위기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그의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었다. 홍명진의 『터틀넥 스웨터』의 아홉 편의 짧은 이야기들은 꼭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닮았다. 아무런 변주도 없이 알몸으로 달려드는 실재를 통해 현실의 공포와 불안을 들추어내었다. 거기에 호기심과 의구심의 대상이었던 변두리 인생에게도 삶의 이유가 되었던 존재감 같은 것이 이야기 하나하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청소년 소설은 김려령의 『완득이』 선풍을 이어갈 작품이 보기 드물었다. 그만큼 작가들이 아이들의 불안과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장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박수현의 『열여덟 너의 존재감』은 작가가 학교 현장에서 접한 아이들의 마음과 고민을 잘 헤아려 쓴 소설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섬처럼 떠다니는 청소년의 정체성 없는 존재감을 위기의 원인으로 포착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를 통해 존재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 발간된 평론집 중 우수도서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황수대 『동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오창은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심경호 『한시의 서정과 시인의 마음』, 이형권 『발명되는 감각들』, 이수명 『횡단』, 최현식 『시는 매일매일』, 장성규 『사막에서 리얼리즘』, 장석주 『이상과 모던뽀이들: 산책자 이상 씨와 그의 명랑한 벗들』, 김윤식 『혼신의 글쓰기, 혼신의 읽기』, 박상률 『청소년문학의 자리』,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 김수이 『쓸 수 있거나 쓸 수 없는』, 정훈 『시의 역설과 비평의 진실』, 오생근 『위기의 희망』, 한기욱 『문학의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정문순 『한문문학의 거짓말』, 유종호 『한국근대시사: 1920~1945』 등이다.

젊은 비평가들이 문예잡지를 점령하고 있을 때 노 비평가들은 한 권의 책을 묶었다. 김윤식의 『혼신의 글쓰기, 혼신의 읽기』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들을 읽고 쓴 우리 소설의 지형도다. 강영숙·박민규·김연수

·윤성희·백가흠·김태용·배명훈·한유주·정한아 등 젊은 작가군에서 성석제·윤대녕 등 중견작가들, 그리고 박완서·최일남 등 원로작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소설 미학과 언어, 인간, 세계를 읽었다. 모두 76명의 작가와 111편의 작가를 다루어 과히 혼신의 글쓰기라 할 만하다. 유종호의 『한국근대시사: 1920~1945』는 한국 근대문학 초기부터 해방 전까지 근대시를 다루었다. 딱딱한 문학시사와는 달리 서지자료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또한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문학적 사건'을 기술하였다. 한국 시의 전체적인 경향을 토착주의 지향과 근대주의 지향으로 상정하여 근대 시인들의 시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였다. 오생근의 『위기의 희망』은 문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문학의 항상성을 희망으로 제안한다. 4부로 나누어 문학 전반의 조망, 정현종, 최동호 등의 시집 평론, 이청준, 현길언 등의 소설비평, 정명환과 홍정선의 비평 동향을 실었다.

김수이의 『쓸 수 있거나 쓸 수 없는』은 네 번째 평론집으로 미학적, 정치적, 윤리적인 실천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으려는 비평정신을 담았다. 특히 김기택, 유홍준, 황규관의 시를 다루며 노동시, 민중시로 고정화된 리얼리즘 시의 균열을 포착하였다. 이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시인과 함께 공유하려는 소통의 비평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박상률의 『청소년문학의 자리』는 한국 문학이 처음으로 소유한 청소년문학 비평집이라는 평단의 상찬을 들었다. 청소년문학의 현황, 과제, 의미를 오랜 시간 청소년문학과 함께했던 애정을 담아 차분한 목소리로 풀었다.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이라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려는 저자의 시각이 차후 청소년문학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전범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11년 외국번역문학 단행본은 총 1,756종으로 2010년 2,030종과 비교할 때 274종이 감소하였다. 이 중 시가 73종(2010년 83종), 소설이 1,224종(2010년 1,408종), 수필 및 산문이 314종(2010년 421종), 평론 및 인문이 145종(2010년 68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2010년 희곡이 50종 번역된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전무하였다. 희곡의 경우 국내 단행본이 59%나 발간 증가한 것을 보면, 번역물에 의지하지 않고 창작물이 큰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되었지만 감소 추세였다. 평론 및 인문 서적의 번역이 증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것과 국내 비평서적의 증가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나라별 번역 출판 현황을 보면(<표 3> 참조) 일본과 미국 편중의 번역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11년 주요 국가별 번역 출판 현황 ▌

분야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	계
총 발행 종수	715	1,152	1,925	5,919	647	3,628	1,354	1,385	8,184	989	2,159	9,546	6,433	44,036
번역 종수	117	654	724	1,246	272	740	321	82	2,415	237	0	2,545	2,295	11,648
번역서 비율(%)	16.4	56.8	37.6	21.1	42.0	20.4	23.7	5.9	29.5	24.0	0	26.7	23.7	26.5
일본	31	88	20	248	49	267	91	18	863	39	0	560	2,278	4,552
미국	72	289	447	644	145	345	110	25	533	60	0	721	5	3,396
영국	8	62	108	109	37	49	38	11	242	30	0	404	0	1,098
독일	2	58	41	66	21	17	16	5	107	16	0	211	0	560
프랑스	2	33	13	20	4	18	26	5	190	7	0	204	1	523
중국	1	53	19	64	1	16	18	14	175	51	0	12	10	434
동유럽	1	23	11	23	5	2	5	1	39	11	0	64	0	185
이탈리아	0	4	11	6	0	6	8	0	15	1	0	78	1	130
북·중미	0	4	6	19	2	7	1	0	31	2	0	47	0	119
러시아	0	2	3	8	2	0	2	0	59	7	0	16	0	99
유럽	0	4	3	4	0	2	1	1	34	3	0	47	0	99

* 기타 서유럽(93), 오세아니아(83), 스페인(65), 인도(46), 남미(39), 동남아시아(37), 아프리카(36), 중동(31), 대만(20), 중앙아시아(3)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다음으로 2011년 간행된 주요 시집과 소설(장편소설 포함), 평론집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관례대로 책의 문학적 가치나 경중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2011년 문학 지형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방법의 일환이다. 『2012 문학연감』 편람에서 발췌하였다.

▌표 4. 2011년 발행 주요 시집 목록 ▐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강대실	숲 속을 거닐다	문학들
강석우	해풍, 일어나다	문학의전당
강성백	두메의 시간	청어
강성위	술다리	푸른사상사
강신혜	작은 머리	현대시문학
강영은	최초의 그늘	시안
강은교	네가 떠난 후에 너를 얻었다	서정시학
강 정	활	중앙북스
강정수	보일러가 터졌다	월간문학출판부
강현국	달은 새벽 두 시의 감나무를 데리고	천년의시작
고광헌	시간은 무겁다	창비
고석근	나무	청어
고운기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산하
고진하	거룩한 낭비	웅진씽크빅
구 상	오늘서부터 영원을	홍성사
구 상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홍성사
구이람	걷다	시와시학
구재기	편안한 흔들림	문학의전당
권덕하	생강 발가락	애지
권숙월	가둔 말	시문학사
권천학	초록비타민의 서러움 혹은	문학의전당
금동춘	버려진 그들과의 화음	푸른사상사
기태완	청시선	보고사
김경옥	기러기의 죽음	문학들
김광규	하루 또 하루	문학과지성사
김규동	김규동 시전집	창비
김규린	열꽃 공회	천년의시작
김대곤	가방 속의 침묵	태학사
김동애	화선지에 핀 불입문자	시문학사
김득수	귀여운 내 사랑아	청어
김명숙	그 여자의 바다	문학의전당
김명숙	홍등	명성서림
김명이	바다가 쓴 시	시와사람
김명자	시비 걸기	심지
김명자	작은씨앗의노래	이부키
김명희	향기로운 사하라	문학의전당
김미선	어떤 씨앗	문학의전당
김미정	고요한 둘레	동학사
김민채	빗변에 서다	시문학사
김 산	키키	민음사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김석규	신라에 내리는 눈	시문학사
김석환	어둠의 얼굴	푸른사상사
김선진	숲이 만난 세상	시문학사
김선호	햇살 마름질	서정시학
김성춘	물소리 천사	서정시학
김소원	그리운 오늘	시와시학
김소향	바람의 예감	시문학사
김술곤	수몰 저쪽	동학사
김시철	개 꿈	시문학사
김신용	바자울에 기대다	천년의시작
김 안	오빠 생각	문학동네
김언희	거인	중앙북스
김언희	요즘 우울하십니까?	문학동네
김연성	발령 났다	천년의시작
김영남	가을 파로호	문학과지성사
김영석	바람의 애벌레	시와시학
김영진	타지마할의 눈물	태학사
김 완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시와시학
김요일	애초의 당신	믿음사
김윤이	흑발 소녀의 누드 속에는	창비
김은자	여기 있어요	시안
김이듬	말할 수 없는 애인	문학과지성사
김자흔	고장 난 꿈	문학의전당
김장동	산행시 메들리	새미
김정식	한 존재가 피어 있네	문학의전당
김종길	그것들	서정시학
김종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영사
김종윤	나뭇잎 발자국	문학의전당
김종임	(삶을 따뜻하게 품는 메타언어) 쪽빛바다	지식과사람들
김종제	따뜻한 속도	문학의전당
김종태	지상에 별꽃	동학사
김종희	나는 너무 멀리 있다	시문학사
김진완	모른다	실천문학
김진희	굿바이, 겨울	새미
김춘성	서 있는 달	청어
김태형	코끼리 주파수	창비
김행숙	여기는 타관	시와시학
김형술	무기와 악기	문학동네
김혜순	슬픔치약 거울크림	문학과지성사
김환식	천년의 감옥	천년의시작
김효중	화살, 그리움을 쏘다	시와시학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나해철	꽃길 삼만리	솔출판사
나호열	눈물이 시킨 일	시와시학
노준옥	모래의 밥상	시와사상사
노중석	꿈틀대는 적막	동학사
도종환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한겨레출판
도종환	접시꽃 당신	실천문학
류제희	소금창고	문학의전당
리영성	연습곡, 사랑	동학사
문창갑	코뿔소	문학의전당
문충성	허물어버린 집	문학과지성사
박대문	꽃 사진 한 장	현대시문학사
박만진	오이가 예쁘다	시와시학
박미현	일상에 대한 모독	문학의전당
박봉환	행운의 캡틴	청어
박성우	자두나무 정류장	창비
박소유	어두워서 좋은 지금	천년의시작
박숙이	활짝	시안
박순호	헛된 슬픔	삶이보이는창
박승민	지붕의 등뼈	푸른사상사
박완호	물의 낯에 지문을 새기다	서정시학
박일규	절경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	시와시학
박일만	사람의 무늬	애지
박재릉	가야의 혼	시문학사
박정규	검은 땅을 꿈꾸다	리토피아
박정대	모든 가능성의 거리	중앙북스
박정대	삶이라는 직업	문학과지성사
박종국	새하얀 거짓말	천년의시작
박종민	기다림	청어
박찬일	인류	문학의전당
박형빈	사랑, 당신있음	시간의물레
박형준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문학과지성사
반영호	허공의 집	문학의전당
방우달	쬐끔만 더 우아하게	여름
방정민	인생, 그리고 나의 시	그림과책
배갑철	들	두손컴
배영옥	뭇별이총총	실천문학
백 석	백석전집	실천문학
백이운	무명차(無名茶)를 마시다	동방기획
백인덕	단단함에 대하여	북인
범대순	가난에 대하여	문학들
서상규	철새의 일인칭	푸른사상사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서상만	모래알로 울다	서정시학
서윤석	고마운 마리아	시문학사
서홍관	지금은 깊은 밤인가	실천문학
서효인	백 년 동안의 세계대전	민음사
석벽송	발원	천년의시작
석정호	밀행	문학의전당
성낙희	숨 쉬는 집	시와시학
성미정	읽자마자 잊혀져버려도	문학동네
성백선	분합문	시와시학
성선경	진경산수	서정시학
손병걸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애지
손종섭	옛 시정을 더듬어 上, 下	김영사
손증호	침 발라 쓰는 시	동학사
손진은	고요 이야기	문학의전당
손진은	쉬!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문학의전당
송병탁	아직도 남은 하얀 그리움	새미
송승환	클로로포름	문학과지성사
송유미	당나귀와 베토벤	애지
송유미	살찐 슬픔으로 돌아다니다	푸른사상사
송재학	내간체를 얻다	문학동네
송재학	진흙 얼굴	중앙북스
송준용	낙타가 사막을 건널 때	문학의전당
신경희	푸른 곰팡이	문학나무
신달자	종이	민음사
신승우	나를 두고 왔다	푸른사상사
신승철	더없이 평화로운 한때	서정시학
신정남	무인호텔	시문학사
신충화	반(反)하다	현대시문학
신혜경	달전을 부치다	문학수첩
신후식	이 한몸 태우고 남을	알토란
심인숙	파랑도에 빠지다	푸른사상사
심호택	원수리 시편	창비
안경라	듣고 싶었던 말	서정시학
안광태	초록벌레	시문학사
양소정	움집 위에 핀 이슬꽃	청어
여 정	벌레 11호	중앙북스
오세영	밤 하늘의 바둑판	서정시학
오인태	별을 의심하다	애지
오점록	나 머물던 그 자리	청어
오정국	파묻힌 얼굴	민음사
우낭자	The window	현대시문학사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유안진	둥근 세모꼴	서정시학
유종인	사랑이라는 재촉들	문학과지성사
유형진	가벼운 마음의 소유자들	민음사
유혜목	어느 빛으로 눈부신 가슴이기에	시문학사
유홍준	저녁의 슬하	창비
유희경	오늘 아침 단어	문학과지성사
윤원영	뒤란에서 울다	동학사
윤인자	에덴의 꿈	리토피아
윤준경	새의 습성	시와시학
윤진화	우리의 야생 소녀	문학동네
이가림	바람개비 별	시와시학
이경림	내 몸속에 푸른 호랑이가 있다	중앙북스
이경만	달빛 그림자	문예운동사
이경임	(마음을 치유하는) 영혼의 약상자	열림원
이경임	겨울 숲으로 몇 발자국 더	문학과지성사
이 광	소리가 강을 건넌다	동학사
이기철	잎, 잎, 잎	서정시학
이돈배	황새의 눈	푸른사상사
이동순	묵호	시와시학
이민호	피의 고현학	애지
이상덕	목련화 피는 사연	청어
이상범	풀꽃 시경	동학사
이선명	내가 사랑한 그리움	청어
이선식	시간의 목축	천년의시작
이선영	하우부리 쇠똥구리	서정시학
이선형	나는 너를 닮고	푸른사상사
이성의	하늘을 만드는 여자	문학의전당
이성진	아름다운 여행	새벽
이세희	못다핀한송이꽃	해가
이수명	언제나 너무 많은 비들	문학과지성사
이순이	엄마의 흰 펜	심지
이승원	강속구 심장	중앙북스
이영광	그늘과 사귀다	중앙북스
이영수	깊어지는 건물	문학의전당
이영춘	봉평 장날	서정시학
이용희	대지를 품다	푸른사상사
이윤학	나를 울렸다	문학과지성사
이이체	죽은 눈을 위한 송가	문학과지성사
이인평	명인별곡	황금마루
이장근	권투	삶이보이는창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이재무	경쾌한 유랑	문학과지성사
이재훈	명왕성이 되다	민음사
이정화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나비	시와시학
이준규	삼척	중앙북스
이지담	고전적인 저녁	서정시학
이지엽	사각형에 대하여	고요아침
이창수	귓속에서 운다	실천문학
이채강	등불소리	서정시학
이택근	또 다른 동행	문학의전당
이하석	상응	서정시학
이해인	작은 기도	열림원
이행자	사랑이 능금으로 익는 줄을	시문학사
이향아	화음	시와시학
이혜미	보라의 바깥	창비
임규택	고향이 보이는 창	새미
임동주	파랑주의보	새미
임 보	눈부신 귀향	시와시학
임성한	이슬방울 사랑	천년의시작
임 윤	레닌 공원이 어둠을 껴입으면	실천문학
임희구	소주 한 병이 공짜	문학의전당
임희숙	나무 안에 잠든 명자씨	시안
장경희	숲길을 거닐며	새미
장이지	연꽃의 입술	문학동네
전길중	제 그림자에 밟혀 비탈에 서다	시문학사
전성호	저녁 풍경이 말을 건네신다	실천문학
정국희	신발 뒷굽을 자르다	천년의시작
정삼조	그리움을 위하여	서정시학
정석교	꽃비 오시는 날 가슴에 꽃잎 띄우고	시와시학
정 숙	유배시편	시와시학
정원도	귀뚜라미 생포 작전	푸른사상사
정유준	편백나무 숲에서	시문학사
정윤천	십만 년의 사랑	문학동네
정이랑	버스정류소 앉아 기다리고 있는,	문학의전당
정재영	모퉁이 돌면	문학의전당
정태일	딴못	천년의시작
정한아	어른스런 입 맞춤	문학동네
정한용	유령들	민음사
정헌영	당신과 나의 뜨락에	청어
정 호	비닐꽃	북인
조경순	저 일획	푸른사상사
조경애	나를 부르는 목소리	동학사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조남순	미세한 대화	시문학사
조동범	카니발	문학동네
조성심	물굽이는 아름답다	문학의전당
조승래	내 생의 워낭 소리	시와시학
조영숙	백년 전쟁	시와시학
조용미	기억의 행성	문학과지성사
조인호	방독면	문학동네
조정권	고요로의 초대	민음사
조정권	먹으로 흰꽃을 그리다	서정시학
조정인	장미의 내용	창비
조항록	거룩한 그물	푸른사상사
지승복	책갈피 속의 수레	푸른사상사
지하선	소리를 키우는 침묵	문학의전당
차복희	강물 되어 흐르는 소리	푸른사상사
차수경	물의 뿌리	천년의시작
채명룡	봄봄	심지
채수영	슬픔의 학교	새미
천서봉	서봉씨의 가방	문학동네
천양희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창비
최경신	물의 추억	동학사
최계철	도두를 꿈꾸는 하루	문학의전당
최금진	황금을 찾아서	창비
최동호	얼음 얼굴	서정시학
최성철	도시의 북쪽	시문학사
최승호	아메바	문학동네
최영록	섬 휘파람새, 산골에 사는 까닭	시와시학
최인호	그해 오뉴월 불가락지	시문학사
최정례	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	문학과지성사
최정아	봄날의 한 호흡	문학의전당
최종천	고양이의 마술	실천문학
최희철	영화처럼	푸른사상사
하명환	신(新) 브레인스토밍	천년의시작
하상만	간장	실천문학
하종오	남북상징어사전	실천문학
하종오	제국	문학동네
하창호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요	청어
한동화	숯내에서 쓴 여름날의 편지	나남
한석산	흔들리는 풀꽃으로 서서	동학사
한승엽	몰입의 서쪽	문학의전당
한영옥	다시 하얗게	천년의시작
한진솔	꼬리에 꼬리를	현대시문학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함동선	한줌의 흙	시문학사
함민복	꽃봇대	대상미디어
함민복	절하고 싶다	사문난적
함성호	키르티무카	문학과지성사
허금주	옥돔구이	리토피아
허수경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문학동네
홍숙희	청일로 가는 길	답게
황규관	태풍을 기다리는 시간	실천문학
황명강	샤또마고를 마시는 저녁	서정시학
황봉구	물어뜯을 수도 없는 숨소리	서정시학

▌표 5. 2011년 발행 주요 소설집 · 장편소설 목록 ▐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강동수	금발의 제니	실천문학
강영수	(조선명탐정) 정약용	문이당
강영숙	리나	문학동네
강지영	프랑켄슈타인 가족	자음과모음
강 진	너는, 나의 꽃	자음과모음
강하와	울음	문학나무
고 은	(소설) 선	김영사
공선옥	꽃 같은 시절	창비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픈하우스
공지영	착한 여자	오픈하우스
구경미	키위새 날다	자음과모음
구병모	고의는 아니지만	자음과모음
구병모	아가미	자음과모음
구효서	동주	자음과모음
권 리	싸이코가 뜬다	한겨레출판
기 우	역전의 용사 1~4	루트미디어
기천검	케노스전기 1~3	삼양출판사 · 드림북스
길가온	화선 1~3	뿔미디어
길예하	꿈꾸는 장어	청어
김강현	마룡전 4~8	삼양출판사 · 드림북스
김강현	황금공자 1~5	삼양출판사 · 드림북스
김경나 外	(2011) 신춘문예 당선자 새소설	문학나무
김경도	이교장의 눈물	세계로미디어
김경록	대한제국 연대기 3~8	뿔미디어
김경묵	블래스터 5~8(완결)	디앤씨미디어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김경묵	염화의 주인 1~5	마야 · 마루출판사
김경미	웨딩돌 하우스	신영미디어
김경민	(왕의 여인) 어을우동	테라스북
김경옥	지조를 지킨 지도자들 1~5	월인
김경욱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창비
김경진	데프콘 3부1, 3부5	s씨앗을 뿌리는사람의 즐거운 편집실
김경화	붉은 매화	다인북스
김곰치	엄마와 함께 칼국수를	한겨레출판
김광수	(바람의 기사) 아르테온 1~2	청어람
김광수	마계대공 연대기 16~30(완결)	청어람
김광욱	천사의 나팔	풀내음
김도언	꺼져라, 비둘기	문학과지성사
김동근	달 뜨는 창가에	한국소설가협회
김동익	안단테, 안단테	나남
김동인	감자	현대문학
김려령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문학동네
김명조	사랑의 여정	한국소설가협회
김미진	랭보의 바람구두를 신다	웅진씽크빅
김별아	채홍	해냄출판사
김병인	디 데이	열림원
김선재	그녀가 보인다	문학과지성사
김성문	어느 봄 그해 여름	서울문학출판부
김성종	후쿠오카 殺人	웅진씽크빅
김성중	개그맨	문학과지성사
김성태	차원퀘스트 1~3	동아
김성한	요하	나남
김 숨	간과 쓸개	문학과지성사
김 숨	노란 개를 버리러	문학동네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창비
김용상	왕도와 신도	나남
김유진	숨은 밤	문학동네
김이듬	블러드 시스터즈	문학동네
김이설	환영	자음과모음
김인숙	미칠 수 있겠니	한겨레출판
김재석	풀잎의 제국	문학수첩
김정률	다크 메이지 5~7(완결)	랜덤하우스코리아
김정률	마왕데이몬 1~3	로크미디어
김정률	블레이드 헌터 1~8	삼양출판사 · 드림북스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김정한	사하촌	현대문학
김정희	내 영혼의 빛	푸른세상
김종일	삼악도	황금가지
김종호	인어공주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김중혁	미스터 모노레일	문학동네
김진경	그림자 전쟁	문학동네
김 훈	흑산	학고재
김희진	옷의 시간들	자음과모음
듀 나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	자음과모음
마광수	(장편소설) 세월과 강물	책마루
마광수	권태	책마루
마광수	돌아온 사라	artblue
마광수	미친 말의 수기	꿈의열쇠
마광수	페티시 오르가즘	artblue
문지혁	사자와의 이틀 밤	웅진씽크빅
문호성	육도경	자음과모음
박경숙	빛나는 눈물	문학나무
박금산	아일랜드 식탁	민음사
박범신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중앙북스
박범신	빈방	자음과모음
박범신	외등	자음과모음
박 상	15번 진짜 안 와	자음과모음
박샛별	시간을 멈추고	동아
박석근	남자를 빌려 드립니다	민음사
박성천	메스를 드는 시간	문학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씽크빅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
박정선	백 년 동안의 침묵	푸른사상사
박주영	종이달	자음과모음
박진규	보광동 안개소년	자음과모음
박태옥	마담 블루	자음과모음
박태원	천변 풍경	현대문학
박형근	20세기 소년	웅진씽크빅
박형서	핸드메이드 픽션	문학동네
배명훈	신의 궤도 1~2	문학동네
배수아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자음과모음
배수아	서울의 낮은 언덕들	자음과모음
백가흠	귀뚜라미가 온다	문학동네
백은하	별의 시간	문학들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변소영	뮌헨의 가로등	실천문학
서유미	당신의 몬스터	자음과모음
서하진	나나	현대문학
성석제	왕을 찾아서	문학동네
성석제	호랑이를 봤다	문학동네
손미나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웅진씽크빅
손영목	악어사냥	문학나무
송상옥	잃어버린 말	문학나무
송수경	위험한 소설	위즈덤하우스
신경숙	모르는 여인들	문학동네
신달자	물위를 걷는 여자	서정시학
신장현	돼지감자들	삶이보이는창
심 오	비하인드	자음과모음
심 훈	상록수	푸른사상사
안보윤	사소한 문제들	문학동네
안성호	누가 말렝을 죽였는가	문학과지성사
안재성	연안행	삶이보이는창
양창식	(태릉에 피어난) 불멸의 무궁화	푸른사상사
양창식	태산을 넘어 상,하	푸른사상사
염승숙	노웨어맨	문학과지성사
우영창	더월 1~2	김영사
유경숙	청어남자	문학나무
유광수	홍계월전	현암사
유연희	무저갱	북인
유지니	늑대본색	동아
유지니	전설의 그 사나이	가하
윤보인	뱀	문학과지성사
윤석원	광주에 가고 싶다	새미
윤성희	웃는 동안	문학과지성사
윤영수	귀가도	문학동네
윤후명	사랑의 방법	문학나무
윤홍길	완장	현대문학
은미희	흑치마 사다코	자음과모음
이강숙	젊은 음악가의 초상	민음사
이 경	표범기사	민음사
이나미	산타클로스는 죽었다	동아
이남희	친구와 그 옆 사람	실천문학
이대형	주생전	현암사
이문열	리투아니아의 여인	민음사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이성아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요	삶이보이는창
이성호	엄마 찾아가는 길	한국소설가협회
이수광	차랑	자음과모음
이신조	29세 라운지	웅진씽크빅
이우혁	치우천왕기 1~6	문학동네
이우혁	퇴마록 1~3	문학동네
이원호	2014 下	동아일보사
이원호	땅의 전쟁 1~2	자음과모음
이원호	불굴 1~3	스토리뱅크
이원호	영웅의 도시 1~6	스토리뱅크
이원호	정복자 1~2	스토리뱅크
이원호	청춘 대한민국	한결미디어
이윤기	유리 그림자	민음사
이재익	원더풀 라디오	자음과모음
이채형	사과나무 향기	문학나무
이청해	장미회 제명 사건	민음사
임수현	이빨을 뽑으면 결혼하겠다고 말하세요	문학과지성사
임종욱	이상은 왜?	자음과모음
장은진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자음과모음
전상국	남이섬	민음사
전석순	철수 사용 설명서	민음사
전수찬	오래된 빛	문학동네
전은강	아내 죽이기	Human&Books
정세랑	덧니가 보고 싶어	문학동네
정영문	어떤 작위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정용준	가나	문학과지성사
정진영	도화촌 기행	문학수첩
정총해	여리고로 가는 길	문학나무
조남주	귀를 기울이면	문학동네
조완선	천년을 훔치다	문학동네
조 윤	그녀를 찾습니다	랜덤하우스코리아
조정래	비탈진 음지	해냄출판사
조정래	상실의 풍경	해냄출판사
조정래	어떤 솔거의 죽음	해냄출판사
조정래	황토	해냄출판사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조현경	삼페인	위즈덤하우스
진소라	D등급 그녀	위즈덤하우스
채현선	마리 오 정원	자음과모음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천운영	생강	창비
천운영	잘 가라, 서커스	문학동네
최성배	흔들리는 불빛들	새미
최수철	침대	문학과지성사
최 윤	오릭맨스티	자음과모음
최 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최인석	연애, 하는 날	중앙북스
최인수	(소설) 민족시인 윤동주	집문당
최인호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여백미디어
편혜영	저녁의 구애	문학과지성사
표명희	하우스메이트	자음과모음
표성흠	뿔뱀	천년의시작
하재영	달팽이들	창비
한 강	희랍어 시간	문학동네
한규령	다른 세상의 남자	동아
한승원	항항포포	현대문학
한창훈	꽃의 나라	문학동네
허수경	박하	문학동네
허수경	아틀란티스야, 잘 가	문학동네
허 택	리브 앤 다이	문학사상
현길언	유리 벽	문학과지성사
홍양순	나비, 살랑거리다	실천문학
황석영	낯익은 세상	문학동네
황순원	카인의 후예	현대문학
황시운	컴백홈	창비
황현진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문학동네

▌표 6. 2011년 발행 주요 평론집 목록 ▐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고명섭	즐거운 지식	사계절출판사
권유리야	문화, 백일몽, 대중요법	새미
김경연	세이렌들의 귀환	산지니
김대산	달팽이 사냥	문학과지성사
김문주	수런거리는 시, 분기하는 비평들	서정시학
김백겸	시를 읽는 천 개의 스펙트럼	북인
김석준	상징에의 저항	역락
김선학	문학의 빙하기	까치글방
김성훈	바늘(箴)로 마음을 치료하다!	학고방
김수이	쓸 수 있거나 쓸 수 없는	창비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 여성	역락
김열규	행복	비아북
김영무	공감적 상상력에서 생명의 시학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영찬	비평의 우울	중앙북스
김욱동	적색에서 녹색으로	황금알
김윤식	한국 문학, 연꽃의 길	서정시학
김윤식	혼신의 글쓰기 혼신의 읽기	강원대학교출판부
김종주	이청준과 라깡	인간사랑
김종호	물 바람 빛의 시학	북스힐
김학동	서정주 평전	새문사
김학동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역락
리영희	희망	한길사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	서정시학
박진 外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는다	자음과모음
박진영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비
백낙청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	창비
서영채	아첨의 영웅주의	소명출판
서우석	시와 리듬	문학과지성사
서지영	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숲
송숙이	자기 반영의 문학	푸른사상사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엄창섭	발상의 전환과 느림의 시학	지식과교양
오생근	위기와 희망	문학과지성사
오창은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사유	실천문학
윤석산	새로운 시인을 기다리며	한국아카이브

작 가	도 서 명	출 판 사
윤종덕	거듭남의 시학	경남
이민호	한국 문학 첫 새벽에 민중은 죽음의 강을 건넜다	역락
이수명	횡단	중앙북스
이승원	시 속으로	서정시학
이연승	매혹의 언어	역락
이윤택	영혼과 물질	도요
이창복	(문학과 음악의) 황홀한 만남	김영사
이현식	문학도 학문도 아닌 그 중간쯤의 글	소다미디어플러스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	그린비출판사
이형권	발명되는 감각들	서정시학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대학교출판부
전정구	비평의 논리와 감성	역락
정재림	문학의 공명	황금알
정현기	운명과 자유	서정시학
정효구	일심(一心)의 시학, 도심(道心)의 미학	푸른사상사
조병무	문학의 환경과 변화의 시대	푸른사상사
조재룡	번역의 유령들	문학과지성사
최현식	시는 매일매일	문학과지성사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하상일	리얼리즘 '들'의 혼란을 넘어서	케포이북스
한수영	사상과 성찰	소명출판
한원균	고은이라는 타자	청동거울

2. 문학잡지 작품 발표 현황

2011년 주요 문학잡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작품 발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 대상으로 했던 69종의 잡지에서 몇 개의 잡지를 제외하고 ≪여성문학연구≫, ≪시인세계≫, ≪에세이21≫, ≪시인수첩≫, ≪애지≫, ≪수필과 비평≫, ≪시조세계≫, ≪문학의 오늘≫, ≪어린이 책 이야기≫ 등을 추가하여 총 76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잡지들은 독자와 장르, 지역을 고려하여 여성, 수필, 지방에 초점을 맞춰 선정하였다. 특히 ≪문학의 오늘≫과 ≪시인수첩≫이 새롭게 창간되었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7. 2011년 신작 조사대상 문예지 목록 ▐

잡 지 명	간 별	비 고
21세기문학	계간	종합
계간 문예	계간	종합
계간 수필	계간	수필
나래 시조	계간	시조
내일을여는작가	계간	종합
대산문화	계간	종합
리얼리스트	반년간	종합
리토피아	계간	종합
문예연구	계간	종합
문예중앙	계간	종합
문장웹진	월간	종합
문학 선	계간	종합
문학과사회	계간	종합
문학나무	계간	종합
문학동네	계간	종합
문학마당	계간	종합
문학미디어	계간	종합
문학사상	월간	종합
문학의 오늘	계간	종합
문학의문학	계간	종합
미네르바	계간	종합
미루	반년간	청소년
불교문예	계간	종합
서정시학	계간	시
세계의문학	계간	종합
수필과비평	월간	수필
시로여는세상	계간	시
시문학	계간	시
시안	계간	시
시에	계간	시
시와동화	계간	종합
시와반시	계간	시
시와사람	계간	시
시와사상	계간	시
시와세계	계간	시
시와시	계간	시
시와시학	계간	시

잡 지 명	간 별	비 고
시와정신	계간	시
시인세계	계간	시
시인수첩	계간	시
시인시각	계간	시
시작	계간	시
시조세계	계간	시조
시평	계간	시
신생	계간	시
실천문학	계간	종합
심상	월간	시
아시아	계간	종합
애지	계간	종합
어린이와문학	월간	아동
어린이책이야기	계간	아동
에세이21	계간	수필
에세이플러스	월간	수필
여성문학연구	반년간	전문
열린시학	계간	시
오늘의문예비평	계간	평론
월간문학	월간	종합
월간에세이	월간	수필
자음과모음	계간	소설
작가들	계간	종합
작가세계	계간	종합
작가와사회	계간	종합
창비어린이	계간	아동
창작과비평	계간	종합
펜문학	계간	종합
학산문학	계간	종합
한국문학	월간	종합
한국소설	월간	소설
한국수필	월간	수필
한국희곡	계간	희곡
현대문학	월간	종합
현대시	월간	시
현대시문학	계간	시
현대시학	월간	시
황해문학	계간	종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편람에 따르면 총 6,084명의 문인이 작품을 발표하였다. 여러 장르에 걸쳐 중복 발표한 문인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예년처럼 시 장르가 12,221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발표됐다. 뒤를 이어 수필과 산문이 3,373편, 평론이 2,953편, 시조가 868편, 소설이 739편, 동시가 465편, 외국문학이 234편, 동화가 182편, 청소년이 34편, 희곡과 시나리오가 31편, 콩트가 4편 발표되었다. 이 순위는 예년과 대비하여 변화가 없었다. 다만 시나리오의 발표가 전무했으며, 평론 발표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10년과 비교하여 순수창작의 작품 발표는 다소 줄어든 반면, 비평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장르별 1인당 발표 작품은 시가 4.69편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시조의 꾸준한 작품 발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 장르로서 현대적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징후가 아닌지 살펴볼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필과 산문 장르의 작품 발표 증가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표 8. 2011년 주요 문학잡지의 문인 작품 발표 현황 ▐

구분	시	시조	소설	수필·산문	평론	동시	동화	희곡·시나리오	콩트	청소년 문학	외국 문학	계
문인 수	2,602	297	474	950	1,200	200	150	31	4	34	142	6,084
발표 작품 수	12,221	868	739	3,373	2,953	465	182	31	4	34	234	21,104
1인당 발표 작품수	4.69	2.922	1.56	3.55	2.46	2.32	1.21	1	1	1	1.64	3.55
수록 잡지 수	61	12	37	65	71	15	15	5	1	2	20	-

2010년 작품발표 문인은 총 6,172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조사대상 잡지가 7개 정도 늘어난 것을 생각할 때 2011년 작품발표 문인이 6,084명에 그친 것은 전체적으로 발표 문인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든 시조와 수필 장르가 빈 곳을 채웠고, 특히 평론의 역할이 컸다. 작품 발표 수는 작년 19,117편에서 2,500여 편 늘어 21,624편을 기록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잡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수필과 산문의 작품 증가는 2011년 한 해가 위기였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형식을 떠나 격의 없이 소통하려는 욕구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10년 문인들이 내면의 공간에 머물러 개인적 작업에 몰두하였던 것과 달리 공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의 장으로 발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동화나 청소년 작품의 감소는 2011년의 어려운 경제 살림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통계다. 최후의 보루처럼 줄이지 않을 것 같았던 교육 관련, 아동 관련 출판물의 감소 추세가 반영되었고 볼 수 있다.

외국문학은 2010년 270편에서 234편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잡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통계다. 이 또한 어려운 경제 환경 탓이 아닐까 한다. 2011년 잡지에 게재된 외국문학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벌어진 자연재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늘의 문예비평≫에 3회에 걸쳐 실린 '일본의 각성'이란 글은 사회적 환경을 문학제도가 재빨리 수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창작과비평≫에서 매호마다 관련 내용을 게재하였다. 특히 사카모토 요시카즈의 '인간의 오만함'이란 글과 카라타니 코오진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를 어떻게 넘을까'는 2011년을 대면할 수 있는 화두라 할 수 있다. ≪현대문학≫에서는 발빠르게 노벨문학상 특집을 내기도 했다. ≪자음과모음≫에서 특집 단편을 한, 중, 일 동시 게재한 프로그램은 신선했다. 무엇보다도 ≪시로여는세상≫에서 연중 게재했던 미카엘 조의 '명상시'는 2011년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이 가져온 기획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은 원작 동화가 영화화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100만 관객을 모았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근래 보기 드문 호평이라 할 수 있다. 누적 관객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화 장르의 체질 변화에서 가능했다 할 것이다. 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는 환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현실에 반응하는 동화가 창작되기 시작했다. 교육과 현실과 자연이 하나의 장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려는 창작 작품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그러한 배경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동화 장르의 본보기다.

2011년 최고의 화두는 '청춘'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2011년 한 해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 20권'을 발표하였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의 불안과 아픔을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독이는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이용도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은 청년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다. 청년이 불안하다면 청소년의 아픔은 그 이상일 것이다. 청소년문학은 언제나 실체는 있지만 그 내용을 담아낼 형식과 매체가 부재한 채로 있다. 청소년 잡지 ≪미루≫의 특집좌담 "만남으로도 청춘이다"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청소년 판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아이들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버지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다. 이를 담아낸 작품으로 박상률의 「가장의 자격」(창비어린이), 조재현의 「아버지의 봄은」, 유다은의 「나와 아버지의 고향」(미루)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학 장르는 전년 대비 작품 발표가 대폭 감소했다. 청소년문학 담당 층의 협소함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판타지, 추리, 만화 등 장르문학은 이제 기존 문예잡지를 발표 공간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르는 대중과의 직접 만남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이미 옮겨 정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종이책 시장의 축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소위 전자책 시장이 도약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유로존 파산 징후 등의 불안한 분위기에도 2011년 해외에서는 장르 문학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장르문학이 일종의 도피처이자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르문학의 위상은 아직 음지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장르별로 문인들의 작품 발표 양상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 아직도 2010년의 자장 안에 놓여 있어 변화의 폭이 좁다. 그런 중에 '자본'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류들이 시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한쪽으로는 언어의 자율성을 통해 또 다른 측은 노동의 신성한 자유를 위해 시인들은 모색 중이다. 문단의 앞선 세대들의 시 쓰기는 변함이 없다. 특히 최동호는 젊은 시인들의 난삽한 시 세계의 대척점에서 서정의 극한을 추구하여 「남천의 혀가 목마른 초겨울」 외 34편의 시를 게재하였다. 이외 이가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외 27편, 오세영 「어떤 기도」 외 24편, 이성부 「자유」 외 23편, 민영 「부활」 외 21편, 신달자가 「꽃 비친다 하였으나」 외 18편, 오탁번 「우탄치」 외 19편, 유안진 「백색 어둠」 외 15편, 이시영 「고요 시인」 외 11편, 이건청 「목마른 물새」 외 7편, 신경림 「강정의 아이들에게」 외 5편, 고은 「간밤」 외 4편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성부 시인은 2012년 운명하기 한 해 전에 시혼을 불태웠다. 중견 시인들로 상희구 시인이 80편을 발표하여 2011년 문예지 발표 시인 중 최다를 차지하였다. 이 시편은 ≪현대시학≫에만 발표한 것이다. 이외 이승하

「고사목을 위하여」 외 30편, 차주일 「깻묵의 구성 단위」 외 27편, 홍일표 「뱀 이야기」 외 27편, 조정권 「참나무 숲에서 거절당하다」 외 25편, 문효치 「검은물잠자리」 외 25편, 문인수 「호미」 외 24편, 박남철 「함민복대성자지불상」 외 23편, 이은봉 「무등산 수박밭」 외 23편, 이재무 「주름진 거울」 외 23편, 이대흠 「앵강만 햇살」 외 22편, 공광규 「대팽두부」 외 22편, 송재학 「사람이 꽃이다」 외 22편, 박주택 「수목장례식」 외 20편을 발표하였다. 소위 미래파 시인들 중 김언과 조연호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김언이 「이 물질의 이름」 외 28편을, 조연호가 「꿰의 장」 외 25편을 발표하였다. 이들을 '미래파'로 명명했던 권혁웅도 「몸속을 여행하는 법 1」 외 27편을 발표하였다. 이외 베스트셀러 시인들로서 김용택이 「뜬 모와 개망초 꽃」 외 26편을 이영광이 「물푸레나무같이」 외 26편, 도종환이 「연두」 외 21편을 발표하였다.

소설의 경우, 2011년은 젊은 작가의 힘이 강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기존 서사에서 탈피하여 전에 없던 이야기를 끌어냈다. 한편으로는 새로움의 강조가 눈에 띄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상세계에 갇혀 현실은 저만치 물러난 느낌이다. 그만큼 인간의 냄새를 맡기 어려워졌다. 그러한 가운데 문순태의 「그 여자의 방」, 「아버지의 홍매화」, 현길언의 「비상하는 새」, 구효서의 「화양연화」 「사자월」 「바소 콘티누오」 발표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표명희가 「쇼핑 좋아하세요?」 외 7편, 김숨이 「국수」 외 6편으로 나란히 다작 발표를 하였고, 2010년도의 연장선에서 소설 연재가 연이었다. 박민규가 「더블」 외 5편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매스게임 제너레이션」을 ≪문학동네≫에 장편 연재하였다. 그 외 오랜만에 최윤이 ≪자음과 모음≫에 「오릭맨스티」를 발표하였고, 성석제는 ≪문학동네≫에 「위풍당당」을, 손홍규는 ≪월간에세이≫에 「내가 사랑한 귀신」을, 오현종은 ≪월간에세이≫에 「발한으로」를, 은희경은 ≪창작과비평≫에 「태연한 인생」을, 이승우는 ≪세계문학≫에 「지상의 노래」를 연재했다. 특히 ≪자음과모음≫에서 김연수가 「희재」를 한·중·일 동시 2회 연재했다. ≪문학사상≫에서 김동리의 작품 「P일등병」 외 3편을 발굴 게재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외 2011년 주요 작가의 작품 발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영숙이 「프리피야트 창고」 외 5편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문래에서」가 제5회 김유정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김도연 「아흔아홉」 외 5편, 백수린 「자전거 도둑」 외 5편, 손보미 「달콤한 잠」 외 5편, 김종광 「교수가 되려고?」 외 4편, 박금산 「명」 외 4편, 백가흠 「더 송」 외 3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서하진 「현대의 토템」 외 3편, 정지아 「숲의 대화」 외 3편, 최수철 「망각의 대가들」 외 3편, 김중혁 「크랴샤」 외 3편, 박형서 「아르판」 외 3편, 최진영 「돈가방」 외 3편, 강현우 「만삭」 외 2편, 김경욱 「스프레이」 외 2편, 김동근 「달뜨는 창가에」 외 2편, 김병언 「늙은 왕」 외 2편, 김유진 「물보라」 외 2편을 발표했다.

평론의 경우, 2010년에 이어 김윤식의 비평이 왕성하게 지속되었다. 김윤식은 「학병세대와 글쓰기의 기원」 외 16편을 발표하여 젊은 비평가들 못지않은 성실성을 보여주었다. 그 외 중견 평론가의 활동을 보면, 이숭원이 「빙하기에서 미타찰로 가는 길-이가림 시 50년」 외 16편을, 권영민은 「방법론의 가능성」 외 5편을, 마광수는 「서정주의 시 '정오의 언덕에서'의 해석」 외 3편을 발표하였다. 김우종은 「한국 현대수필 평설」을 ≪한국수필≫에 매월 연재하였다. 2011년 비평계는 여성 평론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허윤진이 「허물을 덮는 사랑/만우절의 축제」 외 14편을 발표한 것을 비롯, 신진숙이 「'고은'과 함께 시대를 읽다」 외 12편, 김윤정이 「우리 시의 현황과 감동의 문제」 외 12편, 김나영이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기」 외 10편, 김지미 「가장 '스마트'한 이상을 만나다」 외 8편, 나민애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대중음악」 외 10편, 백지은이 「체계와 체험」 외 9편, 안서현이 「문학, 인간에 대한 책임의 다른 이름」 외 10편, 이송희가 「몸의 코드화를 통한 몇 가지 소통 방식」 외 8편, 임지연이 「세계시민 탈북자 하종오씨」 외 13편, 장은정 「고은 시인에게 드리는 행성의 사랑을 위한 추신」 외 13편, 양경언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미덕, 충실하게 말하는 자세-이장근, 문충성의 시집읽기」 외 11편, 정여울이 「나보다 아픈 타인의 얼굴을 찾아서-박완서 소설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외 9편을 발표하였다. 여성 평론가들과 함께 2011년 평론계는 양도 늘었을 뿐 아니라 일부 몇 명이 주도하는 형국에서 벗어나 고른 목소리를 냈다. 김석준은 「비평의 태도-전통의 복원 혹은 해석과 저항 사이」 외 24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이 글을 썼으며 이경철, 고봉준, 이경재 등의 활약이 꾸준하였다. 특히 젊은 비평가 강동호의 평이 꾸준하였다.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철 「이 가을에 다시 묻는 참 시인과 시」 외 22편, 고봉준 「가장 '아픈 눈'의 작가, 소설가 염승숙」 외 17편, 이경재 「가족 로망스의 두 가지 행로」 외 16편, 이재복 「우리 시대의 픽션이란 무엇인가」 외 16편, 유성호 「현실주의적 상상력, '산'의 서정」 외 15편, 강동호 「사랑의 영도, 만짐의 현상학」 외 13편, 김익균 「유토피아디스토피아 혹은 성인동화」 외 13편, 조재룡 「번역 정글 잔

혹사, 혹은 세계문학전집 번역 유감 2」 외 13편, 양윤의 「느낌의 서사학」 외 12편, 박성현 「몸의 바깥 혹은 언어의 불가해성들」 외 11편, 장은석 「연인에서 이웃으로-김행숙 시집, '타인의 의미'」 외 13편, 장성규 「2000년대 노동시의 새로운 가능성들」 외 11편, 고명철 「'소리없는 음악'에 이르는 길의 신비」 외 10편, 김종훈 「궁핍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말」 외 10편, 서희원 「키치적 구원과 구원 없는 삶」 외 10편을 발표하였다.

이외 시조 장르 비평을 눈여겨볼 만하였다. 권갑하가 「격조 높은 서정과 농선의 시학-신동익 시세계」 외 12편을, 금서휘가 「환과 멸-영혼의 시원을 찾아서」 외 5편을, 정용국이 「낮은 곳에서 빛나는 시의 힘」 외 6편을 발표하였다. 전문 비평가가 아니면서 비평글을 쓴 정우영 시인의 글은 새롭게 받아들일 만하였다. 정우영은 「나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너와 함께 나를 되세우는 손-손병걸 시집 '나는 열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외 10편을 상재하였다.

수필과 산문의 경우, 2011년은 여성 필진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유혜자가 「내일이면 늦으리」 외 14편, 박성희가 「키스 키스」 외 13편, 염승숙이 「흔들리다」 외 12편, 이경자가 「낮과 밤의 의식을 한 몸에 지니고」 외 11편을 발표하였다. 이외 각 잡지에 연재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김신영이 ≪월간수필≫에, 서주연, 이세은, 이지애, 이진숙, 한고희 등이 ≪월간에세이≫에 글을 실었다. 가장 많이 발표한 작가는 정목일로 「절벽 등반」 외 17편을 발표하였다. 원로들의 활약도 그에 못지않았다. 김열규가 「숲 속에서의 만남」, 「잡초 뽑고 교정 보고」를 발표하였고, 김용직이 「나의 시대, 나의 이야기 5」 외 3편, 신달자가 「아직도 나는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다」 외 4편을, 엄정식이 「코끼리 이야기」 외 2편, 이태동이 「우산」 외 9편, 황금찬이 「나의 얼굴」 외 1편을, 황동규가 「엘리엇과 나/나의 세대」 등의 글을 실었다.

II. 문학상

한국의 문학상은 1953년 아시아재단이 제정한 문학상이 최초다. 이후 1955년 <현대문학시인문학상>이 제정된 이후 유사한 문학상이 매년 제정되었다. 2011년에도 새로운 문학상이 제정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개만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문화재단과 박경리 문학상위원회, 동아일보가 공동주관하는 '박경리문학상'으로 시

상 부문은 소설로 첫 회에 한해 한국 작가를, 2회부터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문학을 대상으로 한다. 첫 수상자로 소설가 최인훈이 선정됐다. 전주문화방송이 주관하는 '혼불문학상'은 작고한 최명희 소설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신인과 기성 작가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장편소설공모전이다. 1회 수상자는 최문희 작가로 대상작은 <붉은 빗방울>이다. '김구용 문학상'이 계간 리토피아 주관으로 제정되었다. 1회 수상자는 권정일 시인이다. 수상 시집은 『수상한 비행법』이다. 정채봉추모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채봉 문학상' 1회 수상자는 류은이다. 대상작은 시집 『그 고래, 번개』다. 문학상의 통계적 수치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고 상을 받는 대상의 변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2011년도의 문학상 분야별 현황을 <표 9>에 담았다.

▌표 9. 2011년 문학상 분야별 현황 ▐

구분	문학상 수	비 율
종합	162	43.3
시	74	19.7
소설	42	11.2
아동	38	10.3
시조	24	6.5
수필	12	3.3
평론	11	3.0
번역	5	1.4
청소년	5	1.4
희곡	1	0.3
계	374	100.0

2011년 문학상 각 부문의 주요 수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 부문: 서효인(김수영문학상), 심보선(노작문학상), 조현호(농민문학상), 신달자(대산문학상), 천양희(만해문학상, 육사시문학상), 조정권(목월문학상), 이영광(미당문학상, 지훈상), 마종기(박두진문학상), 이준규(박인환문학상), 도종환(백석문학상), 배한봉(소월시문학상), 송경동(신동엽창작상), 이시영(아름다운 작가상), 이성부(영랑시문학상, 경희문학상), 기무열(오장환문학상), 강은교(유심작품상), 함민복(윤동주상), 손택수(임화문

화예술상, 한국시인협회젊은시인상), 문효치(정지용문학상), 오세영(김달진문학상)

■ 소설 부문: 현길언(김준성문학상), 강영숙(김유정문학상), 임철우(대산문학상), 최인호(동리문학상), 편혜영(동인문학상), 최인훈(박경리문학상), 김미월(신동엽창작상), 공선옥(요산문학상), 공지영(이상문학상), 윤고은(이효석문학상), 김지연(채만식문학상), 윤성희(황순원문학상), 전경린(현대문학상)

■ 평론 부문: 염무웅(대산문학상), 홍용희(유심작품상), 김영찬(팔봉비평문학상), 방민호(현대불교문학상), 최현식(김달진문학상)

시의 경우, 단골 수상작들이 몇 있다. 지난해 문학상 수상자인 도종환, 송경동, 진은영 등이 2011년에도 '백석문학상'과 '신동엽창작상', '현대문학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들의 문단 내 활약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특히 주목받은 시인은 이영광과 손택수다. 이영광은 '미당문학상'과 '지훈상'을, 손택수는 '임화문화예술상'과 함께 '한국시인협회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기억에 남을 일은 이성부의 수상이다. 이성부에게 운명을 달리하기 전 세상에서 치른 문학적 값이라 할 수 있다. 이성부는 '영랑시문학상'과 '경희문학상'을 생애 마지막으로 수상했다.

소설의 경우, 원로와 중견들의 공로에 관심을 쏟았다. 현길언이 옛 '이수문학상'인 '김준성문학상'을, 전경린이 '현대문학상'을, 최인호가 '동리문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제1회 '박경리문학상'에 최인훈이 수상한 것은 그의 문학이 지니는 세계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지영은 『맨말로 글목을 맴돌다』로 3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는데, 2011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값을 문학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편혜영과 김지연, 공선옥의 활약도 눈에 띈다. 이들은 각각 '동인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요산문학상'을 수상했다.

평론의 경우 염무웅의 '대산문학상' 수상과, 김영찬의 '팔봉비평상수상'이 주목할 만하다. 염무웅의 당선작은 『문학과 시대현실』이다. 문학의 현장성이 현재 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문제의식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심사위원의 동의를 모았다. 김영찬의 수상작은 비평집 『비평의 우울』이다. 그는 이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비평집에서 2000년대 후반 한국 소설의 흐름과 방향을 폭넓은 시야에서 명쾌하게 진단했다는 평을 받았다.

▌표 10. 2011년 국내 각종 문학상 현황 ▐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3.1문화상	3.1문화상 운영위원회	1960	종합
4.19문화상	4.19문화상 운영위원회	2000	종합
CJ문학상	CJ	2003	종합
MBC창작동화대상	문화방송, 금성출판사	1993	아동
SBS TV문학상	서울방송	1999	소설
가람시조문학상	전북 익산시	2000	시조
강원공무원문학회 문학상	강원공무원문학회	2002	종합
강원공무원문학회 신인상	강원공무원문학회	1996	종합
강원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1982	종합
강원문학작가상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2003	종합
강원수필문학상	강원수필문학회	2003	수필
강원시조문학상	강원시조문학회	1995	시조
강원아동문학상	강원아동문학부	1981	아동
강원여성문학상	강원여성문학인회	2003	종합
강원펜문학번역작품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강원지회	2004	번역
강원펜문학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강원지회	2002	종합
거창예술상	한국예총 거창지부	2000	종합
경기도문학상	경기도	1992	종합
경기도문학인상	경기문학인협회	1998	종합
경기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경기지부	1986	종합
경기수필문학상	경기수필문학회	2001	수필
경남도문학상	경상남도	1962	종합
경남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경남지부	1989	종합
경남시조문학상	경남시조문학회	1997	시조
경남아동문학상	경남아동문학회	1990	아동
경북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경북지부	1988	종합
경희문학상	경희문인회	1984	종합
고려문학상	고려문학회	2000	종합
고산문학대상	고산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시조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고석규비평문학상	계간 오늘의문예비평	1996	평론
고정희청소년문학상	여성신문	2003	청소년
공무원문예대전	행정자치부	1998	종합
공무원문학상	행정자치부	2001	종합
공초문학상	대매일	1993	시
관동문학상	관동문학회	1991	종합
광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광주지부	1988	종합
광주시문학상	광주시인협회	2003	시
광주시문화예술상	광주시	2000	종합
광주전남아동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회	1996	아동
광주전남아동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2005	아동
교단문학상	한국교단문학회	1999	종합
교산허균문학상	교산허균문학상 운영위원회	1999	종합
구름카페문학상	현대수필사, 한국수필학회	2005	수필
구상솟대문학상	구상솟대문학상 운영위원회	1997	시
금호시조상	금호문화재단	1993	시조
기독교문학상	한국기독교문학가협회	1983	종합
기독교타임즈문학상	기독교타임즈	2005	종합
기업소설문학상	한국소설가협회	2003	소설
김구용문학상	계간 리토피아	2011	시
김달진문학상	김달진문학상 운영위원회	1990	종합
김동리문학상	김동리상 운영위원회	1998	소설
김삿갓문학상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	2005	시
김수영문학상	민음사	1981	시
김영일아동문학상	김영일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아동
김유정문학상	김유정문학촌	2007	소설
김유정문학상	동서문학사	1989	소설
김유정소설문학상	김유정문학촌	1995	소설
김준성문학상(구 이수문학상)	계간21세기문학, 이수그룹	1994	종합
김환태평론문학상	문학사상사	1989	평론
꿈에그린주부문학상	한화건설	2008	수필
나래시조문학상	나래시조	1992	시조
나래시조신인상	나래시조	1997	시조
난고문학상	동강문학	2001	시
남명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진주지부	1989	시
남명문학특별상	경남아동문학회	2002	아동
남촌문학상	해남 남촌문학회	1996	시조
내륙문학상	내륙문학회	1995	종합
내일을여는작가신인상	한국작가회의	2001	종합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노근리평화문학상	노근리평화상위원회	2009	소설
노산문학상	노산문학회	1976	시조
노작문학상	경기도 화성시	2001	시
노천명문학상	노천명문학상 운영위원회	2001	시
농민문학상	농민문학사	1991	종합
농민문학작가상	농민문학사	1996	종합
눈높이아동문학상	대교문화재단	1993	아동
단국문학상	단국문인회	1989	종합
대구문학상	한국문인협회 대구지부	1982	종합
대구시인협회상	대구시인협회	1991	시
대구시조문학상	대구시조문학회	1998	시조
대구아카데미문학상	국제펜클럽대구지역위원회	2002	종합
대산대학문학상	대산문화재단	2003	종합
대산문학상	대산문화재단	1993	종합
대산청소년문학상	대산문화재단	1993	청소년
대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대전지부	1989	종합
대한민국디지털문학상	(사)한국 문학세상	2006	종합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문화관광부	1969	종합
대한민국예술원상	대한민국예술원	1966	종합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한국장애인개발원	1991	종합
대한민국향토르네상스문학상	현대문예	2002	종합
동국문학상	동국문학인회	1987	종합
동리문학상	동리, 목월기념사업회, 경주시	1998	소설
동서문학상	동서문학사	1988	종합
동서문학신인상	동서문학사	1982	종합
동서커피문학상	동서식품	1997	종합
동시문학상	계간 오늘의동시문학	2002	아동
동아문인상	동아문인상 운영위원회	2001	종합
동인문학상	조선일보사	1955	소설
동포문학상	동포문학상운영위원회	2001	종합
두리문학상	두리문학회	1995	종합
디지털작가상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문화관광부	2006	소설
마한문학상	만한문학상 운영위원회	1999	종합
마해송문학상	문학과지성사	2005	아동
만해문학상	창작과비평	1974	종합
만해상 문학부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1997	종합
모두사랑문학상	(사)모두사랑	2002	종합
모악문학상	모악문학상 운영위원회	1993	시
목월문학상	동리, 목월기념사업회, 경주시	2009	시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목정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	1992	평론
무등시조문학상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2004	시조
무영문학상	동양일보	2000	소설
문예사조문학상	문예사조사	1990	종합
문예한국작가상	문예한국	1996	종합
문학21 문학상	문학21	1997	시
문학과경계문학상	문학과경계	2001	종합
문학과사회신인문학상	문학과사회	2001	종합
문학과의식신인상	문학과의식사		소설
문학나무신인작품상	문학나무사		종합
문학동네소설상	문학동네	1996	소설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문학동네	2001	아동
문학동네작가상	문학동네	1996	소설
문학사상신인상	문학사상사	1953	종합
문학사조시조문학상	문예사조사	1992	시조
문학수첩 신인상	문학수첩사	2003	종합
문학판 신인작가상	문학판	2002	소설
미당문학상	중앙일보,문예중앙	2001	시
민족예술상 문학부분	한국민예총	1991	종합
박경리문학상	토지문화재단 /박경리문학상위원회	2011	종합
박남수문학상	동산문화재단	1988	소설
박두진문학상	박두진문학제 운영위원회	2006	시
박영준문학상	문학과의식사	1988	소설
박용래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운영위원회	1999	종합
박인환문학상	시현실, 내린문학회	2000	시
박홍근아동문학상	아동문예사	1990	아동
방정환문학상	아동문학평론사	1991	아동
백석문학상	백석문학기념사업운영위원회	1999	시
백양촌문학상	백양촌문학상 운영위원회	1989	종합
번역문학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1977	번역
병영문학상	국방부	2002	종합
복사골문학상	복사골문학회	1991	시
봉생문학상	봉생문학상 운영운원회	1989	종합
부산문학상	부산문학상 운영위원회	1994	종합
부산소설문학상	부산소설가협회	1996	소설
부산시인신인상	부산시인협회		시
부산시인협회문학상	부산시인협회	1993	시
부산아동문학상	부산아동문학회	1979	아동
부산여성문학상	부산여성문학회	1993	종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부원문학상	월간문예사조	1991	종합
불교문학대상	한국불교문인협회	1992	소설
블루픽션상	비룡소	2007	청소년
삼성문예상	문학사상사, 삼성문화재단	1971	소설
상화시인상	죽순시인구락부	1986	시
새벗문학상	성서원	1984	아동
새천년문학상	새천년문학상 운영위원회	2001	종합
새천년한국 문학상	새천년한국 문학회	2000	종합
서덕출문학상	울산신문사	2007	아동
서라벌문학상	중앙대문인회	1991	종합
서울문예상	강남문인협회	1998	종합
서울특별시문화상 문학부분	서울시	1948	종합
서포문학상	농민문학사	1991	종합
설송문학상	설송문학회	1999	시
설중매문학예술대상	(사)한국 문학세상	2005	종합
섬문학상	섬문화연구소	2001	시
성균관문학상	행문회	1988	종합
성파시조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	1984	시조
세계문학상	세계일보	2005	소설
세종아동문학상	소년한국일보사	1968	아동
소월문학상	(사)한국 문학회, 계간 한국문인		시
소월시문학상	문학사상사	1986	시
소천비평문학상	소천비평문학상 운영위원회	1989	평론
소천아동문학상	계몽사	1978	아동
손소희문학상	계간문예	2006	소설
수원문학상	수원문인협회	1992	종합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상 운영위원회	1999	시
숙명문학상	숙명문인회	1995	종합
순수문학상	월간 순수문학	1993	종합
시문학상	시문학사	1976	시
시민불교문학상	시민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	1991	종합
시사문단문학상	월간 시사문단	2003	시
시예술상	시예술상 운영우원회	1999	시
시와반시신인상	시와반시	1994	시
시와시학상	시와시학사	1996	시
시인들이뽑은시인상	문학과창작	2002	시
시작문학상	(주)천년의시작, 계간 시작	2007	시
시조문학신인상	시조문학	1999	시조
시조시학상	시조시학, 한국시조학회	2002	시조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시조월드문학상	시조월드	2000	시조
시천문학상	시천문학회	1999	종합
신곡문학상	신곡문학회	1995	종합
신동엽창작기금	창작과비평사	1983	종합
실상문학상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 부산문협	1998	종합
심산문학상	심산문학상 운영위원회	1985	종합
심훈문학상	심훈문학상 운영위원회	1987	소설
아동문예문학상	한국아동문예작가회	1982	아동
아름다운작가상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	2002	종합
애지문학상	계간 애지	2003	종합
열린문학상	열린문학사	1995	종합
열린시문학상	열린시문학회	1995	시
영광문학상	영광문학회	2000	종합
영랑문학상	월간순수문학사	1996	시
영랑시문학상	영랑기념사업회, 계간 시와시학	2003	시
오늘의작가상	세계의문학	1977	소설
오늘의젊은예술가상	문화관광부	1993	종합
오영수문학상	울산매일신문사, S-Oil(주)	1993	소설
오장환문학상	실천문학사, 보은문화원	2008	시
오현문학상	귤림문학회	2001	종합
올해의시조문학작품상	시조문학사, 시조문학작회	1983	시조
올해의 작가상	한국수필가협회	2010	수필
요산문학상	요산문학상 운영위원회	1984	소설
우리문학상	우리문학사	1991	종합
우석동화문학상	기독교타임즈	2007	아동
원광문학상	원광대동창문학회	1996	종합
원종린수필문학상	원종린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	2008	수필
월간문학동리상	한국문인협회	2003	종합
월탄문학상	월탄문학상 운영위원회	1966	시
월하지역문학상	김달진문학관	2005	종합
월하진해문학상	김달진문학관, 시사랑문화인협회	2008	종합
유승규문학상	한국농민문학회, 옥천문인협회	2003	소설
유심문학상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3	종합
육사시문학상	TBC대구방송	2004	시
윤동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	1985	시
윤석중문학상	(사)새싹회	2005	아동
율목시인문학상	한국문인협회 과천지부	1992	종합
은하수동시문학대상	한국시사랑회,(주)은하수미디어	2001	아동
이무영문학상	이무영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소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이미륵상	이미륵추모사업회	1999	종합
이산문학상	문학과지성사	1989	종합
이상문학상	문학사상사	1977	소설
이육사문학상	이육사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시
이주홍아동문학상	이주홍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1981	아동
이헌구비평문학상	이헌구문학상 운영위원회	1989	평론
이형기문학상	격월간 시를사랑하는사람들	2006	시
이호우시조문학상	이호우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	1991	시조
이화문학상	이대동창문학회	1997	종합
이효석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소설
인천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인천지부	1999	종합
인터넷문학상	바로북닷컴	2000	종합
임실문학상	임실문학상 운영위원회	1995	종합
작촌문학상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전북위원회	2002	시
장로문학상	한국장로문인회	1998	종합
재외동포문학상	재외동포재단, 한국일보사	1999	종합
전남예총문화상 문학부문	전남예총		종합
전라시조문학상	전라시조문학회	1996	시조
전북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	1989	종합
전북수필문학상	전북수필문학회	1988	수필
전북아동문학상	전북아동문학회	1982	아동
전북여류문학상	전북여류문학회	1996	종합
전북예술문학상	전라북도	2003	소설
전북예술상	전라북도	1997	종합
전쟁문학상	한국전쟁문학회		종합
전주문학상	(사)한국미래문학연구원	2002	종합
전태일문학상	전태일문학상 운영위원회	1991	종합
젊은시인상	한국시인협회	2005	시
젊은평론가상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2000	평론
정운엽시조문학상	정운엽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	2002	시조
정지용문학상	계간시와시학	1989	시
정채봉문학상	정채봉추모위원회	2011	시
제주4.3문학상	제주불교본사 관음사	2003	종합
제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제주지부	2001	종합
제주신인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제주지부	1991	종합
조경희수필문학상	조경희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	2008	수필
조선시문학상	조선시문학회	2000	시
조연현문학상	한국문인협회	1982	종합
중앙문학상	중앙문학회	1993	종합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중앙문학상	중대문인회	1975	종합
중앙시조대상	중앙일보사	1982	시조
중앙신인문학상	중앙일보사	2000	종합
중앙장편문학상	중앙일보사	2010	소설
지구문학상	지구문학	2000	아동
지리산문학상	지리산문학상 제정위원회	2006	시
지용신인문학상	충북 옥천군		시
지훈상	나남출판사	2001	시
진안문학상		2003	시
짚신문학상	짚신문학회	2001	종합
창릉문학상	창릉문학상 운영위원회	2006	시
창비신인소설상	창작과비평사	1998	소설
창비신인시인상	창작과비평사	2001	시
창비신인평론상	창작과비평사	1994	평론
창비어린이신인문학상	계간 창비어린이	2009	아동
창비장편소설상	창작과비평사	2007	소설
창비청소년문학상	창작과비평사	2007	청소년
채만식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운영위원회	2003	소설
천등아동문학상	천등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2001	아동
천상병문학상	천상병문학상 운영위원회	1999	시
천상병시문학상	한국시사랑문인협회	2003	시
천상병시상	천상병시상 운영위원회	1999	시
청년토지문학상	한국토지공사	2005	청소년
청마문학상	청마문학학상 운영위원회	2000	시
청마문학연구상	한국문인협회 거제지부	2008	평론
청주문학상	청주문인협회	1999	시
청하문학상	계간문예운동	1991	시
초허김동명문학상	강원삼포문학회	2003	시
최계락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운영위원회	2001	시
최명희청년문학상	혼불기념사업회	2001	종합
최인희문학상	동해문인협회	1998	종합
춘천문학상	춘천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종합
충북문학상	한국문인협회 충북지부	1996	종합
충북수필문학상	충북수필문학회	1994	수필
충청문학상	충청문인협회	1992	종합
탐미문학상	탐미문학사, 밀레21	2000	종합
투병문학상	인제대학교 백병원, 동아일보사	2001	종합
팔봉비평문학상	한국일보사	1990	평론
펜문학상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1987	종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편운문학상	편운문학상 운영위원회	1991	시
평사리문학대상	토지문학재단	2001	종합
평화문학상	평화신문사	1986	종합
표현문학상	표현문학회	1986	종합
푸른아동문학상	푸른책출판사, 계간동화읽는가족	2003	아동
풀잎문학상	월간시사문단	2004	시
한겨레문학상	한겨레신문사	1996	소설
한국가톨릭문학상	가톨릭신문사	1998	종합
한국가톨릭아동문학상	가톨릭신문사	1998	아동
한국공간수필가협회상	한국공간수필가협회	1997	수필
한국글사랑문학상	한국글사랑문학회	2001	아동
한국기독교문학상	한국기독교문인협회	1983	종합
한국농민문학상	한국농민문학회, 계간 농민문학	2001	종합
한국동시문학상	아동문예	1978	아동
한국동화문학상	아동문예	1978	아동
한국문인상	새한국 문학회	2000	종합
한국문학백년상	한국문인협회	2008	종합
한국문학비평가협회문학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	2000	평론
한국문학상	한국문인협회	1964	종합
한국문협작가상	한국문인협회	2004	종합
한국번역문학상	한국번역가협회	1982	번역
한국번역문학상	코리아타임스	1970	번역
한국번역상	한국펜클럽	1960	번역
한국불교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	1998	종합
한국불교아동문학상	한국불교아동문학회	1983	아동
한국비평문학상	한국비평문학회	1992	평론
한국소설문학상	한국소설가협회	1975	소설
한국수필문학상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2	수필
한국시문학상	한국시인작가협의회, 문학아카데미	2001	시
한국시조문학상	시조문학사, 시조문학작가회	1983	시조
한국시조작품상	한국시조사	1991	시조
한국시협상	한국시인협회	1969	시
한국아동문예상	아동문예	1981	아동
한국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인협회	1992	아동
한국아동문학작가상	한국아동문학회	1978	아동
한국일보문학상	한국일보사	1968	소설
한국크리스천문학상	기독교문인협회	1984	종합
한국희곡문학상	한국희곡작가협회	1982	희곡
한남문인상	한남문인회	2006	종합

시상명칭	시상기관	제정연도	시상분야
한라문학상	한라문학동인회	1997	시
한라산시문학상	한라산문학동인회	1993	종합
한려문학상	한국인협회 여수지부	1993	종합
한림문학상	한림문학상집행위원회, 계간문학춘추	1998	종합
한무숙문학상	한무숙재단	1996	소설
한민족글마당문학상	한민족글마당	2004	종합
한민족문학상	한민족문학상 운영위원회	1997	종합
한정동아동문학상	한정동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	1969	아동
한하운문학상	한하운문학상 운영위원회	2005	시
해동문학상	해동문학사	1999	시
해양문학상	부산시	1997	종합
해양문학상	해양문화재단	2007	종합
해외한국문학상	한국문인협회	1992	종합
향토문학상	한국지역문학전남광주발전협의회	2002	종합
허균문학상	허균문학상 운영위원회	1993	쫑합
현대문학상	현대문학사	1955	종합
현대불교문학상	불교문인협회	1996	종합
현대수필문학대상	한국수필문학진흥회	2001	수필
현대수필문학상	한국수필문학진흥회	1983	수필
현대시동인상	현대시동인회	1995	시
현대시인상	한국현대시인협회	1978	시
현대시작품상	월간현대시	2000	시
현대시조문학상	현대시조시인협회	1984	시조
현대시학작품상	현대시학사	1969	시
호서문학상	호서문학회	1996	종합
호승시문학상	호승시문학상 운영위원회	2002	시
혼불학술상	혼불기념사업회	2001	소설
혼불문학상	전주문화방송	2011	소설
화순문학상	한국문인협회 화순지부	1996	종합
황금드래곤문학상	문화일보사, 황금가지	2001	소설
황금펜아동문학상	계몽아동문학회	2004	아동
황순원문학상	중아일보, 문예중앙	2001	소설
황진이문학상	탐미문학사, 밀레21	2000	종합
효석문학상	효석문학상 운영위원회	2000	종합
후광문학상	우리문학사	1992	종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Ⅲ. 문학행사

2011년에는 247건의 문학행사가 있었다. 이들 행사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즉 형식적인 행사 기획이 지적되었다. 학술 세미나는 단순히 당부나 인사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 낭송이나 몇 개의 문화행사가 전부였다. 시설과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관객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주된 행사를 계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2011년 문학행사 현황 ▐

구분	행사 수	비 율
기념 및 추모행사	7	2.8
낭송·낭독 및 공연	21	8.5
작가와의 대화 및 만남	16	6.4
문인대회	6	2.4
문학강연	14	5.6
문학의 밤	11	4.4
문학기행	1	0.4
문학제, 문학축전	62	25.1
문학캠프, 문학학교	8	3.2
백일장, 경연대회	15	6.0
전시	13	5.2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39	15.7
시상식	20	8.0
기타	14	5.6
계	247	100.0

2011년에도 문학제와 문학축전류의 행사가 가장 많이 치러졌다. 문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자체가 주제를 선정 개최하는 문학제로 대표적인 행사는 경남문학제, 해변문학제, 상록문화제, 토지문학제, 지리산 평화문화제, 서울문학제 등이며, 시인 작가들의 이름을 딴 행사로는 김구용문학제, 김유정문학제, 신동엽문학제, 백신애문학제, 영랑문학제, 박재삼문학제, 지훈예술제, 김달진문학제, 황순원문학제, 박경리

문학제, 김우진문학제 등이다. 계간 리토피아 주관으로 '김구용문학제'가 첫 행사를 가졌다. '행사 머리에 「김구용문학 세미나」(민명자 평론가, 정이지 시인)가 진행되었으며, 김구용문학상은 권정일 시인이 첫 수상했으며, 시노래(김구용 시 '어린이나라', '빛'- 가수 김애영 노래/ 김승기 시 '이어도', '바닥'- 가수 나유성, 장태산 노래) 공연 등이 있었다.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가 주관했던 '백신애문학제'는 지역 행사로는 드물게 관심을 모았다. 도종환 시인의 문학강연이 있었고, 문학 심포지엄에서 구모룡 교수가 '백신애, 근대를 향한 양가적 모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정은경 교수가 '백신애 문학의 <낭만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하였다. 그리고 강영숙 소설가가 『라이팅 클럽』으로 '백신애 문학상'을 수상했다.

낭송·낭독 및 공연 행사로는 제2회 '유심시조낭독회'가 주목을 받았다. 이번 낭독회는 정용국 시조시인의 사회로 정용국('눈물'), 김선화('눈물'), 배우식('칸나꽃 남자'), 이남순('소문난 국밥집'), 권갑하('물방울 속의 사랑'), 김선희('종이새'), 이승현('봄빛 밥상'), 권영희('건널목에서'), 임채성('노래하는 사람'), 김일연('별') 시조시인 순으로 낭독이 있었다.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연희문학창작촌과 서울국제문학포럼 주최로 '세계작가 연희(演戱)하다'라는 제목으로 문학공연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 르 클레지오는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허기의 간주곡』의 일부를, 가오싱젠은 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영혼의 산』의 중요부분을 낭독하였으며, 정현종 시인은 시 「천둥을 기리는 노래」를, 성석제 소설가는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에 수록된 「눈물」 부분을 낭독하였다. 또한, 동서양의 문학작품을 음미하는 가운데 가야금(안현주), 판소리(황세희), 국악 퓨전 그룹(아나야) 등 국악 공연이 있었다.

'문학의 집'이 주최하는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과 '수요문학광장'이 100회를 넘어 개최되었다. '문학마당'은 이문구, 서기원, 손소희 소설가, 고정희, 설창수 시인, 오영진 희곡작가의 밤, 수요문학광장은 박제천, 천양희 시인, 김흥우 희곡작가, 임보, 문효치, 조병무 시인의 문학강연을 가졌다.

학술대회로는 신동엽학회가 주최하는 가을학술대회가 광운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울을 새롭게 읽는 키워드로 신동엽의 「완충지대」를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다. "김윤미: '북촌'의 문화콘텐츠화연구—영화<북촌방향>과 연극<3월의 눈>을 중심으로", "오창은: 도시 공간에 새긴 감성의 상흔들—1960년대 서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방'과 근대의 불안", "이선우: 21세기, 명품도시 서울과 '노웨어맨(Nowhere man)들'", "주현식: <바보각시>의 지형학과 스캔들로서의 중립의 욕망". 교육과학기술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문 세션에서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글로벌시대의 다중정체성, 문명 갈등의 양상과 전망, 지구윤리와 문화소통의 가능성을 주제로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철학, 역사학, 문학, 인류학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행사 기간에는 인문학 기관이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인문학 포스터 전시회(24~26일), 청소년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만나 대화하는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26일)도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진흥 성과를 소개하는 '2011년 인문한국지원사업 성과발표회'(25일)도 열렸다.

IV. 한국 문학 번역 현황

한국문학번역원은 2011년 지원건수 총 105편으로 2010년의 111편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 지원번역 언어는 14개로 소설 57건, 아동이 22건, 인문사회 분야가 18건, 시 8건 순으로 지원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수필과 희곡 분야에는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표 12. 2011년 한국 문학 번역지원 현황 ▐

구 분	시	소설	기 타 (수필, 희곡 등)	아동	인문 사회	계
종 수	8	57	-	22	18	105
비율(%)	7.6	54.2	0.0	20.9	17.1	100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통계 참조.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2011년 출간된 번역작품집을 보면 대산문화재단 지원 작품이 8개 언어 14종,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작품은 15개 언어 54종이 해외에서 출간되었다. 소설 번역 출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

13건, 기타 18건으로 나타났다. 언어별 현황을 보면 영어 10건, 독어 10건, 스페인어 10건, 불어 4건, 중국어 8건, 일어 7건, 러시아어 5건, 리투아니아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에스토니아어, 파키스탄어, 헝가리어가 각각 1건, 몽골어 1건, 베트남어 3건, 체코어 2건, 터키어 3건으로 영어, 독어, 스페인어가 주류를 이루었다. 작가별로 보면, 고은, 이문열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백무산의 시집이 번역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13. 2011년 한국 문학 번역작품집 출간 현황 ▐

언어권	작품명	장르	원작자	번역자	지원처
체코어	겸허집: 선시선	시	겸허선사	이바나 그루베로바	한국문학번역원
체코어	한국고전문학입문서	기타	고미숙 외	블라디미르 푸첵	한국문학번역원
터키어	만인보	시	고은	오은경	대산문화재단
독어	순간의 꽃	시	고은	한스 유르겐 자보로브스키	한국문학번역원
터키어	고은시 전집	시	고은	오은경	한국문학번역원
러시아어	수수밭으로 오세요	소설	공선옥	조근희, 율랴 발라하노바	한국문학번역원
중국어	운현궁의 봄	소설	김동인	남광철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김동인 단편선	소설	김동인	하타노 세스코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구운몽	고전	김만중	알브레히트 후베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만다라	소설	김성동	김창민, 페드로 시모세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진달래꽃	시	김소월	하야시요꼬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무진기행	소설	김승옥	이혜경	대산문화재단
영어	김승희 시선	시	김승희	안선재, 이형진	한국문학번역원
러시아어	금오신화	고전	김시습	아델라이다 F 트로세비치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소설	김영하	김현균, 정혜리	한국문학번역원
리투아니아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소설	김영하	서진석, 사울레 마틀레비치에네	한국문학번역원
중국어	김유정 단편집	소설	김유정	리목화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악기들의 도서관	소설	김중혁	하타노 세스코, 요시하라 이쿠코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당신의 첫	시	김혜순	최돈미	대산문화재단
러시아어	김약국의 딸들	소설	박경리	카파루쉬끼나 디아나 이고레브나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토지	소설	박경희	홍명희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천변풍경	소설	박태원	김옥영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인간의 시간	시	백무산	윤선미	한국문학번역원
에스토니아어	한국의 신화	기타	서대석	서진석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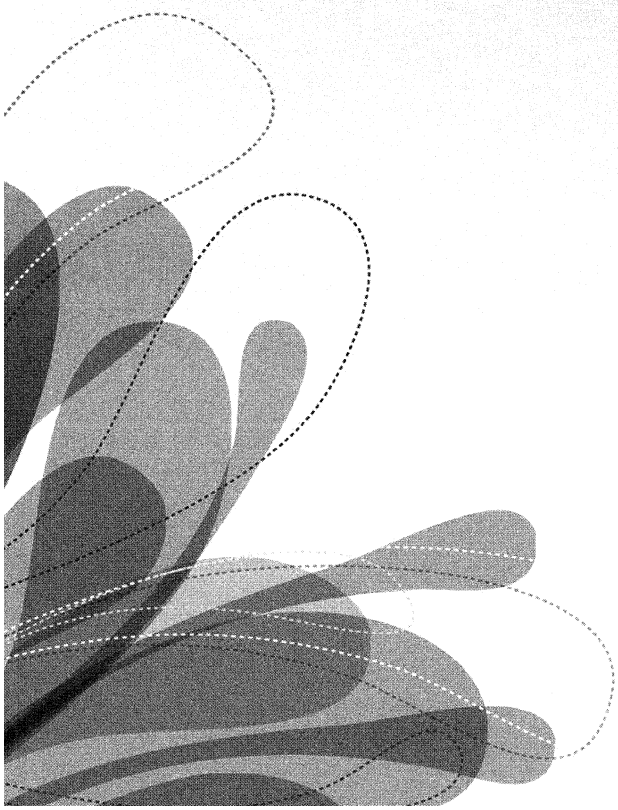
언어권	작품명	장르	원작자	번역자	지원처
베트남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	기타	서정오	도 옥 루이엔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엄마를 부탁해	소설	신경숙	안우식	대산문화재단
독어	통로	소설	안수길	안인길, 알리사 발저	대산문화재단
불가리아어	모순	소설	양귀자	김소영, Йорданка Апександрова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한국 여성작가 단편선집	소설	오정희	김은경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기타	오주석	이수분, 조윤정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한국 현대 연극의 여명	기타	유치진 외	명진숙, 박태규, 이시카와 쥬리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청마 유치환 시선집	시	유치환	이성일	대산문화재단
중국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	윤동주	배다니엘, 박애양	한국문학번역원
불어	한국 문학단편선	소설	은희경	최미경, 장 노엘 주떼	한국문학번역원
중국어	흙	소설	이광수	이승매, 이용해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고향	소설	이기영	이 하이케, 이태훈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한국현대문학입문서	기타	이남호 외	정영순, 헤르베르트 야우만	한국문학번역원
불어	돌아서서 떠나라	기타	이만희	김정희, 에르베 케르날레겐	대산문화재단
중국어	황제를 위하여	소설	이문열	한매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시인	소설	이문열	프리트헬름 베르툴리스, 김선영	대산문화재단
터키어	시인	소설	이문열	이난아, 파흐레띤 아르슬란	한국문학번역원
불어	이상 수필 전집	기타	이상	손미혜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생의 이면	소설	이승우	윤선미, 이강국	대산문화재단
일어	생의 이면	소설	이승우	김순희	대산문화재단
스페인어	격몽요결	고전	이이	김현창, 안토니오 도메넥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낯선 시간 속으로	소설	이인성	김선희, 에델투르트 김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서편제	소설	이청준	김옥영	한국문학번역원
베트남어	단군신화	기타	이형구, 홍성찬	쩐 티 호엉	한국문학번역원
중국어	이호철 단편집	소설	이호철	최성덕	한국문학번역원
헝가리어	남녘 사람 북녘 사람	소설	이호철	권혁양, 시몬치치네 요졜 노라	한국문학번역원
베트남어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이효석	훈 호아 튀 띠엔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우리의 옛노래	고전	임기중	고혜선, 프란치스코 카란차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그 섬에 가고 싶다	소설	임철우	유인례, 루이스 빈치게러	한국문학번역원
중국어	한국 근현대 문학경전 해독	기타	작자미상	김학철	대산문화재단
러시아어	환상소설첩	고전	작자미상	이인나	한국문학번역원
몽골어	한국대표 민담집	기타	작자미상	에르덴수렝 다와삼보	대산문화재단
러시아어	용비어천가	고전	작자미상	꼰드라지예바 엘레나, 마조 올가	한국문학번역원

언어권	작품명	장르	원작자	번역자	지원처
영어	검은 이야기 사슬	소설	정영문	유인례, 루이스 빈치게러	한국문학번역원
파키스탄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소설	조세희	마수드 아샤	대산문화재단
중국어	탁류	소설	채만식	김련순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얼음의 자서전	시	최승호	박경희, 쿠르트 드라베르트	한국문학번역원
영어	최정례 시선	시	최정례	브렌다 힐만, 피터 웨인 드 프레메르, 최정례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진술	소설	하일지	이혜경, 호세 까딸란	한국문학번역원
스웨덴어	아름다운 영가	소설	한말숙	안데쉬 칼손, 박옥경	한국문학번역원
독어	황석영단편선	소설	황석영	마틴 투취, 강윤주	한국문학번역원
일어	움직이는 성	소설	황순원	세리카와 데스요	대산문화재단
독어	나무들 비탈에 서다	소설	황순원	이기향, 마틴 헤릅스트(Martin Herbst)	한국문학번역원
스페인어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	시	황지우	민용태, 미구엘 갈라네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 각 예 술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부 회화, 조각, 공예

하 계 훈(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김달진미술연구소 객원연구원)

Ⅰ. 총 론

2011년 미술계의 전개상황 가운데 회화, 조각, 공예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의 미술 시장 불황 분위기가 연장되는 가운데 공공미술 정책 분야에서도 소장품 구입 예산 등을 삭감하는 침체의 기조가 지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작가 개개인의 약진이 이루어진 사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이전 5년여 만에 1,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음을 발표하여 문화예술계의 잠재적 관람객 수요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전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 김영나 교수가 여성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소격동 기무사 터의 서울관 건립을 본격화하였다. 배순훈 관장은 인터랙티브 아트를 강화해 다른 나라 미술관에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퍼포먼스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2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술관 측이 발표한 일정대로라면 서울관은 6월에 기공식을 하고 2012년 말에 완공을 거쳐 2013년 상반기에 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이었다.

2011년에도 비중 있는 전시 공간이 새로 태어났다. 5월에는 1999년 개관 이후 10년간 서울 도심에서 문화 오아시스의 역할을 했던 로댕갤러리가 '플라토'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였으며 구 서울역 역사 공간이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으로 8월에 개관하였다. 이 밖에도 5월에는 대구시립미술관이 개관하였고 9월에는 서울 강동구에 공연과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강동아트센터가 개관하

였으며,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우민아트센터가 개관하였다. 10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에 갤러리화이트블럭이 개관하였고 12월에는 경기도 양평에 양평군립미술관이, 그리고 충남 홍성에 이응노의 집이 11월 8일 개관하였다.

지방의 미술관의 관장들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경기도미술관에는 최효준 관장이(2.1), 광주시립미술관에는 황영성 관장이 선임되었고(3.20),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는 박만우 관장이(3.10) 임명되었으며, 부산시립미술관에는 조일상 관장이 연임되었다(3.21). 사립미술관의 관장들도 모기업의 문제와 관련되어 일시적으로 관장 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8년 소위 '행복한 눈물사건'으로 삼성미술관 리움의 관장 직에서 물러났던 홍라희 씨가 3월에 관장으로 복귀하였으며, 신정아 사건과 연관되어 물러났던 성곡미술관의 박문순 관장도 비슷한 시기에 관장 직에 복귀하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배순훈 관장은 11월에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건립 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았다.

2011년에도 미술품을 둘러싼 법정싸움이나 불미스러운 잡음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최욱경의 <학동마을>은 전직 국세청장과 관련하여 승진을 위한 로비사건의 핵심에 등장하였고 이 사건의 여파로 서미갤러리 홍송원 사장이 구속되고, 홍 사장이 리움의 홍라희 관장을 상대로 531억 원의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미갤러리는 이 밖에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대주주 재산 몰수 사건에도 연루되어 정치적 추문이 일어날 때마다 비자금세탁의 창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다. 미술품을 둘러싼 불미스런 사건은 일반인들 사이에도 벌어졌다. 가수 인순이가 흑석동 고급빌라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으며, 이 사건에도 역시 서미갤러리가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0년 국새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민홍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08년 화가 주경의 작품 <인물습작>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미술관의 작품 수집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다.

2월에는 KBS 본관에서 '백남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세계인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의 관심과 성원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 및 세계적 명사들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일생을 기리고 그의 예술혼과 시대정신을 밝히기로 하였다. '백남준 기념사업'은 KBS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이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예술가이자 정보화 시대 선각자인 백남준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이다.

3월 10일 주불한국문화원에서는 재불예술인과 한인사회의 주요인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불예술인총연합(FACF)>이 결성되어 정택영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3월 18일에는 전국 130여 개의 미술대학의 미술, 디자인 계열의 학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전국 미술디자인계열 대학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초대 회장으로 홍익대 미대 학장인 김영원 교수가 선출되었다.

문화재 부문에서는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가 조국으로 복귀하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치는 환수가 아니라 장기 대여 형식이어서 반쪽의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1922년 일제가 불법 반출해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실의궤 등 1,200여 도서도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5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12월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환수를 기념해 <145년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7.19-9.18)를 개최하였다. 프랑스에 이어서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왕실의궤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12.27-2012.2.5)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재 환수는 국민의 문화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국내에 소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과 보호에 대한 부실한 관리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8월에는 보물 제1호인 홍인지문이 폭우로 일부 파손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국보 제285호인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는 보존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였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2-10.23), 『제7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9.21-10.30), 『제5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10.1-10.30),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9.24-11.22) 등 다양한 장르의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도가도비상도'(디자인이라고 모두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53일간 9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는데, 공동감독을 맡은 중국 작가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정부에 체포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됨으로써 감독직 수행에 대한 염려를 불

러오기도 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유용지물'이라는 주제 아래 청주시 소재 옛 연초제조창에서 개최되어 65개국에서 3,200명이 참가하였고 4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인천여성비엔날레』는 '미지의 대지(Terra Incognita)'라는 주제로 20여 개국 7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2009년에 비해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이인범 전시감독이 개막을 3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져 감독 부재 상태에서 개막되었다.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미술 전시 가운데 중요한 전시로는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와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의 <이우환전>, 그리고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에서의 <전광영전>과 파리 보두앵 르봉갤러리에서 열린 <심문섭전>, 그리고 북경의 중국미술관에서 열린 <박대성전>(5.27-6.7) 등을 들 수 있다. 윤재갑이 커미셔너를 맡은 『2011 베니스비엔날레』(6.14-6.19)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이용백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우환은 우리나라 작가로는 백남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겐하임미술관 본관에서 개인전을 갖게 되었다. 전광영전의 경우에는 전시 작품들이 윌슨센터에 영구 소장되는 조건으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 심문섭은 지난 10년간의 작업을 소개하는 전시를 했다.

미술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6회 서울오픈아트페어 SOAF』(5.4-5.8)가 90여 개의 화랑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9월에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9.22-9.26)에서는 국내외 17개국 192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전체 작품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130억 원,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8만여 명으로 마무리되어 미약하나마 미술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하였다. 화랑협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아모리쇼』 기간 동안 맨해튼 소호에서 『제2회 코리안 아트쇼(Korean Art Show)』를 개최하여 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약 10억 원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업적인 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제기되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미술의 해외진출전>(5.26-7.23)의 경우 직접적인 작품의 전시는 아니었지만 195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이 국제화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를 하나로 묶어 단행본을 발간하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박물관 측에서는 이 전시에 이어서 다음번에는 외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미술이 한국 미술계에 소개된 기록을 정리하는 전시를 할 예정이다.

II. 회화

2011년 회화 전시는 몇 해 전까지의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조금씩 전통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회고적인 관점으로 선회하는 듯하였다. 연초의 주요 전시는 우리 미술의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인 장욱진의 전시(1.14-2.27, 갤러리현대)로 시작되었다. 장욱진 화백의 20주기에 맞춰 장욱진문화재단과 갤러리현대에 의해 기획된 이 전시는 유화 60여 점과 드로잉 10여 점이 출품되어 규모 면에서 공공미술관 전시에 못지않았으나 작가 연구의 학술적 측면이 부족하여 아쉬웠다는 평을 받았다.

중요한 작고 작가의 추모전도 다수 개최되었다. 작가의 사망 2주기를 추모하는 <위풍당당! 김점선전>(6.27-7.22, 롯데호텔갤러리), 사후 7주기를 추모하며 유작 240여 점을 소개하는 <박이소/개념의 여정전>(8.20-10.23, 아트선재센터), 1988년 39세의 나이로 요절한 불구의 화가 손상기를 추모하는 <시들지 않는 꽃, 손상기전>(9.2-9.16, 여수 진남문예회관), 작고 5주기를 추모하는 <하동철 5주기전, 빛>(10.12-10.25, 공아트스페이스) 등이 있었다. 회고적 성격의 전시로는 조선 후기의 회화를 되돌아보는 <옛그림에의 향수전>(3.15-3.28, 동산방갤러리),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분단, 정치적 혼란을 거쳐 이룩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쳐 온 한국 사회를 시각적으로 돌아보는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전>(3.17-6.5, 삼성미술관 리움), 17세기 영, 정조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에서부터 20세기 작가들까지 총 94명의 작품 200여 점을 보여준 <한국근대미술 새로 넓게 보기전>(3.19-7.10, 부산시립미술관), '한국화 100년 전통과 정신'이라는 부제와 함께 전통수묵화의 한국적 미감을 음미해 보는 <남도묵향 내일을 가다전>(11.24-2012.2.29, 광주시립미술관),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1970-80년대의 개념미술을 돌아보는 <팔방미인: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전>(2010.12.24-3.30, 경기도미술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설악산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의 작품 90여 점을 보여준 <김종학전>(3.28-6.26, 국립현대미술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평면작업을 보여준 <이강소전>(9.16-10.29, PKM트리니티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의 기증작가전 형식으로 개최된 <최덕휴전>(9.30-11.13, 서울시

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의 거장 단원과 겸재, 근대 화단의 쌍벽을 이뤘던 소정과 청전의 수묵 산수화를 전시하는 <한국수묵화의 거장전>(1.23-2.13,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시가 젊은 현대미술 작가의 전시에서 관심을 돌려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의 전통회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화에 대한 관심은 연초부터 굵직한 전시로 이어졌다. 선운사와 광양 매화농원을 거쳐 김해 농고와 지리산 단속사, 화엄사 구충암 등을 답사하며 20년 동안 매화를 연구해 온 작가의 매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문봉선전>(2.9-2.27, 공아트스페이스), 전남 구례와 설악산 등의 사계절의 모습을 전통화법과 극사실적 기법의 응용으로 밀도 높은 작품을 구사하는 <최영걸전>(8.26-9.23, 이화익갤러리), 조선시대에 그려진 초상화들과 중국, 유럽, 일본 작품들이 다양하게 소개된 <초상화의 비밀전>(9.27-11.6, 국립중앙박물관), 2006년 '조선말기회화전' 이후 5년 만에 마련한 전시로서 문인화와 함께 조선시대 회화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화원화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전시회로 평가받은 <조선화원대전>(10.13-2012.1.29, 삼성미술관 리움), 근현대한국미술사를 연 장우성(1946-1961)과 그 맥을 잇고 있는 박노수(1962-1982), 두 사제의 작품을 통해 현대한국화의 흐름과 그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고 아울러 국외에 현대한국화와 작가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한국수묵대가:장우성 박노수 사제동행전>(4.23-7.10,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평생 한국화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월전 장우성(1912-2005) 선생이 탄생한 지 100년 되는 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수묵화가 스물한 분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 수묵산수화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20세기 한국수묵산수화전>(9.16-11.20,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매년 봄가을에 2주 정도 미술관을 개방해 온 간송미술관이 전시회를 통해 안견에서부터 진경산수(眞景山水)의 겸재 정선, 풍속화의 절정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당 김은호까지 이어지는 조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52명 작가의 조선시대 대표 보물급 100여 점을 선보인 <풍속인물화대전>(10.16-10.30, 간송미술관) 등이 있었다.

스승과 제자 혹은 동향의 선후배 관계 등 두 작가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서로의 작품을 비교 전시하는 형식의 전시도 열렸다. 스승과 제자의 작품을 나란히 보여준 <한국수묵대가: 장우성 박노수 사제동행전>(4.23-7.10,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화가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자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로서 수필문학계에도 영향을 끼친 근원(近園) 김용준(1904-1967)과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주는 한국적 서정주의 작가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의 회화 작품 10여 점, 장정과 삽화 인쇄물, 문학작품은 물론 이전 전시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성북동 시절의 일화가 담긴 사료 및 영상자료 등을 보여준 <두 예술가를 만나다전>(4.27-6.26, 성북구립미술관), 추상과 구상,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내향성과 외향성 등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지만 두 사람 모두 대구미술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 온 <정점식, 김종복전>(8.10-11.20, 대구미술관), 창원시립문신미술관과 대전시립이응노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동시대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가 이응노와 문신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문신-이응노의 아름다운 동행전>(8.26-10.30, 창원시립문신미술관, 11.11-2012.2.19,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박수근 탄생 97주년 특별전으로서 '사실과 기억의 편린 20세기 한국여성사를 보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양구 출신의 두 대표작가의 작품을 보여준 <박수근과 조덕현전>(5.3-9.30, 박수근미술관), 박수근미술관 개관 9주년 기념으로 열린 특별기획전 <박수근, 오치균:화강암과 흙벽에 새긴 마음의 풍경전>(10.25-12.31, 박수근미술관) 등이 주목된다.

2011년에도 젊은 작가들과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가 적지 않게 열렸다. 송은문화재단에서는 송은미술상 1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은 <송은미술대상 10주년 기념전>(1.7-1.29, 송은아트스페이스)을 개최하였다. 금호미술관에서 2004년 첫 공모를 시작한 '금호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이 배출한 작가 45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금호영아티스트전>(4.1-4.24, 금호미술관), 1997년부터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주최로 뉴욕 아트 오마이 인터내셔날 아트센터 참가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과정으로 8명의 작가 가운데 2명을 선발하는 <신진기예전>(3.29-4.17, 토탈미술관), 인천을 거점으로 활동하거나 인천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작가 65명의 회화, 조각, 설치 작품 150점을 보여준 <유어인천전>(11.19-12.18), 미술전문 월간지 『아트인컬처』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젊은 작가 발굴 프로그램으로서 『2011 창원아시아미술제』의 특별전 형식으로 참가하여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동방의 요괴전>(4.22-5.8, 3.15아트센터), 수묵을 통해 서구적 풍경과 자동차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장재록전>(3.5-3.31, 아트사이드갤러리), 충돌의 맥락을 서로 다른 시점과 눈이 부신 형광색 등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표현하면서 장소성의 맥락이 아닌 이마쿼크의 '충돌'이라는 의미와 조형세계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접근한 <안두진 개인전 충돌의 언어:The Fault Line전>(6.17-7.30, 송은아트스페이스), 세밀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화면을 통해 다양한 시공간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한 <이진주전>(8.11-9.11, 16번지), 의자를 모티브로 평면과 입체 작업을 해온 <손진아전>(8.3-9.3, 313아트프로젝트), 장지 위에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바느질을 통한 실의 흔적에 의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품을 보여주는 <노신경전>(9.28-10.3, 인사아트센터), 가늘고 속도감 있는 타원형의 곡선 주위에 작은 구슬이 뿌려진 화면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간(Invisible Space)을 탐닉하는 <이강욱전>(11.9-11.25, 노화랑) 등을 통해 우리 미술의 젊은 작가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올해의 작가전 1995-2010>(8.9-10.30)은 지난 15년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중견 작가들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였으며, 우주를 주제로 한 작가의 40년간의 철학적 성찰이 응축된 대작 회화 30여 점을 출품한 오경환의 <우주의 심연전>(3.9-4.6, OCI미술관), 황색 모노톤으로 작가가 사는 제주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을 보여준 <변시지전>(4.15-5.16, 빛갤러리), 매년 중견작가들을 초대해 작품세계 전반을 조명하는 전시로 국내 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나 인지도가 미흡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초대해 오고 있는 2011 아르코 대표작가전으로 개최된 <황인기전>(5.3-5.29, 아르코미술관),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터치로 인간의 사고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감성적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최진욱전>(10.13-11.27, 일민미술관), 농부, 문신전문가, 이웃부부, 백화점 점원 등 실재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 사실적인 누드를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의 불편하고 당혹스런 반응을 유발하는 <안창홍전>(2.11-3.6, 가나아트센터), '시선의 정치'라는 부제로 도시화, 자화상, 조각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서용선전>(3.9-4.10, 학고재), 1960년대 한국의 현대미술을 선도하며 당대 전위적인 집단을 이끈 원로 화가의 작품 가운데 <바람부는 날>, <숨결>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등 세 시리즈의 근작 20여 점을 선보인 <윤명로전>(3.4-4.4, 신세계갤러리), 소박한 일상의 소재를 그리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 대한 사유와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화의 본질에 대해 탐구를 해온 <김지원전>(10.14-11.13, 금호미술관), <오치균전>(8.24-9.20, 갤러리현대 강남), 빛의 울림을 통해 종교적 명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정신의 승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추상작품을 선보인 <방혜자전>(10.4-10.23, 갤러리 현대) 등을 통해서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중견 및 원로 작가들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등 공공미술관이 소격동 서울관 건축이나 수익형 블록버스터 전시에 몰두하면서 기획력이 주춤하는 동안 대형 상업화랑이나 백화점에 부속된 갤러리들의 발 빠른 기획이 눈에 띄기도 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의 거장 단원과 겸재, 근대화단의 쌍벽을 이뤘던 소정과 청전의 수묵 산수화를 전시한 <한국수묵화의 거장전>(1.23-2.13,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스페인 출신의 화가 에바 알머슨의 '생활의 발견'을 주제로 한 유머러스한 작품들을 보여준 <에바 알머슨전>(8.5-8.28, 롯데갤러리), 스페인 출신으로 현대미술의 초현실주의적 영역을 개척한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호안 미로의 1949-1981년 사이의 조각, 드로잉, 판화 작품 25점을 소개한 <호안 미로전>(1.26-3.2, 신세계갤러리 본점), 철, 돌, 점토로 제작된 조각 작품을 비롯한 판화, 콜라주, 아티스트 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 <에두아르도 칠리다전>(10.19-12.12, 신세계갤러리), 책과 서가를 소재로 작업하는 4명의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예술가의 서재전>(9.29-11.15, 롯데갤러리 에비뉴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요 백화점들이 전국적인 매장의 연결망을 이용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문화마케팅 수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규모 이상의 사립미술관과 비교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새롭게 주목된다. 특히 5월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제프 쿤스(Jeff Koons)의 작품 <세이크리드 하트(Sacred Heart)>를 300억 원에 구입하고 이를 계기로 작가가 직접 내한하여 대대적인 아트마케팅에 응용한 사례는 국내 미술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1년의 전시 기획에서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만화를 소재로 한 전시들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매년 여름방학 동안 현대미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로서 젊은 작가 11명과 만화 캐릭터들이 만나는 <만화캐릭터, 미술과 만나다전>(7.22-9.18,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을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아람누리미술관에서는 제2회 국제만화예술축제의 형식으로 '일본 만화의 신',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로 불리며 우리에게는 '우주소년 아톰'의 작가로 알려진 데즈카 오사무(1928-1989) 작품 600여 점을 소개한 특별전(12.21-2012.4.1)이 개최

되었다. 11월 10일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 청강홀 3층에 있는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의 기획 전시로 10명의 작고 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60~70년대 만화의 핵심적 이미지를 전시하고 원고와 만화책을 보여주는 <한국만화가 남긴 유산전>(11.10-2012.4.30)이 개최되었다.

2011년에도 외국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가 이어졌다. 소마미술관에서는 독일의 국민작가 요셉 보이스의 작품과 사료를 통해 작가를 재조명해 보는 <요셉 보이스:멀티플전>(6.16-8.28)이 열렸다. 판화, 드로잉, 오브제, 필름 등 총 200여 점을 통해 전위작가이자 낭만적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요셉 보이스의 작품세계를 알기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였다.

6월에는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소장 회화, 드로잉, 사진 등 134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반)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전>(6.4-9.2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이 개최되었으며, 공아트스페이스에서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현대 미술가들의 특별기획전인 <자이언트 엘리펀트-인도현대미술전>(6.1-7.31)이 개최되었으며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에서 소장한 17-18세기 유럽 군주들의 애장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전>(5.3-8.28, 국립중앙박물관)도 열렸다. 대부분의 블록버스터 형식의 전시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것과 달리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요셉 보이스전>(8.25-11.6)과 <인상파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전>(8.25-11.6)을 개최하여 인상파 이후 서양미술 거장 47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형 기획전은 전시가 개최되는 미술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외부의 전시기획사가 전시를 주도하고 미술관 측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대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깊이 있는 학예연구 과정이 생략되고 상업적인 배경에서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번 전시들도 대부분 이러한 문제점을 또다시 노출했다.

2011년에도 해외작가들에 대한 작품 소개가 이어졌는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소개되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일이나 인도, 중동, 호주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미술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미국 뉴욕의 4대 미술관 중 하나인 휘트니미술관 소장품을 공개하는 특별전으로서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 미술의 1백년사를 회화, 사진, 오브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이것이 미국미술이다전>(6.11-9.25,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 오고 있는 세계미술전 시리즈의 하나로 2009년부터 스페인, 인도, 오스트리아, 미국, 호주 현대미술전에 이어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 프라이즈' 수상자(4명) 및 최종 후보자(12명) 등 16명 작가가 참가한 <오늘의 프랑스미술전:마르셀 뒤샹 프라이즈>(7.25-10.16, 국립현대미술관),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간과하는 환경 문제와 삶 속에 존재하는 경계를 되짚어 보는 설치 작품을 선보인 <타카시 쿠리바야시전>(8.5-10.16, 비욘드뮤지엄), 현대인들의 고독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뉴라이프치히 작가 팀 아이텔의 <더 플레이스홀더(The placeholder)전>(9.2-10.23, 학고재), 아랍에미리트 여인들의 금 장신구와 아랍어 서체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7개국 중 하나인 샤르자(Sharjah)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인 <불사조의 심장전>(9.17-11.20, 경기도미술관), 프랑스의 유명한 현대미술 컬렉터인 프랑수아 피노의 소장품 가운데 선별된 작품을 보여주는 <Agony & Ecstacy전>(9.3-11.19, 송은아트스페이스), 갤러리화이트블럭의 개관전으로 일상의 사물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독창적인 접근법, 다양한 표현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독일 현대미술가 3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독일현대미술 3인전-사물의 재발견전>(10.5-12.4, 갤러리화이트블럭), 중국 미술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신진작가 6인과 2개의 프로젝트 그룹을 소개하는 <햇빛 쏟아지는 날들전>(10.13-11.10, 갤러리현대), 한국과 호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호주에서 48명의 작가가 참여한 <텔미 텔미:한국-호주 현대미술전 1976-2011>(11.10-2012.2.19,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었다.

공공미술관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들 가운데에는 외부 전문가를 기획자로 초청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추상미술작품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추상하라전>(3.25-5.1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분관), 한국현대미술의 장르 해체와 융합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창작의 역량을 쌓아 온 작가 8명의 작품 20여 점을 보여준 <컨버전스·융합·퓨전전>(4.20-5.18, OCI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옥외 공간을 이용하여 기획한 2011 미술관 봄나들이 <불시착, 낯선 풍경전>(5.3-6.13), '소통'을 주제로 세계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 안리 살라(Anri Sala), 함양아(Yang Ah Ham),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 호르헤 파르도(Jorge Pardo) 4명의 대표작품 10여 점을 소개한 <소통의 기술전>(10.18-12.4 덕수궁미술관),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반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마음가짐을 그들의 한 획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던 <한 획전>(7.6-8.21, 학고재), 한국과 중국, 일본

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각국별 4명씩 모두 12명의 미술 작가를 초청한 <그리움(Nostalgia)전>(7.30-8.27,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한국과 인도의 현대미술가 28명(한국 13명, 인도 15명)이 색의 탄생과 유토피아, 달콤한 사랑, 미래의 도시를 주제로 한 평면 회화, 설치, 미디어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인 <핑크시티 아트 프로젝트>(11.22-11.27, 의정부예술의전당), 그리고 미술작품을 직접 전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미술계의 전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전개와 위상전>(5.26-7.23,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불시착, 낯선 풍경전>은 관람객들의 동선 안에 포함된 미술관 야외 공간을 이용하여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이질적인 기계와 생명이 행성 외부로부터 도달해 익숙한 공간에 불시착한다면'이라는 공상에서 시작된 흥미로운 전시로서 조각과 설치 분야에서 작가 10명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소통의 기술전>에서 전시 작품들은 뉴미디어, 필름, 설치, 디자인 등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 장르의 성격을 띠며, 작가들이 직접 구성한 4개의 전시장에서 소통에 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었다.

<그리움(Nostalgia)전>은 2007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부장관이 문화교류 증진 사업으로 합의한 '한중일 문화셔틀'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대미술을 통해 3국의 같고도 다른 점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핑크시티 아트 프로젝트>는 한국 측과 함께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주(州)인 라자스탄의 수도 자이푸르(Jaipur) 미술을 주도하는 라자스탄 미술아카데미(Rajasthan Lalit Kala Akademi), 라자스탄 주립 아트센터(Jawahar Kala Kendra)가 공동으로 제작한 프로젝트를 선보인 것이다.

미술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들이 치러졌다. 『제29회 화랑미술제(Korea Galleries Art Fair)』(2.11-2.14)에는 66개의 화랑이 참가하여 만 5천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제6회 서울오픈아트페어 Seoul Open Art Fair』(5.4-5.8)에서는 국내외 96개 화랑이 참가하여 4만 5천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홍콩에서 열린 아트홍콩(Art Hong Kong 5.26-5.29)이 바젤아트페어 주최 측에 인수되어 규모와 위상이 높아진 것에 비하여 국내의 아트페어들은 침체의 늪을 돌파하기 위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10회를 맞은 『한국국제아트페어 Korea International Art Fair』(9.22-9.26)는 17개국에서 192개의 갤러리가 내놓은 작품 500여 점을 선보였으며 8만 명의 관람객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유치하였다. 이러한 주요 아트페어 이외에도 『제4회 대구아트페어』(11.10-11.14, 엑스코), 『핑크아트페어 서울 2011』(9.22-9.25,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2011 경남국제아트페어』(9.22-9.25, 창원 컨벤션센터), 『2011 디자인앤아트페어』(4.22-5.1,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도어즈 아트페어 2011』(11.25-11.27, 임페리얼펠리스호텔), 『제3회 Art Road 77 아트페어』(5.14-6.12, 헤이리), 『2011 여수아트페어』(11.25-11.30, 진남문예회관), 『광주아트페어』(9.1-9.4,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개최되었지만 이러한 행사들이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11년 국내 미술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0년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을 마감해서 2011년은 상승곡선을 탈 것으로 기대됐으나 유럽발 재정위기, 증시불안 등으로 미술시장은 침체를 거듭했다. 다만, 고미술시장은 다소 회복세를 보인 한 해였다. 경매시장은 침체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내 경매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울옥션은 2010년의 적자에 이어서 2011년에도 매출 145억 원에 당기순손실 57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 2년째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K옥션은 3월에 이사회를 열어 글로벌 마케팅·영업 전문가로 알려진 조정열 대표를 선임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김환기의 작품 <창공을 나는 새> 등 대형 작품들을 낙찰시켰으나, 전반적으로는 시장 침체의 흐름을 크게 거스르지는 못하였다. 3월에 시작한 신생 경매회사인 마이아트옥션은 신장개업 효과에 의해 160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출발하였지만, 추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할 수 없었다. 국내의 미술품 수출입 실적 또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출 9,980만 달러, 수입 1억 6255만 달러였던 것에서, 2011년에는 수출 8,366만 달러, 수입 1억 2866만 달러로 감소했다.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금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해 온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은 2011년 12번째 수상자 후보로 김상돈, 최원준, 파트타임스위트(PTS)를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김상돈이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제12회 이인성미술상은 이상국이 수상하였으며, 2011년 제20회 석주미술상 수상자로는 재불 화가 이경자 씨가 선정되었다.

Ⅲ. 조각

2011년 한국 조각계의 대표적인 행사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ISF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1>이다. 2011년에 새로 시작하는 행사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는 크라운 해태 윤영달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전시는 미주, 유럽,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조각가 50인과 국내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가 143인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국내외 유명작가 193명의 1,000여 점의 작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모두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특별전 <All about Sculpture 조각의 모든 것전>에서는 세계적인 조각가들과 국내 초청작가들, 크라운 해태의 아트밸리 입주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본 전시인 <Sculpture the World 세상을 조각하라전>에는 90여 명의 조각가들이 미니개인전 형식으로 전시하였다. 마지막으로 <Into the Nature 자연 속으로 간 조각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잔디밭에 펼쳐진 야외 조각전도 개최되었다.

소마미술관에서는 조각예술의 본연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의 외연화 과정을 알려주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조각의 역사 안에서 한국 조각의 사실성을 이해하는 조각 그룹전 <한국 조각 다시보기_그 진폭과 진동전>(12.9-2012.2.26)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전시는 22명의 작가가 조각의 역사 안에서 한국 조각의 리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몸으로', '독립적인 물체에서 환경으로', '매스에서 마티에르로', 그리고 '정주에서 이동으로'라는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조각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인식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전시였다. 소마미술관은 올림픽공원 내 조각 작품과 연계하여 조각가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드로잉을 전시함으로써 조각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조각과 드로잉으로 수렴하는 소마미술관의 정체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각가의 드로잉전>(9.9-11.20)을 개최하여 현재 우리 조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100여 명의 작품을 '조각적 구현을 위한 드로잉', '독립된 장르로서의 드로잉' 그리고 '조각적인 것에 대한 개념의 확대로서 드로잉의 역할'로 부문을 나누어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소마미술관, 아르코미술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공프로젝트 <있잖아요전>(9.7-10.23, 청계천 광장)은 3개 미술관이 위치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다이내믹하고 변화무쌍한 특징을 담아내기 위하여 각 미술관의 3개 전시와 청계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미술관이 환경을 대주제로 차례로 전시를 열었는데, 소마미술관의 <조각가의 드로잉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미술관 '환경'에 대한 고려와 드로잉 특화 개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획이었다. 환경과 연관된 전시 중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정크아트:재활용미술>(9.9-11.20)은 재료와 작품의 조형성 면에서 관람객들에게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전시였다.

조각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결성한 고양조각협회가 주최하는 <2011 고양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및 <고양조각가협회전>(10.6-10.19)이 일산 문화공원에서 열렸다. '일상을 조각하다(Carving a Day)'라는 주제로 네 번째 열린 야외조각심포지엄에는 국내작가 오상일, 권치규, 이상현, 장상희, 이창희 등과, 해외작가 엘린도 아레즈(Arlindo Arez, 포르투갈), 론 곰복(R.M. Gomboc, 호주), 하랄드 호프만(Harald Hofmann, 독일), 자오 리(Zhao Li, 중국) 등이 참가하였다.

회화가 점차 단체전보다 개인전이나 소규모의 그룹전으로 선회하는 것에 비하여 조각전은 여전히 작품의 경향이나 지역, 출신학교 등에 의해 형성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룹전이 적지 않게 개최되었다. 2010년까지 21회 동안 개최되었던 <MBC한국구상조각대전>은 MBC 측의 수익사업 위주의 사업방침에 의해 21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이 전시회를 주관해 온 한국구상조각회는 별도로 <제44회 회원전>을 9월에 개최하였다. <MBC한국구상조각대전>과 관계없이 춘천 MBC에서는 호반광장에서 <제25회 한국현대조각초대전>(9.9-9.16)을 개최하였다. '쉼-休'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전뢰진, 이운식 작가 등 한국 조각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중진 작가, 현직 대학교수 등 25명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위원장 권달술)가 선정한 73명의 작가가 출품한 113점을 전시하였다.

조각예술의 상대적인 침체 속에서도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 부문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생명체 형상인 유기체 조각에 브론즈로 가운데에 핵을 형상화한 김은영의 조각작품 <태동의 빛>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03년 서른일곱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구본주를 기리는 구본주예술상의 제1회 수상자는 송경동 시인 겸 작가와 박은선이 선정되었다.

2011년 낙우조각회 신년하례식 및 8명의 서울대학교 조소과 출신 작가들이 참가한 <낙우조각회 젊은 작가 특별전>(2.9-2.14)이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렸으며, 8월에는 <32회 서울조각회 정기회원전>(8.31-9.6, 토포하우스)이 개최되었다. 한국여류조각가회에서는 <두리모를 위한 mind care, mind cure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류조각가 82명이 참가하는 기획전(11.2-11.7, 화봉갤러리)을 개최하였다. 미혼모, 싱글맘 등을 의미하는 두리모를 돕기 위한 기금마련전 형식으로 진행된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작품 가격을 낮춰 관람객들이 쉽게 작품을 소장하게 하여 두리모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다.

<제1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9.20-10.10, 이천온천공원)은 '관객 같은 작가, 작가 같은 관객'이라는 주제 아래 이천시에서 주최하고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한국, 중국, 미국, 독일, 인도를 포함한 국내외 총 10명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제작과 함께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알아보고 역대 참여 작가들의 기존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전과 이천 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생대회 조각교실 등 직접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되었다.

성남조각회는 한여름 무더위와 잦은 폭우가 반복하는 궂은 날씨의 우울함을 씻어 줄 두 번째 <The Hot Summer전>(8.10-8.16, 코사스페이스)을 개최하였다. '자연', '생명', '사랑', '조화', '치유', '역사', '환경 정화' 등 예술을 매개로 인간과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가 공존하는 13명의 작가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열린 2011 야외조각공원 봄 페스티벌 <백화만발전>(4.15-6.12)도 대중들과 눈높이를 맞춘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전시였다.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봄꽃 그리기 공모전 형식을 취한 행사였지만, 참가자들이 같은 시기에 미술관 내부에서 열렸던 <김종학전>과 함께 야외조각공원에 설치된 조각 작품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행사였다.

상당수의 조각 개인전은 조각가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사동 소재 갤러리인 코사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그 가운데 <제5회 흙과 사람들전>(11.30-12.6), <윤문기전>(11.16-11.23), <한국현대조각의 횡단과 모색전>(2.11-2.23), <새로운 지평-조각으로 보는 동계올림픽전>(9.21-9.27) 등이 주목되는데, <새로운 지평-조각으로 보는 동계올림픽전>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원을 위해 16인의 조각가들이 예술적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선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종목들을 바라본 작품을 출품하여 현대조각을 통해 스포츠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표현한 전시였다.

한국조각가협회에서는 <제3회 코사스페이스 기획 신진작가초대전>(1부 1.12-1.23, 2부 2.9-2.20)을 개최하여 조각 분야의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는 미래다전>(2.18-3.24, 김종영미술관)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내기 조각가 16명의 다채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로서, 서울·경기 지역 미술대학 교수 추천을 거쳐 미술관 학예실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어느조각모임전>(4.1-5.5)은 제10회 김종영조각상 수상기념전으로, 1990년 결성된 어느조각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28인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내일의 한국조각 기억과 회상전>(8.27-10.8, 모란미술관)은 1998년 이후 모란미술관이 개최해 온 <오늘의 한국 조각전>의 뒤를 잇는 연속선상의 전시로 현재의 한국 조각을 평면적으로 고찰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조각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조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2011년 첫해의 전시는 우리 조각계의 중진을 대표할 수 있는 안규철, 정현, 김인경이 출품하였는데, 이 전시는 앞으로 5년간 연례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다.

조각계의 원로 작가들의 전시 가운데에는 『나의 삶과 예술』 출판기념회를 겸하여 열린 <윤영자전>(11.16-11.30, 선화랑)이 있으며, 채색목조각 11점을 처음 한자리에 모은 김종영 특별전 <여름에서 가을 사이전>(6.10-11.30)은 김종영이 국내 처음 도입한 채색조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종영은 이러한 작품을 통해 나무 조각에 채색 안료를 옅게 덧칠해 색채를 형태의 한 요소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현대조각사의 새 장을 열었다. 창원 지역 출신의 작가로서 홍익대 미대 학장을 맡은 김영원의 회고전 성격을 띤 <생명과 명상의 조각-김영원전>(3.3-5.29, 경남도립미술관)도 주목할 만하였으며, 모란미술관에서 열린 <최만린 드로잉전>(5.7-6.12)은 1955년에서 최근에 이르는 작가의 드로잉 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전시로서 전시장과 도록에 소개된 700여 점에 이르는 드로잉은 단순히 조각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최만린 작가의 조형미학의 근원임을 보여주었다. 50년간 인간의 내면성을 표현해 온 작품들과 근래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채색 목조각, 수채화 작품을 소개한 최종태의 <구원의 모상전>(10.21-11.13, 가나아트센터)은 서울에서 전시가 끝난 후 대구 대백프라자갤러리와 수성아트피아로 이어졌다. 작고

20주기를 계기로 성곡미술관에서 개최된 <전국광전>에서는 작가의 미공개작 3점과 실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드로잉, 미공개 육필원고와 소품 등 100여 점이 소개되었다.

중진 작가들의 전시 가운데에는 7년간 쇠를 깎는 과정을 통해 녹슬고 뭉개지고 또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까지 모두 작품으로 승화시킨 <김종구 The Ball전>(11.24-12.18, 원앤제이갤러리),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와 마음과 정신으로 읊조리는 독백의 언어를 형상화하고자 한 <김건주전>(9.17-10.16, 닥터박갤러리), 만남과 존중, 경의와 경외,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인사하는 사람(Greetingman)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 종교, 인종과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기를 기원하는 <유영호전>(6.22-8.31, 갤러리스케이프), 나무를 재료로 한 <드러내기와 드러나기(exposing and exposed)> 연작 30점이 소개된 <차종례전>(3.11-5.1, 성곡미술관), 세계 미술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동시대 젊은 한국 작가 김신일의 진취적이고 깊이 있는 개념을 담아내고 있는 <김신일전>(6.24-7.28, 김종영미술관), 꽃을 모티브로 하여 정교한 입체적 선묘와 감각적 색채를 구사하는 <김희경전>(9.28-10.3, 인사아트센터), 현대 인간 문명과 자연, 그 사이(between)에서 조형적 다리 역할을 하는 추상적 조각 작업을 한 <임충섭전>(8.26- 9.26,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촉각적 조각을 통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방적인 소통의 방법에서 벗어나 쌍방 소통을 지향하는 <이웅배전>(10.5-10.19, 갤러리담), 자연석을 파들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결과로서의 의미를 만들기보다는 돌의 속을 비워내는 작업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자신만의 실존적 공간체험을 추구하는 <이기칠전>(6.1-6.7, 공평아트센터), 동양화 평면작업이 한지 점토를 이용한 조형작업으로 바뀌더니, 곧 테라코타 작업으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벽화작업으로, 그리고 다시 현대의 그물망을 이용한 입체작업으로 변천해 온 작가의 지난 30여 년의 끊임없는 조형적 실험을 보여주는 <박성태전>(9.23-10.31, 갤러리폼) 등이 있었다.

젊은 작가들의 전시 가운데 주목을 받은 전시로는 사진을 이용한 인물과 사물들을 볼륨감 있게 표현한 <권오상전>(5.6-6.2, 두산갤러리), 실존적 자아에 대한 고민이 작가가 구성한 내러티브를 통해 연극적으로 전개되는 작품을 선보인 <천성명전>(8.26-10.2, 갤러리스케이프),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로 선정된 작가로서 사실적 인체상을 통해 거대한 사회 속 부품으로 전락한 개인의 모습을 이야기한 <최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앙전>(5.5-6.5, 성곡미술관), 박제된 작은 곤충이나 음식 쓰레기, 손톱, 각질 등 신체의 작은 파편들을 캐릭터화한 자신의 독창적인 미니어처 작업으로 일찍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 온 <함진전>(7.3-7.15, PKM갤러리), 동선과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하여 집이나 인물 모양을 선으로 연결한 것처럼 볼륨감 있는 입체로 만들어내는 <모준석전>(5.13-6.5, 갤러리선컨템포러리) 등이 있다.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가운데에는 1999년부터 작업해 온 테이블 치스를 포함하여 대형 철조물과 돌을 재료로 한 조각과 2010년에 제작된 벽면설치 부조 시리즈를 통해 조각의 회화성을 보여주며 두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앤서니 카로전>(9.29-10.30, 국제갤러리), 경계선과 영역에 대한 관심을 작품으로 발전시켜 온 <타카시 쿠리바야시-In Between전>(8.5-10.16, 비욘드뮤지엄), 성적 정체성, 타인과 나의 구별,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동성애 문제 등을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구슬로 표현한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 <My way>(9.8-11.27, 플라토) 등이 있었다.

IV. 공예

2011년 공예계에는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형식의 굵직한 행사들이 열렸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2011 공예트렌드페어』(12.15-12.18, 코엑스)는 '평범한, 그러나 비범한'을 주제로 한국 공예의 생활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600명의 공예인들의 작품을 가지고 개최되었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프랑스 초청전에서는 프랑스공예협회(Atelier'd Art de France)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프랑스 현대 도자전>(9.24-11.22, 이천 세라믹 창조관 파빌리온)을 통해 전시되었다.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2-10.23)는 노자 도덕경의 첫 문구인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에서 출발하였다. '도가도비상도'라는 주제는 "도라고 칭하는 것이 다 영원한 도가 아니며, 이름하는 것이 다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 문구에서 길 도(道)를 그림 도(圖)로 바꾸어 주제문이 만들어졌다. '도가도비상도'는 전통적인 아시아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문명사적 변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9.24-11.22)는 이천·여주·광주 3곳에서 동시 개

최되었다. '불의 여행(Journey From Fire)'을 주제로 71개국에서 참가한 작가들이 <제6회 국제공모전>과 유러피언 세라믹 워크센터가 주관하는 <선데이모닝 세라믹스 Sundaymorning Ceramics전> 등 기획 전시와 워크숍,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 기간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전통 도자를 비교하고, 양국의 도자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전시와 이벤트도 열렸다. 그러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상명대 이인범 교수가 개막 수개월을 앞두고 사임하는 내부 진행상의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청주문화산업단지 일원의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 『청주공예비엔날레』(9.21-10.30)는 '유용지물'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의 공예 Contemporary Craft, NOW&HERE>, <의자, 걷다 Chairs:Flow>, <제7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그리고 올해의 초대국가로 핀란드관을 선정하여 <전통과 미래, 그 사이:핀란드의 공예와 디자인>을 개최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국제 공예&디자인 페어』도 열렸다. 이 밖에도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는 <청주청원 네트워크전>, <녹색공예디자인프로젝트>, <옛 연초제조창 65년사 스토리텔링 특별전:불꽃피다>, <한국공예가협회특별전>, 그리고 공예의 정체성과 미래, 공예교육에 관한 학술행사뿐 아니라 시민참여 프로젝트로서 문화예술이벤트, 시민홈스테이, 시민 도슨트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이루어졌다.

공예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공예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2011 공예, 대토론회'를 2011년 1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공예, 무엇이 문제인가?', '공예, 개념과 정의가 무엇인가?', '공예,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공예계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의 구분 없이 한국 공예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짚어 보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꾸며져 장인과 명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예인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예의 생산과 제작, 유통에 대한 시장 구조적 과제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멸과 인력 부족, 지역문화 산업으로서의 공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장인들의 전승 공예에서 예술 공예, 생활 공예, 취미 공예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면서 공예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예와 디자인 분야의 전시 가운데 <디자인 느와르:미술관을 위한 일곱 가지 픽션전>(10.6-10.30, 서울대미술관)은 디자인 작품과 각각 짝을 이루게 될 신작 소설들이 서로 이항 대립적이기도 하고 묘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학 외의 다른 분야(전시, 공연)와도 흥미롭게 연계된 소설의 형식은 관람자가 가진 디자인 혹은 전시에 대한 고정관념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게 해주었다. 치우금속공예관에서 열린 <크라프트 드림 2011 장식에 대하여전>(5.18-6.16)에서는 '인체와 장식'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작가 25명의 작품 60점이 소개되었다. 인사동 토포하우스 2층에서 열린 <33인의 섬유공예전>(2.16-2.22)은 국내작가 외에 특별히 스웨덴 작가 한 사람으로 주한 스웨덴 대사 부인 에바 바르고(Eva Vargo)가 참여하였다.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에서 열린 <테라코타, 원시적 미래전>(4.1-8.28)과 <집을 생각하다전>, <일상의 낙樂_Caelum et Terra전>(9.30-11.27)도 주목할 만하다. <테라코타, 원시적 미래전>은 테라코타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예술적 표현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그 외연을 넓히려는 기획에서 시작되었다. <집을 생각하다전>은 건축가, 도예가 등 16명의 작가가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주택과 관련된 오브제를 이용한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야외전시로 개최된 <일상의 낙樂_Caelum et Terra전>은 5명의 작가의 작품과 함께 관람객들이 자연 안의 삶 속에서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전시였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도예작가들과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가 주최한 보듬터기금 마련 전시회 <아름다운 나눔 보듬터 도예전>(2.16-2.24, 한전아트센터)은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터전인 보듬터를 돕는 기금마련을 위해 국내외의 도예작가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각자 소중한 작품 3점씩 출연하여 전시 및 경매를 진행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부하는 뜻 깊은 전시회였다.

2011년에 잇단 해저유물 발굴로 학계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 태안에서는 고려청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제5회 나오리예술제>(11.7-11.24)를 태안군 문예회관과 이원면 내리에서 열었다. 나오리 예술제는 도예에 관한 전시와 워크숍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과 무용 공연,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종합적인 행사를 지향하였다.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명품사업단은 '2011 공예명인후계자 양

성사업 공예명인후계자 선정공모'를 통해 전라북도 전통공예작가 5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공예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 가운데에는 1970-1980년대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금속공예 교육계에 이바지한 작가 8인의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공예의 발전상을 그려 보는 치우금속공예관의 <변화의 바람전>(10.7-11.5), 갤러리 골목의 공모전 당선자로 선정되었으며 유리 캐스팅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작품을 보여주었던 <이후창전>(8.6-8.17), 블로잉과 캐스팅을 넘나들며 고난도의 작품을 선보인 <박성원전>(10.27-12.11, 갤러리스클로), 조각을 전공한 뒤 섬유예술 분야로 나아간 원로 여성작가의 초대전으로서 색실로 그린 그림이나 직조된 조각 같은 태피스트리 작품을 보여준 <정정희전>(9.23-10.20, 김종영미술관), 한국의 대표적인 금속공예가 김승희의 <특별한 만남전>(4.13-4.26, 선화랑), 일본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펼친 작가의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인 <여병욱전>(9.2-9.24, 이도갤러리), 전통적인 백자 달항아리의 맥을 이어가면서 그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성석진전>(4.1-4.20, 갤러리SP) 등이 있다.

해외작가의 국내전 가운데에는 주방용품, 패션 소품, 소형가전, 시계 등 7개의 나무상자에 담긴 400여 점의 생활용품들을 통해 간결하면서 기능적인 스위스 디자인의 독창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스위스 디자인:크리스+크로스전>(9.5-9.30, 고려대박물관 기획전시실, 10.10-11.10, 부산디자인센터), 현재를 사는 인간들의 삶과 죽음, 예언자, 순수한 남자와 여자 등과 같이 다소 철학적이며 무게 있는 이야기들을 구리와 동을 녹이고 두드리는 단순하면서도 장인적인 노동을 통해 함축적이고 시적이며 추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Leonard Urso-TIME BEING전>(6.10-7.5, 갤러리로얄),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작가의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의 대표작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Verner Panton전>(12.7-2012.1.2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약 2만여 점의 제품 중, 조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161점의 뛰어난 작품을 선별해 소개한 <화(和):일본현대 디자인과 조화의 정신전>(2.12-3.19,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있었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부 사진/판화,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서예, 미술이론/미술비평

이 선 영(미술평론가)

Ⅰ. 서언

2011 사진, 영상, 설치의 전시 경향은 크게 자연과 생태, 도시와 일상, 사물과 몸이라는 주제로 대별되었다. 형식적으로 판화는 그 자체보다는 설치와 결합함으로써, 사진은 콜라주를 통해 다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서언에서는 큰 주제별로 그 주제를 대표하는 전시를 한두 개씩만 꼽아 본다. 현황분석은 장르와 주제로 나뉘어 서술되었으며, 서예와 미술 담론의 흐름은 말미의 각론에 약술하였다.

먼저 자연은 예술의 영원한 모델로 장르를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주제로 나타난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기원한 곳이며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장소로서, 설치의 형식과 결합함으로써 그 자체가 드라마가 펼쳐지는 크고 작은 무대로 다가온다. <정재철전>(5.13-6.16, 김종영미술관)과 <리차드 롱전>(5.26-9.25, 대구미술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작품은 설치가 주를 이루지만 유목의 관점에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역시 전시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 자연을 찍은 사진전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포착하는 <민병헌전>(3.13-5.7, 한미사진미술관), <주명덕전>(8.18-9.25, 대림미술관)이 대표적이고, 제주에서 열린 <박형근전>(10.1-10.24, 제주현대미술관)은 자신이 비롯된 대자연 속에서 '기억의 항해'(전시 부제)를 시도한다. 자연을 보다 거시적인 지구적 환경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사고에 기초한 기획전도 여럿 열렸다.

현대인에게 또 다른 자연으로 다가오는 도시는 더욱 빠른 시간의 주기를 통해 변모하며 시간의 예술인 사진가의 주요한 소재이자 주제가 되어 왔다. 한강 주변과

다리를 자전거나 헬기를 타고 찍은 <이득영전>(3.24-4.24, 갤러리2+gym project)이 대표적이다. 연말에 열려 이듬해 초까지 계속된 <김한용전>(12.10-2012.3.17, 한미사진미술관)과 <임응식전>(12.21-2012.2.12, 덕수궁미술관)에 출품된 사진들은 도시의 일상이 역사로 축적된, 그 자체가 미시역사의 결정판이다. 도시와 일상의 풍경에 구성과 해체의 요소를 가속하면서 도시의 일상의 이면과 무의식을 드러내고, 좀 더 거시적인 문명비판적 요소를 담은 전시가 있다. <홍유영전>(4.9-6.12, 영은미술관)은 파편화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Type Wall전>(4.1-5.29, 소마미술관)에서 도시를 이루는 여러 가지 벽은 어디선가 완성된 작품을 담아내는 중성적인 용기(container)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작품이 된다. <송차영전>(6.17-6.29, 갤러리무이)은 밀집된 도시와 바쁜 일상 속에서 무아경적인 몰입의 풍경을 발견한다. 인간들이 몰려 살기 마련인 도시는 다수의 동질화를 추동하는 체계화를 통해 경쟁을 극대화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낳는다. 도시적 삶의 묘사는 곧장 비판으로 전화하곤 한다. <김병진전>(11.25-12.17, 표갤러리 사우스)은 소비사회의 신화적인 투영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임승천전>(3.16-5.1, 공간화랑)은 거대한 배나 고래의 모습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상징하는 구조를 표현한다.

정지된 표면으로서의 사물과 몸은 즉물적 형태나 대상을 넘어서 반복된 해석을 요구하는 피사체다. 작가가 수집한 오래된 사물을 담은 <구본창전>(3.24-4.30, 국제갤러리)과 현대인의 불안한 표정을 담은 <오형근전>(5.4-5.31, 트렁크갤러리)이 대표적이다. 미니멀리즘 이후 인체라는 중심적 질서로부터 탈피하는 현대미술은 몸과 함께 사물을 부각했다. 사물은 예술과 비교된다. 사물은 예술과 달리 그 의미와 형식이 표면에서 표면으로 떠도는 수수께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물건이 넘쳐나는 현대에 대량생산물 역시 각자의 역사와 서사를 내포하게 된다. 수집된 오브제와 그 배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표현수단이 된다.

사물은 화이트 큐브라는 추상적인 공간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는다. 장소 특정성은 화이트 큐브를 넘어선 공간에서 작업하는 이들의 기본어법이 되었다. 장소 특정성이 자연으로 향할 때 지역성이 강조된다. 2011년에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열려 왔던 미술축제들이 있었다. 사물과 몸에는 장소라는 공간성과 이야기라는 시간성이 새겨져 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이 고양되는 현대에서 가까운 과거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감수성이 두드러진다. 이에 관련해서는 코리안 랩소디전(3.17-6.5, 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성미술관 리움)이 대표적이다.

미디어 사회를 가득 채우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전자거울로 인간의 몸을 비추며 나르시시즘적 체험을 고양한다. 몸은 코드화된 사회에서 코드화할 수 없는 최후의 영역으로 코드와 상호작용한다. 몸은 무의식의 영역을 부각한다. <손정은전>(2.10-3.13, 성곡미술관), <조현익전>(7.6-7.31, 자하미술관)은 설치의 형식을 통해 욕망과 사랑, 광기와 죽음의 무대를 연출하며, <장지아전>(7.7-7.30, 갤러리정미소)은 고문이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현대에 처한 몸의 상황을 은유하였다. 다양한 출력의 형식이 존재하는 전자매체 사회에서 판화는 회화의 한 변주라기보다는 영상과 설치의 형식을 통해 공간과 시간으로 확장된다. <장양희전>(12.8-12.19, 갤러리조선)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동시에 전공한 작가는 익명에 의한 초상으로서의 몸을 설치 형식으로 종합한다.

인지와 소통의 문제를 다루는 전시는 그 자체가 실험의 한가운데에 있다. 몽타주나 콜라주의 형식은 사진과 회화의 접점에 존재하면서 사진가들과 미술가들에게 공통된 어법이 되었다. 사진 콜라주를 통해 후기 식민지의 모습을 표현한 <코디 최전>(4.14-5.14, PKM트리니티갤러리)과 세계를 평평하게 제시한 <권오상전>(5.6-6.2, 두산갤러리)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소통의 기술들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소통은 더욱 희귀하고도 힘든 역설적 가치가 되었다. 미술 역시 소통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 연말까지 계속된 <소통의 기술전>(10.18-12.4, 덕수궁미술관)은 소통 그 자체를 전시의 주제로 놓았다. 청각성은 시각성이 중심을 이루는 근대를 넘어 새로운 소통을 위한 공감각적인 원천으로 현대미술가의 주목을 받았다. 소박한 들꽃과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등장하는 <설기효전>(8.12-8.28, 인사미술공간)에서 소리는 공감각을 추동하는 주요한 감각이다. 여기에서 추상적인 언어는 색과 소리로 갱신된다. 텍스트와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는 소통이라는 당위와 명분이 자료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자료가 단지 불활성의 덩어리가 아니라 조직과 배치의 기술이라는 점을 통해 비로소 예술 영역에 속하게 된다. <뮌(김민선+최문선)전>(9.22-10.16,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은 90년대 초 대중문화의 지배적 텍스트였던 서태지를 불러들인다. 텍스트가 연출되는 장은 무대의 형식이다. 그것은 21세기 다중을 위한 기억 극장이다.

어두운 극장은 화이트 큐브 못지않게 현대미술의 장을 이루어 왔다. 설치 등의

형식과 결합하지 않고 전시장 자체를 작은 영화관으로 삼아 영상만을 상영하는 전시도 많아졌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싱글채널 비디오나 필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상 아카이브가 되어 축적되고 배포된다. <H box, nomadic video art screening room 전>(2.25-5.1, 아트선재센터)과 <featuring cinema전>(4.7-5.31, 코리아나미술관)이 대표적이다. <H box전>은 2007년 파리에서 처음 시작된 모바일 상영관으로, 최근 2년간 새로 제작된 영상작품이 소개되었다. 영상을 서사의 수단이기보다 실험적인 성격으로 채운 전시들도 또 하나의 줄기를 이룬다. 미디어로 포화된 현대세계는 인간의 지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여 설치 형식으로 인지와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전시들이 있다. 소통을 주어진 공간에서의 몇 가지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공공미술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천 소무의도 일대에서 벌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훌륭한 예다. <섬집을 존중하다전>(10.1-12.31, 인천 소무의도 일대)은 실제의 섬에서 예술이라는 섬을 벗어난다. 그것은 공공예술의 전범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II. 사진과 판화 현황 분석

1. 사진-자연과 생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포착하는 사진전은 눈 덮인 겨울 산과 바다를 찍은 <산수>와 <낙산>을 선보인 <권부문전>(1.12-2.27, 학고재)을 시작으로, 민병헌, 주명덕, 김중만, 배병우, 구본창, 박형근의 굵직한 전시들이 이어졌다. <민병헌전>(3.13-5.7, 한미사진미술관)은 디지털 시대에 흑백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 'waterfall'이라는 부제로 열린 전시에는 폭포, 안개,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60여 점이 걸렸다. 한미사진미술관의 전시가 눈 쌓인 풍경에 중점을 두었다면, 카이스갤러리(4.21-5.20)에서 열린 전시는 하얀 포말이 이는 바다 사진 등이 출품되었다. 박훈과 조균선의 사진전은 자연에서 행한 행위를 담는다. <박훈전>(3.16-3.29, 갤러리 숲)의 사진에 나오는 행위는 대부분 땅과 관련된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며 무엇인가 줍는 행위는 환경의 의미를 부각한다. <조균선전>(6.2-7.3, 갤러리2)은 자연에서 비눗방울을 띄워 찍은 <버블> 연작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운 면을 드러낸다. <주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덕전>(8.18-9.25, 대림미술관)은 'my motherland'에서 한국의 전통이 남아 있는 오대산 부연동과 구례 연곡 등의 지역들을 찍은 70-80년대 작품들에서 자신의 사진을 조국에 바친다. <김중만전>(8.24-9.17, 갤러리유로)은 '침묵의 시간-바위(돌 물 나무 그리고 풀)'에서 자연 풍경의 순수함을 주목했다. <구본창전>(10.28-11.24, 트렁크갤러리)은 컬러사진임에도 흑백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들을 찍었다. 제주가 고향인 작가 박형근은 제주현대미술관의 큰 전시를 통해 제주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그는 제9회 다름 작가상 수상전인 '금단의 숲'(6.8-6.13, 인사갤러리)을 시작으로, '기억의 항해'(10.1-10.24, 제주현대미술관), '시간의 울림'(11.3-11.27, 갤러리잔다리) 등 한 해 동안 굵직한 개인전을 세 번이나 치렀다. 특히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는 청년기까지 제주에 살았던 작가가 감성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어 주었던 바로 그 고향에서 대표작들을 대거 선보였던 자리다. 작품의 무대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지속할 세계다. 자연을 보다 거시적인 지구적 환경으로 생각하는 생태적 사고에 기초한 전시로는 <마이클 케냐전>(2.11-3.20, 공근혜갤러리)을 들 수 있다. 작가는 인간과 환경이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미대륙 등지에서 30년간 촬영한 50점의 사진에 담았다. <현대 사진의 향연-지구상상전>(6.2-8.1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한겨레신문사와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한 전시로 어머니 지구를 중심에 놓는 생태학적 상상력을 주제로 하는 170여 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다. 지구상상전 역시 지구 환경 문제를 살펴본다. 전시는 '어머니의 지구', '생태학적 상상력', '오래된 친구'로 나뉘어 총 200여 점이 걸렸다.

2. 사진-도시와 일상

현대인에게 또 다른 자연으로 다가오는 도시는 더 빠른 시간의 주기를 통해 변모하며 시간의 예술인 사진가의 주요한 소재이자 주제가 되어 왔다. <Urban Landscape전>(1.18-2.1, 박여숙화랑)은 도시 이미지 자체를 사진의 주제로 삼았다. <이득영전>(3.24-4.24, 갤러리2+gym project)에서 소개한 사진 연작 <25 bridges>는 자전거나 헬기를 타고 한강 주변을 촬영했다. 한강의 다리 25개를 비롯하여 서울시 개발의 역사가 추적되는 즉물적인 사진들이다. <한성필전>(4.7-5.8,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은 'dual reality'라는 부제로 가상의 파사드를 연출한다. 공사 중인 건물의 파사드에 설치된 가림 벽이나 벽화를 찍은 사진에서 회화와 건축, 그리고 사진 사이의 미묘한 게임이 펼쳐진다. <칸디다 회퍼전>(11.25-12.25, 국제갤러리)은 사람이 없는 미술관과 수도원 등의 내부를 촬영한 시리즈를 보여준다. 도시에서 펼쳐지는 삶은 반복된 일상이다. 작가들이 이 반복 속에서 차이를 길어 올리려 한다. 미술평론가이기도 한 성완경은 두 전시장(1.14-1.25, 갤러리나우, 1.14-2.13, 꿀)에서 열린 전시에서 10년간 찍어 온 디지털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김옥선전>(12.10-2012.1.7, 한미사진미술관)은 제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삶을 기록했다. 기록예술은 반복되는 일상이 차이로 극화되는 장이다. <이은주, 장성은전>(1.29-2.28, 한국미술관)은 백남준 추모 5주기를 기념해 백남준의 일상적 삶과 작업실, 작품을 사진에 남겼다. <김상돈전>(11.27-12.8, 쿤스트독갤러리)은 도시 서민의 삶을 '우리생활사'라는 부제로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다. 연말에 열려 이듬해 초까지 계속된 김한용과 임응식의 사진전은 그 자체가 미시역사의 결정판이다.

<김한용전>(12.10-2012.3.17, 한미사진미술관)은 본격적인 소비자 시대가 개막되기 이전에 이미 상품광고 사진을 촬영해 온 작가의 전시다. '광고사진과 소비자의 탄생'이라는 부제로, 1960년대의 광고사진을 보여준 이 전시는 이영준이 기획했다. <임응식전>(12.21-2012.2.12, 덕수궁미술관)은 임응식(1912-2001)의 작고 10주년이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렸던 대규모 회고전이다. '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이라는 부제로 열린 사진들은 거시적 역사와 미시적 일상을 반영한 작품과 사진예술의 매체적 실험으로 구분된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전쟁고아>(1950)와 <구직>(1953)은 이 세 가지가 종합된 역작이다. 거의 그 시기를 기억할 수 없는 세대들이 많아진 1930년대부터 우리의 거시사와 일상사를 반영한 사진들은 장면 하나하나마다 진귀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사진의 실험적 속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전시에는 30년대 '사진 실험 습작'이라 이름 붙인 포토그램과 40년대의 림스그램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그의 작품은 매체의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속성에 포커스를 두는 작품보다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작품에서 빛을 발한다. 50년대 명동 풍경에서 좁은 길을 가득 메운 대중들과 상가 등은 현재의 대중 소비 사회와 아주 가까운 모습이다. <임응식전>은 예술성과 대중성, 역사성이라는 요구를 두루 충족시켜 주는 기획전이었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사진-사물과 몸

정지된 표면으로서 사물과 몸은 즉물적 형태나 대상을 넘어서 반복된 해석을 요구하는 피사체다. <배정선전>(2.1-2.10, INFINI)는 먼지 낀 안경으로 본 사물처럼 출력된 <미몽> 연작이 전시되었다. <구본창전>(3.24-4.30, 국제갤러리)에서 도자기나 나무 선반 위에 올려놓은 낡은 것들은 그가 수집한 오래된 사물들로 사진 자체가 수집의 행위와 유사한 데가 있음을 알려준다. 산업시대도 훌쩍 지나간 지금 기계나 물류창고 등도 오래된 사물의 지위를 차지한다. 창고를 찍은 <주황전> (3.4-4.2, 갤러리플랜트), 그리고 'urban depth'라는 부제로 쓴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금혜원전>(3.18-5.8, 일민미술관)은 표피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깊이를 건져냈다. <김상돈전>(4.8-5.3, 트렁크갤러리)은 주목되지 않는 일상의 비루한 오브제들을 토템이라고 부르며 사진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일상을 지배하는 키치적 사물에는 우울함이 담겨 있다. <최원준전>(5.12-7.6, 일우스페이스)은 'red cloud'라는 부제로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군사시설을 조명했으며, <임안나전>(6.25-7.22, 진화랑)은 6·25전쟁 61주년을 기념하여 'restructure of climax'라는 부제로 군사기지에서 영화처럼 연출된 장면을 통해 일상 속의 전쟁, 전쟁 속의 일상을 드러냈다. 사진을 통해 초상과 몸은 사물처럼 반복된 읽기와 해석의 대상이 된다. <정희성전> (3.3-3.27, 두산갤러리)은 'unphotographable'이라는 부제로 고전적 구도의 인물 사진을 전시했고, <Virtual Mapping on the body전>(2.18-3.5, 갤러리선컨템포러리)은 인간의 물리적 신체에 투영되는 가상 이미지를 담았다. 고상우, 김태은, 노세환 등이 참여했다. <장숙전>(3.23-4.10, 공근혜갤러리)에서는 늙은 노파의 몸을 담은 사진을 통해 익명이지만 살아온 인생이 드러나는 신체를 가시화했다. <고상우전> (4.7-5.8, 갤러리선컨템포러리)에서는 사진 음화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예쁘면서도 힘 있는 몸 풍경을, <오형근전>(5.4-5.31, 트렁크갤러리)은 '불안초상'이라는 부제로 불안한 표정을 담은 얼굴과 몸의 부분 사진을 보여준다.

4. 사진-콜라주

몽타주나 콜라주의 형식은 사진과 회화의 접점에 존재하면서 사진가들과 미술가

들에게 공통된 어법이 되었다. <코디 최전>(4.14-5.14, PKM트리니티갤러리)은 여러 잡지에서 발췌한 사진을 이용한 하트 모양의 입체적 콜라주를 선보였다. 그는 사진 콜라주를 통해 문화의 접점에서 나타나는 모방 또는 창조를 보여준다.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두 번째 장'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 전시는 지구촌 시대에 더욱 가까워진 지역들 사이에서 파생되는 권력관계를 문화비평적 관점으로 보여준다. 세상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진은 충돌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다. <권오상전>(5.6-6.2, 두산갤러리)에서 나무 프레임 안에 같은 크기로 출력된 <The Flat> 연작은 다양한 잡지에서 오린 이미지를 가는 철사로 일으켜 세워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후 다시 촬영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물질적 실체들을 대신하는 표면들이 최대한 활성화되어 있다. 이 평평한 우주는 한계가 없으며, 숭고(sublime)하다. 권오상의 작품에서 세상은 수많은 상품 목록으로 치환되어 있다. 대상, 그리고 기의로부터 떨어져 나온 기표들은 그 자의성과 우연성으로 예기치 못한 연결망을 이룬다. <이지연전>(7.1-7.29, 살롱드H)은 'private public'에서 현대 도시의 이미지를 모아 집적시킨다. <3 photographic act전>(8.27-9.26, 한미사진미술관)에서는 사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온 원성원, 유현미, 최봉림의 사진이 선보였다.

5. 판화에 대한 담론과 판화의 확장

다양한 출력의 형식이 존재하는 전자매체 사회에서 판화는 회화의 한 변주라기보다는 영상과 설치의 형식을 통해 공간과 시간으로 확장된다. 『월간미술』 10월호는 '이것이 한국 현대판화다'라는 제목으로, '단순한 복제예술로 한정 지을 수 없는 수공의 제작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복수성의 예술 판화'를 조명했다. 김승연, 이상국, 곽나실, 김영훈, 정명국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제16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등 주요 단체의 활동을 취재했으며, 강승희, 곽남신, 김승연, 김용식, 윤동천 작가의 대담도 같이 실렸다. 윤동천은 '원본 없는 복제 시대에 복수 원본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의미 있다'고 현대판화의 존재 의미를 강조한다. 신수진은 '한국 현대판화의 저력을 말하다'에서 정헌조, 장양희 등의 작품을, 김준기는 '판화의 시대, 판화의 재정립, 프린트에서 멀티플로'에서 오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최병수, 이철수 등의 작품을 논했다. <정헌조전>(11.17-12.3, 유아트스페이스)은 음양이 대비된 드로잉과 판화, 영상설치 작품을 통해 동양철학을 표현한다. 연말에 열린 <장양희전>(12.8-12.19, 갤러리조선)에서는 서양화와 판화를 같이 전공한 작가의 이력이 십분 발휘되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익명에 의한 초상은 판화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설치 형식으로 완성된다. 현대의 익명적 초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얼굴들은 개인의 특성을 변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되어 있다. 얼굴은 다양한 패턴의 중첩에 의해 흐릿해져 있다. 자르고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개별성은 휘발되어 버린다. 장양희의 작품에서 구성은 해체의, 해체는 구성의 이면이다. '풍경화된 신체'라는 이 전시의 부제는 그녀의 작품 속에 관철되어 온 얼굴의 익명성을 몸까지 확장시킨다. 얼굴은 몸의 핵심이고 몸은 얼굴의 연장이라면, 몸으로의 전환은 익명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몸은 얼굴화된다.

Ⅲ. 설치

1. 설치-자연과 생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은 인간이 기원한 곳이며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장소로서, 설치 형식과 결합함으로써 그 자체가 드라마가 펼쳐지는 크고 작은 무대로 다가온다. <여상희전>(2.10-2.22, 갤러리보다컨템포러리)은 'occupation'이라는 부제로, 이상 증식한 개체들처럼 보이는 붉은 불가사리 떼들을 전시장 바닥과 벽면에 가득 설치한다. <류호열전>(3.24-4.11, 빛갤러리)에서 3D로 만들어진, 창백하게 탈색된 인공생명체들이 나무와 맞대면한 인간의 공감각적 체험을 오롯이 구현한다. 디지털 프린트 작품은 더욱 서사적이다. 지평선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기념비적 인간 형상은 자연과 같은 원소로 합성되어 있다. 자연, 인간, 그리고 사물은 같은 원소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연속성이 강조된다. 가장 기본적인 원소로 세계를 환원시키는 그의 작품은, 오늘날 게임이나 영화를 비롯한 오락 영역에서 현란하게 발전하는 실제 같은 눈속임 기술보다는, 사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 가령 원자론과 더욱 닮아 있다. <김승영전>(5.4-6.3, 사비나미술관)에는 동일자 속에 타자가 있다. 예술이란 불변하는 대상에 대한 관념인 동일성(sameness)을 벗어나 변화

하는 것, 가변적인 것, 즉 다른 것을 추구한다. 김승영은 이 전시에서 타자의 자리를 많이 마련했다. 관객이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쇠 의자, 주변을 비추는 물웅덩이들이 그것이다. 그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부재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타자에 의해 곧 채워진다.

<정재철전>(5.13-6.16, 김종영미술관)에는 7년간 18개국을 거쳐 온 대장정이 기록과 설치 등에 담겨 있다. 그것은 단지 조형적 산물이 아니라, 삶과 여행이 중첩된 산물이다. 그것은 삶의 흔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술이 아니라면 그냥 흘러갔을 작은 아름다움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전시장 천장은 네팔, 티베트 등지에서 수집한 이국적인 천막들로 축제적인 분위기가 가득했고, 각지의 풍광이 담긴 수많은 사진이 수평면을 유지한 채 죽 걸려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작은 여행을 반복하게 한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자연과 문화가 하나가 된 인간의 삶이, 영원과 일상이 만나는 길목에 서 있는 민초들이 있다. 외부로 개방되어 그 자체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간에 전시되는 <리차드 롱전>(5.26-9.25, 대구미술관)의 작품들은 전시장 안과 밖 사이에 설정된 긴장과 모순을 완화한다. 지름이 5미터, 6미터가 넘는 거대한 돌의 무리는 그것을 둥글게 배치한 작가의 직관적 선택 외에 어떠한 인위적 가공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개념적 아이디어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도 완결된 미학적 가치가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지나 그 흔적을 떠오르게 하는 리차드 롱의 작품은 예술 이전에 있었던 예술로 소급된다. 이러한 지평은 예술 이후에 존재할 예술로도 확장될 수 있다.

<함진전>(6.3-7.15, PKM갤러리)과 <안두진전>(6.17-7.30, 송은아트스페이스)은 바깥과의 조우 또는 접촉을 보여준다. 원색은 물론 야광까지 감도는 화려한 색채로 거친 광야를 그리는 안두진과 시커먼 먼지로 만들어진 소우주를 표현한 함진의 작품은, 정반대의 인상에도 전대미문의 세계를 자연발생적 이미지로 구축해 나가는 공통점이 있다. 안두진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기상현상이나 함진의 먼지 이미지는 극대와 극소라는 스케일의 차이에도, 경계 없는 불확실성으로 귀결된다. 안두진이 신이 출몰할 법한 대우주의 세계를 넘나든다면, 함진은 지상에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 미소한 존재들의 구석진 자리에 주목한다. 그러나 대우주 역시 먼지가 뭉쳐 형성된 것이며, 종국에는 먼지가 된다. 안두진은 극적 충돌이 빚어내는 폭발적인 희열을, 함진은 그 내부로 접힌 무한한 주름으로 함열된 세계를 표현한다. 폭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이든 함열이든 익숙한 여기는 사라져 버린다. 그들의 작품에는 바깥과의 조우 또는 접촉에서 오는 강렬함과 이질성이 있다.

<아니마투스전>(6.4-7.17,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은 생명의 공간을 주제로 한 개관전시로, 김승영, 뮌, 장석준, 홍승혜 등이 참여했다. <Animalier전>(6.29-8.17, 코리아나미술관)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살펴본 기획전으로, 김남표와 송상희 등, 참여 작가 10명은 예술의 영원한 모델인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은 자연과 인간의 공감 및 공존은 물론, 양자 사이에 놓인 간극을 표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자연은 그 자신의 합목적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것의 실추는 더욱 비극적이다. 이 전시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는 반 정도는 긍정적이고 반 정도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진다. 동물은 인간이라는 하나의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주변화된 것들을 대표한다. 이 전시는 근대에 강화된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에 주목하는 탈근대의 문화에서 동물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준다. <지구전>(7.21-9.4, 성북구립미술관)은 지구를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 전시는 무대, 빛, 생명, 꿈이라는 4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열렸으며, 노해율, 신한철 등 9명이 참여했다.

<몹쓸 낭만주의전>(9.15-10.30, 아르코미술관)에 포함된 낭만주의란 사조, 그 속에서 자연은 단순한 소재를 넘어선다. 이 전시의 특이점은 19세기에 발생한 낭만주의를 21세기에 다시 호출하면서, 정보혁명이 예술에 끼친 영향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기계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 맞게 낭만주의 또한 업그레이드된다. 정보를 무한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데이터 뱅크는 새로운 자연으로 자리매김된다. 이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조타수는 낭만적 이미지를 가진다. <손봉채전>(9.21-10.21, 사비나미술관)은 뿌리째 옮겨지는 조경수를 통해 본질과 실존의 의미를 탐구한다. <박기진전>(9.28-10.24, 공간화랑)은 섭리 없는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상상을 정교한 장치로 구체화한다. 대서양 저편의 친구와 통화하던 중 작가는 둘 사이가 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일련의 순환장치를 통해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고대의 자연철학을 구현한다. 그의 작품에서 자연의 법칙은 작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재배치된다. <버드캐처-스텐베리만 프로젝트전>(9.30-10.7, 갤러리진선)은 영국에서 활동 중인 허숙영, 스웨덴 작가 본 라숀의 전시로, 동물학자이자 탐험가, 여행 작가였던 스텐 베리만에게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다. '미지의 대지'라는 주제로 열린 『인천여성비엔날레』(10.1-10.30, 인천종합예술회관 외 인천 지역)(예술감독 제인 파버)는 자연과 여성을 연결한다. 본 전시, 조율전, 참여전으로 나뉘고, 여성미술 아카이브, 인천 지역미술인 오픈 스튜디오, '우리 엄마' 온라인 사진전 같은 프로젝트, 다양한 학술,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배종헌전>(10.28-11.27, 대구 봉산문화회관)은 자연마저 상업기표로 범벅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회로'라는 부제로 열린 <김주현전> (11.11-12.20, 갤러리시몬)에서 '함석판으로 된 600여 개의 경첩' 등, 자연의 질서를 반영한다. 단면에서 빛이 나오는 선들은 유기적인 것의 확장이다.

2. 설치-도시문명과 그 풍경

<charade전>(1.12-2.19, 리안갤러리)은 도시 문명을 특징짓는 빛을 소재로 한 강은구, 김병주, 손유미, 허수빈의 작품을 보여준다. 「대서울」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재욱전>(2.8-2.26, 표갤러리 사우스)은 김광섭 시인의 시 '대서울'에서 차용한 전시로, 1971년에 쓴 김광섭의 시는 50-60년대 대도시 서울의 소음과 속도를 표현했다. <홍유영전>(4.9-6.12, 영은미술관)은 파편화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폭과 높이가 같은 10개 정도의 부조적 표면이 시리즈처럼 걸려 있는 <fragmented space>는 가정집 벽의 한 면들이 그림처럼 죽 배열되어 있다. 전시장은 부제 그대로 파편화된 공간이 펼쳐진 공간이다. 벽의 파편들은 전체와 부분 간에 설정된 유기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집합되어 있다. 홍유영전은 단서 또는 단초로서의 단편을 보여준다. <Type Wall전>(4.1-5.29, 소마미술관)에서 도시를 이루는 여러 가지 벽이 주인공이다. 환영을 연출하는 가상의 무대인 화이트 큐브는 관객을 보이지 않는 제4의 벽 뒤 객석에 앉혀 놓지만, 벽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된 이 전시는 관객을 장치 내부로 끌어들인다. 대상의 객관적 관찰을 위한 이상적인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부로 들어가서 겪는 경험 과정이 중요시된다. 관객은 눈만 아니라 몸 전체로 벽들을 통과해 나간다. 공간을 탐색하는 시간적 추이에 방점이 찍히는 이 작품들은 해부학이라기보다는 생리학에 더 가까우며, 변화하는 시간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막(membrane)과 비슷해진다. 전자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작품에서는 벽은 망(net)이 되기도 한다. 그들에게 벽은 장(場)이며 미디어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페이즈망전>(6.15-7.17, 아르코미술관)은 도시의 특징을 데페이즈망으로 간주한 전시로, 김미경이 기획했다. <송차영전>(6.17-6.29, 갤러리무이)에 나타나는 도시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살기보다는 오직 통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다. 도시를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시간을 가속하거나 이완시킴으로써 도시의 무의식을 발견한다. 스펙터클한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을 찾아내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 채 편안함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의 시점이다. 작가는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표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유기체에는 낯선 기계적 리듬을 부여하면서 몰입 상태로 몰고 간다. 작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압도적인 현재 속으로 압축한다. 시뮬레이션 속에 도시의 기호들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 속으로 함열된다. <바깥, 풍경전>(7.15-9.6, 키미아트)에서 창과 책이라는 비유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의도를 가진다. 여기에서 창이라는 공간적 범주는 책이라는 시간적 범주로 보충된다. 보이지 않은 것은 이야기되고, 이야기되지 않은 것은 보인다. 가시적인 것과 이야기되는 것에 내재한 공간적·시간적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바깥 풍경은 지시대상과 단순한 닮은꼴이나 그 투영이 아니라, 작가와 관객의 체험을 구성한다. 틀의 생성과 파괴 과정을 통해 세계는 낯설게 조명된다.

<김병규전>(8.24-8.30, 인사아트센터)에서 돌과 금속,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설치물은 도시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을 압축한다. 그것들은 충전되고 발산되는 에너지 수용기를 보여준다. 돌과 스테인리스의 결합은 인공적 도시와 자연의 대조 및 융합을 상징한다. 빛에 산란하는 듯한 물결무늬는 그의 작품이 닫혀 있는 동질적인 체계가 아니라 차이와 이질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정서주전>(8.31-9.9, 갤러리이즈)에서 시간은 공간화되고 공간은 시간화된다. 무광 투명 접착시트와 무광 일반 접착시트 위에 새겨진 서로 다른 이미지를 중첩한 후 라이트 박스 안에 설치한 정서주의 전시는 마치 어두운 도시에서 빛나는 전광판 같은 분위기를 띤다. 하나의 시트가 투명하여 또 다른 시트의 이미지가 섞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압축되는 효과를 준다. 구분되는 시트들은 차이의 보존을 통해 상호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미지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거기에서 발생하는 서사는 더욱 시적이다. <이진준전>(9.15-10.26, 갤러리정미소)은 다양한 매체로 'ARTFICIAL GARDEN'(전시 부제)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공의 결합인 정원에 인공이란 말을 한 번 더 붙인 작품에서,

새로이 구성된 자연은 야생의 자연에 내재한 우연성에 휘둘리지 않고 최적의 상태로 조절된다. 빛의 도시와 그 안의 자연을 이루는 유토피아적 구조물은 복제 기술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연결된다. <이필두전>(9.16-9.29, 쿤스트독갤러리)은 증식되는 도시를 주제로 한 영상에서 '도시 그리기'(전시 부제)를 시도한다. <city within the city전>(11.15-2012.1.15, 아트선재센터)에서는 도시와 도시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17명의 작품이 나왔다.

3. 설치-도시문명에 대한 비판

인간들이 몰려 살기 마련인 도시는 다수의 동질화를 추동하는 체계화를 통해 경쟁을 극대화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낳는다. 도시적 삶의 묘사는 곧장 비판으로 전화하곤 한다. <바늘하나 들어갈 틈전>(2.24-4.17, 스페이스99)은 점차 비정규직화되고 있는 노동자를 주제로 하였다. 조습, 임흥순 등이 참여했다. <다쓰오 미야지마(Tatsuo Miyajima)전>(2.25-5.1. 식스갤러리)은 'Time Train'이라는 부제로, 레드로 숫자를 새긴 모듈 구조를 기차 형태로 설치한다. 여기에서 기차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산업과 전쟁을 상징하는데, 가령 독일 유대인 학살, 산업혁명 등이 그것이다. 숫자 역시 도시에 사는 인간들을 동질적 리듬에 복속시키는 시간을 상징한다. <주세균전>(3.17-4.10, 브레인팩토리)은 세계의 국기들을 색 모래를 뿌려 그리는 만다라 형식으로 설치한다. 세계화 시대가 모래와도 같은 일시성에 좌우되지만 동시에 진정한 타자와의 결합을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산드라 유라리전>(6.24-7.14, 아트스페이스 풀)은 '굽이 사이'라는 부제로 파괴 속에서 재생을 희구한다. <한경우전>(8.11-9.30, 대안공간 루프)은 성조기 영상 사이로 전시 공간에 진입한 관객이 함께 편집되는 영상 설치전이다. <포스트휴머니즘전>(10.13-11.9, 대안공간루프)은 '비인간적 요소 안에서 인간을 사유'하려는 주제를 가지며, 게릭 크루즈, 아울 시티, 장종완 등이 참여했다. <새로운 발흥지전(2부)>(10.21-11.27, 우민아트센터)도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다. 개관기념전으로 김홍희가 기획했고, 김준, 노진아, 데비 한, 코디 최 등이 참여했다. <노재운전>(10.28-12.13, 아틀리에 에르메스)은 '목련아 목련아'라는 부제로 불교 경전 '목련경'에서 영감을 얻어 부조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를 조명한다. <윤동천전>(11.30-2012.1.15, OCI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탁류'라는 부제로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풍자한다.

대량생산되고 소비되는 현대 문화는 도시의 풍경과 비판을 직접 결합한다. <정승전>(2.10-3.6, 갤러리비원)의 'idea of complex'에서 많음과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량생산되는 공산품의 비극적 운명을 형상화한다. 블랙라이트, 레이저 광선 등이 등장하는 <이한수전>(7.8-7.31, CSP111아트스페이스)의 공상과학적인 풍경은 도시가 제공하는 무아경 같은 환상을 표현한다. <TV 코뮨전>(9.29-2012.1.24, 백남준아트센터)은 텔레비전 문화 현상을 다룬다. '나의 표상이 너희의 세계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전시 부제로 열린 <김병진전>(11.25-12.17, 표갤러리 사우스)은 love나 명품 로고들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 부제에 속한 '표상'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표상은 이미 익숙한 것들, 또는 만인에게 익숙해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와 관련된다. 우리의 세계는 이런저런 표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병진의 작품에서 표상은 기호 형태를 취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 표상 간의 게임, 또는 전쟁에 끼어든다. <임승천전>(3.16-5.1, 공간화랑)은 거대한 배나 고래의 모습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상징하는 구조를 표현한다. <박재환전>(11.18-12.15, 홍은예술창작센터)은 다양한 인공 오브제로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한다. 그의 작품은 주체의 시선에 비율이나 각도의 변화를 준다.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 '환상(fantasy)'의 역할과 비중을 강조한다. 이성과 의식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환상은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방법이다. 박재환의 작품에서 환상, 즉 3차원 이상의 세계나 사건은 이미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단지 새로운 관점에 의해 발견되기만을 기다린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은 미술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연초에 열린 <송은미술대상 10주년 기념전>(1.7-1.29, 송은아트스페이스)은 송은미술대상 10주년을 기념하여 대상 수상작가 노준, 정상현, 뮌, 김주리 등 10인의 근작 20점을 모아 전시하였고, 연말에 열린 <제11회 송은미술대상전>(12.9-2012.1.21, 송은아트스페이스)은 2차 심사를 거친 이원호, 장선경, 정희승, 한경우 등 4명이 대상 후보 작가로 뽑혀 이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네 작가의 작품 전시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구조와 체계에 대항하여, 예술적 실험과 창조를 통해 반응한다. 송은미술대상전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 경향은 새로운 맥락의 창조와 실험적 배치를 통해서, 강제된 흐름이나 고정된 지층

을 만들어내는 코드화로부터 탈주하려는 공통된 움직임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고정된 기능과 의미를 벗어나 미지의 것으로 변환 중이다.

4. 설치-몸

<국동완전>(1.15-2.6, 갤러리팩토리)은 수많은 층위의 꿈을 아침마다 기억나는 대로 노트에 담는다. 작가는 책, 조각, 드로잉, 영상으로 '기억나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전시 부제)을 기록한다. <손정은전>(2.10-3.13, 성곡미술관)과 <이보람전>(3.4-3.23, 송은아트큐브)은 설치 형식으로 몸이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극대화한다. 피비린내 가득한 그들의 핑크는 차갑고 냉혹하며, 그 느낌의 연장선 속에서만 환상적이다. 이들의 작품에는 명확한 적대세력이 생략된 채로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불균형한 힘들 사이의 관계가 자아내는 매혹적이면서도 잔혹한 풍경은 내밀한 에로티시즘부터 총력전까지 이른다. 묶인 남성이 등장하는 손정은의 작품에서는 사도매저키즘적인 사랑이, 전쟁이나 재난의 희생자들이 등장하는 이보람의 작품에서는 희생양이라는 주제가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지만, 이들에게 사랑과 죽음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그 거리를 단축하는 것은 바로 광기다. <김인배전>(3.8-4.24,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10개 이상의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군집으로, 운동 중인 남자 토르소가 공간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진수전>(3.5-4.3, 자하미술관)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자아를 탐구한다. <민정수전>(4.13-4.26, 관훈갤러리)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벗어나기 위해서만 한정 지워진 고풍스러운 액자 속 사물들은 바닥의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미친 듯이 날뛴다. 단면을 가진 기계들의 다차원적 연결을 추동하는 것은 욕망이다. <홍근영전>(6.15-6.20, 가나아트스페이스)은 기계와 유기체, 그리고 서로 다른 유기체들이 접합되어 있다. 혼종의 유기체가 그렇듯이 매우 괴상하게 생겼지만, 그것은 괴상함을 위한 괴상함이 아니라, 개체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곤 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압축되어 있다. 다양체로서의 유기체를 보여주는 홍근영의 작품은 신-인간중심주의의 원형적 질서를 이루는 유기적 총체성으로서의 몸을 탈피한다. <오지연전>(6.24-7.3, 대안공간눈)에서 만지면 피가 묻어날 듯한 단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잘려 나간 모습이다. 단면들은 그 자체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가 몸통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벽면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 쫄쫄이 질감의 천들로 이루어진 피부의 수용 능력은 무한대로 보인다. 더구나 그것은 계속 연결될 수 있다. 이 리좀적 형태들이 횡단하지 못할 곳은 없다.

<조현익전>(7.6-7.31, 자하미술관)에서 어두운 공간 속에 설치된 작품들은 녹슬고 연마되어 조성된 빛과 어둠 사이로 드러나는 것은 여성이다. 조현익의 작품 속 아름다운 그녀는 분명히 욕망의 대상으로서 호출된 여성이지만, 육중한 철판에 새겨진 이미지, 관객을 압도하는 거대한 크기, 촛불이 동원된 제의하는 분위기 속의 여성은 사랑과 욕망에 얽힌 간단치 않은 상징(icon)으로 다가온다. 매혹과 불길함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작품 속 여성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반영하는 소재이자 주제다. 여성-욕망-사랑-죽음은 꼬리를 무는 연쇄 망을 이룬다. 죽음에 이르는 사랑, 또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파멸, 이 오래되고도 늘상 새로운 연결 고리를 이루는 것은 표상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여성이다. 그의 작품 속 섬광은 사랑의 기반인 숭고함과 비천함이 극적으로 조우하는 지점을 표현한다. <장지아전>(7.7-7.30, 갤러리정미소)과 <김태은전>(7.1-7.17 인천아트플랫폼)은 고문에서 전쟁에 이르는 몸의 잔혹사를 보여준다. 사진, 영상, 설치 등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전시는 잔혹극 속의 주인공들을 다양한 픽션 장치들을 동원하여 연출한다. 그들의 작품은 매우 환상적이지만, 철저히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문의 역사를 참조한 장지아와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김태은의 작품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인간의 보편적 조건, 특히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오정현전>(8.17-8.23, 갤러리그림손)에는 욕망하는 주체의 초상이 등장한다. 그는 사고와 행동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에 대한 회의를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통해 표현한다. 그의 작품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근대의 사유하는 주체로부터 탈근대의 욕망하는 주체로의 이동이다. <김윤수전>(9.2-10.3, 갤러리소소)은 얇고 반투명한 재료를 층층이 쌓아 가면서 만들어내는 차이와 반복의 미학을 통해 '가장 푸른 곳'을 보여준다. 자연의 지형이 연상되지만, 김윤수의 자연에는 부드러운 인체와 감정 또한 포함한다. <show me your hair전>(10.6-11.30, 코리아나미술관)은 신체 일부이자 주물적인 소재인 머리카락을 주제로 한 국내외의 작품을 선보였다. <변재봉전>(10.17-11.12, 리안갤러리)은 인체로부터

출발하는 조각에서 시작하지만, 공명으로 채워지는 빈 육체로 귀결된다. 서로 구별되는 것들은 강한 간섭파를 일으키면서 합쳐지고 하나의 파동이 되어 굽이친다. 공명은 잔잔한 진동부터 날카로운 파열음까지 다양한 강도를 가진다. 인체라는 관념적·물질적 원형에서 출발한 변재봉의 작품은 신체와 지각을 공명으로 연결하면서 불교나 선 같은 동양적 세계관으로 향한다. <다운라이트 런칭 프로젝트전>(10.20-11.13, 브레인팩토리)에서 작가들은 인간 두뇌에 직접 작용해 원하는 의식을 무의식에 주입하는 신제품 '마인드 컨트롤러 신형'을 발표했다. <금기숙전>(12.7-12.21, 갤러리인)에서 와이어 비즈로 만든 옷은 인체 또는 인체의 연장이다. 'shade tree'라는 부제로 열린 <이병호전>(12.8-2012.1.15, 16번지)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체 형상이 에어 컴프레셔로 조절되는 공기압에 의해 변화하는 설치작품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 고리를 보여준다.

5. 설치-사물과 장소특정성, 지역성과 역사

미니멀리즘 이후 인체라는 중심적 질서로부터 탈피하는 현대미술은 몸과 함께 사물을 부각했다. 사물은 예술과 비교된다. 사물은 예술과 달리, 그 의미와 형식이 표면에서 표면으로 떠도는 수수께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물건이 넘쳐나는 현대에 대량생산물 역시 각자의 역사와 서사를 내포하게 된다. 수집된 오브제와 그 배치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표현수단이 된다. <박종빈전>(3.2-3.30,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흑연을 이용한 탁자와 의자조각을 설치했다. 강철처럼 보이지만 매우 취약한 재료인 흑연 덩어리를 재단하여 만들어진 가구들은 실체와 표면 사이의 괴리를 극대화하는 사물의 특성을 보여준다. <김을전>(3.25-4.24, 갤러리소소)은 드로잉과 더불어 수집된 오브제들을 설치했다. <문희수전>(4.11-4.17, 공주디자인카페)은 학교에서 30년간 쓰다가 버린 걸상 400개를 모아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건물에 설치해 일제 잔재의 문화를 비판한다. <양희아전>(6.17-7.7, 인사미술공간)은 양배추가 달린 집, 브로콜리가 달린 의자, 두루마리 휴지가 된 테이블보 등 기이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사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오유경전>(6.29-7.17, OCI미술관)은 일회용 종이컵과 탁구공이라는 소재를 반복, 집적시킨 설치물이다. <이완전>(7.29-9.4, 꿀/꿀풀)은 수집된 물건으로 '우리가 되는 방법'을 풍자한다. <독일현대미술 3인전>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5-12.4, 갤러리화이트블럭)은 '사물의 재발견'이라는 부제로 독일 작가들이 초대되었다.

사물은 화이트 큐브라는 추상적인 공간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는다. <노네임 하우스전>(3.12-3.30, 부암동 362-1번지의 빈집)은 재개발되기 직전의 빈집에서 8명의 작가가 거주하며 작업했다. <space study전>(5.5-7.10, 플라토)은 로댕갤러리가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한 전시로, 김수자, 안규철, 정소영, 정재호, 노재운 등이 참여하여 공간을 주제로 작업했다. NJP 서머 페스티벌 <스물하나의 방전>(7.20-9.13, 백남준아트센터)은 백남준의 79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전시로, 양아치, 고창선, 장윤성 등 국내외 작가가 만든 20개의 방을 관람한 후 관객들로 하여금 21개째 방을 연출하도록 유도했다. <떠도는 집들-집으로전>(9.24-10.13, 안양 학운공원 내 오픈하우스)에서 프로젝트 그룹 'misio'의 작가 18명은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설치된 오픈 하우스에서 집을 주제로 설치했다. <해인 아트프로젝트전>(9.23-11.6, 해인사 일대)은 김승영, 임영선, 빌 비올라 등, 10개국 34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통(通)'이라는 주제로 해인사라는 고찰에서 현대미술을 연출했다. 김유연이 기획을 맡았다. <진기종전>(10.5-10.25, 갤러리현대 신관 윈도우갤러리)은 'ing'라는 부제로, 윈도우갤러리 안에서 캠핑, 낚시, 디제잉 등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집을 생각하다전>(9.11-2012.2.19, 김해클레이아크미술관)은 집이라는 대표적인 공간을 주제로 했다. '집을 짓다', '삶을 상상하다', '정원을 꿈꾸다'라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열렸으며, 조민석, 황두진 등이 참여하여 건축, 미술, 도예를 아우르는 작품을 펼쳤다.

장소특정성이 자연으로 향할 때 지역성이 강조된다. 2011년에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열려 왔던 미술축제들이 있었다. <2011 자라섬 국제 바깥미술전-새움트다:Omni-Vision>(1.22-1.30, 가평 자라섬 내 중도)은 왕광현, 김순임 등 10명의 회원과 국내외 초대작가 18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바깥미술회는 31회째 지역에서 야외미술제를 개최했다. 『2011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6.17-6.28, 울산시 태화강 둔치)는 서민정, 윤성지 등 국내외 작가, 울산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전>(7.22-8.23,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예정지)은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를 주제로 김태은, 이용백, 홍지윤 등이 참여했다. 『제4회 양평환경미술제』(9.3-9.17,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군민회관)에서는 '인간, 환경 그리고 역

사가 만나다'라는 주제를 선보였다. 『2011 바다미술제』(10.1-10.21, 송도해수욕장)는 송도라는 장소를 주제로 하여 해수변에 작품을 29점 설치했다.

사물과 몸에는 장소라는 공간성과 이야기라는 시간성이 새겨져 있다. 변화에 대한 감각이 고양되는 현대에서 가까운 과거를 비롯한 역사에 대한 감수성이 두드러진다. <코리안 랩소디전>(3.17-6.5, 삼성미술관 리움)은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한 대규모 기획전이다. 1부 근대의 표상들(1876-1945), 2부 낯선 희망(1945-2011)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김은호, 이인성, 서도호, 정연두 등 작가의 80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retro전>(2.11-2.27, 덕원갤러리)은 예술뿐 아니라 패션과 디자인, 대중문화의 키워드가 된 '레트로'를 주제로 했다. 『창원아시아미술제』(4.16-5.10, 창원 성산아트홀, 4.22-5.8, 마산 3.15아트센터)에서는 아시아의 근대를 주제로 아시아 6개국의 작가 작품이 전시되었다. <코리아 투모로우전>(9.25-10.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42명의 젊은 작가를 초대하여 한국 미술의 미래 지형도를 가늠해 보았다. 'womad code=woman+nomad', '한국미의 재구성', '불안한 진실', '낯선 자의 시선', '데자-뷰'라는 주제로 나뉘어 열렸으며, 이대형이 기획했다.

6. 설치-인지와 소통

다양한 소통의 기술들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소통은 더욱 희귀하고도 힘든 역설적 가치가 되었다. 미술 역시 소통을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 <안유진전>(9.7-9.18,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의 다양한 작품에는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인류 문화사 자체가 소통의 역사였지만, 세계가 더 좁아지고 더 많이 상호작용해야 하는 현대에 와서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관객의 동선에 따라 나가 네가 되기도 하고 네가 나가 되기도 하는 움직이는 구조물은 안유진의 작품이 나(동일자)와 너(타자)의 소통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비닐봉지로 만들어진 <이연숙전>(10.7-10.9, 고양창작스튜디오)의 다양한 설치 작품은 다양한 층위의 기억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작가는 물질을 담아오고 버리는 비닐을 활용하여 기억을 짜고 푼다. 뜨거나 짜거나 설치되기 위해 둘둘 말려진 비닐 끈은 기억의 실마리가 되어, 봉지만 한 작은 집부터 거대한 환경까지 포괄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 연말까지 계속된 <소통의 기술전>(10.18-12.4, 덕수궁미술관)은 소통 그 자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kcaf.or.kr

를 전시의 주제로 놓았다.

청각성은 시각성이 중심을 이루는 근대를 넘어 새로운 소통을 위한 공감각적인 원천으로 현대미술가의 주목을 받았다. <심준섭전>(3.11-3.24, 포스코미술관)은 'body of noise'에서 관들과 스피커들을 연결하여 만든 기관 없는 신체 같은 구조물을 통과하는 사운드를 선보였다. <릴릴전>(3.16-3.31, 갤러리조선)은 독도, 금문도, 백령도 등 최근 몇 년 새 민감한 분쟁지역이 된 지역들에서 채집해 온 이미지와 사운드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김영은전>(5.12-6.11,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은 소리를 주제로 한 영상 설치전이다. <설기효전>(8.12-8.28, 인사미술공간)에서 소리는 소박한 들꽃과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등장한다. 하나의 언어로부터 또 다른 언어로의 전환에는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의 세계관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서양의 논리가 모두 동원된다. 인사미술공간 1층은 전시의 주제와 원리를 요약한 144음절과 440여 음소를 색과 소리로 치환한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매체가 활용되는 설기효의 작품은 근대의 선적 언어를 전기적 정보구조라는 동시적 장(場)으로 변화시킨다. 더 전체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융통성이 있는 동양의 사고에 뿌리를 두는 설기효의 작품은 전자매체의 시대에 되돌아온 소리의 위력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김병호전>(11.10-12.18,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A System'이라는 부제로, 가늘고 긴 금속 튜브로 만든 소리 관들을 조립한다.

텍스트와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는 소통이라는 당위와 명분이 자료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자료가 단지 불활성의 덩어리가 아니라 조직과 배치의 기술이라는 점을 통해 비로소 예술 영역에 속하게 된다. <나현전>(1.7-2.27, 성곡미술관)은 영상, 사진 등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민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운율에 맞춰 춤을 추다전>(2.16-3.27, 금호미술관)은 '은유의 공간',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표현', '사물의 변형된 모습과 역할의 재구성'이라는 4개 주제로 나뉘어 전시되었다. <인터뷰전>(3.22-4.20, 아르코미술관)은 독백이 아닌 타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전시다. 믹스라이스, 정연두, 플라잉시티 등이 참여했다. <강애란전>(4.28-5.29, 갤러리시몬)은 'the luminous poem'이란 부제로, 책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보여주었다. <text as art전>(5.3-5.28, 리안갤러리)은 로버트 인디애나, 사사 등이 참여했다. <정서영전>(6.1-6.30, 현대문화센터)에서는 '사과vs바나나'라는 부제로 사물과 텍스트가 작품의 주요 요소로 등장한다. <김신일전>(6.24-7.28, 김종영미술

관)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서 언어의 형태를 생의 약동하는 이미지로 허물어뜨리는 설치작업을 보여준다. <오재우전>(6.24-7.24, 아트라운지디방)은 'collector's choice'에서, 컬렉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가짜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했다. <노주환전>(7.8-7.21, 갤러리아트파크)은 압축 스펀지와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한 활자작업을 설치했다. <제니 홀저전>(9.8-10.16, 국제갤러리)은 미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가인 작가의 글을 선별해 프로그래밍한 LED가 설치되었다.

<뮌(김민선+최문선)전>(9.22-10.16,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은 90년대 초 대중문화의 지배적 텍스트를 불러들인다. 관객을 반구형으로 감싸 안는 원형경기장 같은 무대에 반딧불처럼 떠도는 빛의 무리는 노동자들의 용접 불꽃으로 1980년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상징이며 서태지는 1990년대의 상징이지만, 둘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또는 사라지려 하는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있다. 이 미디어 극장은 문화의 장이 밝은 광장의 군중에서, 어두운 방의 개인으로 이동한 80년대와 90년대 사이의 변증법을 구현한다. 이 어두운 방은 모두가 겪은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기억극장을 상징한다. <김종구전>(11.24-12.18, 원앤제이갤러리)은 쇳덩어리를 깎아서 나온 가루로 글자와 산수화를 형상화한다. <최기창전>(11.11-12.10,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은 기호와 텍스트를 통해 '뜻밖의 기쁨'을 설치 형식으로 보여준다. 연말에 열린 디지털 시대에 떠오르는 <아마추어리즘전>(11.12-12.18, 아르코미술관)은 그 자체가 인터뷰와 자료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 형태의 전시다.

어두운 극장은 화이트 큐브 못지않게 현대미술의 장을 이루어 왔다. 설치 등의 형식과 결합하지 않고 전시장 자체를 작은 영화관으로 삼아 영상만을 상영하는 전시도 많아졌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싱글채널 비디오나 필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상 아카이브가 되어 축적되고 배포된다. <청량리 동시상영전>(1.7-1.30, 고원수갤러리)은 현대인의 소외감이 분출되는 또 하나의 회로인 성적 인간의 면모를, 허름한 재건축 건물에서 동시상영이라는 영화적 형식으로 보여준다. <H box, nomadic video artscreening room전>(2.25-5.1, 아트선재센터)은 2007년 파리 퐁피두센터에서 처음 시작된 모바일 상영관으로 세계 순회 중 한국에서 열린 전시다. 에르메스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제작을 지원하였는데, 이 전시에서는 최근 2년간 새로 제작된 왕 자안웨이, 남화연 등 8명 작가의 영상 작품이 상영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카를로스 아모랄레스전>(3.11-5.21, 송은아트스페이스)은 'Silent Films'라는 부제로 열린 멕시코 작가의 전시다. <featuring cinema전>(4.7-5.31, 코리아나미술관)은 부르스 코너, 피에르 위그, 임민욱, 노재운 등이 참여했다. <아이작 줄리언전>(4.29-7.17, 아뜰리에에르메스)은 '만 개의 물결'이라는 부제로 현대의 역사화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박병래전>(8.3-8.21, 보안여관)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복장으로 공간을 탐구한 싱글채널 비디오 전시다. <조혜정전>(8.9-8.30, 갤러리정미소)은 가부장적 제도 속에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작품전이다. <시티스케이프 오브 대구전>(11.17-11.27, 국립대구박물관 특별 전시실)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작업이다. 영상을 서사의 수단이기보다 실험적인 성격으로 채운 전시들도 또 하나의 줄기를 이룬다. <인세인 박전>(1.26-2.20,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media+idea'라는 부제로 시각적 노이즈를 이용해 사진 이미지를 영상 이미지 장면처럼 가상으로 만들어냈다. <미디어 스케이프, 백남준의 걸음으로전>(4.15-7.3, 백남준아트센터)은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의 실험정신을 계승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한국 작가로는 김기철, 김신일, 조은지 등이 참여했다. <강은수전>(6.11-7.2, 두산갤러리)은 'swimming in media space'에서 미디어를 총체적인 공간으로 간주한다. <임민욱전>(10.4-12.16, PKM갤러리)은 'liquide commune'이라는 부제로 영상설치를 선보였다.

미디어로 포화된 현대세계는 인간의 지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흐름을 주목하여 설치 형식으로 인지와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전시들이 있다. 세계는 실체가 아닌 표면으로 다가오고 인지는 구성적이다. <최상규전>(7.13-7.19, 인사아트센터)에서 아크릴판을 정교하게 오려서 만든 이미지들은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어른거리는 물 표면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시각적 그물망의 가변성 때문에 관객은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교란된 시각상 안에 작가는 뭔가를 숨겨 놓았지만,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나 의미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전시장은 단지 작가가 제시한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테스트 얼룩처럼 이미지의 복마전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장이 된다. <김혜진전>(5.25-5.31, 관훈미술관)에는 마스크가 많이 등장한다. 실재감을 가진 초상이 아니라, 마스크를 매개로 하는 것은 드러냄 속의 감춤을 내포한다. 물론 감춤은 또 다른 드러냄이기도 하다. 공중에 붕 띄워진 빛나는 마스크는 본인의 얼굴이면서 가면

이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이루어진 전구들을 투명실로 매단 작품은 그것들이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원자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얼굴의 가변성을 강조한다. <정문경전>(11.9-11.27, 인사미술공간)은 표면의 이면을 보여준다. 전시장 1층, 약간 낮은 천장의 공간에 끼어 있는 대형 곰돌이 인형 푸(Pooh)는 안팎이 홀딱 뒤집혀 있다. 모델이 된 원래 인형을 뒤집어서 15배로 확대하는 작업은 복사에 복사를 거듭하여 흐릿해진 원본처럼 알게 모르게 변형된다. 뒤집기 작업은 이 유사(類似) 인간의 표면 안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안은 정확히 바깥의 안쪽이지, 저 깊은 곳의 내면이나 핵심, 본질, 실체가 아니다. 존재는 그 자체가 표면들의 중층이다. 정문경의 작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깊이의 모델을 표면의 모델로 전환한다.

소통을 주어진 공간에서의 몇 가지 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공공미술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천 소무의도 일대에서 벌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훌륭한 예다. <섬 집을 존중하다전>(10.1-12.31, 인천 소무의도 일대)은 실제의 섬에서 예술이라는 섬을 벗어난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기획:'기억과 새로움의 풍경', 예술감독 드라마 고)는 작은 섬 지역의 공공미술 활동을 책과 연극으로도 꾸미는, 서사가 있는 프로젝트다.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에서, '기억'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서사적 탐험을, '새로움의 풍경'은 실천의 결과로 변화될 풍경을 암시한다.

IV. 서예

오랜 전통을 가진 서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 자체가 전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표방하는 주요 전시로는 <삼문서예연구회전>(2.16-2.20, 부산시청 전시실)이 있다. 이 전시는 고 삼문 우성화 선생을 기리며 그 예맥을 잇겠다는 의지를 갖춘 제자들이 모인 연구회 창립전이다. <곰달래 서각회전>(6.15-6.21, 경인미술관)은 석촌 김상철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공부한 서각회의 21회 회원전이며, <동방연서회 창립 55주년 기념전>(12.21-12.27, 한국미술관)은 여초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회원과 동호인의 작품전이다. 사제 동행전으로는 <장우성, 박노수전>(4.13-7.10,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있다. 장우성의 <춘경>, <금강산>, 박노수의

<소년>, <철골생춘> 등이 나왔다. 좀 더 오래된 스승을 표방하는 전시로, <연우회 서예전>(12.15-12.21,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이 있다. 이 전시는 광주 학정 서예연구회의 연우회의 제35회 회원전으로, '매월당 김시습 선생 정신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인화와 산수화는 그 안에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서화 일체의 전통의 표본으로 2011년에도 관련 전시가 많았다. <20세기 한국 수묵산수화전>(9.16-11.20,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는 허백련, 이상범, 이종상, 노수현 등 21명의 대가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이상적인 풍경으로서의 관념산수와 실경산수를 동시에 선보였다. 전시연계 특강으로 정현숙의 '한국 산수화의 시원과 전개', 장진성의 '조선시대 산수화의 흐름', 송희경의 '한국적 이상경의 현대적 조율과 변주'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11 초대작가전>(11.14-11.17,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사물의 외형을 빌려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지식과 교양을 토대로 사물을 재해석하는' 문인화를 추구했다. 한글 서체만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단체들의 전시 또한 활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서학회가 주최한 <아름다운 한글 서예 모색전>(9.30-10.6,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한글 서예의 다양성과 현대성을 모색했다. 이종선, 서복희, 구자송 등이 참여했다. 사단법인 갈물한글서회가 주최한 <갈물한글서회전>(10.7-10.13,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무려 50회를 맞았다. <제9회 한뫼한글서예연구회전>(10.14-10.18, 원주 치악예술회관)은 고문 한뫼 김해동을 주축으로 '80인 한글 서예 즐기다'라는 부제로 열렸다. 연말에 열린 <먹빛으로 피어난 한글전>(12.12-12.16, 전라북도 도청 기획전시실)은 사단법인 한글서우회의 회원전이다.

서각은 서예 분야의 주요 형식으로 관련 전시로는 <대한민국서각대표작가전>(4.22-5.22, 한국서예박물관 기획전시실)이 있다. <제32회 철재전통각자보존회전>(9.28-10.4, 부남미술관)은 중요무형문화재 각자장 철재 오옥진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공부해 온 단체의 회원들 전시다. <통문각자전>(10.26-11.1, 경인미술관)이 있다. 통문각자전은 서각예술의 연구와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발족한 통문각자 연구회의 전시다. 글을 통한 명상과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는 서예와 잘 어울린다. <김성태전>(2.23-3.8, 토포하우스)은 법정 스님의 죽비소리를 소재로 하였다. 담원 김창배전(3.17-3.22,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선 다묵화전-차와 선이 그림 속으로'라는

부제로 열린 선묵화전이다. <일야 이강구 신부 서예전>(4.13-4.19, 평화화랑)은 이강구 마르코 신부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묵상했던 것들, 강의 내용, 신자들을 면담하면서 깨달았던 하느님의 응답들'을 쓴 글을 전시했다.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은 서예의 중요한 부문으로 관련 전시로, <여민 손용현전>(5.12-5.18, 백악미술관, 5.20-5.24,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우현 민성수 선생에게 사사한 손용현 전시의 대표작은 금강경을 소전으로 쓴 12폭의 병풍이다. <제6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6.15-6.2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전시실)은 초조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여 열린 전시로, 고려 전통 사경을 연구하는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80명이 참여했다. 이계희의 <무주정광대다라니경> 등이 출품되었다. 전통이나 종교의 경전뿐 아니라 동시대의 시 또한 주요한 소재가 된다. <유정 김명자전>(6.1-6.6, 아트라운지디방)은 '산, 빛과 바람'이라는 부제로 김용택의 시 「산벚꽃」을 쓴 글과 그림이 있는 작품을 출품했다. <백암 유석기전>(6.25-6.30, 원주 치악미술관)은 '김삿갓 시와 백암 유석기'라는 부제로 전서와 예서를 중심으로 전시했다. <고산 최은철전>(6.15-6.21, 한국미술관)은 '장자와 선'을 주제로 했다. <창현 박종회전>(8.11-8.13, 인제 하늘내린천센터)은 '시와 그림으로 보는 현대시 100년'이라는 부제로 최남선, 한용운, 신동엽 등 대표 시인 55명의 시를 다양한 서체로 썼다.

서예라는 전통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성격을 띠는 전시로는 <탄공 박창섭전>(4.2-4.8,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있다. 그는 글씨를 거꾸로 보니 편안하다는 느낌 때문에 글씨를 거꾸로 써내려갔다. <석창우전>(8.26-9.8, 청작화랑)은 감전으로 양팔을 잃었지만 온몸으로 작업하여, 육상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제6회 대한민국 서예 문인화 원로 총연합회전>(8.30-9.4,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은 원로의 노화 대신에 생기를 앞세운 100명의 원로가 참여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과 접목이라는 실험적 성격을 띠는 전시로는 <무산 허회태전>(1.11-2.14, 윤당갤러리, 3.10-3.16, 광주MBC)이 있다. 그는 감정과 서법의 결합어인 '이모그래피'를 LED와 접목했다. 부처의 형상과 만난 소녀의 실루엣이 있는 <소녀의 기도>, 선에서 음을 찾아낸 공감각적 작품 <선의 음률> 등이 출품되었다. <권창륜, 안승일의 산의 영(靈)&기(氣)전>(4.30-5.22,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산의 영혼과 정신을 서예와 사진으로 담았다. <걸레 스님 중광 만행전>(7.22-8.21,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선을 코드로 성과 속을 넘나든 전방위 예술가 걸레스님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중광의 만(卍)행'이라는 부제로 열렸다. 김형국의 '중광스님 불성의 인성바탕', 박영택의 '중광의 작품세계-삼매와 광기 사이'라는 강연도 함께 열렸다. <멍석 김문태전>(8.20-8.26,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원초적 본능'이라는 부제로, 추상을 바탕으로 한 현대 서예를 보여주었다.

주요 국제전으로는 『제8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10.1-10.30,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가 있다. 국내외의 1,645명의 작가가 참여한 27개 행사가 전북 일원의 7개 장소에서 열렸으며, 도화문자와 이모그래피 시연, 초서 릴레이, 서예로 쓴 간판과 책표지, 상표전, 서예치료, 웰빙 사례 보고전, 명사 서예전, 해외동포 서예가 초대전 등의 행사가 열렸다. 국제 서예학술대회의 주제는 '서예와 타 장르 신체 운동과의 역동적 융합 가능성'으로 한·중·일, 프랑스의 학자가 모여 토론을 벌였다. 『제4회 부산서예비엔날레』(11.8-11.17,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우수한 전통문화 가치를 계승한다'라는 취지의 '승계'를 주제로 하여 한·중·일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기념 세미나로 '부산 서예 발전방향'에 대해 논했다. 관련 전시로는 부산서예비엔날레 초대 국제 공모대전 초대 작가 10인 개인부스전(12.12-12.18,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이 있다. 양시우, 김경옥, 신주철 등이 참여했다. <2011 안동세계서예대전>(11.15-11.20,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으로 열렸다. 중국의 서법학회와 일본의 매일서도회 등에서 250점을 출품했다. <국제 서법예술 연합 한국본부전>(12.7-12.13, 한국미술관)은 올해로 8회를 맞으며, 캐나다, 프랑스 등 6개국이 발기단체 회원국이다. 서예 전시는 아니지만 서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획전으로 <문자, 그 이후;한국 고대 문자전>(10.5-11.27, 국립중앙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연가7연명금동불상 같은 국보급 자료와 광개토대왕비원석 탁본, 정창원 문서 등이 공개되었다. 고대인의 생활을 조망할 수 있는 문자자료 500여 점이 나왔고, 특별전에서는 문자자료의 수용과 그 발전과정을 통치, 생활, 사상 면에서 조명하고, 고대 문자 자료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도 함께 열렸다.

V. 미술이론/미술비평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한 세미나와 각 미술학회에서 마련하는 정기적인 학

술행사는 2011 시각예술 현황분석 중 '6. 2011 주요 학술'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론 부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참고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술 논문이나 학술 발표회 중심의 담론이 아니라 미술계의 현장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개 이런 담론은 큰 기획전을 계기로 해서 주최 측이나 잡지 등에 특집 형식으로 발표되며, 관객이 작품, 또는 작가와 미술담론을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하여 2011년 초까지 계속된 <메이드 인 팝랜드전>(2010.11.12-2.20)을 계기로 미술평론가 윤진섭은 『아트인컬처』 1월호 [테마 스페셜] 코너에서 '이미지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50-60년대 영미의 팝아트와 구별되는 한국의 팝아트 경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미술관에서 3월 초까지 계속 열린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팔방미인전>(2010.12.24-3.20)을 계기로 해서 『아트인컬처』 2월호에서는 한국의 개념 미술가 8명을 소개했다. 이건용, 곽덕준, 김구림, 박현기, 이강소, 홍명섭, 성능경, 김용익의 육성은 미술사와 비평의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 <코리안 랩소디전>(3.17-6.5)을 계기로 『월간미술』 4월호는 '시각문화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특집을 기획했다. 여기에는 미술평론가, 근대미술사가, 사진작가 등의 심층적인 논고들이 실렸다.

2011년에 열린 중요한 국제전으로 파리 오르세미술관에서 열린 <마네, 현대성의 창시자전>(4.5-7.17)을 계기로 미학자 한의정이 『월간미술』 8월호에 현대성의 의미를 살펴보는 논고를 발표했다. '무한의 제시'라는 부제로 열린 <이우환전>(6.24-9.28,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을 계기로 『아트인컬처』 9월호는 인터뷰, 에세이, 작가노트 등을 심도 있게 취재했다. 『아트인컬처』 3월호의 [스페셜 피쳐]란의 '작가는 어떤 작품을 좋아할까?'라는 가벼운 호기심에 기대는 듯한 취재지만, 작가연구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단서가 된다. 작가가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직접 서술했다.

미술사에 등재된 주요 전시와 작가와 관련된 글로 『월간미술』 3월호에 발표된 윤희경 연세대 겸임교수의 글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라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기획한 <0.10:최후의 미래주의 회화전>(1915), <제1회 러시아 미술전>(1922)을 소개한다. 이 전시를 통해 러시아 미술은 20세기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독립큐레이터는 『월간미술』 10월호에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현실주의, 보이는 세계에 대한 도전, <파리 국제 초현실주의전> (1938)과 <초현실주의의 제1차 서류들전>(1942)을 계기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상상력을 소개한다. 고동연은 '새로운 인체예술의 최전선'(『월간미술』 1월호)에서 1992년 스위스 로잔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포스트 휴먼전>에 대해 소개한다. 제프리 다이치가 감독한 이 전시는 생명공학, 컴퓨터 과학 등이 일으킨 신체적 혁명을 다룬다. 전통 부문에서는 국새와 광화문 현판에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서예계가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월간서예』 3월호에는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하자는 시민 공청회의 소식도 전했다. 『월간서예』 2월호에서 서예비평가 해담 오휴규는 '1000년 후의 광화문 현판'이란 글에서 광화문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 보자고 하였고, 서예가 이기숙은 '광화문 현판 제작을 국민축제로 승화시키자'라고 주장하였다. 서예가 허경무는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했다.

『월간미술』 7월호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관의 기록에 등재됨을 계기로 하여, '세계 제일 한국 문화유산'을 살펴본다. 이 특집에서는 한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국가의 유산을 소개한다. 국악, 건축조경, 조선왕릉, 기록문화, 과학기술 등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와 함께 소개된다. 『월간미술』 11월호는 조선시대의 화원을 심층 분석한다. '화원,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왕실을 장식하고 왕실의 행사를 기록하며, 자연을 그린 화원들의 작품을 수록하고, <조선화원대전>을 기획한 조지윤, <풍속인물화대전>을 기획한 탁현규의 인터뷰도 소개한다. 최열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의 '화원의 위대한 유산, 그 전통의 단절', 화원에 대해 미술사가 안휘준과 질의응답으로 풀어 보는 코너 등 화원에 대한 입체적이고도 알기 쉬운 분석이다. 최열은 『월간미술』 2월호에서 '민족미술사학 비판과 전환의 모색'이라는 미술사학의 관점에 대한 논쟁적인 글을 발표했다. 그는 '탈식민/탈민족 담론'이 미술사학에 미친 영향과 '민족미술사학'의 전통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그 밖에 포토샵 같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세계 최강의 디지털 기술 인프라가 구축된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의 조건을 살펴보는 한국의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담론, 다원미술의 경향에 대한 현상이 주요 주제로 나왔으며, 재래시장 등지에서 열리는 공공미술의 경향에 대한 심층 취재와 분석은 현장의 작가들에게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는 중요한 미술 담론들이다.

2011년 시각예술 현황분석

김 달 진(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

1. 통계분석으로 본 시각예술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개인전 6,693건, 단체전 6,061건, 해외작가 국내전은 1,130건으로 총 13,884건이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작가가 해외에서 전시 또는 국제전 등에 참여한 건수는 총 364건으로 집계되었다.

현황분석의 전시 분류는 먼저 전시가 진행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전과 국내작가 해외전으로 분류했고, 국내전은 전시 주체에 따라 개인전과 단체전, 해외작가 국내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외작가 국내전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작가들의 개인전 또는 참여한 단체전 모두를 포함하였다. 또 국내전은 지역별, 월별, 장르별로 구분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도 단위로 분류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제주,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16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시 횟수를 월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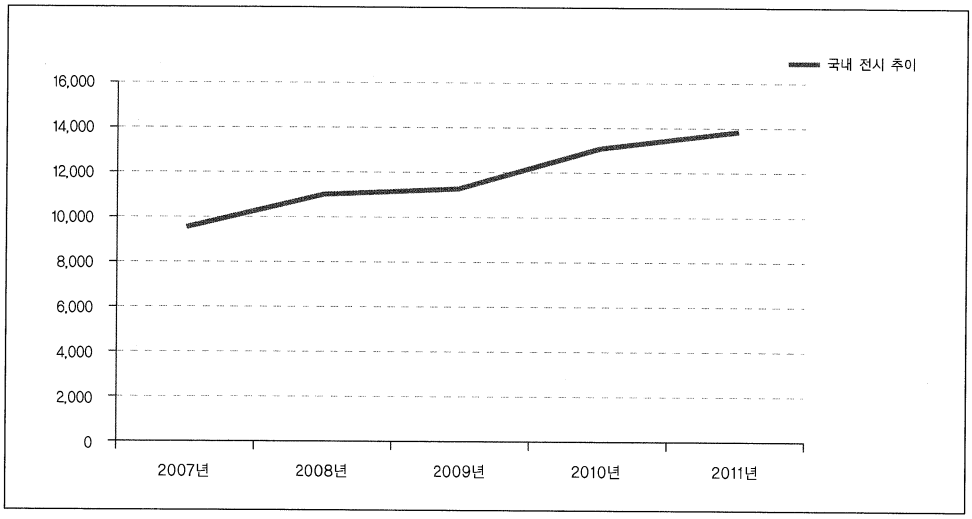
그리고 2012 문예연감에서는 시각예술 현황의 흐름을 알아보고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통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8년 10,965건, 2009년 11,305건, 2010년 13,005건, 2011년 13,88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시 횟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내 전시 통계 추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년 전시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보다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많은 전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 국내 전시 통계 추이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시통합	9,606	10,965	11,305	13,005	13,884

▌그림 1. 국내 전시 통계 추이 ▐



▌표 2. 국내 전시 지역별, 월별 전시 통계 ▐

도시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서울	398	377	575	612	649	701	486	590	605	787	867	621	7,268	52.35%
부산	32	33	44	62	50	47	55	30	47	63	64	72	599	4.31%
광주	27	26	36	33	42	45	44	36	38	54	79	63	523	3.77%
대구	37	34	49	86	98	99	61	70	52	106	116	88	896	6.45%
대전	32	29	33	56	54	53	54	63	77	103	100	92	746	5.37%
인천	4	12	15	20	19	24	18	13	21	17	28	25	216	1.56%
울산	1	3	4	5	7	5	3	2	2	4	8	3	47	0.34%
제주	17	11	11	10	12	9	6	18	12	19	9	6	140	1.01%
강원	9	6	9	14	15	24	19	15	17	34	27	29	218	1.57%
경기	38	37	92	111	101	77	91	60	98	139	128	103	1,075	7.74%
충남	5	1	5	9	9	7	5	3	12	13	7	9	85	0.61%
충북	8	4	8	7	20	15	12	11	27	18	28	19	187	1.35%
경남	6	5	17	18	18	21	12	21	17	27	49	28	239	1.72%
경북	3	5	6	16	10	12	18	10	21	20	23	9	153	1.10%
전남	1	1	8	14	7	10	9	8	6	18	15	10	107	0.77%
전북	14	14	16	25	25	7	12	21	22	30	36	33	255	1.84%
해외작가 국내전	60	49	77	93	94	114	110	87	133	107	107	99	1,130	8.14%
합계	692	647	1,005	1,201	1,230	1,270	1,015	1,058	1,207	1,559	1,691	1,309	13,884	100.00%
비율(%)	4.98%	4.66%	7.24%	8.65%	8.86%	9.15%	7.31%	7.62%	8.69%	11.23%	12.18%	9.43%	100.00%	

2011년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진행된 전시의 비율은 52.35%였다. 이는 2010년 전체 전시 중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비율 52.37%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은 2010년 3.63%에서 2011년 5.37%로, 경기는 2010년 6.25%에서 7.74%로 증가하였다. 부산은 2010년 7.77%에서 4.31%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광주도 2010년 4.14%에서 3.77%로 감소하였다. 그 외의 지역들은 1% 안팎의 변화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전시 횟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과 비교하여 전시 횟수가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에 편중되었던 전시가 수도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광주의 감소는 2010년에 진행되었던 『제6회 부산비엔날레』와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영향이 있음을 추측해 본다. 과거에 기록된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은 비엔날레가 있었던 2010년 7.77%, 2009년 5.28%, 2008년 5.59%로 비엔날레가 진행되었던 2010년과 2008년에는 전시 비율이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광주는 2010년 4.14%, 2009년 2.02%, 2008년 4.46%로 변동 비율이 2배로 차이가 나다가 2011년 3.77%로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진행되었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비엔날레의 행사가 지역 미술 활동이나 전시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개인전이 총 6,693건 진행되었다. 개인전에서도 작년과 비교하여 부산 지역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광주, 대구, 경남,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가 넘는 전시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지방보다 서울에서 개인전이 활발히 전시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표 3. 개인전 장르 통계

장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영상	서예	판화	디자인	만화	기타	미분류	합계
수치	4,086	388	648	628	559	195	60	51	8	70	0	6,693
비율(%)	61.05%	5.80%	9.68%	9.38%	8.35%	2.91%	0.90%	0.76%	0.12%	1.05%	0.00%	1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4. 개인전 월별 통계 ▐

도시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서울	177	199	364	415	398	441	251	344	364	477	508	299	4,237	63.30%
부산	15	20	28	38	29	29	23	17	26	34	33	31	323	4.83%
광주	9	8	16	16	25	13	13	13	15	19	25	11	183	2.73%
대구	16	20	28	51	56	56	30	27	29	56	64	52	485	7.25%
대전	16	11	13	20	22	20	19	18	32	44	33	30	278	4.15%
인천	1	7	11	11	9	18	8	5	13	10	16	9	118	1.76%
울산	1	3	3	4	3	4	2	1	1	4	5	2	33	0.49%
제주	7	3	5	4	4	6	4	7	6	11	3	3	63	0.94%
강원	5	5	5	10	6	12	8	8	6	15	6	11	97	1.45%
경기	15	15	40	53	39	32	47	30	42	55	49	31	448	6.69%
충남	3	0	5	7	7	1	2	1	3	4	1	2	36	0.54%
충북	5	4	6	5	13	7	4	7	10	9	11	11	92	1.37%
경남	3	4	10	6	4	8	5	10	5	3	12	4	74	1.11%
경북	0	3	2	10	6	3	8	5	7	7	6	6	63	0.94%
전남	7	1	5	6	5	2	3	5	3	9	9	3	52	0.78%
전북	1	9	7	13	10	1	4	12	9	13	17	9	111	1.66%
합계	281	312	548	669	636	653	431	510	571	770	798	514	6,693	100.00%
비율(%)	4.20%	4.66%	8.09%	10.00%	9.50%	9.76%	6.44%	7.62%	8.53%	11.50%	11.92%	7.68%	100.00%	

개인전 장르 통계의 기준은 2011년과 동일하게 11개의 장르로 분류하였다. 한국화, 서양화, 드로잉과 같은 평면작업은 회화로, 조각은 조소, 부조, 테라코타, 조각&설치로, 공예는 도자, 금속, 섬유, 목, 유리, 칠, 한지 등을 포함했다. 설치&영상은 설치와 영상을 함께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비디오아트와 미디어를, 서예는 전각, 문인화를, 디자인에는 그래픽, 의상, 캘리그라피를, 만화에는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를 각각 포함했다. 그리고 하나의 장르가 아닌 복합장르의 전시는 기타로 분류하거나 작품 성향을 바탕으로 근접한 장르로 분류하도록 했다. 예로 도자 조각에서 조각의 조형적 특성과 공예적 특성이 반영된 작품들은 성향이 짙은 장르에 따라 조각 또는 공예 장르에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개인전 장르에서 회화는 61%로 작년에 이어 1%, 설치&영상은 8.35%로 2.8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화 장르는 포괄적인 평면작업들이 포함되어 높은 수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취미 미술가들의 전시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치&영상의 전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영상 작품 전시보다는 회화 또는 조각과 설치가 함께 작업된 전시 공간에 직접 설치하는 작품들이 많아짐에 따라 설치 작품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시

편람을 살펴보면 설치 작업은 여러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서 많이 전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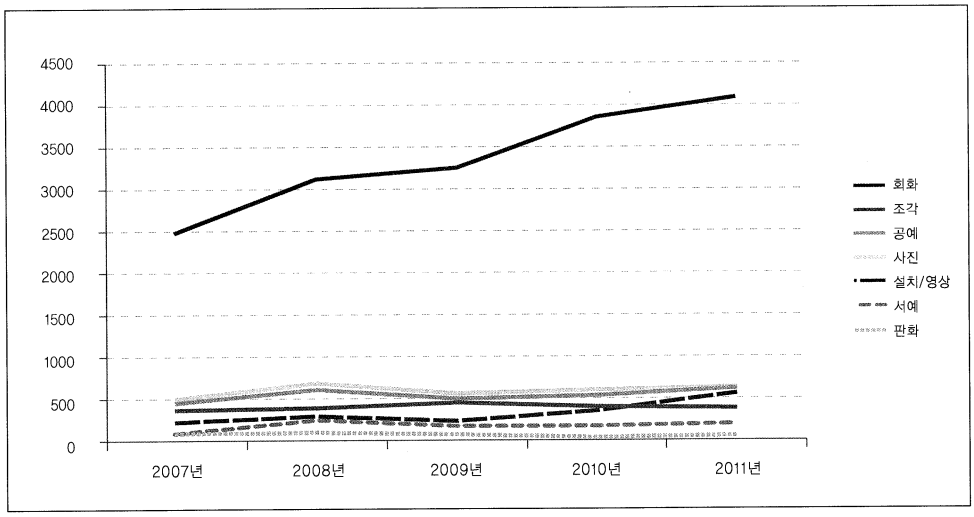
공예는 2010년 537건으로 8.45%의 비율에서 2011년 648건 9.68%로 111건 증가하였고, 판화는 34건 0.54%에서 60건 0.09%로 26건, 디자인은 19건 0.36%에서 51건 0.76%로 횟수가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회화의 수치 대비 비율 증가로 봤을 때 편중되어 있었던 장르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는 문예연감 개인전 장르 통계 자료를 근거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장르 변화를 표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회화는 월등히 높은 전시 건수와 비율로 나타나 다른 장르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표 5. 개인전 장르 변화 추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회화	2,482	3,127	3,249	3,829	4,086
조각	364	392	447	417	388
공예	472	603	497	537	648
사진	503	660	563	601	628
설치/영상	210	283	225	352	559
서예	82	231	155	157	195
판화	79	102	64	34	60

▌그림 2. 개인전 장르 변화 추이 ▐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화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공예의 전시 횟수가 높았고, 사진, 설치&영상, 조각, 서예, 판화 순서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장르별 최근 전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단체전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288건 증가한 6,061건이 조사되었다. 개인전에서 서울이 63%가 넘어 서울 지역에 편중된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반면에, 단체전은 서울 지역이 50% 조금 넘는 비율로 상대적으로 지방의 단체 전시도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진행된 단체전은 기획전의 성격보다는 미술협회나 서예협회와 같은 단체의 연례 전시와 사진 동호회의 전시들이 많이 있었다. 개인전과 단체전의 전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을 제외하고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의 전시가 비슷하거나 많았다. 서울에서 단체전보다 개인전이 976건, 부산은 194건이 더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단체전 월별 통계 ▐

도시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서울	221	178	211	197	251	260	235	246	241	310	359	322	3,031	50.01%
부산	17	13	16	24	21	18	32	13	21	29	31	41	276	4.55%
광주	18	18	20	17	17	32	31	23	23	35	4	52	340	5.61%
대구	21	14	21	35	42	43	31	43	23	50	52	36	411	6.78%
대전	16	18	20	36	32	33	35	45	45	59	67	62	468	7.72%
인천	3	5	4	9	10	6	10	8	8	7	12	16	98	1.62%
울산	0	0	1	1	4	1	1	1	1	0	3	1	14	0.23%
제주	10	8	6	6	8	3	2	11	6	8	6	3	77	1.27%
강원	4	1	4	4	9	12	11	7	11	19	21	18	121	2.00%
경기	23	22	52	58	62	45	44	30	56	84	79	72	627	10.34%
충남	2	1	0	2	2	6	3	2	9	9	6	7	49	0.81%
충북	3	0	2	12	7	8	8	4	17	9	17	8	95	1.57%
경남	3	1	7	12	14	13	7	11	12	24	37	24	165	2.72%
경북	3	2	4	6	4	9	10	5	14	13	17	3	90	1.48%
전남	0	0	3	8	2	8	6	3	3	9	6	7	55	0.91%
전북	7	5	9	12	15	6	8	9	13	17	19	24	144	2.38%
합계	351	286	380	439	500	503	474	461	503	682	786	696	6,061	100.00%
비율(%)	5.79%	4.72%	6.27%	7.24%	8.25%	8.30%	7.82%	7.61%	8.30%	11.25%	12.97%	11.48%	100.00%	

단체전은 기획자에 의해 구성된 기획전과 특정 협회나 그룹들의 모임에 의해 진행되는 단체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리고 갤러리들이 밀집된 지역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미술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단체전 외에 또 다른 형

태의 단체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같은 지역의 미술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단체전 형식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행사로 『청담미술제』가 2011년으로 21회 진행되었고,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주최한 『인사동 전통명가를 만나다』는 다양한 공예체험과 함께 운영되었다. 그리고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이용한 『아트로드77 아트페어』와 『헤이리작가전』이, 양평에서는 『환경미술제』가 4회째 시행되었고, 대구는 『봉산미술제』와 『제11회 봉산공예디자인』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예술 및 문화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시각예술 행사들이 단체전 전시를 많이 생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전시 기간 통계 ▐

구분	7일이하	8일~15일	16일~한달	한달초과~두달	두달초과~석달	석할 초과	합계
개인전	3,221	1,758	1,330	300	58	26	6,693
	48.12%	26.27%	19.87%	4.48%	0.87%	0.39%	100.00%
단체전	3,234	1,146	925	479	155	122	6,061
	53.36%	18.91%	15.26%	7.90%	2.56%	2.01%	100.00%
해외작가 국내전	265	217	331	212	63	42	1,130
	23.45%	19.20%	29.29%	18.76%	5.58%	3.72%	100.00%

2011년 전시 기간 통계에서는 개인전에서 7일 이하의 전시가 작년과 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인전은 대부분 일주일 내외의 전시가 가장 많은데, 가장 오래 한 전시는 한향림세라믹뮤지엄의 소장기획전으로 <황종구>(3.8-2012.2.26) 전시가 11개월 동안 열렸었다. 개인전이 장기간 전시되는 경우는 미술관에서 회고전 형식의 기획 전시이거나 소장 작품을 위주로 한 기획 전시다. 단체전에서도 7일 이하의 전시가 가장 많았고, 안산반월공단 STX에너지㈜ 외 3곳의 <예술이 흐르는 공단 한뼘 프로젝트전>(11.28-2012.11.30)이 거의 1년여 동안 전시되고 있다. 해외작가 국내전에서는 16일~한 달 기간의 전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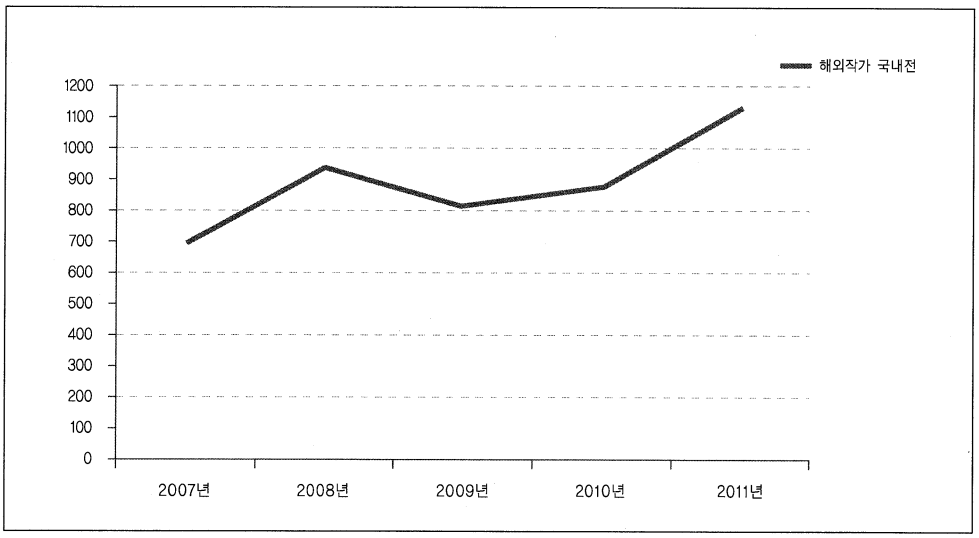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해외작가 국내전

▌표 8. 해외작가 국내전 전시 추이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작가 국내전	698	942	810	878	1,130

▌그림 3. 해외작가 국내전 전시 추이 ▐



2011년에 해외작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전시는 1,130건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52건이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작가 국내전의 전시 추이는 위의 표와 같다. 비엔날레 행사가 있었던 2008년은 전년도 대비 244건이 증가하였다가 2009년 감소하고 2010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최근 5년간 중 가장 많은 전시 건수를 기록하였다. 2011년은 해외 유수 미술관의 소장품전이 대거 이루어졌다. 프랑스 생테티엔미술관 소장품으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연 <모네에서 워홀까지전>(5.25-8.28), 오르세미술관의 소장작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한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6.4- 9.29),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7-18세기 유럽 최상위 지배계층이 향유했던 최고급 장식품을 소개한 <영국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 소장품전:바

로크·로코코시대의 궁정문화>(5.3-8.28), 덕수궁미술관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뉴욕 휘트니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한 <이것이 미국미술이다전>(6.11-9.25)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 프라이즈' 수상자 및 후보자 중 세계 미술 무대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젊은 작가 16인을 소개한 <오늘의 프랑스 미술:마르셀 뒤샹 프라이즈>(7.26-10.16),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바티칸박물관소장 르네상스 미술품전>(12.6-2012.4.1) 등이 열린 바 있다. 또한 많은 블록버스터 전시들과 해외작가들의 전시들, 중국 현대미술과 중·남미 미술 등 다양한 외국미술 전시들이 줄지어 열렸던 해였다.

아래의 표는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열린 해외작가들의 개인전과 해외작가들이 참여한 단체전 건수를 비교한 것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작가들의 국내 개인전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개인전과 단체전 비율 차이는 3:7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차이가 다소 낮아짐을 보였다. 과거에는 해외작가들의 개인전이 활발했던 반면에, 현재는 교류전 성격의 단체전 전시의 참여가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9. 해외작가 국내전 전시비율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시건수	비율(%)	전시건수	비율(%)	전시건수	비율(%)
개인전	214	26.42	255	29.04	284	25.13
단체전	596	73.85	623	70.96%	846	74.87
합계	810	100.00%	878	100.00%	1.130	100.00%

2011년 국내는 비엔날레 행사와 외국교류전으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7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제5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제8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5회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제16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가 진행되었다. 비엔날레 행사가 진행되었던 6월과 9-10월 사이에 해외작가 국내전의 전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국내 전시 지역별, 월별 전시 통계). 또한, 2011년은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 되는 해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텔미 텔미:한국호주현대미술 1976-2011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주_디지털 도시초상전』,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사라진 그러나 남아있는전』이 개최되었으며 KIAF 2011년 주빈국은 호주였다.

3. 국내작가 해외전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작가가 해외에서 개최, 또는 참여한 전시는 33개의 국가에서 364건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의 304건과 비교하면 60건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진행된 전시는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111건으로 가장 많은 전시가 열렸고, 중국 84건, 일본 32건, 독일 31건, 프랑스 28건, 영국 12건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10. 국내작가 해외전 국가별 통계 ▌

국가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나코	모로코	몽골	미국	베트남
횟수	1	5	1	31	1	1	1	1	2	111	1
비율%	0.27%	1.37%	0.27%	8.52%	0.27%	0.27%	0.27%	0.27%	0.55%	30.49%	0.27%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1	3	7	1	1	7	12	1	1	7	1	2
0.27%		1.92%	0.27%	0.27%	1.92%	3.30%	0.27%	0.27%	1.92%	0.27%	0.55%
일본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호주	합계	
32	84	1	1	4	1	5	1	28	7	364	
8.79%	23.08%	0.27%	0.27%	1.10%	0.27%	1.37%	0.27%	7.69%	1.9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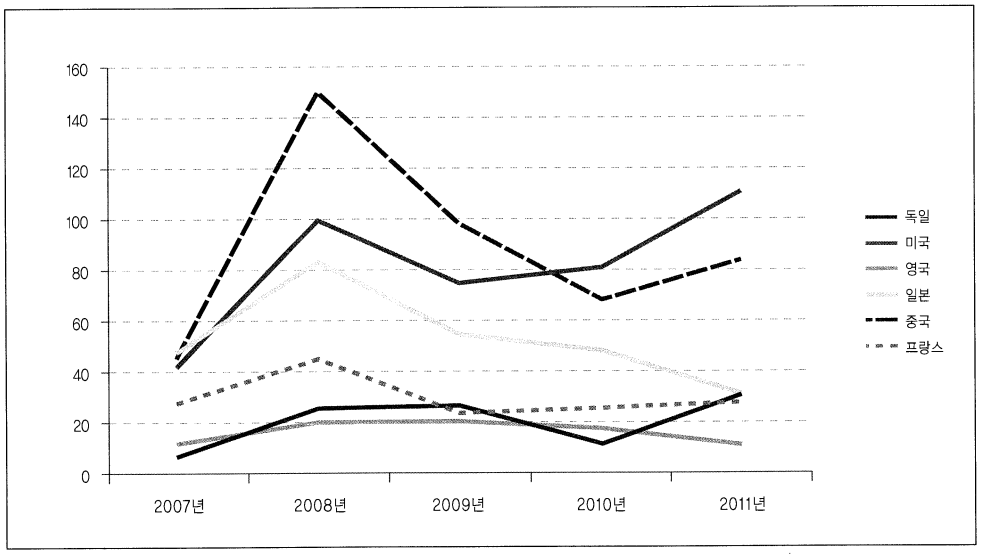
▌표 11. 국내작가 해외전 연간 변화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작가 외국전	234	508	376	304	364
국가 수	30	33	39	31	

▌표 12. 국내작가 해외전 주요 국가 전시 추이 ▐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일	7	26	27	12	31
미국	43	100	75	81	111
영국	13	20	21	18	12
일본	48	84	56	49	32
중국	46	150	99	69	84
프랑스	28	45	24	26	28

▌그림 4. 국내작가 해외전 주요 국가 전시 추이 그래프 ▐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소개되었던 국내작가 해외전의 변화량을 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08년에 가장 많은 전시가 해외에서 이뤄졌고, 2009년, 2010년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 다시 증가하였다. 국내작가 해외전시가 많은 비율로 열리는 주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국가에서 진행된 전시의 연간 변화된 추이 그래프를 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매년 고정적으로 전시가 이뤄지는 국가로 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이탈리아, 터키, 호주 등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1년 동안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주요 전시로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삼성미술관 리움과 공동 주최로 조선 초기 분청사기를 소개한 <분청사기전>(4.7-8.14)이 있었고,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이우환의 회고전인 <이우환:무한의 제시>(6.24-9.28)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작가로는 세 번째 초청전이었다. 러시아 모스크바도시박물관의 <서울의 초상>(10.18-11.18)은 근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 서울 사람들의 일상, 열정과 소통의 장면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뉴욕 아트디자인박물관에서 진행된 <제3회 코리안 아이>(11.1-2012.2.19)에는 21명의 한국 현대미술작가들이 참여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에서 한국의 현대 도예가 29명의 대표작을 <전통과 변환:한국현대도예전>(5.20-10.30)으로 소개하였고, 슈투트가르트린덴박물관과 공동 주관하여 독일 10개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한국 유물을 공개하는 순회전의 첫 전시로 독일 쾰른의 동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재발견-독일 박물관 소장 한국의 보물>(3.25-7.17)을 개최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불화, 자개공예품, 병풍, 청동기, 인쇄물 등 116점 전시와 함께 한국 학자들의 강연도 이뤄졌다.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전으로 시드니 파워하우스박물관에서 <찬란한 보물:한국의 금속공예전>(11.10-12.2)을 열어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는 한국 금속공예품이 전시되었다. 한국화랑협회 주관으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제2회 코리안 아트쇼』(3.3-3.6)에서는 국내 갤러리 35개가 참여, 작가 150여 명을 소개하였고, 같은 기간에 『아모리쇼』가 개최되었으며 한국갤러리로는 국제갤러리 한 곳이 참가하였다.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단독 작가로 참가한 이용백의 <사랑은 갔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6.4-11.27)는 역대 한국관 전시 중 가장 많은 관람객(약 30만 명)을 기록했다. 싱가포르현대미술관에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강형구의 <강형구:버닝 게이즈>(10.14-12.25)가 진행되었다.

또한, 타이페이 주밍미술관에서 <성동훈 초대전>(5.21-10.30)이 열렸다. 스위스 바젤에서 한국, 스위스 수교 48주년 기념전으로 <서울-아트 바젤:한국 미술의 빛>(5.10-5.15)이 개최되었다. 뉴욕 첼시아트뮤지엄에서 미술비평가 드니스 카르발요가 기획한 <아트플럭스:Innerspacing the City>(11.14-12.10)에서는 한국의 젊은 작가 7명이 소개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 샬로트룬드갤러리에서 열린 <38 ○N 스노우 사우스:코리안컨템포러리아트>(2.3-3.26)는 북유럽에 한국 현대미술을 알리는 기회였다.

4. 편람 자료 조사

201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시각예술 통계 분석에 앞서, 통계의 바탕이 되는 편람의 조사자료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1월호부터 12월호에 수록된 전시 목록을 바탕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수집한 팸플릿, 도록, 엽서, 보도자료, 신문 미술기사, 잡지 미술기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신문 미술기사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16종(조간: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14종, 석간:문화일보, 헤럴드경제 2종)의 신문과 지방신문 13개 해당 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시 정보 및 연합뉴스의 미술소식을 참고했다. 특히 지방은 지역 미술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을 비롯하여 지역 전시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참고하였다. 실제 편람 기초 자료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각 지방의 문화예술기관들의 홈페이지에서 과거의 행사와 전시 정보를 확인하였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홍보물이나 신문, 잡지 매체에 의존하였던 반면, 전시공간들의 홈페이지와 관계자들의 블로그, 관람자들의 포스팅 자료 등과 같은 온라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체들에서 볼 수 있는 날짜 변동과 같은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여 보완했다.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의 정보 관리는 의무사항으로 가장 필요한 조건만 기재해 두는 경우가 많아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관람객이나 작가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을 포스팅한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포스팅이 보다 충실한 정보제공의 출처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 접근성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정보들을 더욱 많이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 시각예술 통계수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올해 가장 많은 전시 통계가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신규 개관한 전시 공간과 변화

201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생긴 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관, 대안공간, 카페갤러리 등 전시 공간의 변화는 총 178곳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2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간의 전시 공간 변화 조사 이래 최고로 집계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다. 2008년에 143개 처, 2009년에는 100개 처, 2010년 144개 처로 발표한 바 있다.

전시 공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41%에 달하는 73곳이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의 구 단위 비율을 살펴보면 종로구가 전체 30%에 달하는 2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가 27%에 달하는 20곳, 서초구와 중구 7곳, 마포구 4곳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로 조사하면 부산, 대구, 울산을 포함한 경상도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37곳,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가 18곳, 대전을 포함한 충청도가 8곳 새롭게 생겨났다. 이어 강원도가 3곳, 제주도가 1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지역의 비율 차가 현격히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서울과 비교해 지역이 34%, 2009년에 40%, 2010년에 4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59%로 이례적으로 서울과 비교한 지역의 전세가 역전되었다. 이는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미술관 건립이 활발히 진행됨과 동시에 전시관, 기념관, 문화관 등 이전과 달리 조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 현상이 지방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시 공간이 가장 많이 개관한 달은 4월로 28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시 공간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미술관·박물관 건립 붐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지역 출신 유명작가의 이름을 딴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충남 홍성군에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특성화시킨 경북 울진군 봉평신라비전시관, 부안청자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이 새롭게 개관했다. 또한 기업, 은행, 증권사 산하 전시 공간들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TB투자증권은 명동, 도곡, 압구정, 부산, 울산 5개 지점을, 코오롱 그룹은 과천본사와 대구지점에 스페이스K를, 신한은행은 태평로 신한갤러리에 이어 역삼동 지점을, 롯데백화점은 부천에 중동점을 열었다.

6. 2011년 주요 학술

미술계 학술 활동은 크게 학회, 단체 등의 정기적인 발표회, 기관이나 주관처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마련한 세미나, 전시회 부대행사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강연회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2011년 학술행사의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담론들이 형성되었는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메이드 인 팝랜드(Made in Popland)전>(2010.11.12-2.20)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 팝아트의 시원과 전개>(1.27,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80년대 후반 이후의 한·중·일 팝아트의 전개방식을 비롯해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배경이 다른 각국의 팝아트 문화의 시원에 대해 각각 2명의 연구자가 시기 및 주제를 나누어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대중, 그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대해 박정하(성균관대 교수)가, 80년대 이후 <한국의 팝아트>에 대해서 윤진섭(호남대 교수, 미술평론가)이 발표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팝아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황두(독립큐레이터, 미술평론가)가, 왕광이, 웨이 광칭이라는 두 아티스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팝아트의 역사>에 대해 황주안(항저우미술대 교수, OCT관장)이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일본의 팝아트>에 대해 타테하타 아키라(국립국제미술관장)가, <1990년대 이후 일본 네오팝의 전개>에 대해 사와라기 노이(타마미술대 교수, 미술평론가)가 발표하였다.

한국미술연구소와 동경문화재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 미술에 대해 현재의 미술사가 평가하는 관점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논의하고자 한일 공동 심포지엄 『시선(視線)의 '역학(力學)'』(3.12, 이화여대박물관 시청각실)을 개최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서구미술 사조들을 수용한 요로즈 데쓰고로의 작품관을 이전의 '수용'이라는 관점과 다르게 작가의 세계관, 창작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다나카 아츠시(동경문화재연구소)의 <창작과 평가:요로즈 데쓰고로의 '풍선을 든 여인'을 중심으로> 기조강연에 이어 와타다 미노루(동경문화재연구소)는 <산수장권의 고찰:셋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서>에서 단편적인 자료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평가가 없었던 15세기 화가 셋슈 토요에 대한 자료를 모아 일련의 관점을 수립하는 연구를 보여주었다. 장진성(서울대 교수)은 <애정의 오류:정선에 대한 평가와 서술>에서 그동안 정선의 평가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하고 더욱 객관화된 자료로 수정해 보고자 하였다. 에무라 도모코(동경문화재연구소)는 <에도시대 초기 풍속화의 표현세계>에서 세밀한 풍속화를 디지털 장비를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었고, 문정희(한국미술연구소)는 <석도, 근대의 개성이라는 평가의 시선>에서 석도의 인물과 화풍이 근대 중국의 전통주의자와 개량주의자, 우리나라의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 살펴보았다.

미술사학연구회의 봄 정기학술대회(4.9, 한성대)는 다원주의 시각 속에 있는 동아시아의 현대미술에 주목하여 한·중·일 작가들의 최근 작업을 통해 현실적인 사회상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는 <현실과 재현: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쟁점들>로 진행되었다. 고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은 <아트에서 시각문화로:동아시아 팝아트 작가들과 후기 식민주의>에서 일본의 무라카미 다타시와 한국 최정화의 작업들은 예술적 정체성 자체를 문제시하지만, 국제 미술계에서 비서구권 작가들은 여전히 서구적 권력 구조 안에서 선택, 해석, 전시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남희(서울과학기술대)는 <한국 현대미술의 리얼리티와 재현:1980년대 백남준 귀환의 사회적 의미>에서 조선족 백남준이 유목정주민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던 이유와 우리 사회의 시선 변화를 설명하였다. 유정아(서울대)는 <포스트사회주의 시대:현대화의 환상과 스펙터클-중국 싼샤댐 건설을 중심으로>에서 싼샤댐 공정 홍보 사진의 과학 기술에 대한 찬양과 강제이주 주민,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 등 허구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주원(홍지예술학연구소)의 <1960년대 한국에서 재현의 문제와 구상/추상 논쟁>과 배수희(홍익대)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한국 미술의 탈장르 경향>을 통해 6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가치 정립에 대해 논의했고, 박계리(이화여대박물관)는 <백두산 재현과 시선의 역학>에서 북한 현대미술의 경향을 소개했다.

한국박물관학회는 『제5회 박물관대회·제24회 박물관학학술대회』(5.14, 국립중앙박물관)를 통해 앞으로 박물관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소통을 기반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박물관과 소통>을 주제로 한 본 학술대회는 박물관과의 소통, 이용자와의 소통, 다문화와의 소통 등 박물관과 사회적·문화적 소통과 함께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건희(서울디지털대 교수)의 <박물관의 의사소통적인 본질에 대한 고찰>이라는 기조 발제에 이어 최석영(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장)의 <박물관과 박물관 이용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박물관경영>, 백령(경희대 교수)의 <전시의 해석과 박물관 교육>, 서원주(중앙대 강사)의 <계몽주의 박물관과 제국주의 박물관>이 발표됐다.

위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큐레이터협회는 <소통과 공감의 미술관 문화를 위하여>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준모(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는 <미술관·박물관학적 시각으로 본 미술관·박물관의 교감을 위한 전제>에서 현재 국내의 전시 위주로만 운영되는 미술관은 소통의 통로가 일회성으로 그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장품에 대한 정책, 경영, 인력구성, 공간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박혜성(한국큐레이터협회 미술문화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술관 카탈로그, 소통을 위한 아트도큐멘테이션의 가능성-17세기 경매 리스트에서 소셜 태깅을 활용한 21세기 웹 사이트 미술관 카탈로그의 역사>를 통해 최근 미술관과 대중의 소통 방법으로 중요하게 부각한 아트도큐멘테이션의 개념 안에서 미술관 카탈로그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소장품에 대한 정보의 현대적인 메타데이터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구 미술관의 시행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다. 박정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전시 및 교육>에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로서 미술관 정책을 결정하고 전시 기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조화, 미술관 에듀케이터의 역할 강화, 큐레이터에 의한 전시 기획, 고객감동의 전략 구사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렸던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_전개와 위상>(5.26-7.23)과 연계해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그 현장과 과제>(6.3, 서울시립미술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195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 양상을 아시아, 미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윤진섭(호남대 교수)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진출과 교류전 양상>을 시기별로 짚어 보았다. 1990년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전후로 아시아에서의 한국 현대미술의 진출양상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까지 우후죽순 격의 비슷한 성격의 비엔날레는 국가적 낭비라 지적했으며, 그럼에도 국제행위예술제의 정착과 확산, 미디어 아트 분야의 약진, 아시아비평가들의 활동, 큐레이터의 국제적 교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유연(독립큐레이터)은 <세계 속의 한국 현대미술의 방향>이란 주제로 미국, 멕시코, 중남미 등지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전략 및 방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향성을 제시했으며, 글로벌 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인문예술학적 교류에서부터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계원디자인예대 교수)은 <한국 현대미술은 유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유럽에 한국 현대미술이 소개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유럽 진출과 교류에서 동시대 미술의 현재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자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디렉터십의 현재와 대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 『디렉터십의 현재와 대안』(6.9, 대구미술관)을 개최했다. 김찬동(아르코미술관 관장)은 <미술관 디렉터의 과거와 현재>, 윤범모(경원대 교수)는 <미술관 디렉터십의 과제와 대안>, 이영철(계원디자인예대 교수)은 <김덕기의 아리랑과 한국의 미술관>을 발제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동아시아 왕실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연 『왕실문화 국제학술대회』(9.20-9.21, 국립고궁박물관)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해 중국의 북경고궁박물관, 일본의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베트남의 후에유적보존연구소 등 총 4개국 8개의 왕실문화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왕실문화의 보존, 왕실박물관의 운영, 왕실문화의 활용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11명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왕실문화가 발달해 왔던 동아시아 4개국의 관련 기관이 모여 각자의 왕실문화 보존,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고려시대 난파선과 수중 발굴 유물을 통해 고려시대 문화의 실상에 다가가고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바다문화회와 공동으로 '고려의 난파선과 문화사'(10.7, 목포대)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민현구(고려대 명예교수)의 <동아시아 고려시대의 대외교류>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고려시대 난파선의 구조와 특징'에서는 고려시대 난파선의 세부적인 구조와 형태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선박제작 기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2부 '난파선 출토유물을 통해 본 고려시대 문화와 교역'에서는 고려시대 수중발굴 고선박에 실린 목간, 중국의 명문 도자기를 통해 고려사회의 문화상을 살펴보고, 주변국과의 교류 및 교역항로 등을 검토하여 고려사회의 역동성을 조명했다.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가을 학술대회(10.22, 국립중앙박물관)는 장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시점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의 개념과 용어'를 주제로 진행되었

다. 세부 발제에는 최열(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의 <한국 근현대미술 기점에 관한 인식>, 최공호(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의 <공예, 모던의 선택과 문명적 성찰-용어 수용 이후의 위기와 어젠더>, 김이순(홍익대 교수)의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미술장르로서 '조각'의 개념과 전개>를 다루었다. 정무정(덕성여대 교수)은 <한국 미술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의미와 특징>, 김재원(인천가톨릭대 교수)은 <리얼리즘 미술>, 정형민(서울대 교수)은 <동양 개념의 형성과 전통회화>에 관하여 설명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국경을 넘어서-이주와 이산의 역사'를 주제로 제54회 전국역사학대회를 개최했다. 진재교(성균관대 교수)는 <진경산수의 허와 실에 대한 변증>에서 회화에서 진경산수에 대한 논의도 조선 내부의 시각에서가 아닌 동아시아적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산수유기와 지도, 지리지 편찬, 기록화, 실경산수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밖으로는 17세기 이후 사행을 통한 서적, 그림의 교류, 동시대 실경을 그렸던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연결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송희(한국학중앙연구원)는 <18세기 행렬반차도 연구>에서 18세기 반차도의 제작양상과 용도에 따라 채색법과 시점 등 표현 양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장진성(서울대 교수)은 <명작의 신화-김정희 필 '세한도'의 성격>에서 기존의 세한도에 대한 평가는 작품의 양식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작품 상단의 발문과 그림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고평가되어 왔으며, 본래 세한도의 용도는 김정희에게 고가의 중국책을 구해 준 역관 이상적에게 답례로 그려진 것이다, 학자이자 서예가인 김정희의 작품을 평가할 때 작품 자체에 집중하여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수현(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은 <중국 조선족 미술의 다중적 정체성-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에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새로운 '동포' 집단으로 다가온 조선족 미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의 고대미술을 다룬 장성욱(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시대 초기 도자제기의 제작과 특성>에서 『고려사』 예지(禮志)를 통한 검증을 했으며, 성윤길(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은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에서 중국 불상과 비교하여 역사학적으로 미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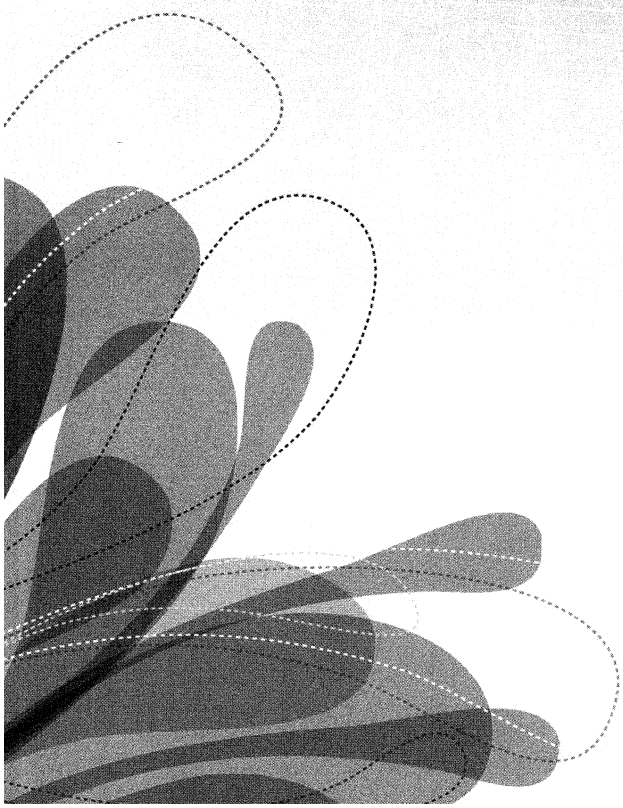
7. 작고 작가

2011년 한 해 동안 별세한 미술인을 조사한 결과 1월에는 독립큐레이터 이원일, 2월에는 해방 이후 1세대 원로 미술사학자 황수영, 서양화가 정창섭을 비롯해 판화가 강환섭, 서양화가 김진명, 3월에는 건축가 정기용을 포함해 한국화가 김동수, 시사만화가 백인수, 5월에는 원로 서양화가 김종하, 사진가 김영수, 서양화가 조병현, 6월에는 선화랑 대표 김창실, 7월에는 남상재 전 원광대 섬유미술과 교수, 8월에는 정재훈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9월에는 미술평론가 김인환을 비롯해 서양화가 윤병석, 10월에는 풍속화가 이서지, 11월에는 '직지의 대모(代母)' 박병선 재불 역사학자를 비롯해 서양화가 김종숙, 서양화가 민병목, 사진가 성낙인, 전경배 전 한양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12월에는 서양화가 권옥연, 장석웅 전 한국건축가협회 명예회장 등이 별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국 악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 악 총 론

지금은 제도화된 차별과 배제와 모욕을 부정하는 음악적 '품위'의 자각이 필요할 때

전 지 영(국악평론가)

Ⅰ. 머리말

2011년도 국악[1] 공연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양적인 증가가 두드러졌고, 그 안에서 전통음악 그 자체의 풍성함이 아니라 타 장르와의 다양한 교섭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개척이 주요한 경향이 되었다. 공연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고(2,187건), 공연 횟수가 4,000회를 넘어섰는데(4,036회), 그러한 양적 확대는 전통음악 장르 내적 확대가 아니라 '전통을 넘어서기', '전통의 짐을 덜어내기',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기' 등의 지향성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공연장에서 국악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악 공연 양적 확대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어두운 전망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가 된 것도 사실이다. 양적 확대와 다양한 혼종성(Hybridity)을 막연한 국악 번영과 다양화로 미화하기만 할 때, 전통의 생명력은 그 수명이 더욱 단축될지 모른다. 생존

1) 사실 이미 흔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단어는 심히 불편한 용어임을 다시금 언급해야 할 것 같다. 문예연감의 분류용어로 '국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다. 민주화 시대에 여전히 '국가의 음악'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가 전통의 이름으로 대접받는 것도 문제이고, 더구나 이 용어를 '한국 음악'이라는 말로 대체함으로써 '민족'의 음악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음악을 동일시하는 풍토는 더 큰 문제다. 사실 용어상 가장 대표적인 '국악'은 〈애국가〉이고 가장 대표적인 '한국 음악'은 소위 '한류'로 대표되는 〈소녀시대〉나 〈카라(KARA)〉의 음악들이다. 다만 관습적 사고에 의해 이 글에서 '국악'은 전통음악과 그 파생음악들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

경쟁과 인정투쟁의 예술문화를 딛고, 지배이념과 관습화된 거짓 미덕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생존을 위한 예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예술을 위해, 이윤을 위한 '작품'이 아닌 인간적 숭고함의 사유가 살아 있는 '음악하기'를 위해, 제도화된 차별과 배제와 모욕을 부정하는 음악적 '품위'의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II. 몇 가지 특징들

2011 국악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 공연 내용이 비정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몇 가지 특징들도 확인할 수 있다.

1. 공연의 양적 증가

2011년도 국악 공연은 건수로는 최초로 2,000건 이상(2,187건)을 기록했고, 횟수로는 최초로 4,000회 이상(4,036회)을 기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국악 공연 횟수가 2,000회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적으로 거의 경이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 최근 국악 공연 양적 추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1,379	1,632	2,187
횟수	2,684	3,456	4,036
횟수/건수	1.95	2.12	1.85

특히 건수보다 횟수 상승폭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표 1> 참조) 이는 상설공연, 장기공연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음악극(소위 국악뮤지컬 포함) 공연이나 연희종목 상설공연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주 엑스포문화센터의 <미소2-신국의 땅, 신라>(총 248회), 광화문아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홀의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판>(총 261회),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총 129회), 종로 소리아트홀의 <햇님달님>(총 120회), 남산국악당의 어린이 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사대문 열어라>(총 112회) 등과 같은 공연들을 전체 국악 공연 횟수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하겠다. 물론 이 중에는 과연 이 공연을 국악 공연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연도 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연 (횟수가 아닌) 건수만으로도 2,000회를 넘어선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만큼 객관적인 공연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건수와 횟수 차이는 기악, 성악 분야는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연희,[2] 혼합, 복합 공연 들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따지고 보면 이른바 연희 역시 몇 가지 예능이 복합된 장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내용의 공연들이 건수·횟수의 차이가 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공연 중에서 기악과 성악 공연이 차지하는 수치는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표 2> 참조). 나머지는 이런저런 여러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공연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 공연의 양적 증가가 통상적인 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다변화한 형태의 공연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음악 자체가 아니라 파생 형태의 공연들이 주로 공연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악기와 서양악기 혹은 전자악기가 혼합된 연주 형태, 보다 대중적·상품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극이나 무용과 긴밀하게 결합한 공연 형태, 통상적인 기악이나 성악 장르에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공연 형태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2) '연희'라는 용어의 문제도 사실 매우 크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역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는 1980년대까지는 '연희하다'(즉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술어로 사용되었고, 1990년대 이후 들어서 탈놀이, 굿놀이, 농악 등의 예능 종목을 지칭하는 용어로 무리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 종목에서 권위를 쌓아 온 이들이 자신의 전공(discipline)을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합리화해 온 역사가 숨어 있다는 혐의도 있다. 또한 연감 분류체계와 관련해서는 통상 연희 장르라고 지칭되는 것을 국악 분야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한 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문예연감 2011』 국악 분야 총론 참조).

▌표 2. 국악 공연 분류별 횟수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횟수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이처럼 전체적인 국악 공연의 양적 증가는 2011년도에 매우 두드러졌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상설공연이나 장기공연이 늘어났고, 전통음악 자체보다 그 방계(傍系) 형태나 다종 복합의 파생공연들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공연 내용의 비정형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위 혼합 또는 복합으로 분류된 공연들이 전체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를 보면 혼합 및 복합 공연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국악 분야 공연 양상이 '혼종성(Hybridity)'의 강화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공연 내용의 비정형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국악뮤지컬'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홍보되는 공연들, 국악기가 사용되긴 하지만 음악 내용은 전통과 무관한 공연들, 연극인지 국악인지 혹은 무용극인지 분류가 애매한 공연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공연 내용에 있어서 소위 '레퍼토리'나 '창작'이 아닌 '미분류' 공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발견할 수 있다(<표 3> 참조).[3] '미분류'는 기존 레퍼토리의 반복이나 창작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공연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미분류'라는 것은 공연 내용이 전적으로 모두 창작된 것도 아니고 모두 기존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레퍼토리' 공연 안에는 '창작'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창작의 내용이 포함된 공연은 '창작'과 '미분류' 공연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아래 <표 3>에서 902회를 제외한 나머지 3,134회 공연은 그 안에 창작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는 창작 지향의 태도가 국악 전공자들에게 얼마나 두텁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말해 준다.

3) 다만 특정 지역은 창작공연이 레퍼토리공연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특정 지역은 반대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일관성이 존재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전년도 문예연감에서도 언급했던 점인데, 아직까지는 국악 공연이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예연감 2011』 국악 분야 총론 참조).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3. 국악 공연 내용별 횟수 ▐

구분	레퍼토리	창작	미분류	총합계
총합계	902	891	2,243	4,036

그런데 이때 창작이라는 것은 전통음악의 재창조가 아니다. 오늘날 '새롭다'는 것은 전통음악 장르 내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전통음악과 비 전통음악 간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을 의미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국악기로 음렬음악을 연주한다거나, 국악기 한두 개를 포함한 편성으로 대중적 음악을 연주하거나, 개인 독주회임에도 뮤지컬이나 음악극 형태로 구성한다거나 하는 시도들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은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타깃으로 삼는 관객층도 다양화되고 있다. 끊임없이 관객을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장르 파괴(또는 장르 벽 허물기) 혹은 복합 및 혼합 양상의 가속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소위 어린이 뮤지컬들(예컨대 <서울남산국악당과 함께하는 어린이 국악 뮤지컬>, 국립국악원의 <어린이 음악극 오늘이>,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어린이 국악 체험 뮤지컬> 등)이 양적으로 대단히 많아졌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장르 파괴 혹은 내용적 비정형성은 국악 공연의 대세가 될 것 같다.

3. 소소한 점들

공연의 양적 증가와 내용적 비정형성 외에 몇 가지 소소한 점들을 짚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를 보면, 서울보다 경북과 전북이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표 4> 참조). 통상 공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당연히 서울이고 여전히 국악 공연의 수도권 집중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우선 전북 지역은 인구수에 비해 국악과를 설치한 대학이 많고 그로 인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공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구 대비 공연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북 지역은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연 129회)과 <미소2-신국의 땅,

신라>(연 248회) 상설공연이 횟수 증가의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 이 두 가지 공연은 모두 국악 공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제기나 논의가 필요한 공연들이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국악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횟수는 경북 지역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인구 대비 국악 공연이 가장 활발한 곳은 서울과 전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 인구 10만명 당 국악 공연 횟수

구분	횟수
경북	17.2
전북	17.1
서울	16.3
전남	10.2
광주	9.0
제주	8.7
울산	7.5
충북	5.9
부산	5.4
대전	5.1
강원	4.9
충남	4.5
대구	4.1
경남	3.3
경기	2.7
인천	2.2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이 인구 대비 국악 공연 횟수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데, 인천은 국악과가 설치된 대학이 없고 이로 인해 인천 지역에 터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국악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공연의 상당수가 서울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물론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다)

한편, 공연의 월별 분포를 보면 주로 봄·가을에 집중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예전부터 보아 온 모습이며, 전체적인 국악 공연의 양상이 서구식 무대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연 패턴이 양악 분야와 유사한 모습으로 정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소위 혼합 공연의 경우 봄·가을 시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공연 비수기인 7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이고, 연희 공연은 3월에, 복합 공연은 4월에 유독 횟수가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여기에는 연감 편람 작업상 오류가 숨어 있는데, 먼저 7월에 혼합 공연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미소2-신국의 땅, 신라> 상설공연이 7월 공연 횟수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연은 연 248회 이루어졌는데, 첫 시작 월인 7월 수치로 이것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걸 빼면 혼합 공연 역시 봄·가을에 공연이 집중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않는다. 또한 연희가 3월에, 복합이 4월에 유독 많은 이유 역시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연 129회)이 3월에 시작하고, 종로 소리아트홀의 <햇님달님>(총 120회), 남산국악당의 상반기 어린이 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사대문 열어라>(총 112회), 극단 북새통의 <재주많은 다섯친구>(총 55회) 공연이 4월에 시작하는데, 이 공연들은 모두 연간 많은 횟수에 걸쳐 장기공연이 이루어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한 월에 공연 총 횟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다. 즉,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공연을 첫 공연이 이루어진 월에 모든 횟수를 표기하면서 생긴 오류인 것이다.[4]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월별 공연 흐름은 전통적인 봄·가을 시즌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군구별 세분화된 공연 횟수가 조사되었는데, 서울 서초구, 중구, 종로구, 전주시 등에 많은 공연이 집중된 이유는 국립국악원, 정동극장, 세종문화회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대형 공연장이 이들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공연장 위치에 의해 지역별 공연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공연장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역시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국공립 공연장에 공연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에 많은 공연장들이 있으나 대부분 국악 관련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장과 예술인들을 연결시키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과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미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공연의 수도권 집중완화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4) 혼합 공연의 경우 건수와 횟수 월별 그래프가 들쭉날쭉한 현상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4. 여전한 문제들

조사범위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년도 문예연감(『문예연감 2011』 국악 분야 총론)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어디까지를 국악 공연으로 볼 것인가(연희 종목을 국악에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 포함)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는 지난 반세기 국악의 역사가 걸어오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개념적 오류 문제가 포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순수한 국악 공연은 오늘날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국악관현악, 실내악, 개인독주회에 연주되는 대부분의 음악은 이미 그 자체로 국악의 요소와 비국악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음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질적 요소의 혼합을 아예 '국악'으로 간주하는 관습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국악 공연을 조사할 때 끊임없이 '이 공연을 국악 공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나'를 고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5] 이는 물론 국악계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문제지만, 쉽게 정리될 성질이 아니기에 연감 작업에 있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최선의 분류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한 후에 분류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Ⅲ. 감추어진 모습들

위에서 보이는 계량적 분석이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어쩌면 현상적 모습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것이다.

1. 국악은 풍성한가?

공연의 양적인 증가로 인해 과연 국악은 풍성해졌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양적 증가는 주로 전통음악 내적인 풍성함보다는 국악과 타 장르와의 다종다양한 혼종 및 그로 인한 장르 파괴(탈장르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음악 장르 내적인 레퍼토리 확산이나 창작적 풍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악의 일부 요소에 다른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하고 융합하고 있는

5) 이에 대한 논의는 『문예연감 2011』 국악 분야 총론 참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것이다. 새로움이 더 이상 장르 내적인 창작을 의미하지 않고 타 장르와의 혼종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의 양적 증가는 오히려 수많은 비국악 요소들이 국악의 이름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연의 양적 증가와 비정형성의 상황 속에서 전통음악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역시 국악 전공자들이다. 말하자면 양적 풍요 속에 국악 전공자들에 의해 국악은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하이브리드 경향은 5-6년 전과 또 다르다. 과거처럼 한두 개 국악기가 주선율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타악기와 전자악기 등이 호흡을 맞추는 형태로 국악단체임을 굳이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도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런 단체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한물 간' 포맷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굳이 국악기가 주선율을 담당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아예 음향적 보조 외에 쓰임이 필요 없음을 '당당히' 보여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때로는 '국악'이라는 이름, 혹은 국악의 요소, 혹은 한두 개 국악기는 단지 구색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을지 모른다.

전통음악 테두리 내의 음악가들은 또한 더 이상 전통에 의해 구속되기를 거부한다. 기타 수많은 국악 관련 연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 혹은 '자율'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음악을 자신의 음악으로 보지 않고 '퓨전', '크로스오버' 등의 이름으로 규정하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정형화된 규정이나 관습화된 장르 나누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내 음악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6] 그 안에서 '전통'은 이미 하나의 굴레처럼 간주되고 있다.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규정이나 관습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음악가의 자율을 이야기하고 어떤 규정된 음악이나 관습적 사고가 아니라 '나의 음악'을 지향하는 음악가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전통은 하나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이어야 한다', '국악단체니까 이 정도는 국악적이어야 한다' 등의 관념은 이미 사라졌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생각은 더 강하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6) 물론 그들이 말하는 '자유'나 '자율'이 정교한 반성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존재에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든 생존과 적응을 위한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럴 때 예술가에게 가장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사고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나 '자율'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나 자율이 아니라 방종이거나 귀찮음의 표현이 될 뿐이다. 이데올로기, 시스템, 고정된 이론체계 등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억압되고 구속받고 있기에 자유롭고자 하는 것인지, 즉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음악가들에게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없다. 어떤 '규정'이나 '관습'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보호받던 세대가 아닌 이들에게 그 안에 머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안에서 '국악'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2.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음악에 있어서 '품위'(decentness)를 논할 때가 되었다. 소위 '품위 있는 사회'(The Decent Society)가 제도 혹은 시스템에 의해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모욕'하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면,[7] '품위 있는 예술'이란 지배체제와 권위적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품위 있다'는 것이 소위 '고급예술' 지향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고급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품위 없는' 설정에 기반하고 있다. 소위 고급문화라는 것은 주류 지배계급에 의해 '모욕'과 '배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정받기 위해 '과시'하고 타자를 '배제'시키는 작품경향이 고급예술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이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규범적 당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가 그러한 당위를 만들었을 뿐이며, 그러한 제도에 의한 차별과 배제에 의해 조장된 작품은 품위 없는 예술작품의 전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품성이 아니라 '품위'이어야 한다. 작품성이라는 것 자체의 판단기준이 상당부분 지배체제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체제는 예술가들(특히 기득권층이 아닌 후속세대의 예술가들)을 끊임없이 자본주의적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을 위한 예술 본연의 문제보다 당장 눈앞의 생존과 이윤을 위한 작품을 미덕으로 강요한다. 그럴 때 인간적 숭고함보다는 타자(他者)보다 더 위에 서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차별'과 '배제'의 경향이 존중되게 된다. 작품성만이 강조되면 이러한 제도적 차별과 배제와 모욕은 정당화되고, 예술은 점점 황폐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위대한 전위적 작품 혹은 시대를 앞선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임에도 그 작품이 파시즘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경우, 혹은 친일작품인데 예술적으로는 뛰어난 작품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물론 실제 이런 작품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그런 작품은 '순수'의 관점에서 혹은 '예술 그 자체'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도 있고,

7)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 『품위 있는 사회』, 신성림 옮김, 경기 파주: 동녘,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진보'의 관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술성' 논쟁이 아니라 '품위'의 관점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제도적 '모욕'을 위해 생산되었으며, 그것들은 '품위 없는 예술작품'이자 '품위 없는 사회의 예술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술에 있어서 '품위'의 문제가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하는 이유다. 예술작품의 작품성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품위'의 문제인 것이다.

전공자에 의해 국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전년도 문예연감(『문예연감 2011』 국악 분야 총론)에서 언급한 혼종성 경향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엄혹한 청년실업과 생존경쟁, 인간을 위한 예술 혹은 사회적·시대적 의미성을 담기 위한 예술을 사장(死藏)시키고 끊임없는 인정투쟁(認定鬪爭, struggle for recognition)으로 내모는 경향성들…….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러한 경쟁의 가장 첨단에 우뚝 서기 위한 처절한 '배제의 투쟁'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차별과 모욕의 '품위 없음'을 인지하고 '음악적 품위'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적어도 '인간에 대한 고찰', '시대와 사회에 대한 통찰', '자아에 대한 성찰'이라는 '본연의 예술성'에 대한 자각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제도와 관습에 의해 미화된 '주어진 예술성' 혹은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강요된 작품성'은 차별과 배제를 위해 고안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거나 심지어 '검증 가능한' 아뢰야식(阿賴耶識)일 것이다. 저질스러운 경쟁논리와 자본주의적 상품성이 미덕임을 의심해 보지 않은 음악가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자신이 그러한 제도에 의한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임을 인지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음악적 '품위'의 양식적 실천을 고뇌하는 것이 될 것이다.

IV. 맺음말

2011년도 국악 공연은 건수로는 최초로 2,000건 이상(2,187건)을 기록했고, 횟수로는 최초로 4,000회 이상(4,036회)을 기록했다. 양적으로 굉장한 증가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상설공연이나 장기공연이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연희종목과 '국악 분야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내용의 상설공연 및 장기공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악 공연의 양적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전통음악 레퍼토리의 확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요소와 타 장르와의 다양한 방식의 교섭과 융합으로 인한 것이다. 즉 전통음악 장르 내적 풍성함이 아니라 혼종성의 두드러짐에 의한 것이며, 국악과 타 장르 간의 다양한 만남이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연의 내용이 탈장르화 혹은 비정형화되는 현상이 강화되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주요한 흐름이 될 것 같다.

이런 계량적 분석 이면에 숨겨진 문제는 양적 풍요가 실제로는 전공자에 의해 국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자들은 더 이상 전통을 고집하거나 전통의 이름으로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전통 아닌 것으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들에게 전통은 이미 짐이 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는 탓하거나 나무랄 수 없는 현상이며,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때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념을 음악적인 '품위'로 규정할 수 있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1년 국악 현황분석

황 윤 숙(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1. 국악 공연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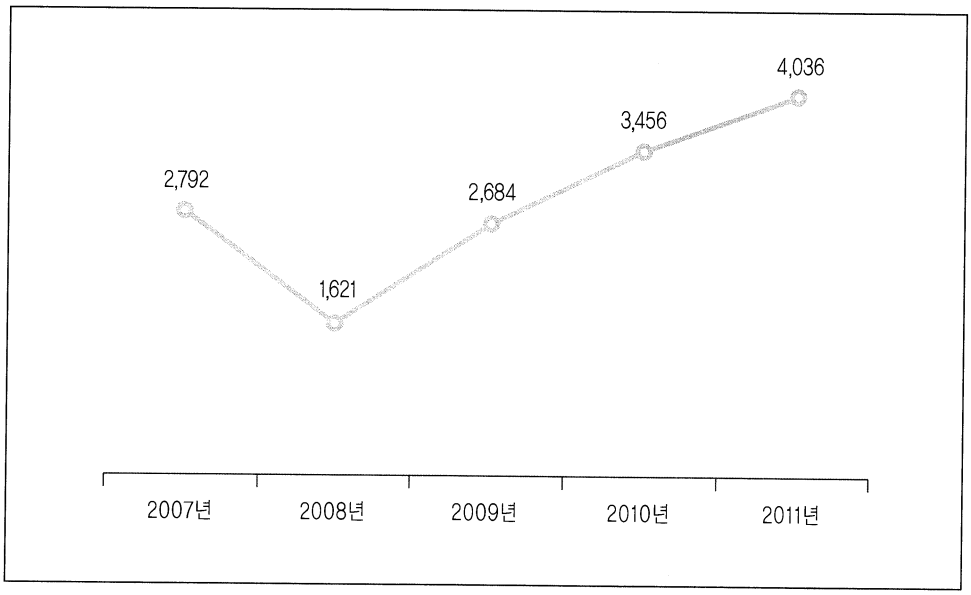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국악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2008년 이전의 편람 자료가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고, 공연 건수가 아닌 공연 횟수만을 조사했다는 점만 유의한다면 비교 자체가 어렵진 않다.

최근 5년간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악 공연은 연 평균 2,918회 무대에 올랐다. 『2011 문예연감』의 최근 5년간(2006~2010년) 국악 공연 연 평균 횟수를 평균한 2,618회에 비해 11.5%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양적인 상승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최근 5년간 국악 공연의 공연 횟수 추이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연 횟수	2,792	1,621	2,684	3,456	4,036

▌그림 1. 최근 5년간 국악 공연의 공연 횟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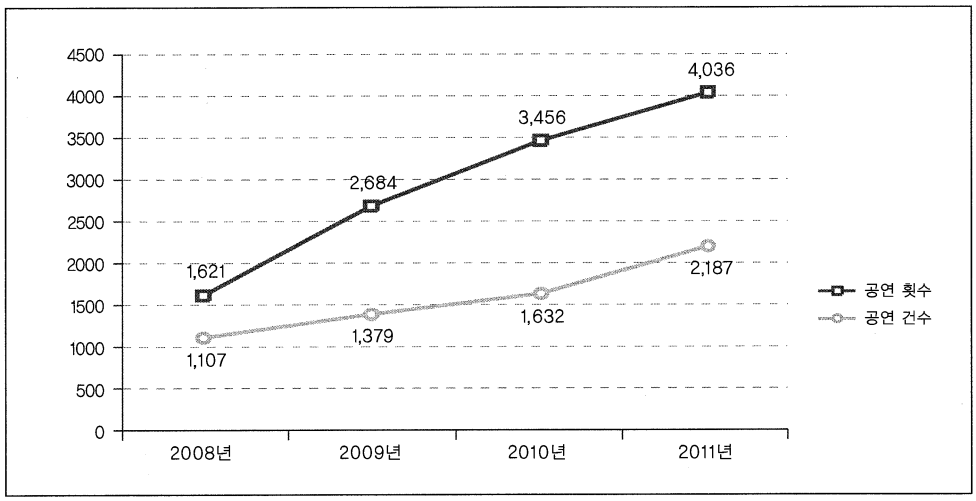
2008년 이후의 문예연감 편람에서는 자료조사방법의 표준화와 함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를 조사했기 때문에, 공연 횟수만이 아니라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은 한 공연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를 요약해 보여준다.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된 2008년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1.46회를 기록한 이래 2009년 1.95회, 2010년 2.12회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1.85회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년도(2010년) 편람상에서 1회만 진행된 공연이 87.4%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1년도는 88.6%로 다소 비율이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1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공연들도 전년도(2010년)의 32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26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09년도의 16건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기도 해서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간 100회 이상 무대에 오른 공연도 5개로 사단법인 사물놀이한울림의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 '판'"(261회), 어린이 국악뮤지컬로 소개되는 "햇님달님"(160회), "문지기 문지기 사대문 열어라"(112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2. 최근 4개년간 국악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건수	1,107	1,379	1,632	2,187
공연 횟수	1,621	2,684	3,456	4,036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1.46	1.95	2.12	1.85

▌그림 2. 최근 4개년간 국악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2. 국악 내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

현재 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상 국악 공연은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된다.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는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공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한두 숫자로 단순화해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들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진 못하지만, '2011년 국악 공연계'의 흐름을 잘 요약해 반영한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이어 혼합 공연이 736건(33.7%)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다음을 차지하는 기악 공연이 538건(24.6%)인 것에 비교하더라도 약 1.4배의 큰 차이를 보인다. 2009년도 이전 혼합 공연에 비해 기악 공연의 비중이 컸던 것에 비하면 눈여겨볼 만한 차이다. 전년도에 이어 2011년에도 국악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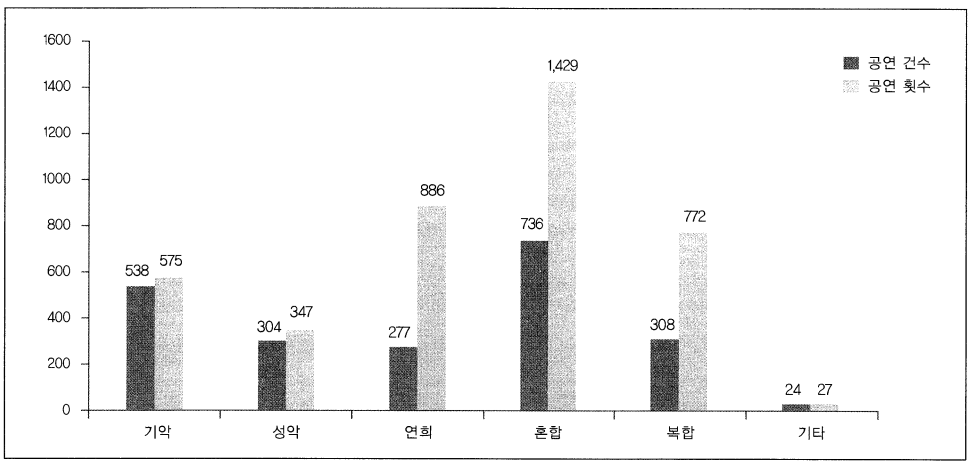
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전년 대비 공연 건수 34%, 공연 횟수 17%) 또한 혼합 분야의 양적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전년도인 2010년도 국악 공연이 2009년에 비해 공연 건수 18.3%, 공연 횟수 28.8%의 성장을 보인 것과 양상은 다소 다르다. 건수 증가세는 더 커지고, 횟수 증가세는 다소 감소했다. 복합 분야가 308건으로 혼합, 기악의 뒤를 잇고, 성악(304건), 연희(277건) 순의 분포를 보인다.

공연 횟수에서는 공연 건수와 분포 양상이 많이 다르다. 혼합(1,429회, 35.4%)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희가 886회(22%)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공연 건수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던 기악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575회(14.2%)로 복합(772회, 19.1%)에 이어 네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런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간 분포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부 분야별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빈도	538	304	277	736	308	24	2,187
	비율	24.6%	13.9%	12.7%	33.7%	14.1%	1.1%	100.0%
공연 횟수	빈도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비율	14.2%	8.6%	22.0%	35.4%	19.1%	0.7%	100.0%

▌그림 3.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3.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로 살펴본 국악 내 세부 장르별 장기공연 실태의 차이

국악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8회다. 전년도의 2.12회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약 2회 정도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부 장르별로는 연희가 3.2회로 가장 높고, 복합 2.51회, 혼합 1.94회, 성악 1.14회, 기악 1.07회로 나타난다. 전년도에 비해 복합이 크게 감소하고(4.22회 → 2.51회), 연희가 다소 증가했다(2.8회 → 3.2회). 다른 분야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전년도에 비해 혼합 분야가 건수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다면, 연희 분야는 횟수 중심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까지 양적 측면에서 혼합의 성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무대에 기악, 성악, 연희에 창극까지 함께 선보이는 형태의 공연이 국악 대중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장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개 한 번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경향은 국악 분야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장기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와 그렇지 않은 장르로 어느 정도의 갈림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2010년	332	147	225	601	187	140	1,632
	2011년	538	304	277	736	308	24	2,187
공연 횟수	2010년	360	169	631	1,322	789	185	3,456
	2011년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건수/횟수 비율	2010년	1.08	1.15	2.80	2.20	4.22	1.32	2.12
	2011년	1.07	1.14	3.20	1.94	2.51	1.13	1.85

연희 분야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129회)", "2011 안성 남사당 공연(97회)",

"필봉 굿 보러가세(22회)" 등이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복합 분야에서는 "햇님달님(160회)", "재주 많은 다섯 친구(55회)" 등의 국악뮤지컬과 "비빔 인 서울(32회)"과 같은 퍼포먼스가 높은 공연 횟수를 보였으나 73.4%에 이르는 226건의 공연이 모두 1회 공연을 진행해 전체적으로는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 창작 공연은 공연당 평균 5회, 기존 작품은 1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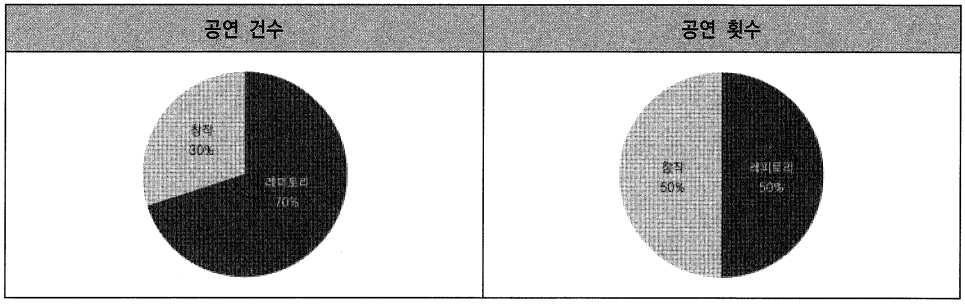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올린 모든 국악 공연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통해 그 해 창작된 작품인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작품인지를 판단하긴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한 해 공연된 작품 중 창작과 기존 공연작(편람상에서는 '레퍼토리'라는 용어 사용)을 나누어 살핀 자료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에 이어 2011년도 문예연감에서도 국악 공연에 대해 각 공연작품이 창작인지 아닌지를 불완전하나마 분류하고자 했다.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인 상태로 두었다.

▌표 5. 국악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분포 ▐

구분	레퍼토리	창작	미분류	계
공연 건수	635	275	1,277	2,187
공연 횟수	902	891	2,243	4,036

미분류인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 작품은 275건으로 30.2%, 기존 작품(레퍼토리)은 635건으로 69.8%를 차지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창작 작품이 891회로 49.7%, 기존 작품(레퍼토리)이 902회로 50.3%를 차지한다.

▌그림 4. 국악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비중(미분류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



이렇게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창작과 레퍼토리 공연의 분포가 역전되는 것은 앞서 언급된 다회 공연들이 창작 공연에 더 많기 때문이다. 창작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3.24회, 기존 작품은 1.42회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창작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5.16회, 기존 공연이 1.37회였던 전년도에 비하면 차이의 폭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5. 월별 공연은 완만한 M자형 곡선으로 분포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완만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국악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에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점차 7~8월의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가족 대상의 공연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M자형 곡선의 양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흐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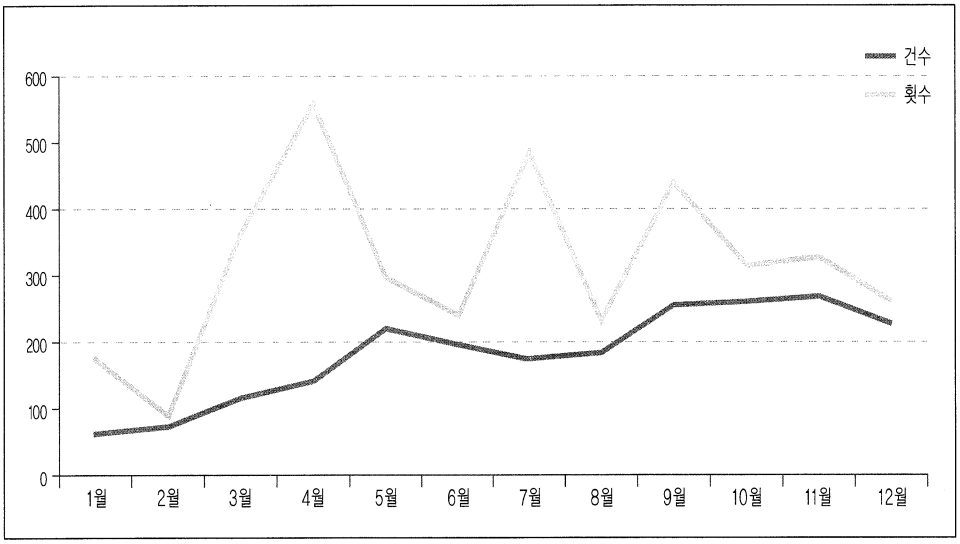
▌표 6. 국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빈도	1	63	73	118	144	218	195	177	185	256	260	269	228	2,187
	비율	0.0%	2.9%	3.3%	5.4%	6.6%	10.0%	8.9%	8.1%	8.5%	11.7%	11.9%	12.3%	10.4%	100%
공연 횟수	빈도	261	176	88	361	559	297	239	484	231	441	314	327	258	4,036
	비율	6.5%	4.4%	2.2%	8.9%	13.9%	7.4%	5.9%	12.0%	5.7%	10.9%	7.8%	8.1%	6.4%	100%

위 표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공연 건수 그래프를 보면 M자형 패턴이 매우 희미하다. 하지만, 공연 건수 그래프만 따로 떼어 보면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M자형 추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5월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7~8월까지 공연량이 감소한다. 9~11월에 공연 양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증가폭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12월 다시 얼마간 감소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공연 건수 그래프와 공연 횟수 그래프의 격차가 큰 상반기 부분이다. 2~4월까지 공연 건수는 335건으로 전체 공연 중 15.3% 정도지만, 공연 횟수는 1,008회로 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이 시기에 시작해 연중 계속되는 몇몇 공연 때문에 생긴 일종의 노이즈다. 공연을 단위로 자료가 취합된 만큼, 해당 시기에 열리는 공연 횟수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연중 횟수가 모두 해당 시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2~4월 간의 공연 횟수는 2~4월에 시작된 공연의 모든 공연 횟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월과 9월 공연 횟수 그래프가 불쑥 솟은 이유도 7월, 9월에 시작해 11월까지 계속되는 공연 횟수가 모두 7월이나 9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국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6. 국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 분포 ▐



6. 서울·전북·전남·경기·부산·광주·대구 순으로 국악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별 국악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대구, 부산의 공연 양 감소와 전북, 전남, 경기의 약진이다. 2009년도 '서울>대구>부산>전북>경기>전남' 순이었고, 2010년도 '서울>부산>전북>경기>전남>대구' 순이었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서울>전북>전남>경기>부산>광주>대구' 순의 분포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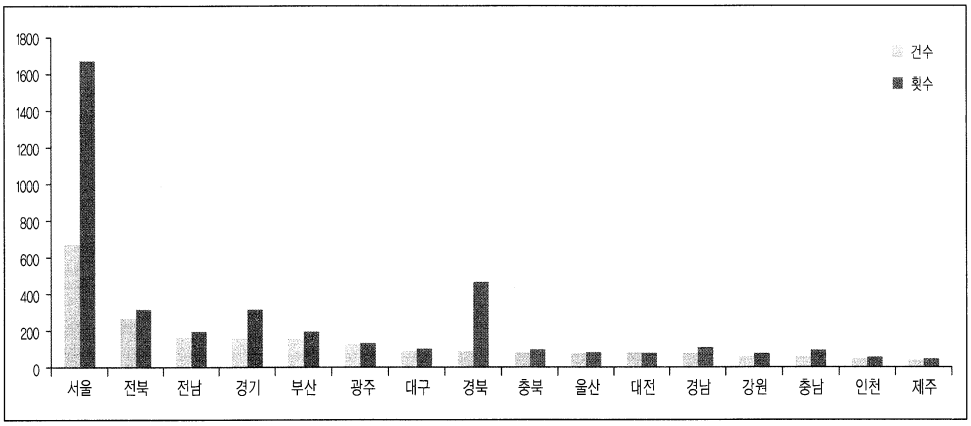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량이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바로 뒤를 잇는 전북의 270건(12.3%)과 비교해 2.5배 수준인 667건(30.5%)이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2위인 경북의 463회(11.5%)에 비해 거의 네 배 수준인 1,673회(41.5%)에 이른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서울의 집중도는 건수와 횟수 모두에 있어서 약화되었다. 건수와 횟수 모두 10%p 안팎에서 비중이 감소했다.

▌표 7.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서울	전북	전남	경기	부산	광주	대구	경북	충북
공연 건수	667	270	163	156	153	120	86	81	78
공연 횟수	1,673	321	195	317	190	131	102	463	92
구분	울산	대전	경남	강원	충남	인천	제주	계	
공연 건수	76	73	71	56	54	43	40	2,187	
공연 횟수	85	77	110	75	94	61	50	4,036	

서울·부산·전북·경기·전남·대구 지역의 국악 공연이 2009년에는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80%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1년에는 약 73.8%대로 다시 감소해,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연간 100회 이상의 국악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지역에 기존의 여섯 곳 외에 경북이 포함될 수 있었던 데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다. 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5.72회로 전년도에 가장 비율이 높았던 서울의 4회를 훨씬 웃돈다. 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북의 전년도 평균 공연 횟수 또한 3.28회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서울엔 미치지 못했다. 다음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하지만, 2011년의 비율은 2.51회로 한 공연당 평균 4회에 가까운 공연이 이루어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 2009년도에 2.63회로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대전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한 공연당 평균 1회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8. 16개 시도별 국악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구분	건수	횟수	비율
서울	667	1,673	2.51
전북	270	321	1.19
전남	163	195	1.20
경기	156	317	2.03
부산	153	190	1.24
광주	120	131	1.09
대구	86	102	1.19
경북	81	463	5.72
충북	78	92	1.18
울산	76	85	1.12
대전	73	77	1.05
경남	71	110	1.55
강원	56	75	1.34
충남	54	94	1.74
인천	43	61	1.42
제주	40	50	1.25
계	2,187	4,036	1.85

7. 공연 건수는 비수도권이, 공연 횟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

16개 시도별 자료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전년과 동일한 양상이 드러난다. 공연 건수에서는 비수도권이 1,322건(60.4%)으로 865건(39.6%)인 수도권보다 훨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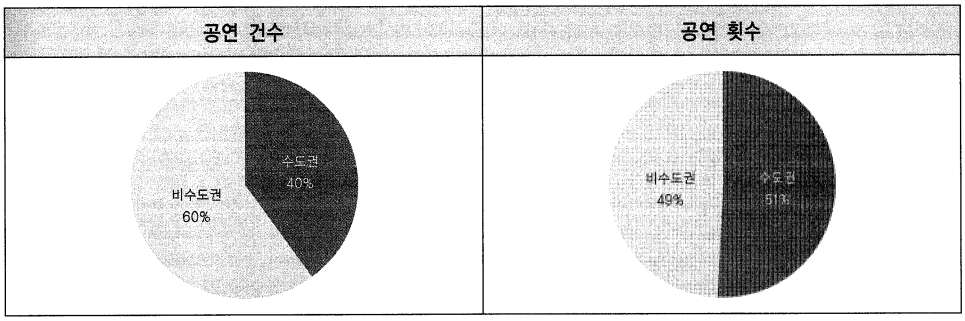
하고,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 2,050회(50.8%), 비수도권이 1,986회(49.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전년도에 공연 건수에서 비수도권이 855건(52.4%)으로 633건(47.6%)인 수도권보다 다소 우세하고, 공연 횟수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1,058회(30.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2,398회(69.4%)를 보인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큰 변화다. 장기공연의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에 수도권의 국악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는 3.09회로 1.24회였던 비수도권의 두 배가 넘었지만, 2011년 수도권의 평균 공연 횟수는 2.37회로 1.5회인 비수도권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표 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계
공연 건수	865	1,322	0.65	2,187
공연 횟수	2,050	1,986	1.03	4,036

위 표를 그래프화시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앞서 언급한 양상을 띠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그림 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수도권으로의 편중 현상이 약화되는 주된 원인은 비수도권의 중소도시 공연이 증가하는 데서 비롯한다. 지역을 기초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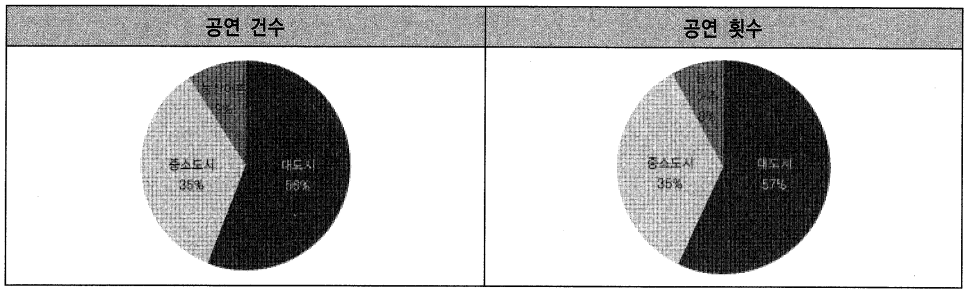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1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계
공연 건수	1,218	766	203	2,187
공연 횟수	2,319	1,414	303	4,036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1.90	1.85	1.49	1.85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연 건수 격차가 2배에 달하는 모습은 전년도와 같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공연 횟수다. 전년도의 경우 3.6배 수준의 큰 격차를 보였던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사실상 공연 건수 수준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에서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다만,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격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큰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 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국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8. 서울·전북·전남·경기·울산·제주는 최근 3개년간 공연 양 지속 증가 중

2008년 조사 방법이 표준화된 이후 최근 3개년간 지역별 공연 양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 국악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살피면, 16개 광역시도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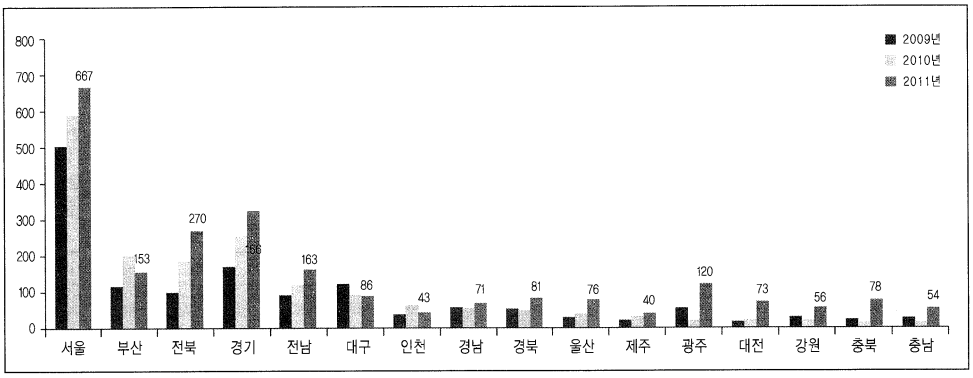
전북·전남·경기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관계없이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공연 양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서울·울산·제주는 공연 건수에서는 최근 3개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감소와 증가를 오가는 지역이

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연 건수는 연평균 15%의 일관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공연 횟수는 2010년 크게 상승했다가 2011년엔 다시 2009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모습이다. 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 등 부산,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10년 감소했다가 2011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구는 위 세 그룹과는 달리 공연 건수와 횟수 모두에 있어 3개년간 지속적으로 공연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부산은 공연 건수와 횟수 모두에 있어 2010년 공연 양이 급상승했다가, 2011년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표 11. 최근 3개년간 국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서울	부산	전북	경기	전남	대구	인천	경남	경북
2009년	501	117	102	95	90	123	37	60	52
2010년	587	199	187	126	118	92	64	54	47
2011년	667	153	270	156	163	86	43	71	81
연도	**울산**	**제주**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계**	
2009년	29	22	53	16	30	23	29	1,379	
2010년	40	28	22	21	20	14	13	1,632	
2011년	76	40	120	73	56	78	54	2,187	

▌그림 10. 최근 3개년간 국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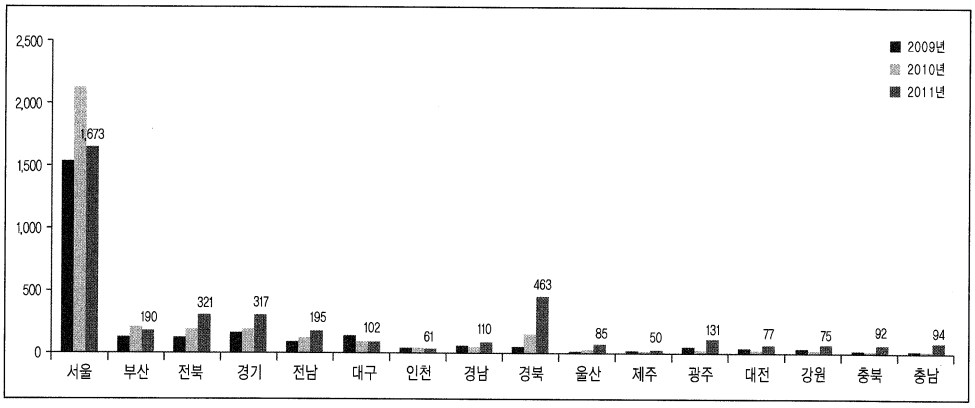
경북 지역은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2009년 52건, 2010년 47건, 2011년 81건으로 소폭 감소와 큰 폭의 상승을 오가지만, 공연 횟수상으로는 2009년 54회, 2010년 154회, 2011년 463회로 연평균 28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12. 최근 3개년간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서울	부산	전북	경기	전남	대구	인천	경남	경북
2009년	1,541	128	139	168	102	158	51	70	54
2010년	2,136	220	201	194	139	104	68	62	154
2011년	1,673	190	321	317	195	102	61	110	463
연도	울산	제주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계	
2009년	46	31	59	42	41	24	30	2,684	
2010년	42	30	26	21	29	15	15	3,456	
2011년	85	50	131	77	75	92	94	4,036	

▌그림 11. 최근 3개년간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9.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는 전북이, 공연 횟수는 경북·전북·서울이 상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산출했다. 인구수는 지역별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지역별 인구수 대비 공연 양은 실제 그 공연에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공연이 열리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전북이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올라 11건을 보인 데 이어 2011년엔 14.4건으로 인구수 대비 가장 국악 공연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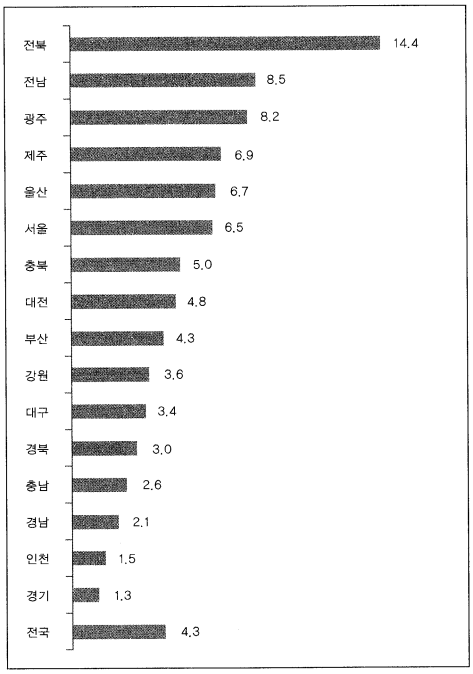
은 지역의 자리를 지켰다. 8.5건인 전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그 다음은 광주로 8.2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2009년 4.9건에 이어, 2010년 5.8건으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연 양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6.5건으로 전북, 전남, 광주(8.2건), 제주(6.9건), 울산(6.7건)의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1년에는 전북과 전남이 전통적인 예향의 면모를 지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2009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가 2010년 여섯 번째 순위로 하락한 대구는 2011년 열한 번째까지 지속적으로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0.8건으로 최하위였던 경기 지역은 2011년 1.3건으로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순위가 낮다.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집중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역치고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보여,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떠올릴 만해 보인다.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건수

순위	지역	공연 건수
1	전북	14.4
2	전남	8.5
3	광주	8.2
4	제주	6.9
5	울산	6.7
6	서울	6.5
7	충북	5.0
8	대전	4.8
9	부산	4.3
10	강원	3.6
11	대구	3.4
12	경북	3.0
13	충남	2.6
14	경남	2.1
15	인천	1.5
16	경기	1.3
-	전국	4.3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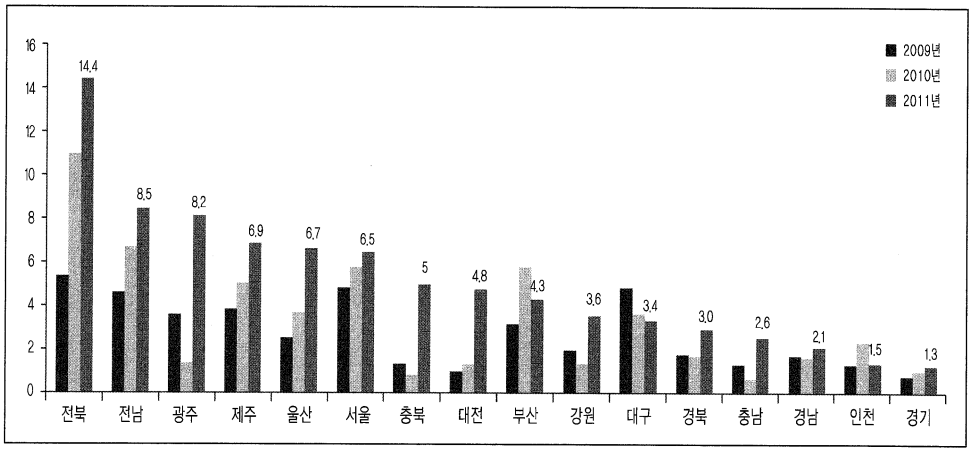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구수 대비 공연 양의 3개년간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전북·전남·제주·울산·서울·대전·경기 등 7개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올해 14.4건으로 1위를 기록한 전북이나 8.5건으로 그 뒤를 잇는 전남은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 광주·충북·강원·경북·충남·경남 등 6개 지역은 2010년 다소 감소했다가 2011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은 2010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2011년 다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3.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울산	서울	충북	대전
2009년	5.5	4.7	3.7	3.9	2.6	4.9	1.5	1.1
2010년	11.0	6.8	1.5	5.1	3.7	5.8	0.9	1.4
2011년	14.4	8.5	8.2	6.9	6.7	6.5	5.0	4.8
연도	부산	강원	대구	경북	충남	경남	인천	경기
2009년	3.3	2.0	4.9	1.9	1.4	1.8	1.4	0.8
2010년	5.8	1.4	3.8	1.8	0.7	1.7	2.4	1.1
2011년	4.3	3.6	3.4	3.0	2.6	2.1	1.5	1.3

▌그림 13.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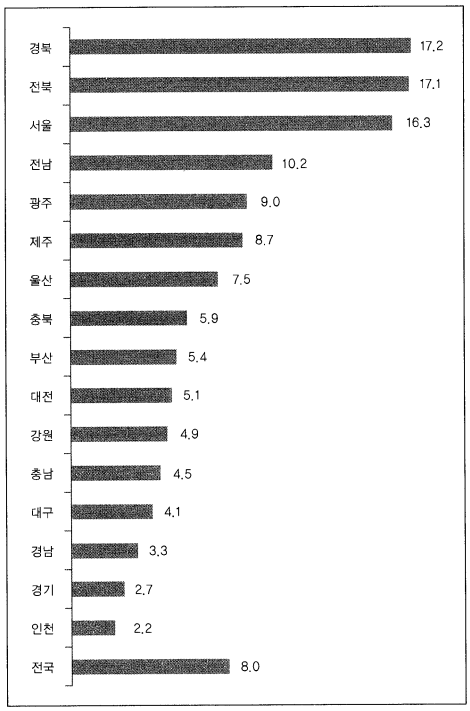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에서는 경북이 17.2회로 가장 앞선다. 17.1회인 전북,

16.3회인 서울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년도인 2010년의 경우 서울이 21.3회, 전북이 11.8회로 1·2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엇보다 서울의 급감과 경북 지역의 약진이 눈에 띈다. 2009년부터 3개년간 경북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의 평균 증가율은 290%가 넘는다. 이러한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미소2: 신국의 땅, 신라"(248회),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129회)이 대표적이다.

▌그림 14.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횟수 ▐

순위	지역	공연 횟수
1	경북	17.2
2	전북	17.1
3	서울	16.3
4	전남	10.2
5	광주	9.0
6	제주	8.7
7	울산	7.5
8	충북	5.9
9	부산	5.4
10	대전	5.1
11	강원	4.9
12	충남	4.5
13	대구	4.1
14	경남	3.3
15	경기	2.7
16	인천	2.2
-	전국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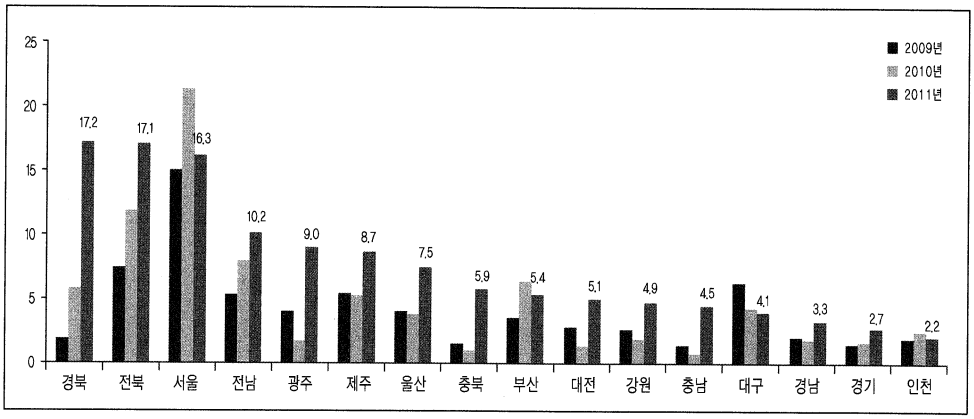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에 있어서 최근 3개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다. 광주, 울산, 충북, 대전, 강원, 충남, 경남, 경기 등 8개 지역은 2010년 감소했다가 2011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은 이와 반대로 2010년 증가했다가 2011년에 감소를 보인다. 대구 지역은 유일하게 2009년 이래로 매해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4.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경북	전북	서울	전남	광주	제주	울산	충북
2009년	2.0	7.5	15.1	5.3	4.1	5.5	4.1	1.6
2010년	5.9	11.8	21.3	8.0	1.8	5.5	3.8	1.0
2011년	17.2	17.1	16.3	10.2	9.0	8.7	7.5	5.9
연도	부산	대전	강원	충남	대구	경남	경기	인천
2009년	3.6	2.8	2.7	1.5	6.3	2.2	1.5	1.9
2010년	6.4	1.4	2.0	0.8	4.3	2.0	1.7	2.6
2011년	5.4	5.1	4.9	4.5	4.1	3.3	2.7	2.2

▌그림 15.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국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11. 16개 시도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악 세부 분야별 비중

지역마다 국악 공연이 세부 분야별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 보기 위해 16개 시도별로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폈다. 이때 기준은 공연 횟수보다는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혼합, 연희, 복합의 비중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지역 간 차이에 혼입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히 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 기준으로도 함께 참고할 필요는 있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그 다음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혼합의 비중이 33.7%로 가장 높다. 전년도의 36.8%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다른 장르와의 차이는 여전히 큰 편이다. 기악(24.6%), 복합(14.1%), 성악(13.9%), 연희(12.7%) 순의 분포가 나타난다. 전년도인 2010년에는 기악(20.3%), 연희(13.8%), 복합(11.5%), 성악(9.0%)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성악 분야의 비중 상승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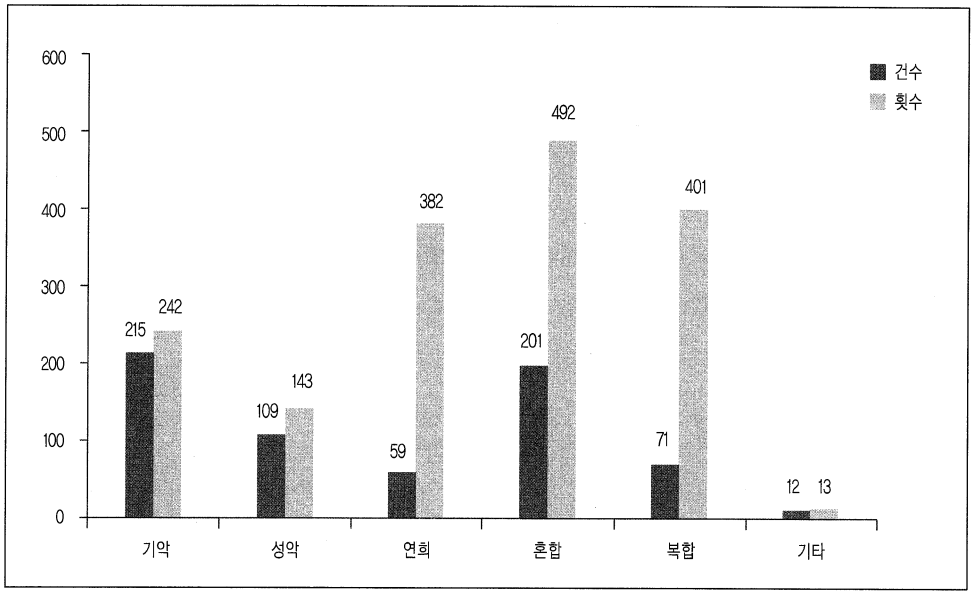
표 15. 지역별로 살펴본 국악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지역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215	109	59	201	71	12	667
	비율	32.2%	16.3%	8.8%	30.1%	10.6%	1.8%	100%
전북	빈도	68	70	30	70	31	1	270
	비율	25.2%	25.9%	11.1%	25.9%	11.5%	0.4%	100%
전남	빈도	31	9	16	81	26	0	163
	비율	19.0%	5.5%	9.8%	49.7%	16.0%	0.0%	100%
경기	빈도	23	23	24	45	38	3	156
	비율	14.7%	14.7%	15.4%	28.8%	24.4%	1.9%	100%
부산	빈도	54	12	13	47	26	1	153
	비율	35.3%	7.8%	8.5%	30.7%	17.0%	0.7%	100%
광주	빈도	33	25	13	31	18	0	120
	비율	27.5%	20.8%	10.8%	25.8%	15.0%	0.0%	100%
대구	빈도	31	3	4	35	11	2	86
	비율	36.0%	3.5%	4.7%	40.7%	12.8%	2.3%	100%
경북	빈도	14	16	14	25	11	1	81
	비율	17.3%	19.8%	17.3%	30.9%	13.6%	1.2%	100%
충북	빈도	13	4	20	27	13	1	78
	비율	16.7%	5.1%	25.6%	34.6%	16.7%	1.3%	100%
울산	빈도	14	3	14	27	17	1	76
	비율	18.4%	3.9%	18.4%	35.5%	22.4%	1.3%	100%
대전	빈도	6	2	8	55	2	0	73
	비율	8.2%	2.7%	11.0%	75.3%	2.7%	0.0%	100%
경남	빈도	13	7	11	32	8	0	71
	비율	18.3%	9.9%	15.5%	45.1%	11.3%	0.0%	100%
강원	빈도	3	4	12	25	11	1	56
	비율	5.4%	7.1%	21.4%	44.6%	19.6%	1.8%	100%
충남	빈도	6	8	10	16	14	0	54
	비율	11.1%	14.8%	18.5%	29.6%	25.9%	0.0%	100%
인천	빈도	7	6	9	10	10	1	43
	비율	16.3%	14.0%	20.9%	23.3%	23.3%	2.3%	100%
제주	빈도	7	3	20	9	1	0	40
	비율	17.5%	7.5%	50.0%	22.5%	2.5%	0.0%	100%
계	빈도	538	304	277	736	308	24	2,187
	비율	24.6%	13.9%	12.7%	33.7%	14.1%	1.1%	100%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부산·광주의 세 지역은 기악이 다른 세부 분야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서울 32.2%, 부산 35.3%, 광주 27.5%로 대부분의 지역이 혼합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데 비해 기악의 높은 비중이 두드러져 차이가 확연하다.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악 분야의 다양한 세부 장르가 한 무대에 오르는 혼합 분야의 공연보다 기악만의 전문적인 공연 비중이 크다는 것은 보다 성숙한 국악 관객층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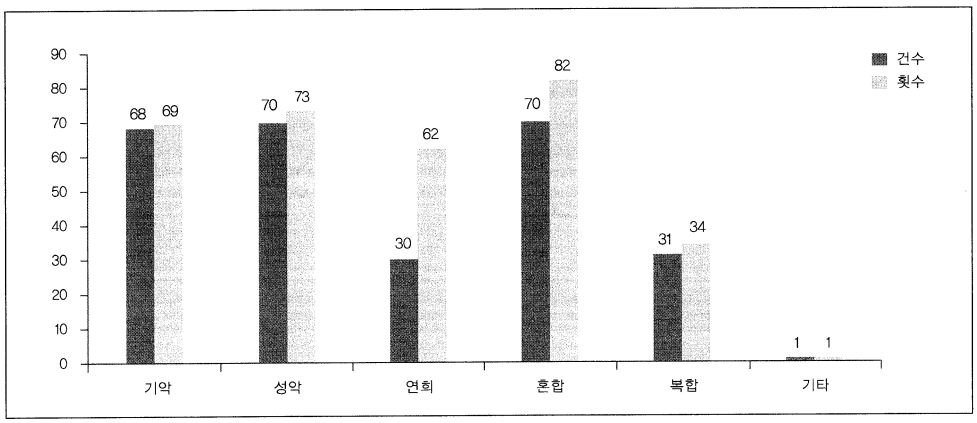
▌그림 16.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기악 중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215	109	59	201	71	12	667
횟수	242	143	382	492	401	13	1,673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고유함이 있다. 기악, 성악, 혼합 형태의 공연이 1/4씩 비교적 고른 비중을 차지하며 전북 지역 내 국악 공연의 3/4을 구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이다. 성악과 혼합이 각기 25.9%, 기악이 2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에서도 연희와 복합 장르가 각기 11.1%, 11.5%로 고르게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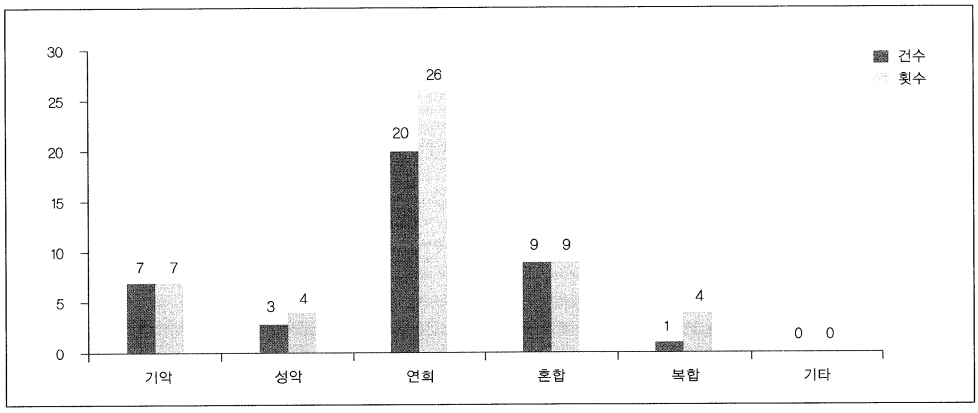
▌그림 17. 전북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68	70	30	70	31	1	270
횟수	69	73	62	82	34	1	321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연희 분야가 50%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물놀이 마로'의 "허튼 굿", '민요패 소리왓'의 "우리 할망넨 영 살았수다 -백년 전 섬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활발한 공연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림 18. 제주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연희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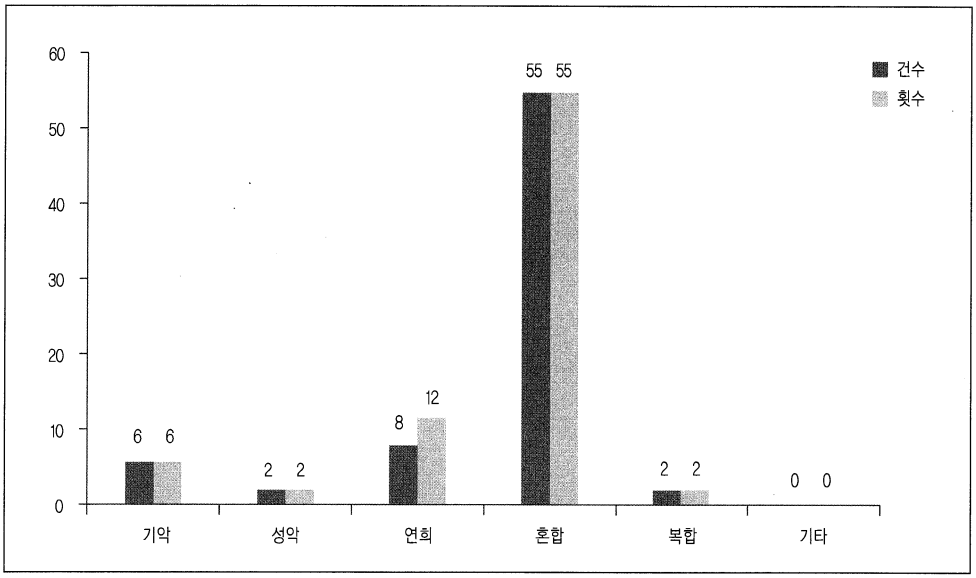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7	3	20	9	1	0	40
횟수	7	4	26	9	4	0	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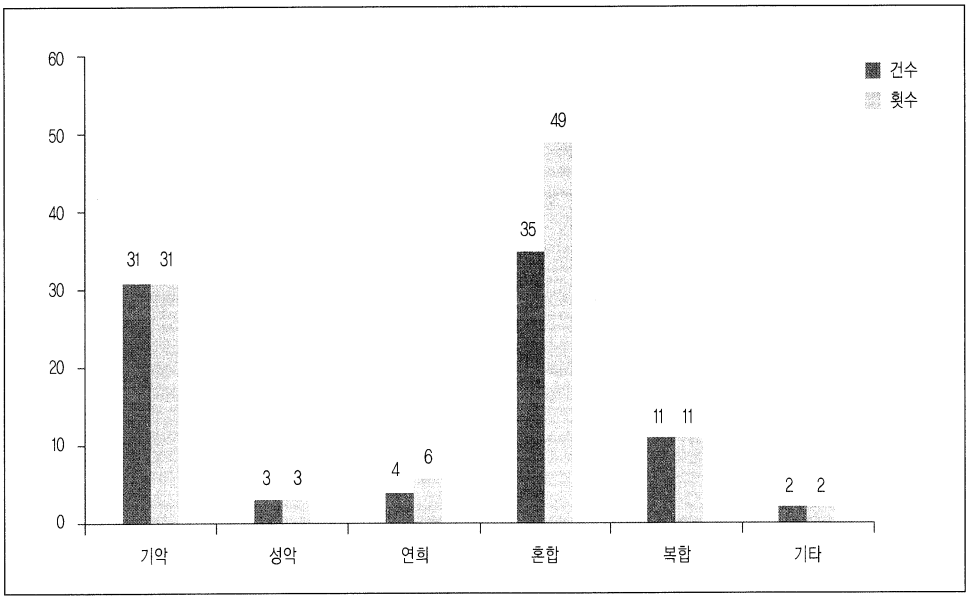
나머지 지역들은 혼합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크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은 혼합 공연의 비중이 75.3%로 매우 높다. 혼합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포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대구, 전남, 경남 등 세 지역은 혼합 분야 다음으로 기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대구 36%, 전남 19%, 경남 18.3%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대구는 앞서 서울·부산·광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충북과 강원은 혼합 분야 다음으로 연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충북 25.6%, 강원 21.4% 수준이다.

▌그림 19. 대전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6	2	8	55	2	0	73
횟수	6	2	12	55	2	0	77

▌그림 20. 대구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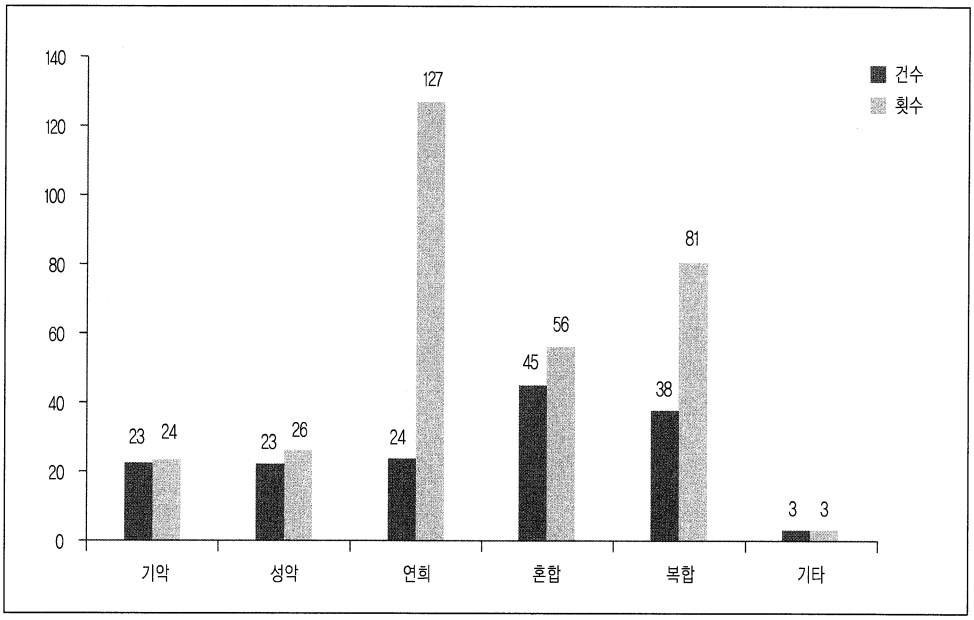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31	3	4	35	11	2	86
횟수	31	3	6	49	11	2	102

경기, 인천, 충남은 혼합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복합 분야의 비율이 혼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거의 대등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인 지역이다. 인천은 혼합과 복합이 23.3%로 동일한 수준이고, 충남은 혼합이 29.6%, 복합이 25.9%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경기(혼합 28.8%, 복합 24.4%)도 마찬가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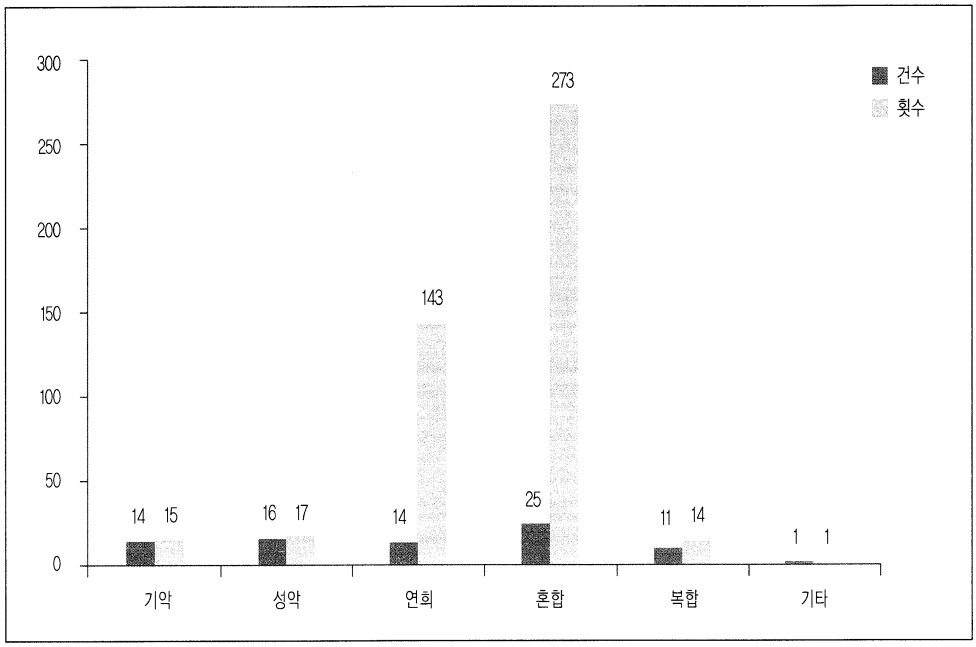
▌그림 21. 경기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혼합, 복합 중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23	23	24	45	38	3	156
횟수	24	26	127	56	81	3	317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있어 최근 3년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북 지역은 혼합이 강세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성악의 비중이 19.8%로 꽤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그림 22. 경북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14	16	14	25	11	1	81
횟수	15	17	143	273	14	1	463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했는지, 해당 지역 국악인의 분포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에서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8.3%였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공연 건수가 아니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더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여전히 3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 장르다. 연희가 22%로 뒤를 잇고, 복합과 기악이 각각 19.1%, 14.2% 순의 분포를 보인다. 전년도에 비해 복합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그만큼 연희의 비중이 높아졌다. 횟수에 있어서 성악의 비중은 8.6%로 전년도의 4.9%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는 성악 장르의 상대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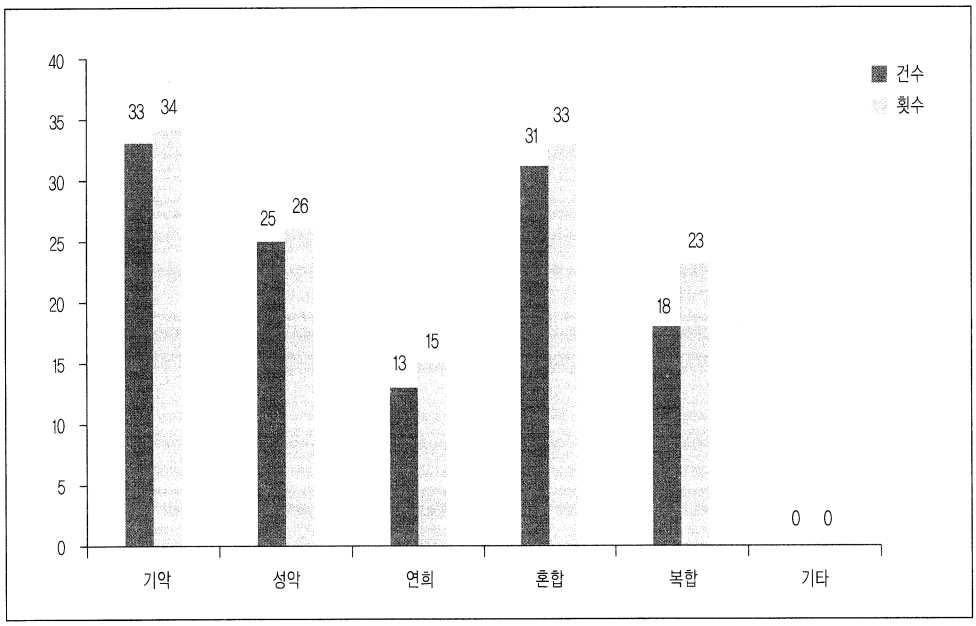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6. 지역별로 살펴본 국악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

지역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242	143	382	492	401	13	1,673
	비율	14.5%	8.5%	22.8%	29.4%	24.0%	0.8%	100%
경북	빈도	15	17	143	273	14	1	463
	비율	3.2%	3.7%	30.9%	59.0%	3.0%	0.2%	100%
전북	빈도	69	73	62	82	34	1	321
	비율	21.5%	22.7%	19.3%	25.5%	10.6%	0.3%	100%
경기	빈도	24	26	127	56	81	3	317
	비율	7.6%	8.2%	40.1%	17.7%	25.6%	0.9%	100%
전남	빈도	31	9	17	85	53	0	195
	비율	15.9%	4.6%	8.7%	43.6%	27.2%	0.0%	100%
부산	빈도	55	12	17	73	32	1	190
	비율	28.9%	6.3%	8.9%	38.4%	16.8%	0.5%	100%
광주	빈도	34	26	15	33	23	0	131
	비율	26.0%	19.8%	11.5%	25.2%	17.6%	0.0%	100%
경남	빈도	14	7	11	63	15	0	110
	비율	12.7%	6.4%	10.0%	57.3%	13.6%	0.0%	100%
대구	빈도	31	3	6	49	11	2	102
	비율	30.4%	2.9%	5.9%	48.0%	10.8%	2.0%	100%
충남	빈도	6	8	10	50	20	0	94
	비율	6.4%	8.5%	10.6%	53.2%	21.3%	0.0%	100%
충북	빈도	14	4	21	27	25	1	92
	비율	15.2%	4.3%	22.8%	29.3%	27.2%	1.1%	100%
울산	빈도	14	3	15	29	22	2	85
	비율	16.5%	3.5%	17.6%	34.1%	25.9%	2.4%	100%
대전	빈도	6	2	12	55	2	0	77
	비율	7.8%	2.6%	15.6%	71.4%	2.6%	0.0%	100%
강원	빈도	3	4	12	32	22	2	75
	비율	4.0%	5.3%	16.0%	42.7%	29.3%	2.7%	100%
인천	빈도	10	6	10	21	13	1	61
	비율	16.4%	9.8%	16.4%	34.4%	21.3%	1.6%	100%
제주	빈도	7	4	26	9	4	0	50
	비율	14.0%	8.0%	52.0%	18.0%	8.0%	0.0%	100%
계	빈도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비율	14.2%	8.6%	22.0%	35.4%	19.1%	0.7%	100%

서울, 부산, 광주는 공연 건수에 있어서 기악의 비중이 컸던 지역이었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양상이 사뭇 달라진다. 서울은 혼합(29.4%), 복합(24%), 연희(22.8%)가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포를 보인다. 광주는 공연 건수에 이어 공연 횟수에서도 유일하게 기악의 비중이 26%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혼합 25.2%, 성악 19.8%, 복합 17.6%, 연희 11.5% 순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23. 광주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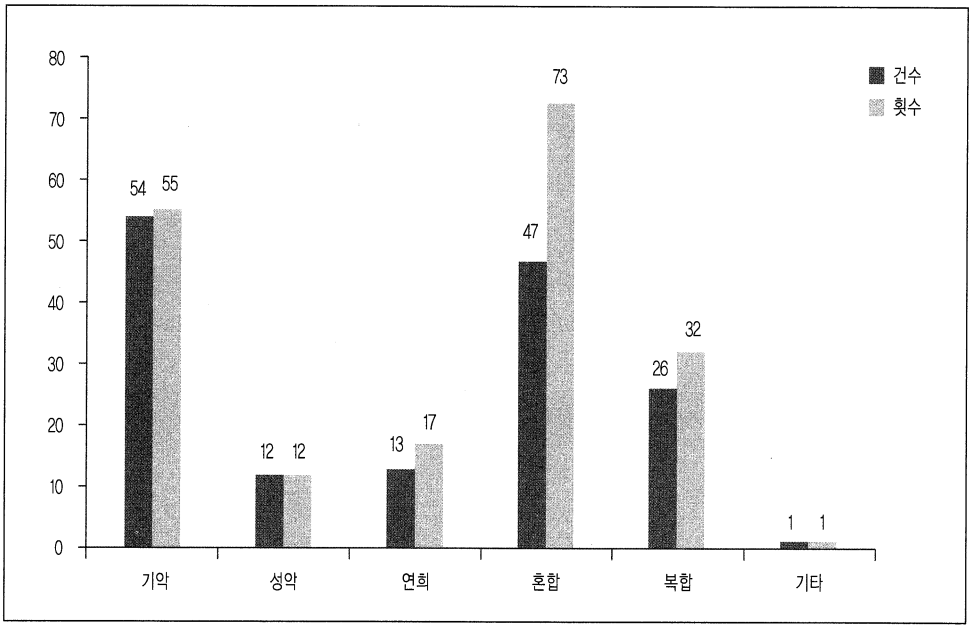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33	25	13	31	18	0	120
횟수	34	26	15	33	23	0	131

38.4%를 차지하는 혼합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 또한 공연 횟수에서도 기악의 비중은 28.9%로 여전히 큰 편이다. 다음으로는 복합이 16.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중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각 세부 장르별로 1개 공연당 평균 공연 횟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부산 지역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혼합 분야는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기악보다 낮은 비중이었지만, 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높기 때문에 공연 횟수상에서는 큰 차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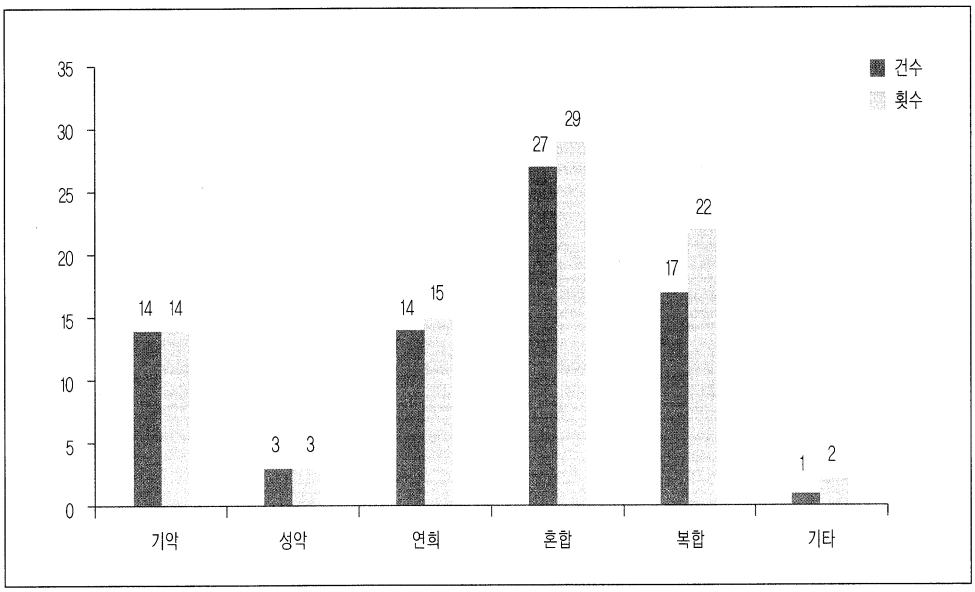
▌그림 24. 부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54	12	13	47	26	1	153
횟수	55	12	17	73	32	1	190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혼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복합 분야의 비중이 그 뒤를 잇는 분포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경우가 울산 지역이다. 공연 횟수에 있어 혼합의 비중이 34.1%로 가장 크고, 복합이 25.9%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인다.

▌그림 25. 울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14	3	14	27	17	1	76
횟수	14	3	15	29	22	2	85

12. 전 세부 분야에서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상으로 우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별 분석에서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다소 앞선다. 하지만,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전년도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년도의 경우 연희와 혼합에서만 비수도권이 우세했다. 연희와 혼합에서의 많은 차이가 전체적으로 비수도권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특히 혼합 장르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장르를 제외한 전 세부 분야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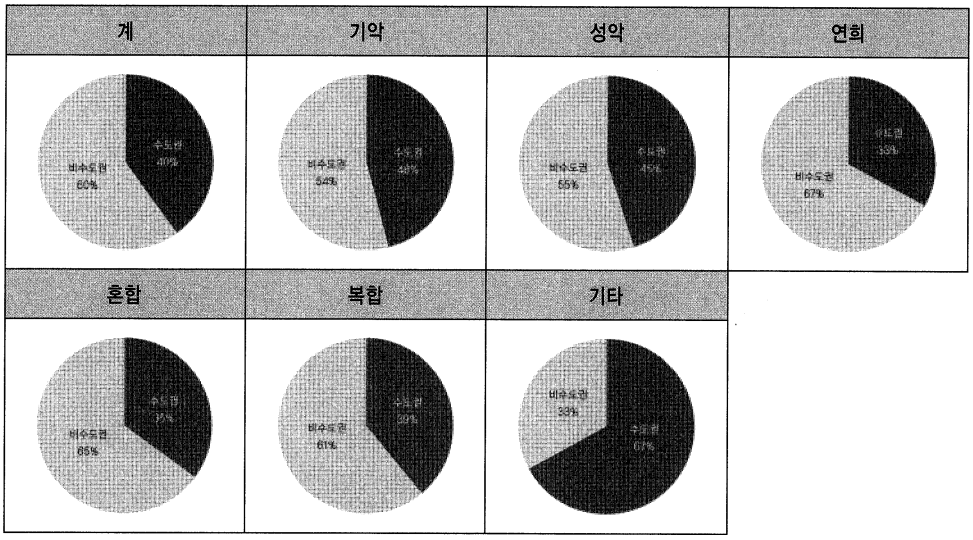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건수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수도권	245	138	92	255	119	16	865
	비수도권	293	166	185	481	189	8	1,322
	계	538	304	277	736	308	24	2,187

비수도권이 앞서는 정도에 있어서는 세부 분야별 차이가 있다. 기악, 성악에서보다 연희, 혼합, 복합 분야에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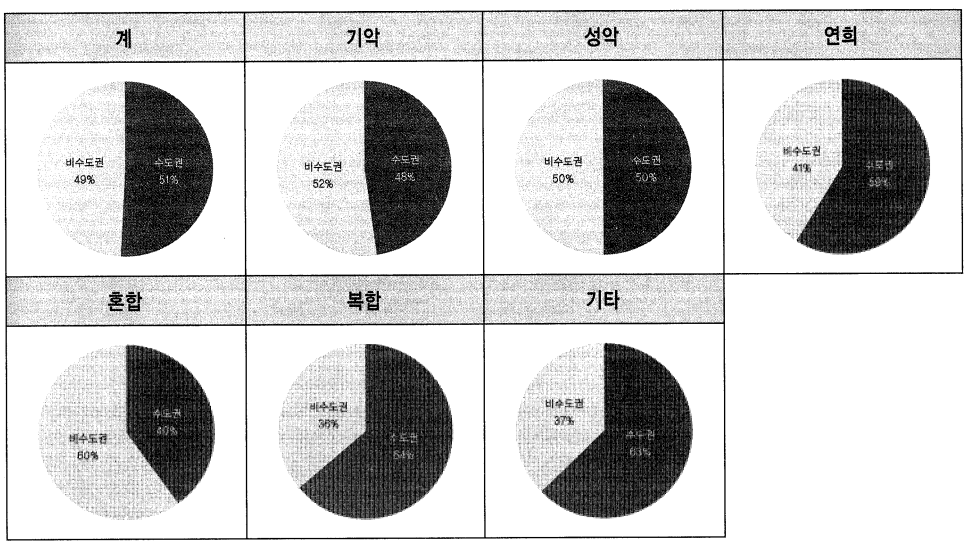
공연 횟수의 양상은 공연 건수의 양상과 조금 다르다. 공연 횟수에 있어서 수도권은 연희와 복합이, 비수도권은 혼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연희, 복합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차이로 수도권이 우세하고, 성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비수도권이 공연 횟수상에서 우세한 세부 분야는 혼합과 기악인데,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 혼합에 비해 기악에서는 차이가 그리 크진 않다.

▌표 1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수도권	276	175	519	568	495	17	2,050
	비수도권	299	172	367	861	277	10	1,986
	계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기악과 성악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거의 비슷한 것에 반해 연희와 복합에서는 수도권의 우세가, 혼합에서는 비수도권의 우세가 뚜렷하다. 연희와 복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두 세부 장르가 1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에 있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혼합에서 비수도권의 뚜렷한 우세는 공연 건수의 높은 비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림 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국악 공연 건수 분포 ▐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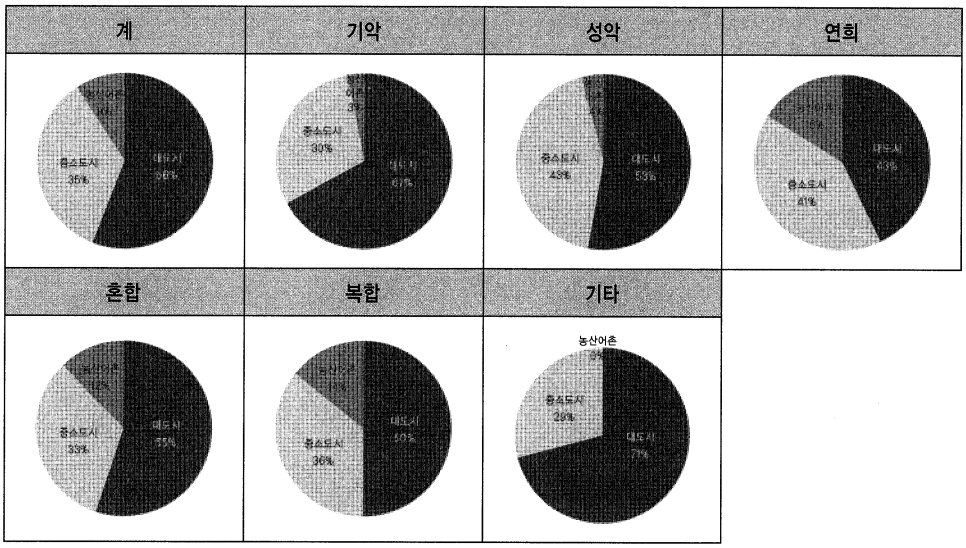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표 1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대도시	360	160	120	406	155	17	1,218
	중소도시	161	131	113	243	111	7	766
	농산어촌	17	13	44	87	42	0	203
	계	538	304	277	736	308	24	2,187

▌그림 28.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 비율 ▌



위의 표와 그림은 거의 대부분의 장르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살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점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어쩔 수 없이 잠재 관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에는 세부 장르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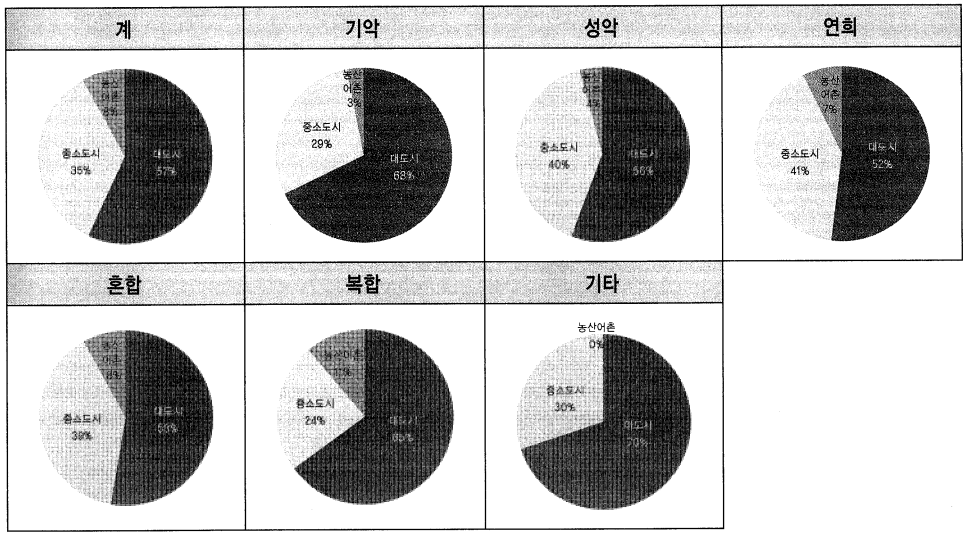
기악은 국악의 세부 장르 중에서도 가장 대도시 중심적인 장르로 보인다. 연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공연 건수상 큰 차이가 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국악 장르다.

전년도의 자료와 함께 고려하자면 혼합은 농산어촌, 연희는 중소도시, 기악은 대도시에 집중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혼합 분야는 농산어촌의 비중이 유일하게 10%대를 넘는 장르다.

▌표 2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

구분		기악	성악	연희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대도시	392	195	457	752	504	19	2,319
	중소도시	165	139	364	555	183	8	1,414
	농산어촌	18	13	65	122	85	0	303
	계	575	347	886	1,429	772	27	4,036

▌그림 2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비율 ▐



공연 횟수에서는 공연 건수에서 나타난 양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도는 연희, 혼합, 복합 등 1개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더 심해진다.

13. 기악 공연은 하반기, 복합 공연은 상반기에 집중

세부 장르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두 개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상대적으로 더 짙은 색은 공연 건수가 정점을 보이는 시점이다. 공연 건수의 경우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장르의 공연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형태를 보인다. 전년도에는 복합 분야를 제외하고는 5~6월에 상반기 정점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반기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성악, 연희, 복합은 기악이나 혼합에 비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덜하다. 비교적 연중 일정하게 분포한다.

국악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완만한 형태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표 21.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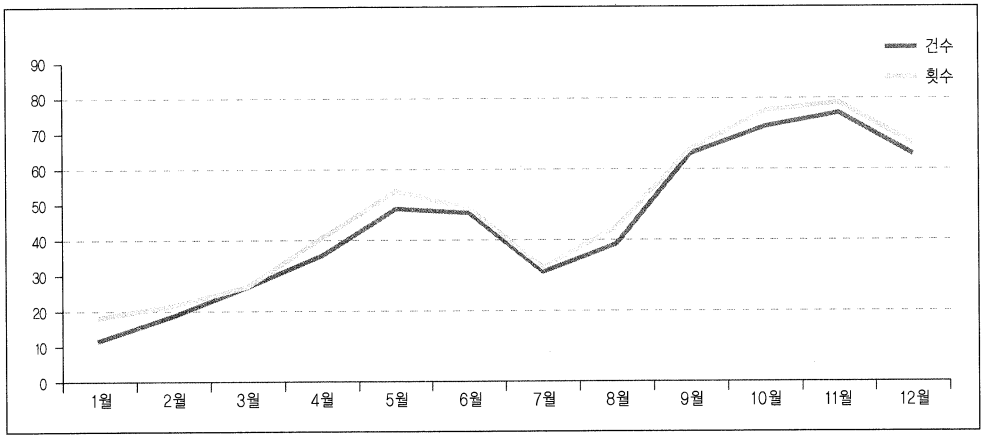
장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악	12	19	27	36	49	48	31	39	65	72	76	64	538
성악	10	7	30	22	29	26	14	16	35	50	33	32	304
연희	3	11	6	22	23	20	19	41	30	38	37	26	276
혼합	29	27	42	40	82	65	79	61	90	67	89	65	736
복합	9	9	12	20	30	32	33	28	33	32	33	37	308
기타	0	0	1	4	5	4	1	0	3	1	1	4	24
계	63	73	118	144	218	195	177	185	256	260	269	228	2,186

▌표 22. 국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

장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악	18	22	27	41	54	49	32	44	66	76	79	67	575
성악	10	8	31	24	30	34	14	17	43	68	36	32	347
연희	5	15	167	125	60	22	26	46	37	49	42	31	625
혼합	49	30	116	153	103	79	347	65	244	73	102	68	1,429
복합	94	13	19	212	44	51	64	59	47	46	67	56	772
기타	0	0	1	4	6	4	1	0	4	2	1	4	27
계	176	88	361	559	297	239	484	231	441	314	327	258	3,775

기악과 성악 장르는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M자형 곡선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으며 9~11월에 공연이 집중된다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듯 그려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림 30. 기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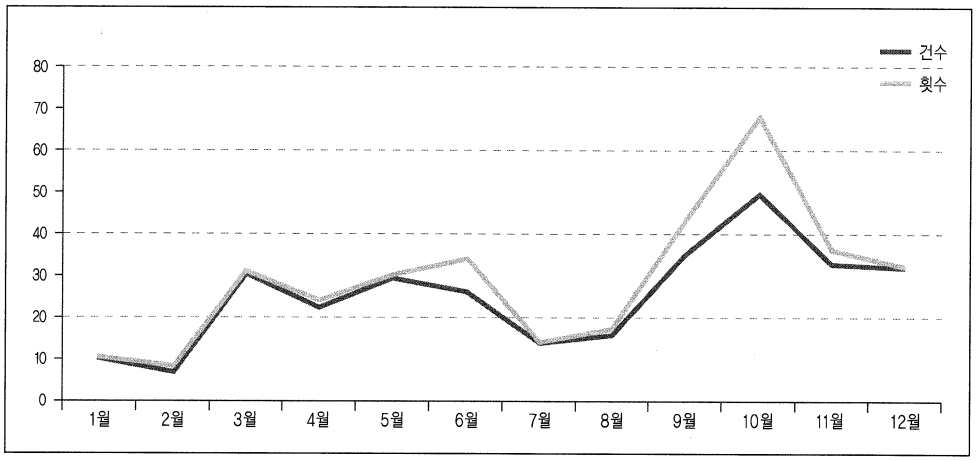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12	19	27	36	49	48	31	39	65	72	76	64	538
공연 횟수	18	22	27	41	54	49	32	44	66	76	79	67	57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성악 분야에서는 6월과 10월에 공연 건수의 그래프와 공연 횟수의 그래프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국악 분야의 성악 영역에서 축제 등과 같은 행사의 개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림 31. 성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10	7	30	22	29	26	14	16	35	50	33	32	304
공연 횟수	10	8	31	24	30	34	14	17	43	68	36	32	347

이에 비해 연희는 공연 건수에 있어서만 아주 완만한 M자형 패턴이 나타나며,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간의 차이가 시기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M자형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은 공연 시작월별로 공연 건수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공연 횟수는 시기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해서, 특히 2~5월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에 연중 지속되는 공연일정을 시작하는 공연이 많아, 그 공연 횟수가 모두 해당 월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해 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림 32. 연희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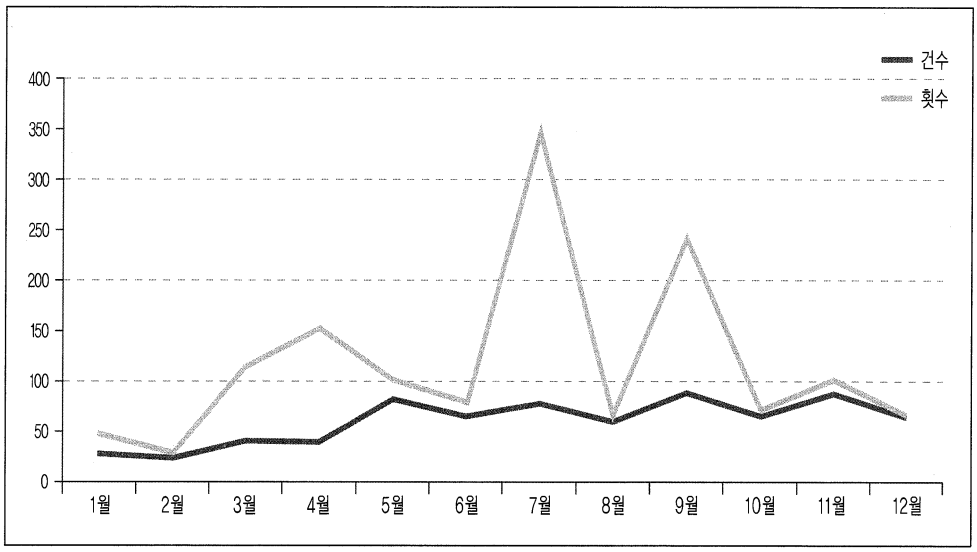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3	11	6	22	23	20	19	41	30	38	37	26	276
공연 횟수	5	15	167	125	60	22	26	46	37	49	42	31	625

2009년까지 공연 건수의 분포에서 M자형 분포를 보이지 않았던 혼합 분야는 전년도인 2010년에 완만한 M자형 분포를 보였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다시 2009년 이전처럼 M자 형태가 사라져 있다. 5월, 7월, 9월, 11월에 80건 안팎의 정점을 보이는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간격은 3~4월, 7월, 9월에 폭이 가장 크다. 특히 7월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또한 혼합 분야 공연 중 연중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이 7월에 많이 분포해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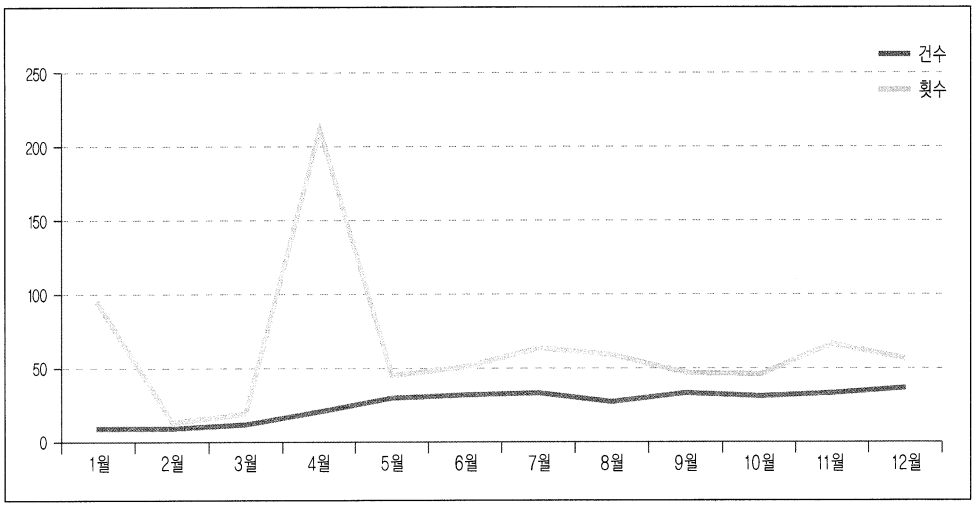
▌그림 33.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29	27	42	40	82	65	79	61	90	67	89	65	736
공연 횟수	49	30	116	153	103	79	347	65	244	73	102	68	1,429

전년도에 이어 복합 분야의 공연은 국악 내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고유한 시기 분포를 보인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모두 M자형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물론, 공연 건수에서는 3월 이후 큰 오르내림 없이 희미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름과 겨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그림 34. 복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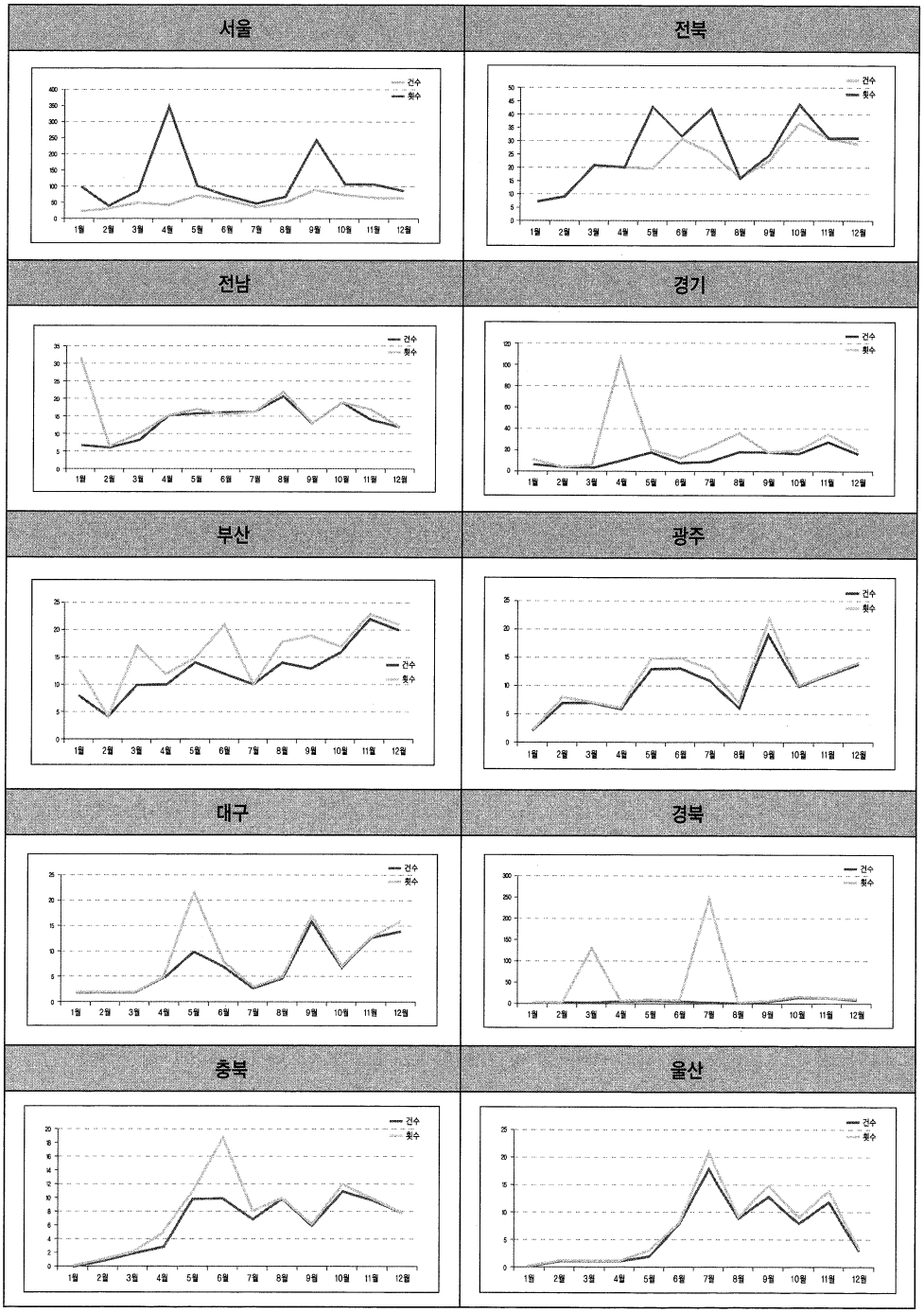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9	9	12	20	30	32	33	28	33	32	33	37	308
공연 횟수	94	13	19	212	44	51	64	59	47	46	67	56	772

14. 16개 시도의 월별 공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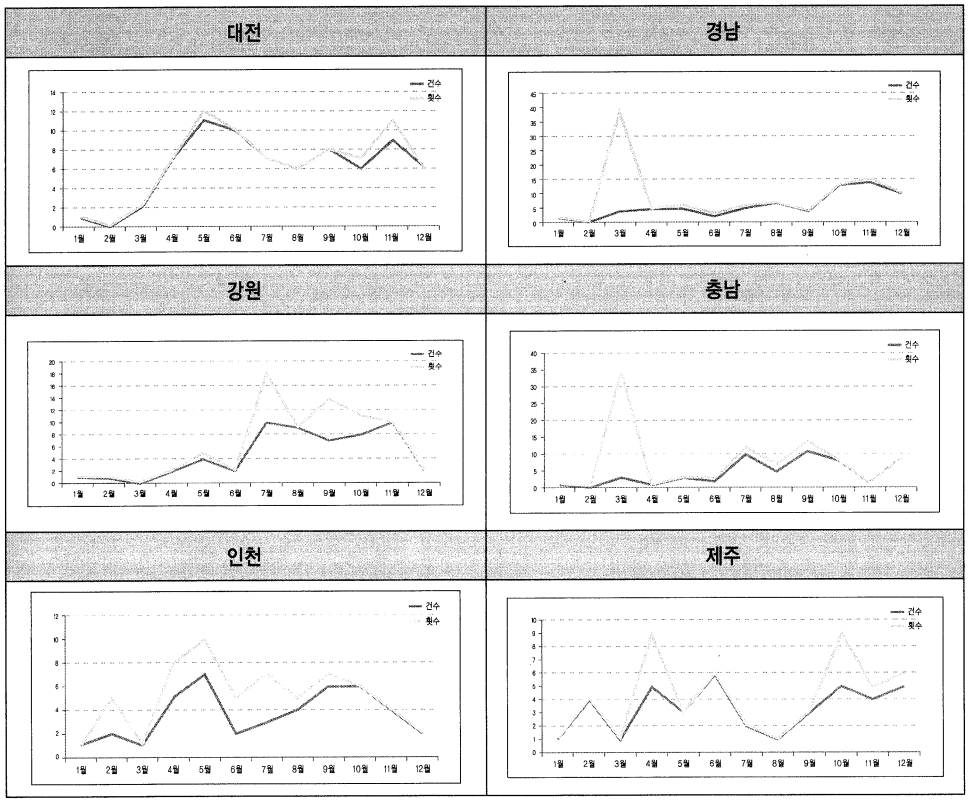
서울·인천·대전·전북·광주·대구·제주 등 7개 지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름에 감소했다가 가을부터 상승해 10~11월 중 정점을 보이고 감소하는 형태의 M자형 분포가 나타난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어린이·청소년, 가족을 주 관람층으로 한 국악 공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증가와 감소의 격차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부산·경기·경남·충남 등 4개 지역은 연말로 갈수록 공연 양이 점증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전남 지역은 연중 거의 일정한 형태의 공연 양을 나타내는 반면, 경북 지역은 축제를 중심으로 한 특정 시점에 대부분의 공연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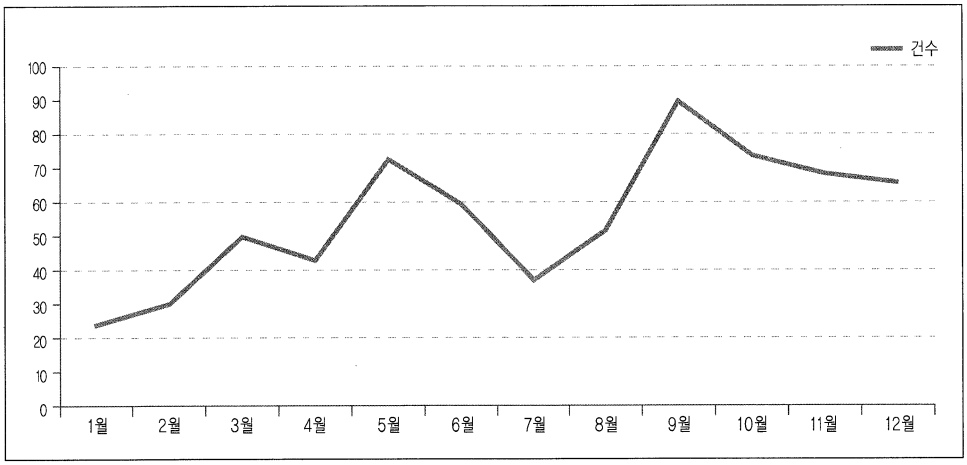
그림 35. 16개 시도 국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그림 35.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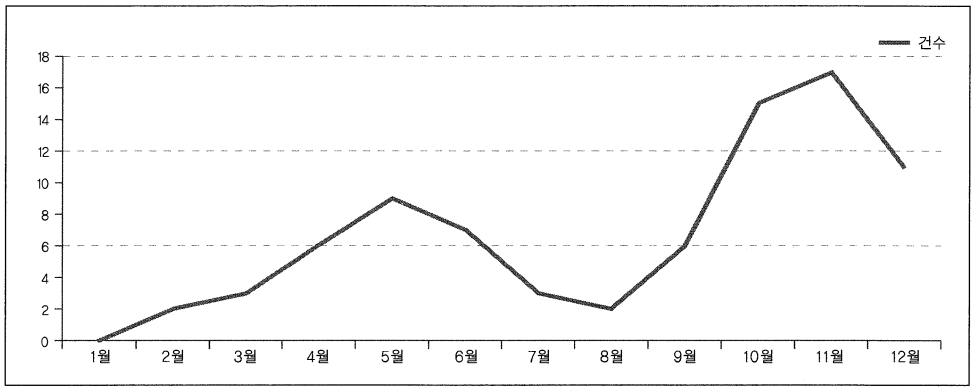


▌그림 36. 서울 국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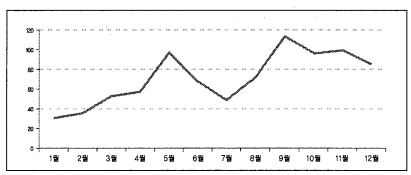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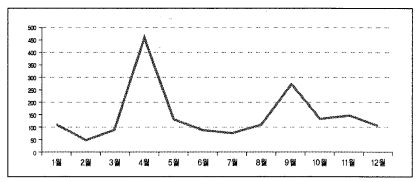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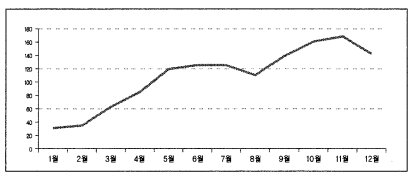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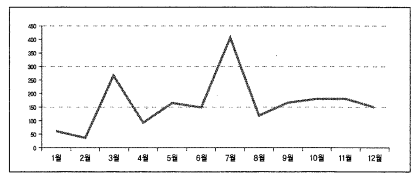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37. 경북 국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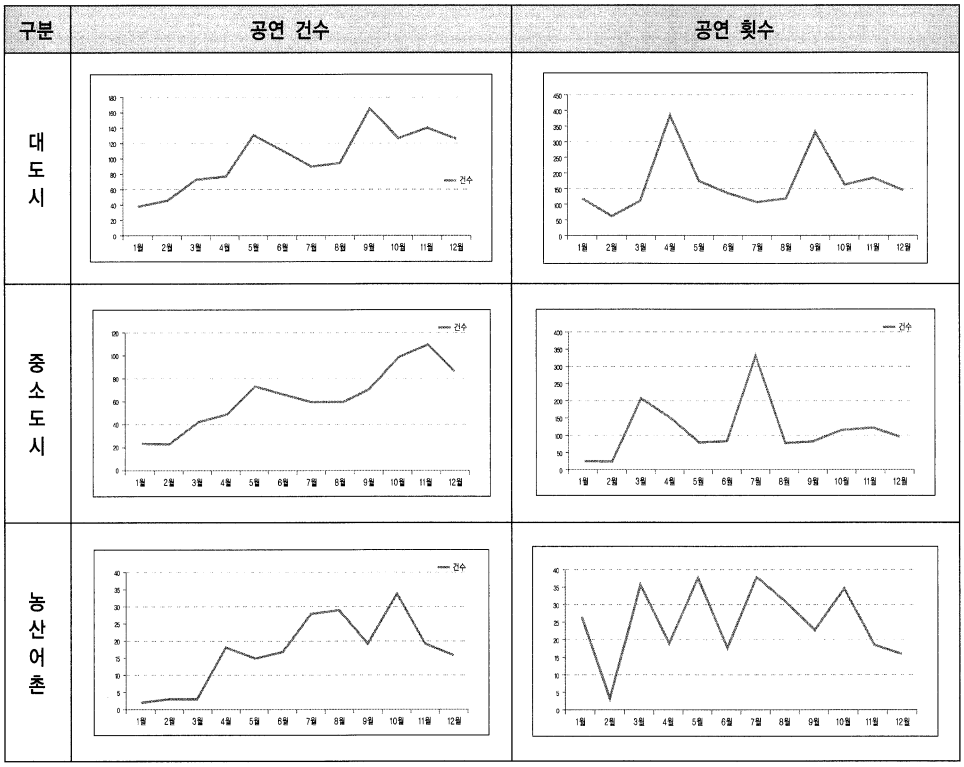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유형화해서 공연 건수를 살피면, M자형 분포는 모두 나타나지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이 다소 뚜렷하다면, 비수도권은 완만한 모습이다. 이는 전년도에서 보였던 패턴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전년도에는 수도권의 경우 완만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났었다. 이는 2011년도 국악 공연에서 비수도권의 공연 양 증가와 연계된 현상으로 보인다. 공연 횟수에 있어서 연간 공연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는 상반기에, 비수도권의 경우엔 7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는 연중 지속되는 공연의 시작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다.

▌그림 38.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구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건수를 비교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보이는 M자형 분포가 농산어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농산어촌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공연 양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공연이 반영된 대도시의 경우 상반기에 왜곡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며,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은 특정 시점에 공연이 집중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농산어촌의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더 다양한 시점에 공연이 집중되는데, 공연 양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 등 다회 공연이 특정시점에 개최되면 그 시점이 돌출되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국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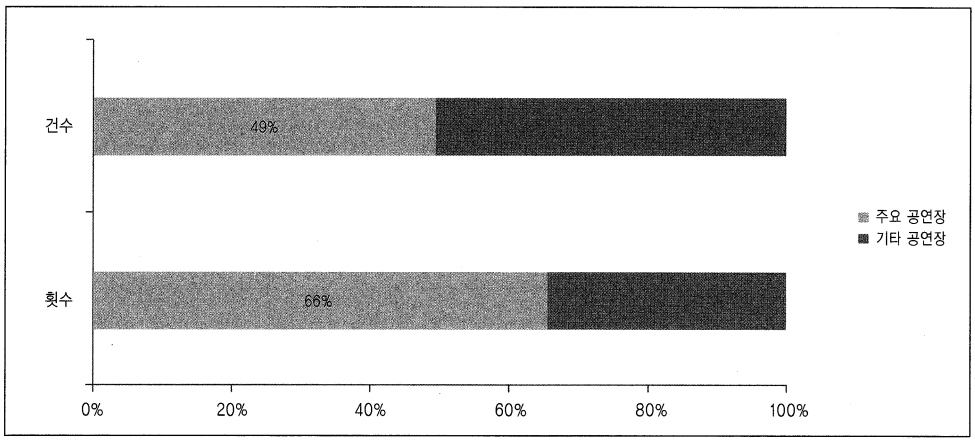
15. 전국 주요 28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49.5%, 공연 횟수 70% 차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국악 공연이 3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28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23개에 비해 5개 공연장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전주, 남원)과 전남(목포, 진도)이 각각 3개, 부산, 광주가 각각 2개, 나머지 지역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28개 공연장이 전체 국악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에 이어 매우 크다. 공연 건수 기준 49.5%, 공연 횟수 기준 70%에 달한다. 전년도 23개 공연장이 차지한 비중이 공연 건수에서 58%, 공연 횟수에서 74%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 있어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28개 공연장 중 상위 50%에 속하는 14개 공연장으로의 집중 현상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그림 40. 전체 국악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주요 14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의 202건보다 158%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립국악원이 320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다음은 국립극장(83건), 국립부산국악원(72건), 서울남산국악당(68건)이 뒤를 잇고 있다. 국립부산국악원과 서울남산국악당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공연 건수가 감소했다.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국립국악원이 352회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전년도

에 369회로 가장 활발히 국악 공연을 무대에 올렸던 서울남산국악당은 올해도 323회로 높은 공연 횟수를 나타냈으나, 국립국악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다음은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261회), 경주엑스포문화센터(248회), 국립극장(164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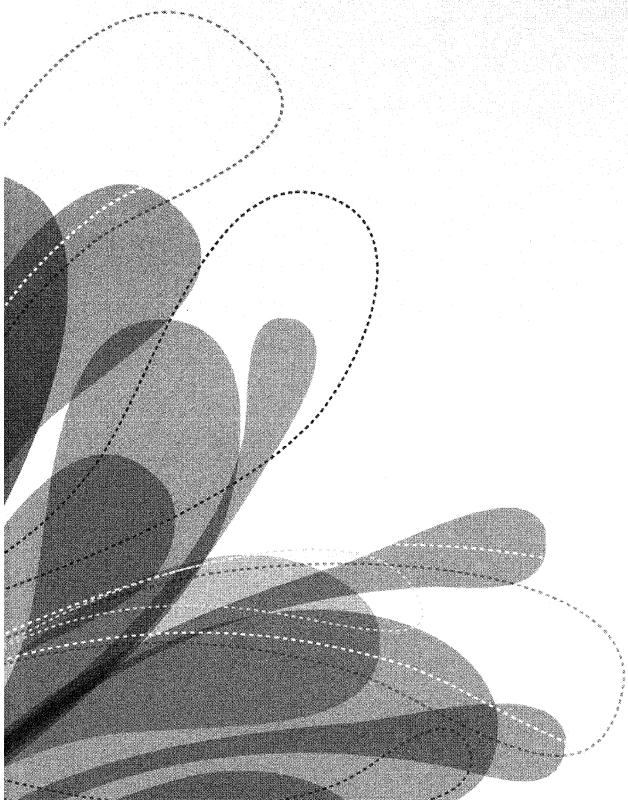
표 23. 연간 30회 이상 국악 공연이 열리는 주요 28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국립국악원	320	352
서울남산국악당	68	323
전통연희상설극장	1	261
경주엑스포문화센터	1	248
국립극장	83	164
하회마을	1	129
소리아트홀	1	120
국립부산국악원	72	103
안성마춤랜드공연장	1	97
삼청각	22	8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71	76
대구문화예술회관	47	61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58	58
한양레퍼토리극장	1	55
빛고을국악전수관	45	45
국립남도국악원	19	45
국립민속국악원	40	44
문화공간엘림홀	1	40
광주문화예술회관	34	39
전주전통문화관	36	36
진도향토문화회관	35	35
대전문화예술의전당	31	35
가곡전수관	6	35
국악의전당	2	35
한전아트센터	2	33
부산문화회관	31	32
세종문화회관	29	32
제주문예회관	23	32
계	1,081	2,6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양 악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양 악 | 총 론

2011년, 성장통 속에 세계로 나아가는 음악계

황 성 호(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Ⅰ. 머리말

최근 우리 음악계는 질과 양 모두 급성장하고 있다. 양적 성장은 무엇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문화향수 열망, 그리고 그에 부응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난 여가는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했으며 자발적인 음악활동도 활성화시켰다. 이는 비단 대도시만의 경우가 아니다. 군소 도시와 시, 군단위의 공연/문화체험 기회도 지속 제공되어 지방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도 미약하나마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횟수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서울 34.6, 부산 20, 대구 19.7, 인천 4.2회임에 반해 도 단위의 경우 전북 20.5, 경남 11.6, 경북 10.5, 강원 14, 제주 31.8, 전남 7.5, 충남 6.1, 충북 5.8회였다. 10회 미만의 전남과 충청권처럼 대도시와 차가 큰 경우도 있지만 전북, 강원도, 제주도처럼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와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이는 대관령국제음악제와 제주국제관악제 등 대형 국제음악제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 3위의 도시 규모, 인천의 4.2회는 아무리 지역적 한계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외적 규모가 커지면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2011년은 음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사회에 본격 제기된 해였다. 간간이 일부 학교에 대해 국회에서 거론되던 예술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부실대학 지정의 한 근거로서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 근거의 타당성과 문제의 책임이 과연 교육기관에게만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예술대학과 학생 수는 월등 많아서 그것이

전체 청년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 음악 취업시장의 한정된 수요로 볼 때, 대책 없는 인력 공급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결국 청년실업률을 높일 것은 예상된 일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 등의 제도를 통해 이들을 비록 작지만, 기업 조직화하려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하며 이들의 생존환경은 척박하다. 이러한 중에 정부의 음대 취업률 논란은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학교에게만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것이었다. 이 와중에 재미있는 사실은 실업문제를 당사자인 예술가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실학교를 거론하면서 제기하고 그 해법을 학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책이 없을 경우 난제인 유휴 음악인 문제는 사실 우리의 큰 문화잠재력이기도 하다. 예술적이든, 산업적이든 그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일이 정부 및 유관 기관, 학교, 그리고 기업 등의 책무다. 2011년은 이를 본격적으로 인식한 해였다.

2010년 상임지휘자 임명에 단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 법인화 문제로 심화되면서 초유의 연주 거부, 중단이라는 최악의 파행 상태에 이른 KBS 교향악단 사태도 단순히 한 조직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것이 지닌 의미가 크다. 또한 한 지휘자에 대한 지나친 대우에 관한 논란 역시 한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선, 우리 음악계의 질과 규모, 사회적 요구의 급성장에 따른 과도기적 충돌이었다고 본다. 즉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운영 태도로 맞은, 예고된 갈등이었다. 우리 음악계가 정치, 사회, 개인적 인간관계로 처리, 운영되는 단계에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다.

II.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서

작금의 한류 현상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님을, 즉 동북아시아의 지역 문화를 넘어 세계화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고유의 것이 세계화한 태권도나 사물놀이와 달리, 서양문화의 우리식 수용,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K-Pop 한류는 더 이상 서구문화의 아류가 아닌, 성공한 세계 대중문화의 한 유형화한, 진일보한 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K-Pop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특히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악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연주만이 아니라 실내악 및 교향악 연주, 작곡 등 전 방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선 성과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 속속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1년은 이러한 증거로 풍성했던 특별한 해였다. 많은 증거 중 우리 젊은이들의 『제14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의 대거 입상, 즉 박종민, 서선영(성악 부문 1위), 손열음, 조성진(피아노 부문 2, 3위), 이지혜(바이올린 부문 3위) 등 5명의 수상은 단연 쾌거였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비롯한 세계적인 콩쿠르에 대거 입상하는 등 한 국가의 젊은 연주자들이 국제 클래식 음악계에서 성취하고 있는 대대적 성공은 세계 음악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벨기에의 공영방송 RTBF의 음악 고문 티에리 로로(53) 씨는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차 예선 진출자 중 한국인이 23.7%였고 이 중 4명이 결선에, 2010년엔 1차 진출자의 29%가 한국인이었고 5명이 결선에 진출했다고 한다(총 12명의 결선 진출자 중 절반 가까운). 2년마다 열리는 작곡 부문에선 2009년, 2010년 연속 2회 한국인이 우승했고(이 글을 쓰고 있는 2012년 우승자도 우리 작곡가다), 3년마다 열리는 성악 부문에선 소프라노 홍혜란이 동양인 최초로 우승했다. 매년 또는 2,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주요 국제 클래식 콩쿠르 50여 개의 지난 수십 년간 예/결선 진출자와 분야별 우승자의 국적을 조사한 로로 씨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전엔 세계 주요 콩쿠르의 결선 진출 한국인은 극소수였는데 2009년엔 51명이 결선에 진출, 이 중 8명이 우승했다. 1998년부터 14년 동안 모두 378명이 결선에 진출했고 60명이 1등을 차지하여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뤄진 경이로운 변화였다.

오케스트라 활동 역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주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은 해였다.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등 최고의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한 『에든버러 국제축제』를 비롯 『암스테르담 로베코 서머 시리즈』, 『그라페넥 축제』, 『브레멘 음악제』 등 유수의 유럽 음악제에 초대받은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교향악단(이후 서울시향), 2011 유럽투어도 우리의 음악 역량을 잘 보여준 쾌거였다. 메시앙의 <잊혀진 제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 진은숙의 <생황 협주곡> 등을 연주, 현지 언론과 비평가들의 좋은 평을 받았다. 서울시향의 잠재력을 보여준 또 다른 쾌거는 '도이치 그라모폰(DG)'과의 장기 레코딩 발매 계약 체결이다. 이로써 서울시향은 DG 레이블로 <말러 교향곡 1번>, <2번> 등 매해 2매씩 총 10매의 CD를 발매하게 된다. 물론 아시아 오케스트라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Ⅲ. 청중과 레퍼토리의 변화

방송계의 각종 음악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합창과 오페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과거의 감상 단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기악 체험 열망은 기타, 색소폰, 클라리넷, 심지어 아코디언에 이르기까지 악기 판매를 신장시켰다. 악기 동호인 모임도 활성화하여 이들의 연주회도 점증하고 있다. 심지어 순수 아마추어들의 자발적인 오케스트라도 등장하여 매해 정기공연을 갖고 있다. 2003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직장인 오케스트라, 테헤란밸리 오케스트라는 현재 테헤란밸리 주변 직장인들을 포함, 대학교수, 국회, 문화관광부, 전문직 종사자 등 80개 회사 및 공공기관 소속 등 3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7년에 창단된 서울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도 활발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다. 또한 일부 전문가 같은 아마추어, 프로튜어(proteur)들은 블로그를 통해 기존 음악계 활동에 대한 비평까지 하고 있다. 초보 아마추어든 프로튜어든 능동적인 애호가 층의 대두는 클래식 연주회에 대해 전과 다른 태도로 음악회를 즐기게 해서 렉처 콘서트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연주곡목의 다양화와 전문화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러가 대중음악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말러 열풍이 이어져서 2010년 1, 2, 3, 10번 교향곡에 의한 4차례의 말러 시리즈에 이어 2011년 6차례의 시리즈 음악회를 통해 4번 교향곡에서 9번까지 연주함으로써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의 대장정을 마친 서울시향에 청중들은 열광했다. 대편성 관현악의 매력에 빠진 청중들로 제주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등 전국 여러 오케스트라들도 말러를 연주했으며 브루크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들도 대중의 관심사에 들어왔다. 3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을 연주했고, 10월 내한한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말러와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이틀에 걸쳐 각각 연주했다. 사실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과 레퍼토리 확장에 가장 기여한 것은 서울시향이었다. 서울시향은 매해 새로운 현대 음악들을 소개하는 <아르스 노바 시리즈>를 통해 청중들의 귀를 새롭게 했다. 4월 아르스 노바 음악회(세종체임버홀)에서는 과거 작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내악 작품들과 더불어 관현악 연주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진은숙의 <첼로 협주곡> 등을 소개했다. <아르스 노바 시리즈>는 최신의 현대음악만을 선정, 제공하는 매우 낯선 음악회임에도 전 석 매진되는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운 음악에 대한 청중의 욕구와 아르스 노바라면 이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라는 청중의 신뢰 때문이리라.

사이먼 래틀(베를린필하모닉), 유리 시모노프(모스크바필하모닉), 다니엘 바렌보임(시드니심포니), 유리 테미르카노프(상트페테르부르크필하모닉), 안드레이 브라베츠(프라하필하모니), 파보 예르비(파리교향악단) 등 유명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연이은 내한은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특히 베를린필하모닉의 말러와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의 감동과 호소가와 토시오 호른협주곡 <꽃 피는 순간>의 세밀한 음화(音畵)는 기억에 오래 남았다.

다른 어느 해보다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잦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공연들 대부분에 대기업들의 협찬 비중이 큰 것은 문제였다. 인사치레용의 높은 티켓 값 책정은 차치하더라도 애호가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표가 매우 적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최 측 입장에서야 안정된 수입원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공연들이 대기업의 홍보 수단화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좋은 음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기업 홍보 전략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술의전당 등 공공 공연장이 기업과 기획사의 전유공간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IV. 주요 음악제

『2011 통영국제음악제』(3.26~4.1)의 새로운 예술감독, 알렉산더 리브라이히는 고 윤이상의 1971년작, <Dimensionen>에서 유래한 주제, 'Moving Dimension(전환)'의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음악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고자 했다. 그리하여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바흐에서 윤이상까지, 시대를 넓게 아울러 관객을 사로잡았다. 하이너 괴벨스의 음악극은 스위스 로잔 현지에서 공수해 온 전위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무대, 영국발 아카펠라 그룹 힐리어드앙상블, 창조적이며 감성을 자극하는 호주 퍼커션 그룹의 <스티브 라이히를 기리며>, 독일의 젊은 현악4중주단 쿠스 콰르텟 음악회, 2007/08 『윤이상 국제음악 콩쿠르』 입상자인 김재영과 윤홍천의 듀오 무대를 비롯 <한국의 작곡가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객을 찾았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의 변모 중 하나는 레지던스 제도의 도입이다. 『2011 통영국제음악제』의 레지

던스 작곡가로는 진은숙과 하이너 괴벨스, 레지던스 아티스트로는 소프라노 서예리와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비가 선정되었다.

『2011 교향악축제』(4.1~20)는 정명훈 지휘의 서울시교향악단의 드뷔시 <라 메르>로 시작되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폐막 연주회까지 모두 18개의 교향악단이 참여, 이인식의 <문경새재>(강남교향악단), 김지향의 <범패승을 위한 콘체르토>(코리안 심포니), 백병동의 <포구>(원주시립교향악단), 이윤국의 말러 서거 100주년을 기린 <Frammento lugubre>(부천필하모닉), 이만방의 <아버지의 노래> 서곡(대전시립교향악단) 등 창작곡과 더불어 고전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연주했다. 또한 7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함으로써 이번 축제는 가히 피아노의 향연이라 불릴 만했다.

8회째를 맞은 『2011 대관령국제음악제』(7.24~8.13)는 음악감독이 정명화, 정경화로 바뀌어 대관령 정상(알펜시아)과 도내 시, 군 일원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올해 주제는 'ILLUMINATION-빛이 되어'로 거장들의 후기 작품들을 집중 소개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 <레퀴엠>이나 슈베르트가 자신의 마지막 해에 작곡한 <C장조 오중주>와 같은 걸작을 비롯해, 멘델스존의 <현악오중주 2번> 등이 주제를 증명했다. 정명화 감독은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압박, 전쟁의 위협, 질병으로 인한 제약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작곡가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라고 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한 그들의 선택은 우리의 감각과 영혼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빛을 비추며 오랫동안 깊은 영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말로 주제 선정의 의의를 밝혔다. 고전만이 아니라 현대작품들도 연주되어 박영희의 <타령>과 <만남>이 비중 있게 소개되었다. 정경화, 리처드 스톨츠만, 토드 필립스 등의 거장과 더불어 성민제(더블베이스), 강주미(바이올린), 신현수(바이올린), 고봉인(첼로), 손열음(피아노), 김태형(피아노) 등 국제적으로 기량이 알려진 젊은 아티스트들도 대거 참여, 총 55회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꾸며졌다.

『2011 제주국제관악제』(8.12~20)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한국·중국·벨기에·프랑스 등 13개국, 36개 팀, 2,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해변공연장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KNUA 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국내 관악단과 더불어 독일의 커밍업 빅밴드, 2005년 네덜란드 세계음악경연대회, 콘서트밴드 부문 우승 팀인 벨기에의 하렐베케보르로이트와 프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랑스의 미라폰 튜바 콰르텟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관악단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2011 대한민국 국제관악제』(8.27~9.4)는 예술의전당과 새빛둥둥섬 미디어아트갤러리 등지에서 열려 <반지의 제왕> 교향곡 작곡가 요한 데 메이와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로 시작되었다. 이번 관악제는 마칭밴드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들도 추진했다. 그리하여 중국인민대학부속중 밴드를 비롯 국내외 유수 마칭밴드들을 초청했으며 1,000여 명 색소폰 연주자들을 모아 연주하는 빅 이벤트도 있었다. 세계관악협회(WASBE) 회장인 오드 테레 리세보를 비롯해 데니스 존슨, 필립 랑글레, 토시오 아키야마 등 세계적 관악 거장들의 렉처 콘서트와 마스터 클래스도 있었다.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Ⅲ』(8.13~28)는 성남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2009년 시작한 이래 매해 화제를 낳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는 연주와 장한나의 경험에 바탕을 둔 해설과 오픈 리허설 등으로 대중들에게 보다 친밀하다. 시애틀심포니, 런던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 리버풀필하모닉, 이스탄불필하모닉, 필라델피아체임버, 코펜하겐필하모닉, 밤베르크심포니 등 여러 세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녀의 경험은 젊은 후배들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유익했다. 정규공연 두 차례와 야외 콘서트를 통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제5번>,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등을 연주했다.

우리나라 국제음악제 중 탄생의 이유와 그간의 음악계에서 차지한 비중으로 볼 때 『2011 제29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10.3~6)의 정체성은 모호했다. 한국음악협회가 국호를 사용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가 시중 허다한 음악제들보다도 못해, 임기응변식의 기획을 보여준다면……. '클래식, 대한민국에서 즐기다'라는 주제로 주최 측은 이 음악제가 기존 클래식 음악축제에서는 보지 못했던, 대중들에게 한 발 다가간 색다른 프로그램,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고 했다. 첫날 공연은 80여 대의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공연'이었다(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일본 연주가 미치노리 분야가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 보테시니의 <엘레지 1번> 및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그리그의 < 페르귄트 모음곡> 등을 편곡, 지휘했다. 10월 4일과 5일은 '테너 박종호 클래식 콘서트'가 열렸다. 왜 테너 박종호에 클래식 콘서트라는 단어를 이어 붙였을까? 그는 온라인상에서 크로스오버 테너라는 별칭을 지닌 교회 찬양가다. 레퍼토리야 어떻든,

어떻게 이 크로스오버 테너가 『2011 제29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에 이틀씩이나 비중 있게, 그리하여 특별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을까? 마지막 공연은 한국과 호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호주 챔버오케스트라 음악회였는데 오히려 전체 프로그램상 이질적이었다. 한국음악협회가 주관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제여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대표 음악제와 대등한 격, 즉 걸맞은 철학과 품격, 그리고 비전을 갖춰야 할 것이다.

10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1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은 클래식은 물론 록 기타 음악까지 포함한 축제로서 국제 콩쿠르도 병행하여 일반인은 물론 기타 전공생들까지도 주목할 축제가 될 것이다. 지방의 많은 국제음악제들이 국내 몇 축제들의 아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음악제는 분명한 구심점을 가짐으로써 특화된 음악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시작된 축제로는 8월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4 Great Hands, PEACE& PIANO FESTIVAL』이 있다. 피아니스트 12인(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김영호, 김대진, 백혜선, 박종훈, 조재혁, 박종화, 임동혁, 손열음, 조성진)으로 꾸며진 피아노만의 축제로 모차르트의 <세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으로 시작, 8일간 임동혁, 백혜선, 조성진 리사이틀과 더불어 리스트, 베토벤의 협주곡과 여러 종류의 피아노 중주들로 꾸며졌다.

V. 오페라

2011년 국립오페라단은 전에 비해 질적으로 뛰어난 기획을 보여주었다. 공연의 수준과 더불어 민간 오페라에 비해 저렴한 티켓 가격과 다양한 할인 시스템을 통해 유료 예매율도 높은 편이다. 국립오페라단의 활동은 2011년 1월 <투란도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 국립오페라단과 중국국가대극원의 합작일 뿐 중국국가대극원의 내한공연이었다.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주 공연작은 <파우스트>, <시몬 보카네그라>, <사랑의 묘약>,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가면무도회>로 비교적 신선하고 다양했다. <파우스트> 공연에서는 국내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는 테너 김우경이 기대를 모았다. 국립오페라단의 빅 이벤트는 서울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정명훈)과의 <시몬 보카네그라> 공연으로 이는 정명훈의 198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오페라 데뷔작이기도 하다. 작년 1월,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로 국립오페라단과 인연을 맺은 정명훈의 지휘는 다른 어느 공연보다도 많은 청중을 불러 모았다. 또한 첫날 급성 위염으로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나중 공연을 통해 진가를 보여준 바리톤 고성현이 인상적이었다. 음모와 암살의 음침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 이룰 수 없는 애틋한 사랑, 오해가 뒤얽히는 극적인 성격의 <가면무도회>는 종합예술로서 오페라가 음악과 더불어 연출, 무대미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오페라는 다른 어느 것보다 정교한 계산이 종합적으로 요구됨에도 오케스트라는 무디고 연출은 애매했으며 무대미술은 산만했다. 죽음을 진부하게 상징한 해골 분장의 무용수, 고문인지 물놀이같이 애매한 물고문 장면, 전 막과 유리된 현대적(?) 무대 디자인 등……. '인물의 내면을 그리는 장치로서 거울'이라 밝힌 멋진 연출 의도조차 극적으로 설득력이 없었다. 오페라에 있어 음악적인 면은 스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오페라단들이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서구 연주자 못지않다.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연출과 미술이라고 생각한다. 음악 외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이 일이야말로 현재 우리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음악에 익숙한 오페라임에도 또 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오페라단은 <토스카>, <잔니 스키키>, <라 트라비아타>를 정기 공연으로 올렸다. <토스카>는 극적인 배경과 내용을 갖고 있어 연출의 여지가 많다. 이것이 음악과 더불어 이 오페라에서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극 진행은 무리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다. 토스카 특유의 어두운 색채 중에서 이를 풀어 주는 위트 넘치는 대사와 이탈리아 특유의 신심 등을 나타냄에 있어 연출은 평범했다. 1막 끝 테데움 장면의 극적 대비, 스카르피아에게 몸을 허락하는 과정, 카바라도시의 죽음을 알고 나서 토스카가 투신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세심한 연출이 필요했다.

스카르피아 역의 고성현은 타고난 듯 보였다. <라 트라비아타>는 오프닝 파티 장면부터 연출의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환락에 탐닉하는 비올레타와 그 손님들의 사회를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족들의 평범한 파티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파티의 주인공, 비올레타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또 처음 만남으로 사랑의 불꽃이 튀

는 장면에서 알프레도는 더 멋진 젊은이로, 듀폴은 질투에 사로잡힌 이로 잘 연출되었어야 했다. 그래야 2막 2장에서 노름 장면의 긴장이 살아났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서울시오페라단의 공연 수준은 일정하지 않았다. 공연에 따라 (아마도 캐스팅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달라 단체의 정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민간오페라단이 할 수 없는 선도적인 역할—음악적 수준은 물론, 새로운 레퍼토리, 새로운 해석의 추구와 시도, 실험이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시오페라단을 비롯한 공공 오페라단의 생명력이기를 바란다.

한국오페라의 발전과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탄생한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6.23~7.24)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과 토월극장에서 펼쳐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 오페라 축제는 80여 개가 넘는 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소속 단체 중에서 선정된 4개의 오페라단의 작품과 국립오페라단 작품이 함께 선보였다. 선정작은 벨리니의 <청교도>(글로리아오페라단), 푸치니의 <토스카>(베세토오페라단), 두 편의 창작 오페라 <논개>(호남오페라단)와 <메밀꽃 필 무렵>(구미오페라단)이며, 국립오페라단이 새롭게 각색한 어린이 오페라 <지크프리트의 검>이 다양한 연령층의 오페라 관객층을 맞았다.

『제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그 바통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주제를 '오페라, 승리의 아리아'로 정했다. 그리하여 개막공연으로 <아이다>(계명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를 올렸으며 해외초청공연으로 <후궁으로부터의 도피>(터키 앙카라국립극장), 창작오페라 <도시연가>(국립오페라단)를 올렸다. 특기할만한 것으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011년을 해외진출 정착의 해로 정해,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극장에서 <나비부인>을 성공적으로 올려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 등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2012년 터키 『아스펜도스 국제오페라축제』에 초청받았다. 이 축제는 국내 행사 중 유일하게 사이트에 그들의 행사 예산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오페라단 중 2009년 창단되어 매회 탄탄한 제작을 보여주는 수지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가 인상적이었다. 최근 오페라는 전공학생이나 특정 관객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폭넓은 관객을 거느린 대중적인 고급문화로 바뀌었다. 공연만 좋다면 예매율도 높아 국립오페라단의 경우 몇 공연을 묶은 패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 예매도 널리 선호되고 있다. SNS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관람 평도 더 이상 좋고 나쁨의 차원이 아니다. 심지어 해외여행 중 본 공연과 비교하는 등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VI. 작곡계

한국작곡가협회의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은 전년과 같이 거의 매달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려 국내 많은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모두 10번의 음악회가 있었는데 매회 주제를 정해 음악의 이해를 도왔다. 5월에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현대음악 콘서트로 꾸며 김지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Play with Hanon> 등이, 9월에는 신인작곡가의 경우, 서유라, 김지현 등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또한 10월에 있었던 8번째 시리즈에서는 세미나 『음악의 극(劇)화에 따른 현대 실내음악극의 실험적인 형태』(연사:한상명)에 이어 <작곡가 5인의 작은 음악극>이 공연되었다. 현대 음악극이 나타낼 수 있는 형태와 표현의 다양한 예술적인 가능성들이 김승림의 <Lemurie>, 김정훈의 <境界 속의 無限直線>, 김지향의 <자장가(Rockaby)>, 신나라의 <아르고호 사람들이 있는 풍경>, 이병무의 <유아적 멜랑콜리>를 통해 시도되었다. 11월의 9번째 시리즈는 <여인, 우정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열려서 박경아, 이복남, 이한신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시리즈의 마지막(12.14)은 원로 작곡가 나인용, 백병동, 윤이상, 윤해중, 이만방, 이영자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1970년대 말 작품부터 최근 신작까지, 또 대표작만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소품까지, 각 작곡가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 창작음악의 발자취를 회고할 수 있었다. 윤이상의 <리나가 정원에서>, 윤해중의 <Sonata for Violoncello>, 이영자의 <무언가>, 나인용의 현악 4중주 <석양(夕陽)>, 백병동의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이만방의 피아노를 위한 <작은 에세이>가 발표되었다.

한국여성작곡가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현대음악제』(3.24~27)를 개최하여 음악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행사를 통해 여성작곡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했다. 총 5회의 음악회를 통하여 다양한 편성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국내외 27명의 한국 작곡가와 국제적 명성의 여류 작곡가 하야 체르노빈, 샤를로테 자이테르, 율리아 푸르기나, 유디트 바르가의 작품을 발표했다. 특히 음악회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레콘실(Reconsil), 독일의 이멕스(E-Mex), 미국의 베타 콜리드(Beta Collide) 등 세 현대음악 앙상블이 초청되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마지막 연주회 『M.A.T.C.H-Music, Art, Theater, Culture, Human…』은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13명의 작곡가가 참여하여 발표한 옴니버스 음악극이었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과 현대음악앙상블 레콘실(Reconsil), 이멕스(E-Mex)가 연주에 참가했다. 참여 작곡가는 김문선, 김천욱, 서은정, 이현주, 김연수, 정현수, 이애련, 이복남, 김광희, 황윤희, 김정욱, 안진아, 조인선이다. 42년 역사의 『2011 범음악제』(10.30~11.3)는 국내 초청 작곡가와 공모에 의한 신인 작곡가, 그리고 일본과 독일 작곡가의 작품이 독일의 기타와 콘트라베이스 연주가, 일본의 익스트림 금관5중주단, 그리고 범음악제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2011』(10.18~23)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기획되어 1994년에 시작, 18회를 맞은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는 음악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조우하고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공연들을 해마다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뛰어난 작품들에 의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컴퓨터음악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하는 음악제로 성장했으며, 많은 해외 작곡가들이 참여하고픈 무대가 되었다. 2011년에는 프랑스의 컴퓨터음악연구소인 그라메(GRAME)와 포르투갈의 손다르테 일렉트릭 앙상블(Sond'Ar-te electric ensemble)이 초청되었고 타악기의 밤, 멀티미디어의 밤 등 매일 특색 있는 음악회로 꾸며져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VII. 맺음말

리스트 탄생 200주년이었던 2011년. 이를 기념한 연주회들도 많았지만 6월에 있었던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 <All Liszt>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그는 두 차례 음악회를 각기 문학에서 영감 받은 작품과 후기작과 소나타로 나누어 꾸몄다. 라벨 독주곡 전 곡,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전 곡,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 곡 등 전 곡 연주 및 녹음을 통해 구도자적인 자세를 보여준 거장 백건우의 이번 음악회는 다시금 리스트와의 해석을 넘어선 교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청중을 의식한 연주가가 아니라 작곡가를 의식, 존중하는 연주가로서 그의 이해를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중들에게 잘 전달했다. 그러기에 이를 목격하고 들은 청중들의 감동은 컸다. 이것이 우리나라 음악계 변화의 한 현장이다. 우리는 음악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인간 간의 소통 언어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한여름 폭우는 우면산을 초토화시키며 예술의전당을 한때 마비시켰다.

양 악 현황분석

2011년 양악 현황분석

황 윤 숙(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1. 양악 공연의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 양악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2008년 이전의 편람 자료가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라는 점만 주의한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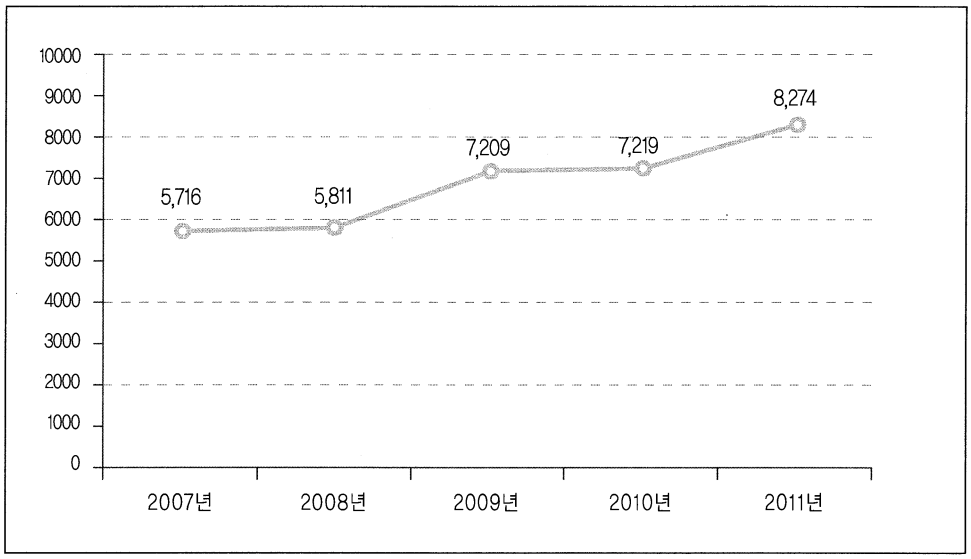
공연 건수에 대한 조사가 도입된 2008년 이전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공연 횟수만을 감안한다면, 최근 5년간 양악 공연은 연간 평균 약 6,846회 무대에 올랐다. 『문예연감 2011』의 최근 5년간 양악 공연 연간 평균 횟수 6,319회에 비해 8.3%(523회) 증가된 수치다. 전년에 비해 증가 폭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양악 공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 최근 5년간 양악 공연의 공연 횟수 추이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횟수	5,716	5,811	7,209	7,219	8,2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 최근 5년간 양악 공연의 공연 횟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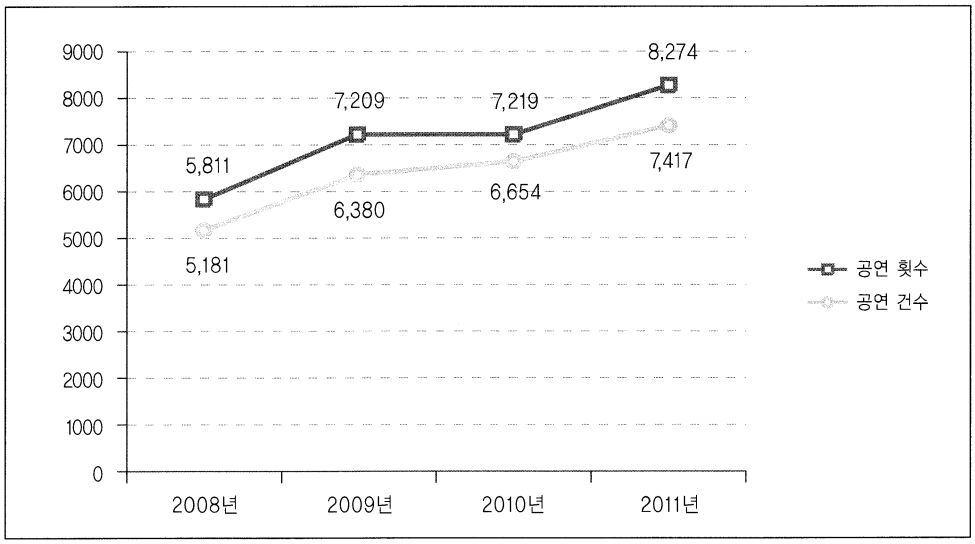


2008년부터는 자료조사방법의 표준화와 함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를 수집했기 때문에,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은 공연이 한 번 준비되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를 의미한다. 이번 양악 분야의 특징 중 하나는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2009년의 1.12회에서 2010년 1.08회로 감소했다가, 2011년 다시 1.12회로 상승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2010년에 두 그래프의 간격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다. 1회로 공연을 마치는 경우가 2010년 늘었다가, 2011년 다시 줄어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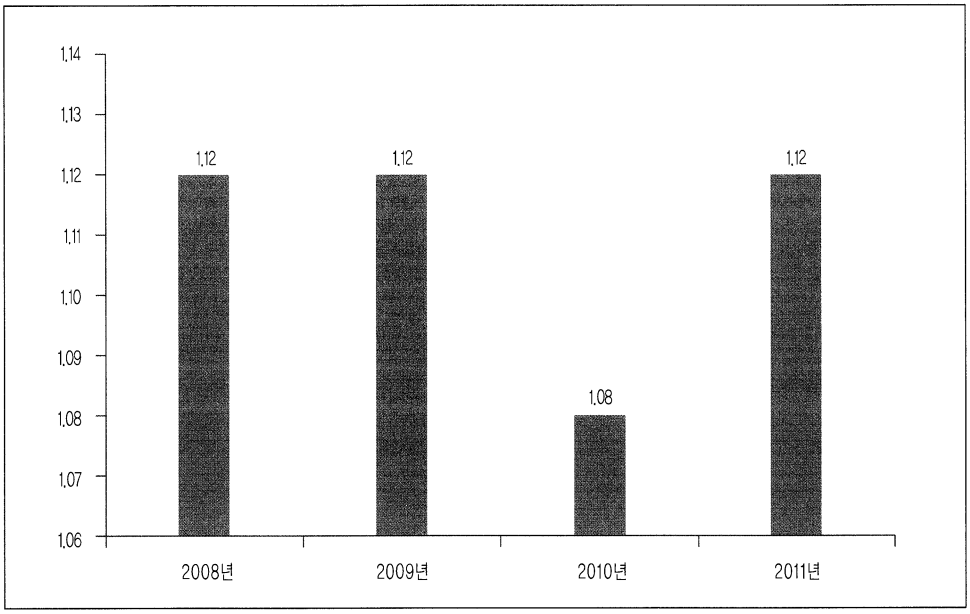
▌표 2. 최근 4년간 양악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건수	5,181	6,380	6,654	7,417
공연 횟수	5,811	7,209	7,219	8,274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1.12	1.12	1.08	1.12

▌그림 2. 최근 4년간 양악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그림 3. 최근 4년간 양악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추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 양악 내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

현재 문예연감의 분류 기준상 양악 분야는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발표회,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한다. 작곡발표회는 장르라 여길 수는 없지만, 창작 활동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별도로 분류한다. 합창은 성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 문예연감』부터 합창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에는 재즈, 뉴에이지 음악 등, 명확히 클래식 음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연들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는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공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한두 숫자로 단순화해서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들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진 못하지만, '2011년 클래식 공연계'라는 숲의 얼개를 한눈에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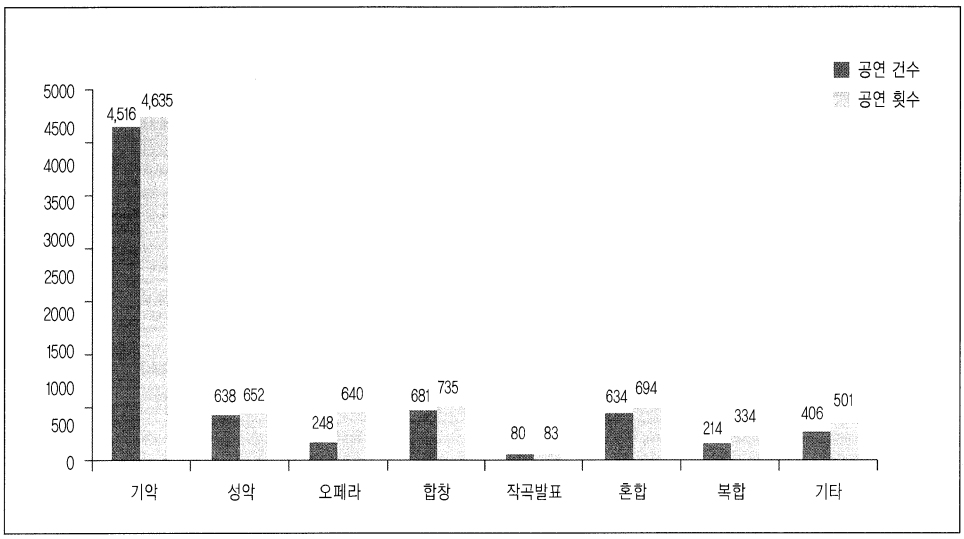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기악이 4,516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은 합창(9.2%), 성악(8.6%), 혼합(8.5%), 오페라(3.3%), 복합(2.9%), 작곡발표회(1.1%) 순이다. 작년에 이어 합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별 합창단의 공연과 많은 관련 축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공연 횟수의 분포도 공연 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연 건수 때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기악이 4,635회로 56%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은 합창이 735회로 8.9%, 혼합이 694회로 8.4%, 성악이 652회로 7.9%, 오페라가 640회로 7.7%, 복합이 334회로 4%, 작곡발표회가 83회로 1% 순이다. 오페라의 비중이 공연 건수 3.3%에서 공연 횟수 7.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표 3.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빈도	4,516	638	681	248	80	634	214	406	7,417
	비율	60.9%	8.6%	9.2%	3.3%	1.1%	8.5%	2.9%	5.5%	100%
공연 횟수	빈도	4,635	652	735	640	83	694	334	501	8,274
	비율	56.0%	7.9%	8.9%	7.7%	1.0%	8.4%	4.0%	6.1%	100%

▌그림 4.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3.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로 살펴본 양악 내 세부 장르별 공연 양상

양악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12다. 평균적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1회 남짓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의미다. 연극, 무용, 국악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비교하면 가장 낮다. 양악 공연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여길 만하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1회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관객 규모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 다른 장르에 비해 절대적인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한 공연장에서 여러 회 공연을 하기보다는 공연장을 이동해 가며 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편람 작성 시 공연 건수 기준이 일정 시점에 특정 공연장에서 하나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연이 공연장을 옮겨 다니며 여러 회 공연을 이어가는 경우 각 회의 공연이 별도의 건으로 처리된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세부 장르별로는 오페라가 2.58로 예년처럼 가장 높다. 작년(2.16)보다 더 증가했다. 양악 내에서는 유일하게 평균 2회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다. 오페라 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 총 248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1건이 1회 공연이긴 하지만, 다른 장르와 비교하면 1회 공연의 비중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2010년도의 "부니부니"처럼 어린이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로 한양레퍼토리씨어터의 "세빌리아의 이발사(57회)", 스타시티오시어터의 "신데렐라(20회)",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의 일환이었던 국립오페라단의 "지크프리트의 검(8회)" 등 다회 공연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다른 클래식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에 있어 투입 규모가 큰 오페라 장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표 4.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4,516	638	681	248	80	634	214	406	7,417
공연 횟수	4,635	652	735	640	83	694	334	501	8,274
횟수/건수비	1.03	1.02	1.08	2.58	1.04	1.09	1.56	1.23	1.12

오페라 다음으로는 복합이 1.5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작년(1.46)보다 더 높아졌다. 복합 분야에는 양악과 다른 공연예술 장르가 협업해 이루어진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총 214건의 공연 중 88.8%인 190건이 1회 공연이지만, 2010년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공연되었던 "에듀콘서트 '페페의 꿈'"이 2011년엔 강북구의 꿈의숲아트센터로 자리를 옮겨 80회에 달하는 많은 공연을 진행한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기악, 성악, 혼합 등은 대부분 1회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악은 4,516건 중 4,440건(98.3%), 성악은 638건 중 626건(98.1%), 합창은 681건 중 650건(95.4%), 혼합 분야는 총 634건 중 605건(95.4%)이 1회 공연이다. 이는 한 공연장에서 여러 번의 공연을 갖기보다는 큰 객석 규모의 여러 공연장을 1회 공연으로 옮겨 다니는 양악 공연만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4. 양악 공연 100개 중 91개는 국내단체, 6개는 해외단체, 3개는 협업

2009년 문예연감의 분류체계 표준화 이후의 편람에는 공연 단체의 국적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작년도 편람의 경우, 사후 조사 형태인 만큼 분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만을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로 범주화해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금년도에는 모든 공연의 단체를 조사해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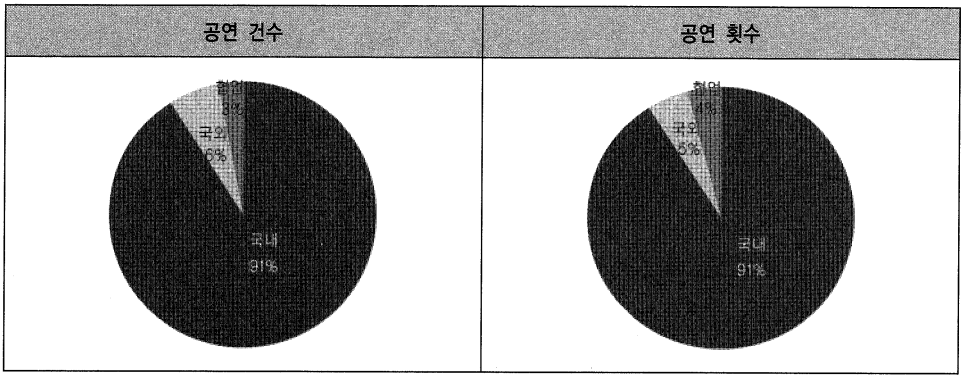
▌표 5. 양악 공연자·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국내	해외	협업	계
공연 건수	빈도	6,767	404	246	7,417
	비율	91.2%	5.4%	3.3%	100%
공연 횟수	빈도	7,529	448	297	8,274
	비율	91.0%	5.4%	3.6%	100%
횟수/건수 비율		1.11	1.11	1.21	1.12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양악 공연이 총 100개라고 한다면, 그중 91개 정도는 국내 공연단체가, 6개는 해외 공연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국내 단체와 해외 단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전년도는 국내 공연단체가 95개, 해외 공연단체 공연과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연이 합쳐서 5개였으니, 국내 공연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협업이나 해외 공연의 비중이 다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단체나 해외단체만의 공연보다 국내외 단체의 협업을 통한 공연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5. 양악 공연자·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5. 월별 공연의 추이는 우상향하는 M자형 곡선으로 분포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M자형 곡선은 다른 공연 예술 장르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에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양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더 또렷하다. 다만, 우상향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연말에 공연이 집중되는 현상에 기인하는 듯하다.

▌표 6. 양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빈도	310	314	497	589	710	697	452	564	659	830	945	850	7,417
	비율	4.2%	4.2%	6.7%	7.9%	9.6%	9.4%	6.1%	7.6%	8.9%	11.2%	12.7%	11.5%	100%
공연 횟수	빈도	446	324	560	704	769	731	510	645	743	910	1011	921	8,274
	비율	5.4%	3.9%	6.8%	8.5%	9.3%	8.8%	6.2%	7.8%	9.0%	11.0%	12.2%	11.1%	100%

위 표를 그래프화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근소한 차이로

공연 횟수가 위쪽에 위치하는 양상이다. 2010년에 이어 하반기의 정점이 12월이 아닌 11월에 있다. 12월 공연은 10월과 비슷한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3월부터 공연이 많아지면서 5~6월 상반기 정점을 지나 7월에 급격히 공연이 줄어들었다가 8월부터 11월까지 상승하는 모습은 매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양악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6. 서울·경기·부산·대구·전북·경남에서 양악 공연 상대적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별 양악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매년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연이 이루어진다. 뒤를 잇는 경기도 지역에 비해 공연 건수는 3.9배에 이르는 3,037건, 공연 횟수는 4.1배에 이르는 3,549회가 공연된다. 공연 건수가 3.3배, 공연 횟수가 3.6배였던 2010년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양악 공연 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41.3%의 공연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40.9%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비중이 42.7%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집중되는 정도가 약해진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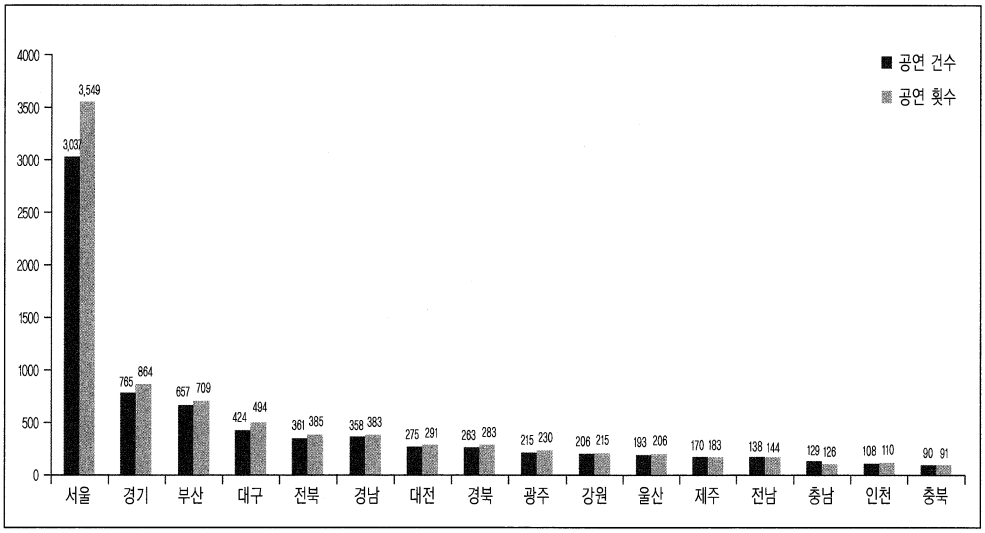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7.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전북	경남	대전	경북	광주
공연 건수	3,037	786	667	424	361	358	275	263	215
공연 횟수	3,549	864	709	494	385	383	291	283	230
구분	강원	울산	제주	전남	충남	인천	충북	계	
공연 건수	206	193	170	138	126	108	90	7,417	
공연 횟수	215	206	183	144	129	110	91	8,274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울·경기·부산·대구·전북·경남 등 6개 지역이 300건 이상의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전남·충남·인천·충북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00건 이상 상위 그룹을 형성한 지역은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경남이 약세를, 대구와 전북이 강세를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하위 그룹에서는 충북과 충남이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양악 공연에서 열세를 보인 반면, 제주와 광주가 하위 그룹에서 벗어나고, 전남과 인천이 새롭게 포함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7.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과 대구가 1.17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제주가 1.15회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던 전년도나 인천이 1.25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2009년도 분석결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표 8. 16개 시도별 양악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지역	공연 건수	공연 횟수	횟수/건수 비율
서울	3,037	3,549	1.17
경기	786	864	1.10
부산	667	709	1.06
대구	424	494	1.17
전북	361	385	1.07
경남	358	383	1.07
대전	275	291	1.06
경북	263	283	1.08
광주	215	230	1.07
강원	206	215	1.04
울산	193	206	1.07
제주	170	183	1.08
전남	138	144	1.04
충남	126	129	1.02
인천	108	118	1.09
충북	90	91	1.01
총합계	7,417	8,274	1.12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작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는 크다

16개 시도별 자료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해서 살펴보면 공연 건수에서 수도권이 3,931건으로 3,486건인 비수도권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악 공연의 수도권 비중은 53%로 전년도의 56.6%, 2009년도의 56.9%에 비해 그 폭은 달리하지만 점차 낮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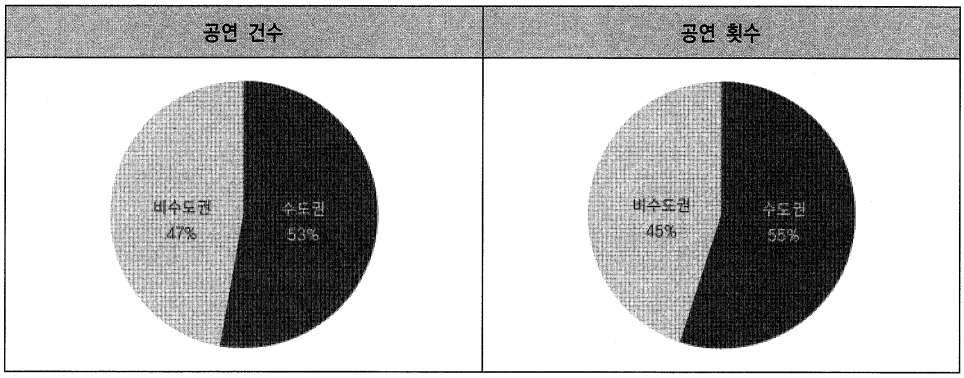
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 경향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010년도에 57.7%였던 수도권의 비중이 54.8%로 적지 않게 감소했다. 공연 횟수를 공연 건수로 나누어 살핀 비율에서는 수도권 1.15, 비수도권 1.07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의 비중	계
공연 건수	2010년	3,765	2,889	56.6	6,654
	2011년	3,931	3,486	53.0	7,417
공연 횟수	2010년	4,162	3,057	57.7	7,219
	2011년	4,531	3,743	54.8	8,274

위 표를 그래프화시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상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난다.

▌그림 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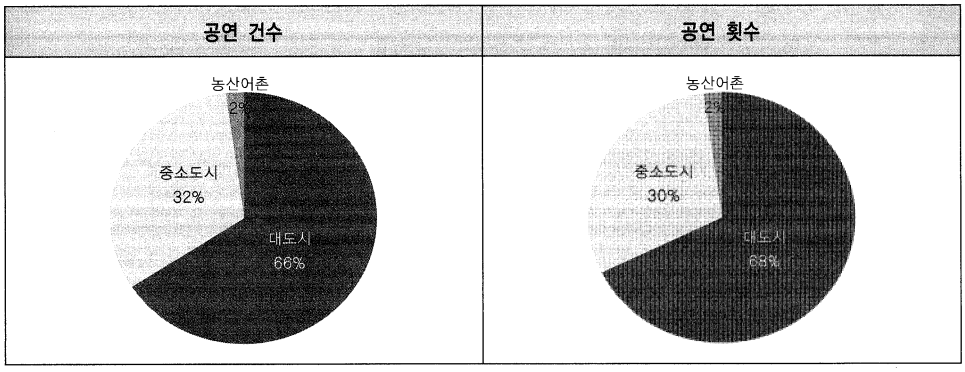
지역을 기초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표 1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계
공연 건수	4,919	2,354	144	7,417
공연 횟수	5,597	2,529	148	8,274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간에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양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연장을 보유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달라지는데, 중소도시에는 많은 공연장들이 생기고 있는 데 반해 농산어촌에는 큰 규모의 공연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한 가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그림 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양악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8. 최근 3개년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변화

2008년 이후 조사 방법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 대해서 최근 3개년간의 추세를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양악 공연이 양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전북,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2011년도에 양적으로 양악 공연이 늘어나긴 했지만 3년간의 추세를 보면 경기, 대전, 울산,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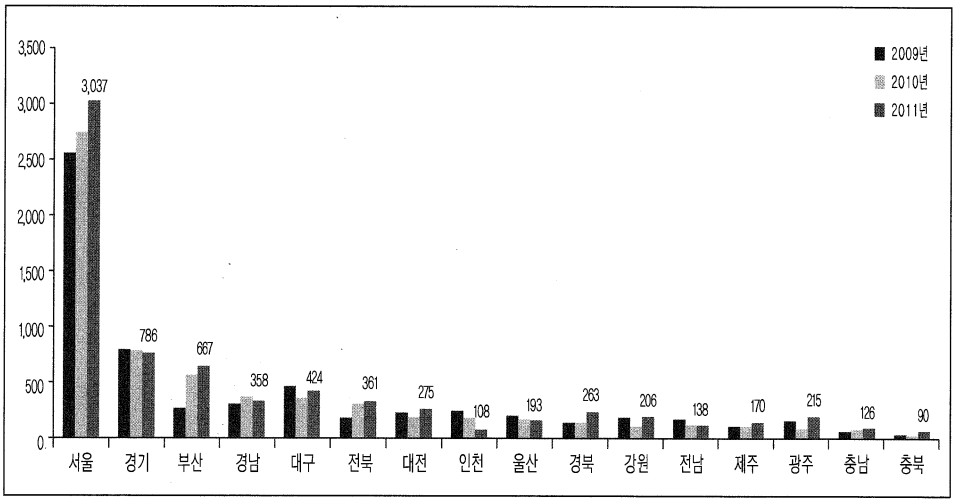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원, 제주 등은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인천은 뚜렷한 하락 경향이 나타난다. 2009년도 249건, 2010년도 197건에 이어 2011년에는 108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락의 폭도 작지 않다. 2009년도 176건에서 2010년도에는 94건으로 양악 공연이 크게 감소했던 광주는 2011년도 215건으로 다시 큰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표 11. 최근 3개년간 양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대전	인천	울산
2009년	2,575	806	278	320	483	202	251	249	232
2010년	2,746	822	584	414	381	331	223	197	193
2011년	3,037	786	667	358	424	361	275	108	193
연도	경북	강원	전남	제주	광주	충남	충북	계	
2009년	180	188	192	130	176	72	46	6,380	
2010년	152	132	130	124	94	94	37	6,654	
2011년	263	206	138	170	215	126	90	7,417	

▌그림 10. 최근 3개년간 양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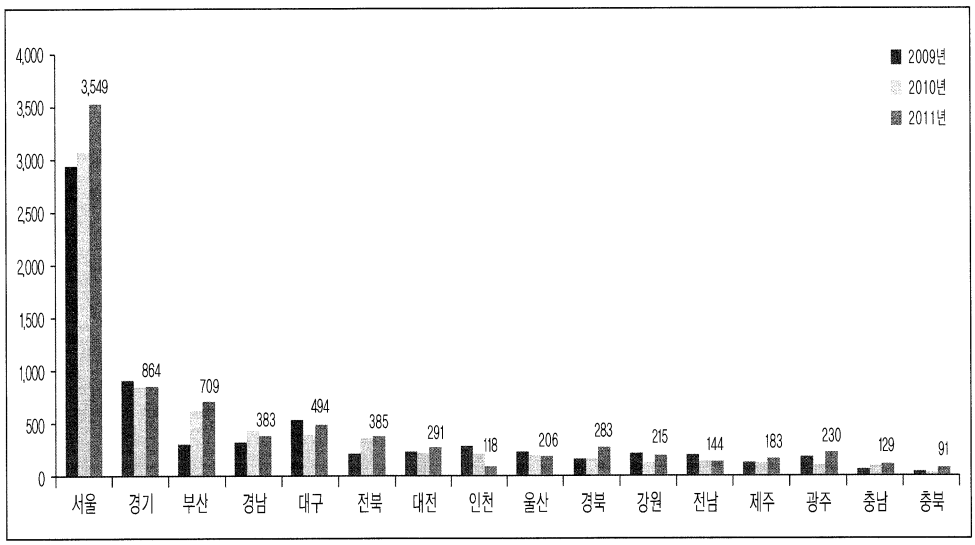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연 횟수에서도 공연 건수와 양상은 유사하다. 전년도의 경우 경기·제주·충남 등에서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추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2011년도에는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표 12. 최근 3개년간 양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연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대전	인천	울산
2009년	2,948	929	301	336	558	218	266	312	248
2010년	3,083	866	622	426	402	348	233	213	203
2011년	3,549	864	709	383	494	385	291	118	206
연도	경북	강원	전남	제주	광주	충남	충북	계	
2009년	187	217	223	143	191	80	52	7,209	
2010년	161	133	144	143	103	102	37	7,219	
2011년	283	215	144	183	230	129	91	8,274	

그림 11. 최근 3개년간 양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9.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횟수에서 제주와 전북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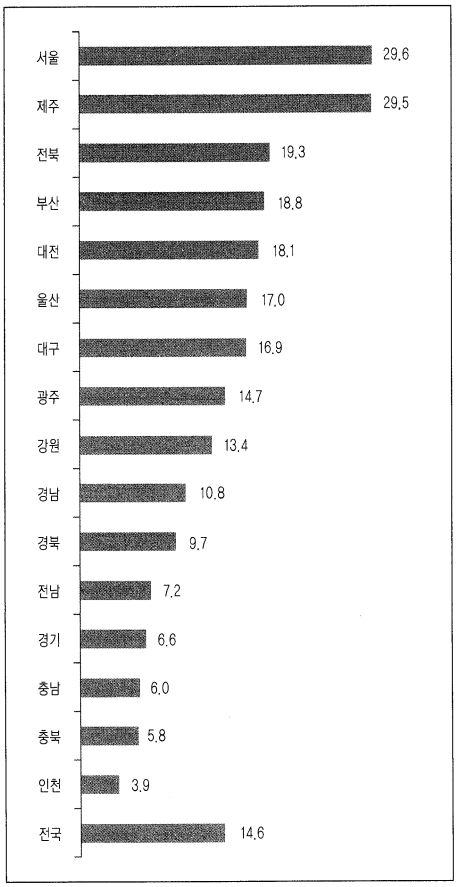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산출했다. 인구수는 지역별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제 그 공연에 참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공연이 열리는지를 살필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순 비교 때 하위에 속했던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서울(29.6건)에 이어 29.5건으로 2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제주국제관악제" 같은 큰 규모의 축제가 미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전년도(19.4건)와 거의 같은 수준(19.3건)을 보이며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산이 18.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 비교 시에 공연 건수에 있어서 중하위 그룹에 속했던 울산은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는 17건으로 전년도(17.6건)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공연 건수로 비교했을 때에 비해 제주는 11계단, 울산과 전북은 각각 3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경기의 경우엔 전년과 마찬가지로 단순 지역 비교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는 6.6건으로 전년도(7.1건)보다 더 낮아지며 지역별 순위가 급감했다. 단순히 공연 건수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전체 거주민들의 규모를 고려하면 공연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공연이 집중되어 있다는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그림 12.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

순위	지역	공연 건수
1	서울	29.6
2	제주	29.5
3	전북	19.3
4	부산	18.8
5	대전	18.1
6	울산	17.0
7	대구	16.9
8	광주	14.7
9	강원	13.4
10	경남	10.8
11	경북	9.7
12	전남	7.2
13	경기	6.6
14	충남	6.0
15	충북	5.8
16	인천	3.9
전국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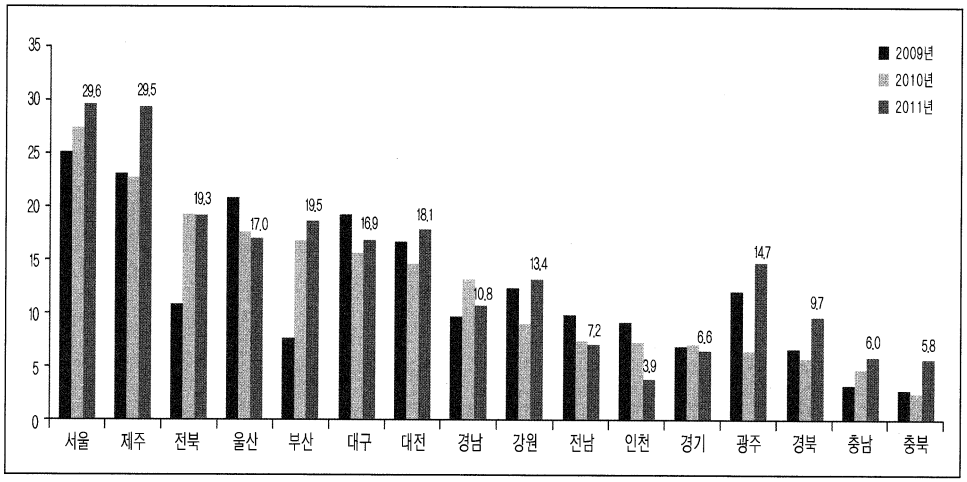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근 3년을 비교해 분석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서울·충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에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던 광주, 강원 등이 2011년도에 다시 증가한 반면, 경기, 전남 등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3.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서울	제주	전북	울산	부산	대구	대전	경남
2009년	25.2	23.1	10.9	20.8	7.8	19.4	16.9	9.8
2010년	27.4	22.7	19.4	17.6	16.9	15.7	14.7	13.2
2011년	29.6	29.5	19.3	17.0	18.8	16.9	18.1	10.8
	강원	전남	인천	경기	광주	경북	충남	충북
2009년	12.4	10.0	9.2	7.0	12.3	6.7	3.5	3.0
2010년	9.1	7.5	7.4	7.1	6.5	5.9	4.8	2.5
2011년	13.4	7.2	3.9	6.6	14.7	9.7	6.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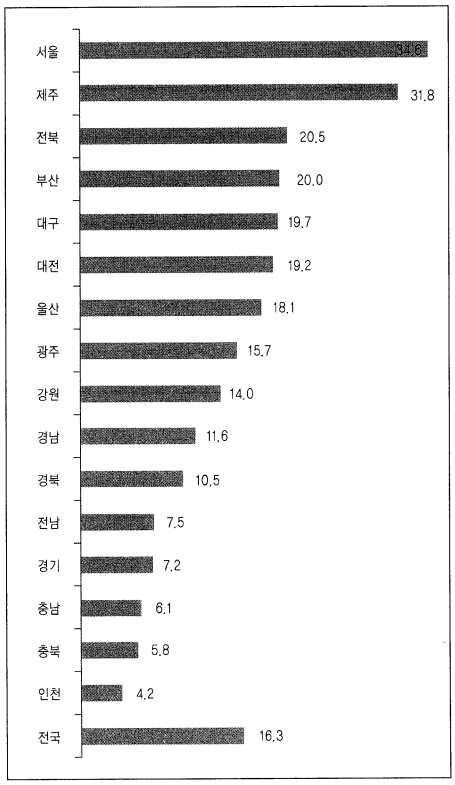
▌그림 13.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 또한 전체적인 양상은 공연 건수와 비슷하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차이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지역이 더러 눈에 띄는 수준이다.

그림 14.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횟수

순위	지역	공연 횟수
1	서울	34.6
2	제주	31.8
3	전북	20.5
4	부산	20.0
5	대구	19.7
6	대전	19.2
7	울산	18.1
8	광주	15.7
9	강원	14.0
10	경남	11.6
11	경북	10.5
12	전남	7.5
13	경기	7.2
14	충남	6.1
15	충북	5.8
16	인천	4.2
전국		16.3



서울이 34.6회로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횟수가 가장 높다. 제주 또한 31.8회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전북(20.5회), 부산(20회) 순의 분포를 보인다. 공연 건수에서는 대전, 울산의 뒤를 이었던 대구가 공연 횟수에서는 19.7회로 대전, 울산을 앞지르는 것 정도가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에서 유일한 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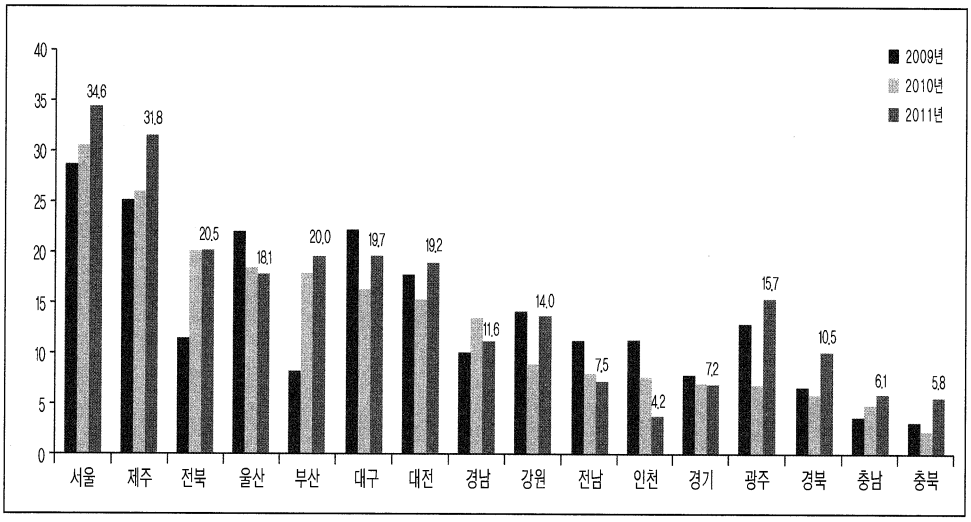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4.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서울	제주	전북	울산	부산	대구	대전	경남
2009년	28.9	25.4	11.8	22.2	8.5	22.4	17.9	10.3
2010년	30.7	26.1	20.4	18.6	18.0	16.5	15.4	13.6
2011년	34.6	31.8	20.5	18.1	20.0	19.7	19.2	11.6
연도	강원	전남	인천	경기	광주	경북	충남	충북
2009년	14.3	11.7	11.5	8.1	13.3	7.0	3.9	3.4
2010년	9.2	8.3	8.0	7.4	7.1	6.2	5.2	2.5
2011년	14.0	7.5	4.2	7.2	15.7	10.5	6.1	5.8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공연 건수에서 관찰된 추세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추세의 크기가 공연 건수보다 공연 횟수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인천의 경우 공연 건수에서 하락하는 추세가 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15. 최근 3개년간 인구 10만 명당 양악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11. 성악과 합창의 분리, 다양해진 지역별 세부 장르의 양상

지역마다 양악 공연이 세부 분야별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6개 시도별로 기악, 성악, 오페라,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펴야 한다. 이때 기준은 1차적으로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양악의 경우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장르의 비중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5. 지역별로 살펴본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지역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2,179	322	81	85	54	148	45	123	3,037
	비율	71.7%	10.6%	2.7%	2.8%	1.8%	4.9%	1.5%	4.1%	100%
경기	빈도	385	34	34	112	1	126	23	71	786
	비율	49.0%	4.3%	4.3%	14.2%	0.1%	16.0%	2.9%	9.0%	100%
부산	빈도	443	54	22	68	0	41	17	22	667
	비율	66.4%	8.1%	3.3%	10.2%	0.0%	6.1%	2.5%	3.3%	100%
대구	빈도	204	43	30	38	1	53	14	41	424
	비율	48.1%	10.1%	7.1%	9.0%	0.2%	12.5%	3.3%	9.7%	100%
전북	빈도	207	38	15	42	3	30	8	18	361
	비율	57.3%	10.5%	4.2%	11.6%	0.8%	8.3%	2.2%	5.0%	100%
경남	빈도	201	19	8	52	3	45	13	17	358
	비율	56.1%	5.3%	2.2%	14.5%	0.8%	12.6%	3.6%	4.7%	100%
대전	빈도	162	29	9	31	5	22	9	8	275
	비율	58.9%	10.5%	3.3%	11.3%	1.8%	8.0%	3.3%	2.9%	100%
경북	빈도	121	20	13	37	0	33	18	21	263
	비율	46.0%	7.6%	4.9%	14.1%	0.0%	12.5%	6.8%	8.0%	100%
광주	빈도	110	13	7	28	5	24	13	15	215
	비율	51.2%	6.0%	3.3%	13.0%	2.3%	11.2%	6.0%	7.0%	100%
강원	빈도	102	14	2	40	0	29	7	12	206
	비율	49.5%	6.8%	1.0%	19.4%	0.0%	14.1%	3.4%	5.8%	100%
울산	빈도	76	16	15	35	4	24	11	12	193
	비율	39.4%	8.3%	7.8%	18.1%	2.1%	12.4%	5.7%	6.2%	100%
제주	빈도	105	8	2	33	1	11	3	7	170
	비율	61.8%	4.7%	1.2%	19.4%	0.6%	6.5%	1.8%	4.1%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5.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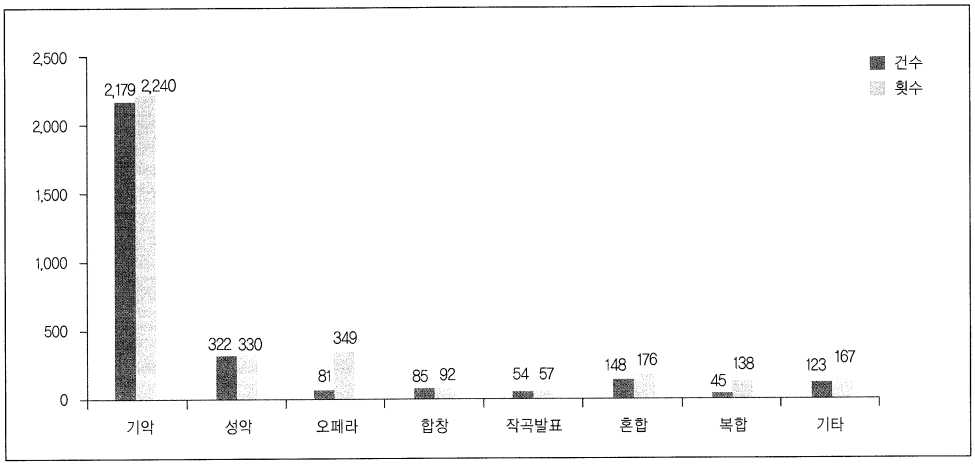
지역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전남	빈도	56	9	2	32	2	16	9	12	138
	비율	40.6%	6.5%	1.4%	23.2%	1.4%	11.6%	6.5%	8.7%	100%
충남	빈도	67	1	0	21	0	15	10	12	126
	비율	53.2%	0.8%	0.0%	16.7%	0.0%	11.9%	7.9%	9.5%	100%
인천	빈도	51	12	4	14	1	10	6	10	108
	비율	47.2%	11.1%	3.7%	13.0%	0.9%	9.3%	5.6%	9.3%	100%
충북	빈도	47	6	4	13	0	7	8	5	90
	비율	52.2%	6.7%	4.4%	14.4%	0.0%	7.8%	8.9%	5.6%	100%
계	빈도	4,516	638	248	681	80	634	214	406	7,417
	비율	60.9%	8.6%	3.3%	9.2%	1.1%	8.5%	2.9%	5.5%	100%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위 표에서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와 그 다음 비중이 높은 분야(흐린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는 기악과 성악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혼합, 복합, 오페라가 한 자릿수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도에는 기악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다름 없었지만, 성악에서 합창을 분리함으로써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도 2010년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이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악이 전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합창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분야에 해당된다. 전년도의 경우 두 번째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였던 것과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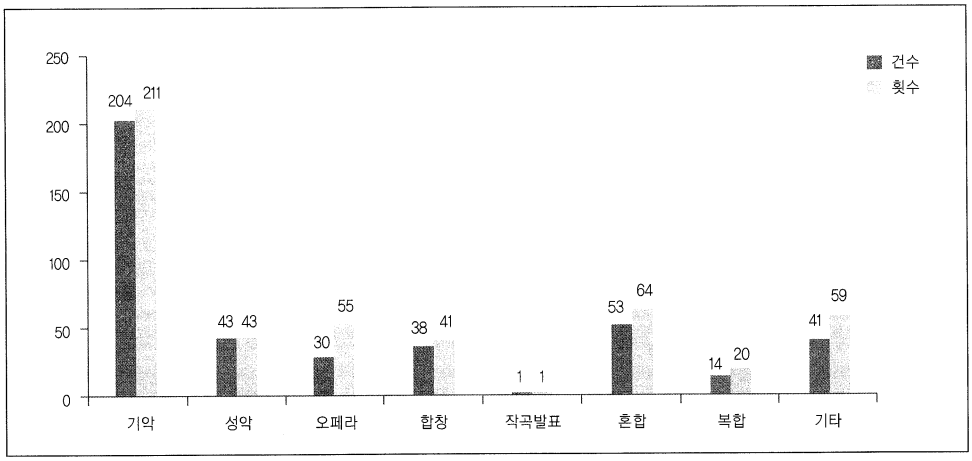
예외적인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은 성악이 각기 10.6%로 기악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엔 다른 지역과 달리 합창의 비중이 2.8%로 매우 낮다. 기악의 비중이 71.7%로 쏠림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성악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기악의 비중에 있어 그나마 서울에 근접한 수준을 보인 지역은 부산(66.4%), 제주(61.8%)에 불과하다.

그림 16.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성악)



구분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공연 건수	2,179	322	81	85	54	148	45	123
공연 횟수	2,240	330	349	92	57	176	138	167

그림 17. 대구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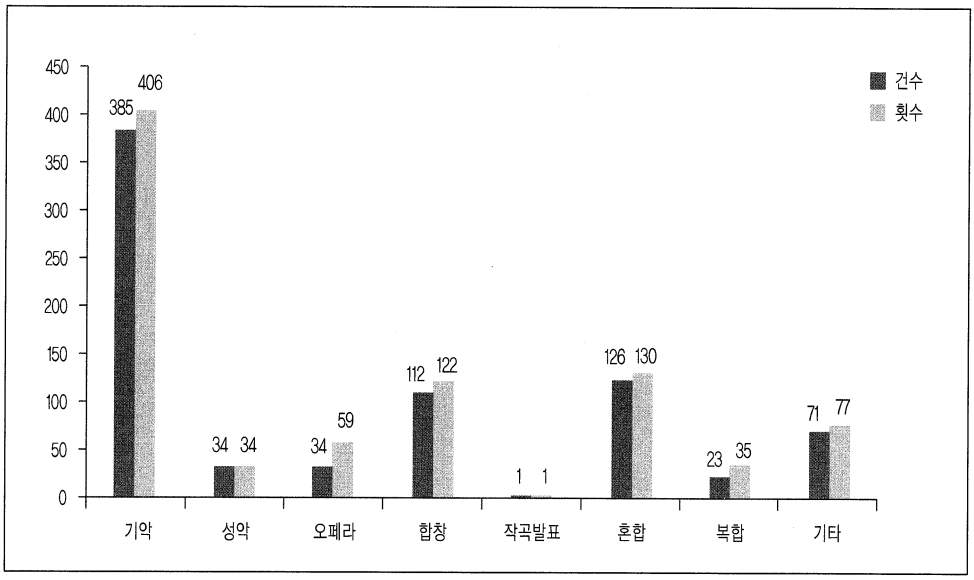


구분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공연 건수	204	43	30	38	1	53	14	41
공연 횟수	211	43	55	41	1	64	20	59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 지역은 기악, 성악, 합창 등 여러 공연이 한 무대에 오르는 혼합 분야가 16%를 차지해 14.2%인 합창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악의 비율은 4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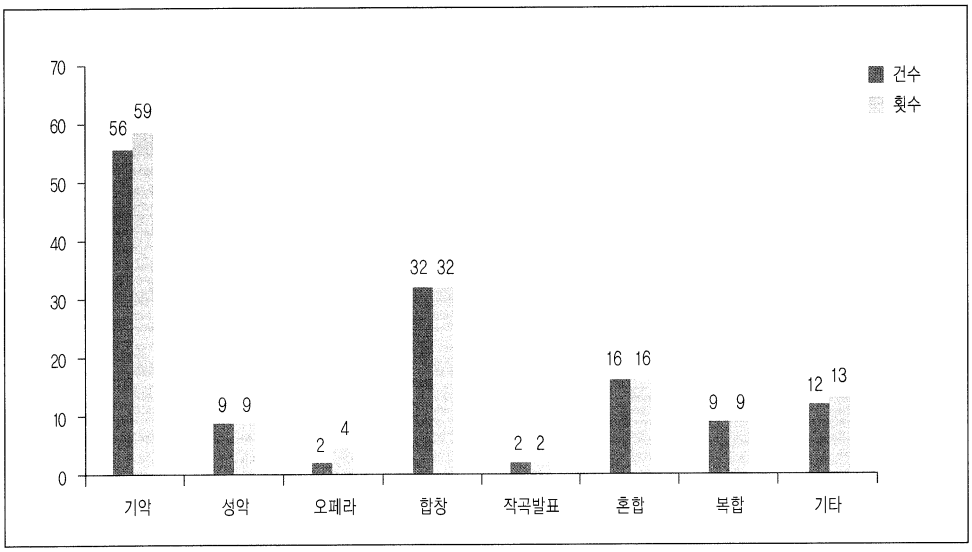
▌그림 18. 경기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합창) ▐



구분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공연 건수	385	34	34	112	1	126	23	71
공연 횟수	406	34	59	122	1	130	35	77

전년도에 기악 다음으로 혼합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었던 부산, 전남은 합창과 관련된 공연의 약진으로 세부 분야별 분포가 바뀌었다. 특히 전남은 합창의 비율이 23.2%로 전국에서 합창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전남 지역의 양악 공연 중 약 1/4가량이 합창 공연으로 진행된 셈이다. 다음으로 합창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동일하게 19.4%의 비율을 나타낸 제주와 강원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지역 기반의 '합창제'와 같은 페스티벌의 운영 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림 19. 전남 지역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분포(기악-기타) ▐



구분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공연 건수	56	9	2	32	2	16	9	12
공연 횟수	59	9	4	32	2	16	9	13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지역별 양상은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5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악 장르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57.0%의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합창이 8.9%로 그 뒤를 잇고, 혼합(8.4%), 성악(7.9%), 오페라(7.7%), 복합(4.0%), 작곡발표회(1.0%) 순으로 이어진다. 전년도에 비해 횟수에 있어 성악과 오페라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6. 지역별로 살펴본 양악 세부 분야별 공연 횟수

지역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작곡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2,240	330	349	92	57	176	138	167	3,549
	비율	63.1%	9.3%	9.8%	2.6%	1.6%	5.0%	3.9%	4.7%	100%
경기	빈도	406	34	59	122	1	130	35	77	864
	비율	47.0%	3.9%	6.8%	14.1%	0.1%	15.0%	4.1%	8.9%	100%
부산	빈도	449	56	40	80	0	41	19	24	709
	비율	63.3%	7.9%	5.6%	11.3%	0.0%	5.8%	2.7%	3.4%	100%
대구	빈도	211	43	55	41	1	64	20	59	494
	비율	42.7%	8.7%	11.1%	8.3%	0.2%	13.0%	4.0%	11.9%	100%
전북	빈도	209	39	25	46	3	31	9	23	385
	비율	54.3%	10.1%	6.5%	11.9%	0.8%	8.1%	2.3%	6.0%	100%
경남	빈도	201	21	14	56	3	53	15	20	383
	비율	52.5%	5.5%	3.7%	14.6%	0.8%	13.8%	3.9%	5.2%	100%
대전	빈도	163	29	21	33	5	23	9	8	291
	비율	56.0%	10.0%	7.2%	11.3%	1.7%	7.9%	3.1%	2.7%	100%
경북	빈도	122	21	16	37	0	34	19	34	283
	비율	43.1%	7.4%	5.7%	13.1%	0.0%	12.0%	6.7%	12.0%	100%
광주	빈도	113	13	14	32	5	25	13	15	230
	비율	49.1%	5.7%	6.1%	13.9%	2.2%	10.9%	5.7%	6.5%	100%
강원	빈도	104	14	2	43	0	29	8	15	215
	비율	48.4%	6.5%	0.9%	20.0%	0.0%	13.5%	3.7%	7.0%	100%
울산	빈도	77	16	23	36	4	25	13	12	206
	비율	37.4%	7.8%	11.2%	17.5%	1.9%	12.1%	6.3%	5.8%	100%
제주	빈도	116	8	3	34	1	11	3	7	183
	비율	63.4%	4.4%	1.6%	18.6%	0.5%	6.0%	1.6%	3.8%	100%
전남	빈도	59	9	4	32	2	16	9	13	144
	비율	41.0%	6.3%	2.8%	22.2%	1.4%	11.1%	6.3%	9.0%	100%
충남	빈도	67	1	0	22	0	17	10	12	129
	비율	51.9%	0.8%	0.0%	17.1%	0.0%	13.2%	7.8%	9.3%	100%
인천	빈도	51	12	10	16	1	12	6	10	118
	비율	43.2%	10.2%	8.5%	13.6%	0.8%	10.2%	5.1%	8.5%	100%
충북	빈도	47	6	5	13	0	7	8	5	91
	비율	51.6%	6.6%	5.5%	14.3%	0.0%	7.7%	8.8%	5.5%	100%
계	빈도	4,635	652	640	735	83	694	334	501	8,274
	비율	56.0%	7.9%	7.7%	8.9%	1.0%	8.4%	4.0%	6.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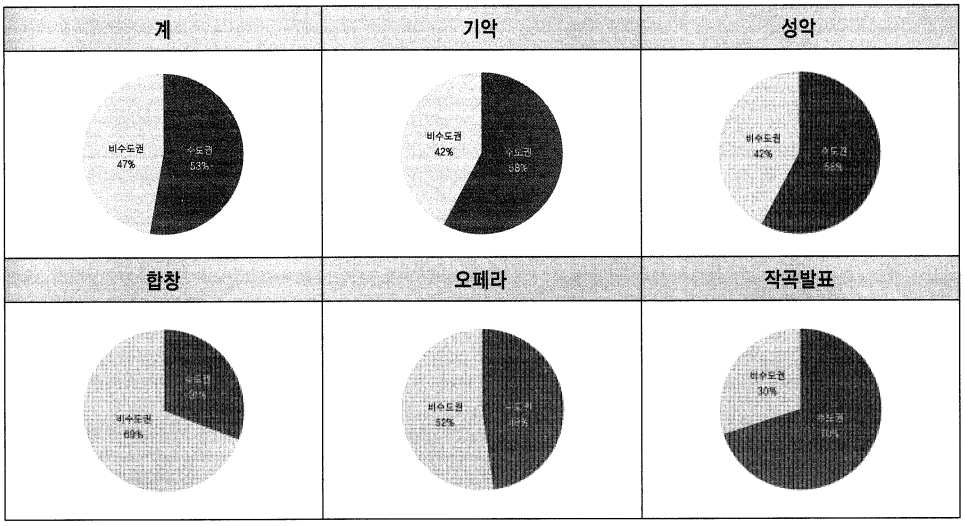
12. 거의 비슷해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공연 양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별 분석에서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이미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다소 앞선다. 하지만 해마다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수도권의 비율은 약 53% 수준이다.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기악·성악·작곡발표 등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서고, 합창·오페라·혼합은 비수도권이 더 우세한 패턴을 보인다. 복합 장르의 경우 전년도에는 수도권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도에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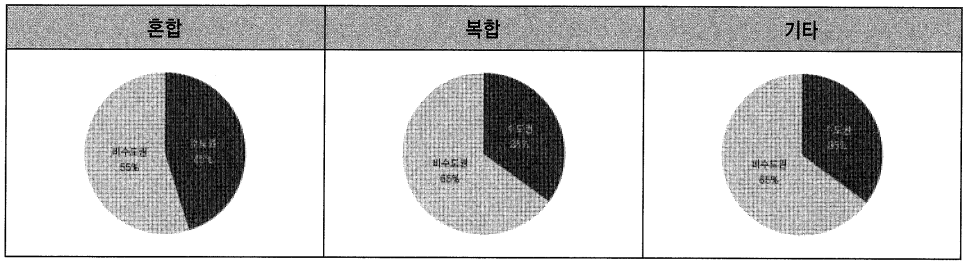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수도권	2,615	368	211	119	56	284	74	204	3,931
	비수도권	1,901	270	470	129	24	350	140	202	3,486
	계	4,516	638	681	248	80	634	214	406	7,417

▌그림 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20. 계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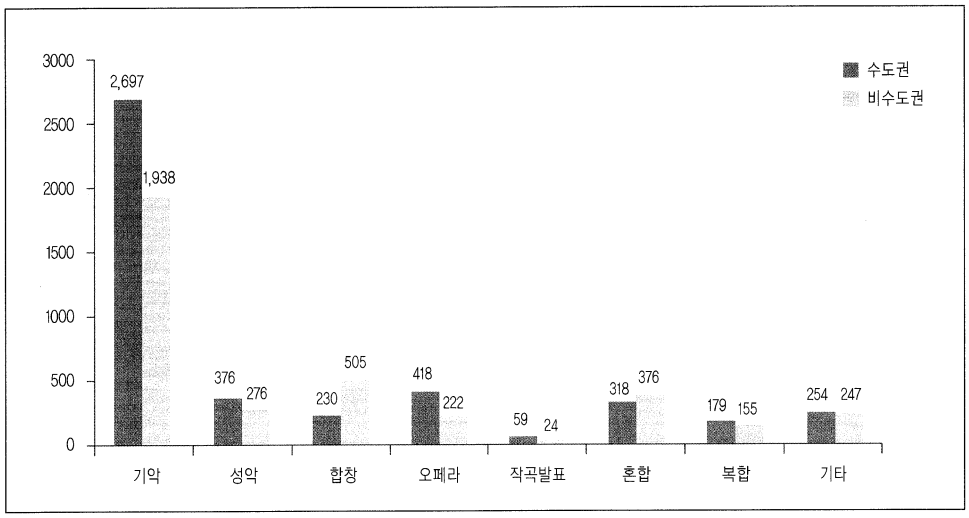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가 큰 차이가 없는 양악의 특성상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공연 건수와 비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주된 차이는 오페라와 복합 장르에서 나타난다. 오페라와 복합 장르 모두 공연 횟수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것. 오페라와 복합 장르는 공연 건수에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큰 데 반해,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더 많기 때문에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오페라, 복합 공연 중 다회 공연들은 모두 서울에서 무대에 오른 공연이다.

▌표 1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수도권	2,697	376	230	418	59	318	179	254	4,531
	비수도권	1,938	276	505	222	24	376	155	247	3743
	계	4,635	652	735	640	83	694	334	501	8,274

▌그림 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분포(빈도) ▐



13. 합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도시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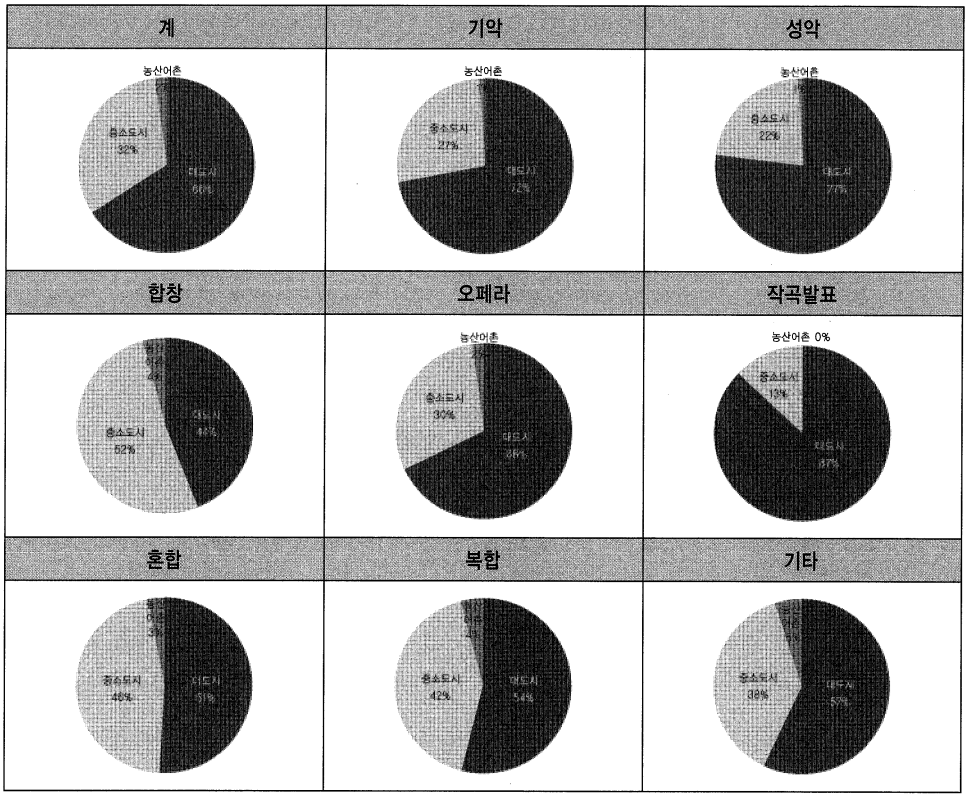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2011년도 양악 공연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66.3%의 공연이 대도시에서, 31.7%의 공연이 중소도시에서, 단 2%의 공연이 농산어촌에서 열렸다.

▌표 1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대도시	3,225	489	299	168	70	322	115	231	4,919
	중소도시	1,230	144	357	75	10	291	91	156	2,354
	농산어촌	61	5	25	5	0	21	8	19	144
	계	4,516	638	681	248	80	634	214	406	7,417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22.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건수 비율 ▐



위의 표와 그림은 거의 대부분의 장르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살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어쩔 수 없이 잠재 관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에는 얼마간 양악 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작곡발표, 기악, 성악에서 대도시의 비중은 특히 커진다.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세부 장르는 합창, 혼합, 복합 등이다.

특히 합창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더 비중이 크고, 다른 장르들에 비해 농산어촌의 비중도 가장 큰 편이다. 합창은 커뮤니티 아트로서의 참여와 관람 모두에 있어 다른 양악 장르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양상은 공연 횟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2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양악 공연 횟수 ▐

구분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작곡 발표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대도시	3,304	499	330	512	73	366	218	295	5,597
	중소도시	1,269	148	380	122	10	307	108	185	2,529
	농산어촌	62	5	25	6	0	21	8	21	148
	계	4,635	652	735	640	83	694	334	501	8,274

14. 기악·성악·합창은 11월, 오페라·혼합은 12월

공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두 개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색으로 칠해 표시하고 가장 많은 달을 더 짙은 색으로 표시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거의 일치한다. 장르별로 큰 차이 없이 5~6월, 10~12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혼합 형태의 공연은 다른 장르에 비해 특정 시기에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여름을 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기악, 합창, 혼합 공연은 예외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주로 이 장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21.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악	198	223	318	378	443	424	300	366	408	481	547	430	4,516
성악	23	24	51	63	58	54	26	45	72	76	85	61	638
합창	25	12	33	44	67	63	43	25	37	71	128	133	681
오페라	12	7	11	21	17	23	19	27	31	27	29	23	247
작곡발표	3	2	8	5	7	10	4	2	10	11	11	7	80
혼합	28	26	38	38	71	65	24	41	47	78	77	101	634
복합	8	5	14	14	21	16	11	17	13	28	28	39	214
기타	12	15	24	26	26	42	25	41	41	58	40	56	406
계	309	314	497	589	710	697	452	564	659	830	945	850	7,416

표 22. 양악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악	205	226	328	381	455	427	308	397	417	489	559	443	4,635
성악	25	24	51	64	58	55	26	48	76	78	86	61	652
합창	25	14	34	46	69	67	46	25	39	79	140	151	735
오페라	80	12	45	45	36	41	49	57	69	50	61	39	584
작곡발표	3	2	10	5	7	10	4	2	10	11	12	7	83
혼합	28	26	48	39	79	69	32	41	64	82	80	106	694
복합	8	5	18	93	24	17	16	18	23	35	31	46	334
기타	16	15	26	31	41	45	29	57	45	86	42	68	501
계	390	324	560	704	769	731	510	645	743	910	1,011	921	8,218

양악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기악 장르는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이, M자형의 곡선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반기의 비중이 다른 장르에 비해 크다는 것이 도드라져 보인다. 8월에도 상당량의 공연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1회인 만큼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듯 그려진다.

▌그림 23. 양악 기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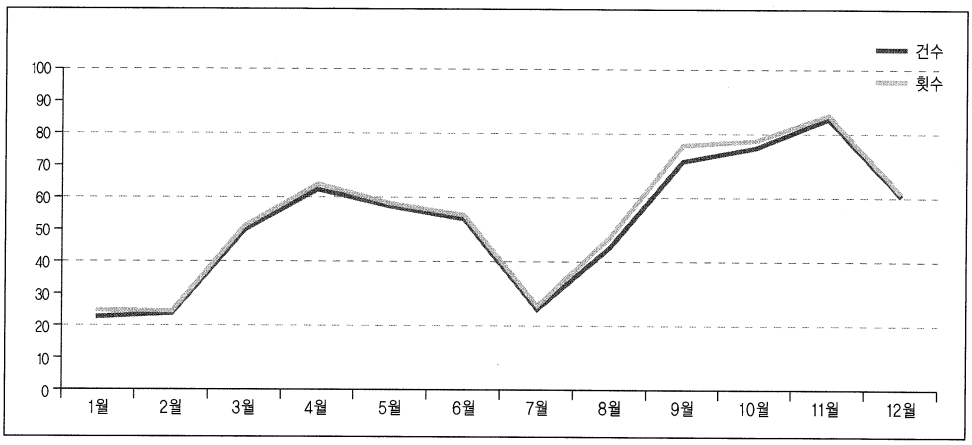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198	223	318	378	443	424	300	366	408	481	547	430	4,516
공연 횟수	205	226	328	381	455	427	308	397	417	489	559	443	4,635

이에 비해 성악과 합창 공연은 M자형 곡선을 보이는 가운데 8월에도 공연이 급감한 상태여서 다른 장르에 비해 감소기간이 긴 양상을 보인다. 9월에 공연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다가, 11월에 최고점에 이르는 단계형의 변화가 특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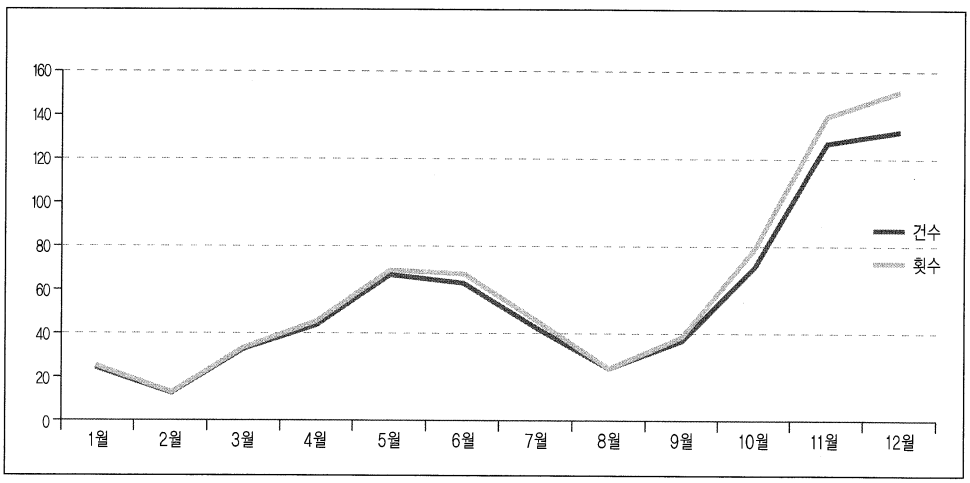
그림 24. 양악 성악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23	24	51	63	58	54	26	45	72	76	85	61	638
공연 횟수	25	24	51	64	58	55	26	48	76	78	86	61	652

합창 분야의 공연은 11~12월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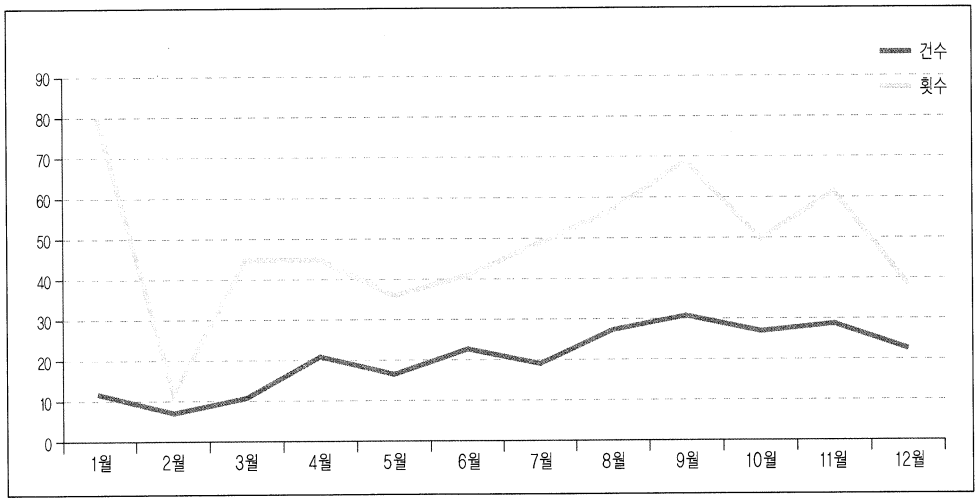
그림 25. 양악 합창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25	12	33	44	67	63	43	25	37	71	128	133	681
공연 횟수	25	14	34	46	69	67	46	25	39	79	140	151	735

오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M자형 분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완만하게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공연 건수는 연중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공연 횟수의 차이는 제법 크다. 1월에 횟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만큼, 1월에 시작해 장기공연으로 진행되는 공연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공연 횟수가 특히 늘어나는 시기는 상반기는 3~4월, 하반기는 9월과 11월이다.

▌그림 26. 양악 오페라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12	7	11	21	17	23	19	27	31	27	29	23	247
공연 횟수	80	12	45	45	36	41	49	57	69	50	61	39	584

혼합 형태 공연의 분포에서는 4~10월 사이에 작은 M자형 양상을 볼 수 있다. 공연 건수의 경우보다 공연 횟수에 있어 이 '작은 M자형 곡선' 추이가 뚜렷하다.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월인 방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클래식 공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다회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12월까지 줄곧 이어간다는 점은 합창 장르와 비슷하다. 12월의 증가폭은 가장 높은 모습이다.

▌그림 27. 양악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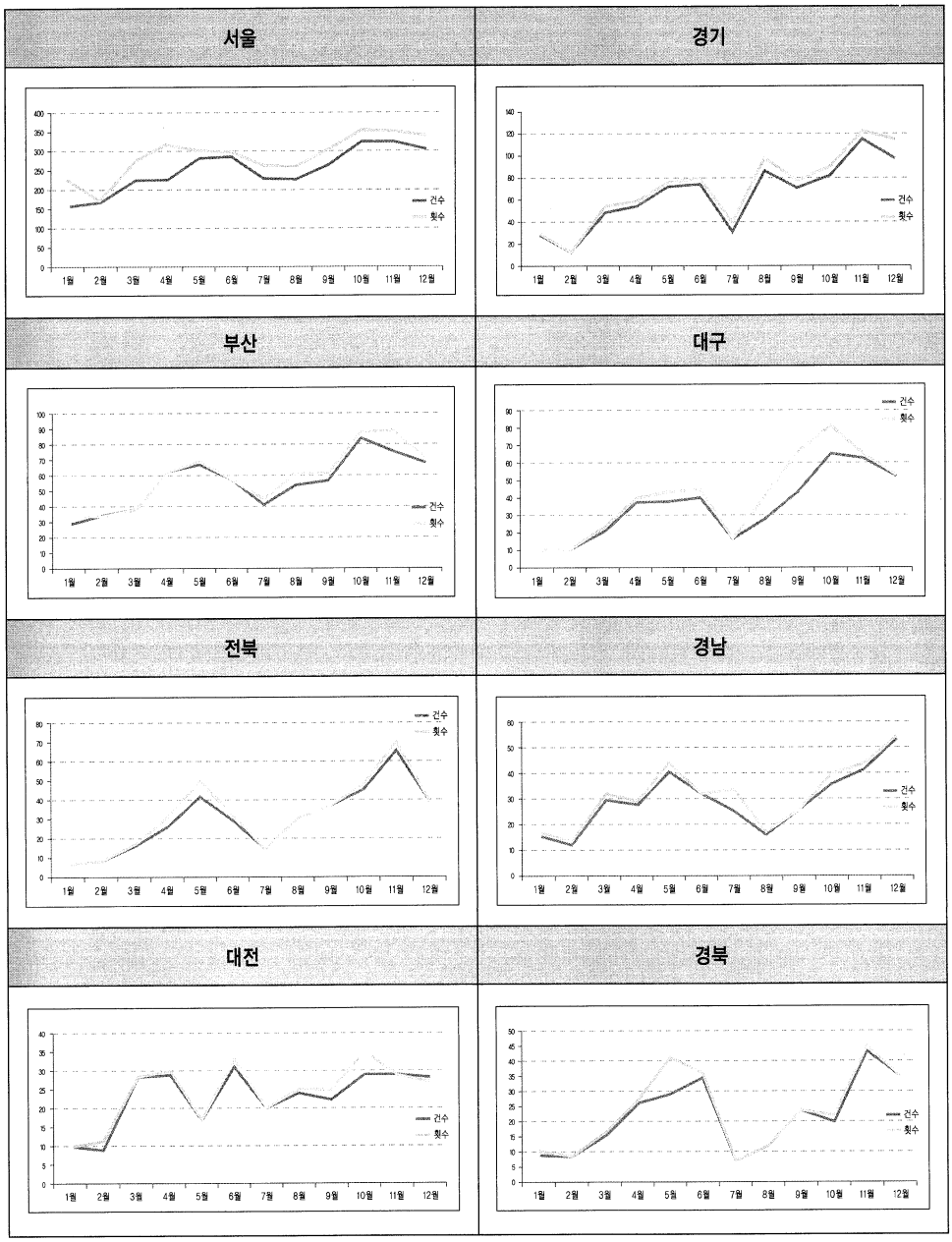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28	26	38	38	71	65	24	41	47	78	77	101	634
공연 횟수	28	26	48	39	79	69	32	41	64	82	80	106	694

15. 서울·수도권·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연중 고르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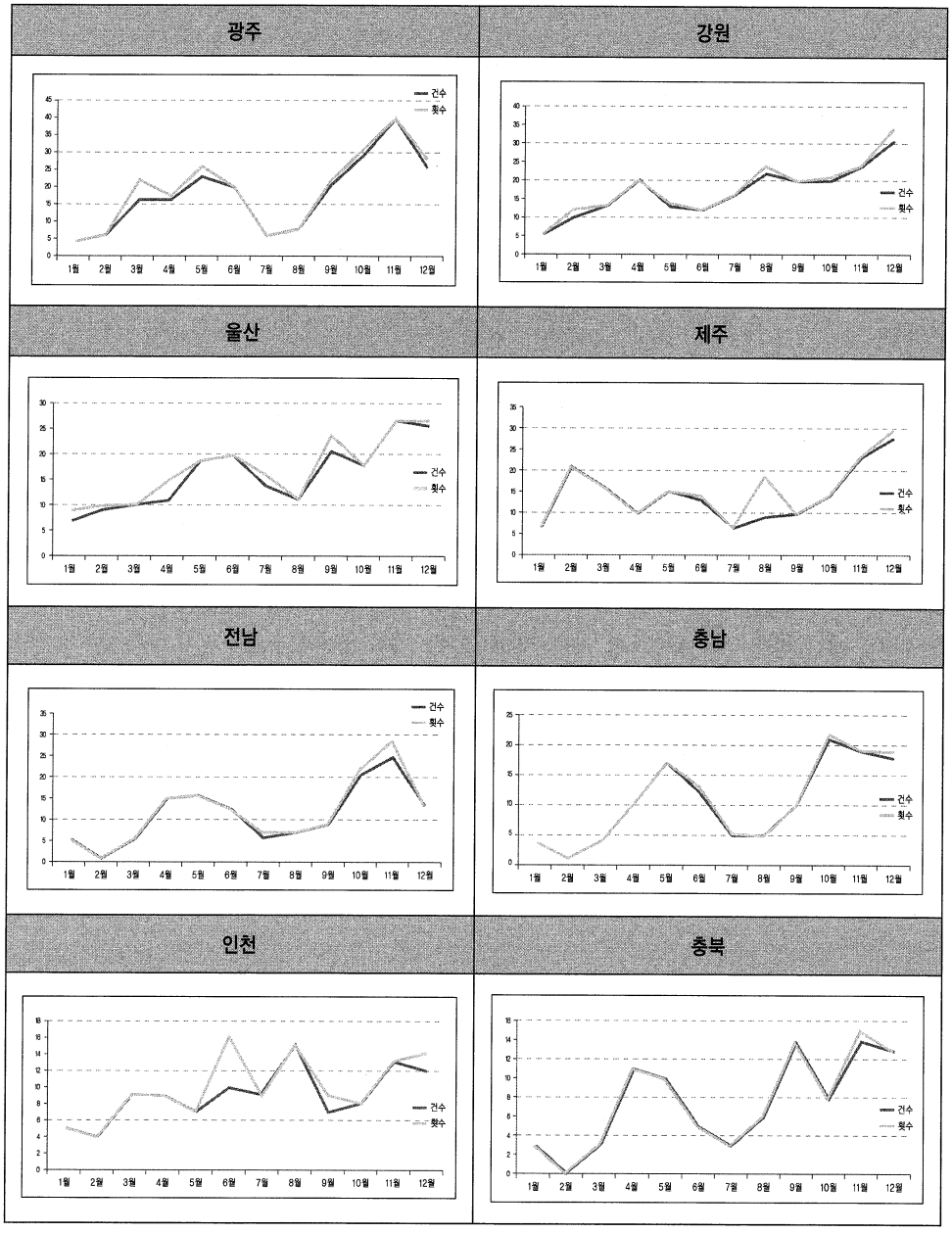
월별 추이를 지역별로 살피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비교적 연중 고르게 분포하는 편이다. 봄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다 여름에 주춤하고 가을부터 다시 상승하는 M자형 곡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그 기복이 매우 작다. 반면 전북, 전남, 광주, 충남, 경북 등은 비교적 뚜렷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을 보인다. 그 외 지역들은 정도나 기복에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공연 양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28. 16개 시도 양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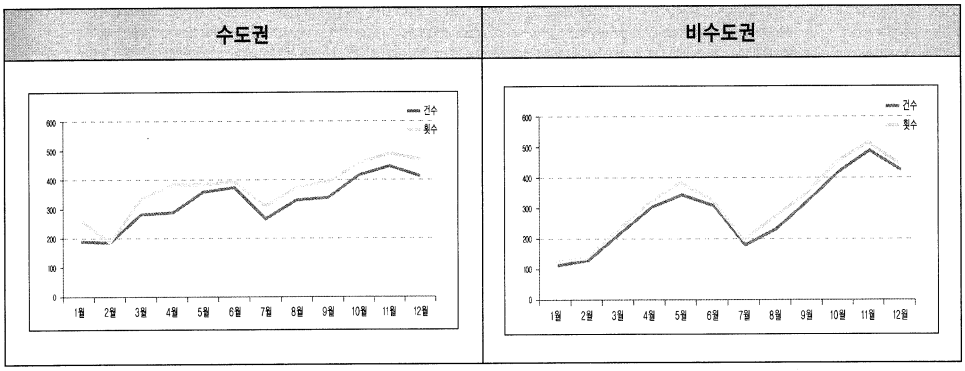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28. 계속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M자형 곡선의 흔적이 나타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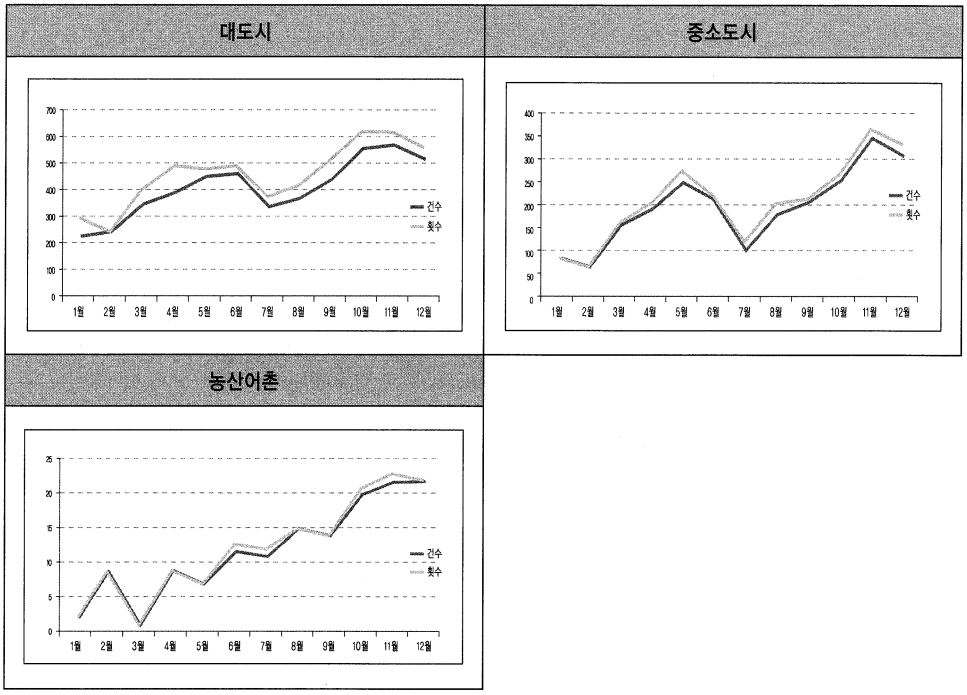
그림 29.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을 비교하면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고른 형태의 M자형 곡선을 보이지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은 연말로 갈수록 공연 양이 늘어나는 형태다.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비교하면 농산어촌의 변화가 더 극적이다. 양악 공연이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연말에 대부분의 양악 공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3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양악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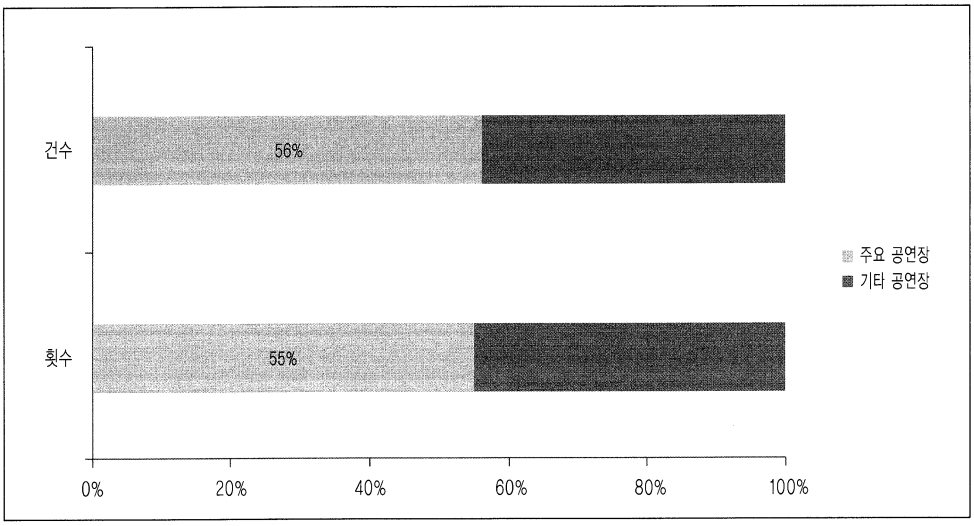


16. 주요 19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56%, 공연 횟수 55% 차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양악 공연이 1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19개다. 16개였던 전년도에 비하면 3곳이 증가했다.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 6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3곳, 부산, 광주, 대구가 각각 2곳, 대전, 울산, 전북(전주), 경남(창원)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19개 공연장이 전체 양악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56%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55%를 차지한다. 전년도에 비해 공연장 수는 늘어났으나 공연 건수와 횟수의 비중은 2~3%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전체 양악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주요 19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공연 건수·횟수 모두에서 예술의전당이 927건, 1,033회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가장 활발히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문화회관은 372건의 공연을 434회 진행해 그 뒤를 잇고 있다. 3위와 4위는 각각 금호아트홀(398건, 399회)과 영산아트홀(343건, 344회)이 차지했다. 이 두 공연장의 특징은 거의 모든 공연이 1회 진행된다는 것.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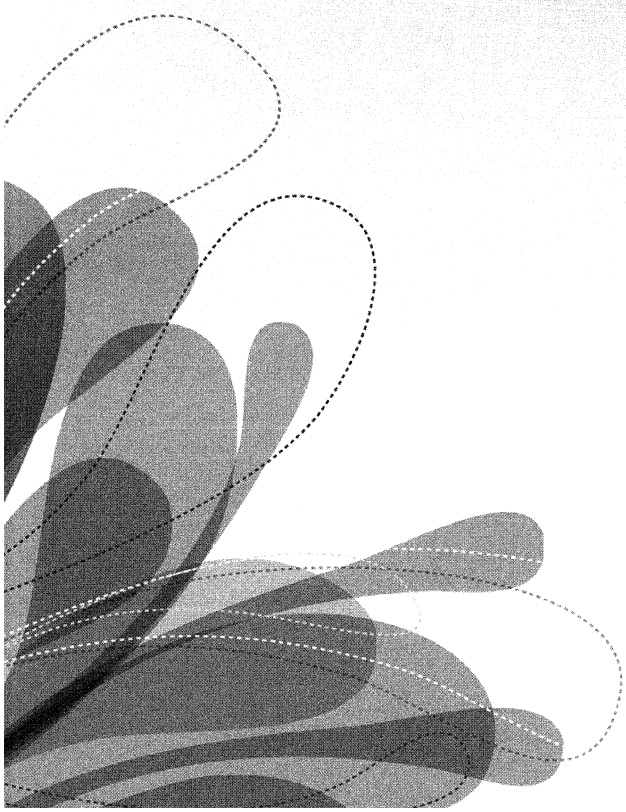
▌표 23. 연간 100회 이상 국악 공연이 열리는 주요 19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	927	1,033
세종문화회관(서울 종로구)	372	434
금호아트홀(광주 서구)	398	399
영산아트홀(서울 영등포구)	343	344
부산문화회관(부산 남구)	271	288
대전문화예술의전당(대전 서구)	226	242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 전주시)	208	219
성남아트센터(경기 성남시)	191	204
금정문화회관(부산 금정구)	159	169
울산문화예술회관(울산 남구)	139	145
광주문화예술회관(광주 북구)	131	137
우봉아트홀(대구 남구)	130	137
모차르트홀(서울 서초구)	123	126
성산아트홀(경남 창원시)	114	122
영산그레이스홀(서울 영등포구)	120	120
꿈의숲아트센터(서울 강북구)	38	120
고양아람누리(경기 고양시)	98	114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 수원시)	100	111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달서구)	79	101
계	4,167	4,5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 극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극 총론

공연제작 환경의 변화에 기대가 컸던 2011년 연극계

김 미 혜(연극평론가협회 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Ⅰ. 개관: 공연제작 환경의 변화와 공공 단체의 정체성 부재에 대한 담론의 계속

2011년은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1년을 훌쩍 넘겼고,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 이하 '한팩')가 활동을 시작한 지도 비슷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단체들을 지켜보는 연극계의 시선이 남달랐던 해였다. 그 때문인지 전년도에 불 붙기 시작한 공연제작 환경 변화에 대한 담론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월간 『한국연극』에서는 새해 첫 호부터 창작의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젊은 예술가(연극인)들은 변화에 대한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짚어 보았고, 연극제작을 위한 각 분야, 즉 연출, 극작, 배우(연기), 무대디자인 등에 종사하는 대표적 예술인들과의 좌담을 여러 호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또한 연극평론가협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연극평론』에서는 결국 한 편의 공연이 연출자의 수중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을호에서 '중극장 시대의 연출미학'을 특집으로 실었다. 언급된 두 잡지는 연극계의 바로미터에 해당하고, 연극계 담론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으므로 2011년 연극계의 핫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핫이슈 중에서도 국립극단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가장 뜨거웠다고 하겠다. 그만큼 국립극단이 어떤 면모를 갖춰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법인화 이후 예술감독 손진책의 지휘 하에 국립극단이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런 운영 시스템과 내용이 과연 국립극단에 걸맞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연극평론가 김미도는 『연극평론』 겨울호에

서 국립극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 레퍼토리 구성에 있어서는 상임연출가 세 사람의 운용에 대한 의아함, 프로덕션마다 흩어지고 모이는 배우 문제는 결과적으로 고정적인 레퍼토리 시스템의 구축을 어렵게 하리라는 것,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것, 연구소 이상의 활동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연구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그녀는 국립극단을 정말 '국립'답게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섯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지향점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둘째, 레퍼토리 선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다듬고 투명하게 공개하자. 셋째, 프로덕션 시스템과 상임연출을 비롯한 연출 초빙 시스템을 재고하자. 넷째, 공연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캐스팅 시스템을 연구하자. 다섯째, 중구난방의 기획물들이나 부대사업을 자제하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는 제언이었다. 한 평론가의 제언이었지만 1년 동안 국립극단에 대한 중론을 종합해 본 결과 중론과 많이 다르지 않았기에 모두 소개했다.

부언하자면 한 나라의 국립극단,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뿐인 국립극단이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고정적인 레퍼토리로 다듬어 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실험, 전통, 국가 브랜드 공연, 학술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다 해내겠다는 의지"(김숙현, 『연극평론』 겨울호)를 보인 것이 과연 국립극단의 진정한 정체성인지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것을 좀 더 거론하자면, 공동제작('페스티벌 봄'과 '가오싱 젠 페스티벌' 등)이 너무 잦은 건 아닌지, 프로덕션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해야 할 학술팀은 혹시 『연극』이란 잡지 만드는 일에 더 열심인 것은 아닌지, 상임연출가들은 적어도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되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은 꼬리를 문다. 결국 국립극단은 "정체성은 미약하고 의욕이 과하다 보니 아직은 산만하고 일부는 과욕으로 받아들여지는 면"(김방옥, 『연극평론』 겨울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루라도 빨리 "마치 한국 연극을 떠안는 강박"(김윤철, 『한국연극』 12월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립극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공간과 주변환경이다. 이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끌어내어 해결되어야 한다. 리모델링된 현재의 공연장들은 도저히 국립극단의 공연장들이라 보기 어렵고, 관객들이 관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전에 기다릴 수 있고 관극 후 차라도 마시며 공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립극단은 마치 피난처같이 초라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1, 2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의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여 제대로 된 국립극단의 공간을 마련한다니 다행이지만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 가시적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극단이 제대로 된 극장을 갖지 못한 탓에 그 여파가 한국 연극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 역시 중론이었다. 명동예술극장(극장장:구자홍)과 '한팩'(이사장:최치림)이 운영하는 대학로예술극장이 국립극단에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자체 제작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극장이지만 국립극단 출범 당시 전용극장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국립극단의 어떤 레퍼토리는 관객 수가 명동예술극장의 프로덕션들과 많은 편차를 보임으로써 자칫 명동예술극장의 이미지까지 손상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낳기도 했다. 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는 대관 시 국립극단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결국 다른 극단들의 몫을 깎아먹는 셈이 되었다. 비록 대관 날짜가 길지 않았다 해도 그 상징성 때문에 결국 군소 극단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극단에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다 보니 연극계가 '한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다. '한팩'은 어쨌든 공연예술 '센터'이기 때문에 연극과 무용을 함께 관장하고 있고, 주최·주관·자체기획·공동기획·예술교육·대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팩'은 기존 예술단체들에게 간접지원을 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차세대 공연예술가의 체계적 발굴, 새개념 공연예술 작품 육성, 주제별 공연 작품 육성, 지속 가능한 공연 활성화,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연극 쪽만 이야기하자면—차세대 연출가 및 극작가 육성, 실험과 대안의 모색, 작가별·주제별·경향별·시대별에 따라 주제별로 동 시대의 이슈를 반영하는 공연들과 우수극단의 대표작 레퍼토리 공연을 통한 브랜드 작품 개발에 더해 국제 공연예술 관련 협회들과의 협력을 실행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부지런한 행보 덕에 '한팩'이 운영하는 대학로예술극장은 공연 건수에서—물론 무용까지 합친 것이긴 하지만—전국의 공사립 극장들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연 횟수는 7위인 것으로 보아 공연 레퍼토리가 다른 어느 극장보

다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팩'의 활동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예전처럼 연극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축제가 '한팩'으로 유입되었을 때 그간 5년 동안 김철리 예술감독이 쌓아 놓은 국제적 네트워킹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까, 또 예술감독의 이원화(연극:서재형, 무용:안애순)가 외국 작품들의 초청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걱정했었다. 2011년, 서재형 예술감독은 "논쟁이 필요한 작품들을 들여오고 싶었다"(『한국연극』 10월호)며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관객에게는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려는 의지까지 피력했지만 우선 해외작업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었던 데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 많은 것이 뜻 같지 않았던 것 같다. 총 8개국 37단체가 참여하여 연극(12편), 무용(13편), 복합 장르(13편)가 공연되었지만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규모를 전의 수준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자연 "좀 더 아방가르드하고 실험적인 소규모 연극들이 많았던"(김소연, 『연극평론』 겨울호) 축제였다. 또한 국내 출품작들 중 괄목한 만한 공연이 없었다는 것도 중론이었다. 특히 탈장르 경향의 퍼포먼스가 많아 '봄 페스티벌'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중론이 있었으니 '한팩'에서는 앞으로 국내 출품작의 선정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는 국립극단이 참여하지 않아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립극장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터'만 제공한 셈이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국립극장과 국립극단은 동의어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아니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전통예술 분야만 속해 있는 국립극장의 공식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막작으로 독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가 연출한 <수궁가>, 로버트 윌슨이 연출한 체코 프라하국립극장의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프랑스 코메디 프랑세즈의 <상상병 환자> 등 수준 있는 공연들은 돋보였다.

공연제작 시스템의 변화와 줄어든 지원금 때문에 연극계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공연 건수는 전년도 2,706건에 비해 3,480건으로 상당히 늘어났다. 물론 뮤지컬이 2007년 꼭짓점을 찍고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탄 것과 아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청소년연극이 어느 해보다 많이 공연된 것에도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는 중소 극단들이 어려운 제작여건 속에서도 레퍼토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 중소 극단들 중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창단 4반세기를 맞이한 극단들도 있었다. 대학연극반 출신들이 모여 만든 극단 '작은신화'와 이윤택이 부산을 거점으로 만든 '연희단거리패'가 그들이다. 이들의 활동과 역사가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60년대 수많은 동인제 극단들이 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반세기 전후가 된다. 그러나 그중 후계자를 키우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은 사실 몇 되지 않는다. 대표 한 사람의 '장기집권' 체제가 끝나면 그 생명이 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에 비해 작은신화는 '우리'의 의미를 중요시하며 '우리 연극만들기' 시리즈 등에서 젊은 연출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연희단거리패 역시 밀양연극촌과 전용 게릴라 극장의 운영에 있어 부지런히 후배들의 젊은 피를 수혈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극단의 관심사가 아니라 한국 연극이 역사성을 갖는 데 일조하는 중요한 태도다. 많은 극단들이 이들을 모델로 삼아 몇몇 선배들과는 달리 좀 더 역사의식을 갖고 활동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II. 주요 축제들 및 주요 흐름과 공연 성과

이상기후로 가끔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한국은 역시 봄과 가을에 날씨가 좋아 이때가 축제의 계절이다. 축제 시즌에는 당연히 공연 건수가 가장 많다. 2011년에도 별 특이사항 없이 대략 예년과 비슷하게 5월과 6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공연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연 횟수는 3월에서 7월까지가 가장 많았고, 9월과 10월이 이에 조금 못 미쳤다.

위에 언급했듯 아동청소년연극의 상승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특히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서울과 많은 편차를 보이는 여러 지역(경북, 전북, 광주, 충남, 인천)에서 아동청소년연극은 성인극에 거의 육박하고, 강원, 전남, 충북 등은 오히려 더 잦았다. 지역 연극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공연은 늘 그렇듯이 아동들이 방학을 맞는 7월에 가장 잦았고, 3-5월의 봄에도 미래의 잠재관객을 위해 공연이 많았다.

본격적인 축제 시즌에 들어가기 전 각 신문사에서 공모하는 단막극들을 모아 '신

춘단막극전'이 열리고, '페스티벌 봄'은 3-4월에 걸쳐 열린다. '페스티벌 봄'은 예년에 비해 아쉬움이 있었다는 중평이었으나 나름대로 '탈중심'이라는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 초청작 중에서는 토시키 오카다 연출의 <핫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가 단순한 내용이지만 독특한 공연성을 보여주었고, 르네 폴레슈(René Pollesch)의 <망상의 사회적 맥락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Ich schau dir in die Augen, gesellschaftlicher Verblendungszusammenhang!*>는 배우 힌리힌스의 1인극으로서, 그는 신체극과 렉처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국제금융위기의 기만적 실체를 파헤쳤다. 많은 질문들이 내던져지고 종국에는 연극 형식에 대한 성찰에까지 도달하는, 한국 관객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공연이었다. 한국 출품작 중에서는 서현석의 <헤테로토피아>가 주목을 끌었다. 철거를 앞둔 세운상가 공간에서 벌어진 이 작품은 이미 지난해 초연되었으므로 재공연이었으나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부딪친 현실을 기존의 공연장이 아니라 소위 '발견된 공간'에서 보여준 공연이었다.

4-5월에 걸쳐 '연극, 우리 시대의 거울-이슈!'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연극제가 열렸다. 공식참가작이 8편이었는데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작·연출:손기호)와 <만선>(작:김원/재구성·연출:신동인>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자는 '2010 창작팩토리' 희곡 당선작이었고, 후자는 서울연극협회가 공모한 '2010 희곡아 솟아라!'에서 선정된 희곡이어서 희곡 발굴의 다양한 채널이 조금씩 작동하며 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이었던 김의경은 "설익은 과일을 너무 먹었다는 느낌"을 가졌다며 우리 연극이 "여전히 아마추어"라고 후배들에게 일침을 가했다(『한국연극』 6월호).

본격적인 축제 시즌인 5월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특히 지역 축제들이 많았다. 춘천마임축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부산국제연극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이 열렸는데 대부분 '국제'라는 라벨을 붙이고 있다. 춘천은 11개국 13개 극단, 의정부는 7개 작품, 부산은 7개국 19개 작품, 안산은 4-5개의 거리극 예술단체를 외국에서 초청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것이지만 초청된 외국 극단이나 연극인들이 그 지역에서만 단발적으로 공연을 하고 돌아가는 형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축제들의 경우도 지역까지 순회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마찬가지다. 어디가 거점이 되었든 지역들 간에 연계가 이루어져 한 번 초청하기 힘든 외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공연할 수 있다면 매우 경제적인 데다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공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개막작이었던 <빵만으론 안 돼요>는 세계 유일의 전문 장애인극단(이스라엘의 날라갓 극단)의 작품이었다. 작품 수준을 떠나 작품 제작에만 2년이 들었다는 장애인 단원들의 노고를 여러 지역의 관객들이 보았다면 분명 많은 감동과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계 프로그램은 네트워크가 잘 짜여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내 단체끼리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공공극장들끼리만이라도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지만 각 극장들의 운영 시스템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수도 및 연극 중심지의 극장들과 지역극장 간의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며, 훌륭한 작품이 지역의 극장에서 먼저 초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는 단계가 되어야만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줄어들고 서울과 지역 관객 양쪽 공히 공연 체험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에도 서울의 공연 건수/횟수가 1,029/48,606인 데 비해 서울에서 잠시면 갈 수 있는 인천은 59/264로 그 격차가 너무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6월에 열린 '전국연극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 예선을 거쳐 각 지역 대표작들이 경연을 하는 형식이다. 이 연극제의 의미는 전국의 연극인들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점이다. 창작극만으로 경연하는 이 축제에는 재공연들도 있었지만 박홍진, 천명관, 정경환, 김창일, 김행임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 초연된 것이 눈에 띄었다. 초연의 경우 그 작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장이 된다는 것도 '전국연극제'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로 보인다. 2011년의 특기사항은 모스크바 국립 드라마 예술극장인 예르몰르 브이와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이 참여한 점이다.

연륜이 깊은 전국연극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지역의 창작극들로 꾸려지며 9-10월에 걸쳐 공주에서 열리는 '고마나루전국향토연극제'를 미리 언급해야겠다. 이 연극제는 다양한 뉘앙스와 음악성을 지닌 토착어들을 연극을 통해 보존하면서 그 활용을 유도하고, 각 지역의 토착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무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야외극 형식을 통해 한국 전통의 공연기예를 가다듬고 새로

운 표현방법을 창출해 보자는 것 역시 이 연극제의 목적이다. 2011년 8회를 맞았던 이 연극제에는 총 9편이 참가하여 다른 연극제와는 다른 독특함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 주긴 했으나 아직 10회도 넘기지 않아 주최 측의 진행 열정이 위축되어 있어 관객과 연극인들 상호 간의 만남의 장, 정보 교류의 장, 축제의 장으로서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이었다(송전, 『한국연극』 11월호).

6-7월의 주요 페스티벌로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들 수 있다. 마침 연희단거리패가 창단된 지 25주년이 되어 2011년의 프로그램은 유난히 다채로웠다. 공연은 물론 25주년 기념자료 전시도 하고 워크숍도 열렸다. 가장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10회를 맞은 '젊은 연출가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가 커지고 있고, 젊은 연출가들의 도약의 장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순회공연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계속 재공연되고 있는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밤의 꿈>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경연과 경연 부문으로 나뉘는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극평론가 김문홍은 2011년 '젊은 연출가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수확을 지역 연극의 약진으로 보았다(『한국연극』 9월호). 그는 지역 연극의 약진에 비해 서울 지역 연극의 침체를 거론하면서 "연출가가 작품을 쓰고 연출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관객과의 소통 부재와 메시지 증발이라는 치명적 결함"(같은 글)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대상은 안산 지역의 극단 걸판의 <그와 그녀의 옷장>(작·연출:오세혁)이 차지하였다.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있지만 결코 민족극 계열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작품은 "단순명료한 희곡의 선명성, 거리두기의 절제된 연기 양식, 비분강개보다는 따뜻한 시각의 현실 바라보기"(같은 글)의 미덕을 갖춘 작품이었다.

밀양 축제에도 영국, 독일, 일본의 연극인들과 해외 공연 팀들이 초청되었다. 그 중 독일 출신 연출가 알렉시스 부크가 브레히트의 <아르투로 우이의 출세 *Der unaufhaltsame Aufstieg des Arturo Ui*>를 연희단거리패 배우들을 데리고 연출했다. 밀양에 갈 수 없었던 관객들은 서울의 게릴라 극장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삭제되고 배우의 신체를 과도하게 사용해 브레히트 원작이 갖는 역사성과 사회성 등 브레히트 작품의 맛을 느끼긴 어려웠다. 그러나 지역의 축제에서 공연하고 다시 서울에서도 공연하는 포맷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하나 이 포맷도 연희단거리패가 서울에 전용극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었다.

인구 7만의 소도시 거창에서 2011년에도 7-8월에 걸쳐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렸다. 23년이라는 연륜에 걸맞게 이제는 관객 수가 지역 인구의 배가 넘는 15만 명에 이르고 있고 주관객이 여름 피서객이라 사실적인 작품보다는 뮤지컬, 마당극, 악극, 타악 퍼포먼스 등 극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연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제'라는 라벨이 붙은 만큼 해외 공식 초청작 3편에다 독일과 스페인의 거리극도 참가했다. 해외 초청작 중 벨기에 극단 베스프로스바니의 <프로메테우스>는 "배우의 움직임, 내레이션, 라이브 음악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세계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미지극"(김소정, 『한국연극』 9월호)으로 만들었고, 인도의 다르파나 극단의 <그때 지금 영원>은 "인도의 전통무용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댄스시어터 계열의 작품"(같은 글)으로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거창의 연극제는 특히 '자연, 연극, 인간'을 모토로 여름의 자연을 만끽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연들과 만난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장충동 국립극장의 네 군데 공연장들을 모두 활용하며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이 다섯 번째로 8-10월에 62일간에 걸쳐 열렸다. 총 9개국의 30개 작품은 연극, 창극, 발레, 현대무용과 전통무용, 그리고 전통음악 등 공연예술의 전 장르를 넘나들었다. 개막작은 이미 언급했듯 독일의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Achim Freyer)가 연출은 물론 무대, 의상, 조명 디자인까지 맡은 국립창극단의 <수궁가>였다. 판소리 오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작품은 "미완의 실험"(이미원, 『연극평론』 겨울호)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외국 오페라 연출가의 관점을 통해 판소리라는 장르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존의 타성적인 창극적 극화를 확 깨어버린 것은 아주 통쾌한 시도"(김방옥, 같은 책)였다고 본 시각도 있었다. 어쨌든 아힘 프라이어의 <수궁가>가 판소리를 이어받은 창극 세계화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폐막작은 소위 '국가브랜드 공연'이라고 하는 <화선, 김홍도>(작:배삼식, 연출:손진책) 였다. 걸출한 작품이 만들어지면 곧 국가브랜드가 되는 것인데 예술작품에 처음부터 '국가브랜드'라는 명칭을 붙여 꾸려 넣는 양상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라벨은 붙어 있었고, 재단법인이 되어 국립극장에서 독립한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립극장 측으로 보면 산하 단체들인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의

합작으로 기획할 수 있었고, 국가브랜드라는 라벨을 붙여야 예산분배가 용이하므로 이루어진 공연이었다. 마치 3D 영상을 보는 것 같은 형식에 김홍도의 그림을 좋아하는 두 한량이 과거 화선(畵仙)이 살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의 그림들과 함께하는 내용이었을 뿐 관직도 얻었었던 김홍도가 왜 하필 민중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는지에 대한 치열한 천착은 없어 유감이었다. 그러나 국립극장 측은 이 작품을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손질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바람직한 제작과정을 보였다.

해외초청작 중에서는 이미 언급했던, 로버트 윌슨이 프라하국립극장(Narodni Divaldo)과 같이 만든 <마크로풀로스의 비밀 *The Makropulos Case*>과 코메디 프랑세즈의 <상상병 환자>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체코 극작가 차페크(Karel Čapek)의 원작을 연출한 로버트 윌슨의 형식에서 크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337년을 살고도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가시화한 <마크로풀로스의 비밀>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윌슨 특유의 형식으로 보여준 공연이었고, 몰리에르의 <상상병 환자>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극단의 매우 잘 훈련된 배우들이 전혀 희극적이지 않은 듯한 연기로 희극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희극이면 웃겨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한국 연출가들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한 공연이었다.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은 따로 예술감독을 두지 않고 국립극장 내의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규모에 비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맹점으로 지적되었고, 축제기간이 너무 긴 데다 페스티벌과 맞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데 묶인 백화점식 운영에 대한 비판, 즉 정체성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내 출품작들의 낮은 수준에 대한 실망도 표출되었다. 다음 해부터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11월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로 관객의 발길이 바빠진다. SPAF 프로그램은 연극과 무용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극 쪽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겠지만 사실 탈장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장르의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 2011년에는 해외작 10편과 국내작 27편이 관객과 만났다. 해외작품은 "대체로 진보적인 퍼포먼스 일색"이었고 국내작품은 "올드패션"(김방옥, 같은 책)이었다는 것이 중평이었다. 해외 초청작 중 독일의 갑 스쿼드(Gob Squad) 극단의 <바로 당신의 눈앞에 *Before Your Very Eyes*>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유리 상자 속에 들어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있는 7명의 아이들이 죽음이란 추상적 개념을 상상력과 기억을 통해 '가지고 놀면서' 성인 관객들을 죽음에 대한 사유로 이끈 놀라운 공연이었다. 우리에겐 왜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 질문인 삶과 죽음을 담론으로 삼는 공연이 드문 것인지 아쉬워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공연이었다. 또한 인위적 공연 상황과 현실이 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서울역 KTX 역사 계단에 앉은 관객들도 결국 지나가는 행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백 투 백 시어터(Back to Back Theatre)의 <작은 금속 물체 *small metal objects*> 역시 발견된 공간에서의 공연이라는 점이 전혀 새로운 형식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란 무엇이고 진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독려하는 작품"(최영주, 『한국연극』 11월호)이었다.

2011년에 열린 중요 축제들을 일별하고 보니 연극계가 축제나 행사 중심의 공연들과 대학로의 수많은 소극장 무대에서 올리는 공연들로 이원화된 것 같은 현상이 읽혀졌다. 사실 연극평론가들은 외국에서 오는 공연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적어도 축제 기간 중에는 대학로 공연들에 대해서는 소원해지게 된다. 한데 외국에서 오는 좋은 공연들은 평론가들보다는 연극인들, 특히 연출가들이 많이 보아야 한다. 그들은 모방하게 될까 봐 보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술에서 받은 영감은 많이 알수록 자주, 많이, 더 다양하게 떠오르는 것이라고 여러 미학 관련 책자에 쓰여 있다. 즉 생각이 깊어지며 시야가 트이고 넓어진다는 의미다. 연극인들이 좋은 공연을 보지 않는 현상 때문에 축제나 행사마다 외국 단체를 초청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자조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세계의 시민으로 살고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극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연말에 여러 단체에서 베스트로 뽑은 공연들도 살펴보자. 먼저 월간 『한국연극』의 '올해의 베스트 7'은 초연 연극으로는 극단 백수광부의 <미친극>(작:최치언, 연출:이성열), 명동예술극장의 <우어파우스트 *Urfaust*>(작:괴테, 연출:David Bösch), (재)국립극단의 <주인이 오셨다>(작:고연옥, 연출:김광보), 신시컴퍼니&남산예술센터의 <푸르른 날에>(원작:정경진, 각색·연출:고선웅)를, 우수 재공연으로는 목화레퍼토리컴퍼니의 <템페스트>(원작:셰익스피어, 번안·연출:오태석)를, 아동청소년연극으로는 어린이문화예술학교의 <쉬반의 신발>(원작:Tim Crouch, 번역·윤색:박연

진, 김숙희, 연출:Brigitte Dethier)을, 해외우수 공연으로는 갑 스퀴드의 <바로 당신의 눈앞에>를 선정했다. 연극평론가협회의 '베스트 3'에는 <템페스트>, <푸르른 날에>, 그리고 연극제작센터의 <못생긴 남자>(작:Maria von Maienburg, 연출:윤광진)가 선정되었고, 동아연극상 대상은 <템페스트>에 돌아갔다.

차범석 희곡상 당선작인 <푸르른 날에>는 2011년 초연된 작품들 중 베스트로 뽑힌 셈이다. 80년 광주를 소재로 했지만 "서사극적 소외 효과, 신파성과 통속성, 희극적 과장과 놀이성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거리감"(장성희, 『한국연극』 7월호)을 창출해 낸 공연은 희곡에서 줄거리의 뼈대만 남기고 연출자 고선웅이 대대적으로 손을 본 각색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작품이 2011년의 베스트가 된 이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80년 광주라는 "무거운 소재의 엄숙성을 비껴가면서도, 광주항쟁의 디테일한 재현, 살아남은 자에게 가해진 고문, 비겁자라는 모멸감과 속죄 같은 역사적 사후성까지 촘촘히 재현"(같은 글)해 냈기 때문일 것이다. 신시컴퍼니와 공동제작이긴 했지만 남산예술센터는 <푸르른 날에>의 공연에 힘입어 극장의 정체성을 잘 살리고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더군다나 이 극장은 거의 모든 프로덕션에 드라마투르그들을 잘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레퍼토리 선정이 극장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동안 늘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던 오태석의 작품 만들기가 <템페스트>에서 환골탈태되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오태석에 의해 완벽하게 한국화되었으며 초연 때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원작에서 해석해 낼 수 있는 제국주의적 시각 등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간 오태석이 노력해 온 연극의 "결정판"(김숙현, 『연극평론』 겨울호)이라는 평가였다. 주로 자작 희곡을 연출해 왔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점이 오태석 연극의 맹점으로 지적되곤 했지만 <템페스트>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기대어 원숙한 연출가의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로 승화되었다는 중평이었고, 여러 극장에서 재공연되는 성과를 올렸다.

명동예술극장의 <우어파우스트>는 『한국연극』의 베스트 7에만 선정되었지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 언급할 가치가 있다. <우어파우스트>는 제작극장인 명동예술극장이 최초로 외국 연출가를 초빙하여 만든 작품이었고, 개관 이래 최다 관객을 모았으며 메피스토펠레스 역을 맡은 이남희가 대한민국연극상과 동아연극상에서 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시에 남자배우상을 수상했다. <우어파우스트>는 <파우스트> 1부의 초고 격으로 20대의 괴테가 쓴 단편(斷片)들로 이루어져 있어 연출자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독일의 젊은 연출가 다비드 뵈시(David Bösch)가 21세기 오늘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 때문인지 이 공연은 과거 명동 시절에 향수를 지닌 명동예술극장의 중장년층 주관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어렵지 않은 <파우스트>로 다가와 호응을 얻었다.

<못생긴 남자>는 게릴라 극장이 기획한 '하이너 뮐러 페스티벌'의 참가작으로 특히 작가가 브레히트-뮐러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공연되었다. 외모가 성공을 좌우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까지 상실해 가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희극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심각한 병폐와 맞아떨어져 매우 시의성 높은 작품이긴 했지만, 구성과 스토리라인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극이 시작되면 이내 끝이 보이는 공연이었다. 거명된 공연들 이외에도 국립극단의 백성희장민호극장의 개관작이었던 <3월의 눈(雪)>은 국립극단 창립 때부터 국립극단의 무대를 지켜 온 두 원로배우에 대한 오마주로서 의미 있었다.

이제까지 다양한 축제들의 내용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일별했지만 2011년 연극계의 가장 큰 특징은 뮤지컬과 아동청소년연극의 약진이었다. 뮤지컬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연극보다 훨씬 더 자주 공연되었다. 이는 한 뮤지컬 작품이 지역에서 장기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흥미롭게도 공연 건수와 횟수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강원도는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편차가 거의 없었으며, 경남과 광주는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연극의 경우도 연극보다는 뮤지컬 형식이 거의 7배가 될 정도로 차이가 컸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아동청소년들을 우선 극장에 오게 하는 데는 이해하기 쉽고 감성을 자극하는 뮤지컬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성인이 되어 인생과 우주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역시 어려서부터 연극을 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극단의 아동청소년연구소가 현재는 연구는 물론 공연까지 하고 있지만 극장 건물이 세워졌을 때 반드시 아동청소년 전용극장도 마련되어 미래의 잠재관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했으면 한다.

1993년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강홀이 개관된 이후 2007년에 아트센터로 명명된 '두산아트센터'는 기업이 출연한 사설 극장이지만 튼실한 프로그래밍으로 꾸준하게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극장인 연강홀이나 소극장인 스페이스 111 모두 공연예술 장르 전체를 아우르지만 연극은 후자의 공연장에서 자주 상연되고 있다. 2011년에는 괄목할 만한 연극 작품이 없었지만 차세대 작가들과 연출가들을 공히 인큐베이팅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LG아트센터'는 우리에게는 꽤나 생소한 음악극 <그 집에 갔지만 들어가진 않았다>로 관심을 모았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연출가인 하이너 괴벨스(Heiner Goebbels)가 연출한 이 작품은 2008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세계 초연되었다. T. S. 엘리엇, 모리스 블랑쇼, 프란츠 카프카, 사뮈엘 베케트의 텍스트들을 조합하여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에 출연한 영국의 4인조 남성 보컬 '힐리어드 앙상블'의 움직임이 너무나 미니멀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관객의 숨을 죽이게 한 이 공연의 화두는 "'망설임'과 '실패'"이며 이는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김형기, 『연극평론』 여름호)을 극대화하며 드러났다. 한국 관객들은 "'존재의 집'에 조차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무엇인가 파악할 수 없고 불명료하며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부유(浮游)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것도 아름다운 아카펠라 음악과 대비적으로 제시"(같은 글)한 이 공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형식을 만날 수 있었다.

2011년 연극계의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및 복합 장르에 이르기까지 공히 창작극이 훨씬 더 많이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창작극은 연극의 경우 번역극의 거의 3배에 이르렀고, 뮤지컬에서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부진한 창작극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연극제가 생겨났었고, 창작활성화 기금을 책정해 극작가를 지원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갖게 된다.

연극과는 달리 '시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고, 주지하다시피 전체 공연예술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뮤지컬은 2007년 최고 정점을 찍고 내리막이었다가 2011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발하게 공연되었다. 라이선스와 순수 창작품, 소극장과 대극장 뮤지컬 등 제작 형식이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훨씬 다양한 데다 관객의 시청각적 감성을 자극하는 뮤지컬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르로 보인다. 2011년에는 대극장 뮤지컬만 해도 43편이 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되어 전년에 비해 7편 증가했으며 매출은 최고 정점이라고 평가되는 2007년보다도 대략 600억 원 증가해 2,200억 원을 상회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두 개의 대형 뮤지컬 공연장인 신도림 디큐브 시어터(1,242석)와 한남동 블루스퀘어(1,767석)가 새롭게 개관했다. 2012년에는 대학로에 뮤지컬 공연장인 CJ 아트센터가 개관될 것이니 '연극의 메카' 대학로의 풍경도 많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에도 여전히 <지킬 앤 하이드>, <바레카이>, <아이다>, <맘마미아>, <캣츠>, <삼총사> 등 라이선스 뮤지컬이 주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창작뮤지컬이 분명 '뉴 웨이브'(박병성, 『The Musical』 12월호)를 이루어 가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공연들로는 <광화문 연가>, <셜록홈즈>, <모비딕> 등이 있었다. 이들이 메이저 회사가 아니라 신생 제작사들의 작품이라는 것도 특기사항이었다. 또한 관객 분포도로 볼 때 20-30대의 젊은 층이 감소하는 대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뮤지컬의 상승세를 담보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Ⅲ. 결론 및 제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연극계는 여러 면에서 예년 수준에 못지않았던 해였다. 페스티벌들도 국제적 규모로 변모한 지 꽤 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적 체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보다 규모가 큰 연극시장을 가진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페스티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연극문화가 척박한 지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들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들보다 지역 축제들이 명칭에서부터 색깔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정체성을 갖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공연예술에서 탈장르 현상은 세계적 현상이므로 각 페스티벌들이 뚜렷한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1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페스티벌 봄'의 차별화는 찾기 어려웠다는 중론이었다. 주관단체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래 공연제작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세이고, 그에 따라 국공립 단체들의 정체성 부재에 대한 논의 역시 2011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고급

스러우면서도 대중적인 공연들로 늘 평균 이상의 관객동원을 하고 있는 명동예술극장과 남산예술센터는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2011년에도 좋은 작품들을 공연했다. 전자의 <우어파우스트>, 후자의 <푸르른 날에>가 그런 공연들이었다. 혹자는 색깔이 다른 이 두 극장에 같은 연출가들이 객원 연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출인력의 풀이 빈약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한 연출가가 너무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는다는 것은 예술작업에서 다양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비난받을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대개의 연출가들이 자신의 극단을 갖고 있는데 객원 연출 작업으로 늘 바쁘다면 그 극단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대학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설극단들은 2011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어려움의 화살은 자연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갔다. 순수예술인 연극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정책적 지원 없이 연극이 생존하기 어려운 것은 정도의 차이뿐 어느 나라나 똑같다. 소액다건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평등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는 쉽게 집중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동안 그런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예술창작에서 늘 좋은 작품이 나오기 힘든 데다 집중지원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모순이 해결될 수 없었고, 그런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극단들의 불평 또한 만만치 않았다. 누가 보아도 설득력 있고, 지원금이 진정으로 예술창작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관객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시작된 '사랑티켓'제도가 2011년 20주년이 되었다. 그간 재원이 문예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전환되었고,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했으나 이 제도로 연극관객이 현격하게 증가했음은 분명하다.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극단별로 20-30%의 관객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분명 서울 편중 현상을 보였지만 지역 문예회관들이 건립된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분야도 연극에서 전 공연예술 장르로 확대되었다. 특히 근자에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우들과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최상의 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책이 꾸준히 개발되기를 바랄 뿐이다.

연극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인생길의 선택이 아님에도 이 길로 들어선 연극인들이 가능하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필자는 늘 바라고 있다. 전혀 지원금 없이 시작된 미국의 오프 브로드웨이 극단 중 리빙 시어터(The Living Theatre)를 이끌었던 줄리안 벡(Julian Beck)은 1984년 이런 말을 했다. "예술은 지각(知覺)을 열어 주고 우리의 비전을 바꾼다. 예술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리얼리티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는 장님이리라 생각한다. 우린 우리 자신을 공부하기 위해 극장에 간다. 연극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한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New York Times, 1월 15일) 그렇다. 연극은, 예술은 우리가 정령 인간임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데 꼭 필요한 사회 인프라다. 2011년 연극계의 여러 활동과 성과를 일별하고 줄리안 벡의 말이 상기되었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활동한 모든 연극인들에게 자긍심을 갖자고, 또한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이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어졌다.

연극 현황분석

2011년 연극 현황분석

황 윤 숙(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1. 연극 공연의 연도별 추이

최근 5년간 문예연감 편람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극 공연의 양적인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연극의 경우 2008년 이전의 편람은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이고, 공연 횟수가 아닌 공연 건수만 수집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본다면 함께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차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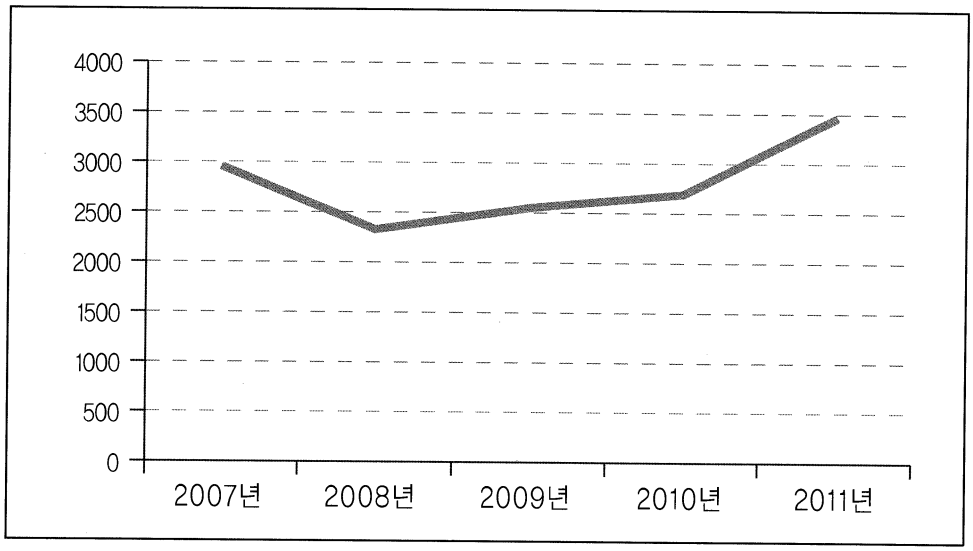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연극은 연간 평균 약 2,816건이 공연되었다. 전년도에 최근 5개년 평균이 2,651건이었던 것에 비해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자료조사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편람에서 2,347건으로 건수가 낮아졌었지만, 2010년 결과에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조사방법을 보완해 연극 공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경로를 확대한 2010년에는 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2,706건 수준을 나타냈고 2011년 3,480건으로 129%가량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1. 최근 5년간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건수	2,983	2,347	2,568	2,706	3,4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 최근 5년간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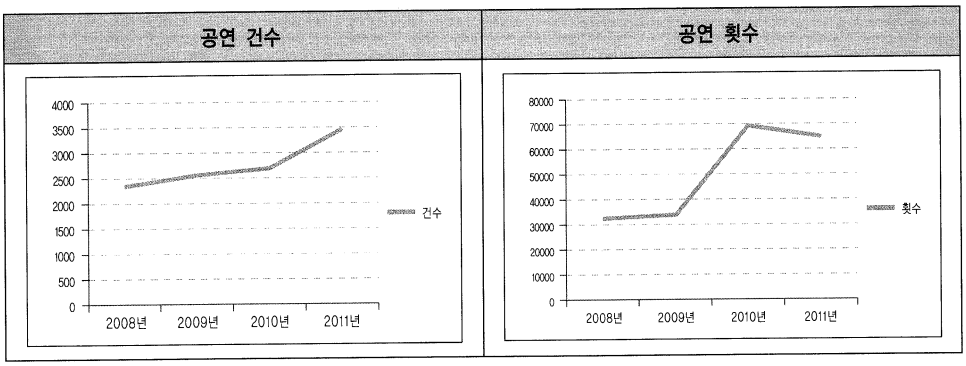


문예연감의 편람작성을 위한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된 2008년 이래로 공연 건수와 함께 공연 횟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비율은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평균 몇 회 정도 상연되는지 보여준다. 2008년은 13.9회, 2009년은 13.2회로 1개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25.5회로 급증한 뒤 2011년 18.8회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장기공연 형태의 공연이 증가하는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2. 2008~2010년의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건수	2,347	2,568	2,706	3,480
공연 횟수	32,647	34,001	69,078	65,342
공연 건수/공연 횟수 비율	13.9	13.2	25.5	18.78

▌그림 2. 2008~2010년의 공연 건수 및 공연 횟수 비교 ▐



2. 연극 내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2011년 문예연감은 기존 연극 편람의 분류 기준에 따라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세부 분야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피면 한 해 동안 각 분야별 공연이 양적인 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상대적으로 단순화해서 알 수 있다. 이 숫자들은 개별 공연이 품고 있을 질적인 차이와 울림을 담아내기엔 부족하지만, '2011년 연극계'를 포괄적으로 일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표 3.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빈도	1,440	1,578	121	4	56	281	3,480
	비율	41%	45%	3%	0%	2%	8%	100%
공연 횟수	빈도	36,165	24,757	1,506	13	291	2,610	65,342
	비율	55%	38%	2%	0%	0%	4%	100%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25.1	15.7	12.4	3.3	5.2	9.3	18.8

공연 건수는 연극이 1,440건, 뮤지컬 1,578건, 퍼포먼스 121건, 복합 56건, 혼합 4건 순의 비중을 보인다. 전년도의 경우 연극 1,245건, 뮤지컬 1,118건,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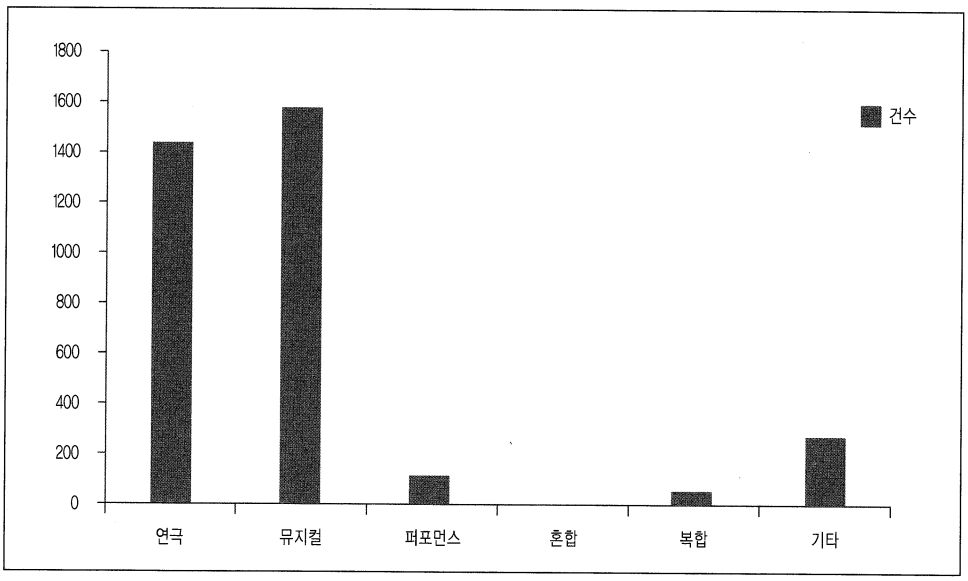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82건, 복합 50건, 혼합 4건 순의 분포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의 양적 증가라는 변화는 있어도 전체적인 양상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연극의 비중은 41%로 2009년도 54%, 2010년도 46%에 이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뮤지컬은 2009년 33%, 2010년도 41%에 이어 2011년도에는 45%로 상대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1년도에 처음으로 공연 건수에 있어서 뮤지컬 분야가 연극을 추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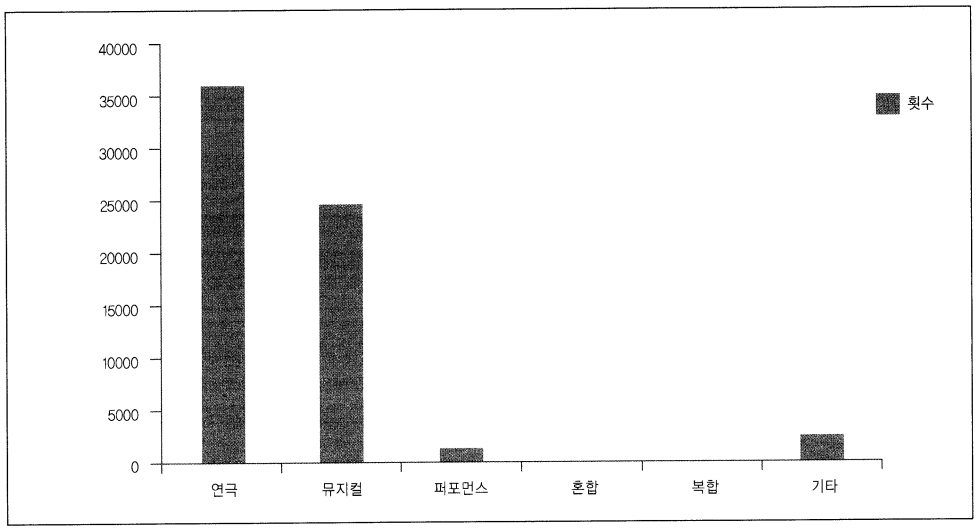
연극과 뮤지컬을 합한 비중은 86%로 2009년도, 2010년도의 87%와 유사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비중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공연 건수에 있어 뮤지컬 분야의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들에 비해 혼합 분야가 극소수인 이유는 연극 공연의 특성에 기인한다. 무용, 국악, 양악 공연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 작품의 공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한 무대에 여럿 올리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 연극은 그렇지 않다. 뮤지컬에서 갈라 형태의 공연이 더러 무대에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합 형태의 무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희소하다.

▌그림 3.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분포 ▐



▌그림 4.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분포 ▐



3.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로 살펴본 연극 내 세부 장르별 실태 차이

연극 공연 전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8.8회로 2009년 13.2회에서 2010년 25.5회로 2배 가까이 급등한 뒤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평균적으로 한 공연의 무대가 준비되면, 약 19회 정도의 공연을 올리는 셈이다. 이는 연극이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가장 문화산업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보여준다.

세부 장르별로는 연극이 25.1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뮤지컬 15.7회, 퍼포먼스 12.4회 순으로 이어진다. 전년도의 경우 퍼포먼스가 38.4회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뮤지컬 26.3회, 연극 25.5회 순으로 이어진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퍼포먼스와 뮤지컬의 공연 횟수 감소다. 2010년 퍼포먼스의 높은 공연 횟수가 오픈런 형태로 무려 3개 전용관에서 무대에 올린 '난타', 2개관에서 진행된 '판타스틱',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진행한 'JUMP' 등의 상업적 성공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 2011년엔 이러한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4.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1,440	1,578	121	4	56	281	3,480
공연 횟수	36,165	24,757	1,506	13	291	2,610	65,342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25.1	15.7	12.4	3.3	5.2	9.3	18.8

연극 공연 중에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한 작품은 대학로의 '두레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한 손남목 연출의 "뉴보잉보잉 1탄"으로 2011년도 한 해 총 1,020회 공연을 진행했다. 그 다음은 "라이어 1탄", "옥탑방 고양이", "뛰는놈 위에 나는 놈", "내 이름은 김삼순", "강풀의 순정만화", "드라마 만들기", "광수생각",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등 총 12개의 공연이 2011년 한 해 동안 평균 1일 1회 이상(365회 이상) 무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공연 중에서는 고양어울림극장에서 공연된 "Guess How Much I Love You 아빠, 사랑해요!"와 대학로에서 공연된 "룸넘버 13"이 각각 568회, 485회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구름빵",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마법사들 시즌 2", "넌센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미라클" 등 8편의 공연이 2011년 한 해 동안 평균 1일 1회 이상 무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퍼포먼스는 "드럼캣 콘서트"가 526회, 혼합은 "버블버블&동화여행"이 5회, 복합은 아동청소년연극인 "베짱이와 바이올린"이 32회로 각 세부 분야별 가장 많은 횟수를 보여주었다.

4. 창작극은 공연당 평균 19.4회, 번역극은 17.9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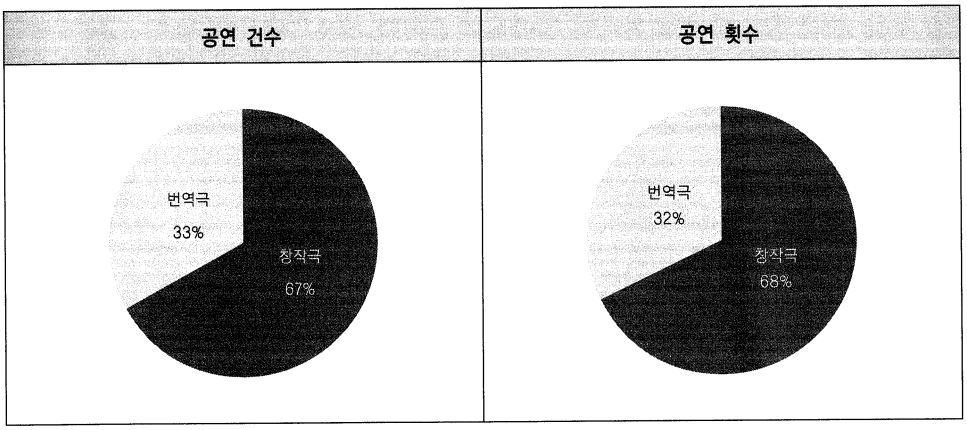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는 달리 연극에서는 창작극과 번역극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 문예연감 편람부터 연극 공연에 대해 각 공연 작품이 창작극인지 번역극인지 불완전하나마 분류하고자 했다. 매 공연에 대해 창작극과 번역극을 구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때문에,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드러난 작품만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 상태로 두었다.

▌표 5. 연극 공연의 창작극, 번역극 분포 ▐

구분	창작	번역	미분류	계
공연 건수	2,294	1,147	39	3,480
공연 횟수	44,547	20,576	219	65,342
횟수/건수 비율	19.4	17.9	5.6	18.8

미분류 공연을 제외한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극은 2,294건으로 66.7%, 번역극은 1,147건으로 33.3%를 차지한다. 정확하게 창작극의 공연 건수가 번역극의 2배다. 전년도에 창작극이 1,587건으로 71%, 번역극이 945건으로 29%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창작극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해도 창작 작품이 44,547회, 번역극이 20,576회로 공연 건수 때와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그림 5. 연극 공연의 창작극, 번역극 비중(미분류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



5. 연극 공연 3개 중 1개는 아동청소년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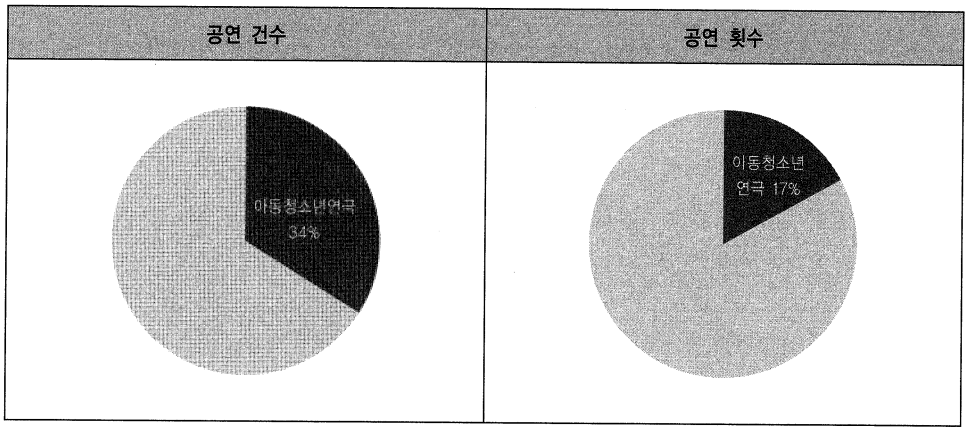
2009년 문예연감에서는 아동·교육극을 세부 분야 중 하나로 다루었으나, 2010년 문예연감 편람부터는 세부 분야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연극을 구분해 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아동청소년연극 또한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 세부 분야로 구분되는 현실을 좀 더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변화로서 이는 2011년 편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011년 공연 중 1,180건(11,055회)의 연극 공연이 아동청소년연극이었다. 2010년 공연 중 아동청소년연극은 530건(3,940회)으로, 공연 건수 기준 21%, 공연 횟수 기준 12%의 비중을 차지했었다. 2011년은 공연 건수 기준 34%, 공연 횟수 기준 17%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있어 모두 양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연극 공연의 3분의 1가량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으로 마련되고 있다. 2010년도가 5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양적인 성장세가 매우 급격해 보인다.

▌그림 6. 연극 공연 중 아동청소년연극의 비중 ▐



6. 월별 공연 분포는 M자형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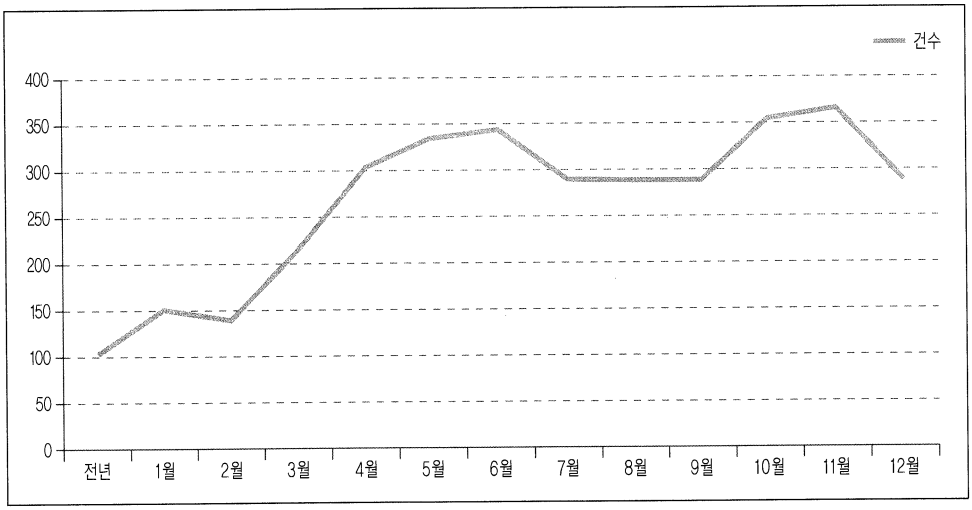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에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

▌표 6.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시작월 기준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빈도	103	151	138	219	308	338	344	291	287	290	355	365	291	3,480
	비율	3%	4%	4%	6%	9%	10%	10%	8%	8%	8%	10%	10%	8%	100%
공연 횟수	빈도	13,687	4,046	2,991	5,481	5,956	5,202	5,127	5,661	2,459	4,118	3,737	4,292	2,585	65,342
	비율	21%	6%	5%	8%	9%	8%	8%	9%	4%	6%	6%	7%	4%	100%

위 표를 아래처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일부 변형은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 분포 – 시작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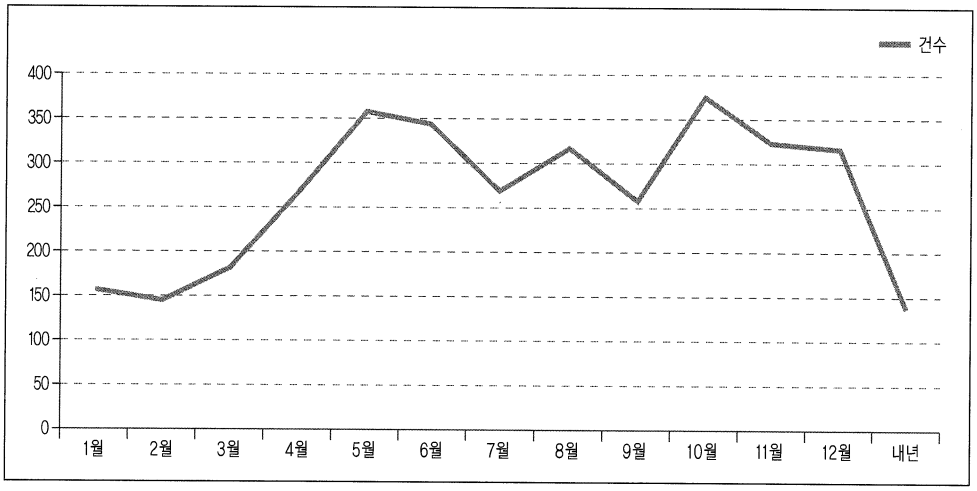
연극 공연의 경우 공연기간이 다른 장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종료월을 기준으로도 살필 필요가 있다. 약간 패턴의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M자형 곡선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8월 방학 기간 중 아동청소년연극 중심의 양적인 상승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7.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종료월 기준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계
공연 건수	빈도	158	146	188	272	359	346	270	320	260	378	326	319	138	3,480
	비율	5%	4%	5%	8%	10%	10%	8%	9%	7%	11%	9%	9%	4%	100%
공연 횟수	빈도	1,643	3,065	2,586	2,786	4,831	4,170	3,686	5,771	2,782	4,415	3,524	5,176	20,907	65,342
	비율	3%	5%	4%	4%	7%	6%	6%	9%	4%	7%	5%	8%	3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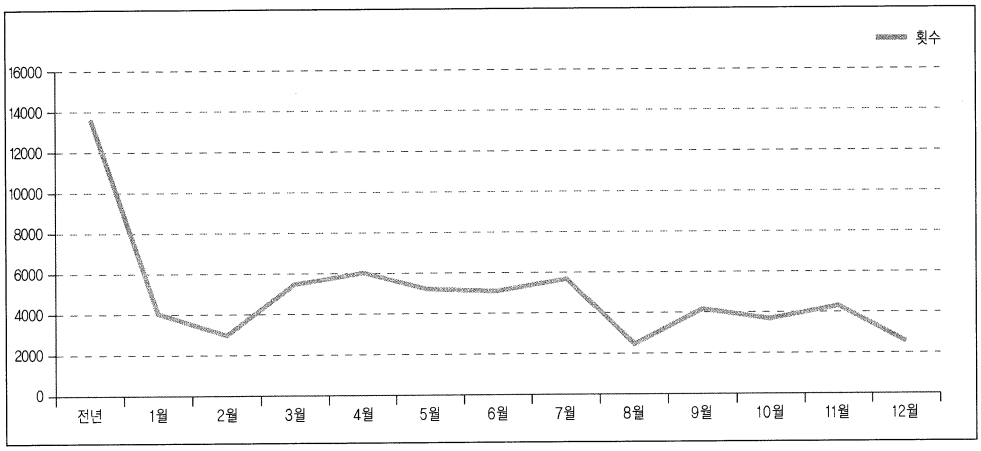
▌그림 8.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 분포 – 종료월 기준 ▐



연극 공연의 경우 장기적으로 다회 공연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여러 해에 걸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작월 기준 분포에서 7월에 공연이 유독 많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아동청소년연극이 이때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료월 기준 분포에서 8월에 종료되는 공연이 급증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겨울방학 시즌인 1~2월에도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패턴이 7~8월 패턴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공연을 단위로 자료가 취합된 만큼, 1월에 열리는 공연 횟수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연중 횟수가 모두 1월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연극 공연의 월별 공연 횟수 분포 ▐



7. 1주일간 진행되는 공연이 40%의 비중 차지

연극 공연의 경우 공연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주일간 진행되는 공연이 1,3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의 경우에도 1주일간 진행 공연이 1,0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극 공연이 장기적으로 공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만 하는 공연도 1,021건으로 29%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년도의 811건(32%)에 비해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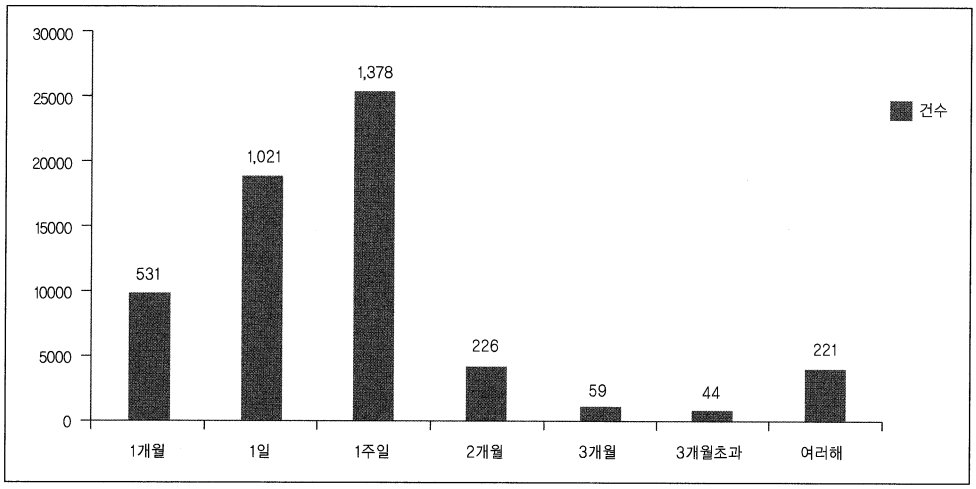
1년 이상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는 1주일 공연이 가장 많고, 공연 횟수는 1개월이 가장 많다.

▌표 8. 연극 공연의 공연기간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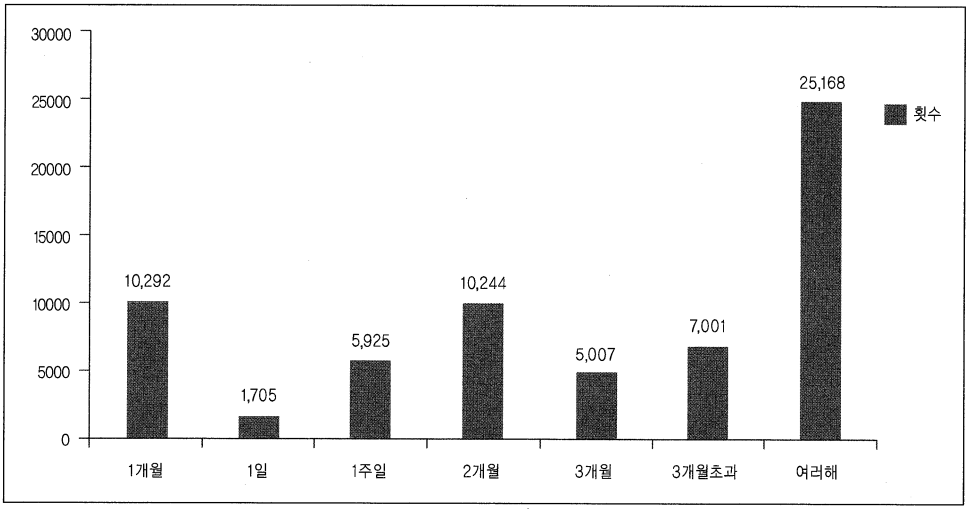
구분		1일	1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초과	1년 이상	계
공연 건수	빈도	1,021	1,378	531	226	59	44	221	3,480
	비율	29%	40%	15%	6%	2%	1%	6%	100%
공연 횟수	빈도	1,705	5,925	10,292	10,244	5,007	7,001	25,168	65,342
	비율	3%	9%	16%	16%	8%	11%	39%	100%
횟수/건수 비율		1.7	4.3	19.4	45.3	84.9	159.1	113.9	18.8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10. 연극 공연의 공연기간별 공연 건수 분포 ▐



▌그림 11. 연극 공연의 공연기간별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횟수 대 공연 건수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루 하는 공연들은 공연당 평균 1.7회 정도 공연하고, 1주일 공연은 4.3회, 1개월 공연은 19.4회, 2개월 공연은 45.3회, 3개월 공연은 84.9회, 해를 넘기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당 159.1회가 공연된다.

8. 서울·경기·경남·부산·대구 순으로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는 연극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 양이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다음으로 많은 경기의 2.5배 수준인 1,029건이지만, 공연 횟수 기준으로 하면 18배에 달하는 48,606회다. 전년도의 경우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은 경기의 8.5배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연극 공연 중 서울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공연 건수 기준으로 하면 29.6%로 전년도의 25.5%를 얼마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74.4%로 전년도의 67.7%를 훌쩍 넘겨 전체 공연 횟수의 4분의 3의 수준에 이르는 모습이다.

▌표 9.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서울	경기	경남	부산	강원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공연 건수	1,029	420	309	290	226	196	168	135	120
공연 횟수	48,606	2,692	1,368	4,444	1,295	2,032	701	315	376
구분	**광주**	**충남**	**울산**	**충북**	**대전**	**제주**	**인천**	**계**	
공연 건수	119	100	87	86	72	64	59	3,480	
공연 횟수	990	192	597	319	865	286	264	65,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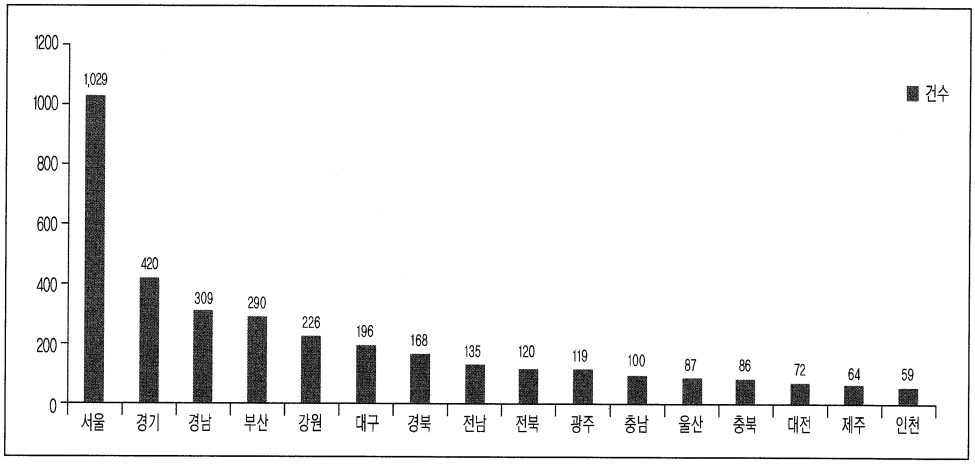
공연 건수 기준으로 16개 시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부산, 강원, 대구, 경북에서 연간 약 150건 이상의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경남이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극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가족극페스티벌', '거창겨울연극제',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경남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블루거제페스티벌', '아시아공연예술제', '통영연극예술축제' 등 축제들이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등지에서 활발하게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은 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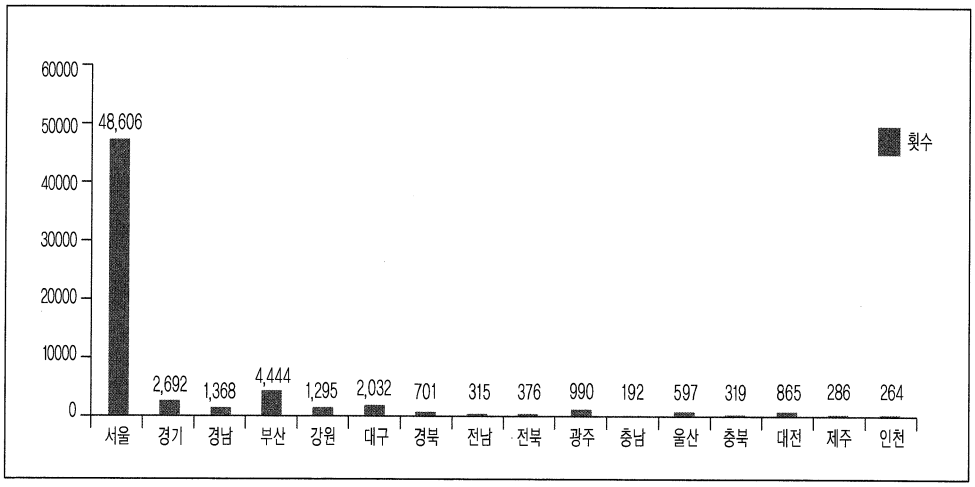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횟수는 더 적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48,606회, 경기 2,692회, 부산 4,444회, 대구 2,032회, 경남 1,368회 순이었다.

▌그림 12.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건수 분포 ▐



▌그림 13.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이다. 한 공연당 평균 47.2회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의 35.1회에 비해 무려

10회 이상 증가한 모습이다. 그 다음은 부산으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15.3회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경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모두 한 자릿수였지만 2011년도엔 대전(12회)과 대구(10.4회)가 10회가 넘는 공연 횟수를 보여주었다. 공연 건수와 횟수에서 수위를 기록했던 경남은 한 공연당 공연 횟수가 4.4회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의 비율에서 울산이 두드러진다. 울산에서는 한 공연당 6.9회 공연이 이루어진 전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7회의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과 현대예술관을 중심으로 평균 20회 이상의 아동청소년연극이 활발하게 공연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표 10. 16개 시도별 연극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지역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비율
서울	1,029	48,606	47.2
부산	290	4,444	15.3
대전	72	865	12.0
대구	196	2,032	10.4
광주	119	990	8.3
울산	87	597	6.9
경기	420	2,692	6.4
강원	226	1,295	5.7
인천	59	264	4.5
제주	64	286	4.5
경남	309	1,368	4.4
경북	168	701	4.2
충북	86	319	3.7
전북	120	376	3.1
전남	135	315	2.3
충남	100	192	1.9
계	3,480	65,342	1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9. 공연 건수는 비수도권, 공연 횟수는 수도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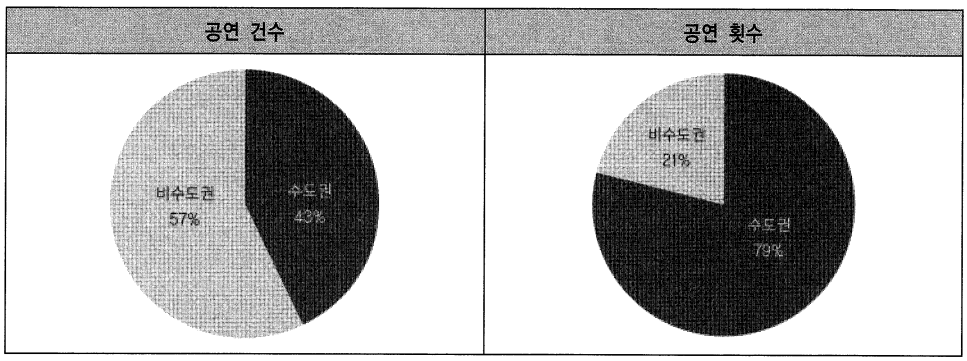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했다. 공연 건수에서는 수도권이 1,580건, 비수도권이 1,972건으로 비수도권이 약 25%가량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 수도권 1,230건, 비수도권 1,338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하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13,780회에 비해 3.7배 가까이 되는 51,562회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전년도에도 7,793회였던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 세 배 이상 많은 26,208회를 보인 바 있다. 비수도권에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회 공연이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계
공연 건수	1,508	1,972	0.8	3,480
공연 횟수	51,562	13,780	3.7	65,342

위 표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나타난다. 공연 건수에서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크지만, 공연 횟수에서는 큰 차이로 수도권이 앞선다.

▌그림 1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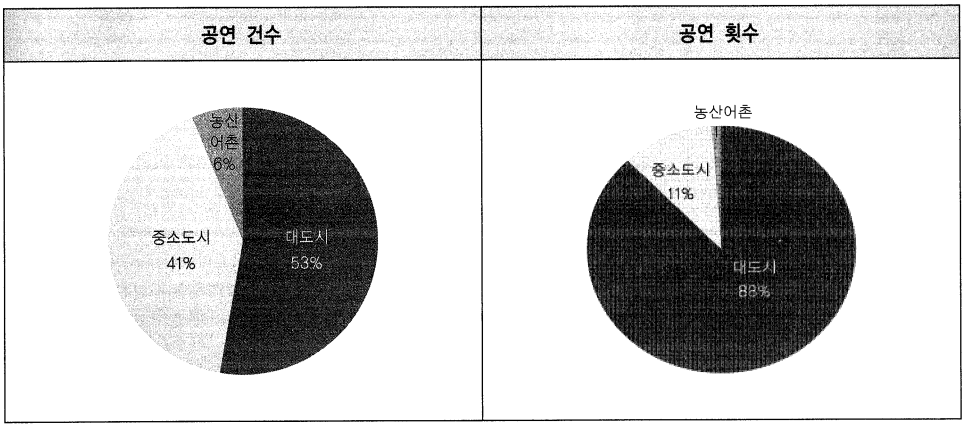
지역을 기초단위까지 분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범주화할 경우, 공연 건수에서 나타난 차이가 공연 횟수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계
공연 건수	1,852	1,439	189	3,480
공연 횟수	57,798	7,210	334	65,342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공연 건수 격차는 1.3배 수준이지만, 공연 횟수 격차는 8배 수준으로 전년도의 5.7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이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차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 공연 건수 격차가 7.6배로 전년도의 9.5배 수준에서 다소 감소했고, 공연 횟수의 격차 또한 21.6배로 전년도의 25.9배 수준에서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공연 건당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15.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연극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10.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는 강원, 공연 횟수는 서울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연극 공연이 지역별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해당 지역의 인구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대비 연극 공연이 얼마나 열리는지를 살피면 실제 연극 공연에 대한 향유 가능성을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로 단순히 공연 수만을 살피는 비교보다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해서,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별 비교 때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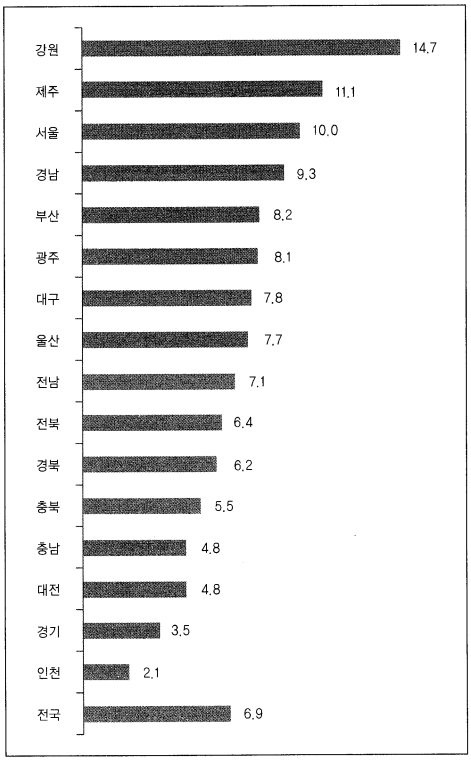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은 6.9건, 공연 횟수로 보면 128.8회로 올라 전년도의 5.2건, 68.3회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공연 횟수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곳은 강원과 제주다. 제주는 공연 건수에서 거의 최하위를 차지했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자 인구 10만 명당 11.1건으로 강원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공연 건수에서 중상위권에 속했던 강원 지역은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인구 10만 명당 14.7건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연 건수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경기는 인구 10만 명당 3.5건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전년도의 3.8건에 비해서도 다소 하락한 모습이다. 인구 규모만 보자면 서울을 넘어서는 데 비해,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현지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수에서 경기의 부진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경남이 9.3건, 울산이 7.7건으로 10건인 서울보다 낮긴 하지만 지역별 단순 비교 때보다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지역은 이전 지역별 비교 때와 근소한 차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이다.

▌그림 16.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 건수 ▐

순위	지역	공연 건수
1	강원	14.7
2	제주	11.1
3	서울	10.0
4	경남	9.3
5	부산	8.2
6	광주	8.1
7	대구	7.8
8	울산	7.7
9	전남	7.1
10	전북	6.4
11	경북	6.2
12	충북	5.5
13	충남	4.8
14	대전	4.8
15	경기	3.5
16	인천	2.1
전국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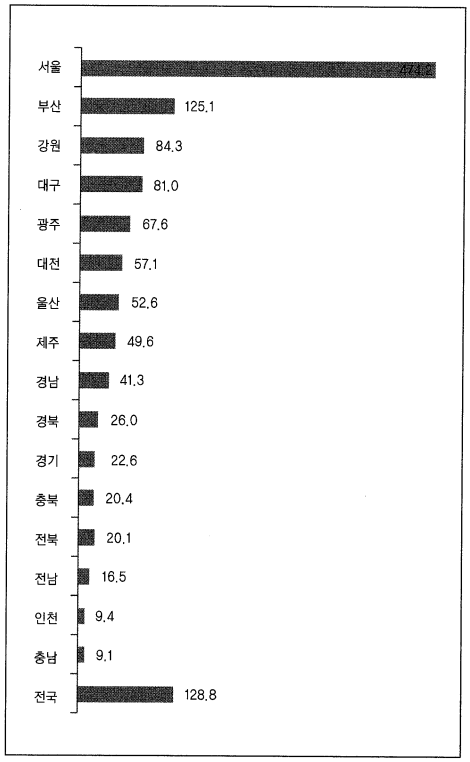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이 474.2회로 전년도 225.3회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다. 전년도에 72회였던 부산 또한 125.1회로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공연 건수에서는 중상위권이었던 부산(125.1회)이 다시 2위로 오르고, 경기(22.6회), 대전(57.1회)은 공연 건수 때와 달리 중위권까지 순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남(9.1회)이나 인천(9.4회)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17. 인구 10만 명당 연극 공연 횟수 ▐

순위	지역	공연 횟수
1	서울	474.2
2	부산	125.1
3	강원	84.3
4	대구	81.0
5	광주	67.6
6	대전	57.1
7	울산	52.6
8	제주	49.6
9	경남	41.3
10	경북	26.0
11	경기	22.6
12	충북	20.4
13	전북	20.1
14	전남	16.5
15	인천	9.4
16	충남	9.1
전국		128.8



11. 최근 3개년간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공연 건수 증가세

조사방법의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 이후 2009, 2010, 2011 3개 년도의 공연 건수 추이를 지역별로 살피면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대구, 경북, 전북, 전남, 광주, 울산, 충북, 대전, 제주 등 10개 지역은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연극 공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부산, 경남, 강원, 충남 등 5개 지역은 2010년 잠시 감소했다가 2011년 다시 큰 폭의 증가를 보인다. 이에 반해 경기와 인천 지역은 2010년 증가했다가 2011년 다시 공연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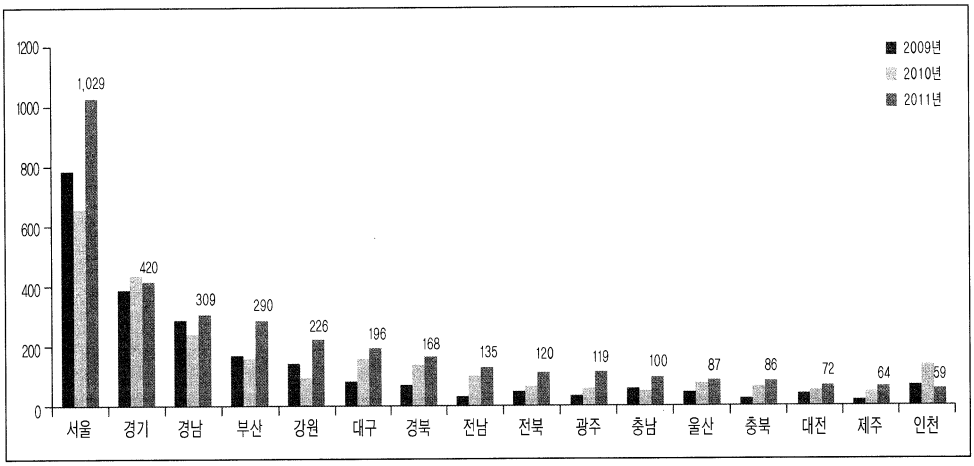
▌표 13. 최근 3개년간 연극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구분	서울	경기	경남	부산	강원	대구	경북	전남	전북
2009년	787	392	290	171	144	85	77	40	52
2010년	656	439	244	158	94	158	142	104	67
2011년	1,029	420	309	290	226	196	168	135	120

구분	광주	충남	울산	충북	대전	제주	인천	계
2009년	38	63	51	27	41	18	71	2,347
2010년	63	54	83	65	56	48	137	2,568
2011년	119	100	87	86	72	64	59	3,480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 연극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살피면 전체적인 큰 변동은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몇몇 지역이 도드라진다.

▌그림 18. 최근 3개년간 연극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상대적으로 큰 증가 추이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은 2009년 787건에 비해 2011년엔 그 두 배 이상인 1,029건의 연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이 이루어져 증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한다. 부산 또한 2008년 171건에서 2011년 290건으로 두 배 가까운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인천 지역은 2010년도 137건에서 2011년도 59건으로 매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극이 우세

16개 시도별로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폈다. 기준은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특정 장르의 비중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얼마간 방지하면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추가로 참고할 필요는 있다.

각 지역별 특성 파악이 쉽도록 아래 표에는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진한 색 표시)가 표시되어 있다. 대부분 연극과 뮤지컬이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상위 세부 분야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연극과 뮤지컬이 각각 41.4%와 4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퍼포먼스(3.5%), 복합(1.6%), 혼합(0.1%) 순으로 이어진다. 전년도의 경우 연극이 54%, 뮤지컬이 33%의 비중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뮤지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큰 장르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뮤지컬이다. 대부분 연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년도와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연극의 비중이 뮤지컬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64%), 대전(52.8%) 2개 지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 중 뮤지컬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은 지역은 부산(64.5%), 인천(64.4%), 대구(62.8%), 전남(60.7%) 등이다. 연극과 뮤지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경남, 강원, 광주 등 3개 지역이다. 각 세부 분야별로 몸담고 있는 연극인, 단체의 수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세부 분야별 비중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지역별로 살펴본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지역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659	270	17	0	21	62	1,029
	비율	64.0%	26.2%	1.7%	0.0%	2.0%	6.0%	100%
경기	빈도	108	230	21	2	15	44	420
	빈도	25.7%	54.8%	5.0%	0.5%	3.6%	10.5%	100%
경남	비율	129	147	16	0	5	12	309
	빈도	41.7%	47.6%	5.2%	0.0%	1.6%	3.9%	100%
부산	빈도	97	187	2	1	0	3	290
	비율	33.4%	64.5%	0.7%	0.3%	0.0%	1.0%	100%
강원	빈도	82	83	5	0	1	55	226
	빈도	36.3%	36.7%	2.2%	0.0%	0.4%	24.3%	100%
대구	비율	49	123	7	0	3	14	196
	빈도	25.0%	62.8%	3.6%	0.0%	1.5%	7.1%	100%
경북	빈도	44	91	9	0	2	22	168
	비율	26.2%	54.2%	5.4%	0.0%	1.2%	13.1%	100%
전남	빈도	28	82	10	0	3	12	135
	빈도	20.7%	60.7%	7.4%	0.0%	2.2%	8.9%	100%
전북	비율	40	64	3	0	1	12	120
	빈도	33.3%	53.3%	2.5%	0.0%	0.8%	10.0%	100%
광주	빈도	53	54	5	0	1	6	119
	비율	44.5%	45.4%	4.2%	0.0%	0.8%	5.0%	100%
충남	빈도	29	52	5	0	3	11	100
	빈도	29.0%	52.0%	5.0%	0.0%	3.0%	11.0%	100%
울산	비율	26	44	5	1	0	11	87
	빈도	29.9%	50.6%	5.7%	1.1%	0.0%	12.6%	100%
충북	빈도	21	51	5	0	0	9	86
	비율	24.4%	59.3%	5.8%	0.0%	0.0%	10.5%	100%
대전	빈도	38	29	5	0	0	0	72
	빈도	52.8%	40.3%	6.9%	0.0%	0.0%	0.0%	100%
제주	비율	21	33	2	0	0	8	64
	빈도	32.8%	51.6%	3.1%	0.0%	0.0%	12.5%	100%
인천	빈도	16	38	4	0	1	0	59
	비율	27.1%	64.4%	6.8%	0.0%	1.7%	0.0%	100%
계	빈도	1,440	1,578	121	4	56	281	3,480
	비율	41.4%	45.3%	3.5%	0.1%	1.6%	8.1%	100%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에서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55.3%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극이다. 전년도의 62.8%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37.9%인 뮤지컬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부산, 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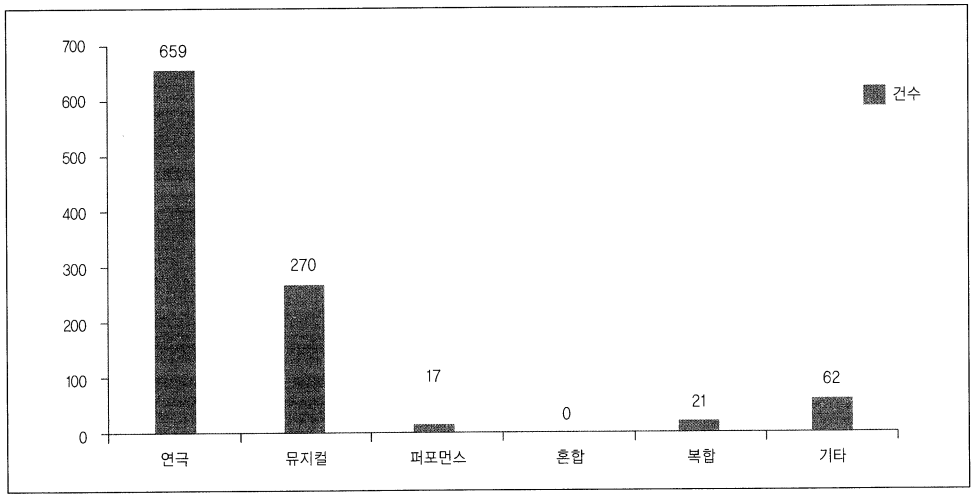
남, 강원, 광주, 대전 등은 공연 횟수에 있어 연극이 보다 강세를 보이고, 경기, 대구, 경북, 울산, 전북, 충북, 전남, 제주, 인천, 충남 등은 뮤지컬이 강세를 보인다. 이 중 인천, 경남 두 지역은 연극과 뮤지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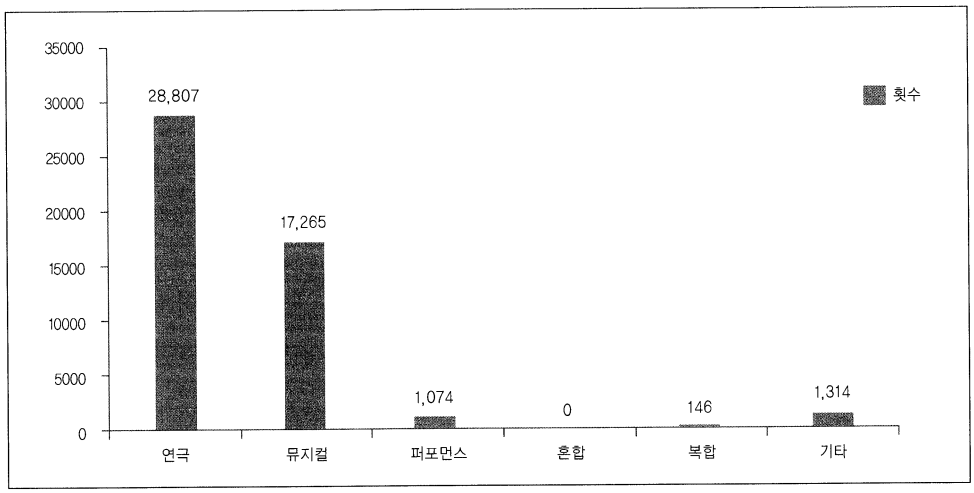
▌표 15. 지역별로 살펴본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

지역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서울	빈도	28,807	17,265	1,074	0	146	1,314	48,606
	비율	59.3%	35.5%	2.2%	0.0%	0.3%	2.7%	100%
부산	빈도	2,460	1,881	92	3	0	8	4,444
	빈도	55.4%	42.3%	2.1%	0.1%	0.0%	0.2%	100%
경기	비율	674	1,600	59	7	63	289	2,692
	빈도	25.0%	59.4%	2.2%	0.3%	2.3%	10.7%	100%
대구	빈도	785	996	27	0	7	217	2,032
	비율	38.6%	49.0%	1.3%	0.0%	0.3%	10.7%	100%
경남	빈도	658	628	42	0	11	29	1,368
	빈도	48.1%	45.9%	3.1%	0.0%	0.8%	2.1%	100%
강원	비율	480	256	52	0	39	468	1,295
	빈도	37.1%	19.8%	4.0%	0.0%	3.0%	36.1%	100%
광주	빈도	710	240	12	0	2	26	990
	비율	71.7%	24.2%	1.2%	0.0%	0.2%	2.6%	100%
대전	빈도	544	301	20	0	0	0	865
	빈도	62.9%	34.8%	2.3%	0.0%	0.0%	0.0%	100%
경북	비율	226	318	43	0	7	107	701
	빈도	32.2%	45.4%	6.1%	0.0%	1.0%	15.3%	100%
울산	빈도	194	356	16	3	0	28	597
	비율	32.5%	59.6%	2.7%	0.5%	0.0%	4.7%	100%
전북	빈도	151	192	7	0	2	24	376
	빈도	40.2%	51.1%	1.9%	0.0%	0.5%	6.4%	100%
충북	비율	114	164	12	0	0	29	319
	빈도	35.7%	51.4%	3.8%	0.0%	0.0%	9.1%	100%
전남	빈도	73	186	24	0	7	25	315
	비율	23.2%	59.0%	7.6%	0.0%	2.2%	7.9%	100%
제주	빈도	104	149	6	0	0	27	286
	빈도	36.4%	52.1%	2.1%	0.0%	0.0%	9.4%	100%
인천	비율	123	126	13	0	2	0	264
	빈도	46.6%	47.7%	4.9%	0.0%	0.8%	0.0%	100%
충남	빈도	62	99	7	0	5	19	192
	비율	32.3%	51.6%	3.6%	0.0%	2.6%	9.9%	100%
계	빈도	36,165	24,757	1,506	13	291	2,610	65,342
	비율	55.3%	37.9%	2.3%	0.0%	0.4%	4.0%	100%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16개 지역이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인다. 서울 지역은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연극이 뮤지컬에 비해 우세한 지역의 대표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그림 19. 서울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연극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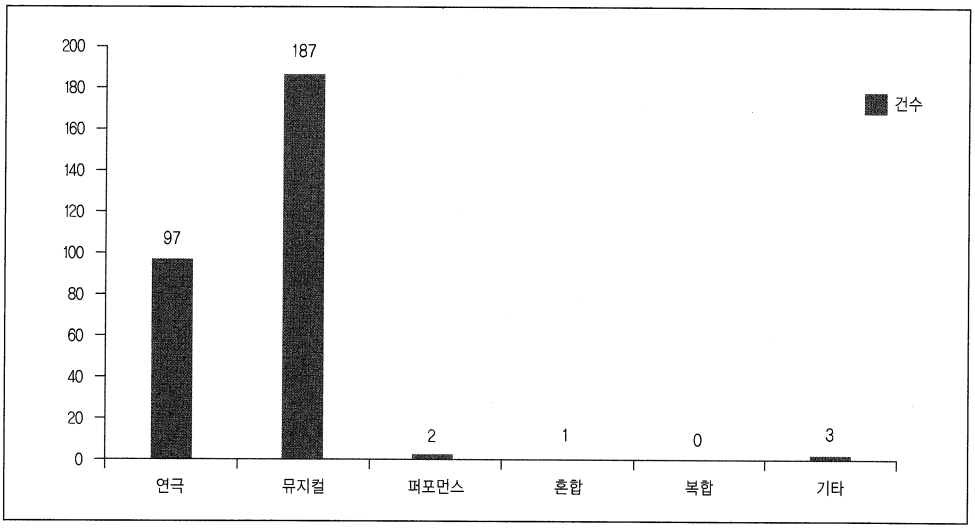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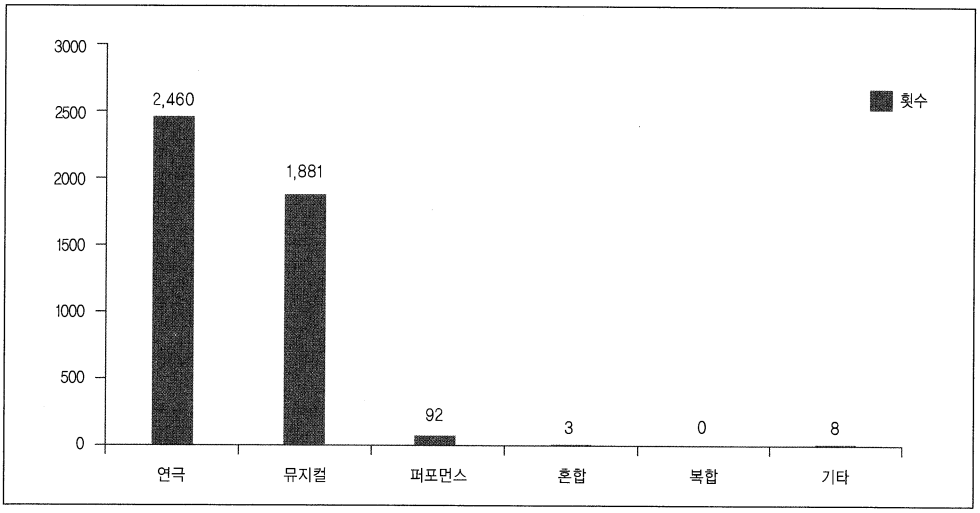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659	270	17	0	21	62	1,029
횟수	28,807	17,265	1,074	0	146	1,314	48,6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부산 지역은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뮤지컬이 압도적이나 공연 횟수에 있어서 연극이 다소 앞서는 형태의 분포 양상을 보인다.

그림 20. 부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뮤지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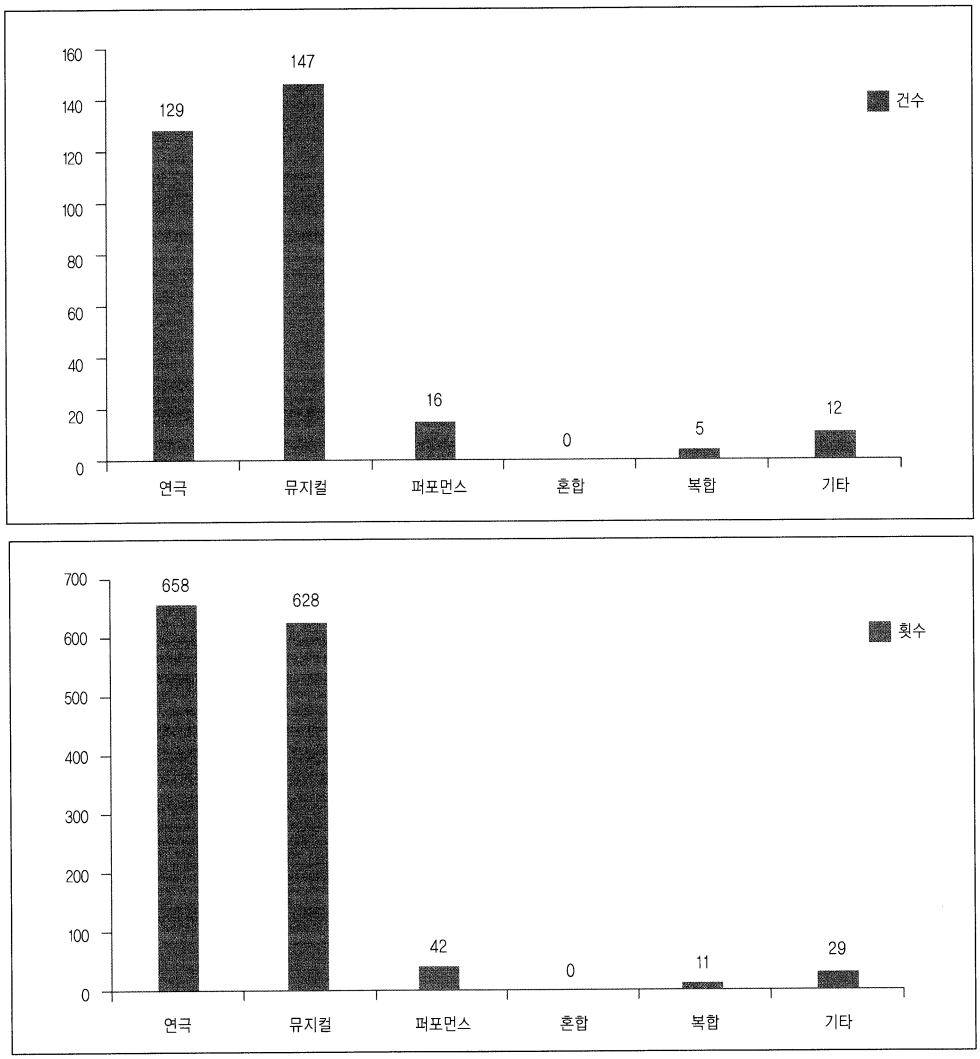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97	187	2	1	0	3	290
횟수	2,460	1,881	92	3	0	8	4,444

경남 지역은 연극과 뮤지컬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1. 경남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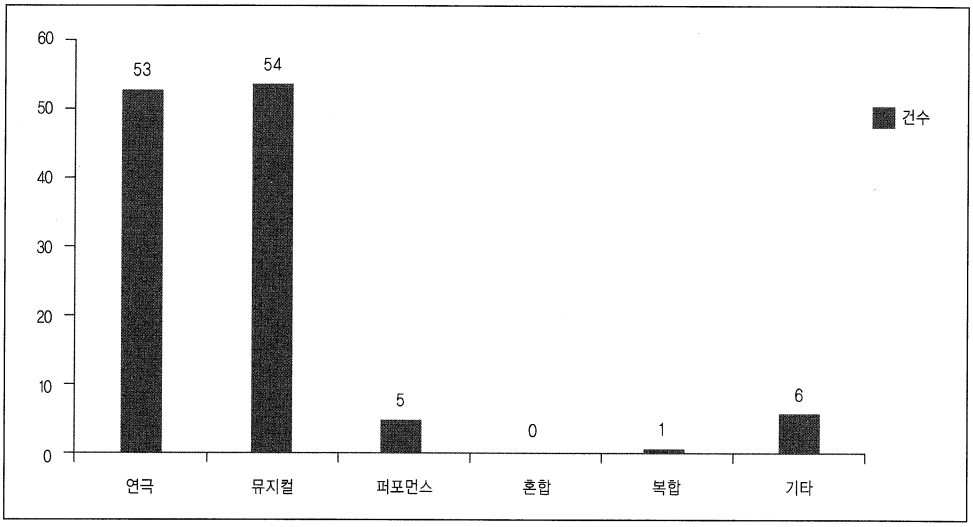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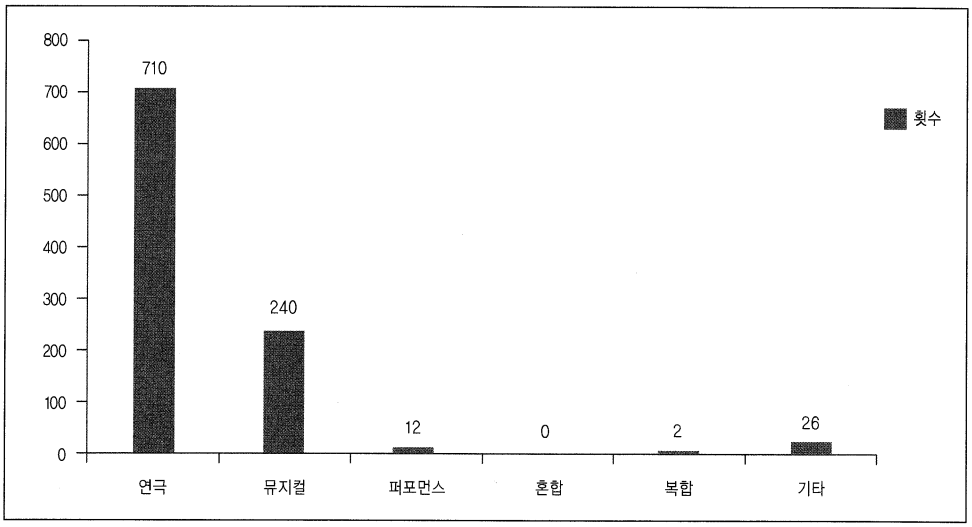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129	147	16	0	5	12	309
횟수	658	628	42	0	11	29	1,3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광주 지역은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연극과 뮤지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공연 횟수에 있어 연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그림 22. 광주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공연 건수는 뮤지컬, 횟수는 연극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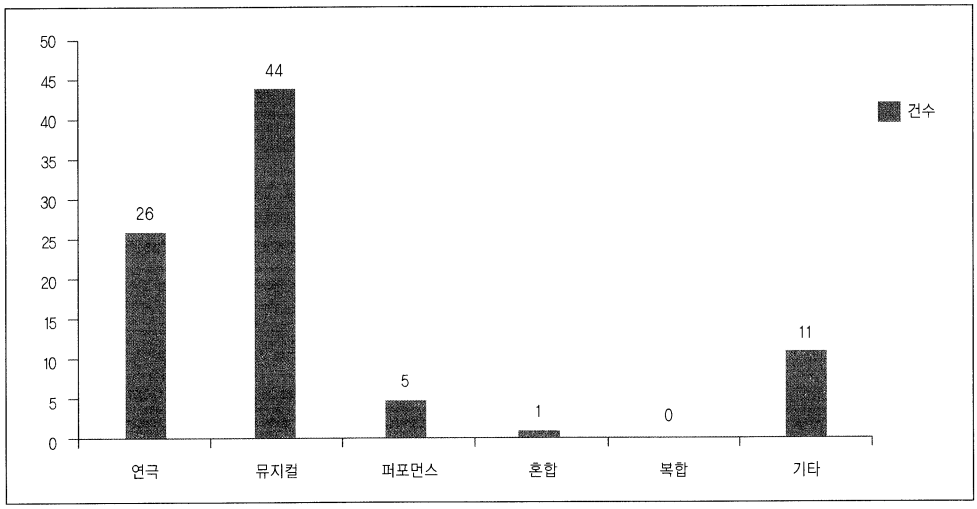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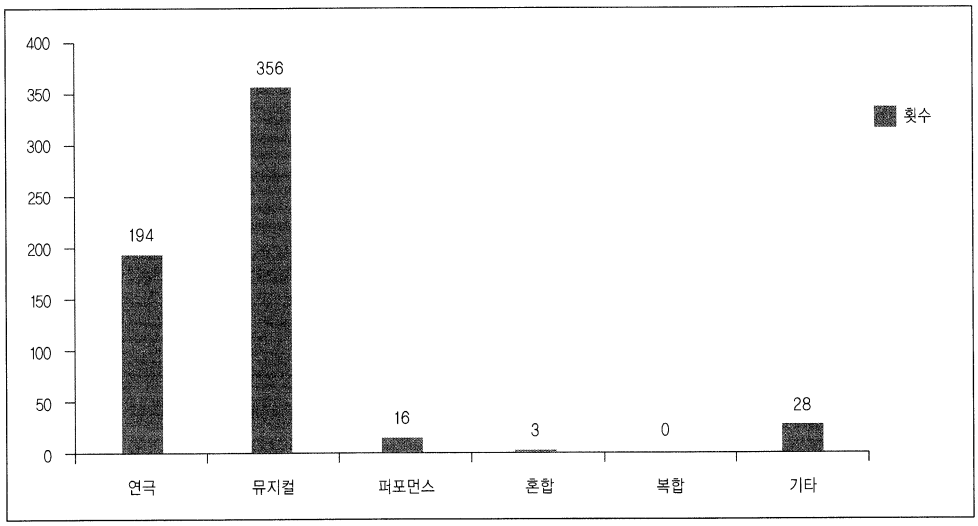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53	54	5	0	1	6	119
횟수	710	240	12	0	2	26	990

울산 지역은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 있어 뮤지컬이 우위를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23. 울산 지역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분포(공연 건수, 횟수 모두 뮤지컬 중심)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건수	26	44	5	1	0	11	87
횟수	194	356	16	3	0	28	597

http://www.kcpa.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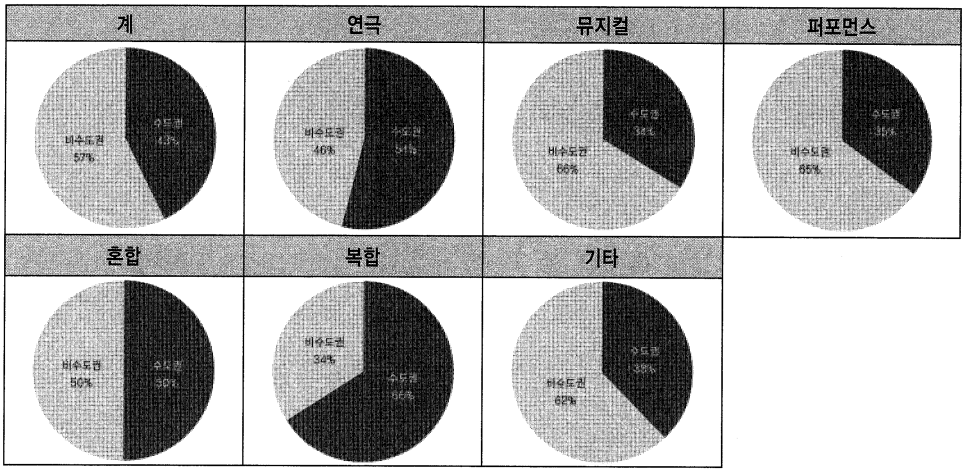
13. 공연 건수에서 수도권은 연극과 복합 장르, 비수도권은 뮤지컬, 퍼포먼스 우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피면 16개 시도로 나누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1년도에는 비수도권이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누어 살피면, 연극, 복합 장르에서는 수도권이 앞서고, 뮤지컬, 퍼포먼스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앞선다. 공연 횟수에서는 이와는 양상이 사뭇 달라지는데, 해당 공연사례가 작은 혼합을 제외한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양한 공연을 짧게 하는 반면, 수도권은 연극 등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공연이 다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1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분포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수도권	783	538	42	2	37	106	1,508
	비수도권	657	1,040	79	2	19	175	1,972
	계	1,440	1,578	121	4	56	281	3,480

▌그림 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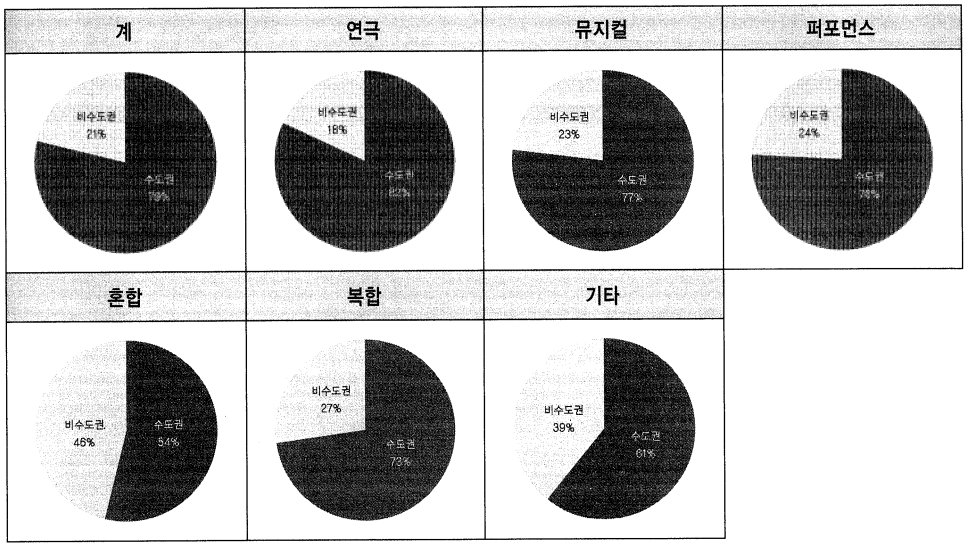


공연 횟수를 보면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 많았던 뮤지컬이나 퍼포먼스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혼합을 제외하고는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큰 우위를 나타낸다.

▌표 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수도권	29,604	18,991	1,146	7	211	1,603	51,562
	비수도권	6,561	5,766	360	6	80	1,007	13,780
	계	36,165	24,757	1,506	13	291	2,610	65,342

▌그림 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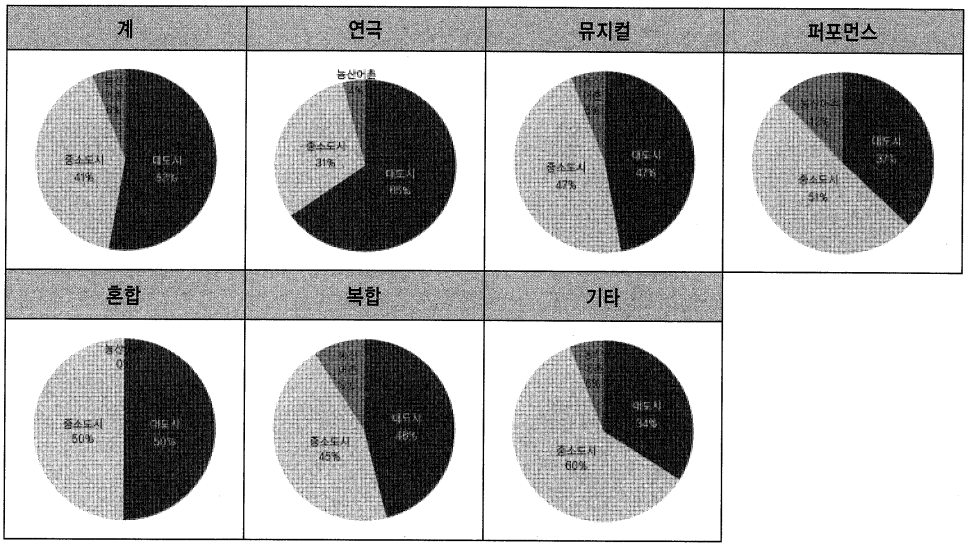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나누어 다시 비중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8.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대도시	938	745	45	2	26	96	1,852
	중소도시	441	743	61	2	25	167	1,439
	농산어촌	61	90	15	0	5	18	189
	계	1,440	1,578	121	4	56	281	3,480

▌그림 26.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건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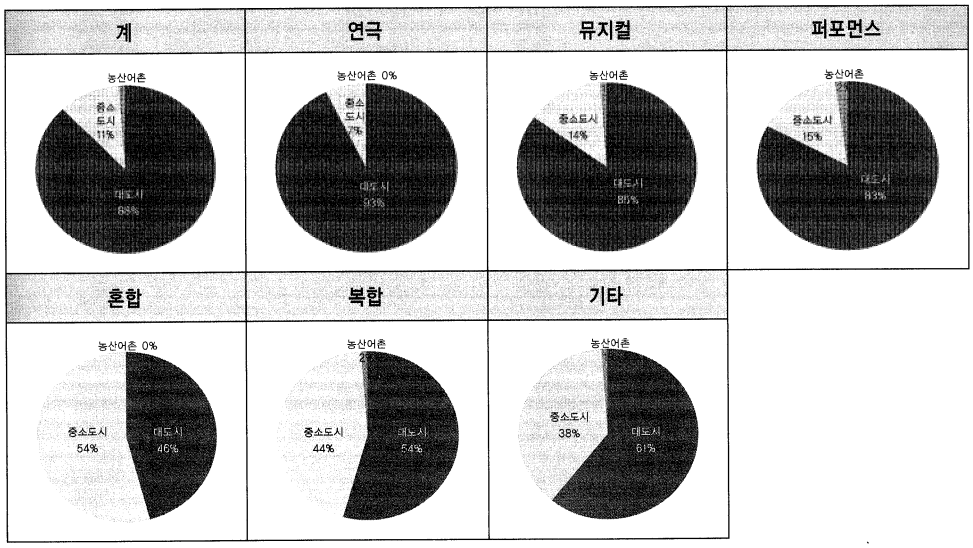


공연 건수를 기반으로 그려진 위의 표와 그림을 보면 연극은 대도시, 퍼포먼스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장르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복합 장르와 사례수가 4개 공연밖에 되지 않는 혼합 장르를 제외하고는 대도시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혼합이나 복합은 중소도시의 비중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의 공연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정도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더 심해진다.

▌표 19.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

구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대도시	33,623	21,165	1254	6	157	1,593	57,798
	중소도시	2,433	3,433	227	7	127	983	7,210
	농산어촌	109	159	25	0	7	34	334
	계	36,165	24,757	1,506	13	291	2,610	65,342

▌그림 27.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세부 분야별 연극 공연 횟수 비율 ▐



14. 세부 분야에 따른 M자형 곡선의 다양한 변형

세부 분야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두 개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이 중 각 장르별로 상위 4개월을 짙은 색으로 칠해 표시해 두었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봄부터 초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양상이 약간 다르다. 연극과 뮤지컬은 2010년 시작되어 연중 계속되는 공연의 비중이 연극과 뮤지컬 모두에 있어 가장 크게 나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난다. 연극은 4~6월, 10~11월에 많이 시작되고, 뮤지컬은 4~5월, 11~12월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들 시기는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축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연극 전체 자료를 기본으로 한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표 20.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연극	51	62	48	96	130	130	159	109	107	121	160	158	109	1,440
뮤지컬	48	69	75	104	147	165	144	144	107	125	144	161	145	1,578
퍼포먼스	3	2	4	3	8	17	10	16	11	14	9	10	14	121
혼합	0	0	0	1	0	1	0	1	1	0	0	0	0	4
복합	0	1	3	2	2	2	4	3	7	14	7	8	3	56
기타	1	17	8	13	21	23	27	18	54	16	35	28	20	281
계	103	151	138	219	308	338	344	291	287	290	355	365	291	3,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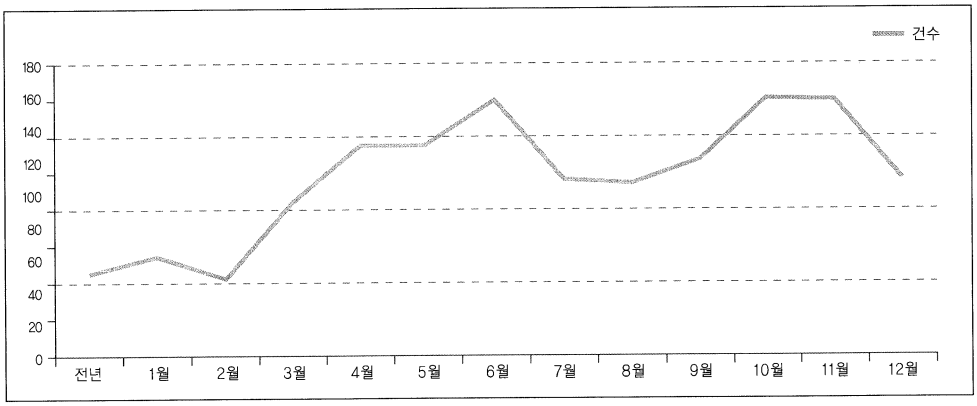
▌표 21.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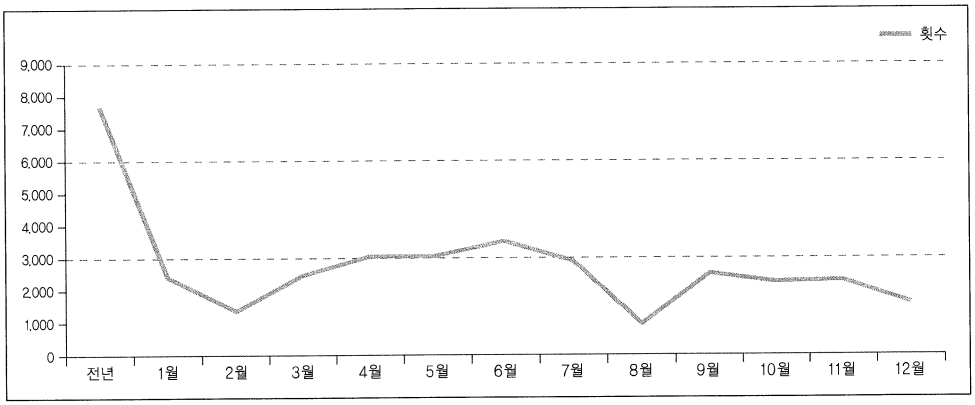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연극	7,728	2,412	1,370	2,495	3,084	3,058	3,533	2,850	987	2,528	2,248	2,295	1,577	36,165
뮤지컬	4,790	1,318	1,423	2,731	2,647	1,628	1,310	2,431	1,217	1,438	1,219	1,770	835	24,757
퍼포먼스	751	6	63	8	65	298	44	35	80	43	38	29	46	1,506
혼합	0	0	0	2	0	3	0	5	3	0	0	0	0	13
복합	0	39	14	26	18	36	16	6	18	39	21	51	7	291
기타	418	271	121	219	142	179	224	334	154	70	211	147	120	2,610
계	13,687	4,046	2,991	5,481	5,956	5,202	5,127	5,661	2,459	4,118	3,737	4,292	2,585	65,342

연극은 공연 건수에서는 M자형 곡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공연 횟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공연 건수는 4-6월, 9-10월에 집중되는 편이다. 공연 횟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연간 공연이 이루어져도 시작되는 시기에 그 공연의 전체 횟수가 잡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에 시작되어 끝나지 않은 공연들이나 연초에 시작되는 공연들이 초반에 모두 높은 횟수로 잡혀 있다.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공연의 월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28. 연극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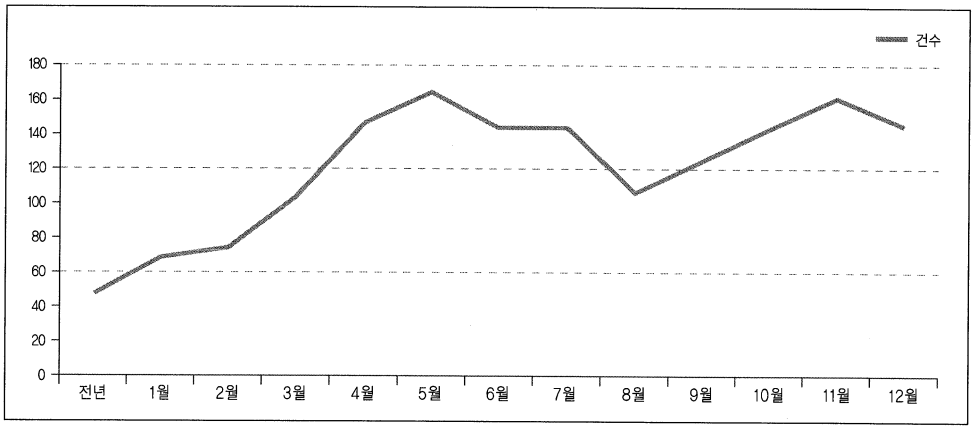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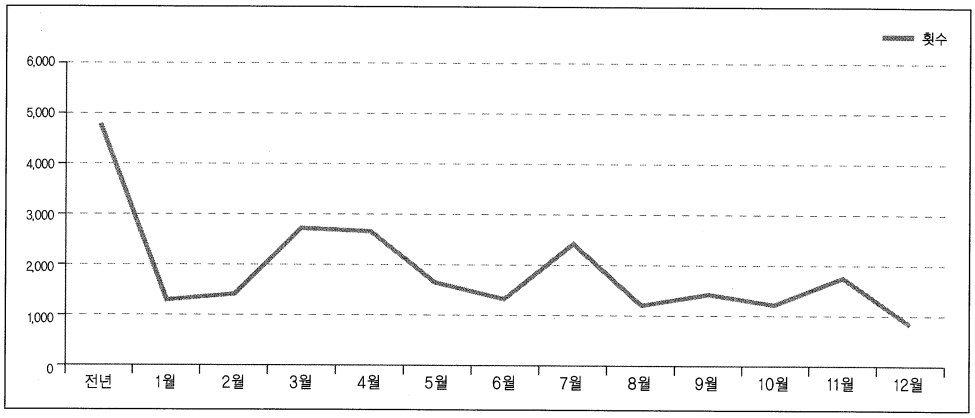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51	62	48	96	130	130	159	109	107	121	160	158	109	1,440
공연 횟수	7,728	2,412	1,370	2,495	3,084	3,058	3,533	2,850	987	2,528	2,248	2,295	1,577	36,1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뮤지컬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세 개 정점을 가진 형태의 변형된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그러나 역시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정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4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우하향세를 보인다. 그러나 공연 횟수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월과 7월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뮤지컬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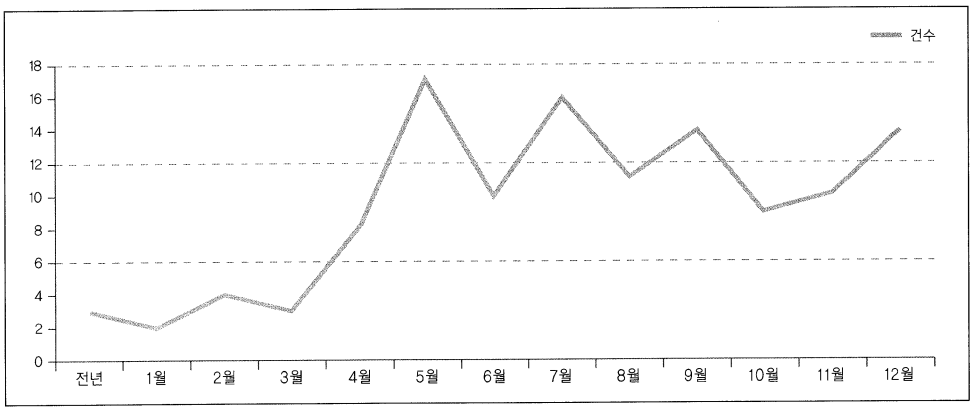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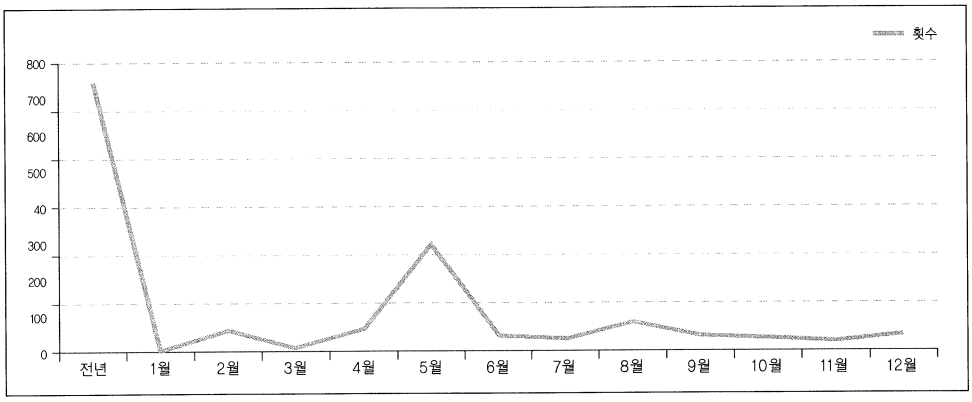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48	69	75	104	147	165	144	144	107	125	144	161	145	1,578
공연 횟수	4,790	1,318	1,423	2,731	2,647	1,628	1,310	2,431	1,217	1,438	1,219	1,770	835	24,757

퍼포먼스의 경우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5월, 9월, 12월에 공연이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연 횟수 기준으로 보면 3월에 한 번 더 가장 높은 정점이 나타난다. 이는 3월에 시작하는 장기공연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그림 30. 퍼포먼스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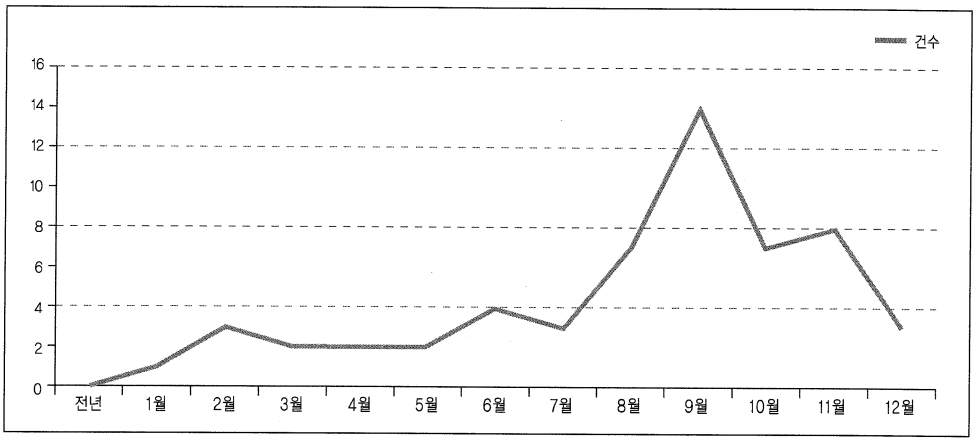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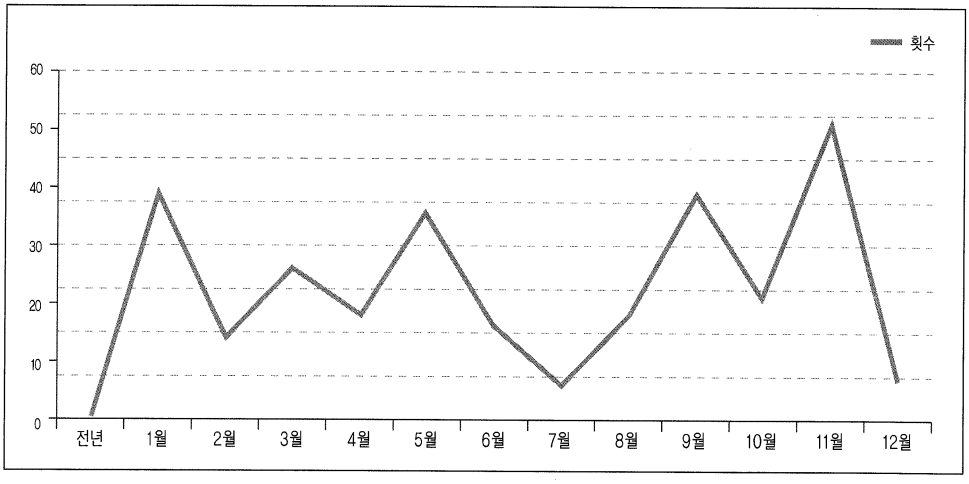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3	2	4	3	8	17	10	16	11	14	9	10	14	121
공연 횟수	751	6	63	8	65	298	44	35	80	43	38	29	46	1,506

복합 형태 연극 공연은 전년도의 경우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모두 세 개의 정점을 가진 M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2011년은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9월 큰 정점을, 공연 횟수에 있어서는 다수의 정점을 보이는 양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31. 복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0	1	3	2	2	2	4	3	7	14	7	8	3	56
공연 횟수	0	39	14	26	18	36	16	6	18	39	21	51	7	291

세부 분야별로 공연 종료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연극의 경우 여러 달에 걸쳐 공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료월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시각의 분석이 가능하다.

▌표 22.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종료월별 공연 건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계
연극	61	55	80	102	138	161	103	130	94	175	135	125	81	1,440
뮤지컬	79	78	92	136	177	147	129	117	125	150	143	154	51	1,578
퍼포먼스	2	3	5	8	16	9	17	10	14	10	10	14	3	121
혼합	0	0	1	0	1	0	1	1	0	0	0	0	0	4
복합	1	3	1	2	3	4	2	8	12	9	8	3	0	56
기타	15	7	9	24	24	25	18	54	15	34	30	23	3	281
계	158	146	188	272	359	346	270	320	260	378	326	319	138	3,480

▌표 23. 연극 세부 장르별 공연 종료월별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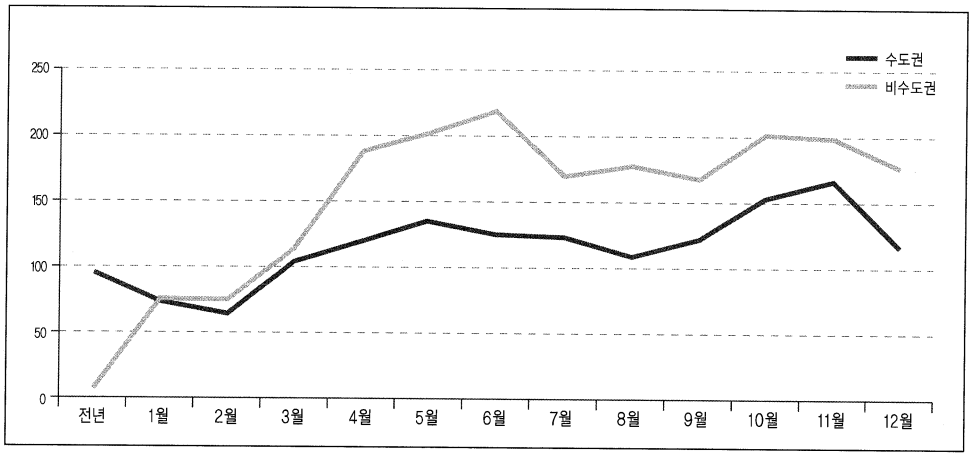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계
연극	823	1,538	1,120	1,231	2,753	2,287	1,754	3,465	1,268	2,291	2,009	2,731	12,895	36,165
뮤지컬	618	1,345	1,200	1,204	1,848	1,688	1,699	2,106	1,347	1,681	1,243	2,179	6,599	24,757
퍼포먼스	6	29	132	65	46	21	58	27	90	44	29	46	913	1,506
혼합	0	0	2	0	3	0	5	3	0	0	0	0	0	13
복합	39	14	4	25	51	16	4	20	31	29	51	7	0	291
기타	157	139	128	261	130	158	166	150	46	370	192	213	500	2,610
계	1,643	3,065	2,586	2,786	4,831	4,170	3,686	5,771	2,782	4,415	3,524	5,176	20,907	65,342

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의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다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점이 여럿인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은 5월, 11월에 정점이 생기는 반면, 비수도권은 6월, 10월에 정점이 생긴다. 특히 비수도권의 정점은 수도권의 가장 높은 점보다도 높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3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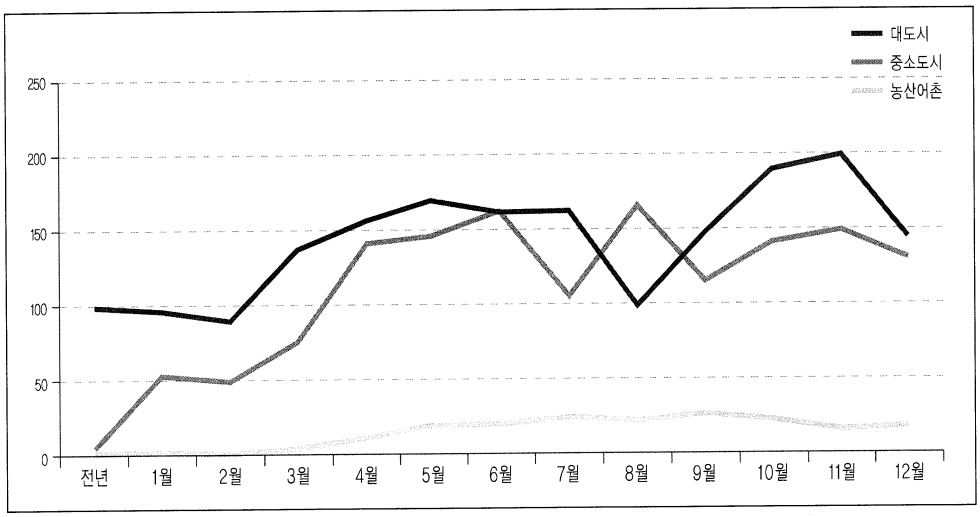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도권	96	74	64	104	120	136	125	123	109	122	153	167	115	1,508
비수도권	7	77	74	115	188	202	219	168	178	168	202	198	176	1,972
계	103	151	138	219	308	338	344	291	287	290	355	365	291	3,480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건수 분포는 그 양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월별 양상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다. 중소도시에서 M자형 곡선이 비교적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도시나 농산어촌의 경우 정점이 여럿 나타나는 변형의 형태를 보인다.

▌표 24.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대도시	99	96	89	137	157	171	161	162	99	148	191	199	143	1,852
중소도시	4	53	49	77	140	147	163	104	166	115	142	149	130	1,439
농산어촌	0	2	0	5	11	20	20	25	22	27	22	17	18	189
계	103	151	138	219	308	338	344	291	287	290	355	365	291	3,480

▌그림 33.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공연 시작월별 연극 공연 건수 ▐



16. 연간 공연 건수 30건 이상 공연장과 공연 횟수 500회 이상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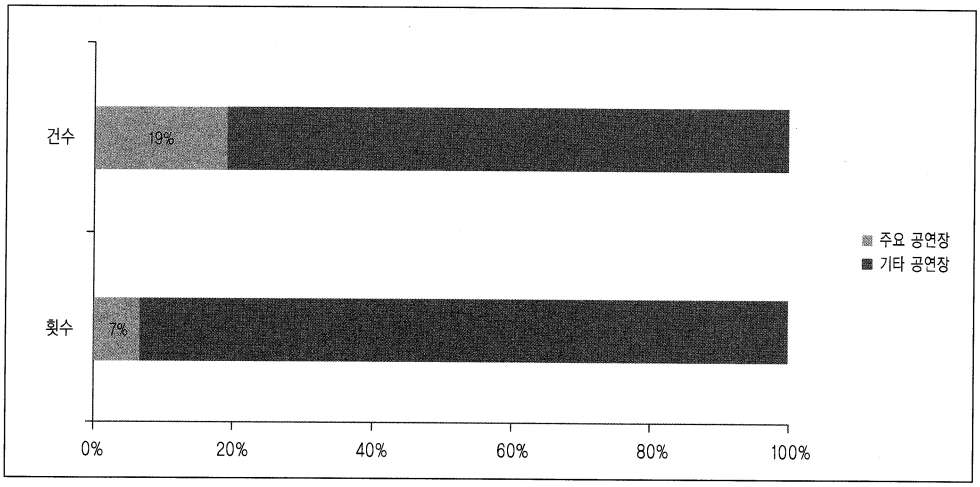
연극의 경우 주요 공연장의 잣대를 두 가지로 해야 한다. 공연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공연 건수의 경우 주로 큰 공연장들을 주요 공연장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연극 공연의 메카는 대학로이며, 이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도 중요하다. 소극장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연을 일 년 내내 상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간 공연 건수 기준으로는 잡아낼 수 없다. 그렇다고 일 년 동안 몇 백 회 연극을 공연하는 이런 공연장들을 주요 공연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연극 공연이 30건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16개다. 전년도의 19개에 비해 3개가 줄었다.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3개,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16개 공연장이 전체 연극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5분의 1 수준인 19%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 작은 7%를 차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co.kr

▌그림 34. 전체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공연 건수 기준 주요 16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로예술극장이 79건으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에 8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던 국립극장은 2011년엔 55건으로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대학로예술극장 다음으로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61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60건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6개 공연장 중 연극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높은 공연장은 국립극장, 춘천인형극장(14회), 대학로예술극장(10.7회), 대학로 선돌극장(10.4회) 순으로 나타난다.

▌표 25. 연간 30건 이상 연극 공연이 열리는 주요 16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횟수/건수
대학로예술극장	79	843	10.7
광주문화예술회관	61	194	3.2
경기도문화의전당	60	193	3.2
국립극장	55	771	14.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54	181	3.4
춘천인형극장	42	586	14.0
선돌극장	36	374	10.4
아르코예술극장	35	270	7.7
의정부예술의전당	33	10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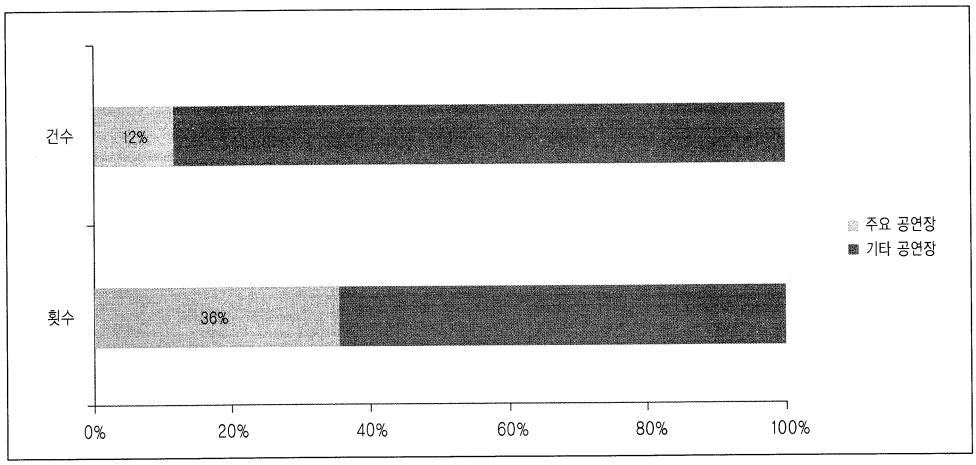
▌표 25. 계속 ▐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횟수/건수
통영시민문화회관	33	62	1.9
김해문화의전당	32	135	4.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32	105	3.3
을숙도문화회관	31	149	4.8
금정구문화회관	30	147	4.9
성산아트홀	30	122	4.1
순천시문화예술회관	30	67	2.2
계	673	4,306	6.4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연극 공연이 30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31개다.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의 모든 공연장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부산에 2개, 강원(춘천)에 1개 공연장이 위치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그것도 대부분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극장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31개 공연장이 전체 연극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와는 반대의 양상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중 공연의 12%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36%를 차지한다.

▌그림 35. 전체 연극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공연 횟수 기준 주요 31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학로예술극장과 국립극장이 각각 79건, 55건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연 횟수에서는 두레홀(1,270회), 명보아트홀(1,169회), 충무아트홀(1,046회) 등이 연극 공연을 무대에 활발히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공연장 중 연극 공연의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100회를 넘는 공연장만 모두 17곳이다. 특히 이 중 많은 공연장들은 하나의 공연을 연간 무대에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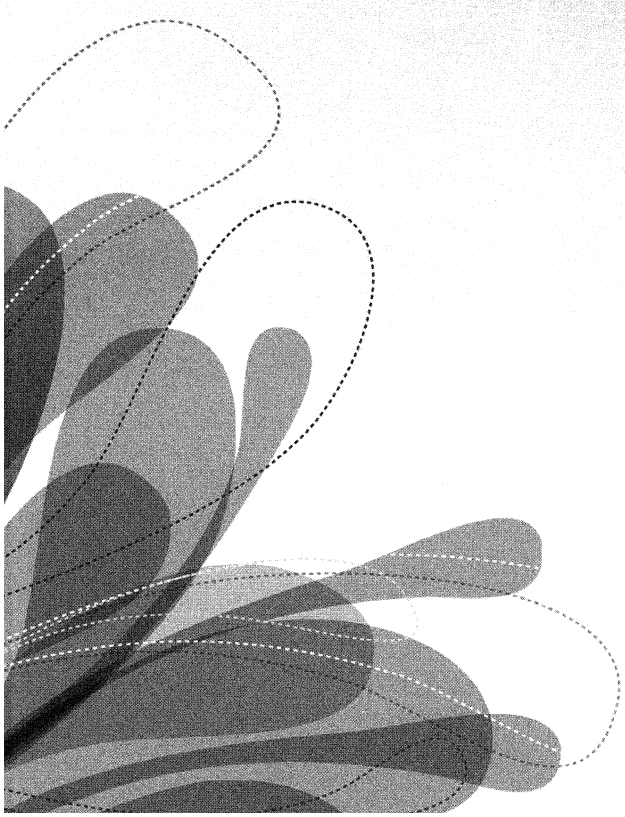
표 26. 연간 500회 이상 연극 공연이 열리는 주요 31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횟수/건수
두레홀	3	1,270	423.3
명보아트홀	4	1,169	292.3
충무아트홀	21	1,046	49.8
아트원씨어터	8	908	113.5
부산SM아트홀	15	875	58.3
해피씨어터	2	861	430.5
동숭아트센터	11	845	76.8
대학로예술극장	79	843	10.7
창조콘서트홀	2	836	418.0
솜사탕아트홀	17	831	48.9
미마지아트센터	6	806	134.3
미라클씨어터	3	787	262.3
BS부산은행조은극장	21	786	37.4
국립극장	55	771	14.0
상명아트홀	6	761	126.8
고양어울림누리	25	758	30.3
SM틴틴홀	1	731	731.0
윤당아트홀	13	690	53.1
클막씨어터	7	686	98.0
PMC소극장	10	670	67.0
낙산씨어터	2	637	318.5
샘터파랑새극장	5	633	126.6
소리아트홀	2	623	311.5
상상나눔씨어터	3	619	206.3
한성아트홀	5	615	123.0
춘천인형극장	42	586	14.0
아티스탄홀	8	557	69.6
대학로아츠플레이씨어터	3	531	177.0
두산아트센터	22	521	23.7
신연아트홀	3	508	169.3
대학로예술마당	2	507	253.5
계	406	23,267	57.3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 용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무용 총론

제대로 된 '비빔밥'이 그리웠던 2011년 무용계

장 인 주(무용평론가)

Ⅰ. 머리말

2011년 무용 공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계량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 동시대적 경향, 문제점, 비전 등을 밝힐 수 있다면 무용예술이 좀 더 대중과 친근해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용이 순수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대중성을 겸비하는 과제는 2011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예년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댄스'가 급부상하면서 일반인이 무용제작 및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작품이 속출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에 다가가려는 시도가 매우 바람직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작품이 늘어 갈수록 이를 무용공연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몇 해 동안 해외 대작만 풍성하고 국내 창작은 빈곤했던 무용계 현실로부터 탈피하고, 미미하게나마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간 2011년을 결산해 본다.

Ⅱ. 계량적 고찰

1. 집계 분석

2011년도 무용 공연은 총 1,170건(2,011회)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5년간 공연 건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2010년에 공연 횟수가 크게 늘었던 점을 제외한다면 횟

수도 2천 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한다. 총 1,170건 중 758건(64.8%)이 1회 공연으로 막을 내리는 무용계의 제작 현실이 개선되고, 이를 위해 일반관객이 무용 공연에 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앞으로 몇 년간 건수나 횟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용계 세부 장르의 변화는 어떠한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순의 공연 건수 분포는 총 건수만큼이나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발레와 혼합 분야의 건수가 다소 줄고, 반대로 복합의 경우 2010년 82건에 비해 1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발레 공연이 줄어든 현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 신작(창작)과 재공연(레퍼토리)의 분포도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작품 내용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분야별 혼합 공연의 건수가 줄고 타 장르와의 복합 공연이 늘어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예술계 전반의 경향이 융복합의 추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무가들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세 세부 장르 간의 혼합보다 연극, 음악, 미술 등 최첨단의 타 예술과 교류하길 선호한다. 따라서 혼합 공연은 횟수가 줄거나 지금의 분포를 유지할 것이며, 복합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계가 무사안일하다면 그건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닐 것이다. 복합 장르가 대세화되어 가는 미약한 움직임만이 2011년의 변화를 이끌었다. 주로 연말대미를 장식하는 <호두까기 인형>(2011년 한 해 동안 25건 공연)을 비롯해 <지젤>, <백조의 호수> 등 장기공연이 가능한 발레장르는 평균 2.4회 공연 횟수를 기록했다. 복합 장르(2.2회)가 바로 그 뒤를 따랐다. 이는 창무회의 어린이 무용극 <날아라 오리야>(4월 22일-5월 8일 서울남산국악당), 국수호 안무의 가무악극 <몽유도원도>(1월 21일-30일 한국의 집), 임이조 안무의 무용극 <미롱>(7월 1일-17일 서울남산국악당) 등 한국무용을 기초로 한 작품들이 복합 장르로 스스로 작품성을 규정하면서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각각 9, 10, 15회 공연을 했는데, 이는 발레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장기공연이다. 성암아트홀 기획공연 <천원의 행복한 발레여행>(4월 5일-11월 29일)이 30회 공연을 기록해 발레 공연 평균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이는 한 편의 작품으로 장기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화요일마다 각기 다른 작품을 시리즈로 묶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 장기공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듯 통상 10회 공연이 무척 어려운 무용계 현실 속에서 전통을 소재로 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창작 작품으로 장기공연을 기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가든파이브 아트홀이 기획한 <테디베어와 백조의 호수>(10월 25일-11월 6일)는 발레에 대사를 삽입하고, 뮤지컬의 요소를 적절히 가미해 17회 공연을 기록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15회 공연을 웃돌면서 복합 장르의 증가에 일조했다. 결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의 경우, 쉬운 이해를 위해 춤에 대사와 노래 등을 섞음으로써 복합 장르로서 장기공연이 가능하고 따라서 복합 공연의 전반적인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장기공연이 가능하려면

무용 공연에 있어 공연 횟수를 중요시 다루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과반수 이상의 작품이 1회 공연으로 끝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이례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은 계획이다. 대중을 무용공연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거시적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진정한 예술가가 설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반 관객을 확보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비싼 관람료 때문에 좋은 공연이 외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재미있는 공연, 잘 된 작품은 경제 불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악재가 나타나도 관객을 모을 것이다. 찾아온 이들에게 적당한 관람료를 요구하고, 또 다른 작품을 보고 싶을 만큼의 적정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이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장기 계획은커녕 당장 내년의 계획도 세울 수 없다면 이들이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뺏는 것과 같다.

2012년 주요 극장에서 앞 다투어 시즌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연간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계획대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극장에서 미리 준비한 만큼 관객도 다가갈 준비를 할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소셜 네트워크의 강세로 '입소문'으로 공연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요즘, 1회 공연은 마케팅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된다. 2011년 총 1,170건 중 126건만이 3회 이상의 공연을 했다는 것은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매우 소모적인 창작이 아닐 수 없다. 작품성을 신장하고, 최소한 3회 이상의 공연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만 폐쇄적이고 가족잔치로 끝나는 무용계의 일반적인 공연 실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미하지만 중요한 집계 변화

2011년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집계는 공연단체의 국적 변화다. 국내단체 공연 건수는 91%, 해외단체 4%, 협업작품이 5%에 해당한다. 횟수는 국내단체가 90%, 해외단체 5%, 협업작품이 5%로 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91%에 해당하는 국내단체의 공연 건수는 2010년과 비교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해외단체 공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단체 공연은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단체의 작품은 지난해 7%에서 4%로 감소했다. 총 50편의 해외 작품이 수입됐다. 104회 공연되었으니 평균 2회 꼴이다. 3월 11일 일어난 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페스티벌 봄』에 참가하기로 했던 베를린 민중극단의 르네 폴레슈가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변수가 감소요인으로 약간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작품은 아무래도 세계적 최첨단 경향을 소개하는 현대무용 분야에 집중되었다. 발레나 복합은 두 장르를 합쳐도 현대무용에 못 미친다.

어떠한 해외단체 공연들이 있었나. 우선 자국 민속을 소개한 대표적인 단체로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무용단(10월 6일-9일 LG아트센터)이 스페인 춤의 정수를 보여주어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인천에서 선을 보인 슬로바키아 민속공연(9월 21일 부평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을 돌며 중국 고전무용을 소개한 션윈예술단(1월 19일-30일)이 이국적 무대를 꾸몄다. '2011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에 참가한 소피아6 민속무용 앙상블(9월 23일-24일 국립극장)은 <네버 엔딩 스토리>로 불가리아의 전통과 풍습을 보여주어 좋은 평을 받았다.

발레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해외단체의 공연은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초청공연(10월 10일-11일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이었다. 우리의 풍토는 아무리 유명단체가 여러 차례 방문해도 새롭게 조명하거나 이번에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오는지 등 사전 평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단체 또는 안무가가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즉 '첫' 또는 '최초'라는 수식어에 절대적 기준을 두고 기획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베자르 발레단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체의 역사와 비중과는 상관없이 대전에서 한 차례 공연만 했다. 문화선진국에 비해 국제교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아직 무용계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의 기호 또한 데이터화된 것이 없다. 따라서 해외 작품을 수입할 때 작품의 예술적 질과 경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숫자에 급급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계 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대 발레단인지, 이번이 몇 번째 내한인지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베자르는 작고했지만, 수많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에서 공연하지 못해 아쉽다.

수적으로 강세인 해외 현대무용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축제가 창구 역할을 했다.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를 통해 글림스&글롬스 무용단(10월 15일-16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실레지아 댄스시어터(10월 6일-7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가 선을 보였으며, 창무국제무용제에서는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T.H.E 댄스컴퍼니(6월 20일-21일 고양아람누리)가 내한했다. 『국제현대무용제(Modafe)』는 이스라엘 안무가 버락 마셜의 <루스터>(5월 25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안무가의 작품이 소개됐다. 다원축제 『페스티벌 봄』은 프랑스 출신 자비에 르 루아 등 축제의 성격에 걸맞은 현대무용 안무가를 소개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오랜 시간 정성 들인 기획력이 돋보였다. 피에르 리갈의 <프레스>(10월 29일-30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바르질리오 시에니 컴퍼니의 <라 내추라:사물의 본질>(10월 30일-31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은 근자에 보기 드문 해외 우수작이었다. 개관 이래 줄곧 컨템퍼러리댄스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는 LG아트센터는 아크람 칸의 <버티컬 로드>(9월 30일-10월 1일), 테로 사리넨이 출연한 카롤린 칼송의 <블루 레이디>(6월 9일-10일)를 초청했다. 예년에 비해 수적으로 감소했다고는 하나, 세계 우수 레퍼토리를 소개하는 명성은 이 두 작품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장기기획이 가능한 프로그래밍시스템 덕이 크다.

해외공연이 줄어든 반면, 2010년의 경우 2%에 불과했던 협업 작품이 2011년에는 5%로 증가했다. 이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해외 예술가와의 공동제작 등의 노력에 따른 국제교류의 성공적인 결과다. 축제를 중심으로 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아따깔라리 움직임연구소와 댄스시어터 까두가 <흔적>(10월 2일 서강대학교 메리홀)을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고, 아시아-아프리카 댄스 익스체인지(10월 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가 눈길을 끌었다. 특정지역을 선정하고 생소한 문화와 국내안무가의 교류에 일찍이 집중해 온 만큼 성과가 컸다. 『창무국제무용제』는 개막작 <아시아의 빛>(6월 10일 고양아람누리)으로 한일 양국의 전통춤과 이를 재해석한 창작춤을 함께 올렸다.

협업작품은 증가세에 비해 성과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로 해외 안무가와 국내 무용수가 만나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국립현대무용단은 프랑스 안무가 조엘 부비에를 초청해 <왓 어바웃 러브>(11월 5일-6일 극장용)를 초연했으며, 안애순무용단은 프랑스 안무가 파브리스 랑베르를 초청해 <기억의 의식들>(6월 10일-12일 호암아트홀)을 발표했다. 해외 안무가를 초청하는 경우 제작 이후 세계적인 무대에서 레퍼토리로서 여러 차례 재공연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의 현실은 제작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

협업은 단순히 해외 작품을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차원적인 단계다. 꾸준한 시도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작품을 공동 제작함으로써 국제교류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또한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국내 무용가의 예술적 수준 또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미한 변화일지라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분야다.

Ⅲ. 2011년의 논제

1. 복합 장르에 대한 의견

지난 몇 년간 무용계를 비롯한 예술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경향(tendency)은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급부상한 '멀티디시플리너리(Multidisciplinary)'일 것이다. '여러 학문에 걸친', '종합적인'이란 뜻으로, 요지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재료를 혼합한다는 것이다. 컨템퍼러리 예술의 핵심이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꾸준하게 나타난 특성이기도 하다. 결국 특성이 모여 경향을 만들어 탄생한 단어들도 여럿 있다. '크로스오버', '탈장르', '전방위', '융합', '복합', '다원' 등이다. 이들로도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자, '새 개념'이란 모호한 명칭을 쓰기도 한다.

무용에 있어서 '아방가르드(avant-garde)'는 전위예술로서의 무용을 지칭한다. 20세기 초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을 거부하는 사고로부터 출발한 '전위'의 실체는 예술과 삶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정, 예술을 옹호하는 사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다. 춤은 '도발'과 '충격'을 외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다. 세월이 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러 '아방가르드'도 진화했다. 이 시대의 아방가르드는 호칭이야 무엇이 되었든 '토털 시어터'를 추구한다. 궁극적으로 '멀티디시플리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무용계에 주요한 사상의 흐름으로 '토털 시어터'가 등장했고, 무용예술론의 화두가 되어 왔다. 그러니 지금의 '복합'이 그리 획기적이거나 놀라운 경향은 아닐 것이다.

미적 주제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예술세계에서 하나의 경향을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극, 음악, 조형예술 등 큰 범주의 예술 장르를 통합하는 것이 '복합'이라면 결국 장르 간의 경계를 초월한 '복합'은 하나의 독립 장르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아직까지도 각 장르 내에서 각각 '복합'을 형성하고 있다. 무용에 있어서도 '복합'을 세부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에 있던 메리디드 몽크가 주장한 '살아 있는 영화', '연극적 칸타타', '오페라 서사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복합 장르가 갖는 특성이 한 가지 예술 장르로는 표현하기 힘든, 격동적 크로스오버를 전제로 한다면 1980년대 미국의 '뉴 댄스'를 주도했던 트리샤 브라운, 루신다 차일드, 트와일라 사프 등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미 있어 왔던, 절대적으로 새롭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향을 하나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기보다 오히려 타 장르와의 통합에서 파생한 독립 장르의 '복합'으로 인정했으면 한다.

양악, 국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에 속하는 대분류 항목마다 각각 '복합'은 존재한다. 결국 어느 장르를 기초로 했는가에 따라, 예술가가 속한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혹은 공연이 이루어진 행사나 극장의 프로그램에 따라 같은 형태의 복합 공연이라고 해도 대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서울아트마켓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네 가지 장르로 팸스 초이스 선정작을 구분하고 있다. 연극, 무용, 음악 그리고 복합이다. 예술가 스스로 참가신청 시 본인의 작품 장르를 구분하고, 작품선정위원회는 그 구분이 맞는지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해외 유수 아트마켓의 장르 구분과 혼돈 없이 교류하기에 적합하다. 복합을 위한 예술인지, 예술의 결과가 복합인지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에 앞서 '복합'을 독립된 대분류로 선택한 바람직한 예다.

2011년 무용계 복합 분야 작품을 살펴보았다. 무용 작품 총 1,170건 중 122건(266회)으로 2.2%에 해당한다. 앞서도 발레 다음으로 많은 횟수임을 언급한 바 있

다. 혼합의 경우 123건으로 183회 공연된 것과 비교해 복합은 거의 같은 작품 수로 더 많은 공연을 했다. 복합 작품을 만든 안무가들은 누가 있는가. 국수호, 김말애, 배정혜, 조흥동, 이경옥, 손인영 등이 한국무용가이며, 발레 분야에선 제임스 전이 있다. 김남진, 김성용, 김윤정, 남영호, 안애순 등은 현대무용 안무가다. 각 분야에서 창작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온 안무가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작품이 진정한 복합 장르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분류과정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내용과 움직임 표현방식, 연출양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복합 분야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다. 나누리 예술단의 <내 친구 반쪽이>(9월 22일-23일 하남문화예술센터)는 '춤으로 들려주는 전래동화'로 복합 분야로 보기 힘들다. 전래동화를 소재로 했을 뿐, 한국무용 분야로 분류함이 옳다. 또한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한 <무용극과 송범>(6월 6일, 6월 27일 정동극장)은 무용극이라는 제목 때문에 연극과 무용이 결합된 작품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분류했겠지만, 실상은 한국무용 분야 작품이다. 국립무용단 초대 단장을 지낸 송범이 추구한 무용극을 중심으로 근현대의 예술세계를 되짚어 보는 공연으로 <도미부인>, <은하수>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작품 해설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복합 장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특히 김선이 안무의 <IF>(10월 6일-7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안무가 스스로 복합 장르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작품 자체에서 타 장르와의 교감을 크게 발견할 수 없었다. 무용이 종합예술이듯 음악과 무대미술(영상을 포함한)과 함께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일 뿐 특정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긴 힘들다. 발레 작품으로 제임스 전이 안무한 <Being again>(9월 1일-4일 강동아트센터)도 명확하게 복합 장르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렇듯 복합 장르에 대한 정의와 그를 통한 작품분석 및 미적 평가는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딱히 2011년 작품 중에서 '이것이 복합 장르다'라고 꼬집어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다. 섣부른 장르 구분은 시대적 감각과 세련미만 추구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 필자는 '복합' 장르를 '비빔밥'에 비유하곤 한다. 비빔밥이 맛이 없거나 요리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고르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제 맛이 나는 음식이다. 적당한 배합으로 손맛을 더해 비비면 각 재료 고유의 맛이 서로 합쳐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지만, 마구잡이로 뒤섞어 놓으면 따로 먹느니만 못하다. '비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밥'이 넘쳐난 2011년, 정성들여 제대로 만든 비빔밥 한 그릇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2. 분류체계의 중요성

2011년 무용 공연에 대한 문예연감 편람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했다. 2010년과 같다. 중분류 체계로 무용 내 세부 장르를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표현방식에 따른 삼분법 즉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분류를 따르고, 이 세부 장르 간의 혼합이 이루어진 작품은 '혼합'으로, 연극, 음악 등 타 예술 장르 간의 혼합이 이루어진 경우 '복합'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 작품은 '기타'로 별도 구분했다. 예컨대 비보잉, 벨리댄스, 재즈댄스, 아이스 발레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소분류 체계로 '창작'과 '레퍼토리(기존 공연작)'를 나누었다. 비록 미분류 공연이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불완전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창작 작품이 다소 감소하고, 레퍼토리가 증가했다' 또는 '현대무용·복합·혼합은 창작 중심, 발레는 레퍼토리 중심'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앞으로 장기적 데이터 축적을 통한 레퍼토리 구축의 필수 자료가 될 것이다. 단지 지금의 명칭을 수정했으면 한다. '창작'이라는 의미가 무용사를 통해 '신작'으로 쓰이기보다 전통에 기반을 두지 않고, 동시대적인 작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경우 쓰여 왔다. 따라서 '창작' 대신 '신작'으로, '레퍼토리' 대신 '재연'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재연'은 횟수를 더하면서 자연스레 '레퍼토리'가 될 것이다.

실상 명칭에 대한 수정 외에 현재의 분류체계는 크게 문제없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류 기준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서 복합 장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듯이 분류체계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체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다. 무용예술의 삼분법 분류만으로는 장르를 설명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분법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정체성 설명이 가능한 소분류를 두고, 복합 장르는 타 예술 장르와 합쳐 수합하는 것이 편람으로서 더 큰 가치를 갖지 않을까. 물론 매 작품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데이터 구축 과정에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중분류 안에 매우 섬세한 시각이 필요한 분류작업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397건에 해당하는 한국무용 작품을 살펴보았다. 계량적 분포까지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한국의 전통춤(Korean Traditional Dance)에 기초해 이를 재구성 또는 새롭게 창작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공립 단체의 경우 예술감독의 의지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했다. 경기도립무용단의 경우를 보면 <VISION 우리춤>(3월 19일, 4월 16일, 7월 23일, 9월 17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이라는 제목으로 무용단이 수십 년간 보유해 온 전통 및 창작 레퍼토리를 경기도립국악단의 민요와 산조 등과 함께 흥겨운 무대로 만들었다. 전통 작품과 창작 작품을 적절한 배합으로 소개한 경우였다. <태권무무 달하>(9월 30일-10월 1일 경기도 문화의전당)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춤과 무술의 예술적 접목을 시도한 대표적인 창작 작품으로 경기도립무용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김은희 안무 <월령>(3월 23일-24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창무국제무용제』 개막작에서 보여준 김매자와 츠치토리 토시가 함께한 <광>, 그 외 리을 무용단, 손인영, 김영희, 이경옥 등의 작품은 '창작'의 범주 안에서도 좀 더 컨템퍼러리댄스의 성향이 짙은 경우다. 이러한 경우 안무가 당사자는 물론 이론가 또는 비평가가 함께 논의해야겠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대무용 내 컨템퍼러리댄스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발레 분야는 143건을 검토한 결과, 큰 고민 없이 '고전'과 '모던'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레퍼토리인 경우 주로 고전 작품, 창작인 경우 모던 작품이 많았다. 여기서의 '고전'은 <지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낭만 발레와 고전 발레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레퍼토리를 통틀어 말한다. '모던'은 신고전주의 발레는 물론 컨템퍼러리발레까지 아우른다. LIG문화재단이 주최한 <플라잉 레슨>(7월 22일-23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유니버설발레단의 <This is Modern 2>(6월 9일-12일 유니버설 아트센터), 국립발레단의 <왕자 호동>(4월 2일-3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로미오와 줄리엣>(10월 27일-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김선희발레단의 <인어공주>(1월 21일-23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등이 대표적이다. 발레의 경우도 한국무용과 같이 발레의 기법이나 정형미에서 벗어나 작가정신이 강한 작품은 현대무용의 컨템퍼러리 분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2011 스프링 페스티벌』에 참여한 <허용순의 춤>(4월 29일-30일)이 대표적이다.

현대무용은 작품의 실험성의 차이에 따라 '모던'과 '컨템퍼러리'로 구분했으면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다. 여기서 '실험성'은 시대적 경향과 밀접한 연관을 갖지만 예외도 있다. 복합장르가 아방가르드를 대신하긴 하지만, 춤동작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실험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무가가 깊이 있는 고찰과 남다른 혜안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면 곧 실험성을 인정받고, 동시대적 예술로서 평가받을 것이다. 2011년의 경우 359건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작품이 컨템퍼러리댄스 작품으로 파악됐다.

한편 작품성향에 따른 세부 장르 내 소분류 외에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2011년 현대무용 공연에 무용경연대회가 포함되어 있다. 『제20회 전국무용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경연대회 일일 공연을 공연 건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연대회가 이루어지는 당일, 여러 편의 작품이 한 무대에 오른다. 이를 각각의 건수로 보아야 하는지, 무용제 당일 공연에 포함해 하나의 건수로 집계해야 하는지는 토론이 필요하다. 2011년에는 후자로 집계되었다.

IV. 맺음말

2011년 공연된 무용 작품 1,170건을 대상으로 분류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봤다. 작품의 미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예술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념을 통한 예술적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쌓여,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논제가 한국의 동시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무용이 한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예술가의 독립된 존재성을 고양해야 할 시점이다.

2011년 무용 현황분석

황 윤 숙(문화리서치 피오 대표)

1. 무용 공연의 연도별 추이

무용 공연은 2008년 공연예술에 속한 4개 장르(국악, 양악, 연극, 무용)의 문예연감 편람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부터 비교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왔고,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5개년간 추이를 일찍부터 검토할 수 있었다. 물론, 2008년 이전의 편람은 자료조사방법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만큼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표 1.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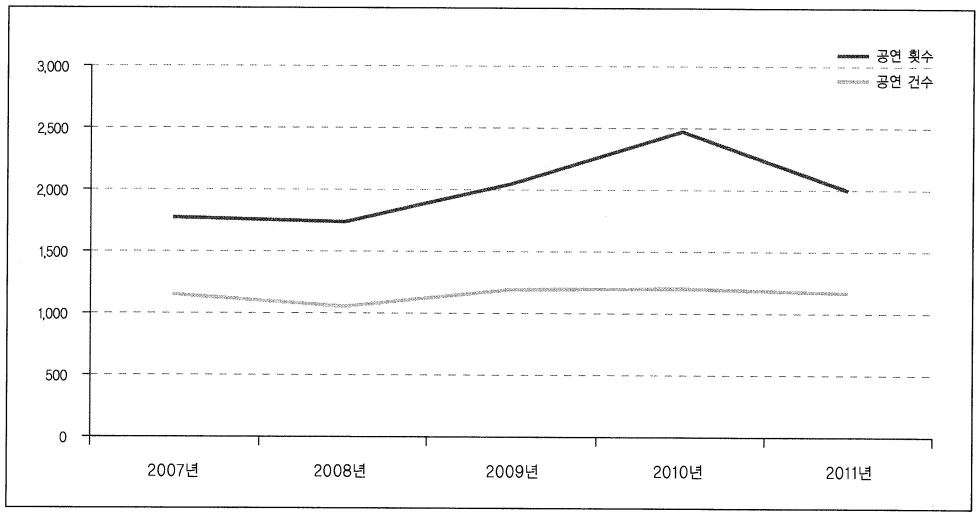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연 건수	1,165	1,055	1,203	1,206	1,170
공연 횟수	1,775	1,736	2,047	2,478	2,011
공연 건수 대 횟수 비율	1.5	1.6	1.7	2.1	1.7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은 공연 건수 기준 연간 평균 약 1,160건, 공연 횟수 기준 2,009회 무대에 올랐다. 변화의 추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시각적으로 더 잘 드러난다. 2007~2010년간 공연 건수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폭 증가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이에 비해 공연 횟수는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다. 공연 건수가 조금 늘어났던 2007년에 공연 횟수는 전년도의 2,085회에서 1,775회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횟수의 감소는 2008년까지 계속되다가 2009년에 와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0년에 와서 공연 건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횟수가 2,478회로 훌쩍 뛰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특정 작품의 장기공연에 기인했었다. 2011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공연 횟수가 감소한 모습이다.

▌그림 1. 최근 5년간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추이 ▌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그래프의 양상은 각 연도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을 보면 잘 드러난다. 2006년 2회 수준이었던 공연당 공연 횟수가 2007년에는 1.5회로 낮아졌다가 2008년 1.6회를 거쳐 2010년에는 2.1회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다. 2011년도에는 1.7회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2. 무용 내 세부 분야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

2011년의 무용 공연에 대한 문예연감 편람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로 분류한다. 세부 분야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의 분포를 살피면 각 분야별로 한 해 동안 공연이 양적인 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단순화해서 알 수 있다. 이 숫자들은 하나하나의 공연이 품고 있을 차이와 특수성을 담아내진 못하지만, '2011년 무용 공연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표 2.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공연 건수	빈도	397	359	143	123	122	26	1,170
	비율	34%	31%	12%	11%	10%	2%	100%
공연 횟수	빈도	506	662	340	183	266	54	2,011
	비율	25%	33%	17%	9%	13%	3%	100%

공연 건수에 있어서는 한국무용이 397건으로 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다. 369건으로 31%를 차지했던 전년도에 비해 비중이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현대무용이 359건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잇고, 발레 143건, 혼합 123건, 복합 122건 순의 분포를 보인다. 현대무용이 전년도 313건에서 다소 증가한 반면, 발레는 167건에서 143건으로, 혼합은 148건에서 123건으로 감소했다. 복합은 전년도 82건에서 2011년도 122건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공연 건수에 있어서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57%에서 올해 65%로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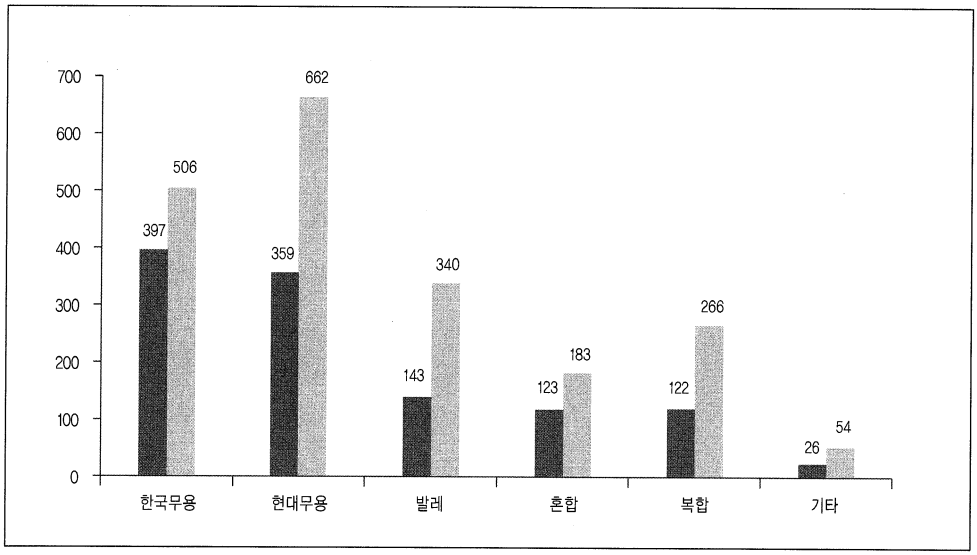
기타 분야에는 앞서 분류 기준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비보잉, 벨리댄스, 재즈댄스, 아이스발레 등이 바로 기타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공연이다. 문예연감이 포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커뮤니티 예술이 아닌 전문 예술인에 의한 창작 활동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후 이러한 공연들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1년 문예연감에서도 이러한 공연을 편람에 포함시켰다.

공연 횟수에서의 장르별 비중도 공연 건수와 전반적인 분포는 다르지 않다. 공연 횟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은 모두 발레와 복합 장르의 공연당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련 있다. 무용의 세부 장르 중 공연당 공연 횟수가 평균 2회를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넘는 장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발레와 복합뿐이다. 발레가 2.4회로 가장 많고, 복합이 2.2회로 뒤를 잇는다. 현대무용의 1개 공연당 공연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11년에는 1.8회에 이르고 있다. 여러 장르의 무용 공연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혼합 공연의 1개 공연당 공연 횟수는 1.5회 수준. 한국무용은 1.3회로 가장 낮다.

▌그림 2.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분포 ▌



3.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의 비율로 살펴본 무용 내 세부 장르별 실태 차이

무용 공연의 전체적인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7회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1개의 무용 공연이 1.7회 무대에 오르는 셈이다. 전년도의 2.1회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연중 공연이 진행된 특정 공연의 영향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공연 건수 1,170건 중 758건이 1회 공연으로 64.8%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2회를 더하면 89.2% 수준에 달해, 3회 이상의 다회 공연은 매우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 무용 공연의 공연 횟수별 공연 건수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0회	8·9·15·30회	11·12·13·14·17회	총합계
공연 건수	758	286	46	29	19	10	3	6	8(각 2건)	5(각 1건)	1,170

세부 장르별로는 발레가 2.4회로 가장 높고, 복합 2.2회, 현대무용 1.8회, 혼합 1.5회, 한국무용 1.3회 순으로 나타난다. 기타 범주의 공연은 일반적으로 무용 공연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연당 공연 횟수를 보여주는 편인데,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기타 분야는 약 2회로 평균 2회 수준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르인 발레, 복합과 함께 높은 공연 횟수를 보였다.

▌표 4.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공연 건수	397	359	143	123	122	26	1,170
공연 횟수	506	662	340	183	266	54	2,011
횟수/건수비	1.3	1.8	2.4	1.5	2.2	2.1	1.7

발레 공연 중에서는 서울 성암아트홀 기획공연 화요무대였던 "천원의 행복한 발레 여행"이 총 30회로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15회,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13회 공연되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발레단의 전막 해설 발레 "코펠리아"(11회), 미국 오리건 발레단이 선보인 "조지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7월)"(10회) 등이 모두 10회 이상 이루어진 발레 공연이다. 발레 공연에서도 1회만 공연하는 경우가 71건(49.3%)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지만 앞서 언급한 10회 이상 공연들이 발레 장르의 공연당 공연 횟수 평균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회만 공연하는 경우가 67건으로 54.5%를 차지하는 복합 장르에서도 이처럼 몇몇 공연이 전체 평균값을 이끄는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든파이브 아트홀의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 "테디베어와 백조의 호수"가 17회, 음악극 형식을 띠지만 춤, 움직임, 소리 위주로 진행되면서 궁중무용이라는 소재를 현대화한 작품인 극단 시선의 "미롱(媚弄)"이 15회, 국수호 안무의 "몽유도원도"가 10회, 창무회의 "날아라 오리야"가 9회 등으로 복합 장르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무용과 뮤지컬, 무용과 연극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장르의 경우, 무용 공연의 일반적인 일정과 달리 협업이 이루어진 다른 장르와 유사한 공연 일정을 취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대무용 공연에서는 성암아트홀 기획공연 목요무대였던 "New Form New Stage"가 총 30회로 현대무용 중 가장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댄스컴퍼니 마묵의 "하얀코끼리", 박명숙댄스시어터의 "윤무" 등이 각기 10회의 무대를 올리는 등 현대무용 공연의 전반적인 공연 횟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4. 창작 공연은 공연당 평균 1.9회, 기존 작품은 1.7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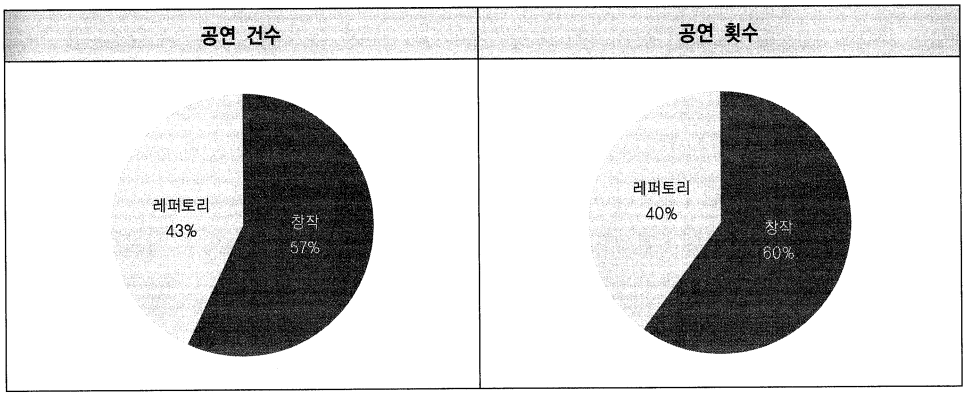
앞서 보았던 것처럼 무용 공연은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 달리 표현하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따라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에 기초한 분석만으로는 전체 흐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얻기가 쉽지 않다. 무용 공연 편람에서도 모든 공연에 대해 2011년에 창작된 작품인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 해 공연된 작품 중 창작과 기존 공연작(편람상에서는 '레퍼토리'라는 용어 사용)을 나누어 살핀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도부터 문예연감에서 무용 공연에 대해 각 공연 작품이 창작인지 아닌지를 불완전하게나마 분류해 오고 있다. 분명히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인 상태로 두었다.

▌표 5. 무용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분포 ▐

구분	창작	레퍼토리	미분류	총합계
공연 건수	456	346	368	1,170
공연 횟수	850	575	586	2,011
횟수/건수 비율	1.9	1.7	1.6	1.7

미분류인 공연을 제외하고,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창작 작품은 456건으로 57%, 기존 작품(레퍼토리)은 346건으로 43%를 차지한다. 전년도에는 창작 작품이 64%, 기존 작품이 3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창작 작품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창작 작품이 850회로 60%, 기존 작품(레퍼토리)이 575회로 40%를 차지한다. 창작 작품이 760회로 46%, 기존 작품(레퍼토리)이 902회로 54%를 차지한 전년도에 비해 공연 건수의 경우보다 창작 작품의 공연 횟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그림 3. 무용 공연의 창작, 레퍼토리 비중(미분류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 ▐



창작 공연의 공연 건수 대 공연 횟수 비율은 1.9회로 2010년의 1.8회, 2009년의 1.7회와 큰 차이가 없다. 레퍼토리 공연은 2009년 1.9회 수준인 데 반해 2010년 3.8회로 높아졌다가 2011년 다시 1.7회 수준으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현재 수준의 편람 자료만으로는 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레퍼토리로 분류된 공연들 중에서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23회), "리버댄스"(15회), 오리건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10회) 등 해외 공연단체의 내한공연과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19회) 등 상대적으로 공연 횟수가 높은 공연들이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편람 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이 되면 이 같은 차이가 어떤 요인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는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등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5. 무용 공연 100개 중 91개는 국내작, 4개는 해외작, 5개는 공동작

공연 단체의 국적도 창작·레퍼토리 구분과 함께 2008~2010년에 이어 2011년 편람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사후 조사 형태인 만큼 분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만을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미분류로 범주화하여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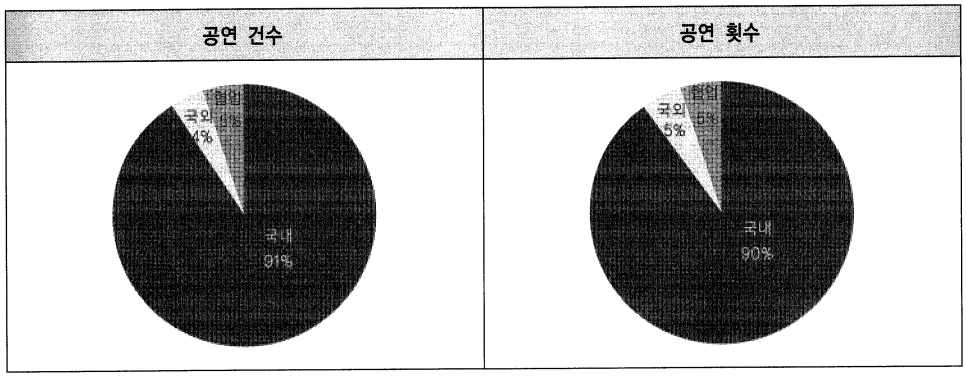
▌표 6. 무용 공연 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국내	해외	협업	총합계
공연 건수	빈도	1,061	50	59	1,170
	비율	91%	4%	5%	100%
공연 횟수	빈도	1,812	104	95	2,011
	비율	90%	5%	5%	100%
횟수/건수 비율		1.7	2.1	1.6	1.7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비중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무용 공연이 100개라고 한다면, 그중 91개는 국내 공연단체가, 4개는 해외단체가, 5개는 국내 무용인과 해외 무용인이 함께 협업한 공연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국내 공연단체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외단체의 비중이 줄고 협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한 해 동안의 무용 공연을 총 100개라 가정했을 때 해외 공연단체의 공연

은 7개, 협업은 2개 수준이었다. 해외 단체 공연의 공연당 평균 횟수가 2.1회로 1.7회인 국내 단체나 1.6회인 협업 공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내한 공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무용 공연 단체 국적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6. 현대무용·복합·혼합은 창작 중심, 한국무용과 발레는 레퍼토리 중심

세부 장르별로 창작 중심의 장르와 레퍼토리 중심의 장르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무용 장르의 특성 중 하나다. 창작 공연과 기존 작품 공연의 비율을 무용 내 세부 분야별로 살피면, 창작이 활발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야를 알 수 있다. 이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창작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1을 넘어 커질수록 그만큼 레퍼토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무용의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은 0.1로 전년도의 0.08과 큰 차이가 없다. 창작 공연이 레퍼토리에 비해 7.3배에 달해 창작이 중심이 되는 장르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연예술 장르 간 협업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속한 복합 장르는 특성상 창작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이 0.4 수준이다. 무용 내 세부 장르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혼합 형태의 공연 또한 상대적으로 창작의 비중이 큰 장르에 속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7. 무용 공연의 세부 분야별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 ▐

구분	창작	레퍼토리	레퍼토리/창작비율	미분류	총합계
한국무용	68	183	2.7	146	397
현대무용	241	33	0.1	85	359
발레	34	81	2.4	28	143
혼합	46	24	0.5	53	123
복합	64	23	0.4	35	122
기타	3	2	0.7	21	26
총합계	456	346	0.8	368	1,170

굳이 이러한 자료에 기대지 않아도 발레와 한국무용에 레퍼토리 공연이 많으리라는 것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선 이러한 편람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레는 레퍼토리 대 창작 비율이 2.4로 전년도의 2.34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도의 경우엔 1.64였다. 이는 창작 공연보다 레퍼토리 공연이 2.4배 더 많다는 의미다. 전년도와 달리 2011년에는 한국무용이 발레보다 레퍼토리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창작 발레의 시도가 빈번해지는 추세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7. 월별 공연 분포는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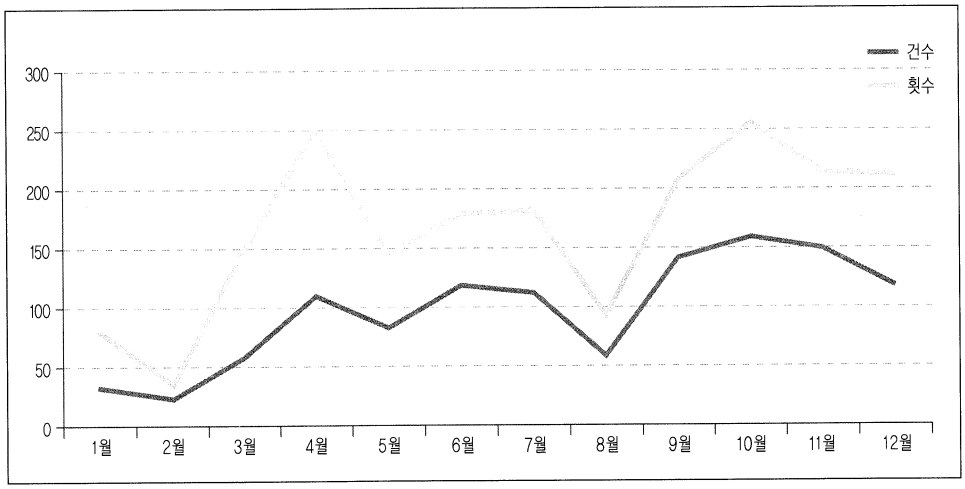
각 공연이 시작된 시점을 바탕으로, 연중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완만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관찰되는 패턴으로, 봄과 가을에 여름과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공연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다.

▌표 8. 무용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빈도	1	33	25	59	111	83	119	113	59	142	158	149	118	1,170
	비율	0.1%	2.8%	2.1%	5.0%	9.5%	7.1%	10.2%	9.7%	5.0%	12.1%	13.5%	12.7%	10.1%	100%
공연 횟수	빈도	5	80	36	150	250	145	179	182	94	208	257	214	211	2,011
	비율	0.2%	4.0%	1.8%	7.5%	12.4%	7.2%	8.9%	9.1%	4.7%	10.3%	12.8%	10.6%	10.5%	100%

위 표를 아래처럼 그래프로 표시하면 7월에 조금 변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연 건수가 완만한 기울기를 보이는 가운데 공연 횟수가 일정 수준 높게 위치하면서 분명한 형태의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차이는 4월과 10월에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0월의 경우에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높다.

▌그림 5. 무용 공연의 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무용에서 나타나는 M자형 곡선의 경우, 10월 정점에 이르기까지 9월에는 다소 가파르게, 10월에는 다소 완만하게 상승세가 진행된다. 10월은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서울국제공연예술제』처럼 무용만을 다루거나 연관성이 높은 좋은 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연예술 축제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레아트페스티벌 2010』과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무용 작품들이 공연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12월에도 공연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발레 공연에 힘입은 바 크다.

8. 서울·부산·경기·경남·대구 순으로 무용 공연 활발

16개 시도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피면, 지역마다 달리 나타나는 무용 공연의 양적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에서 가장 공연 양이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540건으로 바로 뒤를 잇는 부산 132건의 네 배 수준에 이르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1,176회로 부산 183회의 여섯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무대에 오른 무용 공연 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46.2%의 공연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58.5%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전년도의 경우 공연 건수상으로는 47.8%,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66.2%의 공연이 서울에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집중도가 다소 감소한 편이다.

▌표 9.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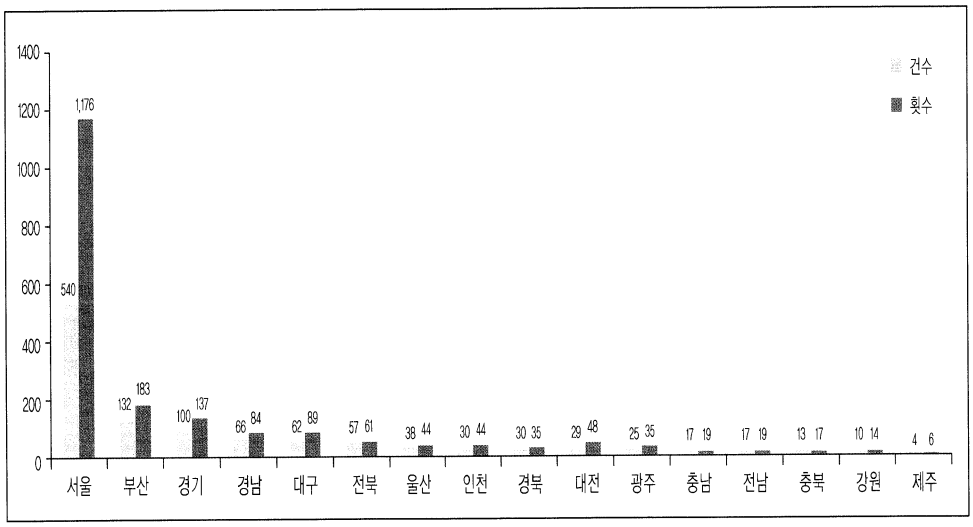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대구	전북	울산	인천	경북
공연 건수	540	132	100	66	62	57	38	30	30
공연 횟수	1,176	183	137	84	89	61	44	44	35

구분	대전	광주	충남	전남	충북	강원	제주	계
공연 건수	29	25	17	17	13	10	4	1,170
공연 횟수	48	35	19	19	17	14	6	2,011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대구에서 연간 약 60건 이상의 무용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 뒤로 전북이 대구에 이어 인천보

다 더 많은 무용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는 한국무용 공연과 전주전통문화센터의 토요상설공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연간 약 80회 이상의 무용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 건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6.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이다. 한 공연당 평균 2.8회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 인천(2.09회)과 함께 공연당 횟수가 2회를 넘는 지역이다. 조금 이례적인 모습은 충북이 1.71회로 인천의 뒤를 이어 공연당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립무용단의 창작 작품 "도깨비 감투", "크리스마스환타지-산타구출"이 각각 6회, 5회 공연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연 횟수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19회 전국무용제』가 열린 광주가 1.69회, "크리스마스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오름무용단의 " 서경희의 춤"이 각각 4회 공연을 한 대전이 한 공연당 평균 1.59회, 이후 순위는 지역별로 큰 차이 없이 공연당 평균 1회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0. 16개 시도별 무용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비율 ▌

지역	공연 건수	공연 횟수	비율
서울	540	1,176	2.18
대전	29	48	1.66
제주	4	6	1.50
인천	30	44	1.47
대구	62	89	1.44
광주	25	35	1.40
강원	10	14	1.40
부산	132	183	1.39
경기	100	137	1.37
충북	13	17	1.31
경남	66	84	1.27
경북	30	35	1.17
울산	38	44	1.16
충남	17	19	1.12
전남	17	19	1.12
전북	57	61	1.07
계	1,170	2,011	1.72

9.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수도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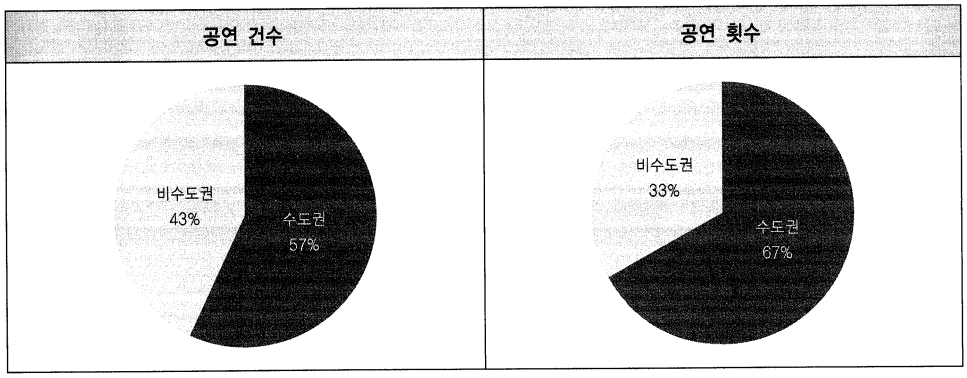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을 수도권으로, 나머지 13개 시도를 비수도권으로 범주화했다. 공연 건수에서는 수도권이 670건으로 500건인 비수도권보다 1.3배 정도 우세하고,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654회에 비해 약 2배 많은 1,357회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의 경우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여전히 수도권이 우세한데, 비수도권에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회 공연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총합계
공연 건수	670	500	1.34	1,170
공연 횟수	1,357	654	2.07	2,011

위 표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연 횟수에서 차이가 더 확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이렇게 건수에서보다 횟수에서 지역 격차가 커지는 경향은 지역을 기초단위까지 분류해서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로 범주화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2.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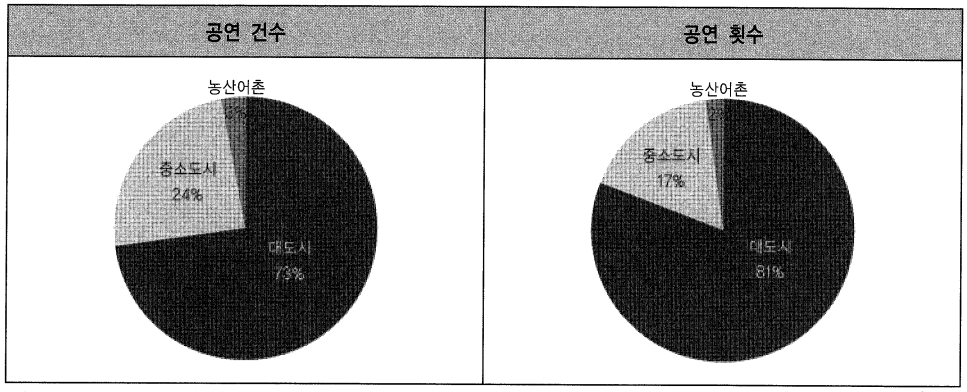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총합계
공연 건수	38	856	276	1,170
공연 횟수	40	1,619	352	2,011

3.6배 수준인 광역시와 시지역의 공연 건수 격차는 공연 횟수로 가면 6.3배 수준으로 더 크게 벌어진다. 이에 비해 시지역과 군단위는 공연 건수 격차가 5.9배, 공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 횟수 격차가 6.9배 수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지역과 군단위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광역시는 공연당 평균 공연 횟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무용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비교 ▐



10. 지역 인구 대비 공연 건수·횟수 모두 서울이 우세, 경기는 하위권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필 경우 무용 공연이 지역별로 어떤 양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으나, 실제로 무용 공연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무용 공연이 열리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공연 수에만 기대어 살피는 비교보다 실질적인 지역 비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실제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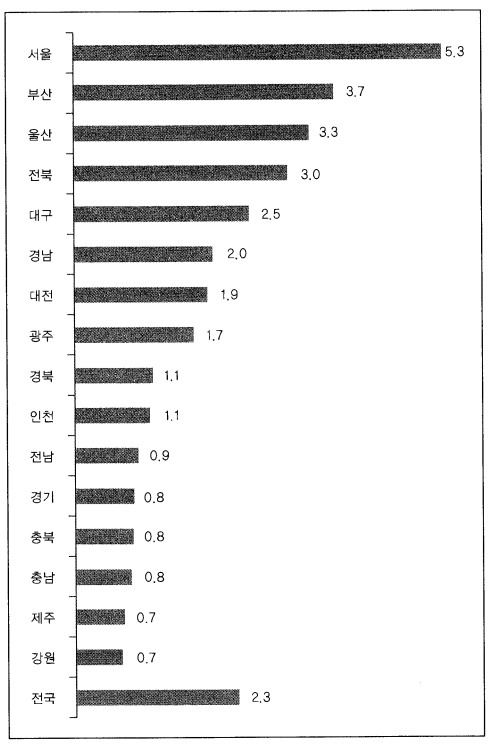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은 2.5건, 공연 횟수로 보면 5.1회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에 이어 높은 공연 건수를 보이는 경기가 인구 10만 명당 인구수를 고려하자 공연

건수 순위가 한참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만으로 보면 서울을 넘어서지만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경기 지역 자체에서 오르는 공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공연 수에서 경기의 부진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의 공연예술 장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서울의 5.3건에 이어 부산 3.7건, 울산 3.3건, 전북 3.0건 등으로 서울보다 낮긴 하지만 지역별 단순 비교 때보다 순위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지역은 충남이 10위권에서 14위권으로 낮아진 것 외에는 이전 지역별 단순 비교 때와 큰 변동 없이 근소한 차이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9.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건수 ▐

순위	지역	공연 건수
1	서울	5.3
2	부산	3.7
3	울산	3.3
4	전북	3.0
5	대구	2.5
6	경남	2.0
7	대전	1.9
8	광주	1.7
9	경북	1.1
10	인천	1.1
11	전남	0.9
12	경기	0.8
13	충북	0.8
14	충남	0.8
15	제주	0.7
16	강원	0.7
전국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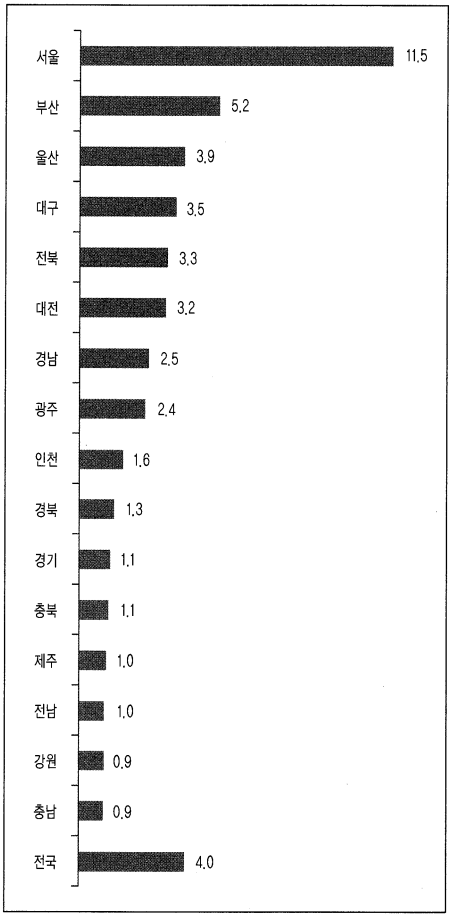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는 공연 건수와는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 비율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르다.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서울이 11.5회로 5.2회인 부산을 큰 차이로 앞서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연 횟수를 보인다. 그 뒤로 울산(3.9회), 대구(3.5회), 전북(3.3회), 대전(3.2회) 순으로 인천이 횟수 면에서 조금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10. 인구 10만 명당 무용 공연 횟수 ▐

순위	지역	공연 횟수
1	서울	11.5
2	부산	5.2
3	울산	3.9
4	대구	3.5
5	전북	3.3
6	대전	3.2
7	경남	2.5
8	광주	2.4
9	인천	1.6
10	경북	1.3
11	경기	1.1
12	충북	1.1
13	제주	1.0
14	전남	1.0
15	강원	0.9
16	충남	0.9
전국		4.0



11. 최근 3개년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변화

조사방법의 표준화가 처음 시도된 2008년과 보완을 통해 조사방법의 표준화가 자리를 잡은 2009년부터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있지만, 편람 자료의 중요성과 포괄성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의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증가 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있는 몇몇 지역이 도드라진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서울과 전북만 공연 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마다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인천·경남·울산·경북·강원·전남·충북·광주·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은 2009년 공연 양이 증가했다가 2010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부산·충남은 2009년에 주춤했던 공연 양이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회복되는 모습이고, 대전·강원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또한 2010년 소폭 감소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증가 추이를 보인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2009년에 489건으로 2008년과 비슷한 규모(488건)를 유지하다가 2010년 57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540건으로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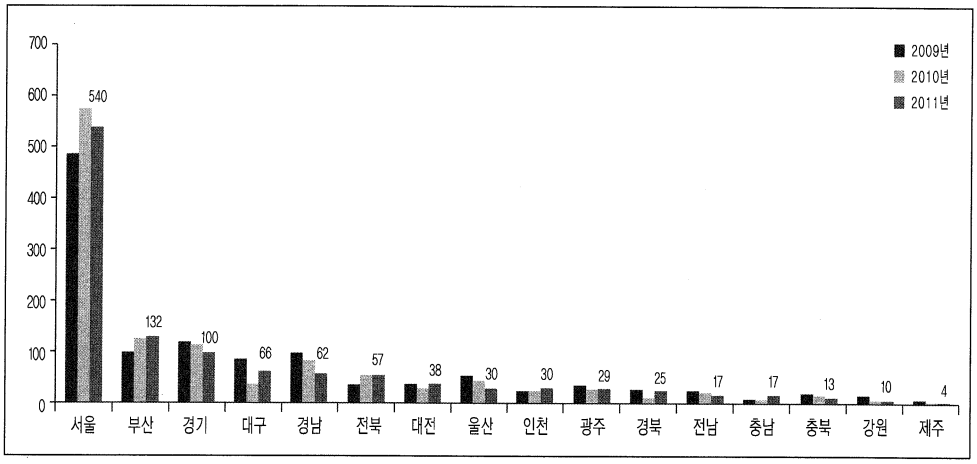
▌표 13.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

연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대구	전북	울산	인천	경북
2009년	489	102	122	89	100	39	37	53	26
2010년	576	129	115	41	84	55	30	46	24
2011년	540	132	100	66	62	57	38	30	30

연도	대전	광주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총합계
2009년	37	30	27	7	21	15	9	1,203
2010년	29	16	22	9	17	7	6	1,206
2011년	29	25	17	17	13	10	4	1,170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림 11.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 건수의 지역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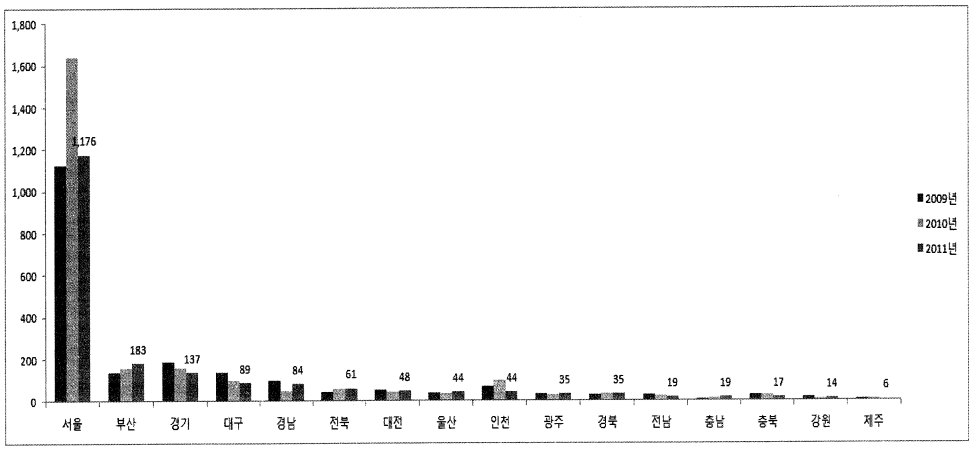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피면 지역별로 공연 건수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제주에서는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514회에 달하는 큰 증가를 보이는 서울과 그보다는 적지만 역시 꾸준한 증가폭을 보이는 전북 외에도 부산, 인천, 충북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연 횟수가 상승세를 보인다. 경기, 대전, 강원은 공연 횟수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남은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공연 횟수도 회복세, 경북은 2009년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표 14.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연도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남	전북	대전	울산	인천
2009년	1,126	139	189	138	97	42	53	38	70
2010년	1,640	157	159	99	47	58	46	34	96
2011년	1,176	183	137	89	84	61	48	44	44
연도	광주	경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총합계	
2009년	36	27	30	7	28	17	10	2,047	
2010년	27	32	26	12	29	7	9	2,478	
2011년	35	35	19	19	17	14	6	2,011	

▌그림 12. 최근 3개년간 무용 공연 횟수의 지역별 추이 ▐



12. 한국무용 우세 지역과 현대무용 및 혼합이 우세한 지역적 분화

16개 시도별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복합 등의 세부 분야별 공연 비중을 살펴볼 때의 기준은 공연 횟수보다 공연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공연당 공연 횟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특정 장르의 비중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횟수를 추가로 참고할 필요는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각각 26%와 30.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발레(13.8%), 혼합(12.3%), 복합(6.8%) 순서다.

지역별로 가장 비중이 큰 장르는 대다수 지역에서 한국무용으로 나타난다. 현대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서울(33.2%)·대구(32.1%)·대전(37.9%)·광주(25.0%) 지역 정도다. 이렇게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인천은 각각 21.7%를 차지하는 혼합(21.7%)과 복합(21.7%) 형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는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혼합 공연들이 올라가고, 박태희 발레비전의 "모던발레 가족동화극 신데렐라" 같은 복합 장르의 공연들이 여러 회 공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혼합 공연이 강세를 보이는 곳으로 경기 지역이 있다. 2009년 한국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경기 지역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도 혼합 장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15. 지역별로 살펴본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

지역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서울	빈도	156	207	59	47	65	6	540
	비율	29%	38%	11%	9%	12%	1%	100%
부산	빈도	60	36	8	19	6	3	132
	비율	45%	27%	6%	14%	5%	2%	100%
경기	빈도	29	23	23	11	13	1	100
	비율	29%	23%	23%	11%	13%	1%	100%
경남	빈도	31	13	6	4	6	6	66
	비율	47%	20%	9%	6%	9%	9%	100%
대구	빈도	11	33	1	5	6	6	62
	비율	18%	53%	2%	8%	10%	10%	100%
전북	빈도	30	15	7	4	1	0	57
	비율	53%	26%	12%	7%	2%	0%	100%
울산	빈도	17	4	4	5	8	0	38
	비율	45%	11%	11%	13%	21%	0%	100%
경북	빈도	6	5	7	9	3	0	30
	비율	20%	17%	23%	30%	10%	0%	100%
인천	빈도	12	2	5	5	5	1	30
	비율	40%	7%	17%	17%	17%	3%	100%
대전	빈도	11	10	4	2	2	0	29
	비율	38%	34%	14%	7%	7%	0%	100%
광주	빈도	10	3	6	4	1	1	25
	비율	40%	12%	24%	16%	4%	4%	100%
전남	빈도	8	1	4	2	2	0	17
	비율	47%	6%	24%	12%	12%	0%	100%
충남	빈도	5	3	5	3	1	0	17
	비율	29%	18%	29%	18%	6%	0%	100%
충북	빈도	7	2	2	0	1	1	13
	비율	54%	15%	15%	0%	8%	8%	100%
강원	빈도	3	2	2	2	1	0	10
	비율	30%	20%	20%	20%	10%	0%	100%
제주	빈도	1	0	0	1	1	1	4
	비율	25%	0%	0%	25%	25%	25%	100%
계	빈도	397	359	143	123	122	26	1,170
	비율	34%	31%	12%	11%	10%	2%	100%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무용 및 혼합 장르의 비중이 큰 몇몇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에서 한국무용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공연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이지만 전북, 울산, 경북, 전남 등지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지역별 관객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인지, 해당 지역 무용인의 분포 특성 또는 공연 프로그래밍 수준에서의 선호나 공연장 특성,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기할 만한 점은 광주·전남 지역처럼 한국무용의 비중이 높고 현대무용의 비중이 매우 작은 곳은 한국무용에 이어 발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현대무용으로 3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무용이 25%, 발레가 17%로 그 뒤를 잇고, 복합 13%, 혼합 9% 순으로 이어진다. 공연당 평균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르인 발레와 복합의 비중이 공연 건수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표 16. 지역별로 살펴본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 ▐

지역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서울	빈도	232	464	203	88	176	13	1,176
	비율	20%	39%	17%	7%	15%	1%	100%
부산	빈도	69	48	16	25	7	18	183
	비율	38%	26%	9%	14%	4%	10%	100%
경기	빈도	35	26	39	11	24	2	137
	비율	26%	19%	28%	8%	18%	1%	100%
대구	빈도	13	49	1	7	8	11	89
	비율	15%	55%	1%	8%	9%	12%	100%
경남	빈도	35	18	9	7	9	6	84
	비율	42%	21%	11%	8%	11%	7%	100%
전북	빈도	32	15	9	4	1	0	61
	비율	52%	25%	15%	7%	2%	0%	100%
대전	빈도	16	13	9	3	7	0	48
	비율	33%	27%	19%	6%	15%	0%	100%
울산	빈도	18	7	6	5	8	0	44
	비율	41%	16%	14%	11%	18%	0%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6. 계속 ▐

지역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총합계
인천	빈도	13	3	9	7	11	1	44
	비율	30%	7%	20%	16%	25%	2%	100%
경북	빈도	6	6	11	9	3	0	35
	비율	17%	17%	31%	26%	9%	0%	100%
광주	빈도	12	3	9	6	4	1	35
	비율	34%	9%	26%	17%	11%	3%	100%
전남	빈도	8	1	6	2	2	0	19
	비율	42%	5%	32%	11%	11%	0%	100%
충남	빈도	5	4	5	3	2	0	19
	비율	26%	21%	26%	16%	11%	0%	100%
충북	빈도	8	2	5	0	1	1	17
	비율	47%	12%	29%	0%	6%	6%	100%
강원	빈도	3	3	3	4	1	0	14
	비율	21%	21%	21%	29%	7%	0%	100%
제주	빈도	1	0	0	2	2	1	6
	비율	17%	0%	0%	33%	33%	17%	100%
계	빈도	506	662	340	183	266	54	2,011
	비율	25%	33%	17%	9%	13%	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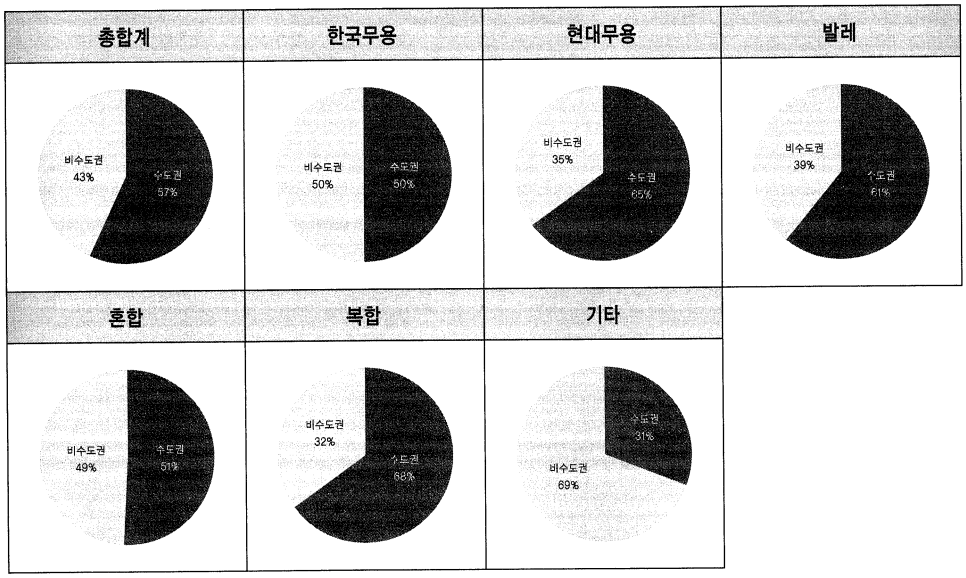
13.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우세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권이 670건으로 500건인 비수도권을 조금 앞서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 장르별로 나눠 살펴보면, 거의 모든 장르의 공연 건수 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무용 정도만이 수도권 52%, 비수도권 48%로 1대 1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에서 혼합 형태의 공연이 더 많은 데 반해 2011년 무용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2011 VISION 우리춤』 시리즈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노원댄스시리즈』, 아르코예술극장의 『2011 현대춤작가 12인전』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분포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건수	수도권	197	232	87	63	83	8	670
	비수도권	200	127	56	60	39	18	500
	총합계	397	359	143	123	122	26	1,170

▌그림 1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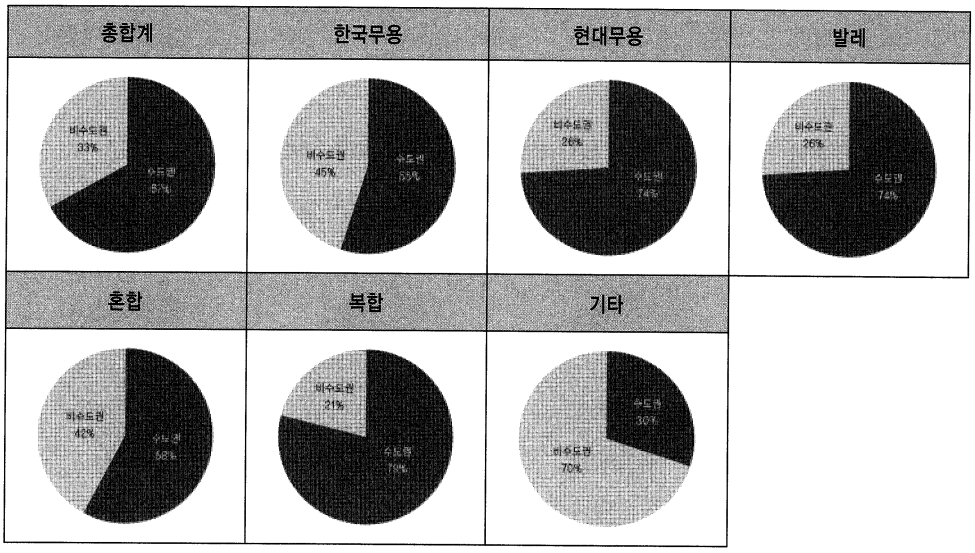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전 장르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큰 우위를 나타낸다. 특히 복합, 현대무용에서 차이는 3배가 넘고 발레 역시 3배 가깝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은 복합 형태의 공연이나 현대무용, 발레 등의 장기공연 또는 다회 공연이 비수도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표 18.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수도권	280	493	251	106	211	16	1,357
	비수도권	226	169	89	77	55	38	654
	총합계	506	662	340	183	266	54	2,011

▌그림 1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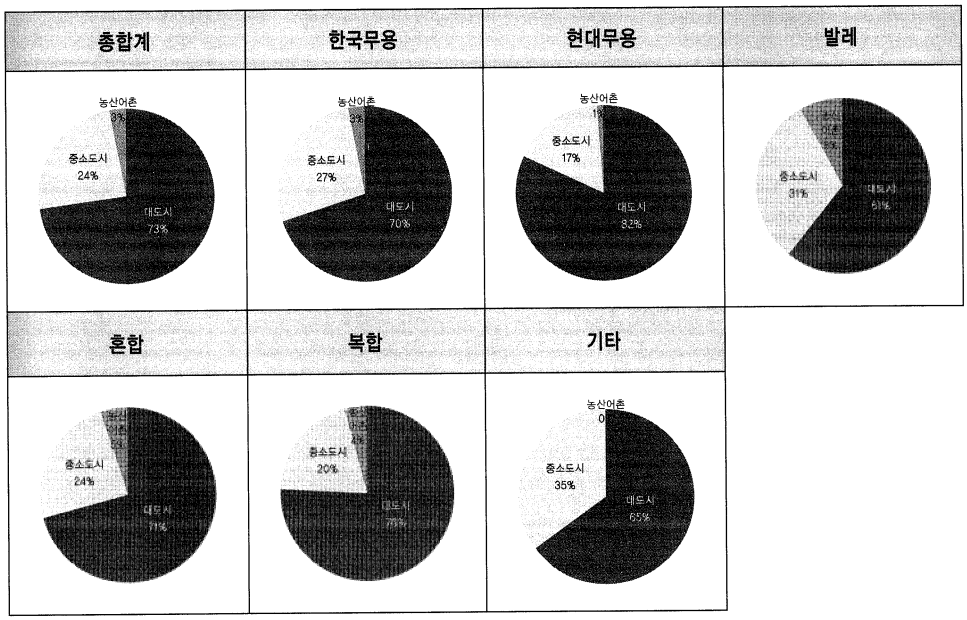


세부 장르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성격을 중심으로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로 나누어 다시 공연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다.

▌표 19.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계
대도시	빈도	277	295	87	87	93	17	856
	비율	32%	34%	10%	10%	11%	2%	100%
중소도시	빈도	108	61	44	30	24	9	276
	비율	39%	22%	16%	11%	9%	3%	100%
농산어촌	빈도	12	3	12	6	5	0	38
	비율	32%	8%	32%	16%	13%	0%	100%
계	빈도	397	359	143	123	122	26	1,170
	비율	34%	31%	12%	11%	10%	2%	100%

▌그림 15.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건수 비율 ▐



위의 표와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장르가 광역시에 편중되어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6개 시도별로 살피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는 뚜렷하게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어쩔 수 없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이 잠재 관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에는 세부 장르별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복합 형태와 현대무용은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무용의 세부 장르 중에서도 다분히 광역시 중심적인 장르다. 반면, 혼합 공연은 다른 장르에 비해 시지역의 비율이 커서 광역시에서의 공연과 시지역·군단위에서의 공연 건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공연 횟수의 경우 공연 건수보다 이런 차이가 더 극단화된다. 특히 그 정도는 현대무용, 복합, 발레 등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은 공연이 많이 포함된 장르에서 더 심하다.

▌표 20.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세부 분야별 무용 공연 횟수 ▐

구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계
대도시	빈도	373	587	253	141	221	44	1,619
	비율	23%	36%	16%	9%	14%	3%	100%
중소도시	빈도	121	72	73	36	40	10	352
	비율	34%	20%	21%	10%	11%	3%	100%
농산어촌	빈도	12	3	14	6	5	0	40
	비율	30%	8%	35%	15%	13%	0%	100%
계	빈도	506	662	340	183	266	54	2,011
	비율	25%	33%	17%	9%	13%	3%	100%

14. 현대무용은 10월, 한국무용은 우상향, 발레는 12월

세부 장르별로 공연 시작월을 기준으로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를 정리하면 아래 두 개의 표와 같다.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기본적인 시기적 특징은 유사하다. 현대무용은 5월, 7월, 9~10월에, 한국무용은 9~12월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무용 전체 분포에서 볼 수 있었던 M자형 분포는 세부 장르별로 그래프화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연 건수나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 장르에서 더욱 그렇다. 무용의

경우 세부 장르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현대무용에서는 10월에 정점을 둔 곡선에 낮은 정점이 더 추가된 모습이 보이고, 한국무용은 11월에 정점을 그리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다. 발레는 U자에 가까운 곡선을 보여준다.

▌표 21.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

구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무용	5	6	25	36	26	36	44	27	55	43	57	37	397
현대무용	8	8	23	32	35	38	27	13	47	58	42	28	359
발레	4	5	4	11	13	18	18	8	7	12	13	29	142
혼합	6	2	2	20	4	16	14	1	9	16	22	11	123
복합	7	3	4	9	4	11	9	9	18	25	11	12	122
기타	3	1	1	3	1	0	1	1	6	4	4	1	26
계	33	25	59	111	83	119	113	59	142	158	149	118	1,169

▌표 22.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분포(2010년에 시작된 공연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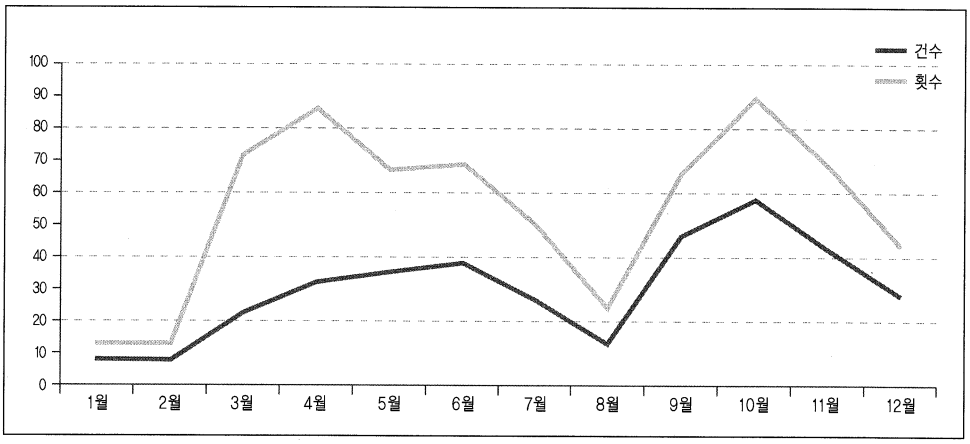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무용	7	7	53	55	33	45	61	34	62	47	64	38	506
현대무용	13	13	72	86	67	69	50	24	66	90	68	44	662
발레	14	9	10	59	28	32	29	10	9	23	27	85	335
혼합	15	2	5	22	7	18	15	3	15	23	35	23	183
복합	20	3	9	20	9	15	26	22	49	57	16	20	266
기타	11	2	1	8	1	0	1	1	7	17	4	1	54
계	80	36	150	250	145	179	182	94	208	257	214	211	2,006

현대무용 장르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0월에 가장 높은 정점과 7월에 상대적으로 낮은 정점이 나타나고 5월에 약간의 변동을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봄과 가을에 정점을 그리는데 현대무용이 이처럼 전년도에 비해 3월, 5월, 7월에 걸쳐 비교적 넓게 분포한 주된 이유는 봄부터 크고 작은 공연장과 축제에서 꾸준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현대무용 공연이 무대에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에 현대무용이 또 다른 정점을 그리는 주된 원인은 아리랑아트홀의 『끼리 댄스 페스티벌 2011』,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한 여름밤 댄스 페스티벌』, 『제20회 부산무용제』 등이 7월에 현대무용 공연을 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10월의 경우는 『제14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11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외에도 『물레아트페스티벌 2011』, 『제32회 서울무용제』에서 많은 현대무용 공연이 선보였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83건의 공연 중 53.0%에 이르는 44건이,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4회의 공연 중 48.2%인 55회가 이 네 개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공연이다.

▌그림 16. 현대무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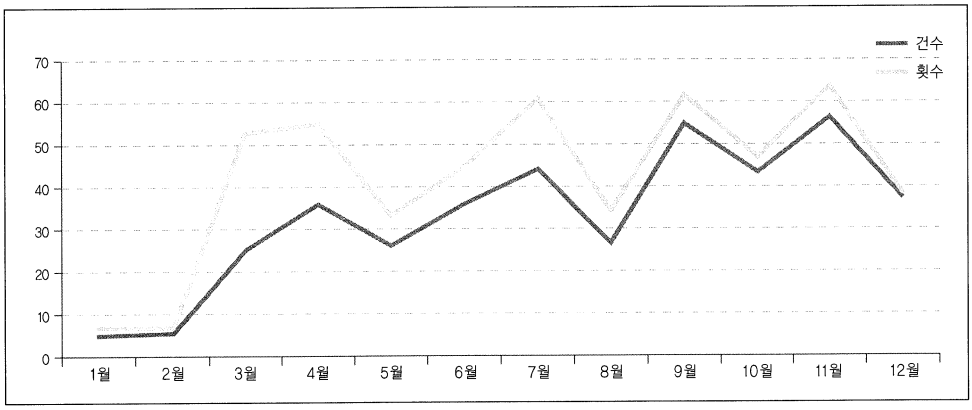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8	8	23	32	35	38	27	13	47	58	42	28	359
공연 횟수	13	13	72	86	67	69	50	24	66	90	68	44	662

한국무용에서는 사실상 M자형 곡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9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11월과 12월에 꽤 많은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연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9월과 11월이 되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간의 차이도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월이 되면 공연 양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한국무용에서는 4월에 유난히 공연당 공연 횟수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성암아트홀의 일요상설 한국전통무용공연이 4월부터 연간 30회의 공연을 진행한 것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다.

그림 17. 한국무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5	6	25	36	26	36	44	27	55	43	57	37	397
공연 횟수	7	7	53	55	33	45	61	34	62	47	64	38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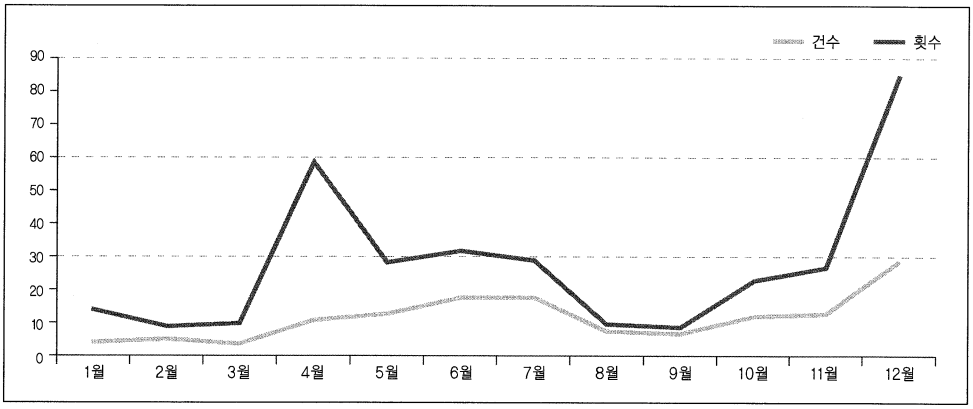
발레의 공연 분포 곡선의 경우 12월과 1월에 나타나는 공연 횟수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큰 변동 없이 10~20건 수준의 공연이 연중 지속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약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월과 12월에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이 드러난다. 공연당 평균 3.5회의 공연 횟수를 보이는 12월은 발레의 매우 중요한 시기적 특징이다. 여러 발레단이 전국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12월에 공연된 총 29건의 발레 공연 중 51.7%에 달하는 15건이 모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고, 대부분 2~7회에서 많게는 19회까지 공연되었다.

다른 해와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은 4월에 증가하는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다. 공연당 공연 횟수 역시 2.6회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강수진 갈라 더 발레"와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오네긴", 성암아트홀에서 화요상설공연으로 두 달간 13회 공연된 "천원의 행복한 발레여행", 국립발레단의 "코펠리아"의 11회 공연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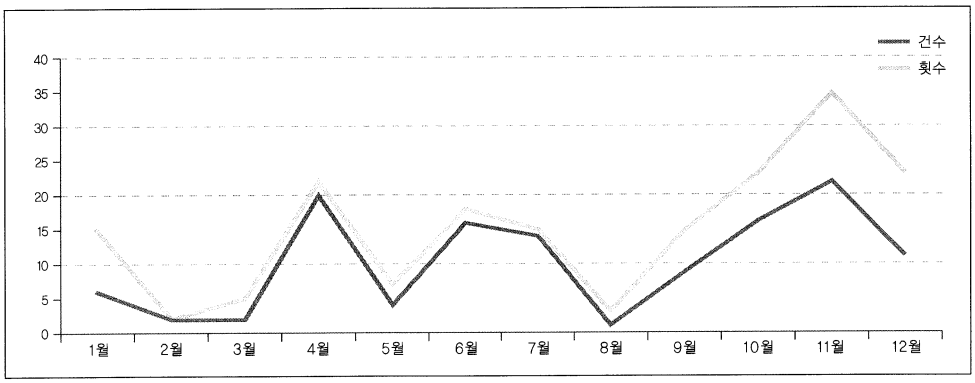
▌그림 18. 발레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4	5	4	11	13	18	18	8	7	12	13	29	142
공연 횟수	14	9	10	59	28	32	29	10	9	23	27	85	335

혼합 형태 무용 공연에서는 5~6월과 10월에 정점을 이루는 변형된 M자형 곡선을 볼 수 있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5~6월, 10월에 정점을 이루고, 공연 횟수상으로는 7월에 공연 건수 대비 공연 횟수의 증가로 인해 6월과 비슷한 공연 횟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5월에 전국적으로 무용콩쿠르와 무용경연대회가 개최되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6월 공연 건수 역시 무용콩쿠르와 무용경연대회, 무용제 등이 많이 열리는 것 외에도 지역 축제에서 선보이는 혼합 공연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월의 혼합 공연 횟수 증가에는 『제20회 전국무용제』의 공연 횟수 10회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점을 전후로 평균적인 공연당 공연 횟수가 증가해,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다른 세부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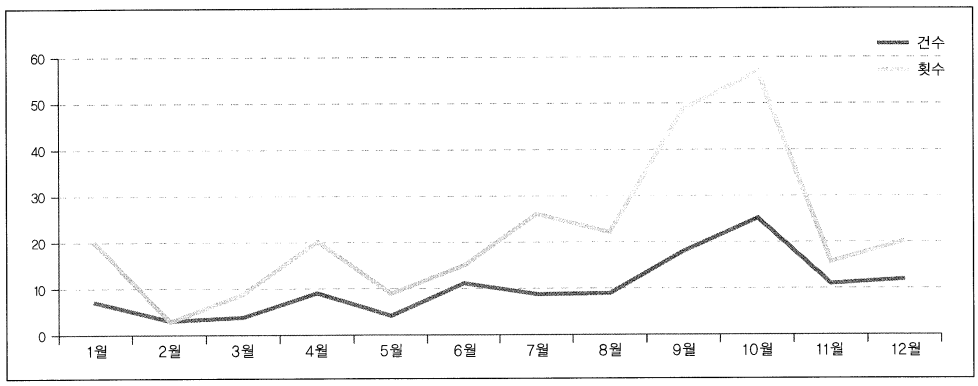
▌그림 19. 혼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6	2	2	20	4	16	14	1	9	16	22	11	123
공연 횟수	15	2	5	22	7	18	15	3	15	23	35	23	183

복합 형태 무용 공연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월 10회 미만의 적은 공연 건수를 보이다가 5월과 10월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연 횟수는 5월, 7월에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7월 공연 횟수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극단 시선의 "미롱(媚弄)"이 35회 공연되었기 때문이고, 5월의 경우는 박태희 발레비젼의 "모던발레 가족동화극 신데렐라"와 Arts Communication 21의 "말하는 발레리나 백조의 호수"가 각각 10회씩 공연된 데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20. 복합 장르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분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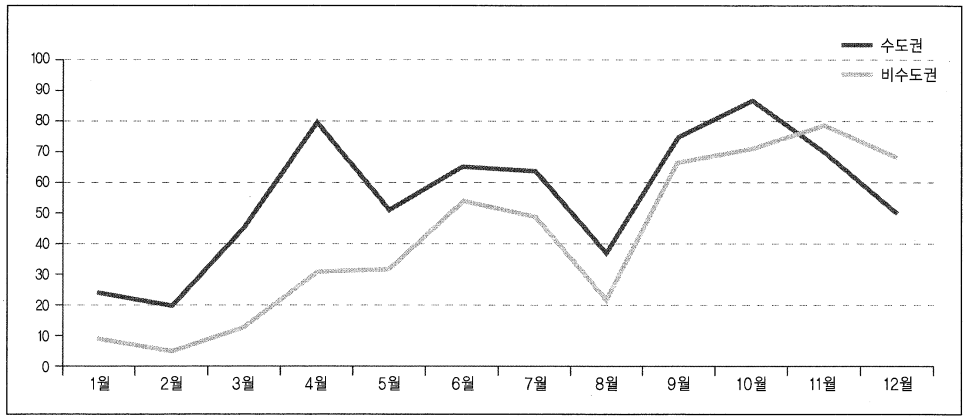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공연 건수	7	3	4	9	4	11	9	9	18	25	11	12	122
공연 횟수	20	3	9	20	9	15	26	22	49	57	16	20	266

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의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분포에도 M자형 곡선은 비교적 잘 나타난다. 다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별 공연 건수 그래프를 나란히 그려 놓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월에 정점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약하게 4~5월경 공연 건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M자형 곡선에서 첫 번째 정점에 해당되는 시기인 3~5월 부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래프가 한 달 간격으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일종의 지연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후 특히 10월경은 무용과 관련한 공연예술 축제의 중심이 되는 시기인 만큼 이와 같은 '파도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3~5월 사이에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연 건수의 관계를 볼 수 있다.

▌표 2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도권	24	20	46	80	51	65	64	37	75	87	70	50	669
비수도권	9	5	13	31	32	54	49	22	67	71	79	68	500
계	33	25	59	111	83	119	113	59	142	158	149	118	1,169

공연 횟수에서도 공연 건수에서의 관계와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공연 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3~5월 사이에 '파도효과'의 양상이 드러난다. 다만 이때 이월의 양상이 비수도권에서 더 늘어났던 공연 건수와 달리 공연 횟수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횟수의 공연이 열리고 4~5월에 보다 적은 횟수의 공연이 비수도권에 이어지는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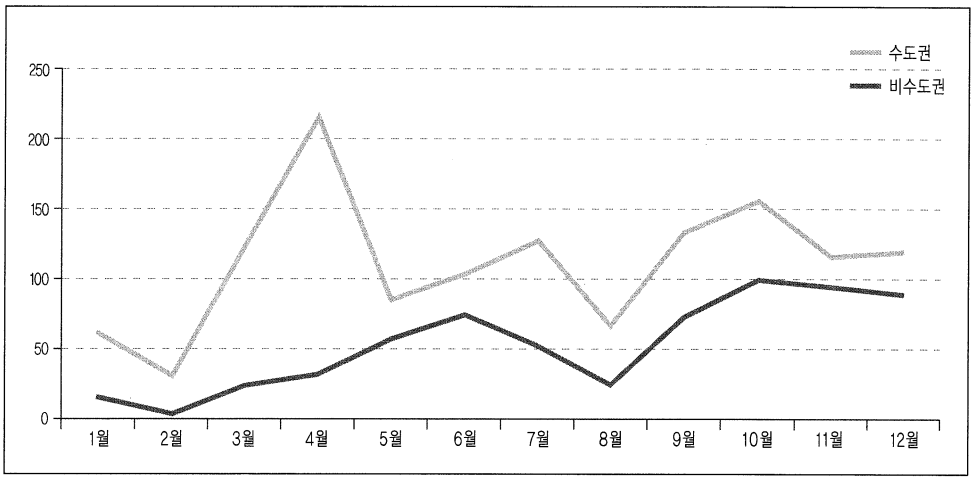
▌표 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도권	63	31	125	217	86	104	128	68	134	157	118	121	1,352
비수도권	17	5	25	33	59	75	54	26	74	100	96	90	654
계	80	36	150	250	145	179	182	94	208	257	214	211	2,006

이를 공연 건수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공연 횟수 분포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약하지만 3~5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파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월 현상이 나타나고, 7월 이후부터는 거의 동일해진다. 12월의 경우 공연 횟수에서는 수도권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말에 공연되는 다회공연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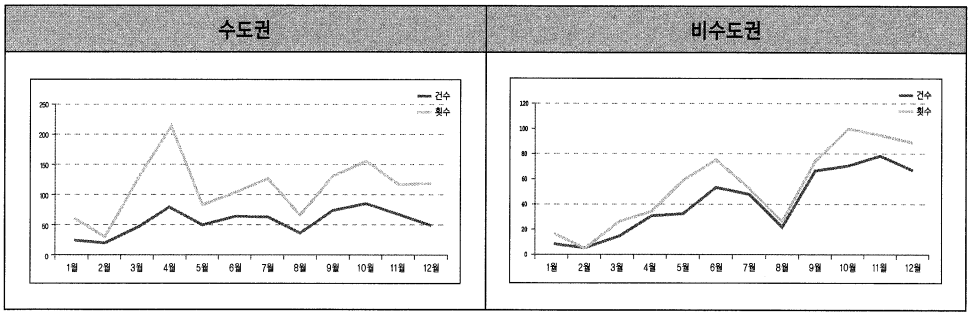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의 양상을 종합하면 3~5월에 지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하반기로 가면 변화양상이 비슷해진다. 이때,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모두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3. 수도권과 비수도권 무용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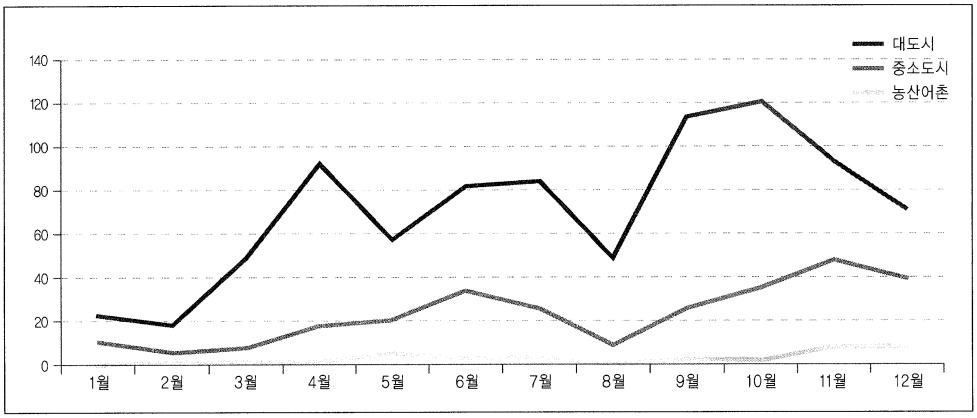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른 모습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형태의 M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표 25.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대도시	23	18	50	92	58	82	84	49	114	121	93	71	855
중소도시	10	5	8	18	20	34	25	9	25	35	48	39	276
농산어촌	0	2	1	1	5	3	4	1	3	2	8	8	38
계	33	25	59	111	83	119	113	59	142	158	149	118	1,169

▌그림 24.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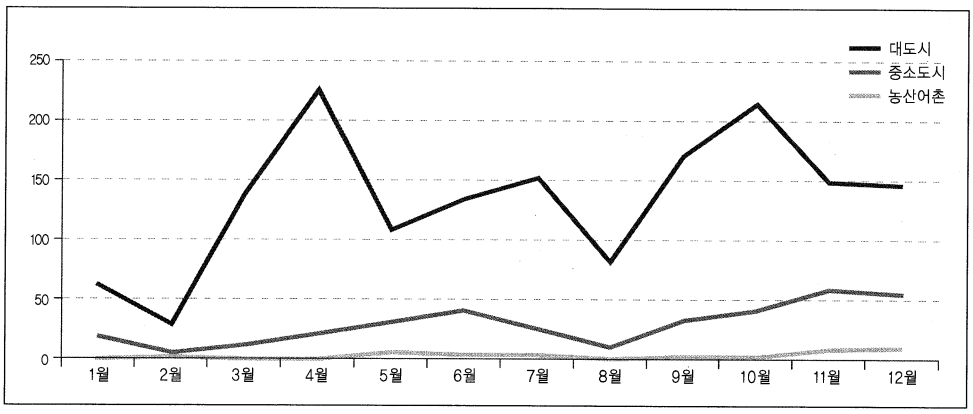
10월에 광역시와 시지역의 공연 횟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월별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공연 횟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0월의 현상은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열리는 무용과 관련한 공연예술 축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6.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공연 시작월별 공연 횟수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대도시	61	29	137	228	109	134	152	82	172	215	148	147	1,614
중소도시	19	5	12	21	31	41	26	11	33	40	58	55	352
농산어촌	0	2	1	1	5	4	4	1	3	2	8	9	40
계	80	36	150	250	145	179	182	94	208	257	214	211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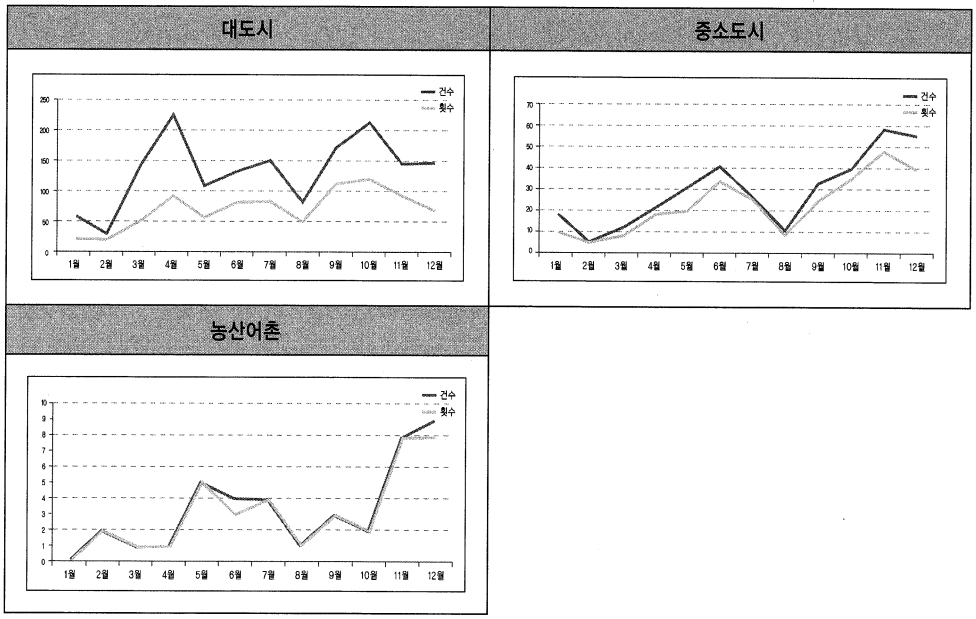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그림 25.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의 공연 시작월별 무용 공연 횟수 ▐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를 비교하면 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고른 형태의 M자형 곡선을 보이지만, 시지역이나 군단위는 연말로 갈수록 공연 양이 늘어나는 형태다. 시지역과 군단위를 비교하면 군단위의 변화가 더 극적이다.

▌그림 26. 광역시, 시지역, 군단위 무용 공연의 시작월별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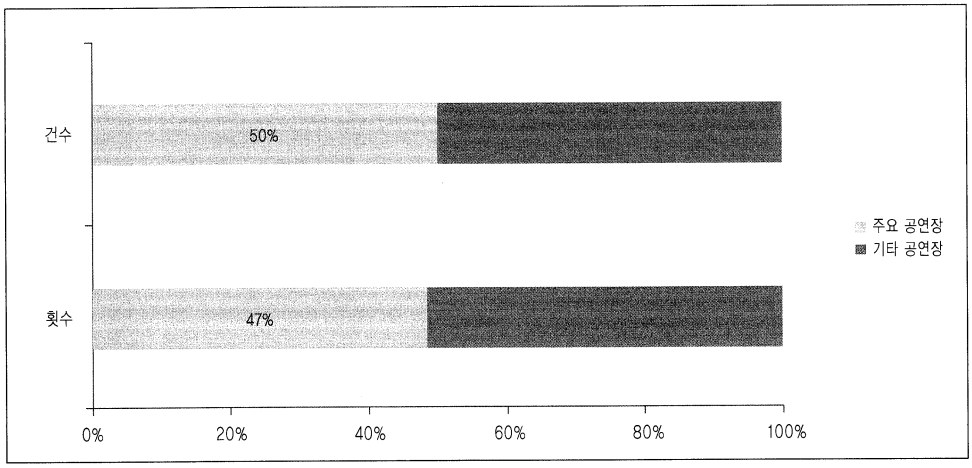


16. 주요 14개 공연장이 공연 건수 50%, 공연 횟수 47% 차지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연간 무용 공연이 30회 이상 무대에 오르는 주요 공연장은 모두 14개로 전년도인 2010년도의 21개에 비해 많이 감소한 모습이다. 서울에 위치한 공연장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에 각각 2곳, 인천과 대전에 각기 1개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14개 공연장이 전체 무용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중 공연의 절반인 50%를,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를 차지한다.

그림 27. 전체 무용 공연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에서 주요 14개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중



공연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아르코예술극장이 99건으로 가장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를 잇는 예술의전당의 49건과도 격차가 제법 크다. 공연 횟수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연간 124회로 가장 활발히 무용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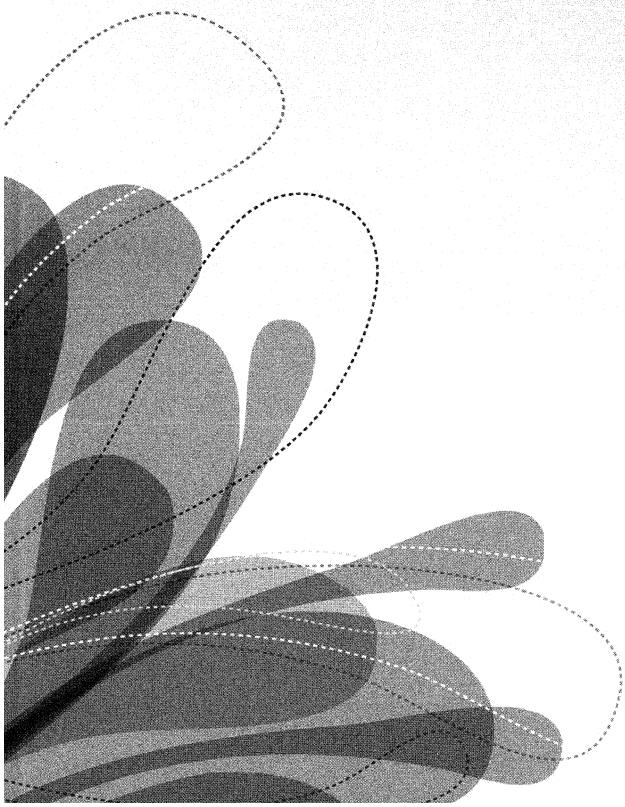
▌표 27. 연간 30회 이상 무용 공연이 열리는 주요 14개 공연장의 공연 건수와 공연 횟수 ▐

공연장명	공연 건수	공연 횟수	횟수/건수
아르코예술극장	99	211	2.1
예술의전당	49	124	2.5
부산문화회관	61	80	1.3
대학로예술극장	34	78	2.3
성암아트홀	4	73	18.3
국립국악원	55	72	1.3
국립극장	36	62	1.7
서울남산국악당	27	52	1.9
성균소극장	10	46	4.6
대전문화예술의전당	21	40	1.9
서강대메리홀	23	37	1.6
대구문화예술회관	27	34	1.3
울산문화예술회관	30	34	1.1
노원문화예술회관	17	31	1.8
계	493	974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북 한 문 화

2012 Culture & Arts Yearboo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011년도 북한 문학예술계의 성과와 동향

오 양 열(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Ⅰ. 머 리 말

2011년 남북관계는 남·북한 각각,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긴장과 경색 국면이 계속됐으나, 우리 정부의 사안별 신축성 있는 대처로 일부 분야에서는 방북 교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북한이 2011년 1월 8일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1월 20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여 이를 위한 실무회담까지 개최(2.8~9)됐으나, 북측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실무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 공세로 나섰다. 그러나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공동대처 등 남·북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북측 제의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유연한 대처로 관련 전문가 회의가 성사되었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중단됐던 민간 지원이, 투명성 강화조건 하에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재개(2011.3.31)되었고, 어린이와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영유아용 식품과 수해 물자가 지원(9월 중순~10월 중순)되었다. 특히 북한이

8월 22일자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 모든 남측 기업 물자 및 재산에 대해 반출을 중지하고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14명에 대해 철수 조치를 내렸음에도, 9월 초부터 연말까지 종교계(조계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 천태종, 개신교, 천도교)와 문화계(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개성 만월대 발굴유적지 긴급 복구, 「겨레말 큰사전」 편찬 실무회의) 인사의 방북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과거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몇몇 인사에 한해 방북 조문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1998년에 2012년 '강성대국'(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이래,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당시에는 2000년, 2007년 두 차례의 대통령 방북 등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면서 경제 개혁조치를 취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핵 문제 외에도 잇따른 악재와 3대 세습에 따른 후계자의 군부 내 입지 강화를 위해 대남 강경노선을 견지함에 따라 경색국면이 계속되면서, 문화예술교류는 거의 단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문화교류사업인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 만월대 조사(2차) 사업도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추진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2011년 10월 말 이후 재개되었다. 북한은 북·중 수교 60주년이었던 2009년 이후 중국과의 각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상황을 황금평 특구 착공('11.6.7), 나선특구 합작개발 착공('11.6.9)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I. 2011년도 일반 동향

문학예술의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외교와 통치, 정치·경제 및 사회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2011년도 북한의 전반적인 대내외 상황과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문학예술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0년에 이어 2011년도 3대 세습 과정에서의 권력 투쟁과 군부에 대한 통제권 장악의 필요성, 후계자에 대한 우상화 조짐 등으로 인해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과거 회귀적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향을 보이는 등 정책적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1. 2011년도 신년 공동사설

신년 공동사설은 북한의 그해 국정 지침 내지 정책 기조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공식 신년사로, 김일성 사망 이듬해인 1995년부터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공동사설이라는 형식을 취해 왔다. 해마다 10월 말이 되면 다음 해 공동사설 작성을 위한 '상무조'(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 당 서기실(비서실)과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고위 간부와 실무자 20~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신년에 정장을 갖춰 입고 직장에 나와 공동사설을 함께 읽어야 하며, 통상 200자 원고지 60장이 넘는 공동사설을 거의 외울 정도로 학습해야 한다. 공동사설이 발표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엔 직장·지역별 당 비서들이 주민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한다. 로동당은 공동사설을 자세히 설명한 해설집을 배포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또 주민들은 직장·지역별로 수시로 모여 공동사설 관철 궐기대회를 여는데, 평양의 경우 매년 10만 군중대회를 김일성광장에서 개최(2011.1.3)해 오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도 한다.

2011년 1월 1일, 북한은 어김없이 당보·군보·청년보에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2011년 공동사설은 예년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서두에 전년도를 결산한 뒤 정치사상, 경제, 군사, 대남정책(통일정책), 대외정책 등 분야별 정책방향과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국토관리(도시경영), 청년 및 근로단체 등 부문별·단위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동사설은 먼저 "지난해 주체99(2010)년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다단계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고 자평하면서, 2010년의 최대 성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을 꼽았다. 특히 당대표자회 소집을 "당의 위업, 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 담보가 마련된 것"이라며, 김정은의 공식 등장과 3대 후계 세습을 위한 당 조직 개편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어서 공동사설은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0년 공동사설이 경공업과 농업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主攻戰線)'이라고 설정한 데 이어, 2011년 공동사설에서도 경공업을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화학공업 생산 정상화와 농업 생산의 변혁을 통한 식량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또한 당의 영도적 역할과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 강화도 주문하고, 3대 세습 후계를 공식화한 당대표자회(2010.9.28)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남 분야에서는 남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상투적인 평화공세를 폈다. 특히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의지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문학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2006년 이전에는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별도의 소제목을 달고 문학예술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해, 2007년 신년 공동사설부터는 소제목 없이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간단히 취급하고 있다. 2011년 역시 예년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는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된 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도 문학예술 부문의 정책 지향에 대해서는 "사상적 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 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상성과 정책성이 강하고 주민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여 주민들의 사상교양에 효과가 큰 작품들을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2. 정치·경제 및 사회 동향

2011년도 북한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은 12월 17일 급성 심근경색(북한 발표)으로 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3남인 김정은(1982년생)의 권력 세습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확정된 후 '94년 7월 김일성 사망 시까지 김일성과 공동정권 성격의 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력을 유지해 왔고, '95년 이후 단독 통치시기(3년간의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98년 9월 공식 출범)를 이른바 '선군혁명로선과 선군정치·사상으로 이끌어 가는 선군시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끌어 왔다. 김정일은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미 3남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사상 분야(비사회주의 현상 소탕 사업), 군사 분야(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 경제 분야(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배려해 왔다. 한편 김정일은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의 중국 방문에 이어 2011년에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다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 후견국가 격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부에 3대 후계 세습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후 2010년 9월 44년 만에 개최한 당대표자회를 통해 인민군 대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신설)에 추대되어 3대 세습이 공식화되면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이때 조선로동당 규약도 개정되었는데, 한마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나 유고에 대비해 안전하게 후계 세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조치에 힘입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즉 2011.12.30 정치국 회의(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권한 위임)를 통해 김정은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2012.4.11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 겸임)로 추대했으며, 2012.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한 데 이어, 2012.7.18 차수를 거치지 않고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김정은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북한을 움직이는 세 바퀴(三輪)라 할 당·군·정을 장악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은 김정일 사망 후 신설된 것으로, 당 규약 개정(2012.4.11)을 통해 김정일을 '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2012.4.13)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데 따라 호칭을 변경한 것이다.

2011년 7월 한국은행이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각각 △0.9%, △0.5%)했고, 2010년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의 1/39.1('09년도는 1/37.4), 1인당

GNI는 1/19.4('09년도는 1/1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2011년 7월호)은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사실상의 지도자 자리에 오른 1995년 북한의 경제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 식량·전기·석탄·수산물 생산량, 무역총액, 대북 지원액 등 10개 변수에 따른 2009년도 경제 수준을 86.5로 추정함으로써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액은 2010년 9개국 2천 4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20개국과 EU에서 9천 700만 달러로 늘었고, 러시아는 2011년 8월 김정일의 방러 이후 북한이 구소련에 진 빚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경제적 악조건 하에서도 북한은 1998년 8월 이래 김정일이 주창한 '강성대국론'에 여전히 매달려 왔다.

특히 2007년 11월 전국지식인대회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결정한 바 있으나, 2011년 1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설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선 후, 2011년 6월 이후에는 주로 '강성국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에 외자 유치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했고, 2011년에는 내부의 경제적 동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의 수행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했다. 또 중국 및 러시아와 신압록강 대교 건설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발, 라진·선봉 경제특구(나선특별시) 창설, 극동 러시아 가스전의 한국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구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17년 연속 세계 경제자유지수 최하위라는 투자 악조건부터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대 세습 후계자로 옹립한 김정은의 우상화와 관련, 후계자 실적 올리기 사업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 CNC(컴퓨터수치제어) 도입과 2009년 9월에 시작한 '평양 10만 가구 살림집(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주택, 문화봉사시설 등 공공건물 신축과 도로 재정비, 발전소 신설 등 각종 건설공사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목표 아래 평양뿐 아니라 평안도, 량강도, 자강도 등 지방에서도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 사업은 북한의 만성적인 자재난과 전력난 등으로 곳곳에서 공사가

http://www.kci.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되면서 2012년 완공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결국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4분의 1 수준인 2만~2만 5천 세대 건설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11년 1월 '군량미 헌납운동'에 이어 평양 시민뿐 아니라 각급 시·군 주민들에게까지 공개 강연회를 통해 강성대국 건설 자금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해 왔다. 식량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공출과 수탈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다.

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 사회는 북·중 국경을 통한 밀수와 장마당에서의 장사가 보편화되었다. 계획경제에 시장경제가 혼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2009년 11월 말 화폐개혁(통화가치 100대 1 절하)으로 인해 생산 감소는 물론 물가와 외화환율이 급상승하고, 주민생활에 피폐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주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통제 적응형 인간'에서 '자발적 생존형 인간'으로, 그리고 급기야 '사회 불만형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데일리NK, 2011.6.14 참조). 오늘날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불신과 반항의식은 북한 사회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는 극도로 악화된 식량난 속에서 세습 후계자 김정은 우상화에만 힘을 쏟고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불평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체사상 교양이나 선군사상 교양이 먹혀들지 않고, 당·정·군이 대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해 해마다 쏟아내고 있는 2천여 개의 정치구호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당국의 구호정치는 주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으로, 이러한 구태가 심화될수록 주민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인 '자본주의 황색바람', 즉 한류(韓流)에 더욱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연례 기념·경축 행사

1) 상반기 문화행사

북한에는 매년 일정시기에 당국이 주최하는 고정적인 연례행사가 많고 행사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매년 정월에는 그해의 국정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사설 관철을 다짐하는 궐기대회와 학습열풍, 그리고 언론보도가 북한 전역을 휩쓸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월 내내 신년 공동사설 관련 총화와 학습이 이어져 북한 주민들

은 공동사설 전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새해 공동사설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군중집회'들이 북한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개최된다. 건설과 혁명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계 역시 1월 초에는 중앙과 지방의 전문예술단체들(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민족예술단, 평양교예단, 각 시·도 예술단 등)과 예술선전대들(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철도성예술선전대, 녀맹중앙예술선전대,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등)이 평양과 평안남도, 그리고 대도시 인근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경제선동에 힘을 쏟는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들과 각 도의 작가들도 2011년 새해 벽두부터 "공동사설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끓어 번지는 벅찬 현실 속에 뛰여(뛰어) 들어" 시가작품과 산문작품 수백 편을 창작했고, 각 미술창작사 등(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철도성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등) 소속의 미술가들 또한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에로 대중을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선전포스터)를 60여 편 창작하여 전람회(1.7 평양국제문화회관)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2010.12.31에는 김정일·김정은 참관 하에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가 진행되었고, 1월 1일에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인민문화궁전), 1월 6일에는 구랍 공연에 이어 북한 내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만수대예술극장)가 다시 개최되었다. 1월 17일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5돐(돌)을 기념하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고, 2월 3일에는 학생소년들의 『주체100년 설맞이모임』 공연이, 그리고 2월 4일에는 은하수 『설 명절 음악회』가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단연 2월 16일 김정일 생일(김정일 사망 후 '광명성절'로 부름)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른바 '태양절') 경축행사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 생일은 설, 한가위 등 민족명절보다 우선하며, 10대 국가명절 중 정권 창건일(9월 9일), 당 창건일(10월 10일)과 함께 4대 국가 명절로 꼽힌다. '민족 최대의 명절'(조선중앙통신), '인류 공동의 명절'(『로동신문』)로 간주하는 만큼 축하행사도 대규모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김정일 69회 생일인 2.16행사의 경우, 2월 15일 『2.16경축 중앙보고대회』(평양체육관)를 전후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친선·경축·답사행군 모임이 이어졌으며, 문화행사는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뤄졌다. 특히 2011년 경축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상당부분 후계자 김정은 우상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이 특징으로, '서클'(각 공장·기업소별 아마추어 공연단) 공연과 장식물 설치 등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2월 중 언론에 보도된 문화예술행사만 보면, 2월 9일 『2.16경축 영화상영 순간(旬間)』 개막(평양 인민문화궁전 및 각 도) 및 기록영화 <위대한 헌신: 변이 난 해 2009> 상영, 2월 10일 『2.16경축 중앙사진전시회』 개막(인민문화궁전), 2.16경축 성·중앙기관예술소조 종합공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행복의 수레바퀴> 상영(대동문영화관), 2월 11일 『2.16경축 중앙미술전시회』(2.11~25) 개막(평양국제문화회관), 돌격대원과 군민들이 창작한 『2.16경축 얼음조각축전』 개막(삼지연군), 2월 12일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상영(인민문화궁전), 2월 14일 『제15차 김정일화 축전』(2.14~21) 개막(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 그리고 청년동맹회관에서 '우리교실문학상'이 전국 400여 명의 학생소년들에게 수여됐다.

2월 14일과 16일에는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매혹과 흠모』가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됐고, 2월 15일 평양시 화교들의 노래모임(대동강외교단회관), 2월 16일 만수대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경축공연(청년중앙회관), 그리고 당창건기념탑·4.25문화회관·평양체육관광장 등 평양의 무도회장들과 평성·원산·강계를 비롯한 각 도소재지들과 시·군들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으나, 직맹원·농맹원·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직총(조선직업총동맹, '직맹'이라고도 함) 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중앙로동자회관), 『제18차 전국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청년중앙회관), <2.16예술상> 개인경연 입상자들의 공연(윤이상음악당), 국립교향악단(모란봉극장), 국립민족예술단(청년중앙회관),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윤이상음악당), 평양교예단(평양교예극장) 등 중앙과 지방 극장의 경축공연(평양의 극장, 도 예술극장, 시·군 문화회관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9회 김일성 생일(이른바 '태양절') 행사 역시 4월 14일 『4.15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전후하여 4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2011년도 4월 행사는 국제행사인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치러졌는데, 중국(3개 단체), 러시아(5개 단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몽골,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쿠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베트남 등지의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들과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재일·재중·재미 조선인예술단 등 해외동포예술단, 그리고 북한의 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4월 10일 평양의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김일성 생일을 매년 국제행사로 개최해 왔으나, 2008년부터 국내행사(2008년 『제1차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축전』)와 국제행사(2009년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2011년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행사 내용은, 언론이 3월 30일자와 4월 2일자로 『제13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 출판 및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 출판 사실을 보도한 데 이어, 4월 4일 『제16차 4월의 명절 요리축전』(4.4~6) 개막, 4월 6일 「태양절기념 전국서예축전』(평양국제문화회관, 전문가 부문, 대학·중학교·소학교·유치원 부문) 및 원로화가들 전시회인 『태양절기념 송화미술전시회』 개막, 『태양절기념 전국예술선전대 종합공연 및 경연』(인민문화궁전) 진행, 4월 7일 『태양절기념 영화상영순간』 개막(인민문화궁전), 만수대예술단과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의 음악회 진행, 4월 9일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여>(인민문화궁전) 상영,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평양체육관 광장), 4월 10일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4.10~18) 개막(류경정주영체육관)에 이어, 4월 11일에는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날 공연이 각국의 예술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윤이상음악당,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봉화예술극장, 모란봉교예극장 등 평양 시내 8개 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이어서 4월 12일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6> 상영(인민문화궁전), 4월 13일 『제13차 김일성화 축전」(4.13~20) 개막(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녀맹원들의 태양절 기념무대 『위대한 장군님 높이 모시고 태양의 노래 영원히 부르렵니다』 공연(녀성회관), 친선예술축전 합동 및 단독공연(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4월 14일 친선예술축전 연환공연(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4월 15일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만수대예술단의 삼지연악단 공연 관람(동평양대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 종합공연(만경대학생소년궁전), 당창건기념탑·4.25문화회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됐다.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4월 18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서 폐막식(폐막식)이 진행되었다. 2011년 김일성 생일행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돼 온 생일 전야의 대규모 '축포야회'(불꽃놀이)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4월 춘궁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화려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신 예년에 없었던 첫 대형 요술(마술) 작품 공연이 치러졌는데, 평양교예단의 대형 환상요술 공연이 매주 두 번씩 한 달간(4.18~5.18)에 걸쳐 5월1일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 행사는 북한에서 제작한 첫 대형 요술 작품으로, 직승기(헬리콥터)와 대형려객뻐스(대형버스), 코끼리·말·곰 등 크고 육중한 물체들과 동물들이 실제 등장했다고 하며, "4월의 명절을 인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기념한 속에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적 지향에 맞는 또 하나의 예술적 걸작품이 완성"(『로동신문』, 2011. 4.19)된 것으로 언론이 여러 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김일성 생일행사 전이나 행사기간 중 치러진 행사로는 3.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합동공연(3.8, 동평양대극장)과 3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7차 전국녀맹예술축전』 종합공연(3.7~9, 평양대극장),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기념행사가 있다.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관련 경축행사로는, 4월 4일 농업근로자들 경축모임(은흥협동농장), 4월 6일 노동계급과 직맹원 경축모임(당창건기념탑), 녀맹원 경축모임(개선문광장), 4월 8일 4.25문화회관에서 당·군·정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 1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4월 9일 기록영화 <위대한 선군령도의 길에 함께 계시어> 상영(인민문화궁전),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평양체육관 광장) 등이 있었고, 이밖에도 전문예술단들의 공연과 당창건기념탑,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과 평안남도 평성, 황해북도 사리원, 자강도 강계를 비롯한 각 도 소재지들과 시·군들에서 청년학생과 근로자들의 경축 모임 및 무도회가 있었다.

이어서 김일성 생일행사를 거쳐 4월 25일에는 '건군절'이라 부르는 『조선인민군 창건 79돐(돌)맞이 경축행사』(4.23~25)가 치러졌는데, 4월 23일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4월 24일 『중앙보고대회』 진행, 공훈국가합창단 '건군절' 경축공연, 4월 25일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당창건기념탑 광장), 4.25문화회관·평양체육관 광장 등 평양과 평성, 강계시 등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됐다. 5월 1일에는 『5.1절』(국

제로동자절) 121돌을 맞이하여 피바다가극단(만경대유희장 공원), 국립민족예술단(릉라도유원지), 평양교예단(개선문광장) 등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2010년과는 다른 장소에서 축하 공연을 가졌고, 평양과 지방의 공원·유원지·공장·기업소 등지에서도 근로자들의 예술공연·민속놀이·무도회·체육유희오락경기가 개최되었다. 6월 1일 '6.1국제아동절' 61돌을 기념하여 평양시 대성산유원지 친선 연환모임을 비롯, 함흥시, 강계시 등 각지에서 어린이들의 민속유희 오락경기와 예술소품 공연 및 종합공연이 진행되었고, 6월 6일에는 「제50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공연(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진행되어 여중창 <아버지 원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어은금독병창 <잊지 못할 대원수님>, 바이올린제주(諸奏) <우리의 아버진 김정일 원수님> 등이 연주되었다.

6월 15일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으로 시작된 『김정일 총비서 당 사업 개시 47돐(돌)맞이 경축행사』(6.15~19)가 5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16일 노동계급과 직맹원,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외국 유학생들의 지은 글 발표 모임 <선군태양을 노래합니다>(대동강외교단회관) 진행, 6월 17일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및 기록영화 <선군시대 사회주의 선경을 펼쳐주시여> 상영(인민문화궁전), 6월 18일 김정일 당 사업 시작('64.6.19) 47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진행, 6월 19일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모란봉극장) 등 전문 예술단체의 공연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당창건기념탑광장) 진행에 이어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 등 평양 시내 무도회장들에서는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경축의 춤 물결이 펼쳐졌고,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를 비롯한 노래 속에 춤 물결이 끝없이 굽이쳤으며, <세상에 부럼 없어라> 등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자 한층 고조되었다고 『로동신문』(2011.6.20)이 전했다. 기타 평북·황남·함남·강원 등 전국 각지의 중앙 및 지방 극장에서도 예술단체의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2) 하반기 문화행사

2011년도 하반기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연례 기념행사로는 김일성 사망 17돌(7월 8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 58돌(7월 27일), '선군절'(선군혁명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령도 기념일) 51돌(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3돌(9월 9일), 조선로동당 창건 66돌(10월 10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20돌(12월 24일) 및 김정숙(김정일의 모) 출생 94돌(12월 24일)이 있고, 김형직(김일성의 부) 출생 117돌(7월 10일), 김정숙 사망 62돌(9월 22일), 기타 '청년절' 20돌(8월 28일), 『제42차 예술인체육대회』(9월 23일), '국제 로인의 날' 21돌(10월 1일) 등이 있다. 먼저 김일성 사망 17돌(7.8)을 맞이하여 7월 6일부터 8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회고모임, 맹세모임, 회고무대, 회고음악회 등 각종 추모행사가 개최됐다. 관련 문화예술행사로는 7월 6일 녀맹원들의 회고무대 『영원한 그 미소』(함남 함흥) 및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수령님과 청년들』(평양 청년중앙회관) 진행,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 전시회라는 『수령님의 전우들』 개막(300점 전시, 국제문화회관), 7월 7일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 속에서 7> 상영(인민문화궁전), 로동당출판사 「김일성혁명역사 13」 출판, 7월 8일 함북, 함남, 량강도 등 각 지역 회고무대·회고음악회·맹세모임과 함께 예년과 같이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회고음악회 『수령님 넘원 꽃피는 내 나라』가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1973년에 6.25전쟁 정전협정일(7.27)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전승절)'로 제정하고 1996년에 이를 국가명절(1일간 휴무)로 격상시켰다. 특히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1년도 '반미 공동투쟁 월간' 및 '전승절' 58돌('조국해방전쟁승리' 58돌) 관련 문화예술행사로는 6월 23일에 『6.25~7.27 반미 공동투쟁 월간에 즈음한 계급교양주제 미술전람회』(평양국제문화회관)의 개막식을 갖고 50여 점의 전쟁 관련 아크릴화(acrylic畵), 뗌뻬라화(템페라화, tempera畵), 판화, 유화 등 미술작품들과 선전화를 전시했다. 7월 25일 직총 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중앙로동자회관),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평남 순천시 금천혁명사적지), 7월 26일 『중앙보고대회』, 7월 27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조국해방전쟁승리 58돐(돌) 경축' 음악회』(인민문화궁전), 국립교향악단 경축공연(모란봉극장), 국립민족예술단·윤이상음악연구관현악단 등 여러 예술단체의 경축공연(윤이상음악당), 국립연극단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공연(국립연극극장), 그리고 함경남도예술단, 자강도예술단, 강원도예술단과 도 예술선전대, 원산고등예술전문학교, 로병기동예술선동대의 '전승절' 경축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도 평양과 평성·원산·함흥시 등 전국 각지 무도회장에서

진행됐다.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65돐(돌)기념 전국녀맹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의 경우 8.15 광복절은 주로 정치행사 위주로 진행되는데, 2011년 광복 66주년을 맞이하여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가 각지 사찰들에서 진행됐고,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진행됐으며,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등은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열사릉·해방탑, 그리고 각지의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 8월 25일에는 2010년부터 '선군절'(8.25)로 정식 제정된 김정일의 '선군혁명령도 51돌'을 맞아 경축행사가 진행됐다. 2010년의 '선군절' 첫 해 행사인 데다 정주년('꺽어지는 해')인 50주년이었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대대적인 행사를 펼쳤으나, 2011년에는 그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다. 문화예술행사만 살펴보면, 8월 19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에 이어, 8월 23일 직맹일군(직맹간부)들과 직맹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종합공연(중앙로동자회관), 녀맹원들 경축모임, 청년학생 경축모임을 진행했고, 8월 24일 5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인민문화궁전), 8월 25일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주체99)> 상영(인민문화궁전),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당창건기념탑 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그리고 평양의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광장 등과 평안남도 평성, 평안북도 신의주, 함경남도 함흥을 비롯한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8월 28일은 1991년에 제정한 '청년절'이다. 당 기관지 『로동신문』(2011.8.28)은 '청년절' 20돌에 즈음하여 <청년들은 당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떨치자> 제하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두리(주위)에 일심 단결하여 '2012년을 민족최대의 혁명적 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대고조 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 기개를 높이 발휘하자"고 선동하였다. 8월 25일 개선문·당창건기념탑 등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고, 8월 28일에는 청년중앙회관에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청년기동예술선동대의 종합공연이 개최되었다. 이어서 9월 9일 북한의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은 보통 '9.9절'이라 부르는데, 공화국 창건 63돌(9.9)을 맞아 9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6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아리랑> 초대공연(5월1일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기장)이 진행되었고, 9월 9일에는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일·김정은 참석 하에 '로농적위대' 열병식을 거행하고 실황방송까지 하였다. 이른바 '꺽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는 비교적 단출하게 이루어졌는데, 9월 1일 공화국 창건 63돌 경축 『전국부문 농근맹 예술소품경연 입선단체들의 종합공연』(중앙로동자회관)이 있었고, 9월 9일에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음악회(동평양대극장),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모란봉극장), 국립연극단의 경희극 <산울림> 공연(국립연극극장), 종합교예공연(모란봉교예극장) 등 전문 예술단체들의 경축공연과 평북, 강원, 함남 등지에서의 공연무대, 그리고 당창건기념탑·개선문 등 각지에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9월 23일에는 『제42차 예술인체육대회』가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었고, 10월 1일에는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가 제정한 '국제 로인의 날' 21돌을 맞아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평양의 대동강변과 공원, 유원지, 극장, 영화관들, 그리고 각지에서 낚시질 경기를 비롯, 민속유희, 오락경기, 예술공연, 영화관람 등이 있었다. 2010년에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당 대표자회(2010.9.28)에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재추대한 데 따른 경축대회들이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었으나 2011년에는 언론에 아무런 보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북한은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6돌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65돌이었던 2010년과는 달리 2011년 행사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내용과 규모 면에서 평이하게 진행되어 경축 분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결속을 도모하였다. 10월 10일 『은하수 10월 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은하수극장, 10.13 재공연 진행), 만수대예술단·국립민족예술단(동평양대극장), 국립교향악단(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연구관현악단(윤이상음악당)의 경축음악회, 국립연극단의 경희극 <산울림> 공연(국립연극극장), 종합교예공연(모란봉교예극장) 등 평양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음악회·종합교예 공연이 있었다. 같은 날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당창건 66돐(돌) 경축 제6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당창건기념탑 광장, 개선문,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평양과 전국 각지의 무도회장들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개최되었다.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인해 매년 개최돼 오던 12월 24일,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1991.12.24)된 날 기념행사(20돌)와 소위 '백두산 3대 장군'의 한

명이자 북한이 '항일의 녀성 영웅'으로 떠받드는 김정숙(김정일의 생모)의 출생 기념행사(94돌)는 생략되었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야별 활동 횟수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하는 정책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한 단순한 시찰이나 관람, 관람 후의 간단한 강평까지도 '현지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지지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방문지에 이를 기념하는 표식비가 설치되기도 한다. 2011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통한 현지지도 횟수는 모두 145회(상반기 63회, 하반기 82회)로 집계된다(상반기 집계 통일부, 전체 집계 『문화일보』 2012.4.18). 이는 뇌졸중('08.8)으로 쓰러진 2008년도의 95회보다는 많고, 2009년도의 156회, 2010년도 161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문화예술 분야만 보면 2011년도는 45회(2010.12.31 신년경축음악회 관람 제외, 동물원·체육관·도서관·유희장 현지지도 및 수중체조무용·빙상휘거 관람 등 비예술 문화 분야 포함)로 전체 공개 활동 횟수 대비 31.0%다. 2009년도의 33회(전체 대비 21.2%), 2010년도 51회(31.7%)와 비교해 볼 때, 횟수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중간 수준(42회)을 조금 넘고 비율은 2010년도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2011년도 문화예술 분야 공개 활동 45건을 분석해 보면 먼저 후계자 김정은이 김정일을 수행한 경우가 38건,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6건, 수행간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확인 불가능한 경우가 1건이다. 미상 1건을 제외하면 김정은이 수행한 경우가 84.4%에 이르고, 특히 하반기의 경우 미상 1건을 제외하고 김정일의 문화예술 분야 모든 공개 활동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지도 과정에 김정은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활동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 전체 45건 중 예술선전대를 포함한 전문예술단체 공연 감상이 27건(60.0%), 예술소조 등 비전문 아마추어단체 공연 감상이 9건(20.0%), 공연감상 외의 현지지도가 9건(20.0%)이다. 특히 무력기관과 방첩 및 주민 사찰, 치안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공안기관 방문이 많은데, 조선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대외적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명칭 사용), 인민보안부 산하 조선인민내무군 소속의 전문·비전문 예술단 공연 감상이 19건(42.2%)에 이른다. 19건 중에는 각 급 군부대의 예술선전대 6건,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4건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5월에 창단된 은하수관현악단 공연은 4회(2010.12.31 감상한 신년경축음악회까지 포함할 경우 5회) 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 공개 활동의 80%를 차지하는 공연 감상의 경우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의 보도 방식은 천편일률적이다. 먼저 김정일과 배석자의 공연관람 사실을 일일이 참석자의 직책과 함께 장황하게 나열한 후, 그날의 연목(演目, 레퍼토리)을 소개한다. 이어서 공연 결과에 대해 김정일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식으로 표현한 다음, 마지막으로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혹은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실제 근래 북한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이 출연한 『은하수 설명절 음악회』(2011.2.3) 보도사례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 앞으로도 예술창조 활동을 과감히 벌려 존엄 높은 선군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 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로동신문』 2011.2.3)고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12월 17일까지 2011년도 문화예술 분야 공개 활동(현지지도) 내용으로, ● 표시는 김정은(인민군 대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격) 수행, ▲ 김정은 미수행, ■ 수행 여부 미상을 의미하며, 중통은 조선중앙통신, 중방은 조선중앙방송, 평방은 평양방송을 뜻한다.

● 2010.12.31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관람(1.1 중통, 통계에서 제외) ● 2011.1.19 중앙동물원 현지지도(1.19 중통) ▲ 2011.1.21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 현지지도(1.21 중통) ● 1.22 만수대창작사 현지지도(1.22 중통) ● 1.26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 공연 관람(1.26 중통) ▲ 1.30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 공연 관람(1.30 중통) ▲ 1.31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31 중통) ● 2.2 은하수 『설명절음악회』 관

람(2.2,중통) ● 2.10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2.10 중통/중방) ● 2.15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2.15 중통/중방) ● 2.17 정월대보름 즈음하여 중국인들과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관람 (2.18 중통) ● 2.26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개관공연 관람(2.27 중통) ● 3.5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3.5 중통) ● 3.7 국제부녀절(3.8) 즈음하여 조-로(삼지연악단-21세기관현악단)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관람(3.7 중통) ● 3.13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 공연 관람(3.13 중통) ● 3.23 수중체조무용 모범출연 관람(3.23 중통) ● 3.26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에서 국립연극단의 경희극 〈산울림〉 관람(3.26 중통) ● 4.6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4.6 중통) ● 4.15 '태양절'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4.15 중통) ▲ 4.22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4.22 중통) ● 4.25 '건군절'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인민군 창건일 경축공연 관람(4.25 중통) ● 5.5 조선인민군 종합체육관 개관식 참석(5.5 중통) ▲ 5.9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관람(5.9 중방) ● 5.28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5.28 중통) ▲ 6.5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6.5 중통) ● 6.10 『제2기 제4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6.10 중통)

● 7.1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7.1 중통) ● 7.2 『제2기 제4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7.2 중통) ● 7.13 국립연극단의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관람(7.13 중통) ● 7.15 중국 감숙성 가무극원 무용극 〈비단길 우(위)의 꽃보라〉 공연 관람(7.15 중통) ● 7.16 은하수관현악단의 은하수극장 개관기념 음악회 관람(7.16 중통) ● 7.21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7.21 중통) ● 7.27 '전승절'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 경축음악회 관람(7.27 중통) ● 8.29 공훈국가합창단의 김정일 외국 방문(러시아·중국) 성과 축하 특별공연 참석(8.29 중통) ● 8.31 자강도 룡림군 현지지도 - 새로 건설된 룡림군문화회관을 현지지도(8.31 중통) ● 9.10 목란비데오社 현지지도(9.10 중통) ● 9.12 전국 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 관람(9.12 중통) ● 10.10 당 창건 66돐(돌) 기념 은하수 10월 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관람(10.11 중통) ● 10.18 조선인민군 3중 3대 혁명 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10.19 『로동신문』) ● 10.29 자강도 현지지도 - 자강도 공장에 새로 지은 전자도서관 현지지도(10.30 『로동신문』) ● 11.18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 예술소조공연 관람(11.18 중통) ● 12.4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시찰(12.5 『로동신문』) ● 빙상휘거 모범출연 관람(12.5 『로동신문』) ● 12.6 조선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 5개 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 공연 관람(12.6 중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 ■ 12.9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12.9 중통/중방/평방) ※ 수행간부 언급 없음. ● 12.15 하나음악정보쎈터 등 현지지도(12.15 중통) *12.17 08:30 현지지도 길에 열차 안에서 사망 발표(12.19 중통·중방·평방·중앙TV, 12.20 『로동신문』)

Ⅲ. 북한 문화예술계 분야별 성과와 동향

1. 민속문화 및 문화재 분야

1) 민속문화 부문

오늘날 북한에서 민족 전통문화는 체제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한류(韓流)를 포함한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한 북한 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칫 체제 붕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부르죠아(부르주아) 사상문화 전파 책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북한 사회 전반에 '군인문화'를 정착시키며, 민족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민족 전통문화 중에서도 특히 전통 음식문화와 복식문화(조선옷), 그리고 민속명절 때의 놀이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속놀이는 민속명절이나 절기에 시연되기 마련인데, 2011년 설 명절(음력설, 2월 3일)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는 팽이치기, 연 띄우기, 뜀 줄넘기 등 학생들이 민속놀이 재주를 겨루는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같은 날 오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 『주체100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이 진행되었다. 먼저 <설 인사 드려요>로 시작되어 ".... 학생소년들과 세배동이들이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설 인사를 올리였다."고 조선중앙통신(2011.2.4일발)은 전했다.[8]

양력설 및 음력설, 한가위와 함께 휴무일인 민속명절로 지정되어 있는 정월대보름(2.17)을 맞이하여 『로동신문』(2011.2.18)은 "수도 평양으로부터 방방곡곡은.... 명

8)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 원수님 품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독창과 합창 〈장군님은 온 세상이십니다〉, 민요독창 〈고마워요 당의 품〉, 손풍금과 노래 〈사랑의 손풍금 안고 노래 불러요〉, 여중창 〈제일 기쁜 날〉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절맞이로 흥성이였다."며,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앉아 오곡밥과 9가지 마른나물 등 민족음식도 들고 장기,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유희오락으로 흥을 돋구는(돋우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은정 속에 해마다 대보름날을 의의 깊게 보내는 행복이 넘쳐흐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텔레비죤·평양방송(2011.2.16)도 전국의 근로자, 청년학생들이 "민속음식과 윷놀이 등 민속유희오락들을 즐기며 정월대보름을 보내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의 명절은 국가명절(10개), 민속명절(5개), 기념일(34개)을 총칭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10대 국가명절 중에서도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정권(공화국) 창건일, 당(로동당) 창건일 등 4대 국가명절을 가장 중시한다. 음력설과 양력설, 그리고 4대 국가명절은 각 2일, 나머지 국가명절과 민속명절(정월대보름, 단오, 한가위)은 하루씩 휴무하되, 휴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는 하루 더 쉰다. 기념일에는 해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는 기념행사를 가진 뒤 하루 쉰다.

당·군·정 요인과 간부,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김정일의 조상 묘와 각지의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을 찾아 화환과 꽃다발을 바치기도 하지만, 민속명절 중 비교적 정치행사에 대한 강요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족 친지를 만나고 성묘하는 등 민속명절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 있는 명절은 추석, 즉 한가위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조상 묘소에 대한 성묘가 허용됐고, 1988, 1989, 2003년에 한가위, 설날, 정월대보름을 각각 휴무일인 민속명절로 지정한 바 있다. 2011년 추석날(9.12)에는 『제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8.24~26)를 녹화방영하고 민족음식 품평회, 조선옷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여성들은 윷놀이와 그네뛰기, 널뛰기를 하고, 아이들은 연놀이, 팽이치기, 줄넘기를 하며 명절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전했다. 2008년부터는 북한의 모든 중학교(중·고등학교)와 소학교(초등학교)들은 매주 토요일을 '민속놀이 운영의 날'로 정해 놓고, 모든 학교들에서 민속놀이 도구들을 갖추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료리협회 주최로 평양의 류경릉라식당에서 신선로를 주제로 하는 『전국료리기술경연』(2.22~24)이 예선 경연을 통해 선발된 28개 단체 50여 명의 료리사, 접대원(종업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 중앙기관 부문과 각 도 부문의 2개 부류로 갈라 진행되었다. 이어서 「제16차 4월의 명절 료리축전」의 평양 지역 예선 격인 평양시 요리축전(조선료리협회 평양시위원회 주최)이 개최되었다. 만경대구역종합식당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내놓은 '사과즙을 친 닭가슴살구이', '잉어 딸기즙찜', 보통강구역종합식당에서 내놓은 '녹두묵 종합랭채'가 인기를 끌었다. 4월 4일부터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6차 4월의 명절 료리축전』(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주최)에는 성, 중앙기관, 각 도들에서 선발된 45개 단위들이 참가했으며, 지방특산요리와 명(名)요리, 대중봉사요리, 외국요리, 요리과학 기술성과 자료 전시, 요리사, 접대원(종업원)들의 기술기교 경연 및 시범출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1,300여 점의 특색 있는 민족음식과 각종 요리들, 15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11월에는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문수유희장식당에서 평양지방 특산요리전시회가 진행되었는데, 평양시의 여러 구역종합식당과 기타 급양봉사망들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참가하여 6종 200여 점에 달하는 평양의 특산요리가 출품되었다. 이밖에 중앙료리학원에서 소젖(우유) 치즈와 흰 포도주 대신 염소젖 치즈와 대동강 맥주로 만든 '퐁뒤(fondue) 료리'를 개발했다는 소식(『로동신문』 2011.3.23), 평양 모란각의 '고기소를 넣은 감자구이와 감자로슈띠' 개발 소식, 6.17무역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구에서 판촉을 위해 발행하는 할인쿠폰(10% 할인 '봉사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소식(『노컷뉴스』 2011.5.28), 북한에서 옥류관과 '종합적인 민족료리 봉사기지'로 쌍벽을 이루는 청류관의 창립 30돌 소식(『로동신문』 2011.12.4) 등이 있다.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제9차 전국조선옷전시회』(10.19~21)의 주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 우리식 옷'으로, 성, 중앙기관, 각 도 산하 피복제품 생산단위들, 편의봉사 부문 등에서 출품된 700여 점의 조선옷(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을 비롯하여 "우리 녀성들의 나이와 몸매, 기호에 따라 현대적 미감을 잘 살린" 다양한 계절 옷들이 전시되었다(『로동신문』 2011.10.20). 전시회 기간 옷본보기 출연, 피복기술도서들과 다매체(멀티미디어) 편집물 보급, 조선옷 가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나라의 피복 공업을 과학적 토대 우(위)에 올려 세우고 우리 인민의 옷차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피복연구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고 『로동신문』(2011.10.2)이 전했다. 1961년 9월 창립된 피복연구소는 "조선 사람의 몸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그에 맞는 호수체계를 수립하고 피복제품의 규격화를 실현하였고, 3차원 인체측정방법에 의한 옷 설계 원리를 새롭게 밝히고 피복설계를 표준화, 일원화하였다. 또한 옷 설계 전용 프로그람, 옷 생산 공정관리 프로그람을 각지 피복 공장들에 도입하여.... 조선옷

규격화를 실현하고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그 설계와 가공방법을 완성하였고, ≪민족옷≫, ≪조선옷설계와 바느질법≫, ≪옷호수리론≫ 등의 도서들과 다매체 편집물들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제9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평양의 릉라도 씨름경기장에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었다. 몸무게급별 씨름과 비교 씨름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북한 당국은 2011년 연이은 폭우와 태풍 피해로 농사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추석 명절을 간소하게 치르라는 지시를 당 조직을 통해 주민들에 하달한 데 이어, 근로단체 출판사가 발간하는 월간 『사회주의생활문화』(2011년 10월호)를 통해 관혼상제를 검소하게 치를 것과 옷차림과 몸단장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데일리NK 2011.9.1, 12.8, 12.9). 먼저 <관혼상제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하자>(장성남)라는 지상강좌에서는 약혼을 '식'으로 차려 크게 하는 것, 신랑·신부 간 예물 교환, 신랑·신부에게 큰상을 따로 차려 주는 것, 3일제·생일제 등 각종 명목으로 제사를 자주 하는 것과 복잡한 제사절차 등을 허례허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를 제국주의 국가의 책동으로 단정 짓고, 이색적인 외래풍습을 관혼상제에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텔레비죤도 5월 14일부터 2~3일에 한 번씩 <예의범절과 우리생활>이라는 코너를 방영하면서, 5월 19일 <우리민족의 조선절> 편에서 일상생활에서 악수를 비롯한 "남의 식 인사풍습을 따르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문화재 부문

먼저 북한의 2011년도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언론에 발표된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중앙통신(2011.1.4)이 최근 황해남도 은천군에서 발굴된, 독특한 구조 형식을 가진 정동리 5호 고인돌무덤이 "침존형 고인돌무덤에서 문 시설이 있는 오덕형 고인돌무덤에로 이행하는 과도적 단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고인돌무덤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유적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정동리 망산릉선에서 발굴된 이 고인돌무덤은 장방형의 뚜껑돌(210㎝×120㎝×40㎝)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윗면에는 6개의 홈 구멍으로 된 별자리가 새겨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있다고 한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문화 류씨'(文化 柳氏)의 시조인 류차달(柳車達)의 묘를 발견해 국가보존유적으로 등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1.14)이 전했다. 중앙통신에 의하면 이 묘는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 구월산 기슭의 달천온천 인근 마을에서 4개의 비석, 망돌(맷돌), '묵방사'라는 건축물 등과 함께 발견됐다. 북한에서는 '본'을 따지지 않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앙통신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에는 예로부터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성'(姓)과 '본'(本)이 있었는데, 성은 남자 측 혈족관례를 표시하고 본은 가문의 시조가 태어나거나 조상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고장을 의미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국보 제9호인 청암동 토성(평양시 대성구역)에서 고구려 시기의 순찰도로와 방어형 도랑이 새로 발굴되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2011.2.8)가 전했다. 이번에 토성의 성벽 밖에서 판석으로 포장한 너비 1.8m에 20m의 구간에 달하는 도로시설이 새로 발견되었다. 토성에서는 순찰도로와 함께 너비 4m, 깊이 1.5m 정도의 도랑도 발견되었는데 그 구조로 보아 고구려 시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놓은 방어형 도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청암동 토성은 고조선 시기의 수도성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연구 집단에 의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의 발굴이 진행된 바 있다. 2월에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들이 룡강 일대에서 고구려 벽화무덤을 발견했다(조선중앙통신 2011.2.23). 무덤은 남포특별시(2010년 남포직할시가 룡강군 등 평안남도 5개 군과 통합하여 승격) 룡강군 옥도리 소재지의 낮은 언덕에서 발굴하였으며 4세기 말~5세기 초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남북으로 길게 놓인 돌칸 흙무덤은 안길, 앞칸, 그 좌우 벽에 벽장처럼 움푹 들어간 감실과 사이길, 안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칸(2.85m×2.83m×2.28m)은 벽 모서리마다 기둥과 두공, 도리를 장식하여 마치 지상 건축물처럼 꾸려져 있는데,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벽화가 이채를 띠고 있다.

북한이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일대의 고구려 무덤떼(고분군)에 대한 조사발굴과 연구사업, 그리고 고산동 1호 고분을 포함한 고구려 고분 3기 재발굴 사업을 진행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학술연구 집단의 대성동 일대 무덤떼 발굴과정에서는 "금 귀걸이를 비롯한 귀금속 공예품들과 관 못, 관 고리 등 철제품들, 질그릇과 벽돌 및 기와 쪼각들, 뼈 쪼각들"과 "무덤떼의 외칸으로

된 돌칸 흙무덤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붉은색, 푸른색 등 여러 가지 색갈(색깔)로 그린 벽화를 밝혀냈다."고 『로동신문』(2011.6.27)이 전했다. 신문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평양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구려 문화가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의 후원 아래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일본의 고고학자들(2명)이 평양시 고산동 1호 고분을 포함한 고구려 고분 3기를 재발굴 조사했다고 교도통신(2011.10.30)이 보도했다.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산동 1호 고분은 일제 시대인 1936년에 발굴 조사한 후 원래대로 메워진 바 있다. 75년 만의 재발굴로 한자 '무(武)' 자(四神의 하나인 '玄武'의 끝 자로 추정)와 동물 벽화가 새롭게 발견됐으며, 사신도(四神圖) 등의 채색 상태가 드러났다. 북한과 일본의 고분 공동조사는 2010년 동산동 고분(평양시 소재)에 이어 두 번째다.

조선중앙통신(2011.3.22일발)이 고구려 고분벽화들이 몰골법(沒骨法, 윤곽선 없이 색채나 수묵을 사용하여 형태를 그리는 화법)에 의한 채색 한국화인 북한의 조선화 화법의 '독특하고 우월할'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통신은 "벽화들에는 선 하나로 인간의 다양한 사상 감정과 움직임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조선화기법이 반영되여 있다. 선의 조형적 활용에 의한 각이한 묘사대상들의 형태적 명확성과 생동성은 당시에 벌써 선을 위주로 하는 조선화의 형상체계가 원만히 형성되였음을 실물로 확증해 준다."면서, 실제 사례로 안악 제3호 무덤과 강서 무덤 벽화들을 실제 사례로 들었다. 중앙통신은 벽화들이 색채표현에서도 조선화의 전통적 특징이 잘 그려져 있다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서 밝고 대조가 강한 색들을 리용하면서 전체 화면을 조화롭게 통일시켰다. 또한 조선화 형상원리의 하나인 집약과 함축수법이 벽화들에 훌륭히 구현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평양의 모란봉 부근에서 동명왕이 타고 다녔다는 전설의 동물, 기린(麒麟)이 살던 굴로 알려진 '기린굴'을 발견했다고 『조선신보』(2011.8.11)가 보도했다. 또 2009년 12월 김일성종합대 력사학부 연구 집단이 평양민속공원 건설현장(평양 대성산지구)에서 발견했다는 첨성대 터를 조선중앙통신이 2010년(2010.8.26)에 이어 다시 보도(2011.10.12)하면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신라 경주의 첨성대보다 200여 년 앞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황해북도 금천군 강남리 예성강 하류에서 석천산형 고인돌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석묘) 무덤을 발굴했다고 『조선신보』(2011.8.15)가 전했다. 모두 5기의 고인돌 무덤 가운데 2기는 완전히 파괴돼 무덤형식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나머지 3기는 "구뎅이(구덩이) 안에 아무런 시설물이 없고 그 우(위)에 커다란 뚜껑돌이 놓여 있는" 석천산형 고인돌 무덤이라고 밝혔다. 북한 학계에서는 고대의 고인돌 무덤을 침존형(황북 황주군, 청동기 시기), 오덕형(황북 연탄군, 고조선 시기), 묵방형(평남 개천시, 고조선 시기), 석천산형(남포시 룡강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신보』(2011.10.17)는 황해북도 승호군 금옥리 검산에서 구석기 시대 후기(5만 년~1만 년 전)의 동굴유적이 발굴되었다고 보도했다. 금옥동굴 유적의 퇴적층은 모두 9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불자리 1개, 석기 6점과 석재 8점, 골각기 2점, 그리고 동물화석 8,700여 점이 발굴되었다. 6점의 석기와 석재들은 모두 석영으로 만든 것으로, 석영은 구석기 시대 중기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널리 이용된 주요 재료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석기의 유형과 갖춤새, 짐승뼈 화석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이 유적이 구석기 시대 후기 신인(新人)들이 남긴 유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북한방송(2011.1.13)이 북한에서 비무장지대(DMZ)와 개성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군 장교와 도굴꾼에 의한 문화재 도굴 및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도에 절간, 성, 누각 등 20여 개의 역사유적들이 보수되었다고 『조선신보』(2011.12.8)가 밝혔다. 먼저 평안북도 향산군 보현사의 수충사 비각과 곽산군 개원사 대웅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고,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안국사 대웅보전, 황해북도 서흥군 고성리의 속명사 요사채가 보수되었다. 또한 평양시 룡성구역의 대화궁성, 황해남도 신원군의 장수산성, 량강도의 갑산읍성, 함경남도 금야군의 진수산성을 비롯한 7개의 성들이 보수되었고, 평양 모란봉의 을밀대, 칠성문, 현무문, 황해남도 해주시의 태봉각 등 10여 개 문무와 누각들에 대한 전면 혹은 부분적인 단청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발해 시기인 826년 창건한 개심사(칠보산 소재) 내 심검당이 재건되었고, 개성시가 연암 박지원의 무덤(개성시 전재리 황토고개 옆)과 황진이의 무덤(개성시 선정리)이 복원되었다(조선중앙텔레비죤 2011.11.21).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이 <절대로 덮어둘 수 없는 일제의 날강도적인 문화재 약탈범죄>(2011.2.9) 및 <반드시 결산되어야 할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책동>(2011.11.24)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제(日帝)의 문화재 약탈 범죄(고분 도굴, 조

선고적도보 작성, 유물 반출 등), 내선일체(內鮮一體)·동조동근(同祖同根)사상 주입, 조선어 말살 및 창씨개명(創氏改名) 등에 대해 민족 말살을 노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 '국가테러·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약탈 문화재의 즉각 반환과 과거 청산을 촉구했다.

전시회 소식으로는 조선민속박물관이 2월부터 8월까지 『등화용구유물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등 유물을 크게 등경, 초대, 등롱 3개 부류로 나누어 100여 점을 전시했다는 소식(조선중앙통신 2011.2.19)과 4월 13일부터 5월까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금속유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무기무장류, 불상류, 장식 및 치레거리류 등 3개 부류로 나누어 고대로부터 리조(조선) 시기에 이르는 120여 점의 금속유물들을 전시했다는 소식(『조선신보』 2011.4.26)이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2011.2.10)이 "최근 조선의 아호비령 산줄기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황해북도의 신평금강 명승지에서 72개의 명소들이 새로 발굴"되었다고 전했다. 신평금강은 1970년대 말에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고, 1990년대에 10여 개의 명소들만이 명승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기타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이 최근년간 황해남도 태탄군에 서식하는 태탄 참맛 등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있는 대상들을 천연기념물로 등록했다는 소식(조선중앙통신, 2011.3.19)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비변사등록」 번역 사업을 완료했고,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조선단대사: 백제사 1, 2」를 출판했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이 단군릉을 소개하는 다매체(멀티미디어) 편집물 「옛시조 왕릉을 찾아」를 제작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다.

2. 문학 분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문학』 2011년 제1호(1월호)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제하의 머리글을 실었다. 동 논설은 먼저 2010년도 문학 부문에서의 성과를 밝힌 후, "돌이켜 보면 우리 문학은 언제나 중요한 정치적 사변을 계기로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났고 여기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2011년에 작가들이 '명작' 창작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돌려야 할 것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첫째,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 창작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으로, 총서에 속하는 장편소설뿐 아니라,[9] 단편소설을 비롯한 모든 형식과 형태들에서도 활발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백두산 혁명 강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 창작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청춘을 빛내이는 총대영웅으로, ... 건설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위훈의 창조자로" 더 잘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최후 공격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가고 있는 당원과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해 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는 것"으로,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과 농업 혁명방침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 논설은 이어서 작가들이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을 많이 창작하기 위해 "현실 체험을 실속 있게 할 것"과 "실력전을 힘 있게 벌려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세월이 멀리 지나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는 명작"을 창작해 낼 것을 주문했다. 『조선문학』 2011년 제3호 역시 머리글 <작가들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는 데 이바지하는 명작 창작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0년을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다단계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문학예술 부문에서도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된 것"은 크나큰 자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1년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라 규정하고 "수령님 탄생 100돐(돌)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작' 창작의 방향으로 작가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데 이바지하는 명작들", "나라의 전반적 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9) 백두산 3대 장군에 관한 장편소설 시리즈물로는 총서 『불멸의 력사』(김일성), 『불멸의 향도』(김정일), 『충성의 한길에서』(김정숙)가 있다.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 데 복무하는 문학작품들", "사상적 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 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작품", "선군혁명로선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 "선국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데 복무하는 작품"들을 창작해 내기 위해 "언제나 분발하고 피타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해 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정치와 경제, 군사, 역사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실 체험을 잘하는 것도 '명작' 창작의 중요 방도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문작가들은 조선작가동맹 소속의 공직자 신분으로서, 앞의 머리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북한의 전(全) 사회적인 변동 상황과 조선로동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주제를 다룬 문학작품을 내놓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창작 분량이 적은 시문학, 단편문학, 노래가사 창작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새해 벽두부터 작가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창작활동을 벌려 15일 동안 공동사설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는 작품 300여 편을 창작했다고 『조선신보』(2011.1.19)가 보도했다. 즉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들은 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 단위들에서,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각 도의 작가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등에서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창작한 작품으로는 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 200여 편의 벽시,[10] 가사 <김철의 본때 조선의 본때로> 등의 시가작품들과 수필 <보통강반에서>, 단편소설 <다시 찾은 모습>, 실화 <불타는 탄전>과 같은 산문작품들이 있다.

8월 말과 9월 초에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2011.8.20~27)에 따른 전문작가들의 작품 창작이 잇따랐다. "머나먼 외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장군님께서 새겨 가시는 애국헌신의 자욱 자욱을 마음속으로 따라선 우리 인민 모두의 심정을 담아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창

10) 벽시(壁詩)란 북한에서 벽이나 알림판 따위에 붙이거나 직접 쓰는,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짤막한 시를 말한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1, 2강좌의 교원들이 좋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로동신문』(2011.9.1)이 보도한 데 이어, 조선중앙통신(2011.9.12)도 "위대한 장군님의 외국방문소식을 격정 속에 접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은 흥분과 열정을 안고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십 편(20여 편)의 시들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9월에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들이 평양체육관의 여러 훈련장에 달려 나가 체육인들의 정신력을 더욱 발동시키는 벽시와 가사(歌詞)를 창작했다고 한다(『로동신문』 2011.9.24). 한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돌)기념" 『전국문학축전』 요강에 제시된 작품 공모 주제를 보면, 북한의 문학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조선문학』 2011년 제5호).

조선작가동맹 전체 맹원(후보 맹원 포함)들과 문학창작기관 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작품 주제는,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위인상을 형상한 작품,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현실 주제의 작품,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 모습과 군민일치의 아름다운 미풍, 청소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력사주제의 작품 등"이다. 2011년도 문학작품 발간 소식을 보면, 먼저 1월 초 4.15문학창작단이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소설로 각색하여 장편소설 「딸에게서 온 편지」를 내놓았다(『로동신문』 2011.1.9). 동 소설은 "1929년을 전후한 시기 북변의 삼치골이라는 마을에 사는 농사군인 허달수와 그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극적 이야기"로,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해학과 심각한 교훈 속에 실감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2월 말에는 김정일 우상화 작품집인 총서 『불멸의 향도』의 시리즈물로 장편소설 「청춘대지」(박태수 작)가 출판되었다(『로동신문』 2011.2.27; 조선중앙통신 2011.3.3). 조선중앙통신은 동 소설은 "조선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1990년대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때 강원도 토지정리를 발기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는 력사적 사실을 생동하고 깊이 있는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2011.3.15, 5.11)는 해방 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재일조선 시문학을 개괄한 「재일조선시문학개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출판 소식에 이어, 장편소설 「래일을 사는 사람들」(김

유권 작)을 "최첨단을 점령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조선의 과학자들이 간고 분투하는 모습과 정신세계, 이룩한 성과와 인간생활을 생동하고 감동적으로 형상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장편소설"이라고 소개했다.

9월과 10월에는 북한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다양한 주제의 문예도서들이 새로 출판되었는데, 김일성 탄생 100돌 기념 단편소설집(4) 「고귀한 의리」, 김정일 탄생기념 단편소설집(4) 「전선길」,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한" 단편소설집 「빛나는 별들」,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제의 작품들"이 편집되어 있는 단편소설집 「억센 뿌리」, 「삶의 보금자리」, 「파도치는 기슭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격문 54편을 번역 소개하고 있는 조선고전문학선집(86) 「력대 격문선」, 현대조선문학선집(47) 「해방 전 녀류문학 작품선」,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하는 20편의 사화들이 있는 「만적이」 등이다. 또한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불타는 바다」, 「대지의 딸」 등 다양한 주제의 장편소설, 김정일 칭송시집인 「21세기의 태양을 우러러」(9), 유치원 노래집 「해님따라 피는 꽃」 등 아동도서들이 출판되었고, 평양출판사에서도 장편소설 「평양녀인」이 출판되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2011.6.26)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발간한 것으로, 관능적인 내용의 단편소설 30편이 수록되어 있는 「기담소화집-웃음의 강산을 따라 3」(251쪽, 2010.3.10)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6.26). 이밖에 2011년도에도 여전히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위한 많은 도서가 출판되었다.

3. 시각예술 분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예술』 2011년 제8호(8월호)는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는 것은 주체사실주의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요구>(김명수) 제하의 논문을 통해 미술 부문의 모든 창작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견결히 맞서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옹호 고수하며 주체사실주의 미술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동 논문은 인류 미술이 "사실주의와 부르죠아(부르주아) 형식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발전하여 왔다."면서, 주체사실주의 미술이 "민족적 형식에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내용을 담아 자주시대 인민대중이 누구나 창조하고 향유하는 가장 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월한 미술로 세계에 널리 공인되여 왔다."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주장을 폈다.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은 ≪세계화≫의 간판을 들고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온갖 썩어 빠진 형식주의 미술을 마구 류포시키고 있다."며,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기본은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문화와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는 비사실주의 미술", 즉 "≪현대미술≫이라는 간판을 들고 떠드는 각양각색의 형식주의, 추상파 미술조류들"을 마구 들이미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예술』 2011년 제12호는 <주체미술 발전의 자랑찬 한 해>(리귀숙)라는 글을 통해 2011년도 북한 미술계의 성과들을 정리했다. 먼저 1월 하순 김정일의 만수대창작사 현지지도를 "올해 미술명작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한 다음, 1월 초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화 전람회, '새 세기 문학예술의 한 형식'인 음악과 모래그림에 대한 김정일의 관람 및 높은 평가, 그리고 미술형상을 계속 창조하도록 조치한 것을 2011년도 미술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서 '태양절' 기념 전국서예축전과 송화미술전시회, '반미 공동투쟁 월간'(6.25~7.27)에 즈음한 계급교양주제 미술전람회, 만수대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평양과 지방의 미술창작가들이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제2차 전국미술기량발표회』, 평양시대상 건설에서 '위훈을 떨쳐가고 있는 건설자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의 현지 속사작품들(김정일 관람),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북한 미술전시회 등도 2011년도 미술계 성과들로 거론했다.

김정일의 만수대창작사 방문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통신(2011.1.22)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리석 상들이 있는 공훈조각창작단(3중 3대 혁명 붉은기 공훈조작창작단)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공훈조각창작단은 북한 내 주요 기념 건축물뿐 아니라 외화벌이 차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등지에서 수많은 기념 건축물들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삼지연대기념비, 혁명렬사릉, 천리마동상, 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기념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등 북한 내 조각 및 건축물과 "세네갈의 아프리카재생기념비, 앙골라의 네또의 동상과 비에주렬사기념비, 민주꽁고의 까빌라, 루뭄바, 오빵고의 동상과 초대 대통령이였던 까싸부부 동상, 브라자빌꽁고 독립탑, 나미비아의 대통령 궁전과 군사

박물관, 영웅릉, 챠드의 노예 동상 등"이 모두 공훈조각창작단의 작품들이다. 『조선신보』(2011.8.1)는 동 창작단의 외국의 기념비 제작 협조사업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며, "중국, 라오스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과 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유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로 협조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규모가 큰 미술·사진 분야 전시·전람회는 주로 계기성 경축행사로 진행된다. 『중앙미술전시회』의 경우 김일성 생일이 국제행사로 치러질 경우에는 김정일 생일인 2.16경축행사로 치러지는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2.16경축행사로 치러졌다.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평안남도 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50여 점의 조선화, 유화, 아크릴화 작품들이 평양국제문화회관에 전시되어, "주제가 다양하고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미술 작품의 종류적 특성과 기법을 잘 살리고 있다."(『조선신보』 2011.2.11)는 평가를 받았다. 5월 11일부터는 평안남도 개천시의 여러 곳에서 김대중 국민의정부 당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의 서화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김은환, 최선묵, 양정호, 리경찬, 안영기가 창작한 100여 점의 서화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김 부자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끝없는 신뢰심"을 보여주는 작품, "공화국의 위용과 천만군민의 투쟁기풍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겨레의 통일 열망"을 보여주는 작품 등이 전시되었다. 8월 19일부터 31일까지는 만수대창작사 문화회관에서 전국의 미술가들이 기량 제고를 위해 경제건설의 현장에서 습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국미술작품기량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로동신문』(2011.6.12)이 "얼마 전 만수대창작사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한 '음악과 모래그림' 공연이 관람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음악과 모래그림'(샌드 애니메이션)을 "음악과 미술의 특이한 결합으로서 21세기에 갓 창조된 새로운 무대예술 종류"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만수대창작사의 재능있는 미술가들"이 "불과 두 달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21세기 새로운 무대예술 종류를 우리 식으로 훌륭하게 창조 완성하여",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흥부와 놀부>,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우리 집사람> 등을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서 동 신문 2011년 8월 16일자는 "몇 달 전 첫 막을 올렸던 음악과 모래그림 공연은 현재 동평양대극장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두 번째 무대를" 펼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있으며, 창작가들은 모두 만수대창작사의 20대, 30대의 젊은 화가들이라고 소개했다. <명랑한 취사원> 등과 같은 10여 개의 독특한 양상의 새로운 작품들이 완성되어, 두 달 만에 작품의 양상과 주제 영역이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도 오르게 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미술창작사에서는 1994년부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는 항일혁명 투사들과 연고자들의 모습을 미술작품으로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17년 만에 초상 미술작품 근 300점을 창작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로동신문』 2011.7.31). 이 작품들은 김일성 사망 17돌(7.8)을 맞이하여 국제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초상 미술작품 전시회인 『수령님의 전우들』에 전시되었다. 또한 평양에서는 『제2차 전국미술기량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발표회에는 만수대창작사,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평양과 지방의 미술창작가들이 창작한 우수한 작품들인, 인물주제 작품들,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 풍경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조선예술』 2011년 제12호). 11월에는 만수대창작사에서 창립 52돌을 기념하는 기법 전시회가 진행되었는데, 창작사 내 여러 창작단들이 출품한 조선화, 유화, 도자기, 금속공예품을 비롯한 수백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로동신문』 2011.11.27).

북한의 미술계는 2011년에도 주요 계기에 맞춰 혁명과 건설, 그리고 김정일 가계 우상화와 체제 보위를 위한 작품 창작에 내몰렸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술 분야가 '선전화'인데, 명칭 그대로 선전·선동을 위한 포스터를 말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미리 선전화를 제작하여 이를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고, 별도로 선전화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2011년 언론(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에로 '대중을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들 창작(중통 1.1), 조선로동당출판사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도록 '온 나라 인민을 고무 추종하는' 선전화들 창작(중통 3.25), 『제13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 출판(중통 3.30),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중통 4.2), 조선로동당출판사가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 창작(중통 7.10), 『제17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선전화들 창작(중통 8.24),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평양시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선전화, 당면한 가을걷이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선전화 창작(중통 9.22) 등이다.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三代) 우상화는 철권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고, 그 작품 수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 모자이크벽화, 영생탑, 혁명사적비 등 우상화물은 각 지역 간, 그리고 기업소나 공장 간에 경쟁적으로 건립되어 왔다. 2011년에도 여러 단위에서 모자이크벽화 혹은 혁명사적비가 건립되어 준공식이 거행되었다는 보도는 계속되었으나, 3대 후계자인 김정은 관련 우상화 건조물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2011년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적비(중통 8.17) 외에는 모두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었다는 내용으로 최소 31건 이상이다.[11] 기타 소식으로는 오가산자연보호구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400여 점의 사진들이 편집되어 있는 화첩인 「선군조선의 자랑 오가산」 출판 소식,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및 황해남도위원회 동맹원들의 사진 경제선동('들끓는 현장에서 로력혁신자들의 전투적인 작업 모습'을 찍어 속보판에 게시하는 것) 소식, 「건축예술론」 발표(1991.5.21) 20돌 기념 보고회(2011.5.20, 인민문화궁전) 및 『제11차 5.21건축축전』과 『제6차 건축미학토론회』(2011.5.3, 인민문화궁전) 소식 등이 있다.

4. 공연예술 분야

『조선예술』 2011년 제1호(1월호)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리현순)라는 제목의 머리글을 통해 2010년도 예술적 성과를 정리하고 2011년도에 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2011년)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해의 예술적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으려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천만 군민을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대고조 진군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11) 조선중앙통신 6.17(8건), 7.14(3건 이상), 8.18(5건), 9.15(3건 이상), 10.29(11건), 11.25(1건 이상) 등 최소 31건 이상으로, 김일성 소재, 김일성·김정일 소재, 김일성·김정숙 소재, 김정일 소재 등 다양하다.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해서는 "수령형상작품 창작에 큰 힘을 넣으며, 그 사상예술적 품격을 더욱 높이는 것"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품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 그리고 "창작가, 예술인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선예술』 2011년 제3호는 <사상적 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조웅철) 제하의 머리글을 통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문한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 것의 의의와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사상적 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은,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는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는 계속혁신, 계속 전진의 산울림, 총공세의 산울림이 온 나라를 메아리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는 중요한 과업"이자, "날로 발전 풍부해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미학적 감정과 고상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끝없이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것이다. 이어서 이와 같은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있게 형상하는 것",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에 제때에 해답을 주는 것",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감정을 참신하고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평범한 생활화폭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혀내는 것" 등 세 가지다.

1) 공연예술 종합

중앙과 지방의 전문 예술단체들과 예술선전대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인근의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을 방문하여 경제선동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연초 신년공동사설 발표 직후, 봄철 모내기 시기, 가을걷이 시기 등이다. 2011년에도 어김없이 전문 예술단체, 비전문 예술단체 할 것 없이 경제선동에 내몰렸다. 조선중앙통신(2011.5.28)은 모내기철을 맞아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과 각 시·군 기동예술선동대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900여 개 단위, 총 1,500회에 걸쳐 모내기 현장에서 경제선동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2011.6.7)도 각 도 예술단체들이 경제선동을 위한 예술 공연을 통해 근로자들의 혁신 창조를 고무 추동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2011.7.22에는 량강도 내 여러 단위

의 기자·창작가·예술인·직외 강연강사들이 경제선동대를 조직,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연인원 10만여 명이 동원돼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체제선전용 집단체조 공연인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15만 석 규모의 평양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2011년 8월 1일 개막, 두 차례 연장 끝에 10월 10일(당초 계획 2011.8.1~9.9, 2010년에는 8.2~10.23 공연) 폐막했다.

조선중앙통신(2011.8.1)은 개막을 전하면서 "이번에 창조집단은 당의 령도따라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새로 창작 형상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거대한 립체적 공간에서 현대적인 음향, 조명설비와 전광장치들, 아름다운 률동과 기백 있는 체조, 변화무쌍한 배경대 등으로 황홀한 예술의 무아경을 펼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1년 공연의 경우 배경대 내용의 20%가 수정 보충되고 구성도 2010년 7장 14경에서 8장 19경으로 1장 5경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 과수업(果樹業)과 양어업의 발전을 과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5장(친선아리랑)의 경우 여러 부분이 수정 보충됐다. 특히 백두산 모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김정은 실적으로 알려진 과수업 실적을 넣었다는 점에서 '백두혈통'을 강조하여 3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고, 5장에서 예년에 없던 중국어 대사나 중국어 카드섹션이 등장하는 등 북·중 친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로동신문』(2011.11.10)은 집단체조창작단 창립 40돌을 맞아 집단체조 창작의 역사를 더듬는 글을 싣고, 북한 최초로 집단체조가 공연된 것은 1961.9.19 김일성경기장(당시 모란봉경기장)에 조선로동당 제4차 당 대회(1961.9.11~18)를 경축하여 공연된 집단체조 <로동당 시대>라고 밝혔다.

2) 음악예술 부문

『조선예술』 2011년 제12호는 <한 해를 빛나게 장식한 선군혁명 음악예술>(림광호)이라는 글을 통해 2011년 한 해의 음악적 성과를 정리했다. 2011년도의 음악적 성과로 거론된 공연은 1월 1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 2월 4일 은하수관현악단의 『설 명절 음악회』, 5월 말에 진행된 김정일의 중국방문 성과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축하공연 중 조선인민내부군협주단의 연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된' 왕재산예술단의 공연, 조선로동당창건 66돌(10.10) 맞아 진행된 은하수관현악단의 10월 음악회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과 자강도예술단 등 여러 전문 예술단체들의 공연, 『제2기 제4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서의 공연,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 공연, 전국녀맹 예술소조 종합공연 등 여러 단체 예술소조원들의 공연과 조선인민군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등이다. 이상 성과로 거론된 공연은 대부분이 김정일이 참관한 공연으로, 이 중 김정일이 참관하지 않은 공연은 삼지연악단과 왕재산예술단의 공연뿐이다.[12] 은하수관현악단의 『10월 음악회』에 대해 김정일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적해 가며 '지금까지 진행한 음악회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 '대단히 훌륭한 걸작' 등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이어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태도와 창조기풍은 우리의 모든 예술단체들이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이들처럼 예술 창작과 창조, 공연활동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예술』 2011년 제7호는 <선군시대 음악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악단>(박영일)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 작품들이 기존의 다른 음악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악기편성과 연주수단(성악), 가수들의 기교나 편곡 형상, 무대장치와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고전적 바탕에 대중적 성격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연주 수준은 명배우 못지않으면서도 형상에서 새 세대답게 참신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내고 있는 신인 연주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작품의 구조 형식이 '간결하고 인민적'이라는 것으로, 짧은 전주와 노래 1, 2절, 간주 그리고 3절(또는 후렴)로 되어 있어 누구나 한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글은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 공연과 작품들은 인민성, 통속성을 구현할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미학사상의 정당성을 실증하여 주는 선군시대 음악작품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은하수관현악단은 클래식악기와 개량 민족악기로 혼합 편성한 이른바 '배합관현악단'을 기본으로, 전자악기와

12) 김정일은 2011.1.1 진행된 삼지연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가 아니라 2010.12.31 진행된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김정은 등과 함께 관람했다.

독창가수, 중창단, 합창단으로 구성된 혼성악단이다. 2009년 창단된 은하수관현악단은 오늘날 "김정일 시대의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의 인기와 공훈국가합창단의 지위와 대우를 받는,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KCTI 북한문화동향』 2011년 하반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음악계는 2011년 들어 연말연시 신년경축음악회에 이어 1월 중순 국립교향악단이 모란봉극장에서 관현악 연주(<아리랑>, <모란봉>,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등)로 새해를 열었다. 국가명절이나 민속명절 기간 중 진행된 음악회를 제외하고 2011년도에 개최된 주요 음악회로는 『제30차 윤이상음악회』(2011.9.27~29, 윤이상음악당)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이 주최한 『민족전통음악 발표회』(2011.10.6, 평양음대 음악당)가 있다. 독일에서 활동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을 기념하는 윤이상음악회는 윤이상 생존 당시인 1982년 8월 평양대극장에서 제1차 음악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한 번씩 30년 동안 계속돼 오고 있다. 『제30차 윤이상음악회』에는 독일 연주가가 초청되어 윤이상의 작품들인 소관현악 <협주적 단편>, 알토 플루트를 위한 <솔로몬>, 교향시 <화염 속의 천사>, 2대의 비올라를 위한 <내성>, 현을 위한 <내성> 등이 연주되었고, 사진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조선신보』(2011.10.1)는 "관람자들은 동양음악의 정서를 서양의 음악수단과 기법으로 형상한 윤이상 선생의 작품들을 들으면서 민족이 낳은 재능 있는 작곡가, 세계적인 음악가였던 그의 한 생에 대하여 감회 깊이 추억하였다."고 추모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교원, 연구사, 연주가들이 출연한 『민족전통음악 발표회』는 대학 내에서 이미 34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2011년에는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서곡과 여성 3중창 <양산도>, 여성독창 <자장가>, 여성독창과 방창 <승지평양>, 여성 5중창 <룡강기나리>를 비롯하여 "오랜 력사를 가진 민족음악 유산의 대표적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로동신문』(2011.10.7)은 "출연자들은 개성적인 창법과 풍만한 성량, 맑고 부드러운 음색으로 민요를 잘 불러 날로 발전하고 있는 민족성악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롱현(弄絃)을 비롯한 연주기법들을 높은 수준에서 형상한 가야금독주와 퉁소독주, 중모리, 굿거리, 잦은모리, 휘몰이장단 등 다채로운 조선장단의 멋을 살린 장고제주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민족음악 유산을 고수하고 현대적 미감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민족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보여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발표회는 주체적인 음악교육과 실천에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민족음악'(국악)을 음악예술 발전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로동신문』(2011.10.29.)은 <음악예술 발전에서 민족음악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기사에서,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음악예술 발전의 필수적 요구이고, 특히 민족음악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 발전의 중요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음악에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고 민족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할 것, 민족악기를 장려하고 현대적으로 개량 발전시킬 것, 민족허무주의와 복고주의적 편향을 범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조선예술』 2011년 제1호에는 <노래로 선군시대를 추동하는 것은 당의 선군령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박명원)라는 긴 제목의 글이 실렸다. 이 글은 노래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문학적으로 집약화되고 정화된 가사와 선율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혁명적인 노래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선군사상과 의지로 뜨겁게 맥박 치게 하는 위력한 무기", "사람들을 선군혁명 위업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과 락천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는 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적인 노래를 통한 '음악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 대중가요 가사의 대부분이 왜 북한 체제 찬양이나 김 부자(父子) 우상화, 당 정책 선전으로 도배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가늠케 해준다.[13] 2011년의 경우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발표·보급된 <발걸음>과 <나래치자 선군조선 천리마여>에 이어 김정은 찬양가요로 보이는 노래가 새로 등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원래 1947년에 창작된 곡인 <조선청년행진곡>(김련호 작사, 김원균 작곡)이라는 노래로, 총 3절로 이뤄진 이 노래는 절마다 "김 장군 두리(주위)에 뭉치자"는 가사가 담겨 있다. 한편 가요 <돌파하라 최첨단을> 역시 김정은을 간접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는 드문 독창회 소식이 있는데, 인민배우 손대원 독창회가 2011.10.28부터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로동신문』 2011.10.31)과 원로 성악가인 인

13) 그러나 김정일과 당국의 대중가요를 통한 '음악정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 사회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행했고 당이 금지한 작사·작곡자 미상의 가요 〈어머니〉, 〈혁띠를 조입니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데일리NK 2011.6.1).

민배우 왕선화의 생일 80돌 독창회(『조선예술』 2011년 제9호) 소식이 그것이다. 손대원 독창회에 대해 『로동신문』은 "재능도 희망도 꽃피워주시며 온 나라가 아는 가수로 키워 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노래 <아 수령님 품이여>, <장군님이 그리워>를 절절하게 불렀다."면서, 제자 등이 함께 출연하여 혼성 2중창, 남성 3중창, 혼성 중창 등의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손대원 독창회가 개최되기 전인 8월, 독창회 무대에 10년 만에 오른 왕선화는 북한에서는 예술영화(극영화) <정방공>의 주제가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를 부른 배우(연기·연주자)로 잘 알려진 성악가다. "풍만한 성량과 진실하고 감명 깊은 연주 형상으로 인민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던" 왕선화의 <당을 노래하라> 등 독창과 이날 찬조 출연한 손대원과 혼성 2중창을 불렀다. 음악예술 부문 기타 소식으로는, 2011.7.12 메아리음향사 창립 20돌 기념보고회 진행 소식, 평양 피아노합영회사가 중형을 생산한 경험에 기초하여 자체 기술로 소형 그랜드피아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조선중앙통신 2011.10.11), 문학예술출판사가 <사향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비롯한 38편의 노래를 수록한 피아노 반주곡집 「20세기 추억」을 출간했다는 소식 등이 있다.

3) 연극·가극예술 부문

『조선예술』 2011년 제8호는 <주체적 창작지도체계의 본질적 내용>(김철민) 제하의 글에서 주체적 창작지도체계를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 주는 지도체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문학예술 창작지도에서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창작의 주인은 창작가, 예술인들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정치적 자각과 창조적 열의가 높이 발양되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창작과업을 어김없이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체적 창작지도체계의 이와 같은 강력한 통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줄곧 북한은 '우리 공화국의 창작가·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천세봉(1915~1986)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이론기관지인 「근로자」(1975년 12월호)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창작의 자유'의 개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즉 그는 "창작 사업에서 개성적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작가가 당의 사상에 엄격히 의거하고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며 집체적 지혜에 의거하면서 작품의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1년 1월 북한 연극계는 국립연극극장에서 2010년 국립연극단에 의해 재창조된 경희극 <산울림>(≪김일성상≫ 계관작품)이 공연되고, 윤이상음악당에서도 만수대예술단과 국립연극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화술(話術) 소품 공연이 진행되면서 시작했다. 국립연극단의 경희극 <산울림>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상성은 물론 모든 형상요소들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걸작",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이 되는 작품"(『조선신보』 2010.4.26)이라고 극찬한 작품이다. 국립연극단은 2009년에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 2010년에 경희극 <산울림>에 이어 2011년 하반기에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걸작"을 탄생시켰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김일성상≫ 계관작품)라는 작품으로, 7월 13일 김정일과 김정은이 관람하고 7월 17일 평양에서 첫 일반 공연이 진행된 후 7월 27일부터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북한 전역에 녹화 방영됐으며, 첫 공연일자를 중심으로 함흥(8.19, 함흥대극장), 강계(9.22, 자강도예술극장), 혜산(9.30), 청진(10.6), 원산(10.12), 사리원(10.18, 황해북도예술극장) 등 북한 전역의 대도시를 순회 공연했다. 작품에 대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2011.8.4, 국립연극극장)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간부)들, 각 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관람한 후 각 급 단위에서 '실효모임'(문학예술작품을 통해 사상적으로 깨우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 효력을 보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모임)이 이어졌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시기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발휘되는 어느 한 산간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향토애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맡게 된 주인공 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산적된다. 패배주의에 빠진 일꾼,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온천 지역을 관광지로 꾸릴 안까지 내놓는 간부 직원, 산나물로 끼니를 잇던 주인공 딸의 죽음 등 온갖 시련을 뚫고 발전소

건설에 매진하여, 폭우로 언제(堰堤) 수위가 높아지고 송전선과 철탑이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 주인공과 군내 주민들은 인민군 군인들과 합심하여 언제를 구원하고 승리의 환호를 터친다는 줄거리다(『로동신문』 2011.7.14;『조선신보』 2011.8.12). 2011년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2010년 경희극 <산울림>의 경우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공연 관람(<산울림>의 경우 3회 관람)에 이어 평양에서 일반 공개, 주체적 문예사상 연구모임, 전국 순회 공연, 각 급 단위에서의 실효투쟁 등의 패턴으로 진행된 것이다.

다만 2010년 경희극 <산울림>의 경우 국립연극단의 원로 인민배우 한 명에게 ≪김일성상≫ 계관인 칭호가 주어졌으나, 2011년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대해서는 2009년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과 마찬가지로 연극 창작사업에 공로가 있는 창작가, 예술인, 일군(스태프)들에 대해 대규모 표창이 주어졌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대해서는 2011년 하반기 내내 작품에 대한 공연 및 순회 소식, 표창 소식, 관계자 인터뷰 기사, 관객의 반응, 작품에 대한 평론 등이 이어졌다. 북한에서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은 십중팔구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창작을 지시하거나 창작과정에서 현지지도한 작품, 김 위원장이 공연 관람 후 높은 평가를 내린 작품이라고 보면 된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조선신보』(2011.7.28)에 따르면 2010년 5월 경희극 <산울림> 관람 후, 10월 국립연극단 배우들이 새로 입주한 살림집 방문 시, 2011년 3월 국립연극극장 개관공연 관람 후 "연극단의 새 작품(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창작사업을 료해하시고, 창작창조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했으며, 2011년 7월 중순 작품 관람 후 최상의 평가를 내리고 지방 순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가명절, 민속명절, 기념일에 이루어지는 계기성 공연 외에 2011년 연극 및 가극예술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공연 소식으로는 3월 평양대극장에서 공연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공연이 있다. 5대 혁명가극 중 하나로 1971년에 창작된 동 작품에 대해 『조선신보』(2011.3.17)는, "가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한 녀전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절가에 기초한 유순한 명곡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절절히 그리면서 청춘도 행복도 희망도 미래도 그이께 맡기고 살며 투쟁해 온 녀주인공의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울 열의에 넘쳐 있다."고 보도했다. 6월 12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위해 2010년에 창작된 중국 민간설화 번안가극인 <량산백과 축영대>(평양대극장)를 공연했고, 7월 17일에는 혁명가극 <피바다> 초연(따라서 피바다가극단 창립일) 40돌을 맞이했다. 7월 16일 평양대극장에서 피바다가극단 창립 40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이 전달됐다. 조선중앙통신(2011.7.15.)은 <피바다> 1천 600여 회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원래 연극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극예술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했다."고 전했다.

4) 무용예술 및 기타 부문

『조선예술』 2011년 제2호는 <민속무용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목영철)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민속무용 발전을 위하여 취해 온 각종 조치들을 선전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민속무용 진흥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각 지방들에 묻혀 있는 민속무용을 역사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찾아내도록 전문 연구사들과 교원들로 발굴조(發掘組)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조사 발굴하도록 조치하고, 매해 진행되는 『전국음악무용소품축전』과 근로자들의 예술축전에 새로 발굴한 민속무용을 출품하도록 장려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속무용을 재형상하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 민족적 색채가 짙고 시대적 미감이 구현된 수많은 민속무용 작품들이 창작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켜 "낡고 비과학적인 것은 버리고 인민적이고 진보적인 것은 살리며 인민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시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되 지나치게 현대화하지 말고.... 지방적 특색을 잘 살릴 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속무용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현대기술수단을 통하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보(文化財寶)로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1년도 북한 무용계의 활동은 대학발레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2011.1.15)은 "평양무용대학 무용극장에서 진행되는 무용소품 종합공연은 대학발레단의 무용가들과 학생들이 경공업과 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여

러 주제의 소품들을 내놓은 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북한에서 발레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2009.7.23. 『조선신보』가 북한의 무용수들에 의한 발레극 <에스메랄다>(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를 발레화한 작품)가 2010년에 상연된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발레계의 상황이 알려졌다. 당시 『조선신보』는 2009년 7월 현재 평양무용대학 소속 조선발레단에서 창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으나 후속 보도가 없어 상연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상연됐을 경우 북한 무용가들에 의한 발레극의 공개적인 상연은 60년대 이래 처음으로, 60년대에 북한은 발레 육성을 위해 남녀 쌍 11조의 발레 무용수를 구소련에 유학시킨 바도 있다. 그 후 70년대, 80년대에는 발레보다 민족예술의 발전에 힘을 기울였으나 15년 전부터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 발레 강좌를 개설하여 발레 무용가들을 육성해 왔다는 사실이 2009년 발레극 <에스메랄다> 관련 보도와 함께 알려졌다. 현재 70여 명이 여기에 재학하고 있다고 하며, <에스메랄다>를 완성시킨 다음에는 <눈물의 분수> 창조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도되었다.

2011년은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1911.11.24~1969.8.8)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최승희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신미리 애국렬사릉에서의 화환 진정 의식(11월 24일 오전), 도서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 발행식 및 연구토론회(11월 24일 오후, 인민문화궁전), 무용가 최승희 생일 100돌 기념 연환모임(11월 25일, 평양교예극장), 최승희가 창작한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복원 개작 공연(11월 26일, 평양대극장) 등 대대적으로 기념행사가 전개되었다. 이는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최고 통치자의 가계(家系) 외에 개인과 관련된 행사로는 전례가 없는 경우로, 2003년 유해의 애국렬사릉 안치로 복권이 공식화된 후,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 및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복원 공연으로 예술사적 복권까지 이룬 것으로 평가(『KCTI 북한문화동향』 2011년 하반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된다. 『로동신문』(2011.11.24.)은 <은혜로운 품속에서 값 높은 삶을 누려 온 세계적인 무용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승희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조선무용예술의 1번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단연 1번수였으며 조선의 3대 녀걸 중의 한 사람으로 령도자와 인민의 추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는 조선 춤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무용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최승희는 1949년 최초로 민족무용극 <반야월성곡>과 이후 <사도성의 이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야기> 등의 작품을 창작하는 등 "현대 조선 민족무용의 기초를 완성하는 과정에 많은 유산을 남기였다."면서, 주요 성과로 10여 편의 장막무용극을 포함하여 300여 편의 무용작품 창작, 「조선민족무용기본」, 「조선아동무용기본」등 수십 편의 도서와 논문 집필, 그리고 많은 인민배우, 공훈배우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무용배우, 안무가, 연출가, 학위 학직 소유자 양성, 중국의 민족무용 기초 확립에 공헌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우리 춤의 동작과 기법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선민족무용기본」(1, 2)은 "온 세상에 대고 소리칠 만한 민족의 자랑이고 국보이며 그가 우리 무용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1955)의 복원 공연은 2008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국립민족예술단이 재창조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완성되어 2011.11.26 평양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신라 시대 동해안의 사도성이라는 성에 쳐들어온 왜적들에 대한 백성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 싹튼 성주의 딸과 한 어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도성의 이야기>는 재창조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의상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잘 만들어 재현할 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무용극은 당초 4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무용극으로, 최승희가 대본, 안무, 연출을 도맡았었다. 이번에 개작 복원한 동 무용극(안무: 인민예술가 김해춘)은 5장 8경, 종장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는 1956년 9월 중순부터 1957년 초까지 소련(당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순회하며 80여 회의 공연을 통해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로동신문』 2011.11.29)고 한다. 남한에서의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로는, 최승희의 한·중·일 제자가 참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춤비평가협회가 주최한 『최승희 탄생 100주년, 4개국 국제 포럼』(2011.11.18,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으로 만나는 최승희의 삶과 예술> 영상회』(2011.12, 서울 대학로 연낙재) 등이 있었다.[14] 일본에서는 최승희 생일 100돌 기념공연 『조선무용축전』(2011.12.4, 히로시마 ALSOK홀)과 최승희 생일 100돌을 기념하는 임추자민족무용단 특별공연 『명작은 세기를 넘어』(2011.12.5, 도쿄도 키타구 호쿠토피아)가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인민배우이며 재일조선무용의 개척자의 한 사람인 임추자 씨가 현대조선무용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최승희를 기리며 1년 전부터 기획, 준비해 온 것이다.

14) 자세한 내용은 『KCTI 북한문화동향』(2011년 하반기, 6~7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공연에는 금강산가극단 무용부 성원들도 출연하여 최승희의 대표작인 <목동과 처녀>, <풍랑을 뚫고> 등의 작품과 함께 인민배우 임추자가 창작한 <봉선무>, <초립동> 등의 독무, 군무 총 13작품이 피로(披露)되었다(『조선신보』 2011.12.12).

평양인형극단이 창립(1961.8.13) 50돌을 맞아 국립연극극장에서 기념보고회(2011.8.13)를 가졌다. 『로동신문』(2012.8.13)은 <새 세대 교양에 특색 있게 이바지하는 예술창조집단 평양인형극단의 연혁사를 더듬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인형극단이 수놓아 온 50년 력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쳐 오신 절세의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력사",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첫 걸음을 떼고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인형극예술을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 주체의 인형극예술로 더욱 개화 발전시켜 주신 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인형극의 시작과 발전이 온전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공(功)임을 선전하고 있다. 신문에 의하면 평양인형극단 창립 후 50년 동안 근 1만 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했고, 특히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만 인형극 <은옥이>를 비롯, 근 20편의 인형극을 창조하여 평양과 지방의 극장, 회관들에서 1,300여 회의 공연을 진행했다고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한 인형극장에서는 평양인형극단이 최근 창조한 새로운 형식의 '줄 인형극'이 공연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8.13)이 전했다.

북한 교예 부문 소식으로는 10월 26일 평양교예극장의 개건을 기념하는 평양교예단 예술인들의 종합교예공연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있다. 북한의 교예는 공중교예, 수중교예 등 체력교예와 희극교예, 요술(마술), 동물교예 등으로 나누는데, 『조선예술』 2011년 제3호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밑에 전후 주체적 민족교예를 건설하기 위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투쟁>(김동철)은 북한의 '주체적 민족교예'의 발전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글에 의하면 1955년 2월 어느 날 문화선전성(당시) 간부로부터 교예공연에서 최면술과 기합술 등을 하고 있으며, 키가 작은 난쟁이도 출연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김일성 주석이 "인간 천시와 비인간적 도락에 물젖은, 그런 취미 본위적인 어리(릿)광대와 기형적인 교예 작품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뛰여(어)난 재주와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고상한 예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령적 교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교예를 사람 중심의 교예로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창작전투를 줄기하게 벌리였"는데, 먼저 주체적인 민족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예 건설 원칙에 따라 전국 각지에 일군(관계자)을 파견하여 지난날 민간에서 교예를 하던 인재들을 찾아내고 민족교예 유산들을 발굴하여 "시대적 요구와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재형상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한편,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경계하면서 선진 교예기술과 수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창작 전투 또한 힘 있게 벌려 나갔다고 한다.

2011년 북한 교예소식 중 가장 큰 뉴스는 평양교예단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이어 한 달간(2011.4.18~5.18, 계획보다 연장 공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아리랑>의 공연 장소인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대형 환상요술(마술) 공연(40분 내외)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소식이다. 첫 공연이 이루어진 후 『조선신보』(2011.4.21)는 다음과 같이 공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코끼리, 말, 곰과 같은 큰 짐승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했다. 구형기구 안에서 기교를 피로하던 배우가 갑자기 사라지고 려객들을 태운 대형뻐스가 갑자기 없어졌는가 하면 무중력 상태와 같이 사람이 공중에서 자유로이 날아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난데없이 코끼리와 말, 곰과 같은 큰 짐승들이 생겨나는 등 기발한 요술들이 황홀경을 이루었다. 절정에 이른 것은 무대 우(위)에 순식간에 나타난 직승기(헬리콥터)가 배우를 가두어 넣은 함을 수십 미터 높이까지 올려놓았다가 거기서 떨구는 장면이다." 북한은 이번 대형 환상요술 개막 전에 대형 환상요술은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만 하고 있고 더구나 1회 공연에 한두 종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공연은 여러 종목들을 하나의 흐름 속에 연속적으로 결합시킨 독특한 양상의 '예술적 대화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11.3.9).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여행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연시간이 짧고 관람료(1인당 150유로, 미화 213달러)가 비쌌으며, 단 한 명의 마술사가 공연하는 1인극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노컷뉴스』 2011.5.18). 이번 대형 환상요술 공연은 <아리랑> 공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2012년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됨에 따라 대체 외화벌이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영화예술 분야

북한은 영화가 '직관예술'이므로 강한 호소력과 전파력이 있어 대중교양과 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건국 이래 여타 예술 장르보다도 중요시해 왔다. 오늘날 북한 영화는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이후 대내외적인 고립과 경제난, 기자재의 노후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화 제작은 1980년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영화는 선군정치나 강성대국 건설을 주제로 한 영화, 실리사회주의를 주제로 경제 재건을 다룬 영화, 조선민족 제일주의 등 민족 문제를 다룬 영화가 주로 창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국가명절'에 '영화상영순간'(映畵上映旬間)이라는 독특한 행사를 갖는데 평양과 각 도에서 10일 정도씩 각종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다. 2011년에도 『2.16경축 영화상영순간』, 『태양절기념 영화상영순간』 등의 행사를 가졌고, 각 행사의 개막 첫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영화는 유형에 따라서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로 구분되는데, 이하 2011년에 제작된 주요 영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영화'는 인간과 그의 생활을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영화, 즉 극영화(劇映畵)를 말한다. 북한의 영화는 인민에 대한 교양과 선전선동에 있는 만큼 예술영화는 예술·오락성보다는 주제성이 강조된다.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편의 영화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는 다부작 창작 형식도 북한 영화의 특징 중 하나다. 북한 최대의 예술영화 제작소는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로, 북한에서 영화촬영소는 영화촬영을 위한 시설인 동시에 영화 창작기관이기도 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2011년에 제작한 주요 예술영화로는, <성강의 파도(제1, 2부)>(김일성의 뜻을 받들고 김정일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식의 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투쟁내용), <맹수 사냥군(사냥꾼)>(일제 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조선민족의 반일정신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 원수들과 맞서 싸운 애국적인 한 사냥꾼 일가에 대한 이야기), <인민이 너를 아는가>(어느 한 지방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형상을 통해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이 벌어지는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어떤 정신과 기풍으로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 등이 상반기에 나왔다.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2011년 하반기에 제작한 주요 예술영화로는, <미결건은 없다>(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비열한 음모를 분쇄해 버리는 보위 일군들의 투쟁 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주는 영화), <눈 속에 핀 꽃>(김정일 위원장이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도 모든 것을 바친 자강도의 어느 한 여성 지배인을 높이 평가하시여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 준 실재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 <소원>(희천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김정일 장군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자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 등이 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속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예술영화에 대해서는 2011년도의 경우 아무런 언론 보도가 없었고, 11월에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에서 예술영화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당의 최첨단 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어느 한 공장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모습)를 만들어 내놓았다.

'기록영화'는 역사적 사실,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적을 영상으로 기록한 영화와 행사, 자연 풍경, 역사물 등 주로 보존적 성격이 강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말한다.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2011년에 제작한 기록영화 중 언론에 보도된 영화로는,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 26>(김정일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을 나란히 거명하고 충성을 다짐한 편지와 메모를 연달아 소개하여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한 기록영화로,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1시간 분량으로 방영),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7부 <선군령장의 위대한 동지애>(김정일 위원장이 동지애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을 동지애로 끝까지 완성할 '철의 의지'를 지니고,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에 쌓은 업적을 수록), <령장의 기치 따라 1년>(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의 모습과 군부대에서의 행적을 미화한 영화로 북한 전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상영), <최첨단 돌파전의 열풍 속에서 1> 등이다. 2011년 10월에는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에서 기록영화 <축복받은 행복동이들>("김정일 장군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내놓기도 하였다.

'과학영화'는 과학기술과 생산 방법 및 법칙과 원리들을 흥미 있고 알기 쉽게 보여줌으로써 과학적 인식을 확산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제작한 것으로 보도된 '과학영화'는 <바다 광물질의 신비한 효과>와 <수압직기>(두 편 모두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과학영화로 소개) 두 편뿐이다. 한편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가 제작하는 '아동영화'의 창작 방향은 어린이들에게 지식 교양을 심어 주고, 사회주의 애국교양에 도움이 되고, 과학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것으로, 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다. 2010년과는 달리 2011년의 경우 아동영화 제작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어 제작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도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제외한 북한 영화계의 기타 소식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3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예술인들의 기량발표회를 처음으로 지도해 준 40돌을 맞아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영화예술인들의 무대가 진행되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텔레비죤극창작단 등 여러 영화 부문 단위들이 오래 전부터 공연 준비를 해왔다고 하며, 영화화면을 통하여 친숙해진 여러 배우들이 대화시와 합창, 가야금독주와 방창 등의 작품들을 가지고 관객들의 웃음과 눈물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곡목은 영화 및 방송음악단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노래연곡 <꽃 파는 처녀>였다고 한다.

북한의 영화과학연구소가 2011.4.28 창립 50돌을 맞아 기념보고회를 가졌으며, 8월 16일자로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제8창작단과 함께 '2중 3대혁명 붉은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0호)를 받았다. 한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40여 일간의 연구를 통해 흑백영화를 천연색 영화로 옮기는 기술을 개발하여 70년대에 제작된 흑백 예술영화 <꽃 피는 마을>을 천연색 영화로 옮겼고, 오래 전에 제작된 인기 있는 흑백영화를 천연색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조선신보』 2011.6.1). 9월 10일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동하고 평양 소재 목란비데오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9.10)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목란비데오사 간부들로부터 새로 건설된 DVD공장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첨단 설비의 생산공정 등을 돌아보고 문화매체의 생산과 보급의 정형을 요해(了解, 실태파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최근 평양의 예술 전문 교육단위에서 음악, 미술 배우기 DVD가 학생들이 자습을 통해 기초는 물론 전문가 수준의 기량까지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이를 이용한 수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조선신보』 2011.6.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극(史劇) <계월향(桂月香)>이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면서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나, 날이 갈수록 외면을 받다가 결국 북한 사회의 각 계층으로부터 "그것도 연속극이라고 만드느냐"는 항의가 여기저기 빗발치면서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리즈를 마감하지 못하고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다(『조선일보』 2011.6.25). 이는 북한 내에 확산되어 있는 한류(韓流)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눈이 높아져 일어난 해프닝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방영한 옛 소련의 예술영화 <전화로 보내오는 선물>과 중국 예술영화 <영웅 정성공>에서 상당히 '과감한 노출' 장면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영돼 주목되고 있다. 남한의 성인영화와 노출 수위에 별 차이가 없고, 남한의 지상파 TV라면 방영하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북한 TV가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처럼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연합뉴스(2011.10.28)가 전했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이 김정일 위원장이 참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영상을 공개한 11월 29일을 전후로 며칠째 전쟁영화를 매일 방영했다. 오후 5시에 방송을 시작하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은 보통 오후 8시 이후 예술영화를 방영하는데 온통 전쟁영화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연합뉴스, 2011.12.2).

6. 군중문화 분야

북한에서 문화생활은 정치생활, 물질생활과 더불어 주민의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3대 분야 중 하나로, 물질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물질생활과 정치생활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면 정서적 욕구는 문화생활을 통해 충족된다. 문화생활은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문화적 재부(財富)'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문가가 아닌 인민대중도 예술창작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진작하여 이에 직접 참여하는 대중이나 이를 감상하는 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려는 정책 지향성을 북한에서는 '군중문화로선'이라 한다. 군중문화노선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노선으로서, 문학통신원 제도라든가 문예소조 운동 등이 모두 이에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 민주주의' 지향의('Cultural democracy' oriented) 문화정책으로서 이러한 지향에 따른 사업, 즉 군중문화 사업은 북한 문예정책의 특징인 문화예술의

대중화·통속화 정책의 핵심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군중문화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그림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악기를 다루며 글을 지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선전해 오고 있다. 『로동신문』(2010.4.20.)은 <군중문화예술은 대중의 정신력 발동의 힘 있는 무기>(김병진)라는 논설을 통해 군중문화예술의 개념을 "근로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는 대중예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키고 온 나라에 혁명적 기상이 약동하게 하는 전투적이며 위력한 예술 형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진행된 군중문화 분야 행사는 다음과 같다. 2.16경축 <우리 교실 문학상> 수여식이 2월 14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있었다. 상 이름에서 '우리 교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었다는 동시 제목이다. 소학교, 중학교(중·고등학교), 외국어학원 학생 등 근 400명의 학생소년들이 상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2011.2.14)에 의하면 이들이 창작한 작품들 가운데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 업적을 형상"한 시초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작문 <강성대국의 전초선>, 동시 <선군바람 좋구나>, 가사(歌詞) <늘어나는 선군풍경> 등이 있고, "강성대국 건설의 결전장들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고 있는 조선의 벅찬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 <희천바람>, 동요 <비날론솜>, 서정시 <강성대국의 봄> 등이 있다. 3월에는 학생들의 글 작품집 「빛나라 김정일 장군의 나라 9」(교육도서출판사) 출판 소식이 있고, 8월 19일에는 <4.15 충성의 만경대 창작상> 수여식이 청년중앙회관에서 거행돼 입선자들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었다. 2011년 문학작품 현상 모집기간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00여 건이 더 많이 투고되었다고 한다. 입선된 작품들의 주제를 보면,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반영"한 작품,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작품, "대고조 격전장들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 가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을 형상한 것",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가려는 학생소년들의 결의"를 담은 작품 등이다(『로동신문』 2011.8.31).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전문작가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전국문학축전』 요강에 제시된 작품 공모 주제는, 백두산 3대 장군 우상화, 혁명 전통을 주제,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현실 주제, 인민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군대의 영웅적 투쟁 모습과 군민일치, 청소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 계급교양주제, 조국통일주제, 역사 주제의 작품 등이었다. 이에 비해 남북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네트(인터넷) <'우리 민족끼리' 작품상> 경연(공모기간 2011.4.1~10.31)에서의 작품 주제방향은,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의의와 정당성, 민족대단합·자주통일과 평화번영·조국통일운동 활성화, 자주권 수호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 사대매국적이며 반통일적 행위 배격, 내외 호전세력의 전쟁책동 반대, 일본 반동들의 재침 야망과 군국화 책동 반대 등이다. 이러한 주제 방향은 현 북한 당국의 실제 행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우상화·혁명 전통·인민 및 군대의 투쟁 등 기존의 단골 주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접적인 정치선전 공세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작품을 공모하는 주체인 인터넷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기본이념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신문』(2011.11.20.)은 <벽찬 현실은 군중문학 창작의 활무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문학소조원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함남의 불길 높이 가스화 2계렬 공정 건설에 떨쳐나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종업원들 속에서 군중문학 소조활동이 더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이곳 문학소조원들은 많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여 작품집 「흥남아 일어나라 백두산이 본다」, 100편 시집 「흥남은 장군님을 기다립니다」, 작품집 「전변의 새 아침」에 올렸고, '들끓는 로동현장에서 체험한 사실들'을 가지고 현실 주제의 단편소설, 서정시, 수필, 수기 등을 창작하여 잡지 『청년문학』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선예술』 2010년 제9호에 실린 <미술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문인철)라는 글은 미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을 미술창작활동에 주인답게 참가시키고, 미술작품 보급 선전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 자신이 미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미술의 대중화가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에로 지향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 시각예술 분야 주요 군중문화행사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2월 11일 『2.16경축 얼음조각축전』 개막(삼지연군), 『로동신문』(2011.2.13)이 보도한 희천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 소속부대 군인들의 문예활동(소묘집, 펜소묘 작품집, 시집, 문학작품집 등), 4월 6일 『태양절기념 전국서예축전』(평양국제문화회관, 대학·중학교·소학교·유치원 부문), 10월 만수대지구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한상국 소속 부대에서 소묘 직관판을 통해 군대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소묘 작품을 수십 점이나 게시 보도했다(『로동신문』 2011. 10.30)는 정도다. 『2.16경축 얼음조각축전』의 경우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돌격대원들과 삼지연군 인민들은 42종 수백 점의 얼음조각품들을 창작하여 삼지연군문화회관 주변과 삼지연못가에 전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축전장들에는 "꽃바구니, 축등, 대형 꽃병과 주체철 생산성과를 보여주는 장쾌한 쇠물 폭포, 희천발전소 언제(堰堤) 등을 생동하게 형상한 얼음조각들이 있다. 백두산호랑이, 산천어들이 꼬리 치는 얼음어항을 비롯한 조각품들도 있다".

북한에서 군중문화 활동은 공연예술,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음악, 즉 노래가 일반 대중들에게 문학이나 전시, 연극이나 무용보다 접근하기 쉬운 장르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예술』 2010년 제1호에 실린 <군중음악예술 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리정현)이란 글은 군중문화 활동이 주로 음악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군중음악예술 창조활동은 군중예술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글에서 필자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대에서 군중음악 창조활동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 내용에서 수령결사 옹위의 정신,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 맥박치고, 형식에서 대중성과 통속성이 보장된 독특한 형식이 정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적극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군중음악예술 창조활동을 통해 창조된 작품은 그 내용과 형식이 "군중적이고 통속적이며, 소품 위주이고 자기 단위의 특성이 살아 있고 진실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이라고 한다. 또한 인민군대 예술소조활동에서 창조된 화선(火線) 악기의 모범을 따라 생산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공구 및 도구들을 음악연주에 활용하게 되었으며, 모든 내용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경축 및 기념 공연에 전문 예술단체와 함께 아마추어 단체가 참가한다. 예컨대 2010.4.11~19까지, 그리고 2011.4.10~18까지 평양의 극장, 음악당, 회관들에서 여러 부류로 나뉘어 단독, 조별, 연환공연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는 2010년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과 2011년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축전』의 경우에도 전문 예술가로 이루어진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와 예술선전대뿐 아니라 아마추어 단체인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및 각 계층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예술소조원들이 공연에 참가한 바 있다. 이들 아마추어 단체들의 공연은 주로 음악 연주인 경우가 많은데, 음악 공연이나 종합 공연이나 매우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음악 공연의 경우 합창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소합창, 남중창과 합창, 북제창과 합창, 관현악과 합창 등의 형식이 있고, 독창, 이중창, 세쌍둥이노래, 4중창, 5중창, 혼성중창, 혼성제창, 여성중창, 남성중창, 여성중창과 방창, 기악과 노래, 북과 노래, 여성독창과 장고병창, 민족기악 병창, 가야금 병창, 장고대 병창, 어은금 병창, 피아노독주, 기악합주, 경음악 등 다양하다. 종합 공연의 경우에는 여기에 시(이야기, 낭송), 대화시, 시(이야기)와 노래, 시(이야기)와 합창, 선동과 노래, 설화와 노래, 설화와 합창, 설화시극, 제창 이야기, 북제창 이야기(이야기와 북제창), 재담, 막간극(짧은 극), 무용 등의 형식이 추가된다.

북한에서 연중 계속되는 군중문화예술행사의 경우, 특히 그것이 사적(私的)인 모임행사가 아닌 공적인 행사일 경우 연주하는 작품은 고착된 몇 개의 주제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군중음악행사의 연목(레퍼토리)과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사례로 2011.1.30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공연한 후 2.18부터 일반 공개된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 공연(인민문화궁전)의 연목만 살펴보기로 한다. 동 공연의 연목은 대화시 <사랑의 평가>, <장군님 마중가신 길>, 가무 이야기 <내 나라의 자랑 높은 비날론일세>, 선동 이야기 <흥남의 기적 소리>, 혼성3제창 이야기 <곧 바로 가자>, 막간극 <덮지 말자>, 여성독창 <아버지 장군님 더 잘 모시리>, 남성독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북제창 <선군승리 옹헤야>, 북과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 취주악과 합창 <승리의 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로동신문』 2011.2.20). 아래에서는 2011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행사의 명칭(장소)만 날짜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연목과 아래의 행사 명칭을 통해 북한에서 음악 부문의 군중문화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15]

15) 『제15차 전국학생청소년예술 개인경연』(10.25~11.1,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군중문화예술활동으로 분류했으나, 예술인 '후비(後備)'를 찾아내기 위해 예술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청소년들 간에 치러지는 개인경연행사이다. 성악과 민족기악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도(직할시)의 1선과 2선 경연에서 당선된(입선한) 1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 2.10 『2.16경축 성·중앙기관예술소조 종합공연』● 2.15 평양시 화교들의 노래모임(대동강외교단회관) ● 2.18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 종업원예술소조 공연(인민문화궁전) ● 3.7 국제부녀절 즈음 『제17차 전국녀맹예술축전』 종합 공연(3.7~9, 평양대극장) ● 4.3 김정일이 '모범기 대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 준 50돌 기념 전국직맹 초급단체 예술소품 경연(4.3~6, 중앙로동자회관) ● 4.4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기념 농업근로자들 경축모임(은흥협동농장) ● 4.6 노동계급과 직맹원 경축모임(당창건기념탑), 녀맹원 경축모임(개선문광장) ● 4.8 국가계획위원회·평양시국토환경보호관리국·평양326전선공장·사동구역 리현 남새전문협동조합 등 종업원예술소조 공연 준비 ● 4.13 녀맹원들의 태양절 기념무대 『위대한 장군님 높이 모시고 태양의 노래 영원히 부르렵니다』(녀성회관) 진행 ● 4.14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 종합공연(만경대학생소년궁전) ● 5.1 '국제로동자절' 기념 평양과 지방의 공원·유원지·공장·기업소 등지에서 근로자들의 예술공연·민속놀이·무도회·체육유희 오락경기 진행 ● 4.21~5.10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전국 시·군(구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집중 경제선동활동 ● 5월 전국의 시·군 기동예술선동대 모내기전투 경제선동 ● 5.9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 공연(인민문화궁전) ● 6.1 '6.1국제아동절' 기념 각지에서 어린이들의 예술소품 공연 및 종합 공연, 민속유희, 오락경기 진행 ● 6.5, 6.10부터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 공연 ● 6.6 『제50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종합 공연(만경대학생소년궁전) ● 6.10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봉화예술극장) ● 6.15 김정일 당 사업 개시 47돌맞이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 6.16 로동계급과 직맹원,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 6.17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 공연

● 김일성 사망(7.8) 17돌 즈음 평양과 각도에서 회고·맹세모임, 회고무대, 회고음악회 등 각종 추모행사(7.6~8) ● 7.6 녀맹원들의 회고무대 『영원한 그 미소』(함남 함흥) 진행,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수령님과 청년들』(평양청년중앙회관) 진행 ● 7.25 '전승절' 기념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평남 순천시 금천혁명사적지) ● 7.27 '전승절' 로병기동예술선동대의 경축공연 ● 7.30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65돌 기념 전국녀맹예술소조 종합 공연』(청년중앙회관) ● 8.19 '선군절'(8.25) 기념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 8.23 '선군절' 기념 직맹간부·직맹원들의 독창·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종합 공연(중앙로동자회관),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 8.25 '선군절' 기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 공연 ● 8.27 김정일의 외국방문 성과 경축 군중예술 부문(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담배련합기업소·평

http://www.kci.go.kr KC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방직공장·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와 국토환경보호성 예술소조원들)의 예술소품 공연 ● 8.28 '청년절'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청년기동예술선동대의 종합 공연(청년중앙회관) ● 9.1 '정권 창건일' 경축 전국 부문 농근맹 예술소품 경연 입선단체들의 종합 공연(중앙로동자회관) ● 9월 2중 3대 혁명 붉은기 삼지강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인민문화궁전) ● 9.12~21 전국녀맹 예술소조 종합 공연(인민문화궁전) ● 9.27~10.11 전국청년돌격대부문 청년기동예술선동대 경연(황해제철연합기업소) ● 10월 각 시·군 기동예술선동대 및 농장기동예술선동대들 가을걷이전투 경제선동 ● 10.10 '당 창건일' 경축 『제6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평양학생소년궁전) ● 10.16 두단오리공장(평양) 예술소품 공연 ● 10.18 조선인민군 3중 3대 혁명 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 공연 ● 10.25~11.1 『제15차 전국학생청소년예술 개인경연』(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 11.18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 예술소조 공연 ● 12.6~10 조선인민군 제35차 군무자예술축전 당선 5개 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 공연 ● 12월 초 평양시당위원회 주도로 '함남의 불길' 따라 녀맹기동예술선동대 등 평양시 공공장소·거리 및 공장·기업소들에서 경제선동

북한에는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예술행사가 많은데, 출근길 공장, 기업소의 정문이나 논밭에서의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과 청년학생, 근로대중, 인민군대의 무도회가 그것이다. 특히 무도회는 주요 기념·경축일에 거의 빠짐없이 전국 규모로 진행되는데 주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많다. 2011년에 평양의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광장 등과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의 무도회장에서 진행된 경축무도회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청년학생),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18돌(청년학생과 근로자들), 4월 14일 김일성 생일(청년학생), 4월 25일 '건군절'(청년학생), 6월 19일 김정일 당 사업 시작 47주년(청년학생), 7월 27일 '전승절'(청년학생), 8월 25일 '선군절'(청년학생), 8월 28일 '청년절'(청년학생), 9월 9일 '정권 창건일'(청년학생), 10월 10일 '당 창건일'(청년학생) 등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10차례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으나 4월 25일 '건군절'에서의 녀맹원 무도회와 5월 1일 5.1절(국제로동자절) 122돌맞이 근로자 무도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개최됐던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및 김정숙 탄생 경축 청년학생 무도회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전면 취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 북한 문화예술계 일반 동향과 성과

1. 주요 인사 동향

북한의 송석환 문화성 부상이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2011.2.24)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인민예술가인 송석환 문화성 부상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냈시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송 부상이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송석환은 1936.9.16 평양시 동구역 출생으로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했으며, 피바다가극단 예술부총장, 조선적십자회 예술단 부단장, 국립평양예술단 단장을 거쳐 1996년 문화성 부상으로 임명됐다. 문화성 부상과 함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 부위원장과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 위원장, 그리고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을 겸직했다. 1985년 예술단 교환 방문 공연 시 평양예술단 부단장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고, 구소련, 일본, 중국 등 문화사절로 외국을 자주 방문했다. 2008년부터 조선예술교류협회장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그해 2월 공연을 위해 평양을 찾은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공항에서 영접하기도 했다. 연출가로서 송석환은 고전을 가극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하여 민족가극의 틀을 만들고 이론을 제공한 인물로, 1989년 민족가극 <춘향전> 창작 공로를 인정받아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조선중앙통신(2012.3.12)은 '≪김일성상≫ 계관인이자 로병시인(老兵詩人)인' 최로사가 사망하여 3월 12일 김정일 위원장이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사망 일시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조카이자 유명 시인인 최로사는 최승희의 오빠인 최승일의 장녀로, 1948년 3월 아버지를 따라 월북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복무했다. 군 복무 중 발표한 시 <샘물터에서>로 문단에 데뷔했고 이 작품은 6.25전쟁 때 가요로 만들어져 아직도 북한 내에서 최고의 전시가요로 평가받고 있다. 최로사는 이 작품으로 심봉원, 석광희와 함께 김일성상을 받아 '≪김일성상≫ 계관인'이 되었으며, 이후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축배를 들자>, <그네 뛰는 처녀>, <새별>, <조선의 행운>, <만수축원의 노래>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축배를 들자>는 1990년대 초반 가요로 만들어져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애창하는 노래가 됐고, <새별>은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됐다(연합뉴스 2011.3.14).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0년 8월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형 승재 씨와 동생 등을 만났던 북한의 대표적인 시인 오영재가 2011.10.23 갑상선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10.24)이 전했다. 오영재는 1935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출생하여 강진국립농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0년 7월 의용군에 입대하면서 월북했다. 월북 후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졸업하고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기자 겸 시인으로 활약하다 1970년대 조선문학창작사(조선작가동맹 시분과위원회 전신)로 옮겨 시인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였다. 1989년에 시 <주체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한 길로>라는 작품 등 북한의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일성상을 수상하면서 '≪김일성상≫ 계관인' 칭호를 얻었고, 1995년 12월에는 '노력영웅' 칭호도 받았으며, 북한 최고의 훈장인 김일성 훈장도 받았다. 오영재의 시작품에는 특히 서정시가 많으며, 김 부자 일가에 대한 송시(頌詩)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시작품 외에도 가사(歌詞), 영화주제가, 수필, 논설 등이 있고, <새벽도 세시가 넘었는데>, <여기에 광부들의 일터가 있다>, <영원히 하나인 조선의 길이여> 등 북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조선문학사」에 오른 작품도 많다. 특히 <오! 주체사상탑이여>는 대동강변에 있는 주체사상탑에 새겨져 있다. 빈소에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화환이 전달됐고 조선중앙통신은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조선미술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허훈이 2011.10.24일 사망했다. 1928.2.9 자강도 희천시에서 출생한 허훈은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학교에 다니다 정착, 조총련의 미술교육과 문예운동을 이끌어 왔다. 김일성상,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 공훈예술가 칭호 등 각종 표창을 받았다. 2010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오대형(1937.7.14~2010.9.21, 만수대창작사 조각가, '≪김일성상≫ 계관인', 노력영웅, 인민예술가), 권정웅(1925.1.8~2010.8.21, 415문학창작단 단장,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사장, 문학창작단 작가, 단편소설 <백일홍>으로 김일성상 수상, 노력영웅 칭호), 김수조(1931.10.2~2010.12.1, 피바다가극단 총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김일성상, 공화국영웅, 국기훈장 1급, 인민예술가)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이 이틀간(2011.6.28~29) 거행됐다. 한편 일본강점기 '카프(KAPF)'의 맹원으로 활동한 리찬(1910~1974)의 반신상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남일보사에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2011.12.15)이 보도했다. 통신은 "그는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

는 흠모의 마음을 담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수령 칭송의 가사들과 시들을 많이 써내여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으며 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보도했다. 1946년 김일성 앞에서 즉흥시 <김일성 장군 찬가>를 읊어 감격시킨 것으로 유명한 리찬은 1910년 함남 북청에서 태어나 1930년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으며 1933년 북한으로 넘어가 1946년부터 함남일보사 기자와 편집국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문학동맹 중앙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애국렬사릉에 묻혀 있다.

2011년에도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대규모 표창이 있었다. 먼저 2011.7.16에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에 김일성상을 수여했고, 이 연극 창조 사업에 공로가 있는 일군, 창작가, 예술인, 학생들에게 '로력영웅칭호'(리지영 국립연극단 단장), 김일성상(2명), 김일성청년영예상(4명), 김일성소년영예상(2명), 명예칭호(인민예술가 1명, 인민배우 3명, 공훈예술가 5명, 공훈배우 6명), 국기훈장 제1급(6명), 로력훈장(6명), 국기훈장 제2급(37명), 국기훈장 제3급(39명), 공로메달(47명) 등이 수여됐다. 이어서 2011.7.27에는 은하수관현악단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김일성상(1명), 시계표창(7명), 김일성표창장(11명), 김일성청년영예상(4명), 명예칭호(인민예술가 4명, 인민배우 3명, 공훈예술가 11명, 공훈배우 10명), 로력훈장(13명), 국기훈장 제2급(19명), 국기훈장 제3급(25명), 공로메달(17명) 등이 수여됐다. 또한 2011.11.18에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공로 있는 일군(협주단 과장), 작곡가, 배우들 5명에게 공훈배우 칭호가 수여됐다.

2. 문화시설 건립과 개건

『조선신보』(2011.12.5)가 1989년 건설된 평양교예극장이 최근 그 모습을 일신했다고 보도했다. 2010년 7월 평양교예극장에서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본 김정일 위원장이 극장을 새롭게 개건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했다며 건설관계자 말을 인용, 이번 개건의 중심은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건에서는 "관람 홀과 복도, 내부 장식을 새로 꾸리"고 "멋있는 창문유리와 벽타일을 붙이고 층계를 일신하였으며, 중앙 홀에 현란한 무리등(샹들리에)을 설치"하고 "복도에는 교예극장의 체모에 맞는 미술작품과 조각들을 배치"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건물의 지붕은 고려청자색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바닥과 벽체는 모두 천연화강석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예단 관계자들은 "개건된 극장에서는 체력교예는 물론, 빙상교예와 수중교예 등 다양한 종목의 교예 작품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로동신문』(2011.10.29)도 "극장의 무대와 관람석을 비롯하여 5개 기본호동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개건됨으로써 수중, 빙상교예를 비롯한 종합교예 공연을 사계절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개건된 극장에서는 『제13차 우챠오국제교예축전』의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받은 공중교예 <정복자들>을 포함한 교예 공연이 호평 속에 연일 상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2011.7.17)은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 개건된 은하수극장에서 개관기념 음악회를 관람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은하수극장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 조건을 안겨 주기 위한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극장에서 관람석, 무대, 음향 및 조명설비들, 여러 련습실들과 분장실들을 비롯하여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건축형식과 내용은 물론, 내부 장식과 소리울림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은하수극장을 새 세기의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으로 개건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은하수극장은 평양무용대학 내에 소재한 무용극장을 개조하여 은하수관현악단의 전용관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개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타 문화시설 건설 단신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새로 건설된 자강도 룡림군문화회관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 2011.8.31) 소식, 목란비디오사의 신설 최첨단 DVD공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 2011.9.10) 소식이 있다.

『로동신문』(2011.11.13)이 북한 각 지역에서 문화회관이 건설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선전했다. 다음은 보도 요지다. 북청군은 김일성의 문화회관 현지지도 50돌을 맞아 북청군문화회관 관람석을 완비하고 내부와 외부를 화려하고 더욱 훌륭히 개건하였으며, 군중문화 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재들도 새로 갖추었다. 그 결과 근로청년들이 기악, 성악, 화술, 문학소조들에 망라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회관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함주군에서는 군문화회관 개건에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큰 비 속에서도 볼품없던 군문화회관의 내부와 외부를 일신시켰으며 무대 막과 음향, 조명설비, 문화후생시설들을 '그쯘하게'(빠짐없이) 갖추어 놓았다. 문화회관이 새롭게 꾸려진 후 예술소조 경연이며 손풍금, 화술, 성악, 미술소조운영, 영화상영 등으로 언제나 흥성이고 있다.

황주군에서는 군문화회관 건설을 위해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건설지휘부와 150여 명의 청년들로 건설돌격대를 조직하였다. 많은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830여 석의 관람석을 가진 군문화회관을 새로 건설하였다. 고풍군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여 많은 건설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군문화회관을 새로 건설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문화회관 건설과 개건 보수사업을 통해 그 면모를 일신시켰다.

한편 조선중앙통신(2011.8.16)은 평양 대성산 기슭에 조성되는 평양민속공원 건설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착상하고 발기하여 문화성 문화보존지도국이 2009년 4월 하순에 착공한 평양민속공원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200만㎡의 대규모 노천박물관으로, 당초 2009년 안에 조성된다고 발표했던 문화시설이다. 통신에 의하면 2011년 8월 현재 민속공원이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놓았다."고 한다. 역사유적전시구에는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 등의 모형들이 설치되었고, 만수대대기념비, 천리마동상,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국제친선전람관, 서해갑문, 옥류관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의 모형들도 건설되었다. 민속촌구에서는 '조선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60여 개 대상의 건축물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한다. 고구려 시기의 관청과 절, 무관, 문관집, 군영, 99칸짜리집, 리조(조선) 시기의 평양랭면집, 김치집 등이 옛 모습 그대로 세워지고, 발해궁전, 고려성균관 건물의 골조공사도 완공되었다. 민속놀이구의 활쏘기, 제기차기, 씨름, 휴식터들과 식당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이 이미 완공되었고, 력사종합교양구 건설에서 혁신이 이룩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안남도 평성시가 2010년 학생소년궁전 건설에 이어 평성시 중덕기구에 공원을 새로 건설했다. 2만 7,500여㎡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평성공원에는 녹지 및 원림구역과 인공 섬, 분수 못들, 다리 등이 있다(조선중앙통신 2011.9.23.). 『로동신문』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4.30)이 북한에서 최근년간 수많은 유원지와 공원, 극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새 세기 맞게 개건되었다면서 대강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묘향산유원지(등산도로들과 정각 등이 건설되고 향산호텔 개건), 마전유원지(마전호텔 건설되고 해수욕장 정비), 평양의 룡악산(주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로, 문화 휴식터로 정비), 황해금강으로 불리는 장수산(수십㎞에 달하는 참관도로와 탐승길 정비 및 다리 등 건설)과 백운산, 석암, 송도원, 와우도의 유원지들이 정비됐다. 또한 개선청년공원(최신식 유희오락시설들과 봉사시설들 종합설비 시설), 장자강반에 강계청년공원 유희장 건설, 중앙동물원 정비 및 현대적인 수의병원 건설, 기타 국립연극극장, 평양대극장, 황해북도예술극장, 송도원청년야외극장, 대동문영화관 등 평양과 지방의 많은 극장, 영화관들이 '시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 개건되었다고 전했다. 기타 수많은 대중급양봉사기지(음식점)들의 면모가 일신되었고, 4월 11일자로 평안북도 신의주에 '신의주렬사릉'이 준공되었으며, 9월 현재 동평양지구 대동강 기슭에 종합봉사시설과 인민야외빙상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언론이 전했다.

3. 대외 문화 교류

1) 남북 문화 교류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문화 교류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몇몇 교류 외에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과 만월대(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2차) 조사사업만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남북 문화 교류를 바라본다면 양상은 전혀 달라진다. 남에서 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문화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내 '한류(韓流)'에 관한 얘기다. 북한 내 한류는 이제 대도시와 국경 지역을 넘어 점차 내륙의 농산어촌 지역으로, 그리고 특권층이나 청소년층에서 일반 서민이나 노장년층에게까지 확산돼 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대 초의 한류 초창기에 비해 남에서 북으로의 전파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을 뿐 아니라, 대중문화, 생활용품에서 패션과 미용상품, 사치품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문화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문화 유입이지만, 한류는 파급 효과,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선택된 일부 특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문화 교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결국 북한 주민 전체의 의식변화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교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가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언어생활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 재생산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남한 문화에의 동질화 과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통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폭력과 부정, 비정상적인 가족관계 등 남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다. 앞서 '일방적', '일방향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 남한 사회 내에서 북한 문화가 전혀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에 의해 북한의 음식문화와 유사 대중예술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영화의 상영과 탈북화가들에 의한 미술전시회 개최 외에도, 전(前) 정권 하에서는 수백만 점의 북한 미술작품이 상업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고 최근에도 북한 미술품이 1천여 점 밀반입되어 유통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 지역의 한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의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중단된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과 만월대 공동발굴 조사사업이 2011년도 4/4분기에 비로소 재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지원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서만 방북을 승인해 왔다. 2005년부터 추진된 사전 편찬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20차례의 공동 편찬위원회와 4차례의 공동 집필회의 개최를 통해 2013년 사전 발간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진척시켜 왔다. 학자들은 남북의 띄어쓰기와 자모의 이름, 배열순서, 문법 체계, 외래어 범위 등을 합의하고, 남북의 기존 어휘에서 25만 개, 새 어휘 10만 개 등 총 35만 개 정도의 어휘를 선별해 사전에 수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히 남북언어는 물론 재외교포가 사용하는 언어까지 하나로 종합·정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 기준으로 총 사업비 예산 250억 원 중 157억 원이 집행됐다.

한편 송악산 남쪽 구릉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의 왕궁터 만월대는 919년 왕건이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건한 후 거란족의 침입과 이자겸의 난으로 두 차례의 화재를 겪은 뒤 중건됐고, 1362년 황건적의 난 이후 폐허가 돼 650년간 지하에 묻혀 있었다. 만월대 발굴사업은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진행돼 왔다. 공동 발굴단은 2007년 5~6월 만월대 서부 건축군 가운데 3만 3천㎡를 발굴해 11동의 건축물 기초와 회랑, 배수구 등을 찾아냈으며, 여기에서는 고려청자와 청자기와, 명문기와 등이 출토됐다. 2010년까지 총 4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2011.10.28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가 당일 일정으로 이루어져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의를 마친 뒤 발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홍수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축대 쪽이 붕괴하는 등 수해가 심해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재차 방북이 이루어져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정밀 진단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방북하여 수십 명의 북측 전문가·작업진과 함께 한 달간(2011.11.24~12.23) 유적 보존 및 복구공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유적지 진단 및 보호·복구비용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관계자 등 4명이 11월 18일 개성을 방문해 남북공동 편찬회의 개최 문제와 편찬자료 교환 등을 논의했다. 12월 8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문화재제자리찾기', 그리고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와 전국신도회가 일제 조선총독부가 약탈, 일본 궁내청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205권)의 반환을 계기로 공동선언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유니세프 친선대사 자격으로 관계자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정 감독의 평양 방문은 '5.24 대북 제재조치' 후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는 두 번째 방북 승인이다. 북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이나 교향악단 교환연주 등에 대해 북측 조선예술교류협회 측과 논의를 목적으로 방북한 정 감독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교향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의 리허설을 주재했으며 은하수관련악단 단원 7명을 대상으로 오디션도 진행했다. 또한 북한 음악인들과 면담하고 북한의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 서울 귀환 후 방북 성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한 연주자 동수(同數)로 구성한 남북합동 교향악단의 서울·평양 교환 연주를 정례화하고 젊고 유망한 연주자를 발굴 육성하기로 조선예술교류협회와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2011.9.20)는 정 감독을 "세계적 판도에서 활약하는 지휘자, 피아니스트"로 소개했다. 정 감독은 2006년 평양에서 열린 『윤이상평화음악축전』에 참가하여 북한의 윤이상관현악단과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등을 연주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직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종교계의 북한 방문이 활발했다. 부처님 오신 날(5.10)을 맞아 5월 4일 조계종 방북단이 인도적 물자지원(금강산 온정각에서 구충제 10만 정 전달) 차원에서 방북하여 신계사를 방문한 바 있고, 5월 10일에는 남북 각 사찰에서 「불기(佛紀)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동시법회」를 열었다. 9월에는 '5.24 대북 제재조치' 후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는 최초로 조계종 관계자 37명(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목사 포함)이 북한을 방문(9.3~7)하여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선불교도련맹과 통일기원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고불(古佛) 법회』를 개최했다. 이어서 9월 13일에는 조계종 주최로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복원 4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고, 9월 21일에는 남한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9.21~24)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9.22)을 가졌다. 10월 31일에는 천태종 소속 스님 3명 등 5명이 방북하여 조국통일기원 『대각국사 의천 910주기 열반다래재 및 영통사 낙성 6주년 합동법회』를 열었고, 11월 2일에는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11.2~5),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공동 기도회를 열었으며, 11월 12일에는 천도교 관계자 10여 명이 방북하여 평양에 있는 교당에서 『남북한 천도교인 공동 시일식(侍日式)』을 가졌다. 그러나 정부는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관으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문화예술인 교류를 위한 예총 소속 회원 등 예술인들의 방북은 불허했다.

2) 해외 문화 교류

2011년 7월 1일, 2006년 문화협조 협정을 맺은 북한과 필리핀이 문화협조에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 협정 이행을 위한 2011~2013년도 집행계획서에 조인(조선중앙통신 2011.7.1)했고, 유럽연합 주요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 미수교국인 프랑스가 2011년 9월 평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상주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일간『르 몽드』(2011.7.11)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프랑스는 2009년 12월 자크 랑 전(前) 문화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여 문화 교류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 가로 70m, 세로 124m 규모의 대형 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2011.12.1)가 보도했다. 만수대창작사 해외사업부가 담당할 문화센터는 앙코르와트 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자박물관이다. 한편 2011년 7월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미국이 북측에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기술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2011.8.13)가 보도했다. 방송은 "미 전문가들은 북측에 구체적인 협력과 교류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안했으며 이 중 하나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속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문화유적 보존 등을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 소재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이 2011년 5월 후원자들과 방북 주요 역사유적을 둘러본 바 있다. 비록 그 후 북미관계 악화로 더 이상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보존기술 제공이 북미관계 개선 전략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 뉴욕필의 평양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북한 문학사상 최초로 북한의 소설이 유럽에서 출판됐다. 중국의 인터넷 매체 동북망(東北網, 2011.9.14)이 북한작가인 백남룡(≪김일성상≫ 계관인)의 소설 「벗」이 프랑스어로 번역돼 현지에서 출간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어 출판 관계자는 프랑스어판 출판에 앞서 2009년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에 가서 저자와 인터뷰까지 했다고 한다. 소설 「벗」은 장자강기계공장에서 10여 년간 노동자 생활을 하다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통신)에 입학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백남룡이 4.15문학창작단에 배속('87.9)된 직후인 1988년에 발표해 북한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99년 남한에서도 출판돼 큰 인기를 누렸다. 이 소설은 북한 사회의 연애와 결혼, 사회문제 등을 과감하고 솔직하게 그려 체제 선전적이거나 우상화 일색이었던 종전의 북한 문학 작품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연합뉴스 2011.9.14).

2011년 1월 초순경 만수대창작사가 모스크바 윈자보드 현대미술센터에서 전시회

를 가졌으며, 5월 29일에는 베이징 798예술구에 설립한 조선만수대창작사미술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만수대창작사는 2008년 동 미술관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신관을 추가 개관한 바 있다. 동 미술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최초의, 유일한 대외투자 예술기구로, 만수대창작사 화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일년 내내 전시하고 판매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로동신문』(2011.3.4, 7.9)과 『조선신보』(2011.7.23)는 만수대창작사의 '3중 3대 혁명붉은기' 공훈조각창작단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 창작단에는 "높은 형상 수준, 최상의 질 담보, 확고한 신용 준수를 철칙으로 삼아 세계 각국에서 대외주문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으며, "세네갈, 나미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특색 있는 동상과 기념비, 건축물들을 건립함으로서 대외인지도를 보다 높이고 있다고 자랑했다. 6월 30일에는 동 창작단이 제작한 <꽁고천년기 기념탑> 제막식이 브라자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9월 19일에는 광둥(廣東) 톈하이(天海)경매회사 가을철 경매행사가 개최되어 북한의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대형 그림 12점이 경매에 올랐다고 중국의 양성만보(洋城晩報, 2011.9.19)가 보도했다. 2006년 이후 북한의 그림들이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반입되고 있으나 그림 수가 적어 체계적인 가격 평가나 유통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그림이 해외에서 전시된 적은 있으나 경매시장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북한 화가 김성민(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겸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전시회가 1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11.7)이 보도했다. 통신은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김성민이 만든 <90년대 불사조들>, <조중친선의 노래> 등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됐다."고 전했다. 북한 화가가 해외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타 전시 관련 문화 교류 소식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북한의 소묘 및 미술작품전시회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어, 전시회장에는 "조선 인민의 강성대국 건설 투쟁을 보여주는" 소묘 작품들과 조선화, 유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4월 29일(조선중앙통신)에는 중국에서 개최된 『2011 시안세계원예박람회』에서 김일성화에 국제란꽃경쟁 최고상인 금상이, 그리고 김정일화에 특별 제정된 전시금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경쟁에는 북한과 타이,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지역, 그리고 중국 각지에서 많은 단위가 참가했다고 한다. 9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27일에는 중국신해혁명 100돌 기념 사진전시회가 9월 27일 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에서 개막되었다. 개막식장에는 신해혁명 후 "중국 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승리와 번영의 길을 걸어온 사실들을 보여주는 수십 점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북한은 2011년에 진행된 아래 행사들에 대해 국제 문화 교류행사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른바 북한의 국가명절에 맞춰 현지의 북한 대사관과 주로 제3세계의 공산주의 계열 단체, 주체사상 연구조직,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민간기업, 친목회, 기타 비정부단체가 주최한 '언론 보도용' 행사가 대부분이다. 영화감상회, 음악회 등을 포함, 2011년에 스크랩된 행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3 김정일 생일에 즈음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총대〉,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렵니다〉 상영(프랑스, 타이) ● 2.3~9 김정일 생일에 즈음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총대〉,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 등 상영(프랑스,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 2.12 김정일 생일 즈음한 김정일화 전시회 개최(중국 심양) ● 2.16 김정일 생일 즈음한 북한 미술작품(만년화, 수예품, 회화 등) 및 사진 전람회(로씨야 하바롭스크) ● 4.12~15 김일성 생일 등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수공예품 전시회(빠르찌잔스크시, 유대인자치주 정부 등 로씨야의 여러 곳) ● 6.28 중국공산당 창건 90돌 기념 사진전시회(평양 인민문화궁전) ● 7.23~27 '조국해방전쟁승리' 58돌에 즈음한 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강연회(남아프리카, 라오스, 스웨덴) ● 7.22~30 '조국해방전쟁승리' 58돌에 즈음한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백승을 떨쳐온 무적의 열병대오〉 등 영화감상회(영국, 베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8.3~12 '조선해방' 66돌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독보회, 좌담회, 영화감상회(기네, 민주꽁고, 인도네시아) ● 8.4 김정일의 로씨야련방 방문과 조-로모스크바선언 채택 10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개막(로씨야 국제과학기술통보쎈터) ● 8.4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평양수예연구소를 참관한 후 평양모란봉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을 관람 ● 8.14 '선군절' 51돌과 광복절 66돌 즈음한 로씨야 합동토론회(러시아) ● 8.15 김정일 중국방문 1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중국 하얼빈시) ● 8.9~13 '선군절' 51돌 즈음한 강연회, 집회, 영화감상회(메히꼬, 베닌, 타이) ● 8.12 '선군절' 51돌 및 '조국해방' 66돌 즈음한 경축집회와 도서, 사진전시회(로씨야) ● 8.15 김정일의 로씨야련방 방문과 조-로 모스크바선언 채택 10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로씨야 싼크뜨-뻬쩨르부르그) ● 8.16~25 '선군절' 51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강연회,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총대〉 등 상영(남아프리카, 나이제리아, 기네, 몽골, 말레이시아, 타이) ● 8.17~21 '선군절' 51돌에 즈음한 경축집회, 강연회, 도서, 사진 전시회, 영화감상회(방글라데시, 인디아, 단마르크) ● 9.1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수공예품 전람회(뻬루) ● 9.1~7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조선의 대답〉, 〈평양의 밤〉 등 상영(민주꽁고, 나이제리아, 인디아, 먄마, 말레이시아) ● 9.4~7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평양의 밤〉 등 상영(벌가리아, 남아프리카, 이슬란드, 파키스탄) ● 9.5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수공예품 전람회(브라질)

● 9.6~9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강연회, 북한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 등 상영(네팔, 우간다, 탄자니아, 로씨야, 인도네시아) ● 9.8~12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회고모임, 강연회,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강성대국의 불보라〉, 〈평양의 밤〉 상영(말레이시아, 로씨야 히바롭스크시 및 모스크바주 뿌쉬노시, 우간다 ● 9.17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경축집회와 좌담회, 영화감상회(영국) ● 9.21 국제평화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및 사진전시회(평양) ● 9.22 체스꼬 공화국 국경절 즈음한 사진전시회 『체스꼬공화국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개막(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 ● 9.23 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한 경축집회와 좌담회, 영화감상회(로씨야) ● 9.24 북한과 독일 간 외교관계 설정 10돌에 즈음한 『조선영화 상영주간』 개막식과 북한영화 〈행복의 수레바퀴〉 상영(베를린 바빌론영화관) ● 9.27 중국 신해혁명 100돌에 즈음한 기념사진전 개막(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 ● 9.29~10.4 당 창건 66돌과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85돌에 즈음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상영(로므니아, 체스꼬, 나이제리아, 인도네시아, 타이) ● 10.1~4 당 창건 66돌과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85돌에 즈음한 강연회, 집회, 사진전시회, 북한 사진전시 순간(旬間) 개막식(스웨덴, 프랑스, 나이제리아) ● 10.10 당 창건 66돌에 즈음한 북한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중국 상하이) ● 10.27 조-독 외교관계 설정 10돌에 즈음한 『도이칠란드의 날』 문화행사(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 ● 10.31 '세계인구 70억 명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사진전시회, 학생소년들의 그림전시회, 우수학생들에 대한 시상식과 토론 진행(평양 양각도국제호텔) ● 11.3 꾸바애국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 련대성 월간과 꾸바 문화의 날에 즈음한 『꾸바와의 련대성음악회』 개최(평양 천리마문화회관) ● 11.10 뽈스까(폴란드) 독립절에 즈음한 조-뽈 연주가들의 연주회에서 피아노 3중주 〈고향의 봄〉, 사라사테 〈카르멘〉 등 연주(평양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 11.16 중국인민해방군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양예술인들의 종합

http://www.arko.or.kr K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 관람(평양) ● 11.17 조-로므니아(루마니아) 문화협정 체결 1돌에 즈음한 대사관 성원들 조선미술박물관 참관 및 종합교예 공연 관람(평양) ● 11.22 조-마쟈르(헝가리) 간 외교관계 설정 63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개막(평양대외문화교류쎈터) ● 12.13~24 김정일의 로씨야련방 방문과 조-로모스크바선언 채택 10돌에 즈음한 북한 사진 및 미술 전람회(로씨야 크라스노야르스크 문화력사종합박물관)

김정일 위원장은 평소 러시아 공연예술 마니아로서 매년 관례적으로 러시아 예술공연 팀을 초청한 후 주요 도시를 순회 공연토록 하고 본인도 거의 모두 감상했는데, 과거에 현지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원산까지 직접 가서 관람한 경우도 있고 같은 공연을 두 번 관람한 경우도 있다. 2009년의 경우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무용단(6월), 에쓰.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무용단(7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9월), 유를로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무반주합창단(9월), 엠.예.뻐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합창단(9월),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10월, 1985년 첫 방북)을 초청했고, 2010년에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4~5월), 로씨야 이고리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민속무용단(6월~7월, '02년 이후 10차례 방북)을 초청했을 뿐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는 동 민속무용단 수석지휘자를 초청하여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이 공연한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의 지휘를 맡겼다. 2011년에도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3.3, 동평양대극장 첫 공연), 로씨야 모스크바고전발레단 등(4월 축전에 5개 단체 참가),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6.29 평양 봉화예술극장, 7.2 사리원시 황해북도예술극장 등 순회)을 초청해서 공연을 가졌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곡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순위에서 1위로 선정된 사실을 중국의 인터넷 신문 '흑룡강신문'(2011.2.18)이 보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2.19)이 전했다. '흑룡강신문'은 보도에서 "얼마 전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의 작곡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선정하기 위한 대회를 열고 82%의 압도적인 지지률로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조선 민족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아득한 옛날부터 조선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진(불리어진) 노래일 뿐 아니라 조선반도가 둘로 갈라져 있는 오늘날 북과 남이 단일팀으로 경기장에 나설 때 국가처럼 합창하여 한민족임을 확

인하는 노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5월 7일부터 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예술올림픽』 피아노부류 경기에서 북한의 박지혁 학생(13살)이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살린" 연주로 2등상을 수여했다. 이 올림픽에는 북한,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터키, 몰도바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의 학생이 참가했다(『로동신문』 2011.5.17).

6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지휘자 샤를 뒤투아와 예술감독인 샹탈 주이에가 북한문화성 산하 조선예술교류협회의 공식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한 청소년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 남과 북에서 연주하는 '한반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협의했다.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갈등관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음악적 교류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음악감독 샤를 뒤투아는 각종 매체를 통해 남·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뉴 스테이지』 2011.6.20). 8월 7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훈련함선편대와 함께 온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군악단의 공연이 송도원청년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관현악 합주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공연을 시작하여 트럼펫 3중주 <유격대의 노래>, 여성독창 <하늘길>, 합주 <항미원조의 노래> 등의 종목들이 올랐고, 출연자들은 <도라지>,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민요를 불렀다고 조선중앙통신(2011.8.7)이 전했다. 10월 26일에는 러시아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지휘학부장 교수 스따니슬라브 깔리닌에게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명예교수 칭호와 김정일이 보내는 생일 70돌 선물이 전달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2011.10.28)이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수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북·중 수교 60주년('09.10.6)이었던 2009년 이후 중국과의 각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상황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도 2009년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 졌다. 공연예술 분야만 보면 2009년에 중국인민해방군 예술단, 조선만경대학생소년궁전예술단 등 '여러 개의 국가급 예술단들'이 상호 방문해 공연했고, 수교일에는 피바다가극단이 베이징에서 중국의 고전 <홍루몽>을 북한판으로 개작한 가극을 공연했다. 평양예술단도 북·중 수교 60주년(10.6)과 중국 건국 60주년(10.1)을 기념해 중국 순회공연을 펼쳤다. 2010년에는 평양예술단이 다시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로 중국을 순회 공연했다. 9월 1일 베이징에서 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동방가무단과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10월 28일 귀국하기까지 2개월 동안 26개 도시를 돌며 공연했다. 또한 피바다가극단이 김정일 위원장 방중(訪中)에 맞춰 가극 <홍루몽>을 2010.5.6 베이징에서 첫 공연한 이래 2개월여 동안 중국의 13개 주요 도시를 순회 공연하여, 가는 곳마다 매진되고 7월 베이징에서 3회에 걸친 앙코르 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2011년의 경우 중국 공산당 창당 90돐(7.1)과 조·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7.11)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문화부 초청으로 평양예술단이 또다시 3개월(5월~8.21)간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로 중국 전역을 순회 공연했다(『로동신문』 2011.5.18, 7.10 ; 연합뉴스 2011.6.23, 10.12). 한편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돐(돌)과 무용극 <비단길 우의 꽃보라> 조선방문공연 30돐(돌)"에 즈음하여 중국 감숙성가무극원의 무용극 <비단길 우(위)의 꽃보라>가 2011.7.9 봉화예술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린 후, 사리원시(2011.7.15, 황해북도예술극장)를 순회 공연한 후 7월 16일 귀국했다.

2011년의 경우 해외 문화 교류 중 가장 북한 언론에 자주 등장한 행사는 단연 가극 <량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臺)>의 중국 순회 공연이다. 부유한 권세가문의 외동딸인 축영대와 평범한 선비가문의 아들 량산백과의 이루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봉건중국의 신분제도의 불합리성을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조선중앙통신 2010.9.25)이다.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로 알려진 이 작품은 1,600여 년간 항저우(杭州)를 무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의 유명한 민간설화를 각색한 비극으로, 중국에서는 강남지방의 전통극인 월극(越劇)으로 제작돼 오랫동안 큰 인기를 누려 오고 있으며, 두 차례 영화로 제작된 바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9.25 피바다가극단을 방문,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의 창조 사업을 지도한 후 창조 중에 있던 작품을 관람했고, 10.18 평양대극장에서 6개장과 12개경으로 완성된 작품을 공식 관람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돌)'을 계기로 창작 완성된 동 가극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첫 공연 관람 후 "<량산백과 축영대>에서 무용이 세 번 나오는데 다 잘 만들었"고, "안무가가 무용들을 중국 맛이 나게 착상을 잘하고 재치 있게 창작하였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조선예술』 2011년 제4호).

이후 동 가극은 평양대극장에서 일반 공개되어 1년 남짓 기간 동안 190여 차례 공연했고 방북한 중국 인사들이 빠짐없이 관람하는 등 가극 <홍루몽>과 함께 <량

산백과 축영대>는 북·중 친선의 상징이 되고 있다. 가극 <홍루몽>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제작과정에서 출연진의 의복과 무대도구를 무료 제공하고 극본과 무대 연출을 지도하는 등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2010.11.9)은 "가극은 세련된 극작술과 배합관현악의 장중하고 특색 있는 울림, 방창의 도입, 천변만화하는 립체적 무대미술, 황홀한 무용장면들, 출연자들의 뛰여난(뛰어난) 성악적 기교와 연기형상 등 종합적 무대예술로서의 특성을 완전무결하게 갖추고 있다."면서 "조·중 친선의 귀중한 열매인 가극을 더욱 세련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에는 중국문화성 초청으로 중국 순회 공연(대행사: 중국대외문화그룹)에 들어갔는데, 2011.10.25 지린성(吉林省) 창춘(長春)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상해, 광주, 대경, 심양, 중경, 천진, 대련, 북경(2011.12.31~2012.1.3, 세기극원) 등 2012.1.7까지 중국 전역을 순회 공연하여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조선중앙통신(2011.7.29)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꼬마무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북한의 예술교육제도를 선전했다. 기사는 2011년 4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된 세계 신동들의 무대인 『천성적인 재능』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는 금성제1중학교(문화예술 영재학교) 김진옥 학생(여, 10살)과 그 부모, 평양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과의 인터뷰 기사다. 이 무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1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자기들의 특기를 발휘하는 무대로, 김진옥 학생은 "독무 <물동이춤>과 <장고춤> 등의 무용 소품을 가지고 출연하였는데 그의 춤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황홀하였던지 주최 측에서 출연 시간 10분 미만이라는 관례를 깨고 30분을 더 주었다."는 것이다. 통신은 "특히 장고를 치면서 원회전을 하는 동작은 전문가들도 무색케 하는 가장 높은 난도 동작이며, 기니스기록집에 올릴 만한 것"이라는 중국인민해방군예술학원 원장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 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하에서 진옥이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오늘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 속에서 무용 신동으로, ≪춤의 요정≫으로 이름 떨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북한의 교예가 2011년도에도 국제무대에서 여러 차례 최고상을 받았다. 먼저 북한의 평양교예단 교예배우들(남 9명, 여 1명)이 프랑스 마씨에서 진행된 『제19차 마씨국제교예축전』(2011.1.13~16)에서 체력교예작품인 <비행가들>을 공연하여 축전 최고상인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상을 쟁취하였다. 이번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축전에는 북한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등 11개 나라의 교예배우들이 26개의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10월 30일에는 평양교예단 소속 교예배우들(남 7명, 여 2명)이 출전한 공중교예인 <정복자들>에 『제13차 우챠오(吳橋)국제교예축전』(2011.10.22~30, 허베이성)의 최고상인 금사자상이 수여되었다. 러시아 서커스단, 중국 허베이(河北)성 곡예단과 공동 금사자상 수상으로, 시상식이 30일 중국 허베이성 스쟈좡시 허베이예술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불가리아, 벨라루스, 스웨덴,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17개 나라 27개 서커스단 35개 작품(600여 개 작품에서 선발)이 참가하였다. 『우챠오국제교예축전』은 1987년 첫 대회 이후 격년제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프랑스와 모나코의 국제교예축전, 혹은 중국 우한(武漢)과 모나코의 국제교예축전과 함께 세계 3대 서커스 대회로 꼽힌다.

평양요술단이 6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중국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선양(瀋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단둥(丹東) 등지를 순회 공연했다. 요술사(마술사) 김철(50살, 조선요술협회 부회장)의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일명 '절단 마술' 등 고난도 마술과 다양한 곡예로 가는 곳마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길림신문』(2011.7.7)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2011.7.7)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2011.8.16)은 "조선에서 요술은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 주고 지적 발전을 추동하는 가치 있는 예술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 요술은 단순히 눈속임이나 하던 요술로부터 인민들에게 즐거움과 랑만을 안겨 주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 추동하는 인민적 요술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요술(마술)은 『제16차 국제현대요술축전』에서 최고상과 세계요술왕 칭호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마술사협회(IBM) 기획국장(미국인)이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외교'를 언급하면서 조선요술협회의 IBM 회원 가입, 2012년 4월 북한·미국 마술팀 합동공연, 2012년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연례마술대회』에 북한 마술사 초청 등 조선요술협회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2011.10.12)은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평양교예단이 후난성(湖南省) 장쟈지에시의 꺼즈화대극원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공연이 진행될 때마다 대극원은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평양교예단의 중국 공연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1930년대에 타계한 기독교인 사회사업가인 백선행 여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데일리NK(2011.1.17)가 보도했다.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가 뉴질랜드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 북한 전역의 영화관과 TV를 상영 및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영화수출입사(조선영화사) 최혁우 사장이 직접 쓴 시나리오에는 기독교적 시각을 담은 대사가 포함됐으며, 이런 대사를 넣기 위해 일곱 차례, 밀고 당기는 시나리오 수정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2011년 9월 촬영에 앞서 1월 현재 시나리오 교정 작업 중이며, 초기 제작비는 150만 달러(약 17억 원)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기독교적 대사가 포함된 영화를 제작·상영키로 한 것은 심각한 외화난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조선영화수출입사는 당 선전선동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문화예술부(당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문화성(내각 소속) 산하조직으로 북한 내 영화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며, 당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단위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2009년 10월 『조선신보』는 북한이 백선행 여사를 비롯, 명성황후에 대한 영화 등 6편의 영화를 외국업체와 함께 제작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중국과 합작영화 <아리랑>(공동연출 : 북한 김현철, 중국 시얼자티) 제작에 나섰다고 중국 매체 북청망(北青網, 2011.11.7)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류둥(劉冬)과 리멍난(李夢南) 등 영화 <아리랑>에 출연하는 중국 배우들이 최근 평양에 도착,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이 영화는 양국 무용계의 문화 교류 과정 중 생긴 에피소드를 다루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영화는 2011년 연말에 제작을 마친 뒤 2012년 상반기에 상영될 예정이며,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제작되는 이 영화는 양국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간통일정세』 2011-46). 북한과 중국은 2010년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의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양국의 우의를 강조하는 합작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북한 영화의 저작권과 관련,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2011.12.9). 북한이 제작한 영화를 일본 민영방송사(니혼TV, 후지TV)가 뉴스에서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일본 내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카나리오기획'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과 북한이 저작권 보호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베른조약 가맹국이지만 국교가 없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북한이 '평양음향·영상기술발전센터' 설립과 포털사이트인 '내나라 사이트' 현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연합뉴스 2011.4.3).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4월 6일과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에 관한 세미나(『저작권 및 저작 린접권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북한은 WIPO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평양에서 개최하는 국제세미나를 통해 국내 저작권 법규 정비, 양자 및 다자 저작둰 협약, '내나라 사이트' 현대화,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평양음향·영상기술발전센터' 설립 지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각종 기념식에 영화감상회를 곧잘 활용하는데 세계 각 나라와의 기념식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2011년도 북한 언론에 보도된 각종 기념식 영화감상회 소식들 중 스크랩된 내용이다.

● 3.2 중-조 친선 설명절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중국 예술영화 〈초원의 꽃〉 상영(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 ● 3.3 대외문화연락위와 조선불가리아친선협회, 불가리아 국경절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평양) ● 3.30 중국 예술영화 '남녀료리사들' 시사회(평양 대동문영화관) ● 4.12 로씨야 첫 유인 우주비행 50돌에 즈음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구쏘련 기록영화 〈우주발사의 력사〉상영(평양 주조 로시야련방 대사관) ● 6.29 중국공산당 창건 90돌에 즈음한 기념 '중국영화 상영주간' 개막식 및 중국 예술영화 〈건당위업(建唐偉業)〉 상영(평양 대동문영화관) ● 7.5 김일성의 몽골 방문 55돌과 몽골인민혁명 승리 90돌에 즈음한 영화감상회(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 ● 7.28 김정일 러시아방문과 북-러 모스크바선언채택 10돌에 즈음한 '사진 및 도서전시회' 및 영화감상회를 개최하고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 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로씨야련방도시들 비공식방문 및 체류〉 상영(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 ● 8.24 우크라이나 국경절 20돌에 즈음한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우크라이나친선협회의 영화감상회에서 우크라이나 예술영화 상영(평양) ● 9.22 북-네데를란드왕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10돌에 즈음한 영화감상회(평양 대동문영화관) ● 11.29 조-벌가리아 수교 53돌에 즈음한 영화감상회를 개최하여 벌가리아 예술영화 〈여덟번째〉 상영(평양 인민문화궁전)

V. 맺음말

2011년에도 북한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남조선 날라리풍', '비사회주의적 현상' 등으로 부르고 있는 '한류'가 북한지역에서 점점 더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과의 접경지역과 대도시는 한류의 온상과 같은 지역으로서, 영화, 드라마, 가요, 생활용품, 패션 등에서 한류 현상이 주변의 지방 중·소 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과거 간부나 부유층 등 상류계층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불었던 '한류'는 이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일반 서민계층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류 현상을 포함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해 북한 당국의 대응은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정보기관)나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경찰기구), 호위사령부(친위대) 등을 동원한 직접적인 검열과 강력한 처벌은 기본이고,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북한 사회에 '군인문화'를 확산·정착시키며 민족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등 몇 가지 방책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상문화진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수단으로 영화, 노래 등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위력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 퍼지고 있는 이러한 한류의 침습과 더불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에서 퍼지기 시작한 민주화 열풍(재스민 혁명)이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몹시 경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여행을 통제하고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대한 간호원, 건설노동자 파견을 연기시켰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평양 소재 대학들과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대학에 2011년 6월 중순경부터 '사회주의 건설 동원령'을 내려 건설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시위에 대비하여 중국으로부터 시위 진압장비를 구입하는 한편, 탈북자 방지를 위해 창설했던 전투예비부대 성격의 인민보안부 타격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타격대에 반란 진압 임무를 새로이 부과했다. 특히 중동에서의 반독재·민주화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기관을 동원하여 주민들에 대해 강력히 '입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문의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하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앞서 밝힌 대로 김정은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후 다음 해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인민군 대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신설)에 임명되면서 대중 및 내외 언론에 공식 등장했다. 그 후 2011년 12월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자 사망 4개월 안에 군 및 당·정의 최고 지위에 올랐다. 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정일의 배려로 사상·군사·경제 분야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통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고모부인 장성택 부부의 후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계자 내정 이후 김정일 사망 전까지 김정은은 '청년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고, <발걸음>, <나래치자 선군조선 천리마여> 등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노래가 북한 전역의 각 급 단위에 조직적으로 퍼져 나갔다. 북한 당국은 또한 2009년부터 컴퓨터수치제어를 의미하는 CNC를 등장시켜 후계자 김정은을 '기술혁신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우상화 정책은 체제 수호, 정권 수호의 나팔수임을 자처하는 문학예술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문학예술작품의 소재로 CNC가 자주 등장한 바 있다. 이제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문학예술계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 우상화 작품의 창작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의 연령대로 볼 때 우상화 방법론에 있어서는 -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활용했던 기이한 자연현상을 활용한 상징 조작 등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을 벗어나 - 한류에 버금갈 만한 예술 형식으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2012 문예연감

발 행 일 2012년 9월 30일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 152-83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26-1)
전화 02-760-4546 팩스 02-760-4704
홈페이지 www.arko.or.kr
편집·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평가부
제작·인쇄 현대애드컴
CD-ROM 현대애드컴

통권 36호 ⓒ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SSN 1226-2129-16
값 30,000원

- 이 책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예연감』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자료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 및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